

##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

# 제1장 계획의 개요

##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계획수립의 배경

#### 1) 국토계획의 기조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녹색성장전략을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 쏠지구적 기후변화와 에너지·식량 등 자원문제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선제적인 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국토관리방안 수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력 제고와 지역특화발전 도모
  - 녹색성장의 기반으로서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전략 마련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전방위적 FTA 확산, 초국적 협력과 경쟁의 증대, 아시아 경제권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여 국토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국토전략 수립
  -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지원·보완할 수 있는 전략 마련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초고속·친환경 교통망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전략 마련
-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토관리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설정
  -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저성장시대 진입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정책 패러다임 제시
  - G20 정상회담 개최국 선정, ODA<sup>1)</sup> 확대 등 국가품격 제고에 부합하는 국토구조 형성
  - 첨단 정보화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구조로 개편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

## 2) 지역여건의 변화

- 민선5기 출범을 통해 성장과 개발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인 변영 패러다임 정착
  - 변영 패러다임의 기본개념은 그 동안 성장 및 개발 일변도의 지역발전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환경과 인간의 공존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성장의 열매를 고루 향유하는 것임
-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지역내 100만 대도시 출현
  - 창원, 마산, 진해 3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탄생. 경남은 20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으며, 규모면에서 대도시로 전환된 통합창원시의 특성화발전과 타 시군의 연계발전이 지역발전의 과제로 대두
- 거가대교, KTX 개통 등 광역발전의 교통인프라 확충
  - 2010년 경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어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수도권과 창원을 직접 연결하는 KTX가 개통되어 경남지역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었음
- 저출산·고령화의 현실화 및 다국가간 FTA 체결로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도래
  - 200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인구성장 정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경남 군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2009년 30% 돌파)
  -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라 한-EU, 한-미 FTA 등 다국가간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농어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2. 계획수립의 목적

-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유·무형의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장·단기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함
- 2011년 1월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초와 정책을 경상남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민선5기 경상남도 도정철학인 변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을 이루며 경남의 전통적인 기간산업과 21세기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이동성 제고와 문화·관광,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추구 등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산업적으로는 조선·기계·항공 등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구조고도화와 풍력·연료전지·태양광 등 새로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이상의 다양한 외생적 여건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혁신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도록 함



##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

### 1.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 국토기본법 상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 단위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임

#### ■ 경남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 경상남도가 나아가 할 미래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1세기 경상남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 제시

#### ■ 공간환경·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10)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공간환경·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조정하는 종합계획임

#### ■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도 차원의 “지역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지역 계획임

#### ■ 시·군별,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

-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수립하게 될 시·도시기본계획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하위 법정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상위 지침계획임

### 2. 계획의 법적 근거 및 범위

#### 1) 법적 근거 및 수립절차

-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립됨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즉,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임
-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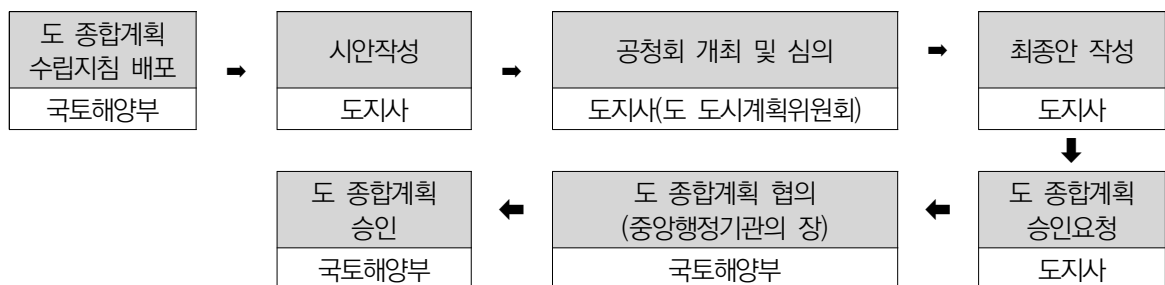
※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제7조

-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 도종합계획은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국토해양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수립(도지사) → ③공청회 개최(도지사) → ④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⑤국토부장관 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⑦도종합계획 승인(국토해양부장관)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2 - 2020년
- 기준년도 : 2010년

### (2) 공간적 범위

#### ■ 광역적 의미의 범위

- 경상남도의 지리적·공간적 위치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국토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부산·울산 등 동남권 일부 지역과 전남·전북 등 호남 광역경제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광역적 범위로 설정함

### 협회의 의미의 실천 범위

-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의미의 공간범위로는 2010년 말 경상남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창원시, 진주시 등 8개 시와 거창, 합천 등 10개 군지역, 그리고 행정적 관리구역에 포함되는 남해 일원을 대상으로 함

### (3) 내용적 범위

-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도종합계획 수립지침(2011. 3)에 따라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 국토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창의적 수용함으로써 2020년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의 방향성과 전략 제시
  - 지난 2008년 수립된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이후에 나타난 지역차원의 변화와 미래전망을 토대로 자주적인 지역의 미래발전 방향성과 전략, 각 부문별 실천과제 등 제시

#### ※ 도종합계획의 내용

#####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제2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기존 도종합계획의 진단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제5절 지역의 발전잠재력 및 계획과제 도출

##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 제1절 지역현황

####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 1) 지리적 여건

##### (1) 공간적 위치

-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산·울산광역시와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과 접경하고 있고, 서쪽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전라남도의 구례, 광양과 접하고 있음
- 경상남도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4분에서 129도 13분에 걸쳐 있음. 위도상 비슷한 지역은 일본의 교토(京都)와 나고야(名古屋), 지중해상 키프로스(Kypros), 미국의 오클라호마(Oklahoma) 등과 비슷함

〈표 1-2-1〉 경상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극 동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66	동경 129도 13분, 북위 35도 24분	동서거리 150km
극 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 127도 34분, 북위 35도 18분	
극 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 128도 05분, 북위 34도 29분	남북거리 158km
극 북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	동경 127도 53분, 북위 35도 54분	

##### (2) 지경학적 위치

##### ■ 환태평양경제권의 관문이자 환동해·환황해경제권의 연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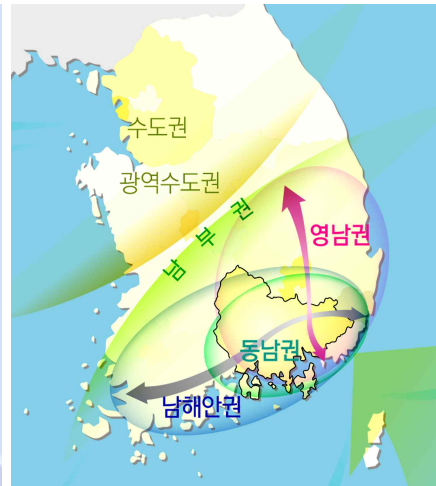
- 경상남도는 한국의 일본의 큐슈권, 중국의 상하이권으로 형성되는 환태평양경제권의 지리적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연결지역에 해당됨

## 국토 남부권의 중심지역

- 국토발전전략과 공간구조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는 동남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영남경제공동체 등 광역적 국토발전전략을 위한 3대 광역권의 핵심지역으로 국토 남부권의 중심지역에 해당됨



### 〈그림 1-2-2〉 지경학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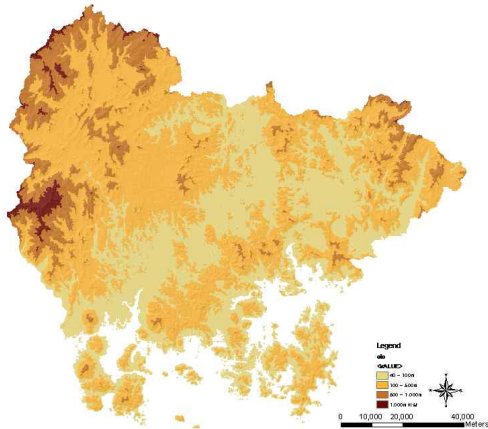


〈그림 1-2-3〉 국토 남부권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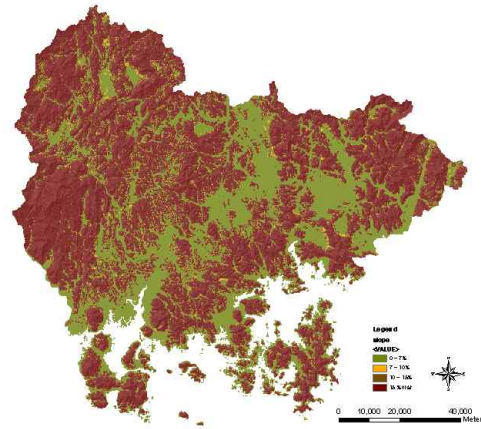
## 2) 자연환경

### (1) 지형·지세

- 경상남도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중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적 험준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지대는 표고(標高) 100m 이하의 저지대가 37%, 100~500m 지대가 49%, 500~1,000m의 지대가 12%,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2%에 불과하고, 동부 산악 지대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인 천황산(1,189m), 신불산(1,209m) 등 산악들이 발달해 있음
- 중앙 저지대는 낙동강 강변 지대로 낙동강은 본도에 들어와서 각 지류를 합하여 남해로 유입됨. 하류의 김해 지방에서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 산간지대는 경남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1,915m), 덕유산(1,614m), 백운산(1,279m) 등 고봉(高峯)이 이어 있으며, 특히 지리산 주변이 가장 험준함



〈그림 1-2-4〉 표고



〈그림 1-2-5〉 경사

## (2) 해안 및 하천

- 경상남도의 해안선은 침강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다도해와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537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음

〈표 1-2-2〉 해안선 및 도서현황(단위 : km, 개소, km<sup>2</sup>, 인)

구 분	해안선 (도서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	인구
창원시	292	49	8	41	3.39	1,116
통영시	638	250	42	208	90.87	7,981
사천시	174	45	10	35	4.88	1,398
거제시	443	73	10	63	21.66	3,093
고성군	186	23	2	21	1.38	38
남해군	306	75	3	72	2.49	121
하동군	73	22	1	21	1.24	153
소계	2,111	537	76	461	125.91	13,900

- 경상남도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섬진강 등 10개소의 국가하천과 함양 위천 등 674개소의 지방하천 등 총 684개의 하천이 입지하여 있음. 총 유로연장은 4,220.5km로 전국 하천 30,242.9km의 13.9%를 차지하고 있음
- 수계별로는 낙동강 수계 하천이 491개소 3,266.3km, 섬진강 수계 하천 22개소 180.6km, 회야강 8개소 28.4km, 기타 173개소 745.2km로서 낙동강 수계가 도내 하천 총연장의 77.4%를 차지함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05 - '10년 기간에는 전국(0.7%) 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인구비중은 1995년 이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대비 6.5%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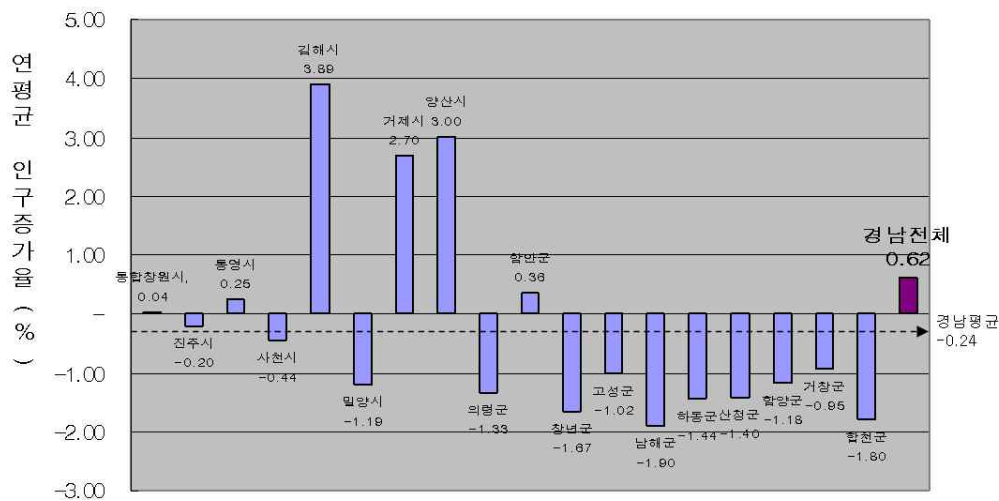
〈표 1-2-4〉 전국대비 경남인구비중 추이(1995~2010) (단위 : 인,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05~'10
전국인구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0.80	0.44	0.70
경남인구 (전국 대비 비중)	2,982,504 (6.5)	3,094,413 (6.5)	3,160,431 (6.5)	3,290,536 (6.5)	0.74	0.42	0.81

주 : 1995년 경남인구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경남의 인구로 정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해당년도)

## (2) 시군별 인구

-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인구의 시군별 비중은 창원시(33.1%), 김해시(15.3%), 진주시(10.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비중이 낮은 순서는 의령군(1.1%), 산청군(1.3%), 함양군(1.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이후 창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약하게 증가(0.04%)하였으나 경남도 전체인구 대비 비중은 감소(35.1% → 33.1%)하였음. 김해시(3.89%), 양산시(3.00%), 거제시(2.70%), 함안군(0.36%), 통영시(0.25%)를 제외한 시군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1-2-6〉 시·군별 인구성장률(2000~2010)

〈표 1-2-5〉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0-2010) (단위 : 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0~' 05	'05~' 10	'00~' 10
경남	3,094,413(100)	3,160,431(100)	3,290,536(100)	0.42	0.81	0.62
창원시	1,086,209(35.1)	1,086,530(34.4)	1,090,181(33.1)	0.01	0.07	0.04
진주시	341,822(11.0)	336,234(10.6)	335,037(10.2)	-0.33	-0.07	-0.20
통영시	136,864(4.4)	132,795(4.2)	140,297(4.3)	-0.60	1.11	0.25
사천시	119,326(3.9)	111,293(3.5)	114,148(3.5)	-1.38	0.51	-0.44
김해시	343,617(11.1)	443,017(14.0)	503,348(15.3)	5.21	2.59	3.89
밀양시	124,574(4.0)	113,636(3.6)	110,479(3.4)	-1.82	-0.56	-1.19
거제시	174,981(5.7)	195,609(6.2)	228,355(6.9)	2.25	3.14	2.70
양산시	193,552(6.3)	222,299(7.0)	260,239(7.9)	2.81	3.20	3.00
의령군	34,490(1.1)	31,099(1.0)	30,162(0.9)	-2.05	-0.61	-1.33
함안군	64,846(2.1)	61,376(1.9)	67,207(2.0)	-1.09	1.83	0.36
창녕군	73,019(2.4)	64,672(2.0)	61,714(1.9)	-2.40	-0.93	-1.67
고성군	63,423(2.0)	56,189(1.8)	57,231(1.7)	-2.39	0.37	-1.02
남해군	59,762(1.9)	51,825(1.6)	49,328(1.5)	-2.81	-0.98	-1.90
하동군	59,556(1.9)	53,131(1.7)	51,509(1.6)	-2.26	-0.62	-1.44
산청군	40,997(1.3)	36,294(1.1)	35,591(1.1)	-2.41	-0.39	-1.40
함양군	46,376(1.5)	41,535(1.3)	41,197(1.3)	-2.18	-0.16	-1.18
거창군	69,744(2.3)	64,735(2.0)	63,421(1.9)	-1.48	-0.41	-0.95
합천군	61,255(2.0)	58,162(1.8)	51,092(1.6)	-1.03	-2.56	-1.80

주 : ( )의 수치는 경남전체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해당년도)

### (3) 도시인구

- 경상남도의 도시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경상남도의 도시화율은 2000년 79.7%, 2005년 84.4%, 2010년 84.5%로 나타나 최근 들어 도시화율 증가세가 정체상태에 있음. 2010년의 84.5%의 경남 도시화율은 전국평균의 90.9%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00년-2005년 사이의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49%로 나타났으나, 2005년-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0.83%로 점차 둔화되고 있음
- 비도시지역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4.85%의 많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0.7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2-6〉 도시인구 변화추이(2000~2010) (단위 : 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0~' 05	'05~' 10
경남 전체	3,108,674	3,160,431	3,290,536	0.33	0.81
도시인구	2,477,250	2,667,951	2,780,310	1.49	0.83
비도시인구	631,424	492,480	510,226	-4.85	0.71
도시화율	79.7	84.4	84.5	-	-

주 :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를 의미함. 도시인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함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해당년도)

## 2)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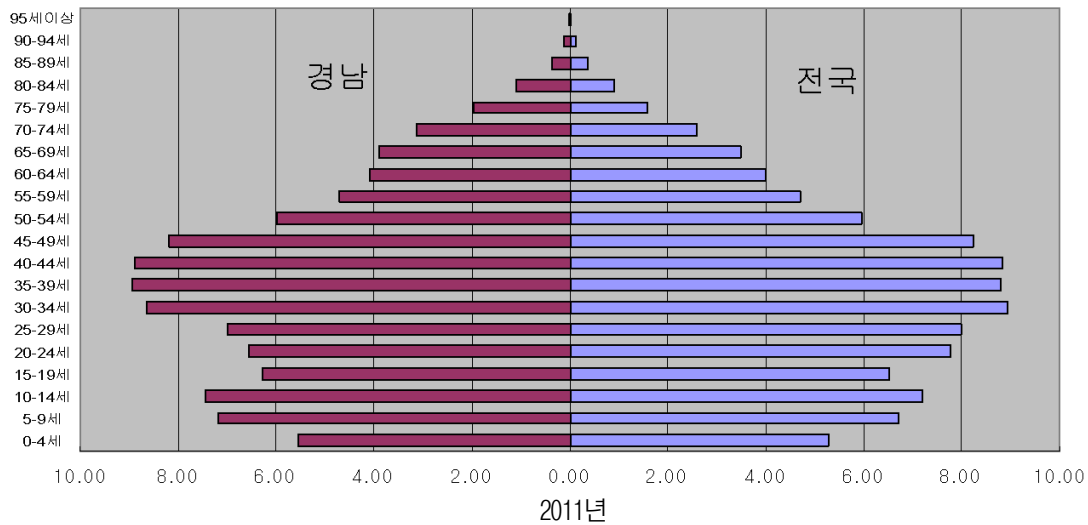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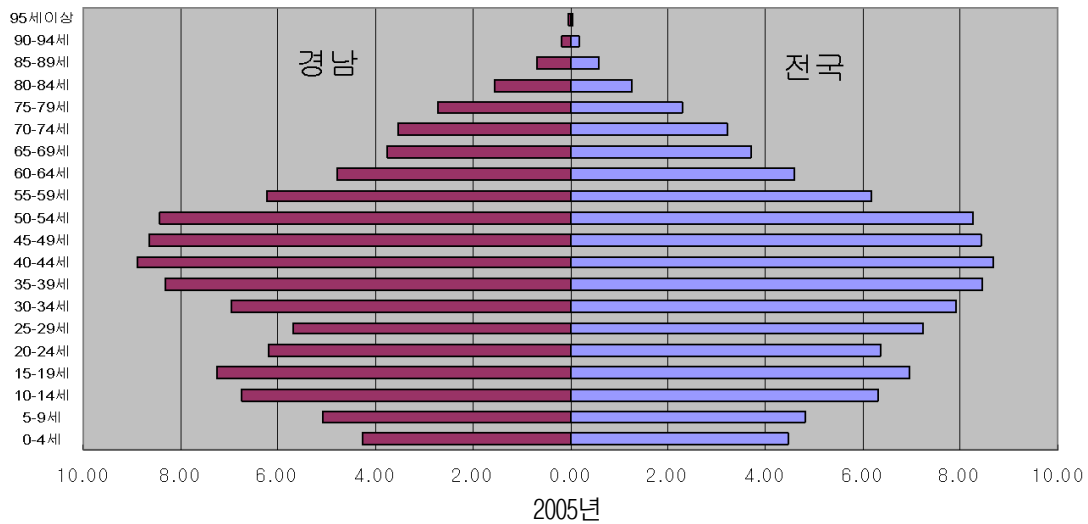
- 2010년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구조는 15세 미만의 인구가 16.6%로 전국 평균(15.9%)보다 조금 높은 반면 15-64세의 인구는 71.6%로 전국 평균(73.2%)보다 낮고, 65세 이상 인구는 11.8%로 전국 평균(10.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5세 미만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1-2-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1995-2010) (단위 : 인, %)

연령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계	45,858,029 (100)	2,982,504 (100)	47,732,558 (100)	3,094,413 (100)	48,782,274 (100)	3,160,431 (100)	50,515,666 (100)	3,290,536 (100)
15세 미만	10,477,476 (22.9)	686,773 (23.0)	9,958,802 (20.9)	660,028 (21.3)	9,257,949 (19.0)	622,109 (19.7)	8,019,969 (15.9)	547,606 (16.6)
15~64세	32,715,312 (71.3)	2,085,261 (69.9)	34,418,140 (72.1)	2,173,082 (70.2)	35,199,801 (72.1)	2,214,424 (70.1)	36,989,345 (73.2)	2,354,282 (71.6)
65세 이상	2,665,241 (5.8)	210,470 (7.1)	3,355,616 (7.0)	261,303 (8.5)	4,324,524 (8.9)	323,898 (10.2)	5,506,352 (10.9)	388,648 (11.8)

주 : 1995년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경남의 인구로 정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해당년도)



〈그림 1-2-7〉 전국 대비 경남의 연령별 인구비율 피라미드

### 3. 지역경제 현황

#### 1) 지역총생산

-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 기준의 경우 2000년 39,600십억원에서 2005년 58,251십억원, 2009년 77,213십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000년 46,836십억원, 2005년 58,251십억원, 2009년 68,383십억원으로 연평균 4.29%가 성장하였음
-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2000년 6.6%에서 2009년 7.2%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가격 기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9년 모두 6.8%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표 1-2-8〉 지역내 총생산(GRDP) 추세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00~'05	'05~'09	'00~'09
전국 GRDP	명목	603,733	869,305	1,065,665	7.56	5.22	6.52
	실질	694,628	869,305	999,311	4.68	3.55	4.18
경남 GRDP	명목	39,600 (6.6)	58,251 (6.7)	77,213 (7.2)	8.02	7.30	7.70
	실질	46,836 (6.8)	58,251 (6.7)	68,383 (6.8)	4.46	4.09	4.29

## 2) 산업 및 취업구조

### (1) 산업구조(실질 GRDP 기준)

- 경남의 실질 GRDP 기준으로 살펴 본 산업구조는 1985년 1차 산업 10.6%, 2차 산업 39.7%, 3차 산업 41.6%였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4.3%, 2차 산업 41.9%, 3차 산업 45.5%로 1차 산업이 대략 6% 감소, 2차 산업 2% 증가, 3차 산업 4%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각 산업비중의 변화를 경제발전단계별로 볼 때 경제적인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1차 산업에 대한 2차 산업, 2차 산업에 대한 3차 산업의 가중치가 커지게 되는데, 경남의 산업구조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줄고 3차 산업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음
- 다만,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GR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05년 37.7% → 2010년 41.9%)에 있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005년 49.1%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2010년 45.5%)

〈표 1-2-9〉 연도별 산업비중 (단위: %)

구 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85	10.6	39.7	41.6
1986	9.4	41.7	40.5
1987	7.6	43.6	40.2
1988	7.5	44.2	39.8
1989	6.9	43.0	40.6
1990	5.9	43.2	41.7
1991	5.2	43.0	42.3
1992	5.5	44.0	42.7
1993	5.2	44.7	42.5
1994	4.7	44.1	43.5
1995	5.0	41.6	45.3
1996	4.6	43.7	43.6
1997	4.2	42.9	44.9
1998	6.4	36.3	50.1
1999	7.0	37.1	48.5
2000	5.8	38.3	48.2
2001	6.1	38.9	47.4
2002	5.6	37.2	48.8
2003	4.8	37.3	49.4
2004	5.1	38.0	48.7
2005	5.3	37.7	49.1
2006	4.9	38.8	48.5
2007	4.8	38.4	48.8
2008	4.7	39.1	47.4
2009	4.9	39.1	47.7
2010)	4.3	41.9	45.5

주 : 통계청 잠정치. 실질 GRDP 기반 산업비중

## (2) 취업구조

- 경상남도의 취업구조는 2009년 현재, 1차 산업 취업자가 191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취업자의 12.6%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7.0%에 비해 높고, 2차 산업은 47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로 전국 평균 23.7%보다 높은 반면, 3차 산업 취업자는 56.4%로 전국 평균 69.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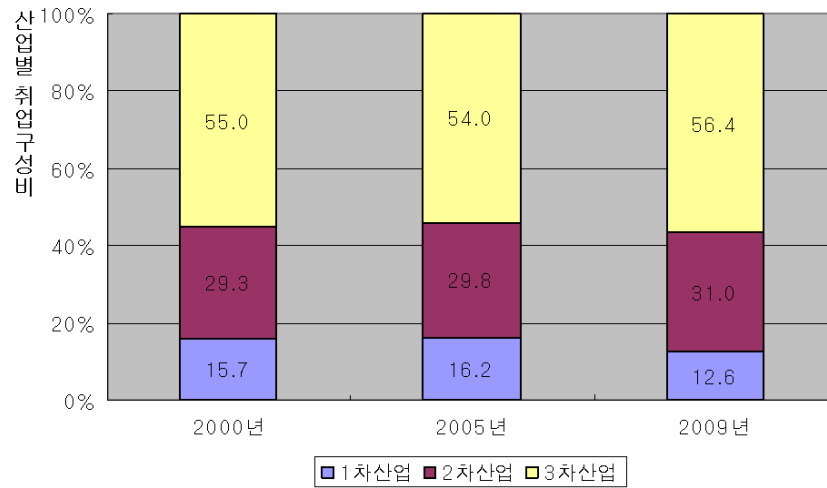
〈표 1-2-10〉 전국과 경남의 취업구조 비교표(2009) (단위 : 천명, %)

구 분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국	23,506 (100)	1,648 (7.0)	5,579 (23.7)	16,279 (69.3)
경남	1,520 (100)	191 (12.6)	471 (31.0)	858 (56.4)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1차 - A코드, 2차 - B, C, F코드, 3차 - 그 외)

자료 : 2010년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0년 한국통계연감

- 경남지역의 취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15.7%에서 2010년 12.6%로 조금 낮아졌으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조금 높아지고 있음



〈그림 1-2-8〉 경남의 취업구조 변화(2000~2009)

### 3)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계수(LQ)

- 경상남도의 시·군별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종사자수 기준의 입지계수(LQ)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경남지역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음료 제조업부문에서 특화되어 있음

〈표 1-2-11〉 경상남도 제조업의 시·군별 입지계수(종사자기준)

구분	식료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섬유 제조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코크 스, 연탄 및 석유 정제 제조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의료 용 물질 및 의약 품 제조	고무 제품 및 플라스 틱 제품 제조	비금 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제조	금속 가공 제품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 일러	기타 운송 장비	가구 제조	기타 제품 제조
경남	0.8	1.0	2.0	0.4	0.1	0.3	0.7	0.6	0.2	0.3	0.3	0.1	0.9	0.8	1.1	1.5	0.2	0.8	0.9	1.6	0.8	4.3	0.4	0.3
창원	0.2	0.0	0.0	0.0	0.0	0.0	0.6	0.1	0.3	0.0	0.0	0.0	0.2	0.2	1.1	1.8	0.3	1.7	2.1	3.0	1.2	1.6	0.1	0.1
마산	0.5	11.4	0.0	0.4	0.0	0.0	0.7	0.8	1.0	0.0	0.2	0.0	0.8	0.9	0.5	0.9	1.7	1.3	1.8	1.8	0.6	0.7	0.1	0.4
진주	0.8	1.2	0.0	2.4	0.1	0.0	0.0	5.7	0.0	0.0	0.5	1.1	1.3	2.8	1.3	0.5	0.0	0.2	0.1	2.3	1.5	0.2	0.3	0.0
진해	0.6	0.0	0.0	0.1	0.0	0.0	0.0	0.0	0.0	0.0	0.1	0.0	0.2	0.8	4.4	0.8	0.0	0.6	0.1	0.3	0.0	9.3	0.0	0.7
통영	1.8	0.2	0.0	0.0	0.1	0.0	0.1	0.0	0.0	0.0	0.1	0.0	0.1	0.2	0.0	0.8	0.1	0.0	0.0	0.0	0.0	12.9	0.1	0.0
사천	1.3	0.4	34.0	0.0	0.0	0.0	0.1	0.9	0.0	0.0	0.1	0.0	0.0	0.7	0.5	0.4	0.6	0.0	0.4	1.4	0.4	8.1	0.0	0.0
김해	0.8	0.0	0.0	0.8	0.1	1.4	1.7	0.8	0.2	1.0	0.7	0.1	1.9	0.8	1.4	1.9	0.1	0.3	0.8	2.0	1.1	0.5	1.2	1.1
밀양	1.5	2.0	0.0	2.9	0.0	0.0	0.7	0.9	0.4	0.8	0.4	0.0	1.7	6.3	1.1	1.2	0.1	0.3	0.2	1.0	0.9	0.3	0.8	1.1
거제	0.3	0.0	0.0	0.1	0.0	0.0	0.1	0.0	0.0	0.0	0.0	0.0	0.0	0.2	0.2	1.4	0.0	0.0	0.0	0.0	0.0	13.9	0.0	0.0
양산	1.3	1.6	7.0	1.4	0.6	0.3	0.4	1.4	0.0	1.3	1.0	0.4	3.4	1.0	1.3	1.4	0.2	1.3	0.7	0.7	0.9	0.2	1.3	0.1
의령	2.6	3.8	0.0	0.5	0.0	0.0	0.0	4.9	1.2	0.0	0.3	3.6	0.2	1.7	1.1	2.1	0.0	0.0	0.6	0.7	1.0	1.8	0.0	0.0
함안	0.9	1.8	0.0	0.4	0.0	0.0	0.9	1.1	0.1	1.0	1.0	0.3	0.4	1.4	3.0	2.0	0.1	0.5	0.5	2.9	0.5	0.5	0.4	0.7
창녕	2.9	0.0	0.0	0.4	0.0	0.0	0.0	1.0	0.0	0.0	1.3	0.0	0.8	1.7	1.7	1.3	0.1	0.0	0.3	1.5	2.0	0.1	1.3	1.8
고성	3.3	0.6	0.0	0.0	0.0	0.5	0.6	0.0	0.0	0.0	0.4	0.0	0.0	0.4	0.3	1.1	0.0	0.9	0.0	0.0	0.0	9.8	0.6	0.0
남해	6.3	0.0	0.0	1.8	0.0	0.0	0.0	0.0	0.0	0.0	1.4	4.8	0.0	1.6	1.2	0.8	0.0	0.0	0.0	0.0	0.0	4.0	0.0	0.0
하동	4.8	2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	11.0	0.7	0.0	0.0	0.0	0.0	0.0	0.0	1.1	0.0	0.0
산청	2.2	26.8	0.0	0.6	0.0	0.0	3.7	1.2	0.0	0.0	0.8	0.0	0.0	12.1	0.0	0.0	0.0	3.0	1.0	0.0	0.0	0.0	0.0	12.6
함양	4.6	12.8	0.0	0.4	0.0	0.0	0.0	0.6	0.0	0.0	0.3	0.0	0.0	14.3	0.7	1.1	0.0	0.0	0.0	0.1	0.0	0.0	0.0	0.0
거창	10.1	13.8	0.0	0.0	0.0	0.0	3.0	0.0	0.0	0.0	0.0	0.0	0.0	4.4	1.6	0.3	0.0	0.0	0.0	0.3	0.0	0.0	0.0	0.0
합천	1.8	11.6	0.0	4.6	0.0	0.0	0.0	0.0	0.0	0.0	0.6	0.0	0.3	18.7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주 : 종사자기준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 / 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LQ &gt; 1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LQ = 1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 LQ &lt; 1이면 전국에 비해 「비특화」

자료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2010.



## 4. 인문 및 사회환경

### 1) 토지이용

#### (1) 지목별 토지이용

- 경상남도의 2009년 지목별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6.4%, 농업용 토지가 19.1%, 임야 67.4%, 기타 7.2%의 이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토지이용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경남의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이용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1-2-12〉 전국과 경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9) (단위 : km<sup>2</sup>, %)

구 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야	기 타
전 국	99,897.4 (100)	6,871.0 (6.9)	20,844.5 (20.9)	64,472.0 (64.5)	7,709.9 (7.7)
경 남	10,532.1 (100)	674.9 (6.4)	2012.1 (19.1)	7,082.2 (67.3)	762.9 (7.2)

주 : 도시용 토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체육용지, 공원), 농업용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기타(도시용, 농업용, 임야를 제외한 토지)

자료 : 2010년 한국통계연감

#### (2) 도시지역

- 경상남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1,845.98km<sup>2</sup>로 경남 전체면적의 17.53%에 해당됨. 이는 전국의 도시면적 비율인 16.92%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81.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이 10.45%, 공업지역이 4.52%, 미지정지역이 2.37%, 상업지역 1.4%의 순으로 나타남
- 용도지역 분포의 특징을 전국 비중과 비교하여 보면, 주거지역의 경우 경남의 비율은 10.45%인데 비해 전국은 12.29%로 나타나 경남의 주거비율이 낮고, 녹지지역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많은 녹지비율을 보유하고 있음

〈표 1-2-1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 km<sup>2</sup>, %)

구 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16,901.61 (100)	2,077.97 (12.29)	261.24 (1.55)	788.55 (4.67)	12,633.98 (74.75)	1,139.86 (6.74)
경남	1,845.98 (100)	192.92 (10.45)	25.84 (1.4)	83.51 (4.52)	1,500.02 (81.26)	43.68 (2.37)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 (3) 비도시지역

- 경상남도의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54.68%로 가장 높고, 관리지역 23.98%, 자연환경보전지역 21.3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1-2-14〉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 km<sup>2</sup>, %)

구 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89,042.92 (100)	25,969.99 (29.17)	51,047.12 (57.33)	12,025.81 (13.51)
경남	9,931.45 (100)	2,381.45 (23.98)	5,430.63 (54.68)	2,119.36 (21.34)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 2) 사회간접자본시설

- 경상남도의 계획도로연장은 2010년 12,726km로서 전국 비중의 12.1%이며, 도로 포장률은 68.7%로 전국 평균 79.8%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표적 생활환경지표인 상·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2009년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3.5%에 비해 경남은 87.2%로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아 향후 전국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됨.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연평균 4.62%의 증가율을 보여 2010년에는 전국 평균 75.4%를 상회하는 75.7%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 경상남도의 주택보급률은 구 주택보급율 기준으로 2010년 121.8%로 나타나 전국 평균 112.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2-15〉 전국과 경남의 생활환경지표 비교 (단위 : %)

구 분		년 도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00- '05	'05- '10
도로 포장률	전국	75.8	76.8	79.8	-	-
	경남	65.6	66.6	68.7	-	-
상수도 보급률	전국	87.1	90.7	93.5	0.8	0.8
	경남	74.6	82.6	87.2	2.1	1.4
하수도 보급률	전국	63.4	68.2	75.4	1.49	2.55
	경남	58.1	63.2	75.7	1.7	4.62
주택 보급률 (구 주택보급율)	전국	91.9	100.0	112.9	1.72	2.46
	경남	100.3	107.5	121.8	1.39	2.52

주 : 상·하수도 보급률은 2009년 자료임

자료 : 도로포장률(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서, 해당년도), 주택보급률(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상·하수도보급률(환경부 상·하수도 통계, 해당년도)

### 3) 사회복지시설

- 2008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3,228개소가 있으며 141,952명이 수용되어 있음.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수와 수용인원의 전국 대비 비중은 6 - 7%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유형별 시설수 비중은 노인복지시설이 62.6%, 아동복지시설이 14.1%, 장애인복지시설이 12.1%, 여성복지시설이 7.6%,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이 2%, 부랑인시설이 1.5%를 차지함
- 유형별 수용인원수 비중은 노인복지시설 57.2%, 장애인복지시설 13.8%, 아동복지시설 13.4%, 정신질환자요양시설 8.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2-16〉 전국과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2008)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 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시설수	수용인 원
전국	3,228 (100)	141,952 (100)	365 (11.3)	18,275 (12.6)	2,144 (66.3)	77,348 (53.2)	403 (12.5)	23,175 (15.9)	221 (6.8)	5,878 (4.0)	58 (1.8)	12,228 (8.4)	43 (1.3)	8,495 (5.8)
경남	198 (100)	9,639 (100)	28 (14.1)	1,287 (13.4)	124 (62.6)	5,516 (57.2)	24 (12.1)	1,329 (13.8)	15 (7.6)	396 (4.1)	4 (2.0)	806 (8.4)	3 (1.5)	305 (3.2)
비율	6.1	6.8	7.7	7.0	5.8	7.1	6.0	5.7	6.8	6.7	6.9	6.6	7.0	3.6

자료 :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2009

### 4) 문화관광자원

- 경상남도에는 4개소(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의 국립공원과 2개소(가지산, 연화산)의 도립공원이 분포되어 있음
- 대표적인 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경상남도에는 총 1,567점의 국가·지방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이 존재하고 있음
- 22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8개의 대규모 향토문화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음

〈표 1-2-17〉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 분		개소수	분 포 지 역
자연 자원	국·도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4개소) :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 도립공원(2개소) : 가지산, 연화산
	온천	3개소	부곡, 마금산, 가조
역사 문화 자원	문화재	1,567점	국가지정문화재(269점), 지방지정문화재(751점), 문화재자료(510점), 등록문화재(37점)
	향토문화축제	8건	하동 야생차문화축제(5월), 산청 지리산한방약초축제(5월), 통영 한산대첩축제(8월), 진주 남강유등축제(10월), 김해 분청도자기축제(10월) 등
관광 자원	지정관광지	22개소	도남, 당항포, 표충사, 수승대, 마금산, 송정 등
	관광특구	2개소	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11

## 제2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 1) 계획의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2) 계획의 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 품격있는 매력 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 3)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그림 1-2-9〉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4) 동남권 발전방향 : 환태평양 시대의 항만·물류 및 기간산업 중심지

##### (1) 기본목표

- 동북아 국토개방 및 국제교류 중심지
- 동북아 국제무역·금융·컨벤션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해양문화·생태관광의 국제거점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환동해 녹색에너지 성장 거점

##### (2) 권역의 발전방향

###### ①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 육성

-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항만을 중심으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usiness Valley) 육성
- 동북아 선도 금융거점 육성을 위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에 해양·파생 특화금융 거점 구축
- E-해양금융허브를 통한 해양관련 전자금융의 국제화로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 수요에 대응
- 지역특화 파생상품 개발의 집중 투자 및 상품거래소 설립으로 신상품시험상장 제도 도입
- 선박금융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해운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 ② 환태평양시대 유라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국토 개방거점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항만물류 중심기지 구축과 복합운송체계 및 교통인프라 구축
- 지역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남권 환상형 내륙순환도로 구축 및 지역 교통난 해소

###### ③ 동북아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신성장동력 및 수송기계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촉진할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구축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전환으로 국가기간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한 동남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국제물류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역할 증대와 첨단산업(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등) 위주로 산업구조 고도화
- 동남권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및 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동남권 메디

컬클러스터 조성 추진

- 지역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④ 녹색성장의 동력 및 성장거점 육성

- 동남권의 주력산업에 대해 저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 생태공원 조성,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
- 기존 개별입지의 집적지 재정비를 통한 산업단지화 추진 및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 충전시스템 구축 및 디젤하이브리드차, CNG버스 보급 확대 등 그린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동북아 해양문화·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동북아 국제 관광루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해양레저관광클러스터 구축
- 문화·관광콘텐츠화를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거점을 육성하고, 권역내 특화 관광루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특화축제강화 및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육성
- 동남권 신성장거점지역 설정 및 주요 전략산업과 연계 강화와 상호 보완성 제고
- 낙후지역의 기본적 생활서비스 시설의 우선입지 및 균형입지 추진

#### ⑤ 협력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광역자치제 구성 및 광역 거버넌스 기구 설치 등을 통해 타 권역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산업 중심의 산업별 광역 산·학·연·관 협의체로 확대·연계
- 초국경 광역경제권(동남권-큐슈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발전축 형성 및 동북아 핵심 경제권으로 도약을 통한 동북아 통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상생 발전모델 제시
- 동남권 새로운 특화산업 발굴·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및 신항만 운영합리화 사업 등 공동 추진
- 생활기반시설의 확충하여 권역내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차 수정계획(2001 ~ 2020)

### 1) 계획의 목표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 상호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 트워크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

### 2) 추진전략

#### ① 부문간 효율적 스톱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 ②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 ③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 ④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 ⑤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체계 강화
-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그림 1-2-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 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 ~ 2021)

#### 1) 계획의 비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 2) 계획의 목표

-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 3) 추진전략

##### ①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광개발 체계 개선
- 체계적 관광자원 개발·운영을 위한 관련제도의 실효성 확보

##### ②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 미래관광 개발을 선도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환경 구축
- 관광공간, 관광콘텐츠 확대를 통한 관광개발 영역 확장

##### ③ 문화를 통한 품격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고품격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국문화 명품화 및 세계화
-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역 창출

##### ④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여가문화 정착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소득수준, 연령별 특성,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관광개발 유도

##### 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확산

- 자연자원에 기반한 녹색관광지역 확충 및 생태적 지속성 제고

- 관광자원의 친환경적 관리운영 방식 활성화

#### ⑥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남북한 관광개발 기반 확충
-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관광교류 확대로 상생과 공동발전 도모

### 4) 광역관광권 추진전략

#### (1) 부·울·경 관광권 : “해양레저·크루즈관광 중추지역”

-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허브 구현
- 남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 경쟁력 있는 해양·휴양관광 육성
-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 산·강·바다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연계벨트 조성

#### (2) 사·도별 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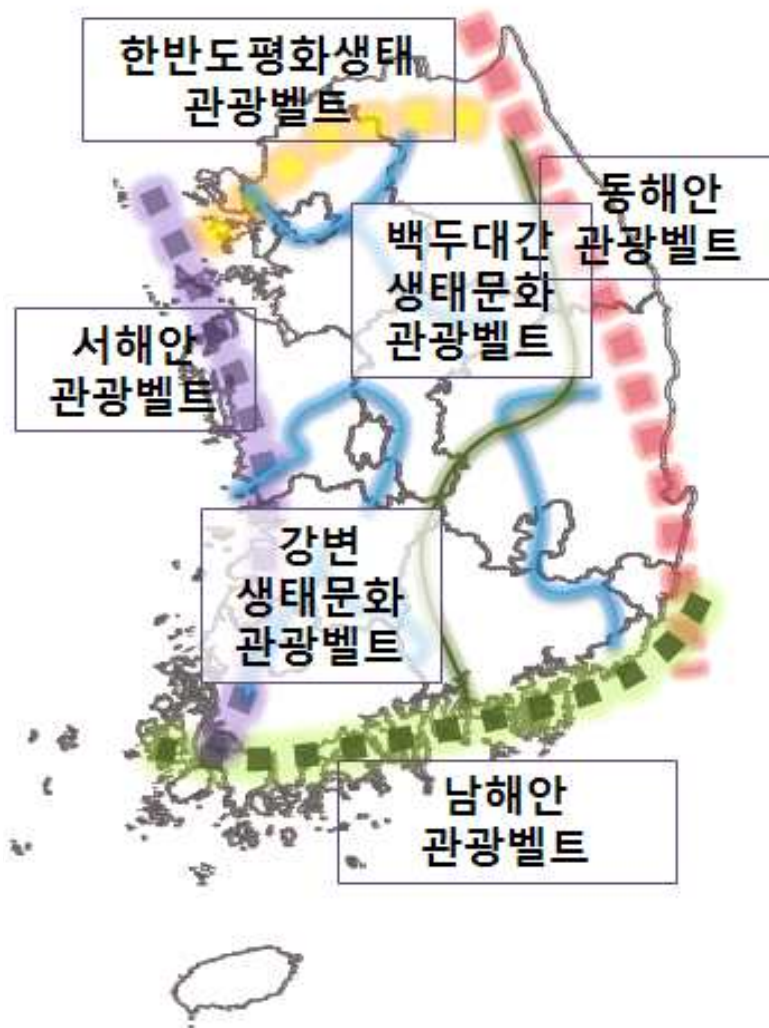
##### ■ 경상남도 : 사계절 관광휴양 중심지

- 한려해상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기반 구축
- 가야·불교문화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기반 조성
- 우포늪을 중심으로 낙동강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지리산권과 해안을 연결한 보양휴양 관광벨트 구축

### 5) 초광역 관광벨트 추진전략

#### □ 남해 다도해안을 연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 해안권-제주-중·일 등 근해 및 세계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크루즈 항로를 개설하고 국제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 남중권(여수·순천·광양·사천·하동·남해)을 중심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그림 1-2-11〉 초광역 관광벨트

## 4.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 ~ 2013)

### 1) 계획의 비전

환태평양시대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

### 2) 계획의 목표

- 산업 및 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 환태평양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 및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 지역적 특성을 제고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동남권 조성
- 초국경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구축

### 3) 추진전략

#### ① 산업 및 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동남권 특화 관광의 창출
- 융합부품·해양자동차·조선산업의 특성화 창출

#### ② 환태평양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 및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클러스터 강화
- 국제복합 교통망 확보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기존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구축

#### ③ 지역적 특성을 제고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 해양·자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자원 연계벨트 구축
- 휴양·레저·크루즈 등 복합 국제해양관광 허브 구축

#### ④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동남권 조성

-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명품 Green 공간 확보
- 저탄소·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⑤ 초국경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구축

- 시장 · 기술 · 생산체계의 국제적 분업체계 육성
- 초광역권(큐슈) 시장과 연계한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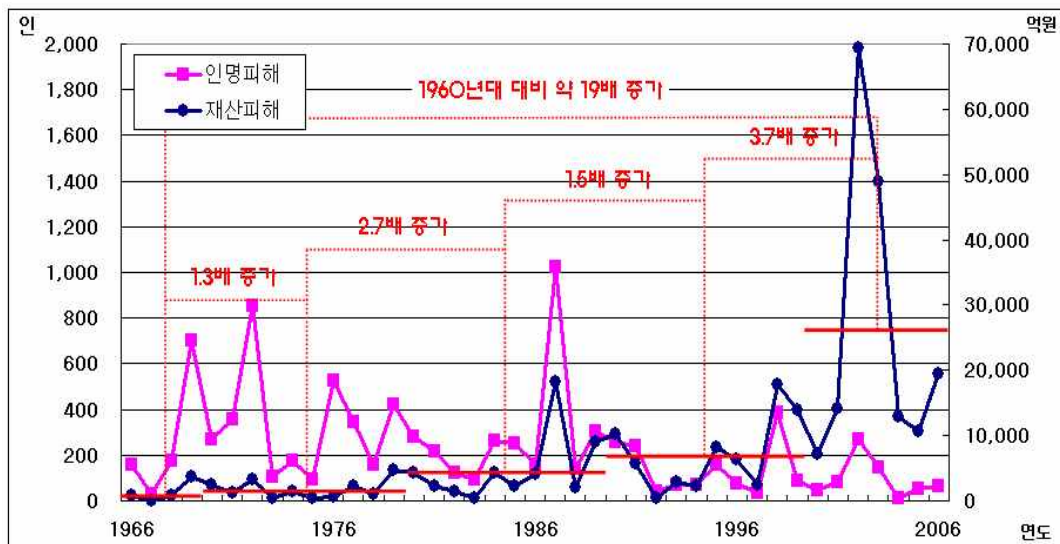
##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기존 도종합계획의 진단

1.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sup>2)</sup>

## 1) 지구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 ■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심화

-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 고조
  - 교토의정서(1997), 발리로드맵(2007)<sup>3)</sup> 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논의 확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요구 심화
  -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감 고조
  -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에너지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그림 1-2-12〉 연대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 기후변화에 따라 물부족,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3)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으로 채택한 협약.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38개국 선진국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됨.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포함됨.

- 물부족(20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요구
- 국토공간 디자인과 품격 향상을 위한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증대 예상

#### ■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제 가속화

- 전방위적인 FTA 추진이 확산되고,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한-미, 한-EU 등 글로벌 FTA시대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 대외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산업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가 중요시될 전망
-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간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
  - 기존의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이 직접 세계시장에서 타지역과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간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단위 지역경제권 형성 심화
  -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보유 등이 보다 중시될 전망

## 2) 한국의 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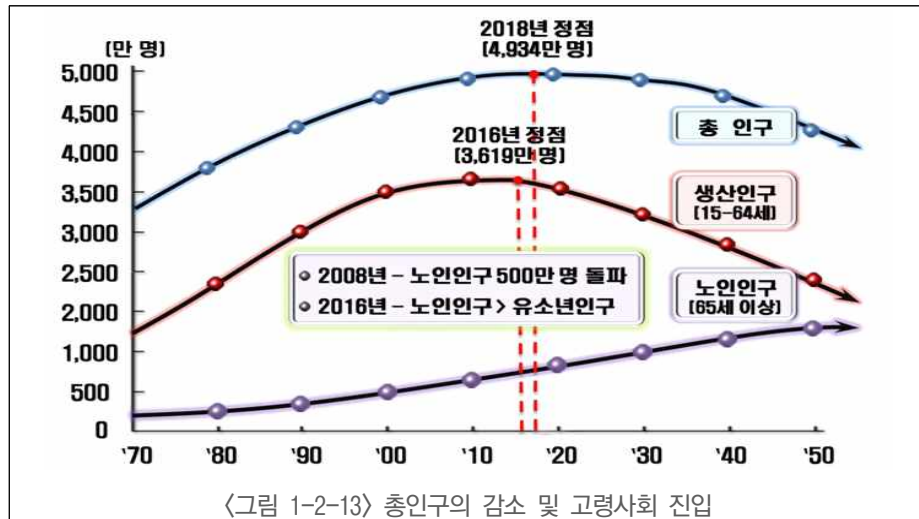
#### ■ 인구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 향후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 연령대별 인구구조는 역사다리꼴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30년 4863만 명에 이를 전망<sup>4)</sup>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고령화율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고령화 속도<sup>5)</sup>는 OECD국가 중 1위(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 24년, 한국 18년)로 급속히 진행될 전망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시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 변화 예상
  - 도시기반시설 정비, 다양한 정주 및 교통환경 구축 등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경제저성장시대의 도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량공급 위주의 공공정책이 한계를 노정

4) 통계청. 2009.1.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5)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료 :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재구성.

### 교통·생활 혁명으로 U-Green 통합형 시대 전개

-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터스-그린(Ubiquitous-Green) 통합형 시대가 본격 전개될 전망
  - 신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교통시스템(ITS)<sup>6)</sup>,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대될 전망
-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통근권, 경제·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 예상
  - 2017년까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고속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환경관련 국민의식 변환, 소득증대 등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경제, 산업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적 질적 생활환경의 추구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에의 요구 증대
  -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으로 소비하기 위한 여가·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배려 필요성 증대
  - 고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 공급, 장애인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생활시설공급 등이 더

6)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육 중요한 가치로 부각

#### ■ 남북 교류 및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기반 강화

- 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간 교류 증진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 2030년 한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2%, 한·중·일 경제권은 42%에 이를 전망
  -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역내 중추지위 확보가 중요시될 전망
-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신뢰확보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 3) 국토환경의 현안문제 및 과제

#### ■ 기후변화 대응 미흡 및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공간의 지속

- Post 2012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미흡
  -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구조,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의 42%가 건물·교통 부문에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
  - 도심내 주거·상업지역 등의 일률적 구분(zoning), 승용차 위주 교통체계 등으로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에너지 가격 급등,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관한 대비책 마련과 해양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
-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에 부합하는 국토발전전략 마련 미흡
  -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녹색성장국가전략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전략 마련 필요
-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국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국토관리방안 미흡
  - 강, 산림, 연안 등 생태계 구성요소별 특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국토관리네트워크의 단절이 초래되고 있어 국토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한 종합적 방재시스템 및 체계적 대처방안 미흡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의 반복·대형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대비태세 마련 및 사전예방 투자 확대 필요

#### ■ 유라시아-태평양 관문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국토기반 취약

- 유라시아-태평양 중추국가 지위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원화를 위한 경직적·물리적인 규제로 국제경쟁을 선도해야 할 수도권

의 경쟁력 저하

- 국가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보완할 수 있는 계획 마련 필요
- 지경학적 위치는 우수하나 각종 규제, 높은 토지비용, 취약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시장, 불편한 생활여건 등으로 실제 투자유치 성과는 미흡
  -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엄격한 행위 제한 등으로 토지 확보 및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한 전략 마련과 투자유치 제도 정비 필요

###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기반 미흡

-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국토관리 기반 형성 미흡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패턴 변화, 주택수요의 변화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성 증대
  -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 외국인 정책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성 증대
- 저성장시대 도래에 대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흡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 지속
  -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형 국토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실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이용 및 관리 방식 정립 필요
  -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토지이용전략과 수요맞춤형 국토공간 조성

### ■ 지역의 자립적 통합발전 기반 취약

- 광역화되는 산업·경제활동에 대응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관리의 미정착
  - 도시주변의 개별적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 및 농지, 산지의 효율적 보전·활용 곤란
  - 지역간 개발 및 갈등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수단 및 협상문화의 형성이 미흡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성장기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취약
  - 2008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1%(2475만명), 제조업체의 56.9%가 수도권에 집중
  - 지방의 산업구조는 수도권과의 교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교역형 경제구조 형성<sup>7)</sup>
- 고속철도 등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재편 전략 미흡
  - 초고속 교통망의 확대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에 진입하여 기업 및 국민의 활동공간

7) 한국은행, 2007.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구조 형성 필요

- 산업 및 인구의 재배치, 생활권 확대 등 국토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 양질의 정주환경 및 사회통합 기반 미흡

-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주택재고가 부족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상존
  -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350호(2009년)로 선진국의 70%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3%를 차지
  - 선진국형 정주환경 및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국토경관의 품격이 저하되고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어우러진 고품질의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
  - 아파트 건설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미흡
  -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정시설 공급 및 자원 활용은 미흡
  - 적정 수준의 문화·여가시설 공급 및 강, 산, 해안 등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 필요
- 고령인구,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이 불충분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설계 기준 마련, 교육 및 복지시설 공급 확대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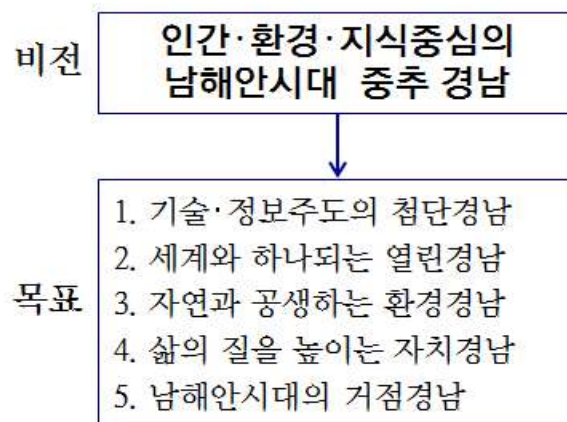
####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선도형 산업기반 미흡

- 녹색성장을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육성하기 위한 성장기반 조성 미흡
  - IT 산업, 나노산업, 생명공학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신성장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은 미흡
  - 신성장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형 산업의 특화발전 미흡
  - 기존 도심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첨단 신성장산업 입지 자체가 곤란하여 도시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도 작용
- 육지부 중심의 국토이용 전략으로 해양영토 및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
  -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해양자원의 발굴·활용 및 산업화전략 마련 필요

## 2. 기존 도종합계획의 성과진단

###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지난 2008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 2020)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남해안시대 중추 경남”으로 설정하여, 인간과 환경 그리고 지식의 3대 개념을 도정의 중요 가치로 설정한 바 있음
- 이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미래 중요 가치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며, 당시 민선 4기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인 남해안시대를 도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채택한 것임
-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① 기술·정보주도의 첨단경남, ②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경남, ③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경남, ④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경남, ⑤ 남해안시대의 거점경남 등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그림 1-2-15〉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과 목표

-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기술·정보주도의 첨단경남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 첨단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연구기반 확충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경남을 위해서는 대외지향적 교통망 구축, 지역교통체제 확충, 유통·물류 혁신, 국제교류 활성화, 정보화 기반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경남을 위해서는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매력 있는 경남경관 조성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경남을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 복지체제 확립,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선진화,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남해안시대의 거점경남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도시별 개성을 갖는 특성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현, 지역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교통망 확충, 환경 및 경관관리, 복지 및 문화관광, 균형발전, 인적자원 등 21세기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2) 계획지표

- 2008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표를 인구와 경제지표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먼저 인구는 당시 2010년의 경남도 인구를 314만으로 계획한 바 있는데 2010년 현재의 인구가 추계인구 기준 318만으로 약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18〉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지표 평가

구분		단위	기준 연도 2006	도종합계획(2008) 지표			2010 현재	비고
대분류	소분류			2010	2016	2020		
인구 지표	총인구	만명	312	314	314	315	318	초과
	평균수명	세	79.2	79.1	80.1	81.0	80.6	초과
경제 지표	지역총생산	10억원	61,735	104,650	144,900	191,475	77,213	미달
	1인당 지역총생산	천원	19,787	29,900	40,250	51,750	24,590	미달
	수출액	백만불	31,338	35,300	71,000	105,000	58,379	초과
	수입액	백만불	18,186	25,332	50,951	76,327	30,274	초과
	GRDP대비 R&D비중	%	2.0	6.8	7.2	8.0	1.8	미달

- 경제지표 중 지역 총생산은 104조로 계획하였으나, 2010년 현재 실질기준 77조로 약 70%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1인당 GRDP 역시 2,990만원 정도를 목표로 삼았으나 2010년 현재 2,460만원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수출과 수입은 상당한 초과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2008년 계획에서는 353억 달러를 수출할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2010년 584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253억 달러의 수입액을 예상하였으나 2010년 현재 303억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인구지표는 계획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추계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경제지표는 총생산 관련 지표가 상당 수준 미달되었고, 수출수입액은 초과 달성되어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 경제지표의 목표치와 실제의 차이는 계획수립 당시의 지역여건이 IMF 외환위기가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보여 온 지속적인 고성장(연간 10% 내외의 경제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 때문으로 보여지며, 수출액의 초과 달성은 최근의 조선경기 활황에 따른 지역 조선산업의 수출액 증가가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됨

##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 1. 주민의식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경상남도 도민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설계

- 주민의식 파악을 위해 설정한 조사설계는 다음과 같음

〈표 1-2-19〉 조사설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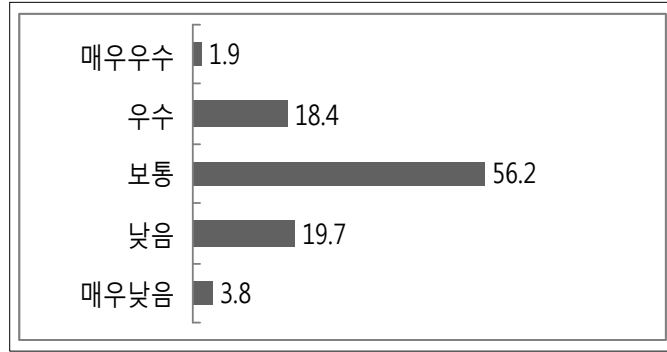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모집단	경상남도 거주자 약 320만명 (국가통계 포털 2009년 기준) 대상
표본크기	1,000부 (현장 면접조사) / 경상남도민 1,000명 대상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배분 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표본오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0.5\%$ 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 조사
조사기간	2011년 12월 15일 ~ 12월 28일(14일간)

### 2.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 1) 지역의 발전수준

##### 주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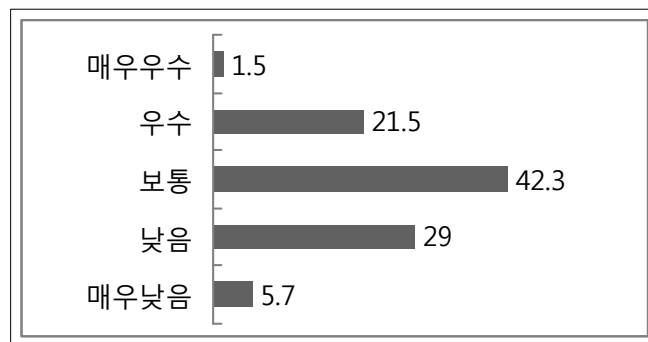
- 현재의 경상남도의 주거환경에 대한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보통’ 이 가장 높게(56.2%) 나타났고, ‘낮음’ 과 ‘우수’ 는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림 1-2-15〉 주거분야 발전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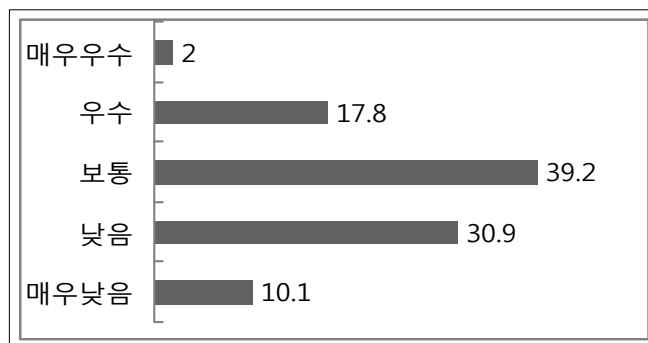
### 경제분야

- 현재의 경상남도의 경제적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보통’ 이 가장 높게(42.3%) 나타났고, ‘낮음’ 이 29.0%, ‘매우 낮음’ 이 5.7%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1-2-16〉 경제분야 발전수준 평가

### 교통인프라분야



〈그림 1-2-17〉 교통인프라분야 발전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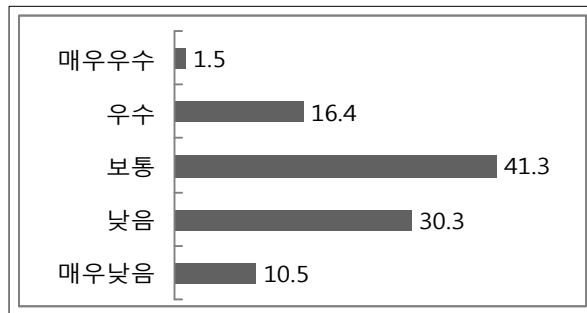
- 현재의 경상남도의 교통인프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 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낮음’ 이 30.9%, ‘매우 낮음’ 도 10.1%로 평가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관광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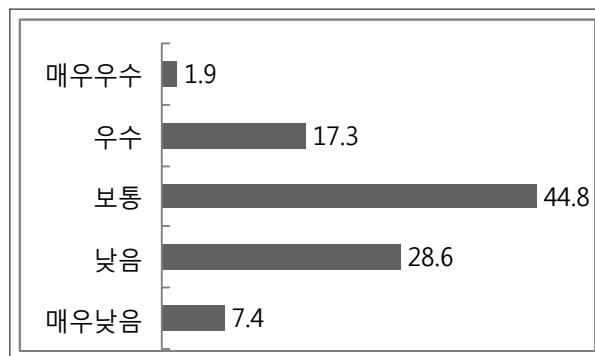
- 현재의 경상남도의 문화관광분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 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낮음’ 이 30.3%, ‘매우 낮음’ 도 10.5%로 평가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2-18〉 문화관광분야 발전수준 평가

### 사회복지분야

- 현재의 경상남도의 사회복지분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 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낮음’ 이 28.6%, ‘매우 낮음’ 도 7.4%로 평가되어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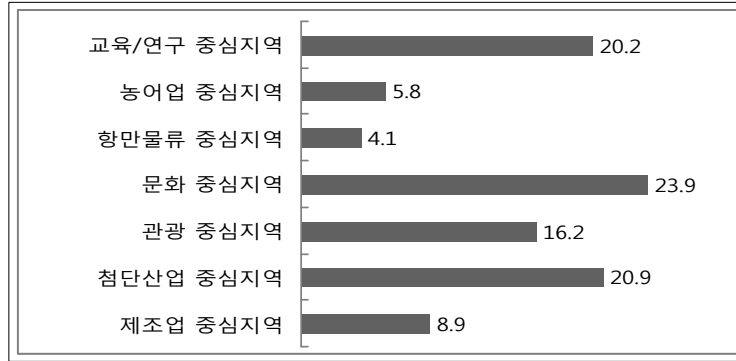


〈그림 1-2-19〉 사회복지분야 발전수준 평가

## 2) 지역의 미래

### 미래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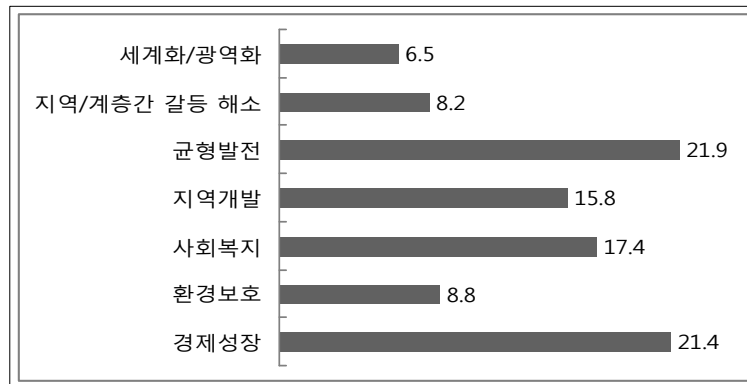
- 앞으로 경상남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중심지역’ 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첨단산업 중심지역’ 이 20.9%, ‘교육/연구 중심지역’ 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20〉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모습

### 미래발전의 중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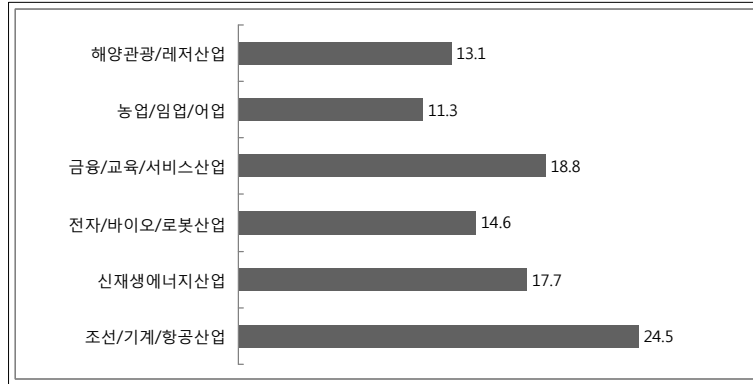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균형성장’ 이 21.9%로, ‘경제발전’ 이 21.4%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21〉 지역발전의 미래가치

### 미래의 중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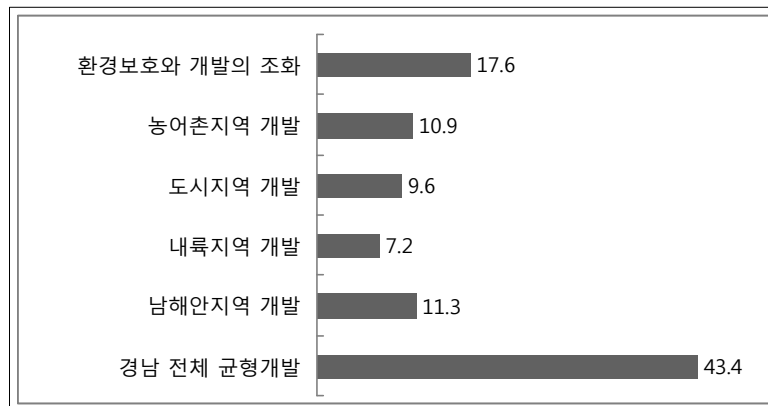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기계/항공산업’ 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금융/교육/서비스산업’ 18.8%, ‘신재생에너지산업’ 17.7%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22〉 지역의 미래 중요 산업

###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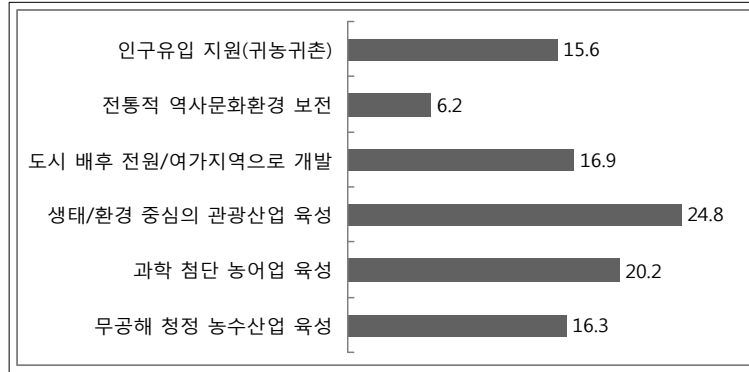
- 앞으로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해 경상남도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경남 전체 균형개발’이 43.4%,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 17.6%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23〉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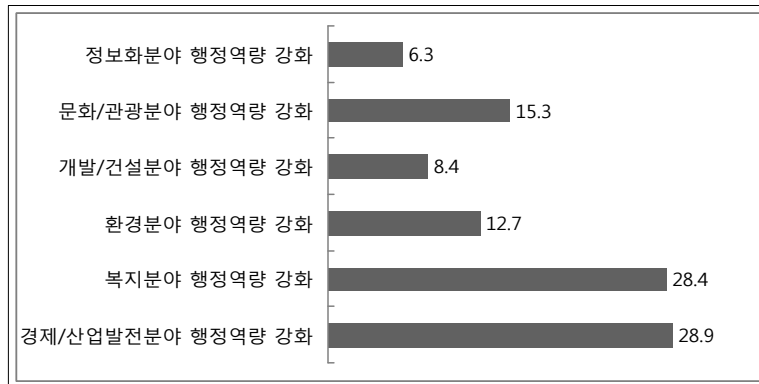
- 앞으로 경상남도의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이 24.8%,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24〉 농어촌 활성화의 정책방향

### 행정분야의 역량강화

- 앞으로 경상남도 및 시군의 행정이 어떤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경제/산업발전분야 행정역량 강화’ 이 28.9%, ‘복지분야 행정역량 강화’ 28.4%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2-25〉 강화되어야 할 행정분야

## 3. 도민 의식조사결과의 시사점

### 1) 지역발전수준의 평가

- 경상남도의 현재 발전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제·사회복지·문화관광·교통인프라 등의 항목에서는 낮음 혹은 매우 낮음에 해당되는 부정적 평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2) 지역의 미래에 대한 요구

-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모습은 문화 중심지역, 첨단산업 중심지역, 교육/연구 중심지역의 순으로 나타나 지금의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희망하고 있음

- 향후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가치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의 순으로 나타나 도내 전체의 불균형발전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강화를 원하고 있음
-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의 중요한 산업은 조선/기계/항공산업, 금융/교육/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3차 산업의 강화,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음. 다만, 첨단산업 중심지역의 미래를 희망하는 문향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현재의 주력산업인 조선/기계/항공산업의 첨단화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 전원지역으로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발전방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매우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경남도의 행정분야 중 ‘경제/산업발전분야와 복지분야의 행정역량이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제5절 지역의 발전잠재력 및 계획과제 도출

### 1. 지역의 발전잠재력 분석(SWOT)

#### 가. 강점요인

##### 동북아시아의 국토관문

- 경남은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임.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적인 개방거점을 통해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음
- 또한 신국제공항 건설, 부산·경남·전남 등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횡축의 광역교통망과 영남 내륙으로 연결되는 종축의 교통축이 완비될 경우 교통·물류·관광의 전 분야에 걸친 국토 남부 광역경제권의 핵심적인 발전거점이 될 수 있음

##### 첨단 제조업·미래형 신산업의 메카

-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여 세계적인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음.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기반위에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등 4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이 진행되어 왔음
- 최근에는 그 동안의 산업발전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산업과 에너지산업으로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

#####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보유

- 경남은 남해, 지리산, 섬진강, 낙동강 등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장경, 가야문화 등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역사문화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청정환경과 전통의 문화·역사자원은 21세기 문화경쟁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나. 기회요인

#####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확대와 한일-한중간 경제협력의 강화

- 경상남도는 동북아시아경제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한일-한중간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과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환태평양경제권의 국제교류 및 관문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 동남권 차원에서 일본과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한일해협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해양자원의 관심 증대

- 그 동안 개발과 활용에서 벗어나 있던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은 아름다

운 남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해상풍력, 바이오 등 무궁한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지역발전의 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 혁신도시, 로봇랜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 창원에 건설 중인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국가 로봇산업 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진주에 건설 중인 남가람 혁신도시는 산업기능과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방면의 성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기업지원지구 등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보완해 주고 연계체제를 강화할 경우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됨

### 다. 약점요인

####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속적 불균형

- 경상남도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부산에 인접한 김해, 양산 등 일부 지역의 급격한 산업발전에 비해 지리산 인근 지역 등 서부지역은 아직까지 특성화된 발전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 ■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경쟁력 미흡

- 경상남도는 전국 3위권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비교해 볼 때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와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즉, 국내의 수도권 또는 동북아시아의 상해, 동경, 북경, 홍콩, 오사카 등과 경쟁하기에는 규모, 경쟁력 등에서 아직 열위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부산, 울산, 전남 등과 연계한 광역경제권의 활성화가 필요함

#### ■ IBEC-T(IT, BT, ET, CT) 등 신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반 취약

- 경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거점으로 기존 기계,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새로운 21세기형 첨단산업은 부족한 실정임.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IT, BT, E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임

### 라. 위협요인

#### ■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및 중국의 급성장

- 2008년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킨 경제위기로 인해 산업전반에 대한 새로운 미래전략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또한, 경남의 최대 산업기반인 조선산업의 경우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력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부문의 지속적 악화

- 최근 농어업 인구의 감소·고령화 및 농수산물시장 개방확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농수산업 부문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향후 경남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농수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경쟁력의 중심이 가격에서 품질로, 생산방식이 토지집약적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수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가 관건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화두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경남의 군지역은 전국의 고령인구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합천군, 의령군, 남해군 등 일부 군지역은 30%를 초과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향후 복지시설, 요양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강화가 요구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임. 아울러 농촌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는 정주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표 1-2-20〉 경상남도의 잠재력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경제권 확대에 따른 사람과 자본이동 확대</li> <li>• 해양자원개발의 관심 증대</li> <li>• 농수산물 생산·소비의 패러다임 변화</li> <li>• 주변 아시아 국가(중국 등)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제 관광 수요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경제 침체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li> <li>•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li> <li>• 중국 급성장에 따른 저부가가치 산업 분야 경쟁 심화</li> <li>•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부문의 지속적 악화</li> </ul>
강점(S)		(SO) 계획과제	(ST) 계획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의 다각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li> <li>• 국제적인 관광·휴양산업의 거점 개발(특히, 중국 관광객 집중 유치전략)</li> <li>•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li> <li>• 항만·물류산업 기반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산업 발굴</li> <li>• 조선, 태양광산업 분야의 중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화</li> <li>•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연산업의 특화 및 연계</li> <li>• 농업생명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li> </ul>
약점(W)		(WO) 계획과제	(WT) 계획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 개발</li> <li>•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li> <li>• SOC 투자효과 확대를 위한 광역인프라 구축</li> <li>• 농수산물의 고품질 및 브랜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li> <li>• 철도 등 저탄소형 SOC 확충</li>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li> <li>• 후계농어업 인력 등의 유치를 위한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li> <li>•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을 통한 창조인력 유인</li> </ul>

## 2. 잠재력 분석결과 및 계획과제 도출

### ■ 강점을 기회요소로 하여 지역발전의 잠재자원으로 활용

- 경남의 강점 중의 하나인 자연 및 문화자원의 다각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으로 활용
-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 연안의 갯벌,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휴양 산업의 거점으로 개발
- 기계·조선·항공 등 기존에 발달된 산업과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국제적인 관문지대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

### ■ 강점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연산업의 특화 및 연계가 필요함
- 지역의 주요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농업생명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 약점을 기회요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활용 및 사고의 전환 시도

-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
- 녹색성장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동서간·남북간 연결 강화를 위하여 SOC 투자를 확대하고 광역인프라 구축
-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고품질 및 브랜드화 추진

### ■ 약점과 대내외적 위협요인을 타파하기 위하여 통합적 광역경제권 구축 및 여건 마련

- 부산, 울산과의 경제적 협력체를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통합경제권 형성
- 지역의 녹색성장화를 위하여 철도 등 저탄소형 SOC 확충을 도모
- 미래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농수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유지와 FTA 이후를 고려하여 후계농어업 인력 등의 유치방안 마련 및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 등을 통하여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창조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자원 및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관광경제 중심지화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수요와 제조업 진출기회 확대 등 주변국가 정세에 맞춘 전략 마련 필요

- 특히 경상남도는 도서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한 국제 관광의 거점지대 역할 수행 가능
-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항공우주, 로봇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국제적 산업요충지화 가능
-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는 입지적 여건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홍콩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타깃마케팅 필요

# 제1장 지역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절 계획지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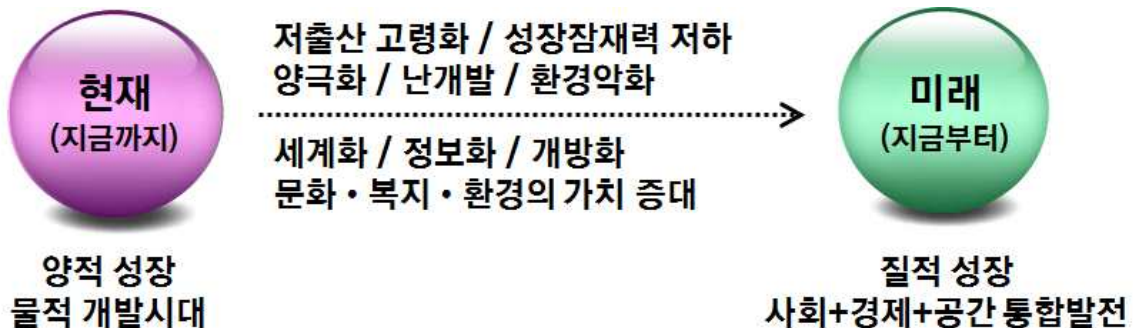
## 제1장 지역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 계획의 비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 !!!

####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2-1-2〉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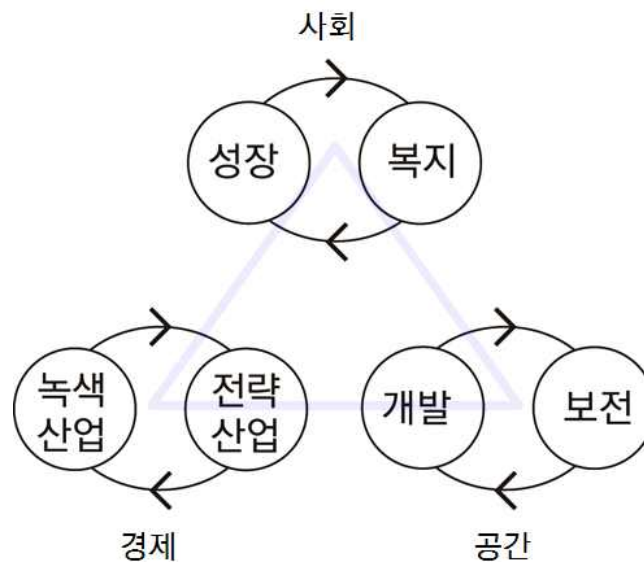
- 지금까지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경남은 풍부한 산업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제조업 위주의 양적·물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인구증가의 정체 등 사회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 갈 것이 예상되며, 그 동안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과제를 노정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팽창적 개발시대를 벗어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공간이라는 지역발전의 구성요소가 통합되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야 할 것임

#### ■ 미래 지역발전의 실천 가치 :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 본 계획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

남”으로 설정함

- 이는 사회·경제·공간 등 지역발전 3요소의 선순환 시스템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임. 즉, 성장과 복지, 녹색산업과 전략산업, 개발과 보전 등 지역발전의 실천가치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지향함
  - 사회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경제 : 기존 전략산업과 녹색산업의 동반성장
  - 공간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인간과 환경의 공존 추구
- 또한, 민선 5기 경남도정의 지역발전 철학인 변영 패러다임의 포괄적 개념화를 통해 미래발전의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고자 함



〈그림 2-1-3〉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개념

## 2. 계획의 목표

### ①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 점차 심화되어 가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차원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구축 및 환경정책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해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재체계 구축

### ②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형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경남 구현 및 도민 통합과 성숙한 지역공동체

### 완성

- 경남의 2대 도시권을 인재·자본·정보가 모이고 집적되는 지역발전의 핵심지역(Mega City-region)으로 육성
-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쉼터) 등 농어촌의 산업적 경쟁력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전체가 활력 넘치는 균형발전 달성

### ③ 다함께 누리는 복지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건강의 개념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고급화 추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보장
- 생활복지 강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의 제공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체감복지 실현
- 여성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해를 넘어 상생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안전한 여성친화적 지역환경 구축

### ④ 세계 속으로의 도약

- 지역발전의 광역화시대에 부응하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기능적 + 공간적 연계협력을 통한 경남과 주변 지역의 통합적 상생발전 추진
- 개방경제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경제구역(FTZ, FEZ 등)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 역량 제고 추진

### ⑤ 지속가능한 성장

- 기계·조선·항공 등 기존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첨단 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점 육성
- 풍력·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에너지 장비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할 그린 신성장동력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 ⑥ 매력적인 문화창조

-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고품격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
-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관광 개발 및 관광경남을 선도할 창조적인 명품 관광 프로젝트 개발
- 지역간 고유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계하여 경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 제2절 계획지표 설정

## 1. 인구지표

## 1) 인구지표 전망

## ■ 인구지표 전망의 전제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2.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14.0%, 2030년에는 25.7%의 초고령사회를 예견하고 있음
- 통계청이 2005년 기준으로 발표한 인구추계에서는 2018년을 정점으로 국가전체의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 기준에 따를 경우, 2020년 조성법에 의한 경남의 인구전망은 약 312만명으로 예상되어, 2010년 인구에 비해 연평균 0.11%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2011년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인구(2010년 기준)의 장래추계에서는 2005년 예측에 비해 더 높은 수치로 발표되어 인구성장의 고점이 이동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즉, 202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각 시도별 추계인구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아 경남도의 인구는 2005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음. 이러한 전제에 따른 경남도의 2020년 장래인구는 조성법에 의해 추계할 때 약 325만명으로 이는 2010년 인구에 비해 연평균 0.25%가 증가된 것임

〈표 2-1-1〉 통계청의 인구지표 전망(단위 : 명, %)

	구분	2010	2015	2020	연 평균증가율 (2010~2020)
2005년 기준	전 국	48,874,539	49,277,094	49,325,689	0.18
	경 남	3,140,817	3,141,472	3,123,930	-0.11
	전국대비 비중	6.43	6.38	6.33	
2010년 기준	전 국	49,410,366	50,617,045	51,435,495	0.40
	경 남	3,177,087	3,229,367	3,255,867	0.2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연령별 (시도) 추계인구에 제시된 수치

## 2) 장래인구 추계 및 계획인구 설정

## (1) 장래인구 추계

## ■ 총조사인구기반

- 총조사인구기반은 과거의 인구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2010년 인구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망한 것이며, 2010년 인구는 2005년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이 2010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 추정결과 2010년 약 3,177천명에서 2015년에는 약 3,229천명, 2020년에는 약 3,256천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0.25%가 증가되며 절대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인구성장의 안정화기간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2〉 통계청 추계인구에 의한 인구지표 전망(단위: 천명,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15	'15~'20	'10~'20
전국인구	49,410	50,617	51,435	0.48	0.32	0.40
경남인구	3,177 (6.5)	3,229 (6.5)	3,256 (6.5)	0.33	0.17	0.25

자료 : 전국인구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에 제시된 수치(2010)  
경남인구는 2005년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2012년 발표결과에 따라 변경예정)

### 주민등록인구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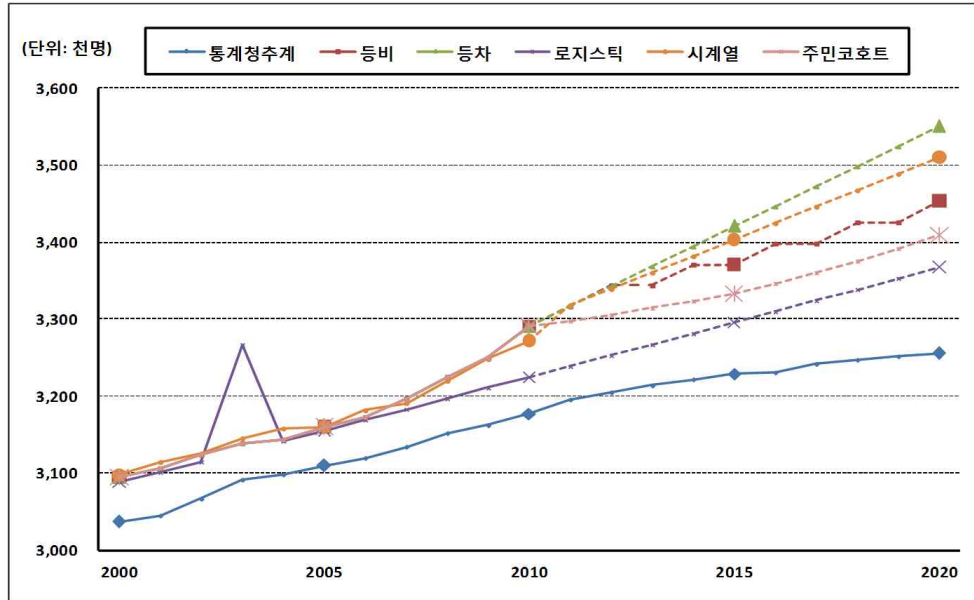
- 주민등록인구기반으로는 코호트법, 시계열분석, 등차수열, 등비수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5가지의 인구추계방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 추계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336만으로 가장 낮고, 코호트법이 340만, 등비수열 345만, 시계열분석이 350만, 등차수열이 355만 등으로 추계되어 336만 - 355만 정도의 인구성장이 예상됨. 연평균 증가율은 0.35% - 0.76% 정도로 추계됨

### 사회적증가분

- 경남의 사회적 인구증가분은 2001년 약 3,104천명에서 2005년에는 약 3,139천명, 2010년에는 약 3,221천명으로 변하여, 연평균 0.37%가 증가하고 있음

〈표 2-1-3〉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에 의한 인구지표 전망(단위 : 천명,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15	'15~'20	'10~'20
전국 인구		49,410	50,617	51,435	0.48	0.32	0.40
경남	코호트 방법	3,291 (6.7)	3,334 (6.6)	3,409 (6.5)	0.26	0.45	0.35
	시계열분석	3,274 (6.7)	3,403 (6.8)	3,509 (7.0)	0.78	0.62	0.70
	등차수열기반	3,291 (6.7)	3,421 (6.9)	3,551 (7.1)	0.78	0.75	0.76
	등비수열기반	3,291 (6.7)	3,371 (6.8)	3,454 (6.9)	0.48	0.49	0.48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반	3,225 (6.6)	3,296 (6.6)	3,368 (6.7)	0.44	0.43	0.43



〈그림 2-1-3〉 통계청 추계 및 주민등록인구에 기반한 인구 추계

〈표 2-1-4〉 경남의 사회적증가분(단위 : 명, %)

구 분	2001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1~'05	'05~'10	'01~'10
경 남	3,103,705	3,138,532	3,220,983	0.22	0.52	0.37

## (2) 계획인구 설정

### 통계청 추계인구 기반 계획인구

- 분석작업에 의해 통계청 추계인구(인구총조사 자료) 기반 2020년의 경남인구는 325만명으로 추계되었음
- 따라서, 2020년 경상남도의 계획인구는 추계된 325만명을 1안으로 검토하고, 시계열 추계의 95% 신뢰수준( $\pm 15$ 만명 내외의 오차)과 진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서부지역의 사회적 인구성장, 일자리 창출, 출산지원대책, 귀농귀촌정책 활성화 등 향후 관련 정책추진을 통해 15만명 정도의 자연적·사회적 증가를 거둘 것을 목표로 하여 340만명의 계획인구를 2안으로 검토한 후 2안인 340만명을 2020년의 계획인구로 제시함

〈표 2-1-5〉 추계인구 기반 2020년 경남 계획인구(단위: 만명)

구 분	1안)	2안)
2020년 경남인구	325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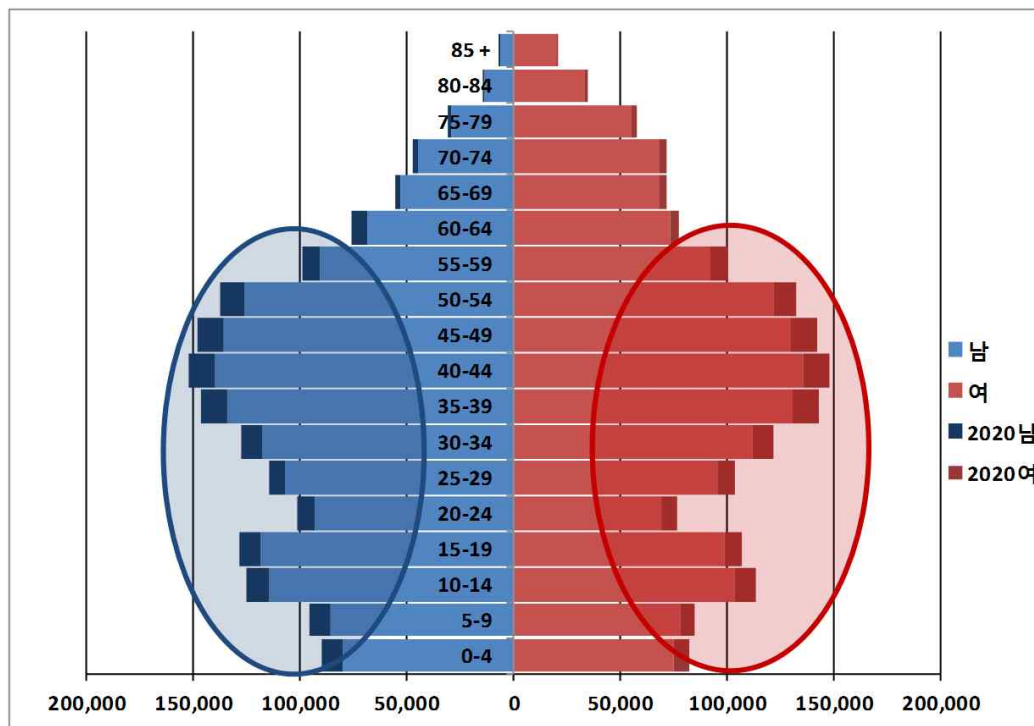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반 계획인구

- 주민등록인구 기반 코호트방법, 시계열분석, 추세분석을 고려한 2020년 경남 인구는 대략 336만에서 355만명 사이로 추정되었음. 2010년 현재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인 11만명과 인구총조사에 의한 추계인구 기반의 계획인구 340만명을 고려하여 1안 350만명과 2안 355만명을 대안으로 검토한 후 1안인 350만명을 주민등록인구 기반의 계획인구로 제시함

〈표 2-1-6〉 주민등록인구 기반 2020년 경남 계획인구(단위 : 만명)

구 분	1안)	2안)
2020년 경남인구	350	355

- 이상과 같이, 2020년 경상남도의 계획인구는 현재 대비 추계인구 기반으로 볼 때는 22만명, 주민등록인구 기반으로 볼 때는 20만명이 증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추계인구 대비 약 15만명 정도의 증가를 거두어야 달성가능한 목표치임
- 따라서,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함께 출산율 정책 강화를 통한 자연적 증가, 귀농귀촌 및 일자리 창출 정책강화를 통한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를 통해 달성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인구정책을 통해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그림 2-1-4〉 2020년 경남 인구구조 목표

## 2.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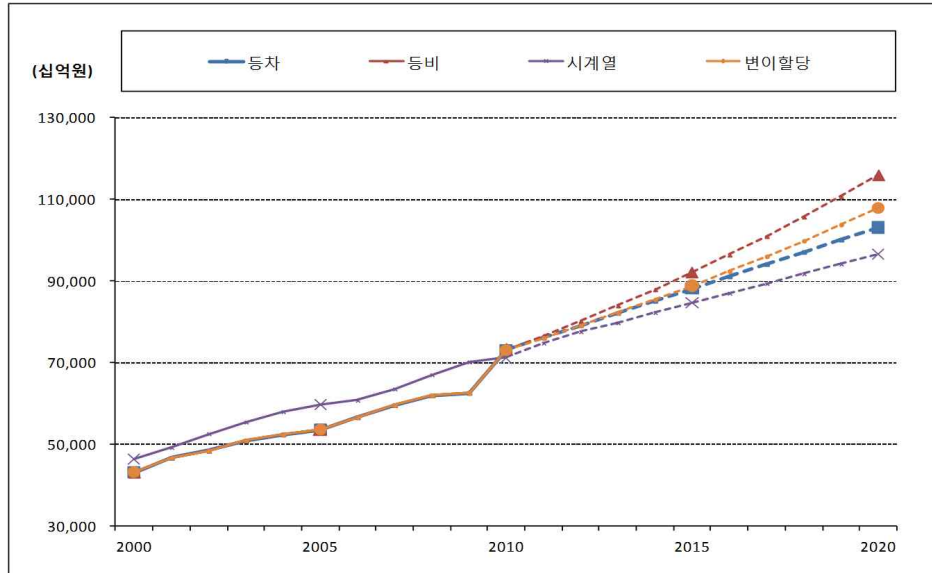
### 1) 경제성장 계획목표 설정(실질가격 기준 GRDP)

#### ■ 향후 GRDP 전망

-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 2005년 기준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시계열분석, 변이할당분석, 등차수열분석, 등비수열분석 등 4가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GRDP를 전망하였음
- 또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전망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장기 GDP 성장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전 2030과 비전 2040에서 KDI가 추계하고 있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비교지표로 활용하였음
- 시계열분석의 결과 경남의 GRDP는 2020년 96,627십억원으로 연평균 3.24%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변이할당분석의 결과 역시 2020년 108,017십억원으로 연평균 3.96%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등차수열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추세인 2020년 103,184십억원, 연평균 3.49%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 등비수열기반에서는 2020년 115,990십억원으로 연평균 4.71%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 경우 경남의 GRDP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9%에서 2015년 7.1%, 2020년 7.2%로 미세한 증가추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7〉 지역내총생산(GRDP) 전망(실질가격기준)(단위: 십억원, %)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10~'15	'15~'20	'10~'20
전국		1,064,815	1,308,015	1,6061,761	4.20	4.20	4.20
경남	시계열분석	70,270 (6.5)	84,668 (6.4)	96,627 (6.0)	3.80	2.68	3.24
	변이할당분석	73,228 (6.9)	88,938 (6.8)	108,017 (6.7)	3.96	3.96	3.96
	등차수열	73,228 (6.9)	88,206 (6.7)	103,184 (6.4)	3.79	3.19	3.49
	등비수열	73,228 (6.9)	92,162 (7.1)	115,990 (7.2)	4.71	4.71	4.71



〈그림 2-1-5〉 2020년 경남 GRDP 추계 그래프

### 향후 GRDP 성장 계획목표

-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10년 경남의 실질 GRDP 잠정치는 73,228십억원이며, 시계열분석, 변이할당 분석, 등차수열 및 등비수열 추세에 의한 2020년 경남 실질 GRDP 전망치는 96,627십억원에서 115,990십억원 사이로 추계되었음
-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시계열 추정치의 연평균 성장률 3.2%, 둘째, 여러 추정법에서 나온 연평균 성장률 평균인 3.6%, 그리고 국가성장률 4.2%를 고려한 세 가지 안을 검토 대안으로 설정하였음

〈표 2-1-8〉 2020년 경남 GRDP 전망(실질가격)(단위: 십억원, %)

구 분	1안)	2안)	3안)
2020년 경남 GRDP (연평균증가율)	100,000 (3.2)	104,000 (3.6)	110,000 (4.2)

- 최종적으로는 경남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질적 성장을 고려하여 연평균 4.2%에 해당하는 2020년 경남 GRDP 목표를 110조로 제시함. 다만, 이 목표치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지역산업구조 계획목표(실질 GR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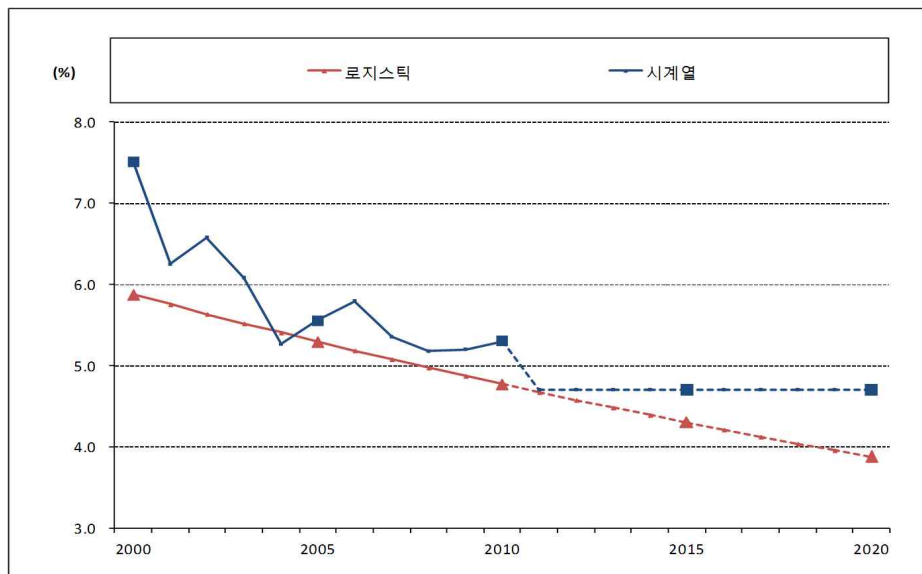
### 향후 지역산업구조 전망

- 2020년 경상남도의 지역산업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실질 GRDP 기반으로 1차, 2차, 3차 산업비중에 대한 과거 추세분석 및 2020년까지의 시계열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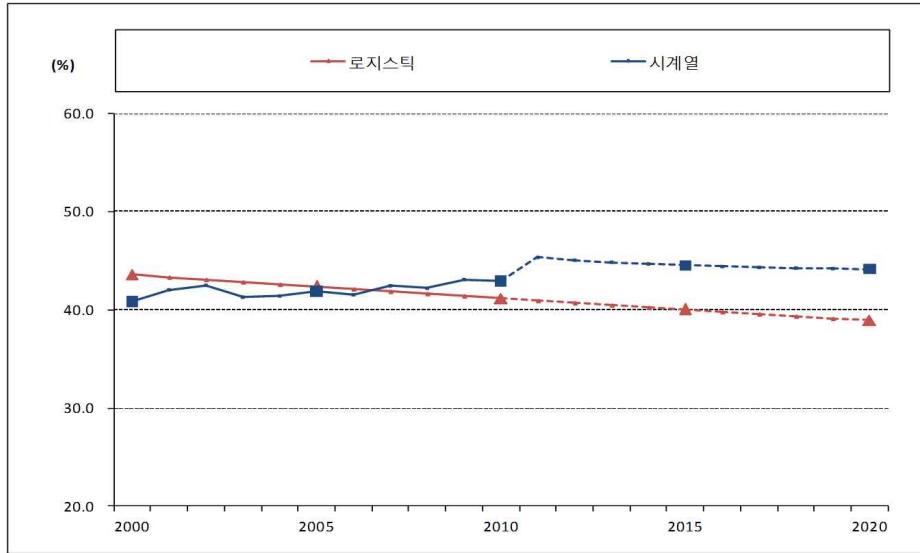
- 시계열분석 결과 1차 산업 비중은 현재보다는 감소하나 2015년 4.7%, 2020년 4.7%로 유지되며, 2차 산업 비중은 2020년 44.1%로, 3차 산업 비중은 48.5%로 전망되었음
-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1차 산업 비중은 2020년 3.9%로 감소하고, 2차 산업 비중 역시 2020년 38.9%로 감소하며, 3차 산업 비중은 2020년 59.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표 2-1-9〉 지역 산업구조 전망(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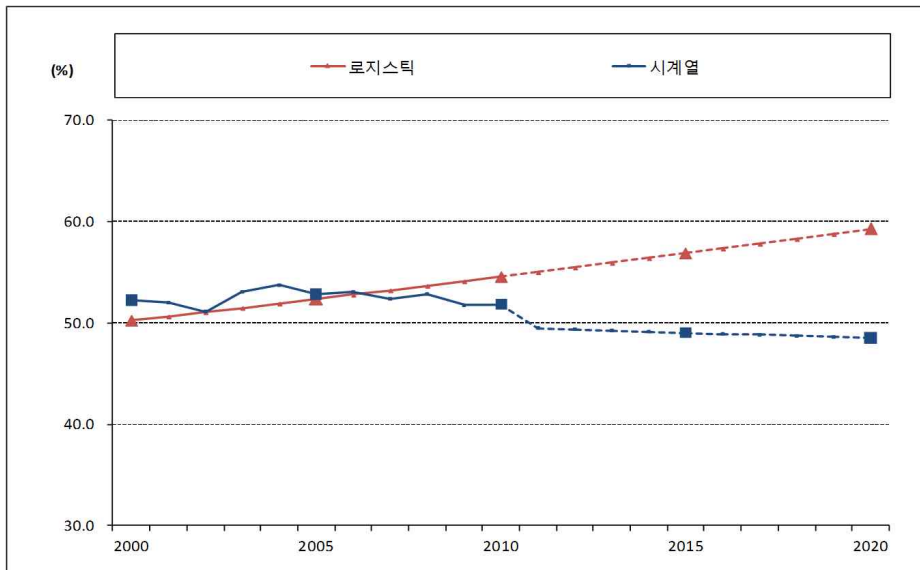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시계열분석	1차산업	5.3	4.7	4.7
	2차산업	42.9	44.5	44.1
	3차산업	51.8	49.0	48.5
로지스틱 회귀분석	1차산업	4.8	4.3	3.9
	2차산업	41.2	40.0	38.9
	3차산업	54.5	56.8	59.2



〈그림 2-1-6〉 2020년 경남 1차 산업 추계



〈그림 2-1-7〉 2020년 경남 2차 산업 추계



〈그림 2-1-8〉 2020년 경남 3차 산업 추계

### 지역산업구조 계획목표 설정

- 분석결과 2020년 1차 산업의 비중은 대략 3.9%에서 4.7%사이로, 2차 산업 비중은 38.9%에서 44.1%, 3차 산업은 48.5%에서 59.2%사이로 추정되었음
- 분석결과와 향후 경남의 미래 경제성장전략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경남의 지역산업구조는 2010년 현재의 1차 산업 비중 4.3%, 2차 산업 41.9%, 3차 산업 45.5%인 구조에서 1차 산업의 전략적 육성, 3차 산업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산업구조 계획목표치를 제시함
- 즉, 2020년 경남의 지역산업구조는 1차 산업 비중 5%, 2차 산업 43%, 3차 산업 52%로 설정함

〈표 2-1-10〉 2020년 지역산업 구조(단위 : %)

구 분	2020년 지역산업 구조 목표
1차 산업 비중	5%
2차 산업 비중	43%
3차 산업 비중	52%

- 인구, 경제(GRDP) 등 주요 항목 이외의 복지, 사회기반, 환경, 관광 등 주요 계획분야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한 2020년 계획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2-1-11〉 인구경제 등 분야별 계획지표

분야 및 지표		2010	2020
인구	총인구(추계인구)	317만명	340만명
경제	GRDP	73조원	110조원
	1인당 GRDP	2,300만원	3,235만원
복지 및 생활환경	지역성평등지수	레벨 4 (최하위그룹)	레벨 2 (차상위그룹)
	주택보급율	103.4%	117%
사회기반	도로밀도	1.21	1.43
	상수도 보급율	88.8%	95%
환경	온실가스 감축	-	BAU(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좋은물 달성비율 (II등급 이상)	89.7%	94.5%
관광	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3.7	4.0 (80% 수준, 우수)



## 제2장 공간구조 설정

제1절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구상

제2절 권역별 발전전략 및 발전거점의 육성

## 제2장 공간구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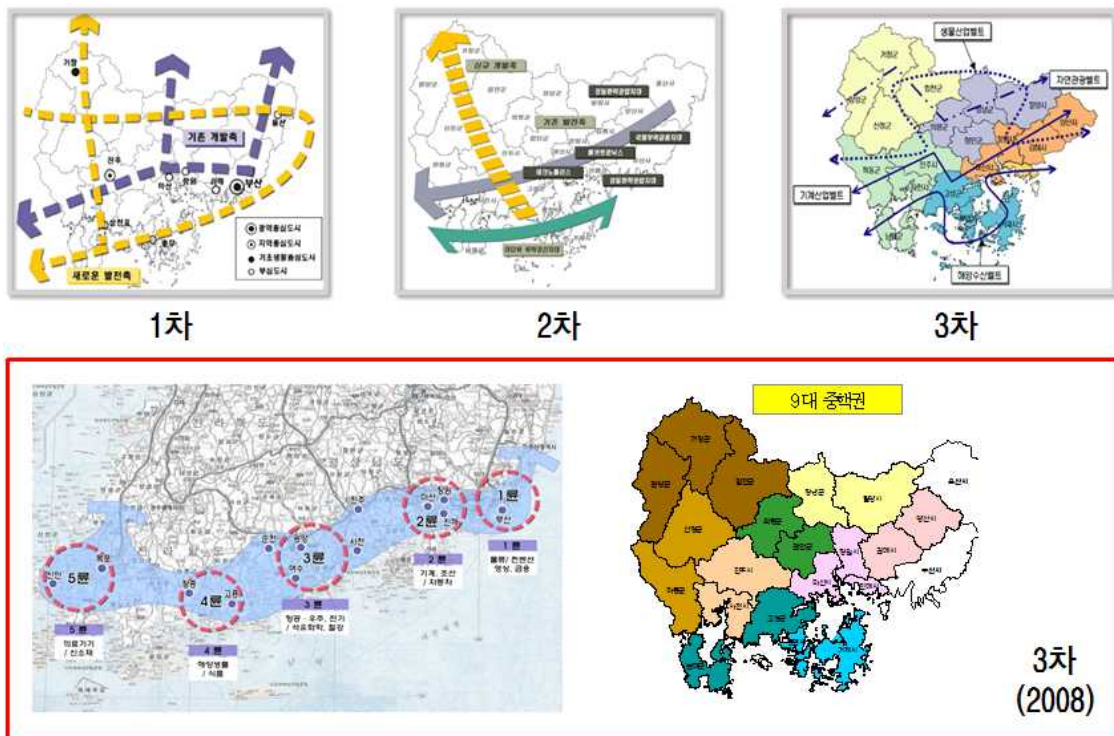
### 제1절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구상

#### 1. 공간구조 설정의 전제

##### 1) 기존 공간구조의 검토

###### ■ 경남의 공간구조적 특성

- 경남의 지역공간구조는 그 동안 중규모·소규모의 도시가 군집된 형태를 이루어 발전하여 왔음. 공간적 측면에서 볼 때 포항-울산-창원-사천-광양으로 이어지는 국토 남부권의 거대한 도시회랑(Urban Corridor)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통합 창원시와 진주시 등 양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연담화된 도시형태로 대도시권에 필적한 규모로 성장해 왔음



〈그림 2-2-1〉 각 계획별 경상남도의 공간구조 구상

##### ■ 제1차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1982-1991)

- 제1차 경남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동남해안에서 한려해상권을 경유하는 새로운 발전축을 설정하고,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생산기반의 조성, 그리고 각종 서비스기능의 강화를 유도하였음

- 동서방향의 남해개발축과 남북축인 부산-울산방향, 마산-대구방향의 중부축을 설정하였고, 거창-울산과 부산-통영-남해를 잇는 동서방향의 해안축을 새롭게 설정. 아울러 사천-거창을 연결하는 남북축도 새롭게 구축하였음
- 이 기간 동안의 지역개발전략에 따라, ①울산-부산-마산창원-진주를 잇는 남동임해공업지대의 구축, ②88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영호남간 교류 증대 기반의 구축, ③경상남도 도청의 창원 이전 및 산업기반도시로서 위상 정립, ④진해 국가공단 조성 및 양산, 상평, 칠서, 마천 등 지방공단 조성을 통해 도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산업 생산력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 제2차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1992-2001)

- 제2차 경남종합개발계획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①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의 성장유도, ②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③개발과 보전의 조화, ④지역자율성 제고와 지역간 기능강화로 설정
- 이 기간 동안에는 도시내 녹지 및 유희지 집중 개발, 도시인근의 구릉지·산지활용 주거지 개발, 북부권 농촌 정주권 중심지에 주거수준 향상, 대도시권 신도시개발 및 주택지 개발, 해안권 자연자원 개발촉진과 자연환경 보전 등이 주된 지역개발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주요 개발축으로는 울산-양산-창원-마산-사천을 연결하는 기존 발전축과 통영-산청-거창을 연결하는 신규 발전축에 관한 구상이 제시

###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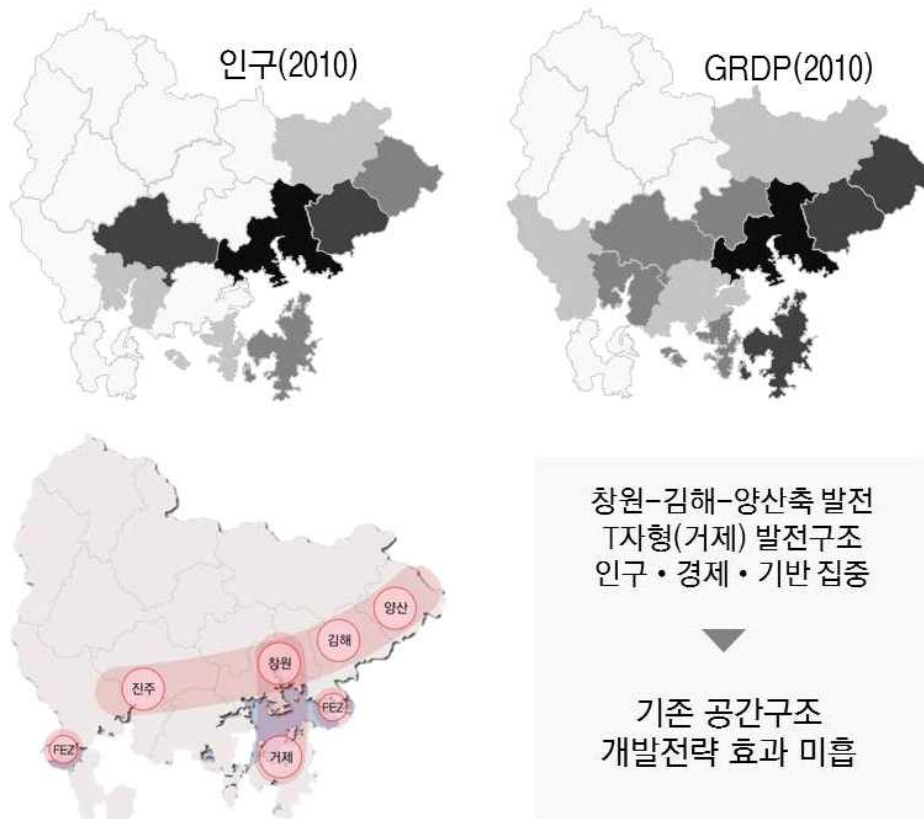
- 제3차 계획에서는 2차 계획이 지식, 정보 그리고 생명 등 세계적인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세우는 등 다소 과도한 개발위주의 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음
- 4대 계획목표로 ①기술정보주도의 첨단경남, ②세계와 하나되는 열린 경남, ③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경남, ④삶의 질을 지향하는 자치 경남으로 설정
- 공간구조와 개발축의 설정은 경남을 Two Z - Two Ω형 벨트(두 개의 Z축과 두 개의 오메가(Ω)형 벨트)로 연결하였음
- 경남을 ①해안내륙형인 기계메카노벨트(Mecha-know Belt), ②내륙형인 생명공학산업벨트(Bio Belt), ③연안지역을 연계한 해양수산벨트(Coastal Belt), ④내륙산간지역을 연계한 자연관광벨트(Scenic Belt)로 구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산업개발에 중점을 둔 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2) 경남 지역개발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이상에서와 같이, 경남은 지난 60-70년대 자동차-중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한 임해산업벨트가 지역산업의 중심지로서 등장한 이후, 창원·마산·김해·양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산업지역과 거제의 조선산업지역이 주된 지역성장의 경제적 중심축으로서 성장해 왔음. 최근에는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이 새로운 지역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형성되고 있어, 중요 산업개발축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음

- 경남의 지역계획 전략은 경제성장의 패턴과 그 패를 같이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응축(counter magne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역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불균형이 과제로 남아있음



〈그림 2-2-2〉 현재 지역공간구조 진단

## 2.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구상

### 1) 다축환상형 공간구조의 개념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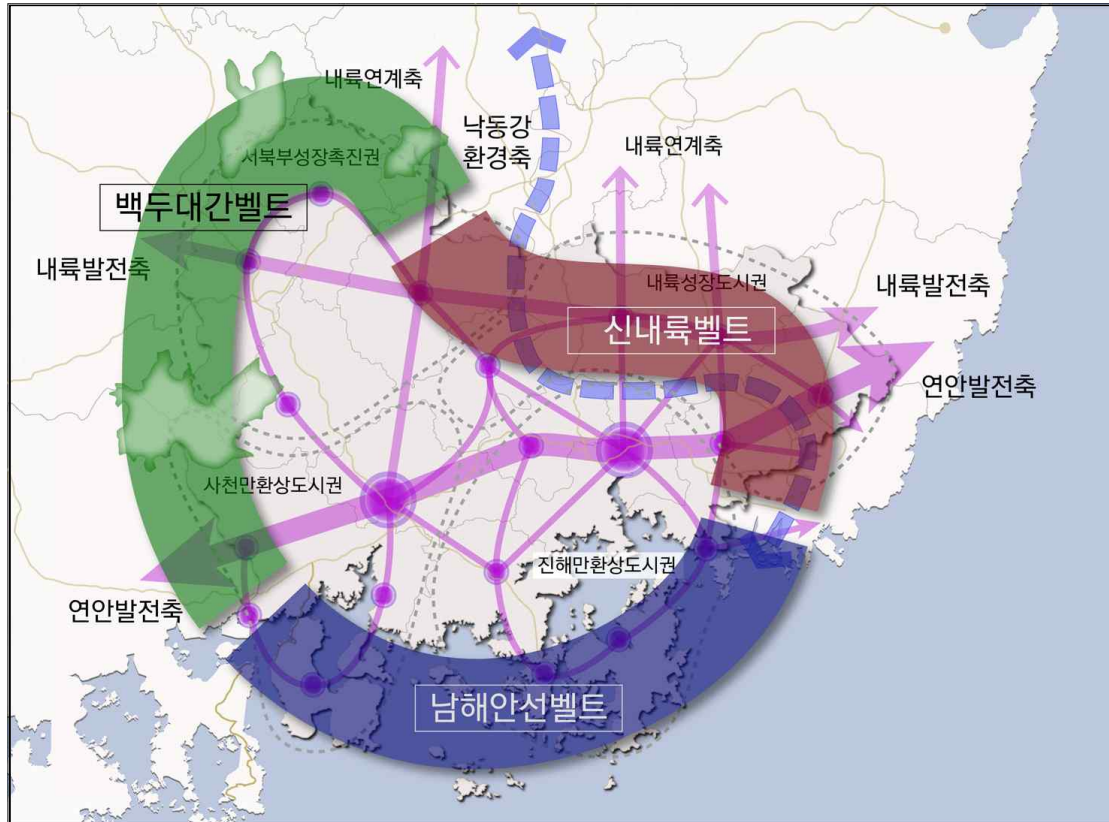
#### 다축환상형 공간구조의 개념

- 본 계획에서는 발전축과 성장벨트의 공간적 통합을 통해 도시권과 정주·산업거점이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되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공유자원이 벨트로 구축되는 다축환상형 공간구조를 경남의 미래 공간구조로 제시함

#### 다축환상형 공간구조의 기대효과

- 다축환상형 공간구조는 지난 4차례의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공간구조와 달리 도시 및 교통망 중심의 발전축과 자원 중심의 성장벨트라는 두 가지 개념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것임

-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과 연계함으로 인해 보다 실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2-3〉 지역발전축과 성장벨트에 의한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 2) 지역발전축과 성장벨트

### (1) 지역발전축

- 21세기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를 구현하고 광역·초광역개발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토발전전략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거점과 교통망을 고려한 지역발전축 설정

#### 연안발전축

- 경남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주축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김해-창원-진주의 산업 및 도시발전축을 강화하는 축임. 산업 및 도시거점 중심의 수평축에 해당됨
- 경남 전체로는 연안발전축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유도함

#### 내륙발전축(신규 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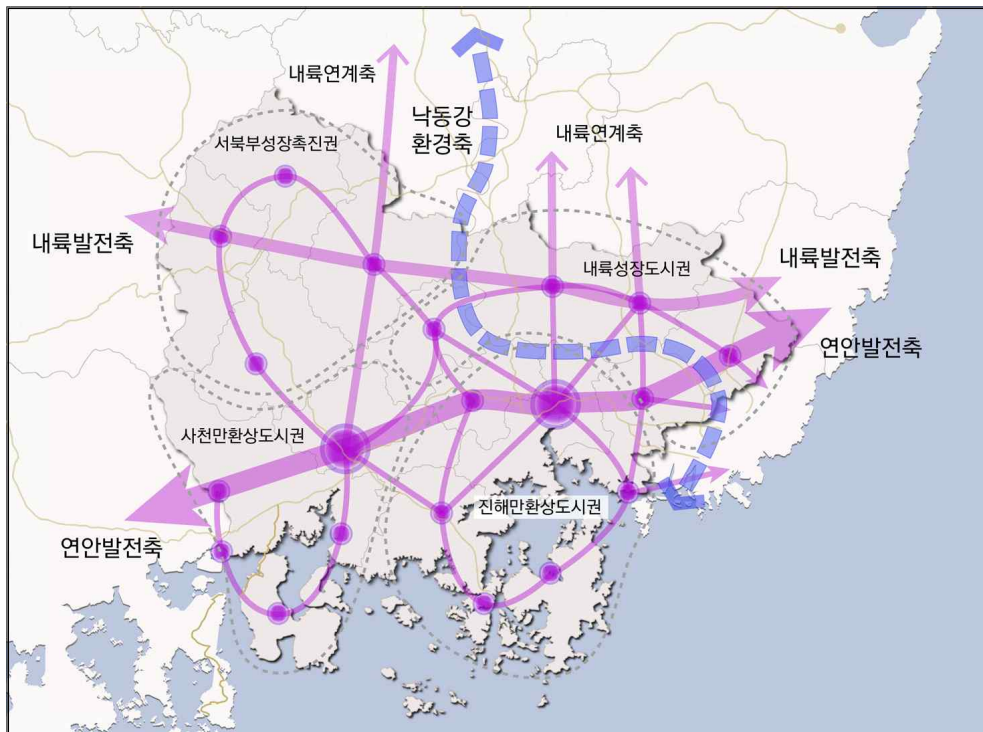
- 새롭게 건설될 함양-울산간 고속국도를 통해 연결되는 축으로 관광 + 녹색 + 산업 기능의 수평축임. 낙후된 내륙지역과 성장하고 있는 동부도시권,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발전축에 해당

### 낙동강환경축

- 영남권 전체를 관통하는 젓줄인 낙동강을 생명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축으로 설정. 자연환경 + 생명 수직축에 해당

### 내륙연계축(신규 발전축)

- 기존의 내륙연계 교통망과 새롭게 건설될 김천-거제간 내륙철도, 기존의 중부내륙고속국도 등 광역교통망과 지역의 거점도시를 연결하여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영남내륙권과 공유하는 축임. 영남 및 내륙권 연계 수직축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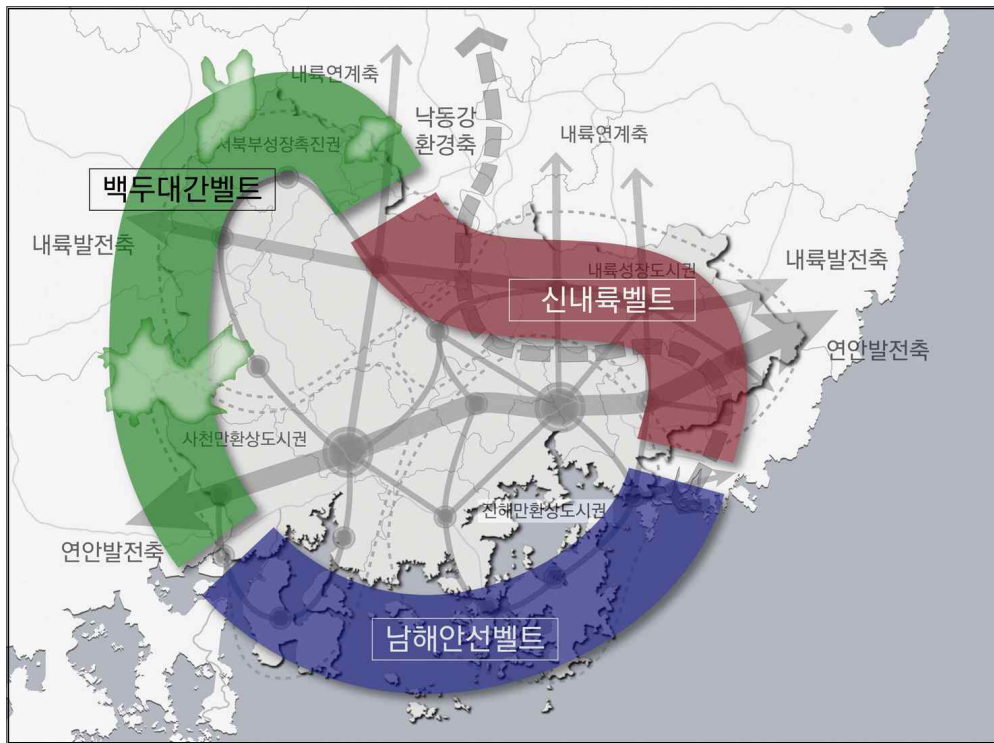
〈그림 2-2-4〉 지역발전축 구상도

## (2) 성장벨트

- 산악·해양·생태자원과 지역의 발전거점을 벨트형태의 성장지대로 연결하여 지역내부의 자원공유 및 인근 시·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연계개발 촉진
- 백두대간벨트, 남해안선벨트 등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초광역개발권의 지역차원 실천전략 제시

※ 전체로서는 3대 성장벨트의 연계를 통해 도시발전축을 감싸는 창조의 링(Ring)으로 육성





〈그림 2-2-5〉 3대 성장벨트 구상도

### 백두대간벨트

- 지리산·덕유산 등 경남의 서북부 산악지대는 백두대간 종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광역경제권을 연계하는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시켜 녹색성장 거점으로 형성
- 산림, 수변자원(섬진강) 등을 연계한 Green-Blue Network 구축으로 휴양-레저 기반의 관광지 활성화 및 특화품목 융복합을 통한 미니식품클러스터 조성

### 남해안선벨트

- 섬·바다·연안 등 우수한 해양자원과 발전된 산업여건, 그리고 환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관문기능 등을 기반으로 초광역개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 신내륙벨트(신규 벨트)

- 백두대간벨트와 남해안선벨트는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초광역개발권)으로 추진 중인 성장지대임
- 신내륙벨트는 백두대간과 남해안선벨트의 성장여력을 지역차원에서 확산연계할 수 있도록 김해-양산-밀양-창녕-의령 등 경남 내륙지역의 첨단산업·문화·생태 융합의 신성장벨트를 조성하는 개념임

## 제2절 권역별 발전전략 및 발전거점의 육성

### 1) 권역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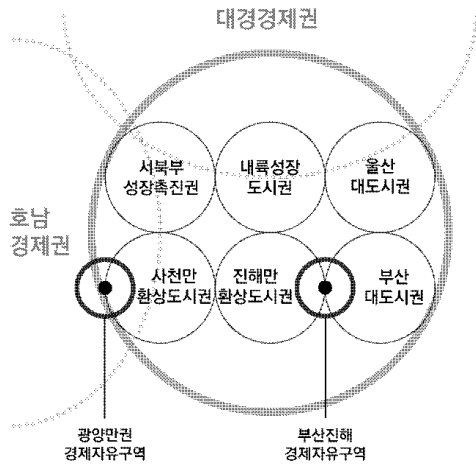
#### ■ 권역의 구분과 지역적 특징

- 경상남도의 지역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권역구분의 개념을 수용하여 4대 권역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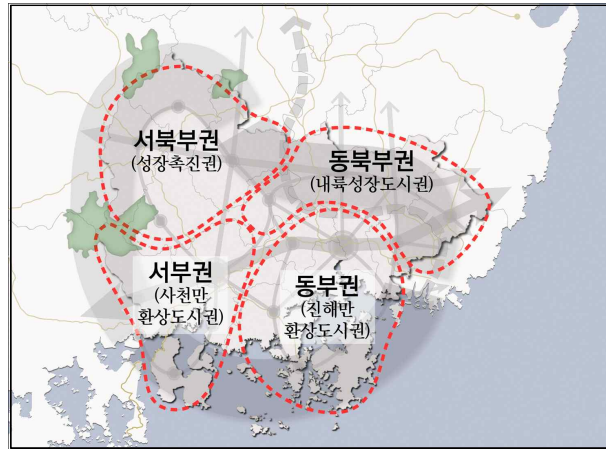
〈표 2-2-1〉 경남의 4대 권역 구분 및 지역적 특징

권역	특징	시군
서북부권 (서북부 성장축진권)	·경남 서북부지역의 4개 시군으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의 산악자원 풍부 ·그 동안 지리적, 산업적 공간환경의 제약으로 성장과 정에서 가려져 있었으나, 풍부한 자연환경과 녹색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과 성장축진이 요구되는 지역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서부권 (사천만 환상도시권)	·사천만 중심의 2개 시, 2개 군으로 구성되는 권역 ·혁신도시 건설, 항공산업의 발전, 해양관광의 요구증대 등 내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	진주, 사천, 하동, 남해
동북부권 (내륙성장 도시권)	·김해, 양산 등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도시와 창녕, 밀양, 의령 등 농촌지역이 복합된 권역 ·권역 전체의 총량적 경제규모는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군지역의 새로운 발전가치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김해, 양산, 밀양, 창녕, 의령
동부권 (진해만 환상도시권)	·진해만을 중심으로 창원 등 기계, 조선산업의 거점지대 ·기존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남의 산업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지역	창원, 거제, 통영, 고성, 함안





〈그림 2-2-6〉 동남권 6대 지역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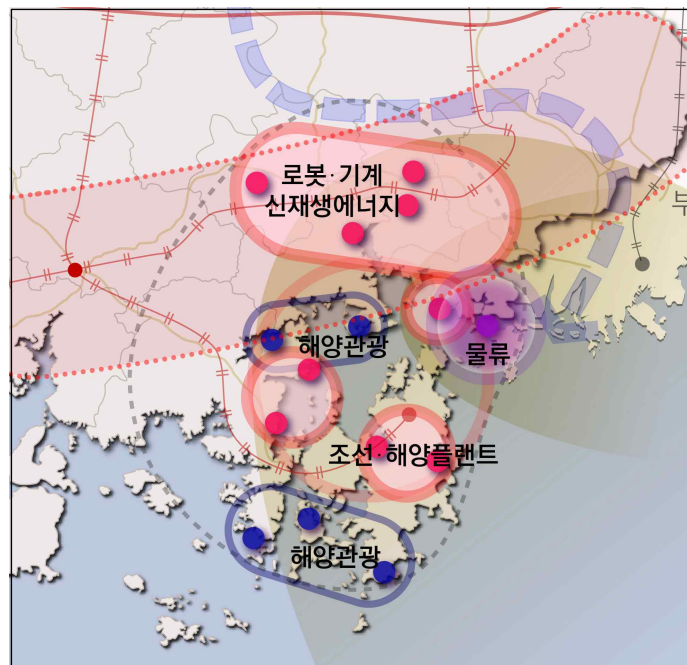


〈그림 2-2-7〉 경상남도의 4대 권역 구분

## 2) 권역별 발전전략

### ■ 동부권 : 진해만 환상도시권(로봇+기계+조선·해양플랜트+해양관광)

- 창원·의 기계·메카트로닉스산업 기반과 로봇랜드 개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기계·로봇·신재생에너지산업의 허브 조성
- 거제·통영·고성의 조선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해양 플랜트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국제적 해양플랜트 거점화 유도
- 진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해와 거제, 통영의 외해를 활용한 해양 및 문화관광의 발전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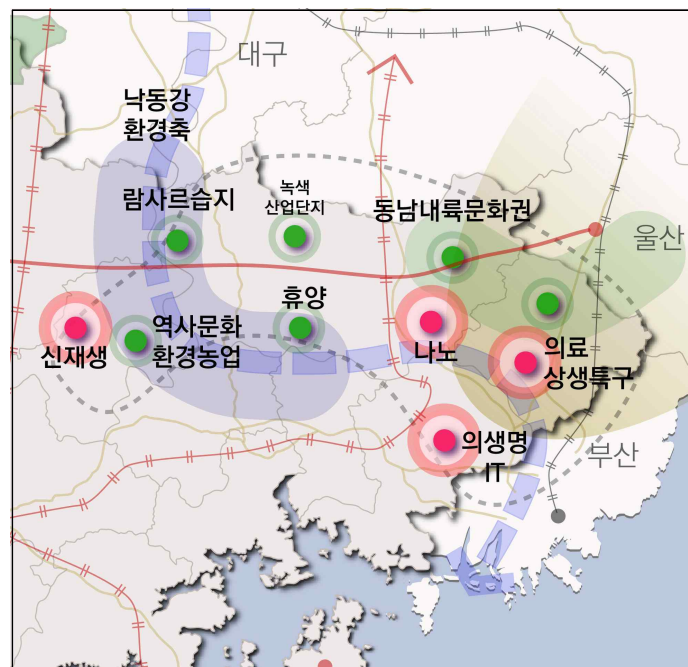


〈그림 2-2-8〉 동부권(진해만 환상도시권) 발전전략

- 당항포 관광지·공룡엑스포·경비행장을 연계한 신개념의 복합휴양관광거점 육성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내실화 및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북아시아 글로벌 개방경제의 거점지대화

#### 동북부권 : 내륙성장도시권(나노+의료·의생명+생태관광+광역연계)

- 밀양의 나노산업단지 개발과 양산의 메디칼폴리스, 김해 의생명단지 등을 상호연계 개발하여 동남 내륙권의 첨단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 우포늪과 낙동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적 가치의 실천지역으로 육성
- 동남내륙문화권 개발을 통해 동북부권을 동남내륙권의 산악·역사문화·관광중심지로 육성
- 경남의 4대 권역의 접점지역의 장점을 살려 의령의 광역연계형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동남권 3개 시도의 광역접점지역인 양산을 동남권 상생특구로 육성
- 일본 큐슈권과의 전략적 연계와 부산광역시와의 연계전략을 통해 김해의 동북아시아 글로벌 IT센터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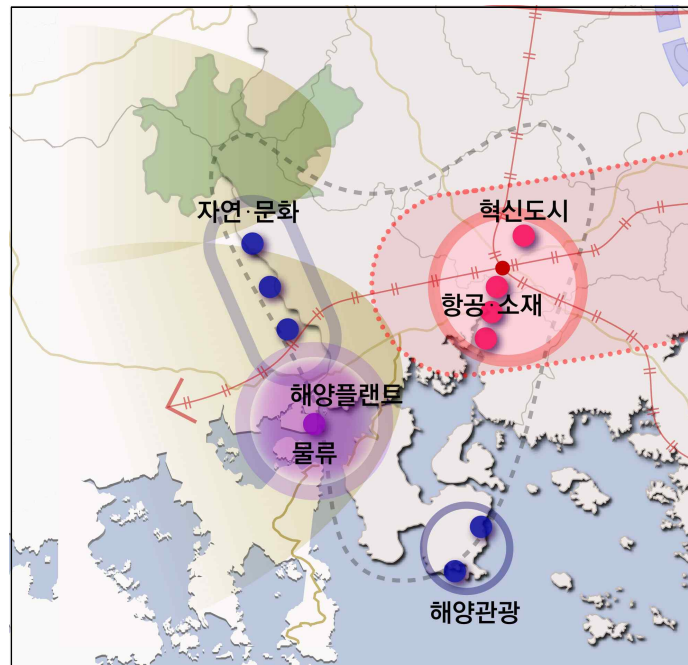


〈그림 2-2-9〉 동북부권(내륙성장 도시권) 발전전략

#### 서부권 :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 + 소재 + 해양관광 + 광역연계)

- 사천 항공산업단지의 외연적 확산과 소재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통해 항공우주산업과 소재산업의 복합 신성장 거점 육성
- 서부권과 서북부권의 특화된 지역발전을 견인할 발전거점으로 진주의 역할을 부여하고 집중 육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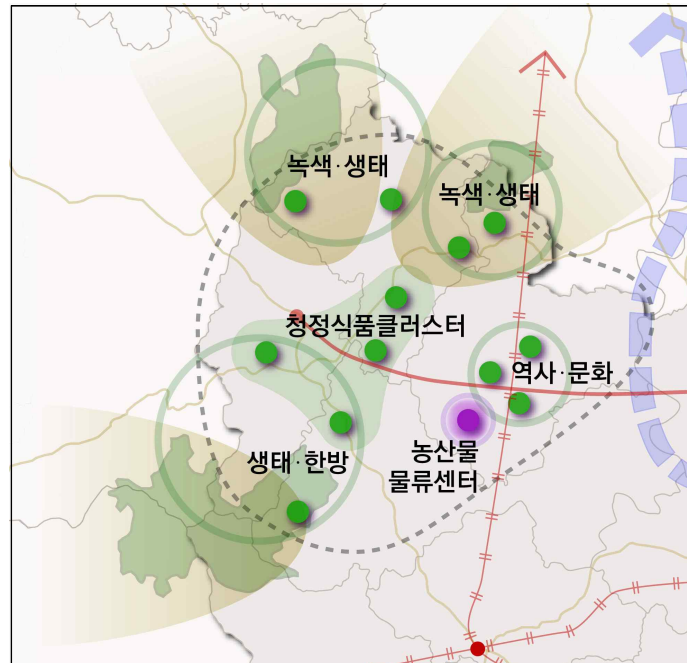
- 뿌리산업 지원센터 활성화 / 향노화 R&D 거점 개발
-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기존 산학연 연구거점 등을 상호 연계하여 서부권 신성장지대 조성
- 남해안선벨트 남중권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접경지역으로 호남경제권과의 광역개발 추진
- 여수, 광양의 산업 및 문화역량과 남해의 전략적 입지성을 연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려대교 등 광역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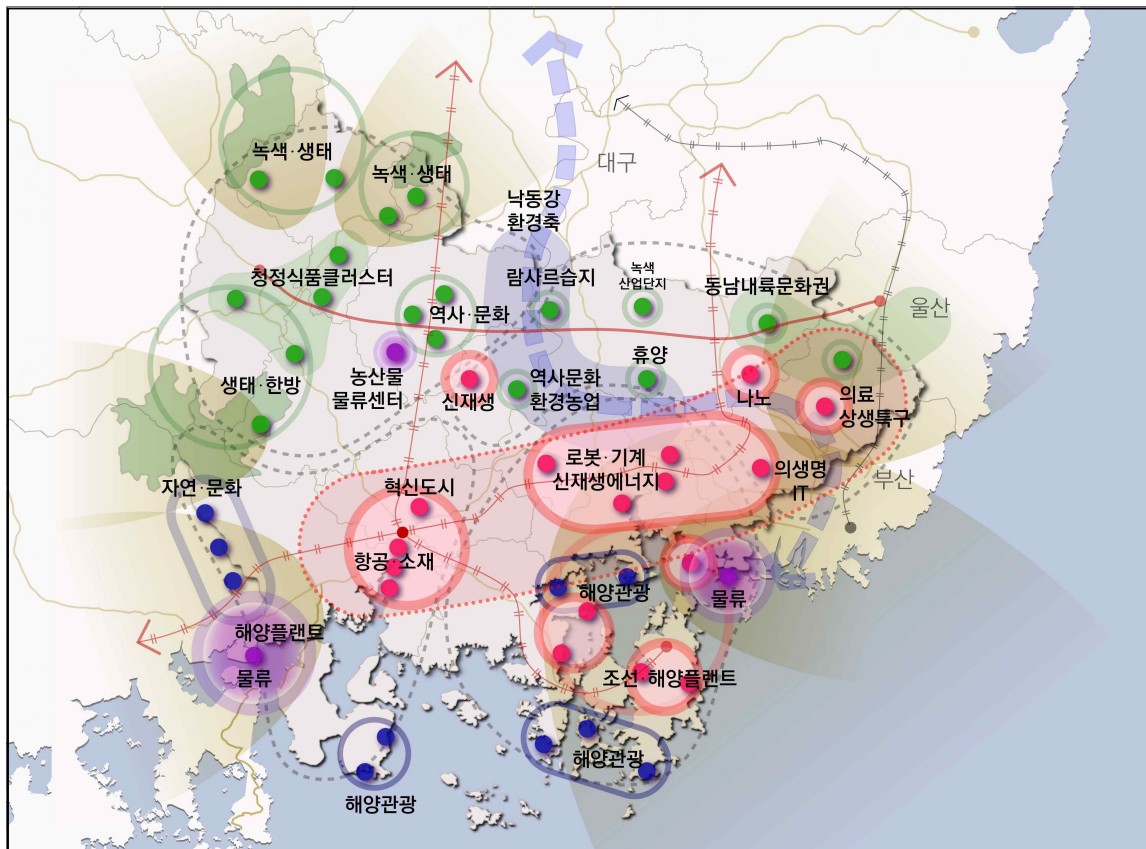
〈그림 2-2-10〉 사천만 환상도시권 발전전략

#### ■ 서북부권 ; 서북부 성장촉진권(녹색생명 + 창조지대 + 광역연계)

- 거창·산청·함양 등 지리산 인근의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클러스터·친환경농업단지·향토산업 개발을 추진하여 녹색과 생명의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 청정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의 일관체계 구축(물류센터 등)
- 한반도의 대표적 생태축인 백두대간권역을 초광역 생태 네트워크로 육성하여 생태·역사·문화가 융합된 창조지대로 조성
-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등 3대 국립공원벨트의 광역적 연계를 통해 전남, 전북, 경북 등 인접 광역도와의 공동자원화 추진
- 산청, 함양의 한방과 산삼을 전국적인 생명산업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청정 농산물 식품클러스터 구축
- 합천 해인사 대장경 등 천년 역사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신개념의 문화 + 환경관광거점으로 육성



〈그림 2-2-11〉 서북부권(서북부 성장촉진권) 발전전략



〈그림 2-2-12〉 권역별 발전전략의 종합

## 제1장 지역개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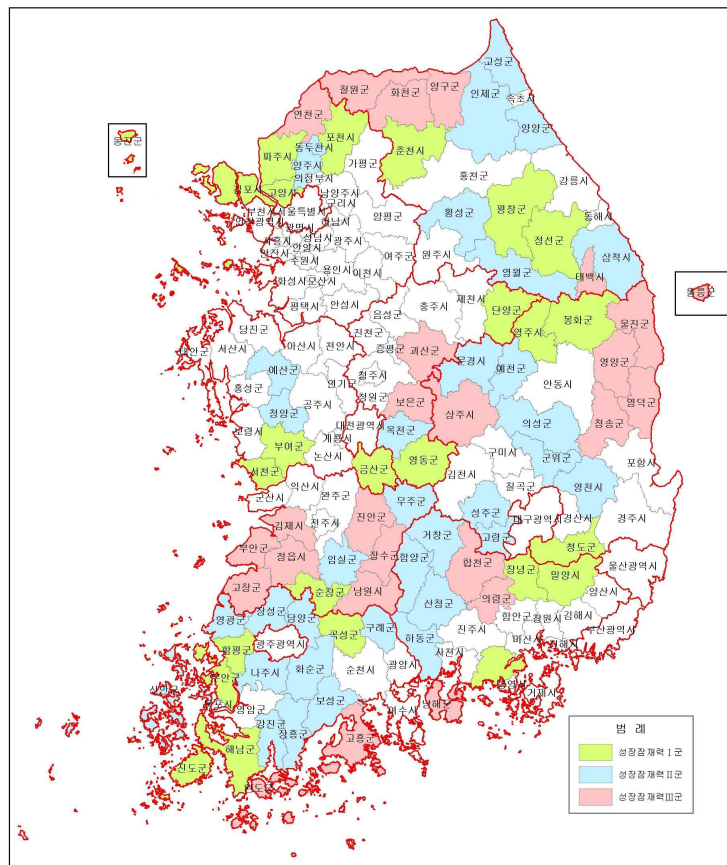
제1절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구축

제2절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

제3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 도시권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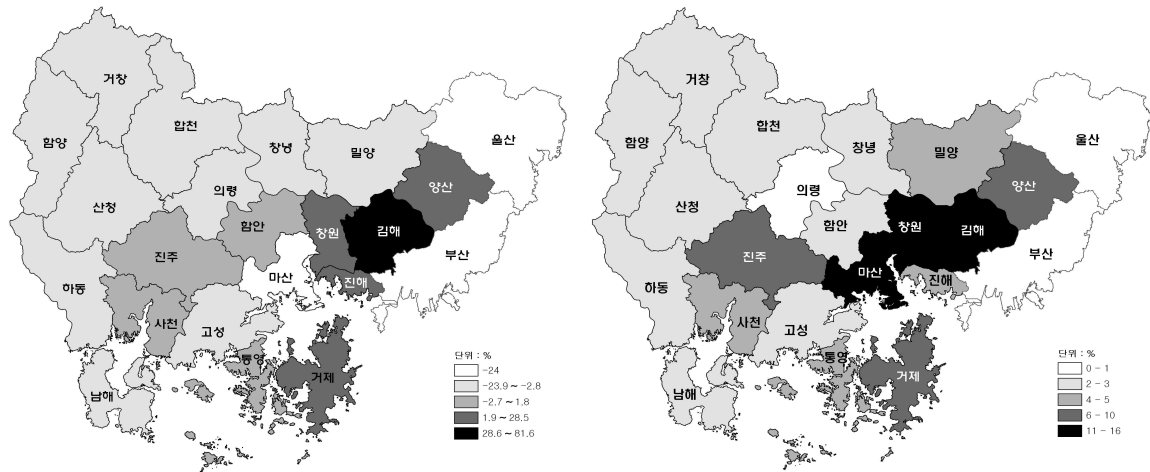
〈그림 3-1-3〉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 전국비교

## 2) 주요 지표를 통해 본 경상남도의 지역간 불균형 현황

### ① 인구

#### ■ 지속적 인구감소와 고령화

- 경남 전체의 인구는 완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0개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총량적 인구의 감소와 함께 의령과 서부경남의 낙후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 경남의 시지역 고령화율은 2010년 9.7%로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군(농촌)지역은 2005년 26.6%로 이미 초고령사회(25%)에 진입했고, 2010년에는 30% 돌파
- 낙후지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의 성장활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 2010년 현재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2.5%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남은 그보다 낮은 70.2%, 특히 군지역은 5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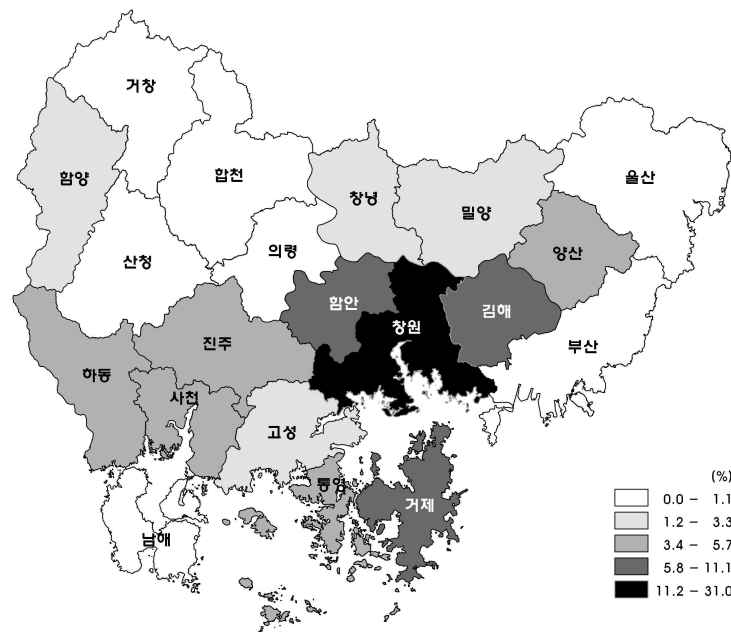




## ② 산업기반

### ■ 산업기능 편중과 산업용지 공급의 불균형

- 경남의 산업기반은 양산~김해~창원·거제~함안~진주·사천으로 이어지는 경부 및 남해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음. 이에 비해, 거창, 함양, 산청 등 서북부지역과 남해 등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 특례법 시행 이후 기업이 집적된 지역에서의 산업용지 공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산업기능의 공간적 편중과 더불어 지역발전구조의 양분화(이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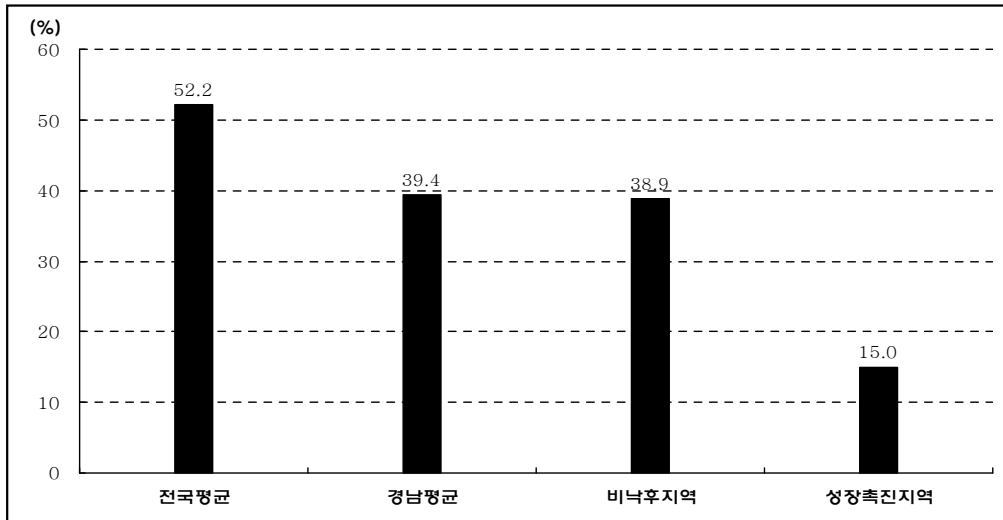


〈그림 3-1-7〉 경남지역의 산업용지 입지현황(2010.12)

## ③ 지역재정

### ■ 지역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

- 2010년 현재 경남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성장촉진지역 이외의 지역은 평균 38.9%를 나타내고 있어 약 2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경남 평균은 39.4%)
- 이러한 낙후지역의 열악한 재정사정은 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삶의 질 등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주기반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됨
- 특히, 서북부 경남을 비롯한 낙후지역(10개 시·군)은 지역경제기반이 견실하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과 업종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되어 있어, 2007년말 현재 경남도내 인구비중(18%)보다 낮은 지역내총생산 비중(16%)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경남의 낙후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고, 제조업 기능과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생적·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체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3-1-8〉 전국과 경남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2010)

## 2. 여건변화 전망

### 1) 정책환경의 변화

#### ■ 기초생활권정책의 추진

- 기초생활권정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든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구현하고 농산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역개발, 여건불리 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보조금 도입·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포괄보조금 도입

-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사업의 유사·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의 발굴과 기획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시혜적 배분을 지방의 자율기획으로 전환하는 재정지원체제로 운영되며, 200여개에 이르는 지역발전사업을 24개 포괄사업으로 통합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부존자원과 잠재력을 살려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특화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 지역발전 통합 지원법률의 제정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유사·중복된 국토·지역계획 및 개발사업을 정비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토공간과 관련된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를 계획한 바 있음

- 유사·중복된 국토·지역계획의 통폐합과 함께 지구·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되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통폐합 추진 계획

## 2) 중앙정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개발방향

### ■ 농·산·어촌의 지역·생활중심거점 육성과 이용편의성의 제고

-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기숙형 공립고 연계 등을 통하여 농어촌 뉴타운 등 생활거점을 도시적 서비스 수준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생활인프라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30분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등 선진적 정주환경 조성

###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

-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시설기반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환경부담과 자원소모를 최소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전원마을·농어촌 뉴타운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유도

### ■ 낙후지역의 국가지원 차등화 및 광역적 연계

- 낙후도가 심한 농·산·어촌의 성장촉진지역 지정과 특수상황지역 중 발전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인접 시·군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신발전지역으로 지정·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백두대간 주변지역, 서부 경남권 등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마련 중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와 전략

#### (1) 계획목표

#### ■ 기회와 희망이 함께하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경남 실현

-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형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여,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경남 구현 및 도민 통합과 성숙한 지역공동체 완성
- 궁극적으로 ‘장소의 번영’ 과 ‘사람의 번영’ 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번영” 을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완성의 발전기제로 작동해 나감

#### ■ 내생적 지역발전·자립형 지방화의 실현 : 상향식 지역발전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내부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자립적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유도

-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지방이 스스로 차별화되는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에 걸맞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효율성, 경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천

## (2) 기본원칙

### ■ 상생과 협력

- 18개 시·군이 성장과 번영의 공동적 성취를 위해 긴밀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적인 사업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
- 협력을 통해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범주를 벗어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고,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공동생산적인 참여과정을 거쳐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

### ■ 특성화 발전

-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역량을 극대화 함. 18개 시·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발적인 차별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이점 확보

### ■ 통합과 집중

-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발전정책·사업과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의 실천성 강화

## (3)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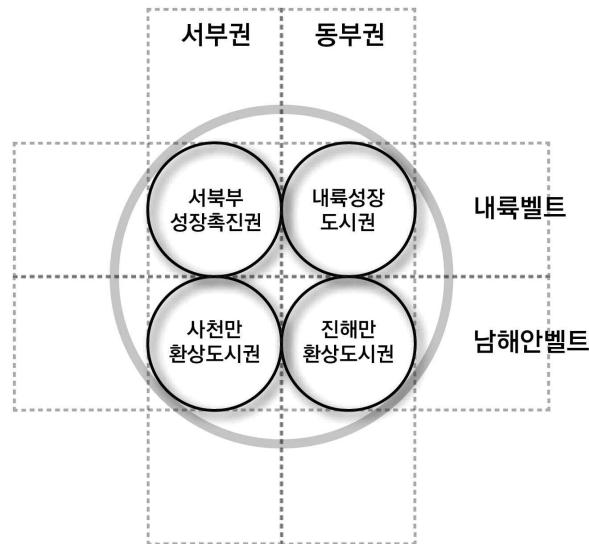
### ①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내 각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균형발전사업의 지역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초자치단체간의 격차는 무엇보다도 낙후지역이 느끼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큼. 따라서,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간 지역불균형의 양태와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발전정책과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함. 일선 시·군에서도 지역혁신주체 상호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

###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별 발전전략과 산업육성의 특성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극대화
- 공간구조의 측면에서는 동부 ↔ 서부, 남해안권 ↔ 내륙권 등 4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4대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기능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공생구조를 형성
-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3차 산업과 1차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균형있고 역동성 있게 재구축해 나가도록 유도

-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항공산업 등 첨단제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아름다운 남해안과 지리산 등 산악지대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 또한, 과거의 지역개발은 산업단지 조성, 생산 관련 SOC 등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하여 왔으나 향후,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식·기술의 개발 및 확산시스템의 구축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그림 3-1-9〉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

### ③ 기존 지역발전사업과의 통합적 접근

#### ■ 경남도 균형발전정책과 기존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율성 강화

- 경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 및 낙후지역 지원사업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경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의 연계 강화 및 사업 간의 조정
  -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예산 및 사업추진의 권한이양 등 지역역량 강화

## 2) 추진시책

###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 ①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 ■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더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추진동력 확보

-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재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 등

### 주요 기능

-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사업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수립, 전문가 활용 등 부가 비용 지출
- 예비비 등
-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②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 도-시군 + 시민사회의 상생협력체제 구축

- 경남도 균형발전 담당부서와 일선 시군의 균형발전 담당부서의 조직적 연계 강화
  -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 정책 발굴을 위한 시군 행정경영대회 개최, 시상
  - 도정 역점시책 추진 시군 우수과제에 재정 인센티브
- 지역사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 균형발전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내생적 시스템을 확립

###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균형발전계획과 사업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 기구 설치(도지사 직속)
- 주요기능
  -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균형발전사업의 심의 및 자문
  - 균형발전사업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

### 균형발전 역량강화

-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학습, 성과전파를 위해 균형발전 아카데미 운영
  - 경남도 균형발전 담당부서와 지역사회 전문가를 주축으로 일선 시군의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특강 등 균형발전 학습의 장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상의 컨설팅 등 전문적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팀 운영

- 경남도내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2)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본격 추진

### ① 균형발전계획 수립

#### ■ 5년 단위 균형발전계획 수립

-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
- 균형발전계획에는 경남도 전역의 지역간 불균형과 원인 진단, 균형발전 전략과 정책 수립, 균형발전사업의 선정, 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 균형발전사업의 평가환류시스템 등 균형발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 단발성 지역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과정에서의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평가와 사업예산의 확보 등 계획의 실천성과 효과를 제고함

### ②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념

-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마다의 색깔과 특성이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경남 발전을 추구하고, 도가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역이 균형발전하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Hard + Soft의 시너지 창출 및 낙후지역의 특별지원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

#### ■ 균형발전 선도사업(모자이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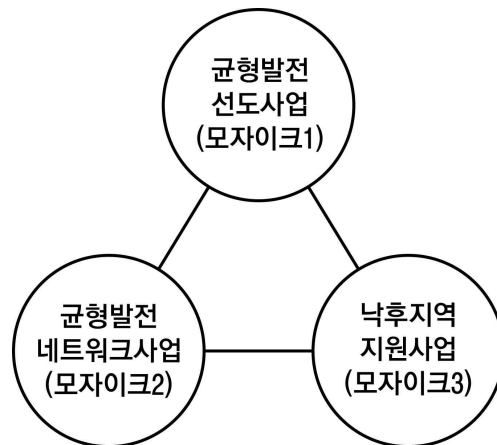
-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선 5기 도정과 시·군정의 비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적 지역발전 프로젝트
  - 창원시 야구장 건립,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18개 시군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물리적 거점개발형 지역선도사업으로 구성

#### ■ 낙후지역 지원사업

- 2011년 제정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역 내부의 평가를 통해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
- 특성화 발전, 내생적 자립화 등 낙후지역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둠

### ■ 균형발전 네트워크사업(연계 및 협력사업)

- 균형발전 선도사업(모자이크 프로젝트)이 물리적 개발사업의 성격인 점을 보완하고, 타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거두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균형발전 보완사업 추진
- 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지역내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의 사업 혹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지역발전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의 유형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공동의 자원 또는 차별화된 자원활용)이나 기능적(둘 이상의 기능-유형을 연계한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
  - 공간적 네트워크사업 : 함양과 산청의 산삼 + 한방을 연계한 공동자원화 및 브랜드 구축, 공동 마케팅사업 등
  - 기능적 네트워크사업 : 서부권의 귀농귀촌 인력에 대한 공동유치, 공동 영농교육시스템 구축, 공동 마케팅사업 등



〈그림 3-1-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구성체계

### (3)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개발, 신발전지역 등 중앙정부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앙정부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인프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내 낙후지역 발전정책의 큰 틀에서의 인프라 정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발전 거점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 자체 낙후지역 지원사업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하드와 소프트가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함

### ■ 신발전지역 개발(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근거)

-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발전지역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기존 발전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통



합적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추진

- 지역내 만성적인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지정 9개 군과 진주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새로운 지역성장을 견인하도록 함
  - 대상지역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9개 군과 진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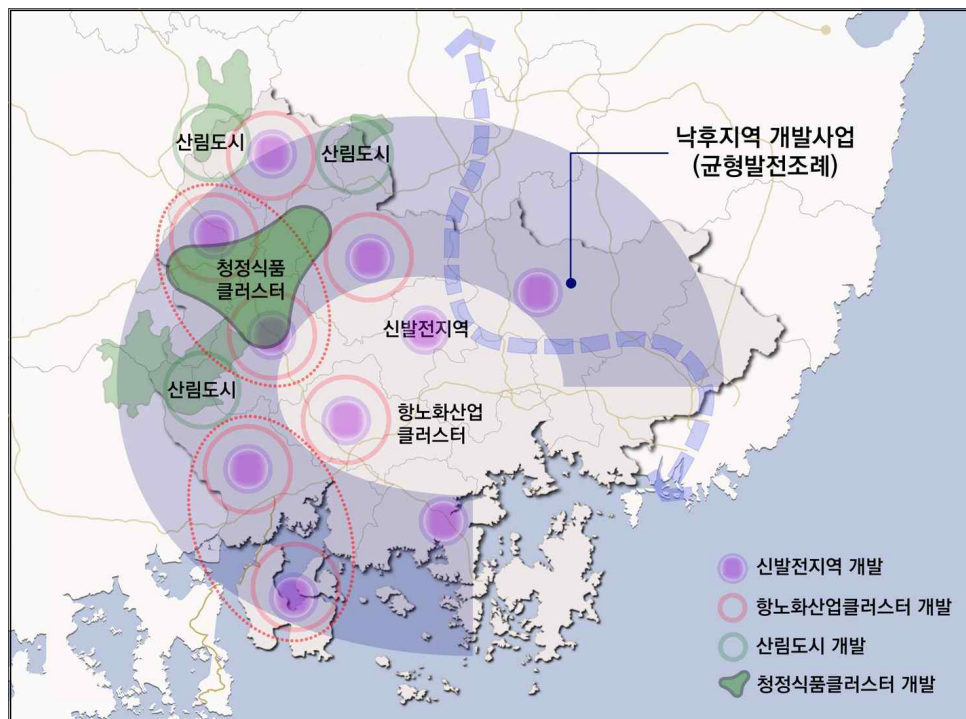
#### (4) 낙후지역의 자원활용형 전략개발사업 추진

##### ■ 한방의료 및 향노화 클러스터 형성

-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명품약초 생산지원을 통한 약초생산 기반확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한방약초상품 개발 등 서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를 도모함
- 한방의료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진주의 연구거점과 서북권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향노화산업클러스터 구축 추진. 1차 산업인 약재 및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2차 산업으로서 약재 및 농산물에 대한 연구개발, 3차 산업인 의료관광 연계육성

##### ■ 산림도시 조성

- 최근 숲에 대한 휴양 및 리조트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산림청 자료(2002~2010)에 따르면 국내 휴양인구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숙박이 주가 되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자수도 지난 10년간 2.5배(운영수익은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서북부 산악지대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자원과 산림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산림리조트 또는 커뮤니티형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모델로 개발



〈그림 3-1-11〉 자원활용형 낙후지역 개발구상

## 제2절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

### 1. 현황 및 여건분석 : 광역적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경남의 광역정책

#### 1) 광역발전과 연계협력의 필요성

##### ■ 공간정책의 광역화시대

-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경제·공간정책을 추진해 옴에 따라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과도한 경쟁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광역경제권(5+2)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 지역발전의 연계·협력 강화

-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지역(거점, node) 간에 동종 또는 이종의 콘텐츠로 서로 연계되어 서로 힘을 합하고 도와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업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편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Win-Win 전략으로서 가치를 지님

#### 2) 중앙정부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연계협력

##### ■ 기초생활권

- 시군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정책에서는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음. 즉, 문화관광, 환경,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시·군 연계·협력에 의한 농축수산업 및 2·3차 산업의 공동마케팅 강화와 환경 등 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 및 활성화 지원

##### ■ 5+2 광역경제권

- 인구규모, 산업 연계성 및 보완성,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 중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식경제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연계·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따라 문화, 관광, 환경, 도시개발 등 분야의 사업발굴은 한계가 있음
  - 2010년 선정된 총 30개 과제 중 25개가 산업기술이고, 5개가 관광분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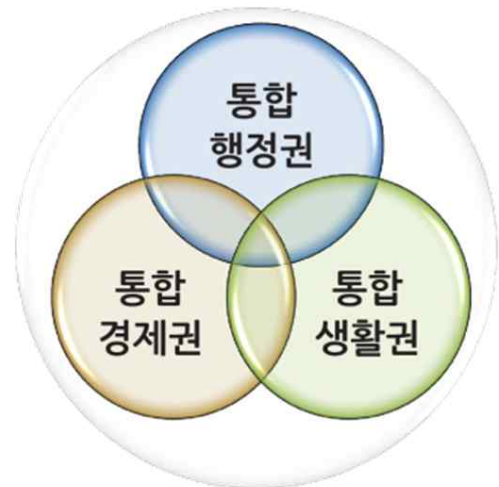
### 초광역개발권

- 초광역개발권은 다가오는 초국경시대에 대응하여 대외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토발전전략임
  - 환태평양권 등 동북아시아권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외개방형 개발축과 내륙벨트 등 초광역개발권 개발
  - 시·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공유자원, 산업,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간 연계개발을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을 극복
  - 백두대간, 하천 등 초광역적으로 이어지는 국토 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창조산업과 창조지역을 육성

## 3) 경남의 광역발전정책과 연계협력

### 동남권 광역통합 제시(동남권 특별자치도)

- 그 동안 경상남도는 남해안선벨트 등 다수의 광역 및 초광역 연계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인접한 전남, 전북, 부산, 울산 등 광역도와 함께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광역적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개발을 시도해 왔음
- 특히,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그 동안 지역 간 행정구역의 벽에 가로막혀 갈등을 지속해 온 부울경 3개 시도의 발전적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남권 광역대통합의 특별자치도를 제안한 바 있음



〈그림 3-1-12〉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개념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정부 차원의 지역간 연계협력 유도 강화

#### 초광역·광역적 지역간 연계협력의 방향전환 예상

-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기저에는 ‘지역 간 협력’에 의한 동반과 상생발전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향후 광역 및 초광역 수준에서의 지역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지역간의 연계와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을 강력히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음
  -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

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

- 이상과 같이, 5+2 광역경제권, 4+α 초광역개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광역화에는 단순한 행정적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발전주체 상호 간, 그리고 사업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산업 육성과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은 산업적·기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이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공간적 연계 강화차원에서의 정책적 조율이 예상됨. 즉, 산업 이외의 문화·관광 등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등 기존의 추진방식을 보완하여, 통합적 정책을 통해 사업대상지역과 사업분야, 사업내용 등의 연계가 예상됨

## 2) 지자체 상호간의 연계협력 노력 확산

- 최근 들어, 지자체 상호 간의 자발적 연계협력의 추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서 경남의 서부지역과 전남의 동부지역 9개 시군이 연합하여 구성한 남중권 공동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는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협력적 추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동서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나아가서는 2개 시·군 이상의 연계사업과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남중권 공동변영을 위한 상호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기능도 담당하게 됨
- 또한, 지난 2008년 설립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은 경남의 산청, 함양, 하동과 전남의 남원, 구례, 곡성, 장수 등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7개 시·군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리산의 통합적인 관광개발 전략 수립 및 자치단체 간의 중복투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등 지자체 간의 공간적 연계협력은 지역의 행정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광역·초광역 개발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지대 형성

- 경상남도는 그 동안 남해안선벨트 등 인접 시도와의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초광역적 지역개발을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추진의 근거에는 남해, 지리산, 덕유산, 낙동강 등 광역적 공유자원의 풍부함이 있음
-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광역 및 초광역개발의 의미를 반영하여 지역 공유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경남이 속한 동남권은 물론, 인접한 대경, 호남광역경제권과의 동반발

전, 나아가서는 일본 큐슈권과의 월경적 상생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지대로 육성할 것을 계획목표로 제시함

- 이와 더불어,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통합국토의 미래를 고려한 지역차원에서의 대북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함

## 2) 추진시책

### (1) 초광역 연계협력

#### ■ 백두대간벨트 개발

- 한반도의 척추이자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백두대간 생태네트워크를 보호·보전함과 동시에 무공해·저탄소 관광·산업·스포츠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 산업지대로 구축
- 정부의 4+α 초광역벨트 개발계획 반영
- 백두대간 내에서 재배되는 청정 농식품과 약초 등의 특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생명의 중심지로 특화
  - 대상지역 :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 ■ 남해안선벨트 개발

- 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을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로 조성
- 정부의 4+α 초광역벨트 개발계획 반영
  - 대상지역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 ■ 남중권 협력지구 개발

- 남해안 선벨트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결절성을 고려하여 동서간 연계협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대상지역 : 하동군, 남해군, 사천군, 진주시와 전남 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 동남권 상생협력의 적극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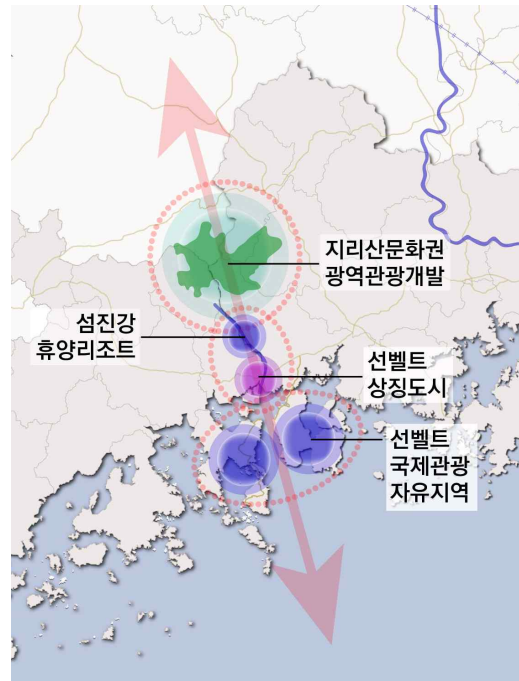
- 동남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남광역경제권의 전략사업을



〈그림 3-1-13〉 백두대간벨트 특성화권의 3대축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차원에서  
의 상생협력을 지금보다 강화해 나감

- 이를 위해, 교통물류분야의 인프라 확충, 통합 관광벨트 구축 등 추진
  - 창원·울산간 경제산업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환승체계 구축, 동남권 공동물류단지 개발 추진
  -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공동 마케팅 사업, 동남권 광역관광 협의체 구축 등 추진
- 또한, 동남권 3개 시도의 공간적 접경지역인 양산시의 전략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3개 시도가 공유할 수 있는 첨단산업 연구거점 개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 보완적 광역 행정의 거점으로 육성



〈그림 3-1-14〉 남중권 협력사업 구상

### ■ 신내륙벨트 형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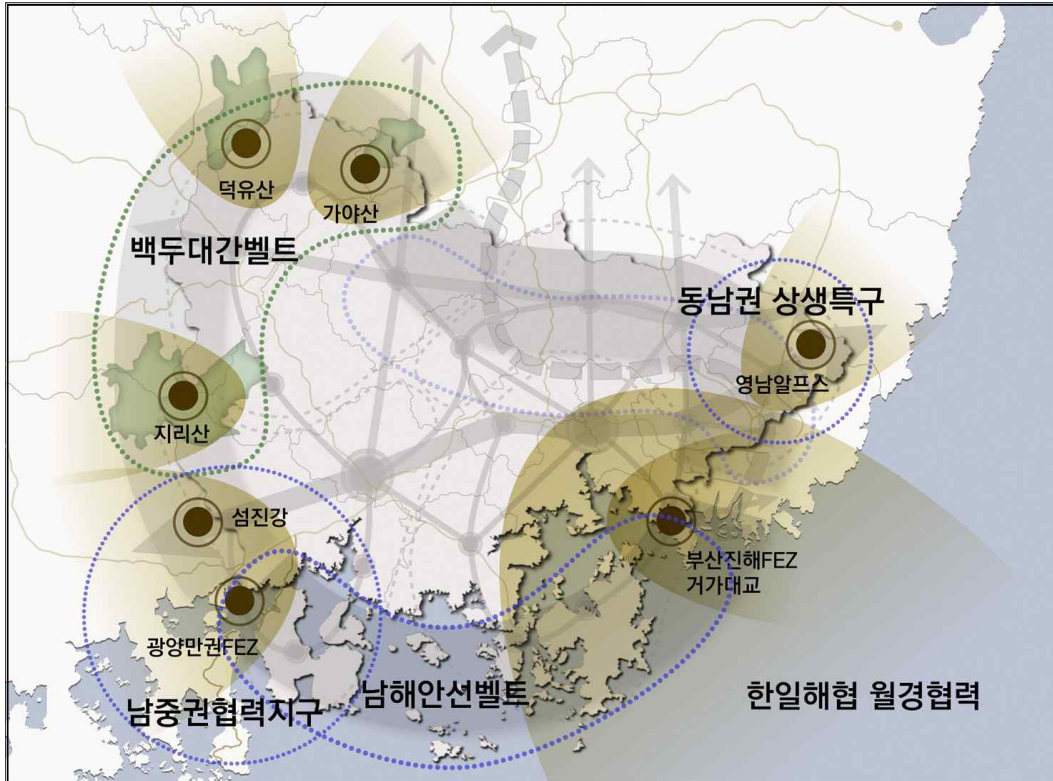
- 백두대간벨트, 남해안선벨트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양대 국가벨트의 개발효과를 경남 내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신내륙벨트 형성 추진
  - 대상지역 :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 신내륙벨트는 대상지역 5개 시군의 성장잠재력과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첨단산업·문화·생태 융합의 신성장벨트로 조성함
  - 김해와 양산의 의생명 + 의료산업 육성
  - 양산 나노융합산업 육성(나노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관련 R&D 거점 유치)
  - 창녕(우포 람사르 습지, 부곡온천), 의령(역사문화, 친환경농업) 등 내륙지역 환경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태환경 융합지대 조성
  - 밀양, 양산 등 울산과 연계한 동남 내륙문화권 개발

### ■ 한일해협 월경협력 추진

-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한일해협을 중심으로 한국의 동남권과 일본의 큐슈권이 향후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월경적 경제블록을 지원하는 단계별 전략 추진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및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기능강화
  - 경남 국제화센터 등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구성
  - 일본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 경제교류 강화



- 국제교류 인력양성 및 월경적 국제협력 추진계획 수립 등



〈그림 3-1-15〉 공유자원을 매개로 한 광역적 연계협력 구상

### 중국과의 경제교류·관광객 유치 강화

-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연계한 경제·관광 측면에서의 국제교류 강화 추진.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 군인 자동차·기계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향후 대중국 수출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 강화 필요
- 또한, 세계적인 관광송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인이 선호하는 문화·관광자원과 상품개발,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숙박 및 관광 안내체계를 개선

### 대북교류 및 지원사업 추진

- 경상남도에서는 그 동안 통일 딸기, 남북 공동 벼농사, 과수단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과 협력사업 29건에 33.1억원 추진
  - 대표적 사업은 딸기모종을 경남에서 반입하여 재배하는 ‘경남통일딸기’ 사업과 강남군 장교리 소학교 건립지원(도민 성금으로 지원) 등
-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북교류 협력과 지원사업 추진. 이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하며, 중앙정부와의 긴

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함

- 대북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남북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전망에 기초해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경남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추진사업 설정
- 대북지원사업의 다각화 : 지금까지 농업분야의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경남의 제조업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협력방안을 추진
- 교류협력기금의 다양화 검토 및 확대, 담당조직의 강화 등 재정적·행정적 정책기능 강화 추진
- 북한의 협동농장 지원 : 장교리 협동농장에 대한 농업지원 집중. 모범적인 농장으로 육성하여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모델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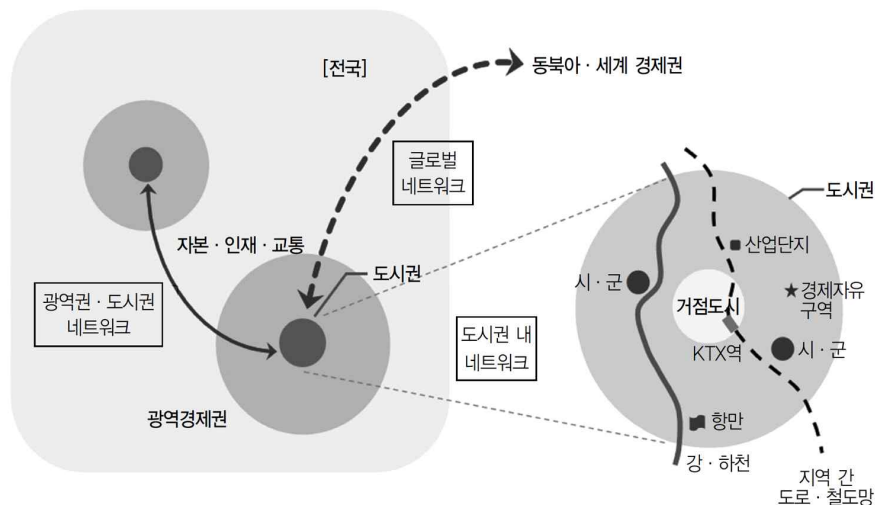


## 제3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 도시권 육성

## 1. 현황 및 여건분석 : 도시권 발전전략의 필요성과 경남의 도시권 현황

## 1) 도시권 발전전략의 필요성

- 세계화·지방화·광역화의 추세 속에서 중앙정부는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도를 연계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권은 이러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기능지역임. 따라서, 각 광역경제권별 도시권(City-Region)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간단위로 부상하고 있음
- 공간적 범위는 거점도시와 일상생활·경제활동의 연관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광역경제권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3-1-16〉 도시권 형성의 개념도

## 2) 경남의 도시권 현황

## (1) 도시화 현황 및 특징

## 도시인구 증가세 둔화

- 우리나라 전국 도시화율은 2000년 88.3%에서 2005년 90.1%·2010년 90.9%의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인구증가 둔화와 더불어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정체상태로 접어들고 있음
- 경남의 도시화율은 2000년 78%에서 2005년 84.4%, 2010년 84.5%로 점차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시군별로 보면 2010년 현재 양산(98.5%), 김해(96.3%), 창원(96.0%), 진주(93.0%)가 전국 도시화율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도시화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음

### 도시체계 분포의 불균형

- 경남의 시·군을 인구규모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창원시는 100만 이상의 I 계층으로 구분되고, II 계층(50만 이상)에는 김해시, III 계층(30만 이상)에는 진주시 등 각각 1개 도시가 있음. IV 계층(10~30만)에는 양산·거제·통영·사천·밀양시, 그 이하(10만 이하)의 계층(V)에는 대부분의 군지역이 포함됨
- 어느 정도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한 인구와 경제기반을 갖춘 도시들은 부산에 인접한 동부권에 분포하고 있어 도 전체 도시체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도시권 중심도시의 중심성 증대와 주변지역 시가지의 쇠퇴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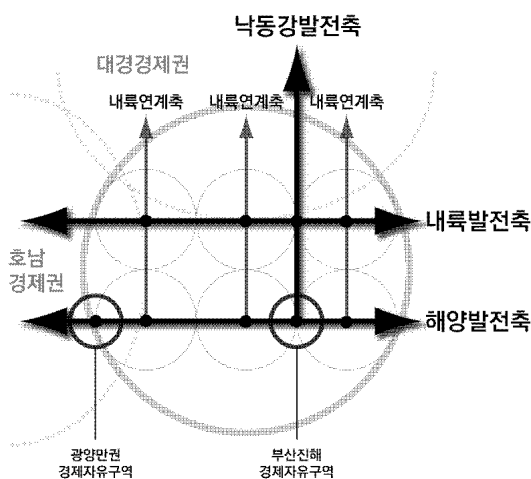
- 창원시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통합됨에 따라 주변지역(함안·김해 등)에 대한 창원시의 중심성이 강화되는 한편, 주변지역 시가지의 쇠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한편, 대도시와의 교통망체계가 발달하면서 부산과 창원시의 영향권이 지금보다 확대되어 기존 중소도시의 중심지 역할에 변화가 예상됨

### 부산 대도시권 주변(경남 동부도시권)의 역도시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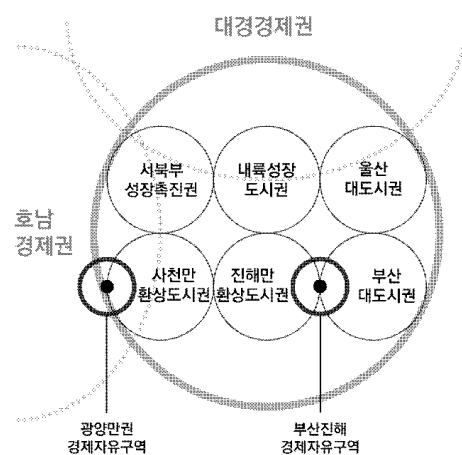
- 부산과 경남의 동부지역 도시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과거 부산의 성장시대에는 양산·김해지역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다가, 부산의 산업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시 김해·양산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역통근하는 역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

## (2) 경남지역 도시권 설정

- 본 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되는 동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2009)에서는 동남권 3개 시도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6대 지역경제권과 3대 광역발전축으로 지역구조를 설정하고 있음



〈그림 3-1-17〉 광역 및 지역발전축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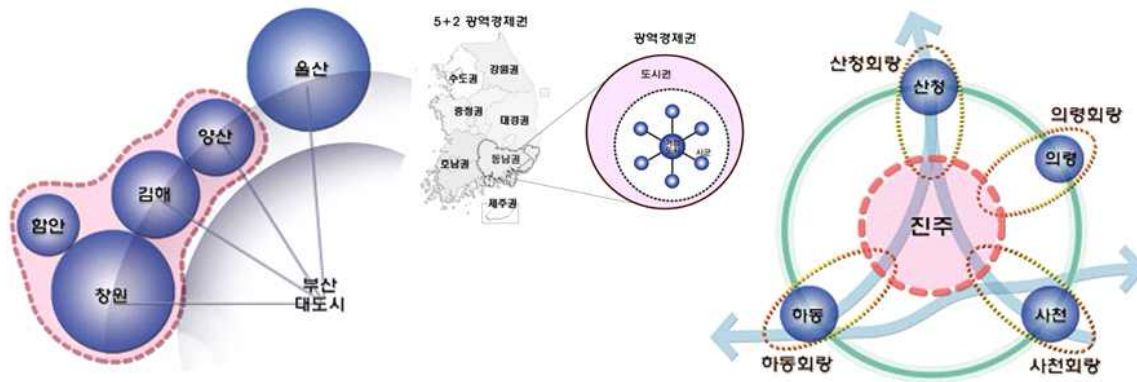


〈그림 3-1-18〉 6대 지역경제권 개념

- 3대 광역발전축 : 낙동강발전축 · 해양발전축 · 내륙발전축
- 6대 지역경제권 : 부산대도시권 · 울산대도시권과 경상남도 지역은 서북부성장촉진권 · 내륙성장

도시권 · 진해만환상도시권 · 사천만도시권으로 구분

- 상위계획과 경남지역의 경제·공간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경남지역은 창원과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2개의 도시권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림 3-1-19〉 경남의 2대 도시권(좌 : 동부 도시권, 우 : 서부 도시권)

〈표 3-1-1〉 경남 도시권 구분과 특성

구 분	포함 도시	주요 성장거점	인구규모	도시권 특성
중동부도시권	창원, 함안 김해, 양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192만명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동서교통축을 통해 선형(線型)의 네트워크 도시권 형성 -부산 대도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기능 분담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구성되는 도시권
서부도시권	진주, 사천 하동, 산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남가람혁신도시	54만명	-중심도시인 진주가 주변지역(사천·하동·산청 등)을 포섭하는 방사회랑형 형태 -낙후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추도시의 기능이 요구되며,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발전거점 보유

### 3) 도시권별 문제점과 과제

### (1) 문제점

① 동부도시권

## 도시권으로서의 경쟁력과 중심성 취약

-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지대로서 성장한 바, 글로벌 수준의 도시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핵심지역인 통합 창원시가 도시권의 한쪽에 위치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도시권의 중심성이 강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짐

### 부산의 영향력과 규모의 경제 미약

- 창원을 제외한 김해·양산지역은 부산의 역도시화 현상의 일환으로 산업이나 도시규모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부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 실제 공간상에서 각 도시들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통합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② 서부도시권

#### 통합적 도시권으로서 한계와 경제성장의 기반 취약

- 서부도시권의 중심도시인 진주시는 전통적인 서부지역의 중심적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을 아우르면서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
- 진주·사천만이 중소 규모의 도시성을 갖추고 있을 뿐, 산청·하동은 농산어촌지역으로서 성격을 가지면서 일상생활 이외의 연계는 미약하여 강한 도시권 형성을 보이고 있지는 못함

### (2) 과제

- 동남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역으로 도시권이 역할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과의 기능적 분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적 성장거점화
  - 동부도시권의 연담도시권 발전전략 모색 및 자족기능 강화
- 서부도시권의 경우도 진주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도시(사천·하동)들이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아직까지 진주의 중심성이 미약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서부도시권이 독립적인 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거점육성 및 상호간 네트워크체계 강화가 필요함
- 또한, 동부도시권과 서부도시권은 현재로서는 거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인 바, 이들 도시 간 연계성 강화도 과제의 하나임

## 2. 여건변화 및 전망

### 지역도시권의 글로벌 경쟁시대 도래

- 세계화·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전방위적 개방화시대가 됨에 따라 사람·자본·정보가 집중되는 거점도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적 교역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도시권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따라서, 대도시 혹은 중추도시를 핵으로 주변지역과 네트워크화된 공간적 범역(도시권)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임

### 국토정주체계의 재구조화

- KTX 등 초고속 교통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국토정주체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도시권 중심의 국토구조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제공항·항만 등을 통한 글로벌시장과의 직접 교류가 활성화되고, KTX 등 초고속교통수단으로 전국 일일생활권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인프라와 양호한 정부여건을 갖춘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정주체계의 재구조화가 예상됨

### 국토발전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방 대도시의 위상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국토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적 발전을 위한 규모와 네트워크 경제를 강화해야 함

### 광역경제권의 거점으로 도시권 육성 추진

- 중앙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2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실질적 발전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도시권 육성전략이 포함되었음



〈그림 3-1-20〉 도시권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글로벌 경쟁을 고려한 메가 시티리전(Mega City-region) 형성

- 울산-부산 대도시권과 경남의 동부+서부도시권으로 이어지는 선형의 도시회랑을 장기적으로는 하

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하도록 촉진. 동남광역경제권의 핵심지역(Mega City-region)으로서 인재·자본·정보가 모이고 집적되는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서의 육성

#### ■ 광역경제권 발전의 선도지역 육성

-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제·공간정책의 핵심지역을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권내 주요 도시지역(동남광역경제권 중추지대)을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global city-region)으로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

#### ■ 연성적 네트워크발전의 도시지대로 육성

-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공간영역(hard space) 중심이 경성(硬性)적 지역발전에서 벗어나,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갖는 연성(軟性)적(soft space)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공간적 연계와 기능적 융합을 도모함

## 2) 추진시책

### (1) 광역적 공간구조 개선

#### ■ 도시권 중심 다핵공간구조의 체계적 형성

- 창원·김해·양산과 함안으로 구성되는 동부 도시권과 진주·사천 등 서부 도시권의 양대 도시권 발전을 통해 경남 내부적으로는 다핵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부산-울산으로 이어지는 광역 도시 회랑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결 강화

#### ■ 경남 2대 도시권과 부산광역시와의 기능·역할 분담 및 전남 동부권과의 연계 강화

- 부산은 물류·금융·서비스 등 보다 고차화된 산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동남광역경제권내 중추도시의 위상에 맞는 기능분담과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남의 동부 도시권은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의 생산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
- 또한, 경남의 서부 도시권은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광역적 중추도시권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 강화

### (2) 경남 내부 도시권 기능강화

#### ■ 동부 및 서부 도시권 자족기능 강화

- 동남광역경제권 전체 메가 시티리전(Mega city-region)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도시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2대 도시권이 자족적 도시기능을 갖추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함
- 동부 도시권은 창원-김해-양산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서부 도시권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도시간의 기능적 연계성도 미약한 만큼 도시권 전체의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 동서 도시권 간 연계 강화

- 장기적으로 볼 때, 광역경제권의 추진에 의해 경남지역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동부 도시권과 서부 도시권을 광역교통인프라(남해고속도로·경전선 KTX)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여 서부 도시권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
- 아울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도시기능의 적정배분을 통한 균형적인 단일 도시권 형성을 위해 도시권 내부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함

### 도시권 중심 다핵공간구조의 체계적 형성

- 창원·김해·양산과 함안으로 구성되는 동부 도시권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扇形)을 보이는 도시권의 공간적·기능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중심·부심·지역중심 개발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다핵공간구조를 형성함
- 장유·진영·진례·함안·웅상 등의 부심·지역중심을 전략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창원·함안-김해-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와 도시지대가 체계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함

### 도시재생을 통한 중심부 활력 제고

- 창원, 진주 등 중심도시의 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중심에서 산업 활성화 및 도시의 기능 회복을 중시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존 도심의 활력을 증진

## (3) 발전거점의 육성

### 동부권 발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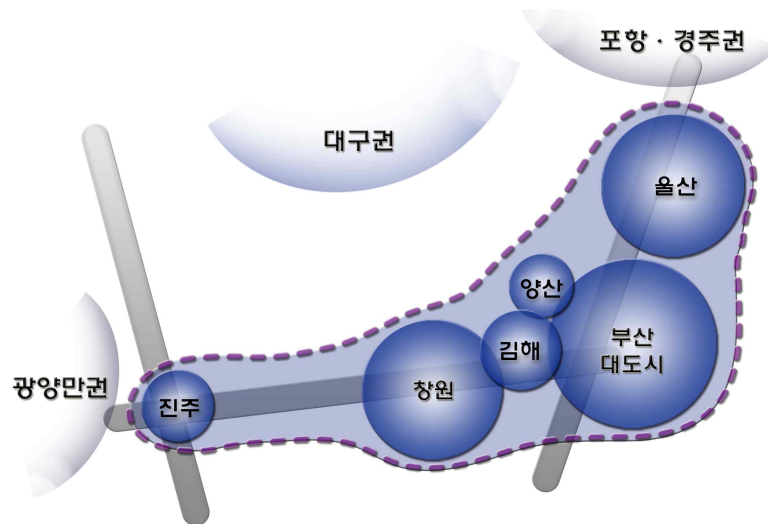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개방경제 거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성장·대외 개방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와의 기능적·산업적 연계 강화
- 창원에 건설 중인 로봇랜드를 도내 로봇산업 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산업연계전략을 국책사업화하여 추진하고, 김해-거제 등 산업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R&D 거점화사업 추진
- KT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으로 “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초국경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접속지점인 부산의 인접지역인 지리적 강점과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부도시권을 국제적 데이터 허브지역으로 육성

### 서부권 발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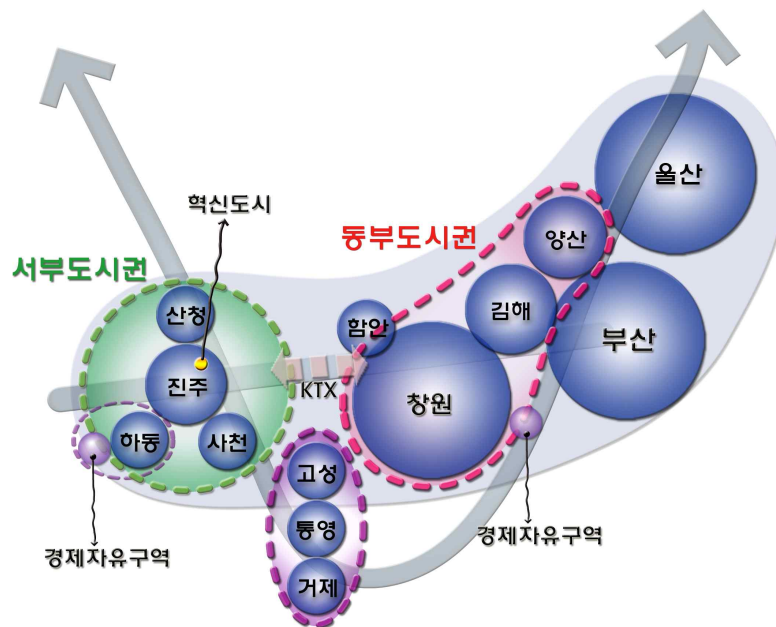
- 진주 혁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혁신도시 주변에 입지한 기업·대학·연구소·관공서(혁신주체)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창출의 거점으로 육성
- 항공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부품·연구개발체제 구축, 소형 항공기 콤플렉스 조성 등 항

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부 도시권을 국가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금형, 열처리 등 동남권 뿌리산업을 견인하는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서부권 및 서북부권의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청정농산물, 향노화산업의 R&D 거점 기능 부여



〈그림 3-1-21〉 경남의 도시권 현황(현재)



〈그림 3-1-22〉 경남 도시권의 메가시티리전 지역구조 개편(미래)



## 제2장 산업·경제 부문

제1절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제2절 과학기술의 육성

제3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제4절 개방경제 추진과 대책

제5절 일자리대책과 인적자원관리

제6절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

## 제2장 산업 · 경제 부문

### 제1절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현황

##### (1) 산업 · 경제 현황

##### ■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2010년 기준, 경남의 인구(주민등록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의 6.5%이고 15세 이상 인구는 259만명으로 전국의 6.4% 비중임
- 경제활동참가율은 60.6%, 실업자 수는 4만명으로 2.5%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1〉 경상남도 인구현황

연 도		1992	1995	2000	2005	2010
항 목						
인 구	(명)	3,846,825	3,949,903	3,094,413	3,160,431	3,290,536
전국비중	(%)	8.6	8.6	6.5	6.5	6.5
15세이상 인구	(천명)	2,658	2,844	2,310	2,431	2,594
전국비중	(%)	8.3	8.5	6.4	6.4	6.4
경제활동 참가율	(%)	62.0	60.7	60.9	62.0	60.6
실업자수	(천명)	29	18	46	36	40
실 업 률	(%)	1.8	1.0	3.3	2.4	2.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 지역내총생산(GRDP)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2009년 기준,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은 77조 2천억원으로 전국의 7.2%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00년 이후 전국 비중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표 3-2-2〉 경남의 지역총생산(1995~2009)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GRDP(백만원)	44,799,195	37,728,411	58,250,831	61,735,084	69,157,152	74,280,287	77,213,071
경남/전국(%)	10.9	6.5	6.7	6.8	7.0	7.2	7.2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당해년기준)

-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3위이지만 서울의 30%, 경기도의 37%에 불과한 수준임

〈표 3-2-3〉 지역내총생산의 지역별 순위(2009)

구 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부산
GRDP	257,598,048 (24.2)	208,296,101 (19.5)	77,213,071 (7.2)	69,222,687 (6.5)	65,133,829 (6.1)	55,525,657 (5.2)
순 위	1	2	3	4	5	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경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6.6%씩 증가해 왔는데 이는 전국 평균 4.7%보다 1.9%p 높은 수준임

〈표 3-2-4〉 경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단위 : 천원, %)

연도	전국			경남		
	1인당GDP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1인당GRDP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2005	17,820	4.4	4.7	18,431	4.8	6.6
2006	18,634	4.6		19,457	5.6	
2007	19,952	7.1		21,632	11.2	
2008	20,761	4.1		23,031	6.5	
2009	21,410	3.1		23,757	3.2	

주 : 전국과 경남의 GRDP를 각각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었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지역내총생산(당해년기준), 각년도

- 경남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광업·제조업이 45%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이 41.0%, 건설업 6.4%, 농림어업 4.4%, 전기·가스·수도 2.3%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5〉 경남의 지역내총생산 구조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구조(기초가격기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7.8	7.7	5.8	5.5	4.8	4.4	4.4
광업·제조업	49.3	40.2	40.9	41.2	43.6	46.1	45.8
(제조업)	(49.0)	(40.0)	(40.7)	(41.0)	(43.4)	(45.9)	(45.6)
전기·가스, 수도	2.9	3.5	3.1	3.0	2.7	1.2	2.3
건설업	5.9	6.2	7.7	7.6	7.7	7.1	6.4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34.1	42.4	42.5	42.7	41.2	41.2	41.0

주1 : 당해년가격 기준임.

주2 :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수출액

- 2010년 경남의 수출액은 583억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전국 수출액의 12.5%를 차지

〈표 3-2-6〉 경남 수출현황(단위 : 천달러, %)

년도	금액	증가율	전국 비중
2000	16,651,312	-	9.7
2005	26,685,339	9.9	9.4
2006	31,338,006	17.4	9.6
2007	36,512,006	16.5	9.8
2008	56,872,901	55.8	13.5
2009	54,600,617	-4	15.0
2010	58,379,529	6.9	1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www.kita.net

## 산업구조 특징

- 2009년 기준, 경남의 1차 산업 비중은 전국과 같음. 2차 산업 비중은 전국보다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3차 산업 비중은 전국의 0.8배 수준임
- 이처럼 2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은 현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3-2-7〉 경남 산업별 비중의 전국비교 및 추이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국	1차 산업	0.2	0.3	0.3	0.3	0.3
	2차 산업	28.1	27.6	26.7	25.9	25.1
	3차 산업	71.7	72.1	73.0	73.8	74.6
경 남	1차 산업	0.3	0.3	0.3	0.3	0.3
	2차 산업	39.7	39.4	40.1	39.7	38.5
	3차 산업	60.0	60.3	59.6	60.0	61.2
경남/전국	1차 산업	1.2	0.9	1.0	1.1	1.0
	2차 산업	1.4	1.4	1.5	1.5	1.5
	3차 산업	0.8	0.8	0.8	0.8	0.8

주 : 산업별 비중은 사업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2) 제조업 현황

### ■ 광공업 주요지표

- 2009년 기준, 경남의 광공업 사업체는 6,105개이며 309,133명이 고용되어 있음. 생산액은 135조원, 부가가치는 43조원,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4천만원 수준임

〈표 3-2-8〉 경남의 광공업 주요지표

구분	단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수	개	4,335	5,753	6,118	6,535	6,278	6,105
종업원수	명	255,195	284,604	294,882	311,879	315,214	309,133
생산액	백만원	50,584,479	82,262,110	89,067,529	104,999,759	128,915,387	135,203,772
부가가치	백만원	18,667,308	26,873,434	29,542,658	35,102,669	41,413,992	43,381,134
1인당고용자 부가가치	백만원	73.15	94.42	100.18	112.55	131.38	140.33

주 : 1인당 고용자부가가치 = (부가가치/종업원수)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제조업 업종별 비중 : 기계산업 중심 구조

-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기계산업 중심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09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타 운송장비(조선) 30.1%, 기타 기계장비 19.4%, 금속제품(철강 등) 17.5%, 화학 7.9% 등으로 구성됨

〈표 3-2-9〉 경남 제조업 업종별 비중(2009) (단위 : 개, 명, 백만원,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제조업(10~33)	6,075	(100.0)	308,557	(100.0)	135,057,274	(100.0)	43,285,965	(100.0)
식료품 제조업	366	(6.0)	15,020	(4.9)	4,985,966	(3.7)	1,590,740	(3.7)
음료 제조업	31	(0.5)	1,626	(0.5)	1,132,508	(0.8)	670,333	(1.5)
담배 제조업	2	(0.0)	0	(0.0)	0	(0.0)	0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66	(2.7)	5,071	(1.6)	949,680	(0.7)	342,476	(0.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	(0.3)	846	(0.3)	48,190	(0.0)	19,655	(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	(0.5)	702	(0.2)	135,274	(0.1)	56,480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7	(1.1)	1,429	(0.5)	245,642	(0.2)	95,164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7	(1.6)	3,648	(1.2)	1,657,863	(1.2)	588,187	(1.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0.4)	630	(0.2)	63,403	(0.0)	28,989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	(0.3)	442	(0.1)	223,193	(0.2)	72,504	(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56	(2.6)	4,082	(1.3)	1,784,727	(1.3)	608,330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0.2)	444	(0.1)	83,003	(0.1)	49,712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8	(6.6)	18,998	(6.2)	4,868,636	(3.6)	1,859,247	(4.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8	(4.1)	7,987	(2.6)	1,868,219	(1.4)	760,809	(1.8)
1차 금속 제조업	344	(5.7)	16,109	(5.2)	9,230,945	(6.8)	2,295,661	(5.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78	(17.7)	41,460	(13.4)	14,043,085	(10.4)	5,264,335	(1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3	(2.2)	10,793	(3.5)	6,213,243	(4.6)	918,242	(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8	(1.6)	5,668	(1.8)	2,218,750	(1.6)	682,171	(1.6)
전기장비 제조업	278	(4.6)	17,120	(5.5)	8,311,373	(6.2)	2,968,278	(6.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36	(20.3)	50,505	(16.4)	23,474,989	(17.4)	8,391,312	(19.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96	(8.2)	23,716	(7.7)	7,579,438	(5.6)	2,488,559	(5.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71	(11.0)	78,686	(25.5)	44,632,916	(33.0)	13,020,205	(30.1)
가구 제조업	67	(1.1)	1,960	(0.6)	492,821	(0.4)	153,679	(0.4)
기타 제품 제조업	40	(0.7)	979	(0.3)	137,942	(0.1)	70,415	(0.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10.

## ■ 기계산업 현황

- 2009년 기준, 경남 기계산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사업체 수의 15.2%, 종사자 수의 20.2%, 생산액의 26.1%, 부가가치의 25.3%를 차지하고 있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

〈표 3-2-10〉 경남 기계산업의 전국대비 비중 (단위 : 개, 천명, 십억,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2000~2009)
사업 체수	전국	18,800	24,139	25,544	26,949	25,608	25,419	3.4
	경남	2,512	3,419	3,731	4,068	3,971	3,857	4.9
	(비중)	(13.4)	(14.2)	(14.6)	(15.1)	(15.5)	(15.2)	-
종사 자수	전국	843	1,006	1,050	1,093	1,085	1,076	2.7
	경남	148	181	195	213	221	217	4.3
	(비중)	(17.6)	(18.0)	(18.6)	(19.5)	(20.3)	(20.2)	-
생산액	전국	156,175	269,449	300,120	337,579	384,093	383,533	10.5
	경남	29,803	53,969	61,256	75,165	92,994	100,260	14.4
	(비중)	(19.1)	(20.0)	(20.4)	(22.3)	(24.2)	(26.1)	-
부가 가치	전국	62,241	94,131	105,252	117,521	130,610	129,907	8.5
	경남	11,442	17,770	20,509	25,557	30,954	32,815	12.4
	(비중)	(18.4)	(18.9)	(19.5)	(21.7)	(23.7)	(25.3)	-

주 : 기계산업분류(C25, C27, C28, C29, C30, C31)의 합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경남의 제조업 가운데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사업체 수의 63.5%, 종사자수의 70.2%, 생산액의 74.2%, 부가가치의 75.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해 왔음

〈표 3-2-11〉 경남 제조업대비 기계산업의 비중(단위 : 개, 천명, 십억,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2000~2009)
사업 체수	제조업	4,576	5,717	6,089	6,500	6,248	6,075	3.2
	기계	2,512	3,419	3,731	4,068	3,971	3,857	4.9
	(비중)	(54.9)	(59.8)	(61.3)	(62.6)	(63.6)	(63.5)	-
종사 자수	제조업	254	284	294	311	315	309	2.2
	기계	148	181	195	213	221	217	4.3
	(비중)	(58.3)	(63.7)	(66.3)	(68.5)	(70.2)	(70.2)	-
생산액	제조업	50,520	82,131	88,980	104,882	128,771	135,057	11.5
	기계	29,803	53,969	61,256	75,165	92,994	100,260	14.4
	(비중)	(59.0)	(65.7)	(68.8)	(71.7)	(72.2)	(74.2)	-
부가 가치	제조업	18,620	26,791	29,483	35,031	41,327	43,286	9.8
	기계	11,442	17,770	20,509	25,557	30,954	32,815	12.4
	(비중)	(61.5)	(66.3)	(69.6)	(73.0)	(74.9)	(75.8)	-

주 : 기계산업분류(C25, C27, C28, C29, C30, C31)의 합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특화산업 분석 : 기계, 장비, 조선, 금속산업 등에 특화

- 경남의 특화산업을 부산, 울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남은 부산과 특화산업이 유사하나 부산에 비해 보다 기계, 장비, 조선, 금속 등에 특화되어 있음

〈표 3-2-12〉 동남권 제조업 특화도 분석(2009)

제조업	종사자수			생산액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식료품 제조업	1.15	1.51	0.19	1.54	2.19	0.24
음료 제조업	1.41	0.83	0.24	2.09	0.98	0.03
담배 제조업	-	-	-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70	1.95	0.81	0.68	2.67	0.8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6	4.09	0.07	0.11	8.43	0.0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17	4.06	0.07	0.32	7.61	0.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92	1.64	0.59	1.02	3.48	0.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0	0.80	0.74	1.47	0.51	0.7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2	2.42	0.33	0.87	4.65	0.2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14	0.20	3.64	0.01	0.08	2.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0.41	0.70	2.59	0.17	0.37	1.8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99	2.12	0.00	1.31	4.08	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8	1.22	0.40	1.60	1.72	0.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6	0.61	0.34	1.72	1.30	0.29
1차 금속 제조업	0.90	1.49	0.77	0.75	2.08	0.9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6	1.16	0.49	1.66	1.91	0.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	1.49	0.55	1.65	1.58	0.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9	1.44	0.18	1.90	1.63	0.06
전기장비 제조업	1.17	1.19	0.44	1.91	1.29	0.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7	1.05	0.36	1.90	1.31	0.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8	0.57	2.32	0.44	1.07	1.4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4	0.24	1.37	1.46	0.37	0.74
가구 제조업	0.80	1.38	1.09	0.87	1.87	0.91
기타 제품 제조업	0.73	2.33	0.39	1.06	4.06	0.23

주 :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 산업특화계수 LQ > 1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 산업특화계수 LQ=1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수준」

- 산업특화계수 LQ < 1이면 전국평균에 비해 「비특화」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10.

### (3) 권역별 · 지역별 특화산업의 검토

#### ■ 제조업의 동남권 비교

- 경남 제조업의 동남권내 비중을 보면, 사업체의 54.5%, 종사자수의 53.9%, 생산액의 41.8%, 부가  
가치의 47.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13〉 동남권 제조업 현황(2009)(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경 남	6,075	(54.5)	308,557	(53.9)	135,057,274	(41.8)	43,285,965	(47.3)
부 산	3,825	(34.3)	125,567	(21.9)	36,045,222	(11.1)	12,554,864	(13.7)
울 산	1,244	(11.2)	138,377	(24.2)	152,258,698	(47.0)	35,613,550	(38.9)
동남권	11,144	(100.0)	572,501	(100.0)	323,361,194	(100.0)	91,454,379	(100.0)
전국대비 동남권 비중	(19.2)		(23.3)		(28.8)		(24.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10.

### ■ 경남 시·군의 산업별 비중

- 2008년 GRDP 기준으로 볼 때, 경남의 제조업은 93.8%가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특히 창원, 김해, 거제, 양산, 사천, 통영에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으며 군 지역의 경우 함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14〉 경남 주요 시·군의 산업별 구성배분(2008년 GRDP 기준)(단위 : %)

시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양산	진주	밀양	거제	사천	통영	합계(시)
농림어업	3.5	2.8	0.2	7.6	2.9	12.2	13.1	0.8	6.5	6.0	55.8
제조업	38.1	4.2	2.9	12.6	8.4	1.7	0.9	18.0	3.5	3.4	93.8
사회간접자본	12.0	8.5	5.6	11.8	8.6	7.2	3.7	8.0	4.0	4.5	74.0
서비스업	15.6	12.3	6.2	11.8	6.6	11.7	3.6	5.0	4.3	4.1	81.2
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하동	남해	함양	거창	합천	합계(군)
농림어업	4.3	5.9	4.9	4.0	4.5	3.6	1.9	3.6	5.0	6.7	44.2
제조업	0.3	3.8	0.7	0.6	0.1	0.1	0.0	0.3	0.3	0.1	6.2
사회간접자본	1.4	3.8	1.7	5.9	1.9	6.6	1.0	1.2	1.5	1.1	26.0
서비스업	1.2	2.3	2.6	1.8	1.4	1.7	1.8	1.7	2.4	1.9	18.8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010.

### ■ 권역별 제조업

- 경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진해만환상도시권과 내륙성장도시권에 경남 제조업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음

〈표 3-2-15〉 권역별 제조업 비중(2009년 기준)(단위 : %)

구 분	진해만환상 도시권1)	사천만환상 도시권2)	서북부성장 촉진권3)	내륙성장 도시권4)	합계
사업체수	42.9	7.7	1.9	47.5	100.0
종사자수	60.9	6.4	1.1	31.6	100.0
생산액	74.2	4.7	0.7	20.4	100.0
부가가치	70.7	5.6	0.7	23.0	100.0

주 : 1)진해만환상도시권 : 창원, 함안, 고성, 통영, 거제

2)사천만환상도시권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3)서북부성장촉진권 :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내륙성장도시권 : 양산, 김해, 밀양, 창녕, 의령

자료 :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2010.

### 지역별 특화산업의 검토

- 경남 제조업의 시군별 특화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특화산업인 금속, 기계 관련 산업 및 기타 운송장비(조선산업)는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양산 등 서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표 3-2-16〉 경상남도 제조업의 시·군별 입지계수(종사자기준)

구분	식료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섬유 제조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코크 스, 연탄 및 석유 정제 제조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의료 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제조	금속 가공 제품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 장비	가구 제조	기타 제품 제조
경남	0.8	1.0	2.0	0.4	0.1	0.3	0.7	0.6	0.2	0.3	0.3	0.1	0.9	0.8	1.1	1.5	0.2	0.8	0.9	1.6	0.8	4.3	0.4	0.3
창원	0.2	0.0	0.0	0.0	0.0	0.0	0.6	0.1	0.3	0.0	0.0	0.0	0.2	0.2	1.1	1.8	0.3	1.7	2.1	3.0	1.2	1.6	0.1	0.1
마산	0.5	11.4	0.0	0.4	0.0	0.0	0.7	0.8	1.0	0.0	0.2	0.0	0.8	0.9	0.5	0.9	1.7	1.3	1.8	1.8	0.6	0.7	0.1	0.4
진주	0.8	1.2	0.0	2.4	0.1	0.0	0.0	5.7	0.0	0.0	0.5	1.1	1.3	2.8	1.3	0.5	0.0	0.2	0.1	2.3	1.5	0.2	0.3	0.0
진해	0.6	0.0	0.0	0.1	0.0	0.0	0.0	0.0	0.0	0.0	0.1	0.0	0.2	0.8	4.4	0.8	0.0	0.6	0.1	0.3	0.0	9.3	0.0	0.7
통영	1.8	0.2	0.0	0.0	0.1	0.0	0.1	0.0	0.0	0.0	0.1	0.0	0.1	0.2	0.0	0.8	0.1	0.0	0.0	0.0	0.0	12.9	0.1	0.0
사천	1.3	0.4	34.0	0.0	0.0	0.0	0.1	0.9	0.0	0.0	0.1	0.0	0.0	0.7	0.5	0.4	0.6	0.0	0.4	1.4	0.4	8.1	0.0	0.0
김해	0.8	0.0	0.0	0.8	0.1	1.4	1.7	0.8	0.2	1.0	0.7	0.1	1.9	0.8	1.4	1.9	0.1	0.3	0.8	2.0	1.1	0.5	1.2	1.1
밀양	1.5	2.0	0.0	2.9	0.0	0.0	0.7	0.9	0.4	0.8	0.4	0.0	1.7	6.3	1.1	1.2	0.1	0.3	0.2	1.0	0.9	0.3	0.8	1.1
거제	0.3	0.0	0.0	0.1	0.0	0.0	0.1	0.0	0.0	0.0	0.0	0.0	0.0	0.2	0.2	1.4	0.0	0.0	0.0	0.0	0.0	13.9	0.0	0.0
양산	1.3	1.6	7.0	1.4	0.6	0.3	0.4	1.4	0.0	1.3	1.0	0.4	3.4	1.0	1.3	1.4	0.2	1.3	0.7	0.7	0.9	0.2	1.3	0.1
의령	2.6	3.8	0.0	0.5	0.0	0.0	0.0	4.9	1.2	0.0	0.3	3.6	0.2	1.7	1.1	2.1	0.0	0.0	0.6	0.7	1.0	1.8	0.0	0.0
함안	0.9	1.8	0.0	0.4	0.0	0.0	0.9	1.1	0.1	1.0	1.0	0.3	0.4	1.4	3.0	2.0	0.1	0.5	0.5	2.9	0.5	0.5	0.4	0.7
창녕	2.9	0.0	0.0	0.4	0.0	0.0	0.0	1.0	0.0	0.0	1.3	0.0	0.8	1.7	1.7	1.3	0.1	0.0	0.3	1.5	2.0	0.1	1.3	1.8
고성	3.3	0.6	0.0	0.0	0.0	0.5	0.6	0.0	0.0	0.0	0.4	0.0	0.0	0.4	0.3	1.1	0.0	0.9	0.0	0.0	0.0	9.8	0.6	0.0
남해	6.3	0.0	0.0	1.8	0.0	0.0	0.0	0.0	0.0	0.0	1.4	4.8	0.0	1.6	1.2	0.8	0.0	0.0	0.0	0.0	0.0	4.0	0.0	0.0
하동	4.8	2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	11.0	0.7	0.0	0.0	0.0	0.0	0.0	0.0	1.1	0.0	0.0
산청	2.2	26.8	0.0	0.6	0.0	0.0	3.7	1.2	0.0	0.0	0.8	0.0	0.0	12.1	0.0	0.0	0.0	3.0	1.0	0.0	0.0	0.0	0.0	12.6
함양	4.6	12.8	0.0	0.4	0.0	0.0	0.0	0.6	0.0	0.0	0.3	0.0	0.0	14.3	0.7	1.1	0.0	0.0	0.0	0.1	0.0	0.0	0.0	0.0
거창	10.1	13.8	0.0	0.0	0.0	0.0	3.0	0.0	0.0	0.0	0.0	0.0	0.0	4.4	1.6	0.3	0.0	0.0	0.0	0.3	0.0	0.0	0.0	0.0
합천	1.8	11.6	0.0	4.6	0.0	0.0	0.0	0.0	0.0	0.0	0.6	0.0	0.3	18.7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주 : 종사자기준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 / 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LQ > 10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LQ = 10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 LQ < 10이면 전국에 비해 「비특화」

자료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2010.

#### (4) 전략산업 및 핵심 전략산업 현황

##### ■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

- 경남은 1999년 4개 지역진흥사업(1단계)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3단계)의 4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음
  - 지식기반기계산업(조선, 항공 포함)
  - 로봇산업
  - 지능형 홈 산업
  - 바이오산업

##### ■ 전략산업의 권역별 현황

-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은 대부분 진해만 환상도시권과 내륙성장도시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만 사천만환상도시권과 서북부성장축진권에 일정 비중이 분포되어 있음

〈표 3-2-17〉 권역별 지역 전략산업 사업체 비중(2009년 기준)(단위 : %)

구 분	진해만환상 도시권1)	사천만환상 도시권2)	서북부성장 축진권3)	내륙성장 도시권4)	합계
지식기반기계	47.3	10.6	1.0	41.1	100.0
로봇	66.7	4.8	0.0	28.5	100.0
지능형홈	59.8	1.6	0.5	38.1	100.0
바이오	37.0	17.8	14.0	31.2	100.0
합계	46.8	11.0	2.2	40.0	100.0

주 : 1)진해만환상도시권 : 창원, 함안, 고성, 통영, 거제

2)사천만환상도시권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3)서북부성장축진권 : 거창, 함양, 산청, 함천

4)내륙성장도시권 : 양산, 김해, 밀양, 창녕, 의령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0.

##### ■ 경남 전략산업의 시·군별 현황

- 지식기반기계업에 속하는 기계산업은 창원과 김해, 항공산업은 창원과 사천, 조선산업은 김해와 거제, 자동차부품은 창원과 김해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로봇산업과 지능형 홈산업은 창원, 바이오산업은 창원, 김해, 진주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

〈표 3-2-18〉 지역 전략산업의 사업체 현황(2009)(단위 : 개·%)

구분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합계
	기계 <sup>2</sup>	항공	조선	자동차부품				
창원	3,794 (37.1)	36 (42.9)	122 (13.3)	360 (30.9)	11 (52.4)	206 (54.1)	299 (23.4)	4,828 (34.3)
진주	823 (8.0)	6 (7.1)	14 (1.5)	154 (13.2)	1 (4.8)	6 (1.6)	118 (9.2)	1,122 (8.0)
통영	91 (0.9)	-	148 (16.2)	-	-	2 (0.5)	46 (3.6)	287 (2.0)
사천	168 (1.9)	23 (27.4)	43 (4.7)	26 (2.2)	-	-	56 (4.4)	316 (2.2)
김해	3,026 (29.6)	10 (11.9)	196 (21.4)	351 (30.2)	5 (23.8)	99 (26.0)	137 (10.7)	3,824 (27.2)
밀양	116 (1.1)	2 (2.4)	4 (0.4)	13 (1.1)	-	4 (1.0)	69 (5.4)	208 (1.5)
거제	158 (1.5)	-	227 (24.8)	-	-	-	62 (4.8)	447 (3.2)
양산	1,034 (10.1)	1 (1.2)	22 (2.4)	157 (13.5)	1 (4.8)	39 (10.2)	86 (6.7)	1,340 (9.5)
의령	32 (0.3)	-	5 (0.5)	4 (0.3)	-	1 (0.3)	31 (2.4)	73 (0.5)
함안	674 (6.6)	5 (6.0)	22 (2.4)	83 (7.1)	3 (14.3)	20 (5.2)	33 (2.6)	840 (6.0)
창녕	98 (1.0)	-	4 (0.4)	16 (1.4)	-	2 (0.5)	76 (5.9)	196 (1.4)
고성	50 (0.5)	1 (1.2)	101 (11.1)	-	-	-	34 (2.7)	186 (1.3)
남해	30 (0.3)	-	5 (0.5)	-	-	-	30 (2.3)	65 (0.5)
하동	23 (0.2)	-	1 (0.1)	-	-	-	24 (1.9)	48 (0.3)
산청	14 (0.1)	-	-	-	-	1 (0.3)	38 (3.0)	53 (0.4)
함양	32 (0.3)	-	-	-	-	-	48 (3.8)	80 (0.6)
거창	41 (0.4)	-	-	-	-	1 (0.3)	47 (3.7)	89 (0.6)
합천	36 (0.4)	-	-	-	-	-	46 (3.6)	82 (0.6)
합계	10,240 (100.0)	84 (100.0)	914 (100.0)	1,164 (100.0)	21 (100.0)	381 (100.0)	1,280 (100.0)	14,084 (100.0)

주 : 1) 지식기반기계(C25, C27, C28, C29, C30, C31), 항공(C313), 조선(C311), 자동차부품(C303), 로봇(C29280), 지능형홈(C265, C285, C26310, C26321, C26296, C26322, C26323, C26329, C28202, C26410, C28901, C28902, C28903, C26294, C26211, C26299, C26421, C26422, C26429), 바이오(C10800, C10743, C10749, C10796, C21101, C21102, C21230, C21300, C20493).

2) 지식기반기계에서 항공(C313), 조선(C311), 자동차부품(C303)을 제외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0.

-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략산업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약간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기계산업은 창원과 김해, 항공산업은 사천과 창원, 조선산업은 거제와 통영, 자동차부품산업은 창원과 김해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로봇산업의 경우 창원과 김해, 지능형 홈산업의 경우 창원과 김해,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경우 양

산과 김해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표 3-2-19〉 지역 전략산업의 종사자 현황(2009)(단위 : 명·%)

구분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합계
	기계 <sup>2</sup>	항공	조선	자동차부품				
창원	79,573 (52.1)	2153 (32.8)	6488 (9.3)	9165 (39.3)	158 (52.5)	12194 (76.2)	544 (13.1)	110,275 (40.4)
진주	4,308 (2.8)	23 (0.4)	83 (0.1)	1,495 (6.4)	3 (1.0)	40 (0.2)	234 (5.6)	6,186 (2.3)
통영	1,138 (0.7)	-	9,992 (14.4)	-	-	2 (0.01)	89 (2.1)	11,221 (4.1)
사천	2,774 (4.4)	3,952 (60.3)	1,878 (2.7)	500 (2.1)	-	-	191 (4.6)	9,295 (3.4)
김해	33,851 (22.2)	158 (2.4)	1,886 (2.7)	6,745 (28.9)	91 (30.2)	1,920 (12.0)	562 (13.6)	45,213 (16.6)
밀양	1,228 (0.8)	46 (0.7)	28 (0.04)	380 (1.6)	-	52 (0.3)	133 (3.2)	1,867 (0.7)
거제	7,076 (4.6)	-	4,5271 (65.1)	-	-	-	115 (2.8)	52,462 (19.2)
양산	11,740 (7.7)	2 (0.03)	415 (0.6)	3,402 (14.6)	24 (8.0)	1,389 (8.7)	1,076 (26.0)	18,048 (6.6)
의령	451 (0.3)	-	154 (0.2)	135 (0.6)	-	12 (0.1)	164 (4.0)	916 (0.3)
함안	8,109 (5.3)	147 (2.2)	182 (0.3)	795 (3.4)	25 (8.3)	305 (1.9)	199 (4.8)	9,762 (3.6)
창녕	1,284 (0.8)	-	30 (0.04)	711 (3.0)	-	69 (0.4)	183 (4.4)	2,277 (0.8)
고성	683 (0.4)	75 (1.1)	3021 (4.3)	-	-	-	65 (1.6)	3,844 (1.4)
남해	70 (0.05)	-	82 (0.1)	-	-	-	51 (1.2)	203 (0.1)
하동	33 (0.02)	-	21 (0.03)	-	-	-	46 (1.1)	100 (0.0)
산청	98 (0.1)	-	-	-	-	22 (0.1)	77 (1.9)	197 (0.1)
함양	218 (0.1)	-	-	-	-	-	200 (4.8)	418 (0.2)
거창	112 (0.1)	-	-	-	-	2 (0.01)	113 (2.7)	227 (0.1)
합천	71 (0.05)	-	-	-	-	-	102 (2.5)	173 (0.1)
합계	152,817 (100.0)	6,556 (100.0)	69,531 (100.0)	23,328 (100.0)	301 (100.0)	16,007 (100.0)	4,144 (100.0)	272,684 (100.0)

주 : 1) 지식기반기계(C25, C27, C28, C29, C30, C31), 항공(C313), 조선(C311), 자동차부품(C303), 로봇(C29280), 지능형홈(C265, C285, C26310, C26321, C26296, C26322, C26323, C26329, C28202, C26410, C28901, C28902, C28903, C26294, C26211, C26299, C26421, C26422, C26429), 바이오(C10800, C10743, C10749, C10796, C21101, C21102, C21230, C21300, C20493).  
2) 지식기반기계에서 항공(C313), 조선(C311), 자동차부품(C303)을 제외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0.

### ■ 핵심 전략산업 선정 : 경남 핵심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11)

- 2011년 경상남도는 기존 핵심 산업군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으로 짜여진 아래와 같은 22개의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 바 있음

〈표 3-2-20〉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의 발전추이(단위 : %, 연평균)

핵심전략산업	경상남도		전국	
	매출액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풍력부품	15.9	14.2	5.6	4.9
원전	17.1	18.2	9.5	8.7
화학융합소재	9.9	9.1	8.8	6.0
지능형 기계부품	12.8	10.7	11.3	10.0
친환경 차량부품	9.9	9.6	8.4	5.4
항공	10.8	4.5	19.0	15.7
해양플랜트기자재	8.6	12.5	10.6	12.5
그린 선박 기자재	19.7	15.2	10.4	7.4
태양에너지	12.2	13.6	9.5	8.3
바이오에너지	15.0	11.6	10.1	6.9
차세대전지	12.2	7.5	16.8	12.2
융합 세라믹	17.2	9.7	7.7	5.8
그린홈(스마트가전)	10.1	10.5	24.4	24.4
수송기기IT	13.0	12.1	17.0	14.2
레이저선박	18.4	13.4	14.5	12.5
정밀기기	15.0	10.5	14.5	12.1
산업생산시스템	10.6	11.1	9.0	8.3
실용로봇	15.2	13.2	14.5	12.2
군수(수송/무장)	10.9	10.7	11.2	10.3
나노융합산업	14.6	11.7	9.1	5.8
소성가공	10.2	8.9	16.7	13.7
금형	10.4	8.4	9.9	7.2

주 : 음영표시는 전국 증가율을 하회한 경우를 나타냄.

-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평균 매출액은 연평균 13.2%, 부가가치액은 11.2%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는 원전, 그린선박 기자재, 태양에너지, 레이저선박, 실용로봇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항공, 차세대전지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
-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의 전국적 위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화학융합소재, 차세대전지, 융합세라믹, 나노융합산업, 소성가공, 금형 등을 제외하고는 16개 시·도 중 상위 5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
  - 특히, 경상남도의 레이저선박과 정밀기기, 산업생산시스템, 산업용 로봇 등은 전국 매출액 대비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5) 동남권 선도전략산업 현황

### ■ 선도전략산업 현황

- 그 간의 지역전략산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통합하여 2012년부터 추진될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음
- 선도전략산업은 동남권의 산업을 대상으로 8개 특화분야에 37개 유망상품을 선정하여 중점육성하 기 위해 선정되었음

〈표 3-2-21〉 동남권 선도전략산업 및 유망상품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에너지 플랜트		그린화학소재	
	풍력부품	-풍력핵심 기계 및 전장부품 -풍력핵심 소재(금속중심) -풍력핵심 주단조 부품 -풍력핵심 부품 인증 및 성능 평가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준심해용)	화학 융합 소재	-2차전지 핵심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고기능성 접착소재 -구조기능 내외장재 소재 -고감성 표면처리 기능제어 소재
	원전설비	-중대사고 및 재해대비 설비 -방사선 응용 핵심 장비 -원전용 핵심 BOP 개발(M/E BOP) -사용 후 핵연료봉 보관 및 수송용기		
대표 주력 산업	수송기계		조선해양	
	지능형 기계부품	-고효율 정밀동력부품 -동력전달부품 -동력발생공급장치 -제어계측 및 정밀생산기기 -지능형 그린제어기계부품	해양 플랜트 기자재	-Topside시스템(상부시스템) -유틸리티 시스템 -심해용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친환경 차량부품	-엔진구동부품 -구조차체부품 -고감성 내외장 부품 -안전보호부품		
	항공	-회전익 항공기부품 -항공기 복합재 구조물 -소형 항공기 친환경 추진 장치 -항공기 탑재 소프트웨어 -항공기 피로 치명성 구조용 부품 -항공기 보조기기	그린 선박 기자재	-친환경 고효율 추진 시스템 -연료전지 기반 선체 및 추진 시스템 -스마트 항해통신 시스템 -스마트 계측제어 시스템 -레저용 선박부품소재

자료 :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동남광역경제권 2단계사업(선도전략산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2012.

- 8개 특화산업 가운데서 그린화학소재를 제외한 7개 분야는 모두 경남의 대표 주력산업 및 미래성



장동력산업에 해당됨

## 2) 과제

### ■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 향후 경남지역의 산업기반 및 고용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력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 이를 위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과 판매과정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조달·생산·제품·가격 등 제반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 경남 주력제조업의 생산품이 독보적인 품질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일류제품, 고가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완성품 제조과정에서의 R&D·공정개선은 물론 디자인, 금형 등 유관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 ■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강화

-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기반을 활용하여 새롭게 진출 가능한 해양플랜트, 레저선박, 친환경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풍력·연료전지 등)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인력·정책기반을 강화하도록 함
- 항공산업 등의 경우 유리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시장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도록 함.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IT 및 전자기술 기반산업(로봇, 지능형 홈 등)의 육성에도 주력해야 함

### ■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

-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 역량강화가 절실하므로 이 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함
- 기존의 기술·기능인력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더하여, 산·학·연 연계형 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도록 함

### ■ 기업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 지역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생산·판매활동을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함
-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통신·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법률·통상·광고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업 기반을 확대해야 함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대내외적 여건변화(경제환경의 변화)

#### ■ FTA 확산으로 세계시장 확대

- 지속적인 FTA 추진 등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추세가 가속화되어 향후 세계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임
- 경남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품의 대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세계시장 개방 및 확대는 지역산업계 및 지역경제의 미래에 가장 큰 환경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 글로벌 경제위기의 동조화

- 미국발·유럽발 경제위기와 그로부터 야기된 국내경제침체의 경험에서 보듯이 세계경제는 이미 깊이 동조화 되어 있음.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응능력을 요구함
- 경남지역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도 직접적으로 세계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일반화될 것이므로 생산 외의 경영 및 전략 부문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의 성장

- 중국의 성장과 중국 제품의 빠른 품질경쟁력 확보는 경남지역 기업들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것임. 중국의 성장은 판매시장으로서의 규모 확대를 의미하므로 중국시장을 확보하고 중국의 성장과 개방 기조를 경남지역 산업발전의 호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중국 산업의 기술력이 빠르게 우리나라 수준을 따라잡고 있는 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위기로 등장할 것임

#### ■ 지속가능성장 기조 확산

-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성장만을 강조하는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 유지를 강조하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친환경성의 여부는 새로운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함
- 경남의 산업생산 구조를 저에너지투입, 고효율구조로 전환하는 녹색산업화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무역규제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노동시장 불일치의 확대

-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경남지역 주력산업에 인력난을 발생시키는 노동시장의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은 향후 강화될 것인 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함
- 지역산업생산에서 단순 기능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산업부문은 저개발국가로 이전될 것이고 고숙련, 지식·기술인력 투입 중심 구조로 전환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갖추게 될 것임

##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 주력 제조업의 융합형 고부가가치화

- 지식경제부(2011)는 ‘융합을 통한 산업역량 극대화’의 일환으로 주력제조업의 융합형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즉, 자동차·조선·플랜트·철강화학·기계·로봇·항공 등의 분야에서 융합형 제품, 소재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달성코자 하는데, 이들 산업은 모두가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 주로 입지해 있음

### ■ 선도 전략산업 육성

- 정부는 2012년부터 그간 추진되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동남광역경제권의 선도전략산업 8개 특화분야 중 7개 분야는 경남의 주력산업분야에 해당되어, 향후 경남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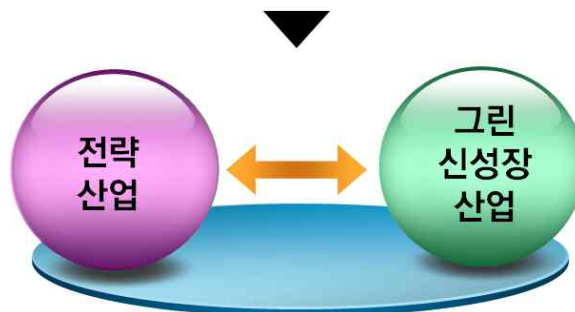
### 1) 계획목표

#### ■ 첨단 에너지장비·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점 육성

- 그 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온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력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새롭게 진출 가능한 해양플랜트, 레저선박, 친환경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풍력·연료전지 등)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여 첨단 에너지장비와 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점 지위를 확보해 나감

#### ■ 전략산업 + 그린 신성장동력산업의 동반발전

기계/조선산업 중심



〈그림 3-2-1〉 미래 산업구조의 재편 방향

## 2) 추진시책<sup>8)</sup>

### (1) 산업별<sup>9)</sup> 전략

#### ① 중점전략산업

##### ■ 기계산업(지능형 기계부품산업)

- 경남의 중점 육성대상인 기계산업은 고효율·지능형 전기, 정밀, 공작기계 및 부품과 소재생산 산업을 의미함
- 최근 기계기술에 전자, 정보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융합기술이 창출됨에 따라 경남의 기계부품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능형 기계부품산업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망품목으로는 수송기계의 신패러다임 창출과 글로벌 리더를 위한 인지융합기반 지능형 수송기계 부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고효율 동력전달부품, 동력발생장치, 제어계측 및 정밀생산기기, 지능형 그린제어기계부품 등이 있음
-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 동남권 지능형 기계부품 R&D 체제 재정비를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체제 구축
  - R&D 기관의 역할 구분을 통한 R&DB체제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우수 기술자 국내유치
  - 민간 R&D 투자활성화

##### ■ 조선해양산업(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호화레저선박)

- 경남은 세계최고의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고유가 추세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생산에서 톱 사이드(Top-side) 기술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한편, 그린선박 기자재산업은 그린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원자재를 총칭하는 것으로 경남의 조선해양산업이 빠르게 개척해야 할 분야임. 아울러, 호화레저선박(크루저, 수퍼요트) 생산기술 확보 및 생산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 그린선박(Green Ship)이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 혹은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 선박, 에너지 및 자원의 새로운 운송수단,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정의됨
- 최근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계에서는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조공정 자동화 및 선박 자동화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및 친환경 건조공정과 선박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8) 21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는 2012년 상반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경남 핵심 전략산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9) 이하의 중점전략산업과 그린 신성장동력산업은 경상남도가 제시한 핵심전략산업과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음

- 고신뢰성, IT-융복합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 미래 해양플랜트 연계형 기자재 기술개발
- 개발제품 성능검증 인프라 보완
- IT 등 융복합화 기술지원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 개발제품 브랜드 인지도 개선방안 확보
- 중소기업 선주대상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중소조선소 연계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 자동차산업(친환경 차량부품산업)

- 세계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규제 대책까지 포함하는 그린카 개발이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친환경성과 고효율성 및 안전 편의성을 고루 갖춘 친환경자동차로 선호가 전향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확산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유해·배기 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연비효율도 우수한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임
  - 친환경차량부품 산업이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동력시스템을 활용 또는 장착 (Built-in Green)하거나 이에 준하는 개선으로(Green Effect) 기존 내연기관 대비하여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 및 그에 사용되는 관련 부품과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Built-in Green : 하이브리드차(HEV), 클린디젤, 바이오연료,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 Green Effect : 경량화, 효율 향상, 유해물질 배출감소, 친환경 소재 적용 및 공정 친환경 개선
- 동남권, 특히 경남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대학 연구기관의 분포나 연구원의 수는 확보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인 연구성과의 확보는 미진한 상황임
-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 네트워크를 통한 선지화 및 개방형 혁신을 통한 R&D 중심 기반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실용화를 통한 R&BD 체계구축
  - 동남권 R&D 체제 재정비를 통한 글로벌형 기술혁신체제 구축

### 항공산업

- 항공산업은 제조업 관련 기술이 모두 결집되어 제품화 되는 종합산업이며, 비행에서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결집되는 시스템 종합(SI)의 정점에 위치하는 최첨단 산업임
-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10위 항공기 생산국가 진입, 아시아 5위의 항공기 완제기업체 보유를 목

표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인 경남지역 부품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발전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

- 항공산업의 발전전망과 기술개발 동향, 국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 복합재 구조물, 항공기 보조기기, 항공기 피로 치명성 구조용 부품, 소형 항공기 친환경 추진장치, 회전익 항공기 부품, 항공기 탑재 소프트웨어 등을 유망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 기업중심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민항기 핵심 항공기술 확보 및 부품생산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로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

## ② 그린 신성장동력산업

### ■ 풍력부품산업(육해상용)

- 국내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09년의 4,381억원에서 2011년에는 5,256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풍력산업의 수출액은 2009년의 762억원에서 2014년에는 2,132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설치 증가율은 36.1%에 달하며, 동일한 기간의 평균 누적 설치용량 증가율은 27.3%임
- 또한 현재 38,103MW 수준인 연간 신규 설치용량이 2014년에는 약 71,650MW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경남의 유망품목으로는 풍력핵심 기계 및 전기부품 개발과 제조, 풍력핵심 소재개발(금속), 풍력핵심 주단조 부품, 풍력핵심 부품 인증 및 성능 평가,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준심해용) 등임
-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 대용량 풍력발전기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 풍력발전용 핵심소재 개발
  - 개발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신뢰성 확보 및 대량생산 기술 기반 마련
  - 풍력부품 전장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 Multi-MW급 풍력기계류 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 핵심부품 개발

### ■ 차세대 전지산업(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건전지)와는 달리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복하여 사용가능한 전지를 말하며, 차세대 전지산업은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발전용 연료전지까지를 포함한 산업분야를 말함
- 이차전지 시장은 모바일 IT 중심의 소형에서 자동차용, 에너지 저장설비 등의 중대형으로 급속히

재편 중으로, 향후 10년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2.3배 증가할 전망(220억 달러)이나, 중대형전지 시장은 19.3배 증가할 전망(559억 달러)임

- 소형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대형은 일본이 선두이고 한국, 중국, 미국, 독일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경남이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산업임
- 한편, 발전용 및 수송용(항공기 및 선박용) 연료전지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설에 대비하여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경남은 수송용(자동차·조선·항공기)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사업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 중대형 이차전지 유망상품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조성사업
  - 연료전지 3대 유망상품 및 1개 실증화 시설 개발 및 보급
  - 연료전지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지원 사업
  -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해외실증 등 글로벌 산업화 사업 지원

## (2) 단계별 전략

### 1단계 : 시·군별로 분포된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지원

-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전략산업 및 경남 핵심전략산업(나노산업, 그린홈 산업, 금형 등 뿌리산업, 실크산업, 바이오산업 등)은 해당 시군과 경상남도가 일차적인 육성전략을 추진함
- 지역전략산업 가운데 미래신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은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연고 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화 전략 및 시장확대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추진함

### 2단계 :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육성 중점지원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사업 선정, 중점 육성지원

- 시·군 경계를 벗어나며 동남권 인근 시도와 연계되는 선도전략산업은 국가정책 및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정책에 의거하여 중점 육성하도록 함
- 선도전략산업 육성전략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역산업계의 기초체질을 강화하도록 함

## (3) 지역별 전략

- 지역연고 및 향토산업 중 기존 전략산업과 선도전략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고성외의 조선산업은 거제와 연계하여 선도전략산업 전략에 포함하여 육성
- 바이오산업은 진주지역 전략산업으로 독자 육성하고 창원외의 지능형 홈 산업은 선도전략산업의 지

능형 기계부품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기계 IT 융합산업으로 육성

- 경남지역의 주요 산업이 대부분 진해만환상도시권(창원·함안·고성·통영·거제)과 내륙성장도시권(양산·김해·밀양·창녕·의령)에 편재되어 있는바, 경남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주요 산업의 인근지역 확산(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3)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1) 기술개발

##### ■ 대학-기업-지자체의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의 지역단위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주력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그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기업-지자체’의 삼자가 참여하는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계획기간 동안 운영함
-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경상남도(TP) 주도로 조직하여 TF팀으로 운영하며 정부 및 경상남도의 산업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지향형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함
- 전략기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운영비)와 기업(연구개발비) 및 대학(현물 및 연구수행)의 분담으로 조달함

##### ■ 국가 R&D자금 확보전략(사전기획) 추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 동남권 선도전략산업 및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바, 산업정보, 연구개발 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면서 국가 R&D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함
- TF팀은 국가 R&D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지역내 기업-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사전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함(주기적인 전략회의 및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도모)
- 아울러, 국비확보가 용이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역의 첨단산업분야 중소기업의 R&D 수요에 일정부분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도록 함

#### (2) 기업지원

##### ■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보·법률·무역 및 국제인증 등) 강화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제조역량을 갖추



고도 독자적인 경영역량이 부족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지원체제는 주체와 기능에 있어 분절·분산적임

- 따라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경영활동(정보·법률·무역 및 국제인증 획득 등) 역량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국제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
- 중소기업국제화지원센터는 정보·법률·무역 및 국제인증 획득 등 지원활동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혹은 자금지원 기능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독자생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 ■ 경영 애로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추진(산업단지 토지이용 등)

- 지역내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업종제한 및 필지제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영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산업단지 관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규제조항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함
- 아울러 기타 부문에서의 기업경영애로를 위한 규제완화 과제들을 찾아내어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 ■ R&D 및 운전자금 지원 확대

- 지역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R&D·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정부시책으로 지원되는 자금지원 외에도, 경상남도가 매년 예산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도하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 특히, 동남권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활발하게 운용함으로써 역외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3) 기업유치

####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유치

- 국책과제로 추진 중인 풍력부품 테스트베드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 및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료전지, 가스터빈 등 경남에서는 취약하나 경남의 기존 기계산업과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및 항공클러스터 추진

- 거제에 계획되어 있는 요트 등 레저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남 지역의 우수한 선박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제조산업 진출을 도모해야 함
- 레저선박 제조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도내 중소조선업체 참여가 가능한 슈퍼요트 분야의 특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탈리아 등 슈퍼요트 선진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의 합작 추진
  - 기술력과 건조경험은 있으나 충분한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중소형 슈퍼요트 건조업체를 발굴하여 현지의 마케팅능력과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조선업체에서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합작형태의 투자유치가 필요함
- 진주·사천지역에 집적된 항공산업이 유망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바,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클러스터를 추진함
- 항공클러스터는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네트워킹, 기술교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4) 인력양성

### ■ 신성장동력분야 기능·기술인력 양성 지원 확대

-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산업(21개) 및 동남권 선도전략산업(8개) 분야 육성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인력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이들 분야의 경남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시점(+2, +5, +10년)의 기능인력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사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고급숙련 및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내 폴리텍 및 재교육담당기관 등을 통한 공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함

### ■ 지역대학 및 국책연구소의 고급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 항공,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고급기술인력(대학원과정) 양성과정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KIMS 등에서 양성되는 기술인력 양성과정도 경남의 미래 산업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인력양성과정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신성장동력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활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과학기술의 육성

## 1. 경상남도의 과학기술분야 현황 및 여건분석

## 1) 과학기술 기반 및 여건

## (1)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

- 2009년 현재 경남의 연구개발조직은 전체 945개로 전국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이 22개, 대학 20개, 기업체 90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연구개발기관이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연구개발인력은 13,763명으로 전국 대비 4.3%를 차지(공공연구기관 1,131명, 대학 3,133명, 기업체 9,499명)하고 있음. 기업체의 연구인력수는 경기, 서울, 대전 다음으로 많은 편이나, 대학의 연구인력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개발비는 1,403,936백만원으로 전국대비 3.7%로 낮은 비중이며,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과 대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연구개발비의 편중으로 지역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표 3-2-22〉 경남 연구개발자원 현황(2009)(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분	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총계	945(5.7)	13,763(4.3)	1,403,936(3.7)
공공연구기관	22(5.8)	1,131(4.7)	274,165(4.9)
국공립	12(10.5)	291(6.6)	32,255(5.5)
정부출연	6(5.8)	780(5.3)	225,287(5.3)
지방자치단체출연	1(5.3)	32(6.9)	11,023(15.9)
기타비영리	1(0.8)	12(0.4)	4,864(0.8)
국공립병원	2(22.2)	16(8.5)	736(20.7)
사립병원	-	-	-
대학	20(5.1)	3,133(3.5)	109,219(2.6)
국공립	9(12.9)	2,281(7.2)	78,854(4.5)
사립	11(3.4)	852(1.5)	30,365(1.3)
기업체	903(5.7)	9,499(4.5)	1,020,552(3.6)
정부투자기관	-	-	-
민간기업	903(5.8)	9,499(4.5)	50,356(3.7)

주 : ( )는 전국대비 비중을 나타냄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0)

〈표 3-2-23〉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전국	5,558,384	4,204,259	28,165,859	37,928,502
서울	959,539	1,604,934	4,739,722	7,304,246
부산	108,799	245,322	456,957	811,078
대구	56,067	151,526	323,234	530,827
인천	137,779	111,805	1,191,142	1,440,726
광주	44,467	209,944	272,495	526,906
대전	2,529,292	372,599	1,454,773	4,356,664
울산	4,041	32,039	358,457	394,537
경기	877,348	538,482	14,147,399	15,563,228
강원	43,639	130,794	102,770	277,203
충북	41,758	78,902	504,904	625,565
충남	213,828	145,098	1,767,201	2,126,128
전북	77,456	160,905	255,042	493,403
전남	48,959	62,926	277,927	389,811
경북	109,296	22,602	1,242,878	1,574,776
경남	274,165	109,219	1,020,552	1,403,936
제주	31,951	27,162	50,356	109,469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0)

- 경남이 속한 동남광역경제권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제비중이 가장 높고 일반기계·수송기계, 부품소재 산업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5대 광역경제권 KAIST, KIST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기능이 전무한 실정임

〈표 3-2-24〉 광역경제권별 연구개발역량 현황 (단위 : 십억원, 개소, 명, 건)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연구개발 투자비	20,125	5,463	1,121	1,803	2,510	204	75
연구개발 조직수	7,632	1,610	675	858	1,414	166	54
연구개발 인력수	255,161	60,673	22,863	30,094	39,357	11,841	1,560
특허 등록수	68,481	9,279	2,914	5,605	4,318	710	147

자료 : 산업연구원, 연구개발특구 혁신방안 연구, 2009.12

-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개발기관 및 인력,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경남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연구개발비 확대가 향후 경남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

## (2) 도내 과학기술의 산업화 현황 및 특징

## ■ 국책연구기관의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

- 도내에 입지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술적 연계가 이루어져 왔음

〈표 3-2-25〉 창원권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연구인력	주요업무
한국전기연구원	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전략적 미래 전기에너지 혁신기술 연구</li> <li>◦전기산업 원천·핵심기술 연구</li> <li>◦국가공인 전기기기 시험·평가·인증</li> <li>◦전기기술 산업계 이전 및 교육</li> </ul>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구조재료, 신기능재료 분야 연구개발</li> <li>◦표준/계측기 교정 및 재료특성 시험평가</li> <li>◦보유기술 이전 등 기업체 기술지원</li> </ul>
국방과학연구소 가동시험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기장비 및 물자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li> <li>◦개발품의 시험평가 및 규격화 지원</li> </ul>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기동화력장비 분야 총괄</li> <li>◦중앙조변 기동화력분야 품질보증, 비무기체계 개발 및 방위청 IPT 기술지원 등 관련업무</li> <li>◦군, 대외기관 및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활동</li> </ul>
계	979	

## ■ 기업체의 연구개발

- 경남의 대표적 산업거점인 창원산단내 연구인력은 2009년 말 현재 약 4,508명 수준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는 모두 410개 업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 박사급 인력 비중이 낮은 편임
- 주력 연구분야는 생산지원 분야(공정개선, 협력업체 기술지도, 품질개선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본사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남

〈표 3-2-26〉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인력 현황(단위 : %)

구 분	학사이하	석사	박사	병역특례
전국 평균	72.04	20.39	4.57	2.93
수도권 산업단지	73.09	19.54	4.20	3.17
창원산업단지	73.83	20.31	3.12	2.13

- 또한, 대학·연구소의 연구자와 수요자인 기업체간의 협력을 매개하는 체계적인 중개시스템이 취약한 편임. 따라서, 기업체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밀착형 기술혁신체제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주체간 활발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소·기회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 ■ 기술의 산업화와 연계·협력체계 및 생태계

-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는 대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부품공급 협력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나 신제품개발 역량은 미흡한 편임.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어(주), 두산중공업, GM대우, LG전자, 로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들과 협력하는 부품기업들이 구성하는 가치사슬구조는 안정적 형태이나, 가치사슬구조의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가 수직적·종속적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취약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낮은 수준의 가치사슬 단계를 반영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우수한 조립·가공 공정기술(선진국 80~90% 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구조에 해당
  - 제조벤처형 신생기업 지원기반 및 지원체계가 취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지원이 미흡함
- 보다 높은 단계의 가치사슬구조의 산업생산체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Spin-off와 아웃소싱,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생산공정의 효율화, 그리고 R&D투자 활성화가 요구됨

## 2) 향후 과제

- 경남의 경우 전국 대비 과학기술부문 예산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며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거버넌스의 부재와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임
  - 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관할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이 ‘단’ 이나 적어도 ‘과’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남은 ‘계’ 가 조직되고 직원도 총 3명에 불과한 실정
- 응용과학기술 부문은 테크노파크(TP)나 각 대학의 주요 R&D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요청에 따르는 수준임
- 경남은 다행히 지난 2000년부터 메카노21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응용기술개발과 산업화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어 기계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한 바 있음
- 미래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의 창출과 효율적 활용으로 혁신주도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및 행정기관과 도민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과 기술·산업의 융복합이 지속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를 구축하여, 경남도의 미래발전의 틀 구축과 세계경제위기 극복 모드로 전환해 나가야 함

## 2. 여건변화 및 전망

###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기술혁신과 거시경제에 전반에 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 과학기술 R&D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의 국가연구경쟁력 강화, 효율적 R&D투자 전략 수립 등 전략적인 국가 R&D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IT, BT, ET, CT 등 기술간 융복합화 및 이에 기반한 산업 창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R&D영역 파괴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많은 분야와 부문에서 변화가 급변하고 있음. 하드웨어(HW)적인 변화에서 소프트웨어(SW)적인 변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G의 피쳐링 세계에서 4G의 스마트폰 세상으로, 그리고 단순 기술에서 융복합 기술의 시대로 거듭나고 있음

### 정부정책의 방향

- 중앙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예산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과 이의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조성, 각종 특구지원사업, 기술의 산업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장려, 융복합기술 개발 촉진사업 등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한 지속적 과학기술정책 기획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 기획력 강화를 위해 국내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 실무 경험자의 참여유도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과학기술 육성의 전망

- 향후 과학기술분야는 세계 속의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분야로 크게 다섯 가지의 지향점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인재양성, 기초 연구 및 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정책
- 둘째,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녹색성장의 큰 틀에서 발전 지속
- 셋째, 글로벌 기술기반이 되며 국가존립의 핵심 원천형 과학기술 발달
- 넷째, 과학문화의 저변확산을 통한 창의와 창조의 국가 건설
- 다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자연재해를 극복하면서 우주로 나아가는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 도모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육성여건 분석

- 강점(S)
  - 도내 과학기술의 중요성 인지도 증대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투자 점차 증가
  - 기초과학의 중요성 및 연구단 유치 노력 등 정책적 관심 팽배
  - 과학기술의 산업화 중요성 가속
  - 많은 기술혁신 프로그램 운용 중
  -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 중 국책 연구기관이 존재
- 약점(W)
  - 도 단위의 연구소는 1차 산업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 제조업 관련 도 단위 연구소 설립 움직임이나 인지도 전무
  -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지역내 산업 흡수력 미흡
  - 과학기술원 등이 전혀 없음
  - 도 단위의 거버넌스(과 이상의 조직)가 없음
- 기회(O)
  -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확대와 지방화 의지 존재
  - 과학문화 및 과학마인드 확산 중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 국제과학비즈벨트 사업의 연구단 공모
  - 도내 대학들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여성과학인 우대 및 영재, 연구인력 등 과학인재발굴에 치중함
- 위기(T)
  - 과학기술의 신수도권화-수도권 재집중
  - 기술개발 인력 부족
  - 기초과학 투자열의 없으며 관심 저조
  - 핵심 부품 및 원천기술 부족으로 수입의존도 극심

##### ■ 계획목표 :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도시 경남 육성

- 세계적인 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창출과 효율적 활용으로 경남의 산업역량을 혁신주도형으로 개선



-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혁신, 지방과학의 자치육성 역량강화, 산학연관의 지(知) 네트워크 강화 등 과학기술의 기반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의생명 분야의 혁신 추진, 기초연 연구단 유치 등 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 전략

-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혁신 추진 / 녹색융합기술원 및 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 지방과학의 자치육성 역량 강화 / 산학연관의 지(知) 네트워크 강화
- 의생명 분야의 혁신 추진
- 기초연 연구단 유치 / 과학인 양성 및 자긍심 회복과 명예 달성
- 과학기술기반 사이언스 파크 조성

## 2) 추진시책

### (1) 추진시책의 기본방향

- 과학기술분야 관련제도(기술규제, 정책평가), 산학연의 기초연구 네트워크,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의 영입 강화 및 경남의 독자적인 지방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모형 구축
-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한 R&D지원 체계 및 과학기술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개선을 위한 전략 및 제도 마련
  - 첫째, 지방과학기술예산의 확보, 즉 자치예산 편성과 운용을 통해 GRDP 내지 도의 총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 확보
  - 둘째, 지역 과학기술인력 양성
  - 셋째, 기초과학기술의 산업화 접목을 위한 경남도와 각계가 연합한 경남기술홀딩스 설립
  - 넷째, 응용과학의 발달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녹색융복합 기술원 설립
  - 다섯째, 사이언스 파크 조성 및 경남연구재단 설립

### (2) 추진시책

#### ① 경남 녹색융복합기술원 건립

## ■ 배경

- 지역마다 갖는 고유한 환경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음
- 세계의 환경변화와 조류는 지식기반사회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음. 지식기반사회의 핵심부에 진입하여 성숙되고 있음

- 지식기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첨단신기술이 사회를 이끄는 저변의 기반으로 작용하여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는 첨단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유 및 응용과 산업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도태되기 쉬운 특징을 가짐
- 산업화 시기에는 신기술 하나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첨단신기술은 생애주기(life cycle)가 매우 짧고, 특정 기술 하나만으로는 혁신적인 제품생산이 어려워 몇 가지의 첨단신기술이 융복합(convergency, fusion)화되는 특징임
-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됨
- 산업화 시기부터 개발하던 신기술 분야는 특정기술에 IT(정보기술), NT(극미세기술), CT(문화기술) 등 소위 T-자매들을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됨
- 그런데 해당기업이 새로운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접목하려 할 때 개발인력, 기술수준, 비용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녹색융복합기술원 건립

-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결국 경남 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경남 스스로 녹색융복합기술원을 설립하여 기술개발과 융복합화 및 산업의 녹색화에 진력하도록 해야 함
- 도내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된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하는 터전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한 경남 녹색융복합기술원 설립은 기존의 산업기술에 더하여 다양한 T-자매군을 개발하고 융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

### ② 경남 Science Park 조성

#### ■ 배경

- 경남지역 산업정책과 녹색성장을 위해 긴요한 ‘기술의 융복합화’와 더불어 시급성을 갖는 또 다른 것으로는 ‘기초기술기반 강화를 통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임
-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존적이었음. 따라서 지방의 과학기술 기반은 매우 협소하고 미약하며, 발전적 결실은 거의 전무하였음
- 한편, 진주 등 서부권에는 상대적으로 혁신자원이 빈약. 다만 사천의 항공우주산업과 진주권에 입지한 수송기계 부품소재업과 제지 및 실크산업이 그나마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 경남 사이언스 파크 조성

- 진주권에는 항공산업, 항공교육원, 항공산업품질인증, 실크산업, 수송기계 부품소재업, 뿌리산업지원센터 등 지역에 오랜기간 입지
- 최근 들어 육성되는 부문, 그리고 아직 입지하지는 않지만 입지를 통한 관련산업 발전분야 등에 대해서 발전적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진주권에 이와 관련된 중규모의 사이언스파크 형태가 설립되어 기술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규모라 함은 대덕연구단지 등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중규모의 테크노파크 형태에서 출발하는 규모임
  - 사이언스 파크는 기업지원이 주목적인 테크노파크와 달리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함
- 기존 진주권의 대학과 특화센터 등과 협력하고 연구개발에 매진 가능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지역산업혁신을 도모. 이 사이언스 파크에는 당연히 혁신도시에 이전될 기관인 요업, 승강기, 주택건설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능을 포함하게 함

※ 참고 : 창원에 조성 중인 「경남 과학연구복합파크(SP)」는 그대로 추진·육성함

### 진주 혁신도시내 조성

- 2011년 5월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입지로 대전을 선정한 바 있음.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벨트 특별법’에 의거하여 연간 약 7천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운용과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국가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안을 두고 우리나라가 장차 노벨상 수상의 기지화를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제안하고 있는 혁신도시 내의 사이언스 파크에 이와 같은 연구단을 유치하여 설립하는 것은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
- 연구단의 대상 분야는 기초과학으로서 물리학, 재료, 생명과학, 화학, 보건의료, 지구과학 등임

## ③ 경남과학연구재단 설립

### 배경

- 경남은 2009년 초에 과학연구복합파크를 유치하여 경남TP 본원에 건립 중임. 조성 중인 과학파크의 기능은 크게 기술연구개발 기능, 첨단산업 입주보육기능, 과학영재육성 기능 및 기타 국제회의 및 게스트 하우스 등 부대기능 등 네 가지임
- 그러나 과학연구복합파크는 운영의 구심이 없고, 구체적인 미션이 크게 존립하지 못함

### 과학연구재단 설립

- 따라서, 과학연구복합파크의 운영의 주체로서 또한 경남의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의 개발, 산업화 촉진, 사업화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연구재단 설립이 필수적임
- 연구단, 사이언스 파크, 과학연구복합파크 연구개발 기능 및 과학영재육성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경남과학연구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함.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형태가 경남과학연구재단이 될 것임

## ④ 경남 과학기술원 유치 · 설립

### 배경

- 과학발전이 국가발전을 촉진하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권역별로 과학기술원

이 설립되어졌음

- 서울의 KAIST(과학기술원), KIST(과학기술연구원), KIAS(고등과학원)에 이어, 대전 소재 과학기술원(KAIST)과 과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이 설립되었음
- 이들 과학기술 관련 교육·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주 무대이자 산업집적지인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에는 전무하였음
- 다행스럽게, 울산에는 최근에 국립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고, 기초연구원연구단이 3-4개 들어설 예정이며, 부산에는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원이라 할 수 있는 해양과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조만간 설립 예정임. 그러나 경남에는 고등 연구·교육기관이 없음

#### ■ 경남 과학기술원(GyNIST) 유치·설립

- 경남과학기술원(GyNIST) : GyeongNa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및 과학기술의 이전과 산업화촉진의 진원지에 설립한다는 의의를 가짐
- 우리나라 기간산업과 장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불충분하고, 유사한 과학기술 관련 교육연구기관이 충분하며, 기술개발과 교육을 담당할 대학도 충분한 편이나, 경남은 조속한 기간 내에 반드시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함

## 제3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1. 현황 및 여건분석

#### ■ 범세계적 추세

- 탈산업화 시대에는 서비스산업이 산업구조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서비스산업의 외형적 비중 증가뿐 아니라 제조업과의 중간재 상호의존관계 변화를 통해 전체산업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됨
- 최근, 지식서비스 부문의 중간투입률이 크게 높아져 광의의 기술변화가 일반 서비스부문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특징과 문제점

- 고부가가치의 생산자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음
- 경상남도의 경우 도내 제조업에 지식서비스 부문의 중간투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 집적지로서 제조업 관련 교역재(서비스업) 부문에 특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제조업 기반에 연계된 서비스업에만 일부 존재하고 왜곡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구조적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지식서비스부문이 매우 취약
  - 서비스업 규모가 작고 특히 지식서비스업의 매출규모는 매우 열위의 상태
  - 지역적인 경쟁력을 지닌 업종을 특화하여 금융 및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육성할 필요
  - 고용창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필요
  - 서비스 집약도와 지식 집약도를 높여 지식서비스 수출 촉진
  - 유능한 중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조정 시행
  - 서비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활용과 역할이 저조
- 따라서, 제조업 기능과 직결된 생산자서비스의 육성 및 생산자서비스 활용지원과 인식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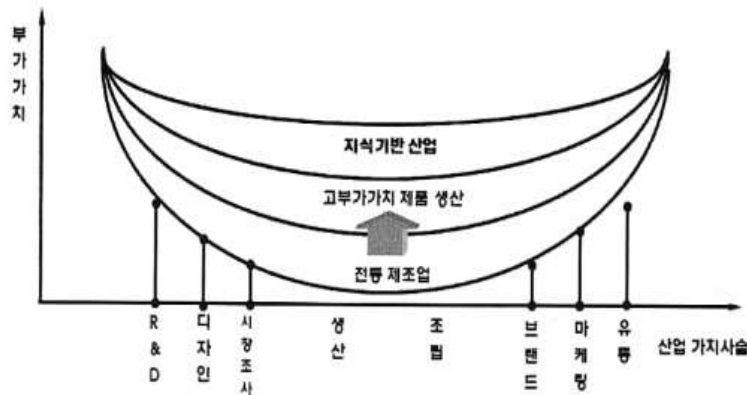
#### ■ 시사점

- 경남은 제조업 중심으로 교역재 부문에 특화되어 경제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균형 있는 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조업 기능과 직결된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산자서비스 수요기반을 일차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적인 경쟁력을 지닌 업종을 특화하여 금융 및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음

## 2. 여건변화 및 전망

### 지역여건과 전망

- 제조업 기반이 매우 건실하여 지식서비스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절실
- 지식서비스 관련 고급인력의 탈경남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발아(發芽)가 힘든 실정
- 지역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이 절실함
- 서비스산업 중 일반서비스보다 지식서비스의 기술변화가 크게 나타남



〈그림 3-2-2〉 지식서비스를 통한 제조업의 지식서비스 산업화  
자료 : 지식경제부

- 중간투입 절약적인 기술변화가 진행되는 제조업과 달리 중간투입 증가적인 기술의 변화(생산과정의 연장 또는 우회)가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변동성 축소라는 양 경로는 통하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비스화의 진전은 삶의 질 향상 및 제조업체들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정부정책 변화

- 지식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지역적 발전전략은 미흡
- 지역배분은 주로 지식서비스업 중 산업화연계 가능한 부문에 집중
- 첨단의료(대구), 뇌과학(대구), 기초과학(대전) 등 전국 공모로 일부지역에 편중 내지 집중
- 금융, 유통, 정보통신 등도 대도시권으로 집적화하고 지방에 소홀

### 지역정책 변화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역정책은 상당히 빈약함

- 중요성은 인식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큼
- 지역 내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노하우의 부족과 의지도 낮음
- 지식서비스업 부재로 위기를 느껴 정책적 관심 전환 중

#### 과제

- 생산자서비스 수요기반 일차적 확대
- 제조업과 서비스업,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균형있는 구조지향 필요
- 지식서비스업 중 도내 경쟁력을 지닌 업종선정 및 특화 필요
- 지역경쟁력을 갖춘 업종특화와 금융 및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육성 필요
  -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지식기반서비스분야로 확대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경남 서비스업 특화전략

##### 개요

- 산업분류와 구조에서 서비스업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
- 경남도가 중점을 두고 특화해 나갈 서비스업 내지 본 계획에서 중점 다루어야 할 대상과 분야 설정이 중요하고, 선정 이후 중점 육성 필요

##### 서비스업의 구분

- 정보산업 : 정보집약 산업
- 지식산업 : 컨설팅 산업, 경영지원산업
- 의료산업 : 의료 전달 및 병원관리
- 통신산업 : 통신서비스 제공 산업
- 운송산업 : 교통, 도로, 항만, 철도, 항공산업 등
- 금융산업 : 은행, 증권, 보험, 투자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 유통산업 : 도소매업(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물류 및 택배, 유통업 등
- 교육산업 : 정류 및 사교육 사업, 사이버 교육 사업 등
- 공공재산업 : 전기, 가스, 수도 등

### ■ 산업발전법(제8조)에 나타난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함
- 산업발전법에 나타난 지식서비스산업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2-27〉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비고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 전자상거래업	4791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 정보서비스업	63	*
○ 연구개발업	70	*
○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 수집·제공사업)	75993	*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
○ 병원	861	
○ 의원	862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활용 원격의료·요양서비스)	869	

주 : (\*)가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 주안을 두고 육성추진할 지식서비스 분야임

### ■ 중점 육성대상 지식서비스업 분야

- 5대 생산자서비스업 : 법률, 보험, 증권, 인쇄, 컨설팅



- 5대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글로벌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컨텐츠, 녹색금융, 관광/MICE
- 5대 신지식 서비스업 : 지적재산권 등록관리·이전·중개, 지재산 보호·관리·방어, M&A/경영권 설팅, 연구개발(R&D)업, 전자상거래업

## 2)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서비스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균형 있는 경제구조로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의 개선
- 서비스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최소화하면서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육성여건 분석

〈표 3-2-28〉 경남 지식서비스산업의 SWOT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에 연구개발(R&amp;D) 능력을 보유</li> <li>○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다양한 산업발달</li> <li>○ 한류관련 문화 콘텐츠 사업 육성, 성장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수지 적자규모 증가</li> <li>○ 중간재산업으로서 역할 미흡</li> <li>○ 지식서비스산업 R&amp;D 투자비중 선진국에 비해 낮음</li> <li>○ 전문 인력양성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li> <li>○ 도내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미약</li> </ul>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기술 및 운송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교역규모가 세계적으로 증가추세</li> <li>○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의지</li> <li>○ 도내 제조업의 지식서비스업 융합에 의한 가치창출 필요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급성장</li> <li>○ 선진국의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높은 육성 의지</li> <li>○ 수도권 및 타 시도의 급격한 육성 의지와 선점</li> </ul>

### ■ 계획목표 : 첨단신기술 제조업 지원형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의존도를 줄이고, 도내 서비스업 육성에 의한 구조개편을 추진함
- 경남의 지역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 신기술 및 신공정개발 관련 지식서비스업에 초점을 두어 육성하며, 서비스 R&D, 기술도입,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

### 추진전략

- 수도권 등의 의존도를 줄이고, 도내 서비스업 육성에 의한 구조개편

- 지역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필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성장 동력화 정책은 지역 여건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정책
- 성장동력화 이전에 업체의 유지가 관건인 분야가 대부분, 이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 신기술 및 신공정개발 관련 지식서비스업 육성
- 제조업 비연계 분야로 레저·건강, 사회복지, 문화서비스 등 공급기반 지속 확충
  - 단기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제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전략 및 향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 지역이 비교적 강점을 갖는 지식서비스업 특화 및 집중육성
- 유통·물류, 금융, 통신, 각종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품질인증, 서비스 아웃소싱 촉진 등을 통해 수요 활성화
- 서비스 R&D, 기술도입,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도 정책의 중점
  - 업종별 서비스산업 R&D의 범위·인정기준·주요 사례 등
  - R&D 예산 중 서비스산업 R&D 사업과 과제를 별도 관리하고 사후 분석·평가시스템 구축

### 3) 추진시책

#### 추진시책의 기본방향

- 신기술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전체경제의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통한 연관도 제고에 노력을 경주
- 향후 경제성숙과 함께 레저·건강, 사회복지, 문화서비스 등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통·물류, 금융, 통신, 각종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품질인증, 서비스 아웃소싱 촉진 등을 통해 수요를 활성화시켜 나갈
- 서비스 R&D, 기술도입,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도 정책의 중점을 둔

#### 추진시책

-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 설립
- 도내 지식서비스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
- 지식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 육성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지원조직 구축

## (1)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 ■ 개요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다양한 여건충족을 위한 1단계가 제원근거의 마련임
-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책정의 당위성을 제공하며, 예산확보의 수월성을 확보함

### ■ 조례 내용과 예산확보 규모

- 조례 내용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그리고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확보의 용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정함
- 예산편성과 지원조직 구축
  -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분야 선정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서비스산업 사업 발굴과 지원확대
  -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수립방안 검토

## (2) 경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 설립

### ■ 배경

- 경남은 산업의 노후화와 전근대성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미약하고, 더딘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식 기반사회에 뒤질 가능성이 많음
- 경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존산업의 지식결합을 돕고 융합시켜 도내 제조업의 건실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함

### ■ 경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 설립

- 도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기술개발, 인력양성, 상생을 위한 협력 등을 도모하는 중추기관으로 센터를 설립함
- 센터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지식산업을 발굴하여 도내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을 겸비하게 함
- 센터가 담당하는 분야는 앞서 열거한 5대 생산자서비스업, 5대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그리고 5대 신지식서비스업을 주로 담당함
- 센터의 주요 기능
  - 신규 서비스의 사업화, 기업의 성장 촉진
  -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 중소 제조기업에 질 좋은 지식서비스 제공,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동종과 이업종, 지식서비스와 제조,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킹 구축과 활성화 지원
- 지역 지식서비스 육성을 위한 가계의 요구 수렴 및 네트워킹 촉진
-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확보 및 제공
- 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선진화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육성
  -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므로 실태조사·통계DB 구축 등 정책적 자료 축적
  -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3)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 ■ 장기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인력양성

- 산학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인력확보 및 경력 상승작용 기반 마련
- 고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방안 모색
-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사람이므로 종사자의 질에 따라 산업의 발전정도가 결정됨. 중급인력의 고급화 전략 필요

####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용이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기반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

## 제4절 개방경제 추진과 대책

## 1.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 범 세계적 추세

-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정보 및 수송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간상 거래비용의 절감 등으로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
  - 1995년 GATT체제를 넘는 강력한 WTO의 출범으로 개방경제 가속
  - 각국의 FTA의 확대체결과 EU, ASEAN, TPP 등 블록경제권 가속
- 이에 대비하여 각국은 자유무역지역(FTZ), 경제자유구역(FEZ), 연구개발특구(R&D Innopolis), 외국인투자지역(FIZ) 등을 조성하여 투자유인 강화 중
- 또한, 글로벌 기업의 거점지역 중심의 집적이 강화되며,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가 유로화, 엔화에서 최근 위안화로 전개되는 추세임
-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이 점차 복잡해지고,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되고 있음
- 따라서, 자본, 노동, 기술, 토지의 효율성이 투영되면서 대외개방경제하에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이 요구됨

〈표 3-2-29〉 1961~2008년 세계주요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

국가지역	1961년	1979년	1990년	2000년	2006년	2008년	1961~2008 평균성장률
세계총계	4.6	4.2	2.9	4.1	3.9	2.1	3.6
미국	2.7	3.2	1.9	3.7	3.9	1.1	3.2
유로 랜드	6.6	3.9	3.5	3.9	2.7	0.9	3.2
일본	12.0	5.5	5.2	2.9	2.2	△0.6	4.4
중국	△27.1	7.6	3.8	8.4	11.6	9.0	7.8
홍콩	14.9	11.8	3.9	8.0	7.0	2.5	7.0
한국	4.9	6.8	9.2	8.5	5.1	2.2	7.0
싱가폴	13.8	9.4	9.2	10.1	9.4	1.1	7.8
말레이시아	7.6	9.3	9.0	8.9	5.9	4.6	6.5
인도	3.9	△5.2	5.5	4.0	9.7	7.3	5.0
러시아연방	-	-	△3.0	10.0	7.4	5.6	0.4
브라질	10.3	6.8	△4.3	4.3	3.7	5.1	4.4

자료 : 개혁개방정책과 신 대외 경제관계의 특성변화

- 지역적으로는 2000년 이후 중국 및 홍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1961~2008년의 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세계 전체가 3.6%로 나타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성장률이 8%에 육박

### ■ 개방에 대비한 노력

-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설립,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투자유치의 한계를 보이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임
  - 1차 3개 구역(2003년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구역(2008년 :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경남은 진해와 하동 등 2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유일한 광역지자체임

〈표 3-2-30〉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2011.7 기준)

명칭	위치	개발완료시기	면적	중점유치업종
인천 (2003.8 지정)	인천	2020	169.52km <sup>2</sup>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 진해 (2003.10 지정)	부산, 경남	2020	83.14km <sup>2</sup>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2003.10 지정)	전남, 경남	2020	85.7km <sup>2</sup>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2008.5 지정)	경기, 충남	2025	55.051km <sup>2</sup>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물류
대구경북 (2008.5 지정)	대구, 경북	2020	34.16km <sup>2</sup>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 군산 (2008.5 지정)	전북	2030	50.39km <sup>2</sup>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자료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경남의 현황

- 한·EU간 FTA체결에 따른 이해득실이 나타나고, 피해분야 발생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모호
- 일본 지진과 원전파괴, EU권의 경제위기 심화로 경남경제의 명암 가중
- 한·미FTA에 대한 품목별 불안감 상존
- 석유, 철강 등 원자재와 식량자원 등 수입가격 불안과 수입의존도 심화
- 도내 조선부문 침체 가속 및 대체산업(해양플랜트 등) 육성 더딤
-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국한된 산업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 자유무역을 실현시키지 못함
- 최근 지역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등 건의가 잇따르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확장하는 노력 진행 중

#### 문제점 종합

-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 세계경기 변동의 복잡성으로 국내영향 가속화
- 환율변동과 시장변동 가속
- 외자유치 및 투자유치수단의 제반 경제특화구역(FTZ, FEZ, FIZ 등)에 투자미흡
- 세계최고의 도내 첨단 주력업종이 줄어들음(조선, 발전플랜트 등)

## 2. 여건변화 및 과제

#### 지역여건 전망

- 세계적인 기술 및 산업발전추세에 부응한 과학기술 창출노력 가속
- 외자유치는 미흡하나 도내 두 곳의 FEZ(진해, 하동)와 마산 FTZ 등이 강점임
- 활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과 기술·산업의 융복합이 지속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산관 일체형 능동대응 추진
- 새로운 R&D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기술·산업 간 창조적 융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 정부정책 변화

- ‘TAA(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같이 FTA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는 기업 지원
  - 융자, 경영·기술상담지원 등 무역피해 극복을 도모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강점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지 못함
- 전국 대상 개방형 대비 경제환경-생태계 조성이 미흡. 피해지역 집중화

#### 지역정책 변화

- 개방형 경제구역(FTZ, FEZ 등)의 조기 활성화 노력
  - 경제자유구역 내실화·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
  - 진주 외국인투자지역 추진예산 30억 확보(2012 예산)
  - 지정요건과 절차를 완료할 경우 28만㎡(약 8만6천평) 부지매입 계약 가능

- 사전과 창원 남문에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경남도내 신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작업에 탄력
-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완료할 경우 추가 예산확보에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업종 정밀분화 후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강화
-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으로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선도적 R&D 추구

#### 과제

- 관·산의 개방시스템에 능동적 자세 지향
- 세계시장 도전과 세계기업과의 경쟁력 강화
  -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경쟁 국가의 경우 대부분 업종의 기업을 유치
- 도내외 R&D 생산성 제고와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적극 추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계획목표 : 기업, 산단, 물류, 공항, 지원시설의 개방경제시스템으로 전환

- FEZ 등 개방형 경제구역의 활성화 및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국 우수인력 및 우수 다국적 기업을 유치 추진

#### 추진전략

- 개방형 경제구역(FTZ, FEZ 등)의 활성화 및 세계화
  -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
  -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력 및 우수 다국적 기업을 유치
- 세계적인 지원시설 조성
- 기술의 융복합 기능과 환경 구축
- 개방시스템 적응과 활용을 위한 상시 시스템 보강
-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여 금융서비스 등 비즈니스산업을 강화
- 전통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IT 등 첨단산업에 도의 핵심역량을 집중

#### 추진시책

- 개방지구의 활성화 촉진 및 특화업종 선정 후 투자유치 강화



- 조속한 부지조성, 일본 우량기업 유치강화, 선도전략산업군 IR활동 강화
- 국토 남부권 무역센터 건립
- 사천공항의 국토 남부권 거점 항공물류 전용공항화 및 항공물류단지 조성
-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외국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성장동력을 확충
- 개혁·개방·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

### (1) 국토 남부권 무역센터 조성

- 경남을 중심으로 한 국토 남부권은 2개소의 경제자유구역, 다수의 무역항과 신항만 등 국가거점항만, 국제공항 등 국제물류의 거점지역이며 항만 배후단지, 국가 기간산업의 밀집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지이자 수출 전진기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무역센터 등 거점시설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비해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항만 배후지역과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별 무역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 미국(뉴욕, 뉴 올리온즈, 샌디에고, 보스턴, 휴스턴 등), 중국(북경, 상해 등), 프랑스(빠리, 르아브르 등), 일본(동경, 오사카) 등 2010년 말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320개의 세계무역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 경상남도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혹은 그 인근 국제물류 거점지역에 국토 남부권 무역센터를 건립하여 국제물류와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함
- 무역센터의 주된 기능은 무역협회, 상사의 입주, 국제교역의 확대에 의한 세계경제 및 부의 증진, 국제거래관계의 이해증진, 전시회, 회의 컨벤션, 정보교환, 거래대금의 문제점 보완, 무역금융 허브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함

### (2) 사천공항의 남부권 물류전용 공항화 및 배후 공항물류단지 조성

- 남부권을 포괄하는 물류공항이 없는 실정으로 현재 모든 항공물류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내륙 수송비용의 과다, 교통체증과 오염과중, 수출상품의 물류비 상승압박으로 대외경쟁력 저하 등을 야기시킴
- 이에 오래 전부터 남부권 물류전용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함
- 사천공항은 공군 조종훈련의 장이 주된 목적이면서 민간항공 몇 편의 운항이 현실임
- 사천공항의 항공활주로와 주요 부대시설 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상품의 물류비 저감을 위해 공군과 협의하여 물류전용공항으로 추진 필요
- 이와 더불어 사천 일원에 항공물류전용단지를 중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3) 개방경제에 대응하는 지역 기업의 지원대책 추진

#### ■ 해외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미국 등 수출전략지역 내 물류창고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국에서 수출한 중소기업 제품은 LA에서 하역하여 운송업체 중간 기착지인 시카고를 거쳐 비용이 저렴한 소규모 도시의 물류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시 최종 납품처인 시카고나 디트로이트로 배송
  -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는 비용이 너무 비싸므로 지역 중소기업이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등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창고 설치를 추진함. 일차적으로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자동차 부품, 기계류 수출이 많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미국 주정부, 시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인력 고용을 조건으로 빈 공장 활용 또는 물류창고 부지를 요구하면 큰 부담 없이 중소기업 물류창고 운영 가능
- 본 사업을 통해 한미 FTA에 따른 경남 지역의 자동차·기계 부품 업체들의 물류경쟁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가 기대됨

#### ■ 국제특허 분쟁 컨설팅 지원

- FTA 확대에 따라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장으로 유사 특허권 분쟁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날 것임
- 따라서, 자체적인 역량부족으로 개별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분쟁 가능성 분석, 분쟁예방 등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제5절 일자리대책과 인적자원관리

### 1.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 범 세계적 추세

- 고용없는 성장시대, 고용없는 교역시대, 고용없는 소비시대의 보편화
- 성장-고용-소득(분배)-지출의 선순환구조 약화
- 미국발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 관련 지표 악화
- 국가별·계층별로 다른 고용구조를 갖고 고용구조의 왜곡 심화
- 성장산업군의 재투자 기피와 고실업률의 보편화
-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의 심화와 고용률이 높은 산업의 탈 지역화 가속
- 정보화 및 지식산업에 의한 부의 창출 등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

#### ■ 국내 및 경남의 특징

- 높은 청년실업률의 만성화로 선진국형 노동시장구조로 빠른 전환
- 낮은 실업률의 지속에도 실질실업률은 매우 높음
- 일자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팽배
- 실업해소에 도움되는 도내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초 붕괴로 '필요없는 노동' 으로 방출
- 실직인력은 새로운 산업사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의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을 양산
-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률(64.6%)에 비해 낮은 수준
- 대규모기업·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 등에 따라 임금수준에 격차
- 장시간 근로, 높은 산업재해, 낮은 인력개발 투자로 생산성과 성과 미흡

#### ■ 도내 노동시장 및 고용의 특징

- 2000년에서 2011년까지 도내 인력특성별 고용구조는 전국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 이 기간 동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으로 30~5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이는 경남 전체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2-31〉 경상남도 인력특성별 고용구조(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 수(천명)	비중(%)	취업자 수(천명)	비중(%)	
전국	합계	21,155	100	27,131	100	2.3
	15~29세	4,879	23.1	3,879	14.3	-2.1
	30~54세	13,066	61.8	15,424	56.9	1.5
	55~64세	2,210	10.4	6,204	22.9	9.8
	65세 이상	1,000	4.7	1,624	6.0	4.5
경남	합계	1,360	100	1,581	100	1.4
	15~29세	276	20.3	209	13.2	-2.5
	30~54세	826	60.7	1,006	63.6	1.8
	55~64세	165	12.1	225	14.2	2.9
	65세 이상	93	6.8	141	8.9	3.9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각 연도

〈표 3-2-32〉 경상남도 학력별 고용구조 현황(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11년		연평균 증감률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전국	계	21,156	100.0	24,244		1.2
	초졸 이하	3,590	17.0	2,516	10.4	-3.2
	중 졸	3,031	14.3	2,380	9.8	-2.2
	고 졸	9,325	44.1	9,645	39.8	0.3
	대졸이상	5,209	24.6	9,704	40.0	5.8
	전문대졸	1,579	7.5	3,072	12.7	6.2
	대학교졸 이상	3,630	17.2	6,632	27.4	5.6
경남	계	1,360	100.0	1,581		1.4
	초졸 이하	287	21.1	218	13.8	-2.5
	중 졸	214	15.7	179	11.3	-1.6
	고 졸	599	4.3	674	42.6	1.1
	대졸이상	260	19.1	511	32.3	6.3
	전문대졸	97	7.1	188	11.9	6.2
	대학교졸 이상	163	12.0	322	20.4	6.4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 도내 학력별 고용구조를 보면 전국의 특성과 흡사하나 그 증감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임
- 전문대 취업자 수의 증감률은 전국과 동일한 반면, 대학교졸 이상의 경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33〉 경상남도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계	1,348	100.0	1,502	100.0	1,531	100.0	1,520	100.0	1,533	100.0	1,581	100.0
농어업	211	15.7	218	14.5	217	14.2	191	12.6	186	12.1	183	11.6
제조업	301	22.3	341	22.7	375	24.5	385	25.3	405	26.4	407	25.8
서비스업	780	57.9	943	62.8	938	61.3	942	62.0	939	61.3	989	62.6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각 연도

- 도내 산업별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본 고용구조의 특성은 2011년의 경우 서비스업이 62.6%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25.8% 수준
- 반면 2000년의 경우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이 57.9%로 그 동안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이 증가
- 제조업의 경우 22.3%에서 25.8%로 약 3.5% 정도 늘어난 반면 농어업 취업자는 2008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구직기간 1주 기준)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경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임
- 인천,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경남보다 고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2-34〉 경상남도 성별 고용률 변화추이(단위 : %)

구 분	전 국			경 남		
	계	남	여	계	남	여
2004년	59.8	72.0	48.3	61.4	74.0	49.6
2005년	59.7	71.6	48.4	60.5	72.3	49.5
2006년	59.7	71.3	48.8	60.3	71.9	49.5
2007년	59.8	71.3	48.9	60.5	72.4	49.4
2008년	59.5	70.9	48.7	60.9	72.1	50.2
2009년	58.6	70.1	47.7	59.6	70.8	48.8
2010년	58.7	70.1	47.8	59.1	70.6	48.0
2011년	59.1	70.5	48.1	60.1	71.8	48.9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각 연도,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인구

- 경남의 고용률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증감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60.1%로 나타남. 남녀 모두 전국의 고용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종합

- 고용없는 수출, 불임수출 증가에 의한 고용없는 성장
-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음. 일자리 단절

-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효과가 소비나 설비투자에 의한 취업유발효과에 비해 매우 낮음
-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치 및 사회문제로 연결됨
- 구직난도 많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난도 극심한 실정-각 부문별 미스매치 높음
- 수도권 규제완화→인구집중→유통서비스업의 집중화→지역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심화
-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과 인적자원 개발방안 모색

## 2. 여건변화 및 과제

### 지역여건 전망

- 인적자원의 합리적 육성과 배분의 중요성에 관한 지역 컨센서스 형성
- 관련 연구,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중
- 일자리에 대한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촉진정책 강화
- 일자리 만들기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중
- 도내 실업자는 평균 약 35천명에서 42천명 수준이며, 청년실업자는 14천명에서 2만명 수준임

### 정부정책 변화

- 국민이 체감하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
  -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일할 기회 부족’ 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 를 해소
  -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경제 차원에서 일자리대책 강구 중
  - 시장경제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나누기 유도, 일자리 1% 늘리기,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제정 등
  - 공공경제 : 청년인턴제 실시
  - 사회경제 : 사회적 기업, CB,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적극 추진
- 청년고용 의무제도 도입 열기 가속
- 한국형 로제타 플랜 등 도입 시도 중
- 인력양성과 인적자원 관리 및 일자리와 연계한 종합관리는 여전히 미흡

### 지역정책 변화

- 정부정책에 기인하여 좋은 일자리, 알찬 일자리 만들기 노력 중
- ‘일자리 더 좋게, 더 많이!’를 위한 미스매치 요인 해소 강구
- 자치단체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기관에 공급 의뢰하는 등 적극적 고용대책 강구
  -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적극 활용
  - 채용박람회,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상시 개최
-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려 정책 강화-일자리로 연계 활발
-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 모색
  - 일자리창출 성과 피드백 체계 구축과 시·군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인증제 시행

### 과제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절실
- 제조업 인력양성 및 공급대책 긴요함
- 새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나누기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세 목표 필요
- 적정 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필요
-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
- 지역 단위의 경제·고용개발 정책에 OECD/LEED와 같은 전문 국제기구와 교류·협력하여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고학력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스템 추진
- 산학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마련,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 인재양성기관 등이 함께 노력
- 지역산업인력 훈련기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인력수급체계 확립 및 인력공급체계를 점검, 개선 필요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계획목표 : 일자리 걱정 없는, 인력난 없는 경남 만들기

(평상시 실질실업률 2.3% 이내, 청년실업률 4.5% 이내 유지)

- 일자리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고용실태조사, 고용보조금 확대 기금 조성 등 일자리 확대정책의 기반확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모든 경제주체의 사회적 책임(SR)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도 단위에서도 도민과 경제주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7대 분야인 지배구조, 인권, 소비자, 공정경쟁, 사회공헌, 노동, 환경 등에 주안을 두면서 계획수립과 실천방향을 정립

### 추진전략

- 청년, 장애인, 노인, 여성, 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단계적 창출
- 도 및 시군에 대한 고용실태조사 철저
- 지역예산으로 고용보조금 확대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 시장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알찬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강화
- 중장기적 인적자원 수요와 공급 분석 및 자원관리 철저
- 도내 중·대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

### 추진시책

- 중기 도내 고용대책 및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
- 고용실태조사의 반기별 수립에 의한 치밀한 고용대책 강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fund) 조성 :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목적
- 퇴직 후 재취업 권장에 의한 기술전수 및 부족인력 확보와 일자리 유지
- 창업강화를 위한 도 정책 전환
- 도 예산의 일정액을 지역 R&D로 편성하여 고급기술개발과 인력양성
- 효과적인 인턴제도를 위해 모니터링과 함께 행정적 절차와 인력의 확충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 (1) 중기 도내 고용대책 및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

- 고용창출 목표 인원(연차별 또는 사업별)
- 소요 예산 규모 및 예산 확보 방안
-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 (2) 고용실태조사의 반기별 수립과 치밀한 고용대책 강구

- 지역 고용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
- 지역 고용통계의 질적·양적 부족, 낮은 자료 접근도 문제 해결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고용지원사업 수행

##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가족기업 등 사회적일자리 확대 창출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연계한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및 지역공동체 복원 등 추진
-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강화, 공동판매망, 공동브랜드 개발
- 노령층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계층별 적합 직종 발굴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후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 베이비 부머의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전국적으로는 73만명, 경남도는 48천명 정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급속한 계층적 은퇴현상은 숙련된 노동인력의 공백과 함께 대규모의 실업 발생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지역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실태, 재취업 가능성 등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가능한 일자리대책 마련

## (4)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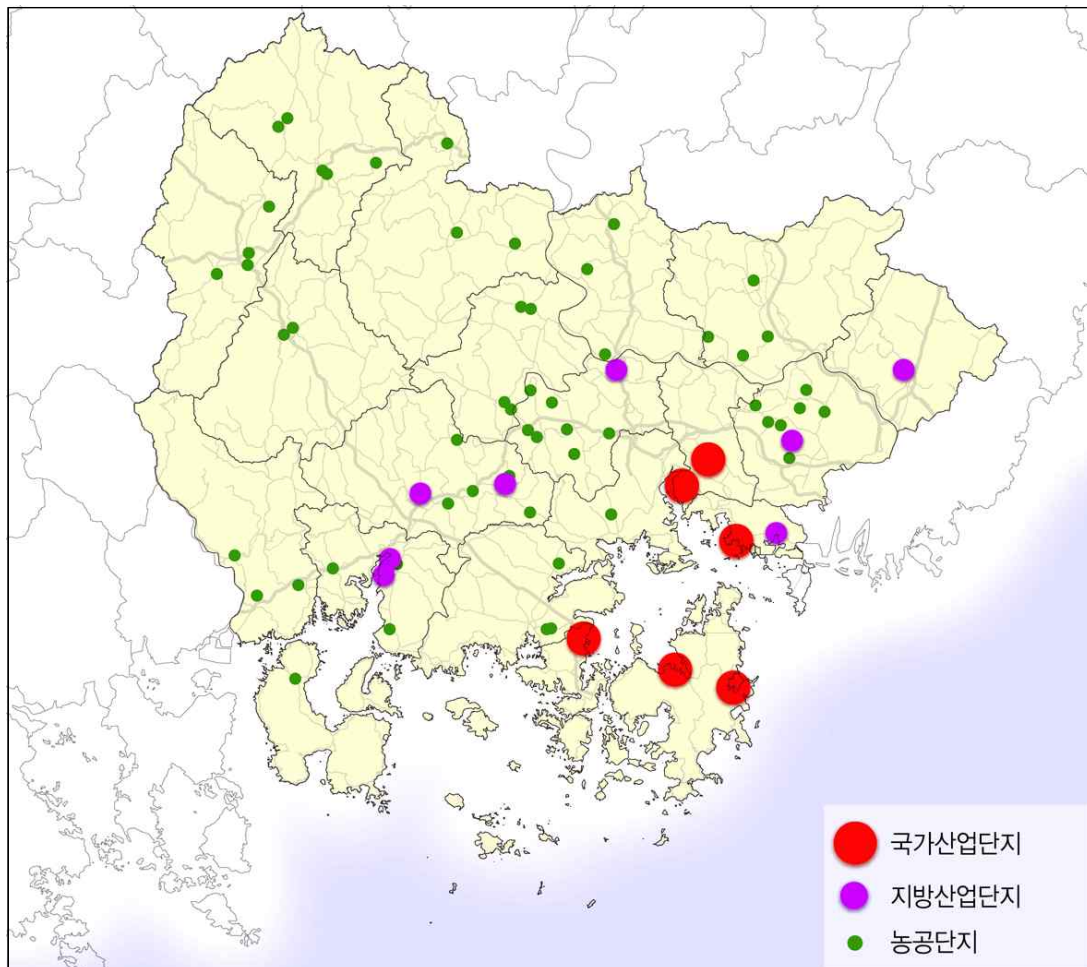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창업활성화 지원강화
- 산학관의 협조와 유대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훈련 후 취업확대
- 청년 인턴사업 국내외 확대 실시
- 미취업자와 대학생 등 경력관리제를 통한 취업 및 재취업시까지 관련 정보 지속 제공

## 제6절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산업용지 공급현황

- 2011년 말 전국에는 948개소의 산업단지에 지정면적 1,343,221천㎡와 산업시설용지<sup>10)</sup>(분양대상면적) 621,187천㎡가 공급되어 있으며, 경남 지역은 158개소에 지정면적 111,45천㎡와 산업시설용지 68,970천㎡로 약 11.1%의 전국비중(산업시설용지 기준)을 차지함



〈그림 3-2-3〉 경남의 산업단지 개발현황

10) 산업단지에는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주거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산업시설용지는 기업이 분양받아 입주하여 사용하는 순수 산업용지임

〈표 3-2-35〉 전국 및 경남의 산업단지 현황(2011.12)

구 분	유 형	단지수(개소)	지정면적(천㎡)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면적(천㎡)	개발면적(천㎡)	분양(천㎡)	미분양(천㎡)	미분양율(%)
전국	합계	948	1,343,221	621,187	453,901	443,961	9,940	2.2
	국가산단	40	789,807	281,677	248,317	247,059	1,258	0.5
	일반산단	469	482,615	285,567	157,244	150,447	6,796	4.3
	도시첨단산단	9	2,006	1,000	190	120	71	37.1
	농공단지	430	68,794	52,942	48,150	46,334	1,816	3.8
경남	합계	158	111,45	68,900	49,507	48,891	616	1.4
	국가산단	7	58,348	28,976	27,132	27,132	0	0.0
	일반산단	70	48,393	30,886	14,602	14,188	414	2.8
	농공단지	81	11,885	9,038	7,773	7,571	202	2.6

주 : **지정면적**-산업단지개발계획에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전체면적,  
**분양대상면적**-지정면적중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면적 (산업시설용지+주거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실수요자 개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지자체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를 제외한 전면적)  
**개발면적**-분양대상면적중 단지조성이되고 분양공고를 한 면적  
 지방산단=일반+도시첨단+농공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1.12.

- 도내 시·군별 산업용지 공급현황을 보면, 지정면적에서 시지역은 91,899천㎡으로 77.4% 군지역은 26,873천㎡로 22.6%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창원시(37.7%)-거제시(12.3%)-함안군(7.1%)-사천시·하동군(6.3%, 6.2%) 순임
- 산업시설용지의 개발면적은 시지역이 82.8%이며, 군지역이 17.2%로 창원시가 전체의 39.1%이며 그 뒤로 거제시(13.6%), 함안군(7.6%), 사천시(7.5%) 등의 순으로 개발이 이루어짐
- 경남 산업단지 분양율은 98.6%로 시지역이 99.1% 군지역이 96.3%를 보이고 있으며 창녕군과 산청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높은 분양율을 보임

〈표 3-2-36〉 경남의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2011.12)

구분	단지수 (개소)	지정면적 (천㎡)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 면적(천㎡)	개발면적 (천㎡)	분양 (천㎡)	미분양 (천㎡)	미분양율 (%)
경남	158	111,45(100.0)	68,900(100.0)	49,507(100.0)	48,891(98.6)	686	1.4
시부	83	91,899(77.4)	50,670(73.5)	41,050(82.8)	40,679(99.1)	372	0.9
군부	76	26,873(22.6)	18,302(26.5)	8,527(17.2)	8,213(96.3)	314	3.7
창원시	14	44,766(37.7)	20,940(30.4)	19,366(39.1)	19,236(99.3)	130	0.7
진주시	12	5,793(4.9)	3,227(4.7)	2,652(5.3)	2,551(96.2)	101	3.8
통영시	4	6,811(5.7)	5,011(7.3)	2,942(5.9)	2,942(100.0)	0	0.0
사천시	13	7,500(6.3)	5,164(7.5)	3,698(7.5)	3,586(97.0)	112	3.0
김해시	15	3,711(3.1)	2,439(3.5)	1,969(4.0)	1,958(99.4)	12	0.6
밀양시	11	3,711(3.1)	2,443(3.5)	1,147(2.3)	1,147(100.0)	0	0.0
거제시	6	14,600(12.3)	8,244(12.0)	6,740(13.6)	6,740(100.0)	0	0.0
양산시	8	5,007(4.2)	3,202(4.6)	2,536(5.1)	2,519(99.3)	17	0.7
의령군	4	817(0.7)	668(1.0)	668(1.3)	668(100.0)	0	0.0
함안군	18	8,465(7.1)	5,652(8.2)	3,758(7.6)	3,637(96.8)	121	3.2
창녕군	9	2,275(1.9)	1,644(2.4)	868(1.8)	743(85.6)	125	14.4
고성군	13	3,353(2.8)	2,296(3.3)	645(1.3)	645(100.0)	0	0.0
남해군	1	59(-)	47(0.1)	47(0.1)	47(100.0)	0	0.0
하동군	6	7,413(6.2)	4,979(7.2)	202(0.4)	202(100.0)	0	0.0
산청군	5	620(0.5)	463(0.7)	406(0.8)	338(83.3)	68	16.7
함양군	8	1,697(1.4)	1,029(1.5)	884(1.8)	884(100.0)	0	0.0
거창군	9	1,731(1.5)	1,159(1.7)	684(1.4)	684(100.0)	0	0.0
합천군	3	443(0.4)	365(0.5)	365(0.7)	365(100.0)	0	0.0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1.12.

- 개별입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개별공장 입지가 많아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로 거론되기도 하는 김해시가 36.7%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양산(12.2%)·함안(12.0%)·창원(8.3%)·창녕(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산업집적지를 이루고 있는 도시(부산·창원 등)에 인접해 있는 시·군들임
- 개별입지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이 7:3의 비율을 보임

〈표 3-2-37〉 경남지역의 개별용지 공급현황(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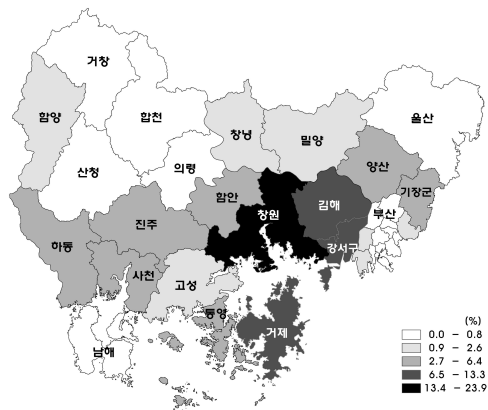
구 분			개 별 입 지		
			공장수(개소)	면 적(천㎡)	면적비중(%)
경 남 지 역	합 계		10,124(100.0)	37,211	100
	시 지 역	창원시	1,327(13.1)	3,107	8.3
		김해시	4,657(46.0)	13,668	36.7
		거제시	127(1.3)	1,145	3.1
		양산시	1,216(12.0)	4,527	12.2
		사천시	284(2.8)	1,197	3.2
		통영시	142(1.4)	509	1.4
		진주시	298(2.9)	864	2.3
		밀양시	215(2.1)	1,245	3.3
		소 계	8,266(81.6)	26,262	70.6
	군 지 역	함안군	930(9.2)	4,447	12.0
		고성군	114(1.1)	1,834	4.9
		창녕군	285(2.8)	1,952	5.2
		함양군	87(0.9)	488	1.3
		의령군	62(0.6)	466	1.3
		산청군	76(0.8)	438	1.2
		거창군	78(0.8)	340	0.9
		합천군	85(0.8)	386	1.0
		하동군	95(0.9)	479	1.3
		남해군	46(0.5)	119	0.3
		소 계	1,858(18.4)	10,949	29.4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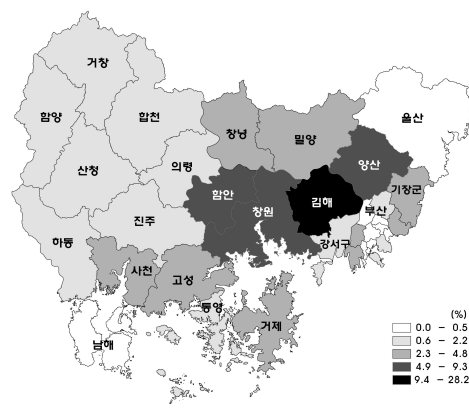
## 2) 입지패턴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남지역에는 양산·부산-김해-창원·거제-함안-진주·사천으로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입지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입지패턴의 형성요인은 그 동안 정부차원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항만·공항 등이 가까운 곳에 기계·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조성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전략적으로 공급된 산업단지가 하나의 거점을 형성하면서 이를 상호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건설되고, 또한 향상된 접근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계획입지)나 개별입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부~남해고속도로 축이 부산경남지역의 산업집적지를 이루게 되었음
-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산업의 백지지대나 다름없는 산업입지의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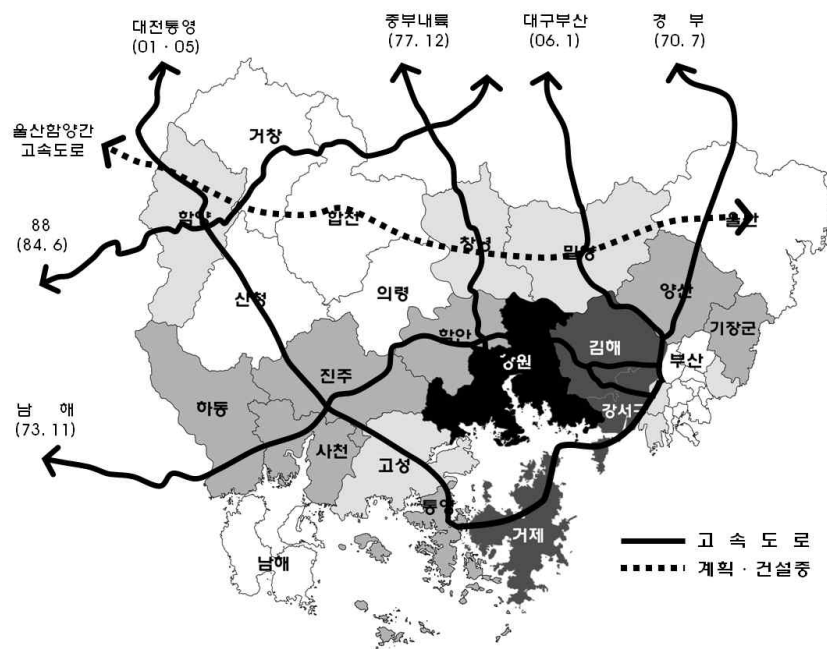
라서,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와 광역교통망 형성의 상호작용에 따른 누적적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3-2-4〉 부산경남의 산업용지 공급현황(비중)



〈그림 3-2-5〉 부산경남의 개별입지 현황(비중)



〈그림 3-2-6〉 부산경남지역의 산업입지와 광역교통망의 관계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기업의 산업입지 여건변화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따라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규모도 작아지게 되어 대규모의 값싼 부

지를 선호하는 것에서 중소규모의 전문화된 산업 집적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단순한 제조기능 보다 지식을 창출하는 혁신기능이 중요하게 되면서, 산업입지 공간의 복합 기능이 중요하게 바뀌고 있으며 산업입지공간은 R&D(Research & Development), 디자인, 유통 및 판매, 경영활동 등 복합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기업들이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최근에는 환경 또는 경관상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그리고, 기업활동의 광역화와 세계화에 따라 전문인력과 정보 등이 비교적 잘 공급되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대한 입지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향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기업환경이 양호한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선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입지수요는 증대되고, 기존 산업집적지는 재구조화가 진행될 것임

## 2) 산업단지개발의 환경변화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중앙정부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자체에서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었음
- 규모면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로 조성된 것에 반해 지방산업단지는 소규모로 조성되어 2006년 말 현재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정면적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전체의 75.9%(899.9km<sup>2</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19.7%(233.8km<sup>2</sup>)에 불과함
- 지정면적 기준으로 볼 때 1980년대 83.8%가 국가산업단지이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8.5%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 비율이 66.6%로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산업단지는 23.3%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단지 공급은 지방산업단지 중심 즉,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가 즉, 중앙정부의 경우 지원 및 조정으로 기능이 변화될 것임을 의미함

## 3) 정부정책의 변화

###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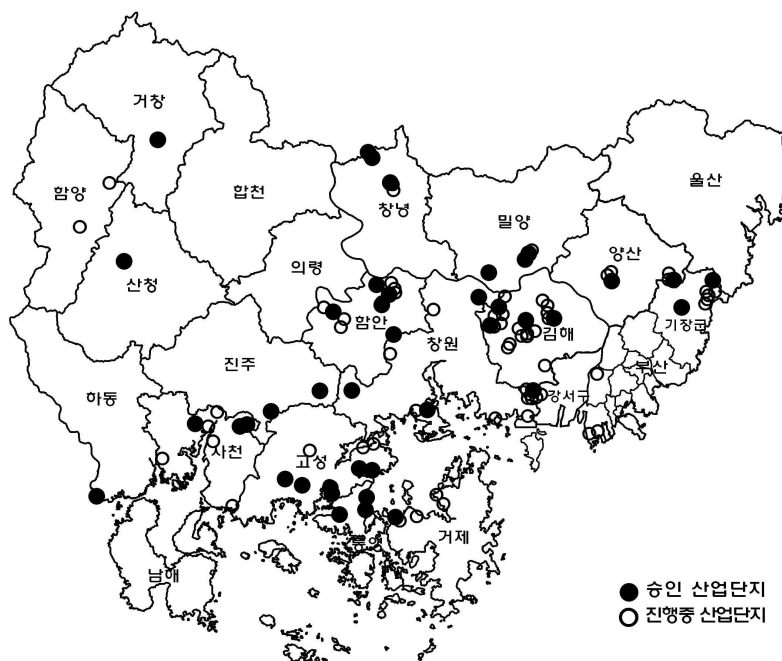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는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청정에너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시스템 도입·구축과 탄소제로 방출 생태산업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의 확보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첨단 녹색산업을 유치하는 저탄소 신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정부지원을 확대

- 기존 산업단지 정비 및 복합산업단지화 추진
  - 생산기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디자인 기능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전환 및 구조 조정하여 재활성화 모색
  -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확충·개량, 오픈스페이스 확대, 저밀도 개발 등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재정비
-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확대 및 개별입지 집적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신규 국가산단 및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하고 도시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에 준하는 진입도로 등 지원,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설치 등 관리

#### 4) 지역의 최근 동향

##### ■ 특례법에 의한 경남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례법을 제정하였음(2008.9)
- 이에 따라 경남 지역에서도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2010년 말 특례법 절차에 의한 90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승인되었고, 52개는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림 3-2-7〉 특례법에 의한 부산·경남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입지현황



〈표 3-2-38〉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동향(2010.12) (단위 : 개소·천㎡·%)

지 역	승인절차 진행 산단		승인(지정) 산단		합 계	
	단지수(비율)	면 적(비율)	단지수(비율)	면 적(비율)	단지수(비율)	면 적(비율)
합 계	67(100)	29,416(100)	41(100)	16,539( 100)	108(100)	45,955(100)
소 계	52(77.6)	24,224(82.3)	38(92.7)	16,090(97.3)	90(83.3)	40,314(87.7)
김해시	18(26.9)	12,156(41.3)	4(9.8)	578(3.5)	22(20.4)	12,734(27.7)
함안군	7(10.4)	1,863(6.3)	4(9.8)	2,134(12.9)	11(10.2)	3,997(8.7)
거제시	4(6.0)	2,586(8.8)	1(2.4)	1,210(7.3)	5(4.6)	3,796(8.3)
사천시	5(7.5)	2,359 (8.0)	3(7.3)	1,067( 6.5)	8(7.4)	3,426(7.5)
통영시	-	-	3(7.3)	2,942(17.8)	3(2.8)	2,942(6.4)
창원시	5(7.5)	1,953(6.6)	4(9.8)	898(5.4)	9(8.3)	2,851(6.2)
고성군	4(6.0)	599(2.0)	6(14.6)	2,193(13.3)	10(9.3)	2,792(6.1)
밀양시	1(1.5)	296(1.0)	3(7.3)	1,714(10.4)	4(3.7)	2,010(4.4)
창녕군	2(3.0)	280(1.0)	3(7.3)	1,660(10.0)	5(4.6)	1,940(4.2)
양산시	4(6.0)	1,436(4.9)	2(4.9)	458(2.8)	6(5.6)	1,894(4.1)
거창군	-	-	1(2.4)	745(4.5)	1(0.9)	745(1.6)
함양군	2(3.0)	696( 2.4)	-	-	2(1.9)	696(1.5)
진주시	-	-	2(4.9)	270(1.6)	2(1.9)	270(0.6)
하동군	-	-	1(2.4)	147(0.9)	1(0.9)	147(0.3)
산청군	-	-	1(2.4)	74(0.4)	1(0.9)	74(0.2)

자료 : 승인절차 진행중인 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 승인된 산업단지는 승인후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시·군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국가·지방 산업단지가 많이 입지해 있어서 이미 산업기능이 집적해 있거나 대도시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음
  - 산업단지 건수로는 대도시 지역과 인접해 있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산업집적지를 이루고 있는 김해시가 2010년말 현재 전체 90건중 22건(20.4%)으로 가장 많은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함안·고성·창원·사천·양산·거제·창녕에서 비교적 많이 일어나고 있음
  - 면적의 경우, 역시 김해시가 건수의 경우보다 점유비가 더 높은 경남 전체(40,314천㎡)의 27.7%(12,734천㎡)를 차지하고 있고<sup>11)</sup>, 다음으로 함안(8.7%)·거제(8.3%)·사천(7.5%)·통영(6.4%)·창원(6.2%)·고성(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모두 개발된다고 할 경우 2010년말 현재 경남지역에 공급되어 있는 산업용지(계획+개발:82,715천㎡)의 1/3에 해당하는 산업용지(27,573천㎡)<sup>12)</sup>가 추가 공급되는 상황임
- 그리고 경남도내에는 특례법 시행 이후 2010년말 현재 특례법에 의해 38개 단지가 승인되었는데, 고성군이 6개 단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해·함안·창원(각 4개)·사천·통영·밀양·창녕(각 3개)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11) 건수나 면적에서 공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는 2010년말 현재 산업용지(15,443천㎡)의 약 75%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특례법 절차에 의해 추가 공급될 예정임

12) 산업단지 면적의 60%를 가정한 산업시설용지 면적

- 면적의 경우는 통영이 가장 많은 2,942천㎡ 지정면적에 1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성(13.3%)·함안(12.9%)·밀양(10.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은 기존 산업집적지 주변 지역이거나 국가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서 산업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근 산업입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

- 지역의 산업구조전환 및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해가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기존 산업용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 2) 향후 산업용지 공급목표

##### ■ 2020년 산업용지 공급목표 : 132.02km<sup>2</sup>

- 산업단지 지정 현황( '11년 현재) : 158개 단지 111.45km<sup>2</sup>
  - 국가 7단지 58.26km<sup>2</sup>, 일반 70단지 41.3km<sup>2</sup>, 농공 81단지 11.89km<sup>2</sup> 등
- 2011년 현재 완공 76단지 20.23km<sup>2</sup>, 추진 중 82단지 91.22km<sup>2</sup>, 향후 2020년까지 공급예정(2012 - 2020년) 20.57km<sup>2</sup>

#### 3) 추진시책

##### ① 산업용지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

- 세계적인 경제질서의 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고도화 및 개방경제의 추진으로 인한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 등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의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추진 필요

##### ■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둠
- 1970년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미 입주기업의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 수정만 일원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여 해외 정보기술(IT)·정밀기기 업종 등 미래형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유치

###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

- 최근 정부의 산업입지 공급정책 중 중요한 방향의 하나로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 즉, 그 동안 일반적인 분양위주의 산업단지 공급정책이 갖는 한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산업용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대산업용지 공급을 대폭 확대토록 하였음
- 정부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매년 평균 약 330만㎡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권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임
- 수도권에 비해 임대산업용지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계획함. 또한, 공공에서 공급하는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과 임대(자가 장기임대형)가 혼합된 형태의 탄력적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함

## ②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

### 자본재 생산부문의 취약성 개선 및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

- 경남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본재산업의 미성숙으로 핵심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선박, 기계 등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여도가 낮은 편임
- 또한, 경남의 기계산업은 기술집약적이 아닌 단순 자본집약적 가공조립에 치우쳐, 후발개도국의 추격이나 수출입, 환율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이며, 첨단기술산업 중 항공·우주와 메카트로닉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비중이 낮은 편임
- 따라서,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항공, 기계, 로봇 및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

-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진주사천 연담도시권에 항공우주산업 생산단지와 항공산업 소재 부품 중소기업단지, 연구거점 및 R&D(연구개발)센터, 비즈니스센터, 지원시설 등으로 특화된 항공우주 산업단지를 조성
- 항공우주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자립기반 마련과 국가균형발전 달성 및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항공우주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기대함

### 밀양 나노융합첨단산업단지

- 밀양의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살려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나노 융합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거점으로 나노융합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함
- 나노국책연구원, 나노융합, 연구시설, 관련 제조업 등을 집적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육성

### ③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 재생 및 생태단지화

#### ■ 노후 산업단지 재생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는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보고 있음. 산업화의 시작이 빨랐던 경남의 경우, 다수의 산업거점들이 노후산업단지에 해당되고 있음
- 노후 산업단지의 방치는 산업구조의 변화, 복합이용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당초 의도하지 못했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의 왜곡을 경험하며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
-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혹은 재생은 도심경제활성화, 집단적 오염배출관리, 생산적 산업구조조정과 공간구조합리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됨. 진주 지역의 상평공단 등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정비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 부여

#### ■ 녹색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녹색 및 생태산업단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 녹색산업단지는 녹색산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혹은 산업단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 산업단지를 의미함
- 경남의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아직 녹색 혹은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녹색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산업단지의 생태환경정비 등 생태산업단지로의 정비를 추진함
-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sup>13)</sup>에의 전략적 참여도 필요함

### ④ 개별입지 난립 산업집적지 관리강화

#### ■ 준산업단지 도입

- 준산업단지는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공장 난립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임
- 1990년 중반 이후 무분별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개별입지 집적지로 인한 환경오염, 비효율적 토지이용 등 제반 문제점이 지역내 김해, 함안 등 일부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음
- 김해, 함안 등 산업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준산업단지를 활용하여 환경정비 및 환경용량을 고려한 입지관리를 실시함

13)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 제3장 문화관광 부문

제1절 문화예술 · 문화산업 육성

제2절 경남 관광의 경쟁력 강화

## 제3장 문화관광 부문

### 제1절 문화예술 · 문화산업 육성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현황

##### (1) 문화기반시설

- 2010년 12월 말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에 분포된 주요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3-1〉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기본현황(2010.12.말 현재)

시 군 구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원
	합계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남(18)	147	53	29	24		50	32	13	5	7	3	4		17	20
창원시	27	13	10	3		5	2		3	3	2	1		3	3
진주시	14	6	5	1		5	4		1	1		1		1	1
통영시	9	4	3	1		1	1			2		2		1	1
사천시	5	2		2		1		1						1	1
김해시	15	6	4	2		6	4	1	1	1	1			1	1
밀양시	7	3	1	2		3	1	2							1
거제시	10	3	2	1		5	1	4						1	1
양산시	7	2	1	1		3		3						1	1
의령군	5	1		1		2	1	1						1	1
함안군	3	1		1		1	1							1	1
창녕군	5	2		2		2	2								1
고성군	8	2	1	1		4	4							1	1
남해군	5	2	1	1		1	1							1	1
하동군	6	1		1		3	3							1	1
산청군	8	1		1		5	5							1	1
함양군	3	1		1											1
거창군	5	2	1	1		1	1							1	1
합천군	5	1		1		2	1	1						1	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인용

- 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광역시보다는 많은 시설수를 보이지만, 다른 도단위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도내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지속적으

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수요에 바탕을 둔 철저한 시설 확충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확충이 필요함

〈표 3-3-2〉 전국 인구 백만 명당 문화 시설 수(명, 개소)

시·도	인구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서울	10,312,545	26.96	9.79	10.18	3.10	1.45	2.42
부산	3,567,910	18.50	8.41	3.36	1.12	1.96	3.64
대구	2,511,676	21.10	10.35	3.58	0.80	3.19	3.19
인천	2,758,296	23.93	9.43	7.98	1.81	1.81	2.90
광주	1,454,636	28.19	11.00	5.50	4.12	4.12	3.44
대전	1,503,664	31.92	14.63	9.98	2.66	1.33	3.33
울산	1,126,298	23.08	9.77	6.22	0.00	2.66	4.44
경기	11,786,622	30.54	13.83	9.25	2.63	2.21	2.63
강원	1,529,818	101.97	30.72	43.14	5.23	11.11	11.77
충북	1,549,528	65.18	20.65	25.17	3.87	7.74	7.74
충남	2,075,514	62.15	24.57	19.27	2.89	7.23	8.19
전북	1,868,963	61.53	24.08	16.05	1.61	9.10	7.49
전남	1,918,485	74.54	29.71	18.24	6.25	8.34	11.47
경북	2,689,920	59.85	21.56	21.19	2.23	8.55	8.55
경남	3,290,536	44.37	16.11	15.20	2.13	5.17	6.08
제주	571,255	157.55	36.76	89.28	22.76	5.25	3.50
총계	50,515,666	39.18	15.03	12.97	2.87	3.80	4.51

### 공공도서관

- 경남의 18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도서관은 모두 53개임. 시·군 소관 도서관 29개소, 교육청 소관 도서관 24개소로 구분됨
- 경남지역 인구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시설수는 16.11개소임

### 박물관·미술관

- 경남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은 총 50개이며 그 중, 국공립이 32개, 사립 13개, 대학교 5개 임. 또한, 도내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효율화 및 발전을 위한 (사)경상남도 박물관협의회가 설립(2006.12.21)되어 있음
- 18개의 시·군 중 창원시가 8개관, 김해시 7개관, 진주시 6개관 순으로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는 해당시설이 전무해 지역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국립박물관은 2개관으로 임진왜란 전문 역사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과 부산·경남 지역의 선사시대의 문화상과 가야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고고학 전문박물관인 국립김해박물관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 문예회관

- 현재까지 조성되어 운영 중인 경남 내 문예회관은 17개관이고, 창녕군(창녕문화복지회관), 함양군(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문예회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음
-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해당시설이 완공될 경우 모든 시·군이 문예회관을 갖게 됨

〈표 3-3-3〉 2009년 문예회관 지역별 공연 가동률

구 분		응답 공연장(개)	공연장 전체	공연프로그램
전 체		264	53.1	32.1
지역1	서울	18	77.7	63.0
	부산	13	59.4	48.2
	대구	12	67.5	48.0
	인천	9	48.6	30.4
	광주	6	68.3	44.8
	대전	3	82.1	66.1
	울산	4	58.9	50.8
	경기	52	49.8	34.0
	강원	20	39.6	18.6
	충북	13	49.4	28.7
	충남	23	59.6	22.0
	전북	20	43.2	17.6
	전남	21	45.1	21.2
	경북	23	57.6	29.7
	경남	25	40.0	21.6
	제주	2	83.0	75.8
지역2	특별/광역시	65	66.3	50.5
	광역시도	199	48.7	26.1

- 하지만 현재 도내 문예회관의 경우 연중 가동율이 다른 지역의 문예회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음. 다양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 운영을 활성화를 도모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문화원

- 1965년부터 지역문화 진흥의 근간인 지방문화원을 통해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경남의 경우 20개소가 고유문화의 개발·보급·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행사의 개최,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문화프로그램 특성화 및 다양화 추구의 기반이 되는 지역문화자원 개발 및 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로 간접적인 문화활동 영역에 머물러 있음



## (2) 문화자원 현황

## ■ 전통문화유산 자원현황

- 경남은 고대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많은 수의 가야문화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후대에 와서 유교 및 불교문화의 번성으로 유명 사찰들과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도내 지정(등록)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51건, 도지정문화재 738건, 문화재자료 481건, 등록문화재 36건 등 총 1,506건 임
- 도내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은 총 97개소 임
- 경남의 무형문화재는 밀양백중놀이, 영산쇠머리대기,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남해안 별신굿 등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소목장, 판소리, 장도장 등과 같은 도지정 무형 문화재가 있음
- 가야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해양문화와 같이 4대 전통유형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역사문화교육이나 관광자원으로의 적극적 활용이 향후 더욱 크게 요구됨

〈표 3-3-4〉 경남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 (2010.1월 기준)

시군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소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자료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 념 물	민속 자료	
총계	1,506	251	10	111	52	6	43	16	12	36	738	447	30	241	20	481
창원시	35	4		1	2		1			1	23	12	1	10		7
마산시	29	2			1			1		2	18	6	3	9		7
진주시	137	17	1	11	2		2	1		4	62	38	9	14	1	54
진해시	25	3		2	1					6	15	4		11		1
통영시	61	21	1	1	4	1	6	6	2	4	26	16	1	9		10
사천시	41	6		1	1		2	2			26	6	3	16	1	9
김해시	49	13		2	9		2				20	9	1	10		16
밀양시	140	13	1	7	1		2	1	1	6	67	50	3	14		54
거제시	44	4			1	1	2			2	31	5		26		7
양산시	141	34	1	25	6		1	1			82	71	2	8	1	25
의령군	54	8		3			5			1	29	13	1	13	2	16
함안군	56	9		2	3		3		1		29	16	2	10	1	18
창녕군	97	21	2	9	6			2	2	1	33	23		9	1	42
고성군	63	8		2	2		2	2		1	30	17		11	2	24
남해군	68	11		1	2	2	6			1	27	13	1	12	1	29
하동군	72	12	1	6	2		3				38	26		12		22
산청군	91	14		11	3					3	38	22		13	3	36
함양군	86	13		4	3		4		2	1	48	35		11	2	24
거창군	78	9		4	1	1	1		2	3	38	25	3	6	4	28
합천군	139	29	3	19	3	1	1		2		58	40		17	1	52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 2010

## (3) 문화산업 현황

## ■ 지역 문화산업 기본현황

- 전국 문화산업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비중은 또한 매우 낮은 상황임

〈표 3-3-5〉 전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독립제작사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구성비
합계	15,551,742	692,753	2,720,486	3,362,815	358,503	9,186,878	5,358,272	796,175	5,255,185	2,036,362	45,319,171	100.0
서울	10,547,078	348,861	1,375,330	2,461,105	245,121	8,613,806	2,728,588	692,903	4,349,655	1,496,520	32,858,967	72.5
부산	482,488	24,706	118,493	61,719	12,318	89,277	220,092	5,796	48,900	41,231	1,105,020	2.4
대구	344,052	11,272	105,446	72,456	6,563	161,322	175,544	3,729	38,816	36,285	955,485	2.1
인천	210,481	13,923	106,519	21,829	4,982	15,038	151,094	2,887	37,333	36,137	600,223	1.3
광주	189,923	8,278	56,724	55,297	10,331	21,346	100,707	4,132	28,486	29,121	504,345	1.1
대전	179,409	9,965	56,093	18,704	2,040	52,895	110,295	1,096	35,730	26,393	492,620	1.1
울산	75,223	5,053	43,878	2,698	-	2,812	50,053	432	15,244	12,135	207,528	0.5
경기	2,790,996	225,725	421,025	319,847	60,576	144,667	1,130,149	79,869	533,966	213,655	5,920,475	13.1
강원	59,897	5,022	47,220	28,431	5,139	23,159	48,688	1,835	17,869	19,326	256,586	0.6
충북	67,386	5,720	50,068	78,834	3,668	4,964	98,796	998	26,150	21,335	357,919	0.8
충남	95,222	5,957	59,065	9,254	1,629	8,607	58,513	683	25,023	19,662	283,615	0.6
전북	65,076	4,550	42,030	50,913	3,328	16,231	71,629	172	18,917	18,335	291,181	0.6
전남	33,405	4,294	46,644	28,754	296	6,361	39,948	365	17,079	16,215	193,361	0.4
경북	208,622	8,674	84,752	55,815	-	7,305	85,508	597	25,959	21,285	498,517	1.1
경남	163,490	9,277	90,701	84,412	1,885	11,681	128,553	446	30,283	23,112	543,840	1.2
제주	38,994	1,476	16,498	12,747	627	7,407	160,115	235	5,775	5,615	249,489	0.6

주 : 출판(인쇄업, 인터넷서점(만화제외)), 만화(인터넷서점(만화부분)), 애니메이션(극장, 방송), 게임, 방송 분야를 제외한 결과임.

- 전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의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전국대비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아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비교할 때 산업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의 연고별 매출액 현황으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11.0%나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국 전체의 2% 감소에 비해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인 산업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표 3-3-6〉 경남 연도별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증감율	연평균증감률
경남	697,196	599,220	543,840	▽9.2	▽11.0
전국	47,174,196	47,399,385	45,319,171	▽4.4	▽2.0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09년 말 현재 10,319명으로 전국 363,231명의 2.8%를 차지함. 이 중 음악부분의 종사자가 4,42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출판 관련 종사자가 2,763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종사자 현황을 보임

〈표 3-3-7〉 경남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단위:명.%)

구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방송 (독립제작사)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전국대 비 구성비
경남	2,763	356	4,426	994	22	184	579	524 (12)	357	114	10,319	2.8
전국	92,224	10,331	76,378	28,041	4,170	33,509	23,406	34,308 (4,748)	44,897	15,967	363,231	100.0

주 : 출판(인쇄업, 계약배달직, 인터넷서점(만화제외)), 만화(인터넷서점(만화)), 음악(인터넷음반소매업), 게임 분야를 제외한 결과임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07년에서 2009년 말 현재까지 연평균증감률이 7.2% 감소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국의 연평균 증감률인 0.8%보다 큰 감소치로 지역 콘텐츠산업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표 3-3-8〉 경남 연도별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단위:명.%)

구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경남	11,987	10,033	10,319	2.9	▽7.2
전국	369,134	356,791	363,231	1.8	▽0.8

### 문화산업의 문제점

- 경남의 문화산업은 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유산 등 원천자원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기반이 거의 전무하고 아직 문화산업 부문의 유망기업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매출액 비교에서 보아도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비교할 때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음
- 문화산업은 생산체계 및 소비양식이 일반 제조업과는 다름. 문화산업은 문화창출을 위한 정신적 활동에 생산의 기반을 두는 것으로 따라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지역분위기와 환경이 중요하며, 문화산업에 투입되는 다양한 계층의 인력풀 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력풀 형성이 미흡한 수준임
- 지역 문화산업의 경우 출판업이 가장 큰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나 기타 분야의 경우 매우 저조한 상황임. 출판업의 고부가치화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과 지원, 즉,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함
-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적인 인지도 확보에 필요한 경남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 구축이 미비하며,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체계화된 전략이 부족함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제조·제작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유통업에 해당하나 고부가가치로 전환에 필요한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이 부족함

#### ■ 문화인력 범위 및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점차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문화를 생산, 유통, 촉진시키는 문화공급자, 문화수요자, 문화매개자, 문화축매자 등 문화현장에서의 전문인력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문화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문화행정인력, 지역문화 활동가, 문화예술단체, 문화공공기관 인력, 문화기획자, 문화운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문화축매자 혹은 문화공급 역할 이행자로 칭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되는 가운데 지역문화인력 지원과 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 및 문화관련 행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경남 지역의 문화인력 인적 구성이나 관련 영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배출되는 문화 관련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인력의 전문성과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함
- 현재 문화예술인력 현황 파악이 가능한 부분은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인력이나 대부분 전문성을 갖지 못한 행정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비율로 그나마 규모가 있는 시설의 경우 학예연구와 무대기술전문직에는 자격증 소지자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열악한 실정임
  - 지자체의 관련 행정분야 역시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는 문화재 담당분야에 약간 명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임

## 2) 현황 문제점 및 과제

#### ■ 문화향유의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 필요

- 문화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확대되는 경향 속에서 지역의 시·군 간 그리고 계층 간에 일정한 문화향유 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 이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문화향유 기회를 공유하는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 생활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 필요

-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 보급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운영 합리화 필요

- 현재 지역에 많은 문화시설이 이미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여전히 문화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필요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이 필요함
-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을 합리화 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함이 요구됨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노력 미미

- 지역의 많은 역사문화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이 부족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가 요구됨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필요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동의 전개를 통해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해야 함

####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

- 지역 문화산업의 미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육성 지원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함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대내외적 여건변화

####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노력 확대

- 지역 문화자원을 매개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각 지자체의 관심 지속과 함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지속

####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 확대

-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확대와 함께, 현실적으로 계층·지역간 문화격차가 상존하고 있어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친서민 문화복지 확대·개선이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에 따른 정책적 관심 요구

- 베이비붐 세대가 문화소비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 수립이 요구됨

#### 다문화 포용 문화정책의 필요성 대두

- 다문화시대 속에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적

극 포용하는 다문화 예술정책의 강화가 중요성을 가짐

####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에 대한 관심 확대

-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확대와 함께 수동적인 보존관리 활동에서 탈피하여 이를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지속

-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산업 집중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를 매개로 하는 지역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관심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됨

##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 문화복지 및 문화격차 해소 정책 계속 추진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추진이 강화되고 있음

#### ■ 글로벌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 추진(세계적 콘텐츠 생산국)

-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이에 따른 투자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육성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부응하여 각 지역 역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또는 문화콘텐츠산업화 하는데 관심을 경주하고 있음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생활 속의 문화복지 확대 및 창조적 문화산업 기반구축

-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를 추진함

- 지역 문화산업의 미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차원의 육성 지원책 마련과 함께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추진함

#### ■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과 보존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동의 전개를 통해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자원화해 나감

## 2) 추진전략

- 생활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 강화
- 문화 인프라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운영 합리화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및 활용 극대화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활동 강화
-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강화 및 지역 특화산업 발굴

## 3) 추진시책

### (1) 생활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 강화

####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도내 아마추어 창작인들의 창작능력 증진 및 이를 통한 예술적 기반의 확대와 창조적·실험적 문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경남문화예술 육성
- 전문 문화예술인의 무대공연작품 제작 및 문인 창작활동을 지원
- 농촌의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창작공간 조성을 지원
- 문화예술 장르별 지원책을 마련하며 특히,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우선 지원책을 마련함

#### ■ 문화예술인의 복지 개선

- 전문예술가로서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예술활동에 필요한 스튜디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
-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함

#### ■ 기업 메세나(Mecenat) 활성화

-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상품홍보 등의 효과가 있는 메세나(문화애호가)운동을 기업이 인식케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메세나정보 DB’를 구축·운영해서 문화예술과 기업의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을 지원함
- 경남 소재 기업 또는 경남과 연고가 있는 출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과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방문화사업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 유도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함

#### ■ 공공예술의 활성화

- 예술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공공예술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시
- 도내 각종 문화예술 기관에서의 공공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확대
-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경관 사업과 연계한 각종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함

#### ■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의 확대

- 기존의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의 확대 운영
- 수급 대상의 점차적 확대 및 참여기관 및 분야의 확대를 통하여 실제적인 문화권의 향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 주민참여·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주도형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는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과 개발, 그리고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특정계층 또는 특정인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도 그 중요성을 가짐
- 특정인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보급에 있어서는,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문화소비의 큰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가시간 선용과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줄 특화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들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대할 것임
- 더불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역시 큰 중요성을 가짐

#### ■ 지역 문화공동체 육성·지원 강화

-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영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문화 관련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경험을 축적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한 예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업은 주민들을 연결하는 지역의 작은 문화공동체로 다양한 독서·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많은 문화예술 참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주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 마련

-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도나 시군지자체 차원의 경제적 보조와 지원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관련 기관의 설립 필요성도 많이 제기됨
- 경남도 차원에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관련된 경제적 지원과 보조사업 실시를 가능케 하고 관련 기관의 설치를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법률적 장치의 마련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강화

-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방법을 가리키는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 공함이 필요함
- 기존의 정규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문화예술교육 외에도 다양한 층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한 관심과 교육수혜자의 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2) 문화 인프라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운영 합리화

### ■ 주민 밀착형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대

- 기본적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보완은 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나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임
-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의 창조성을 결합하여 창조적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창조적 문화시설공간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생활권 단위의 적절한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인간 위주의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높임
- 지역적인 안배와 문화수요의 요구 정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함

### ■ 문화인프라 시설의 운영 활성화

- 문화기반시설의 원래 설립목적에 충실히 부합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화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함
-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체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 ■ 문화예술행정 인력의 체계적 양성

- 문화예술 관련 부서 업무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담당공무원 인력의 업

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하여 업무 관련 철저한 사전 교육 후 업무 배치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업무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부분의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 대학에서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련 전공분야의 교과과정의 확대를 통한 행정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전교육을 강화함
-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의 전문직 채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교육의 전문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고함

#### ■ 문화예술 관련 재정기반의 확충

- 문화예산 및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로 국가보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문화예술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유치를 확대함
- 문화예술부문에 민자유치와 민간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함

#### ■ 지역 박물관·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박물관·미술관은 일률적인 건립보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기반시설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건립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경남지역의 문화거점으로 구축하는 통합적인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체험프로그램이나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적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프로그램 기획자인 에듀케이터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 박물관의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전문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함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재정적인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공립박물관의 운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3)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및 활용 극대화

####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강화

- 지역문화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토대를 마련함
-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알려진 문화자원 외에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에 관심을 경주하며 다양한 테마별 지역문화

자원 발굴과 활용방안을 강구 함

- 지역문화자원의 교류 및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 및 장소마케팅의 강화가 필요함

#### ■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장소마케팅 강화

- 기존의 지역축제 프로그램과 주제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남지역의 여러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축제의 개발이 요구됨
- 권역별 축제 활성화 및 홍보전략 수립, 축제의 통합 방안 추진
- 축제 및 다양한 문화이벤트의 운영을 통한 장소마케팅의 강화
- 시민축제와 전통문화축제의 분리 추진

#### ■ 무형문화재 창의적 계승 및 활용

- 경남의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현재 활용중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일시적인 문화이벤트성 지원보다는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
  - 경남 내 무형문화재 활동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홍보할 수 있는 상설공연 인프라 마련이 필요함
-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조사된 자원에 대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함

#### ■ 근대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안 개발

- 최근 들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명인의 생가나 건물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윤이상 페스티벌하우스로 활용 중인 옛 통영군청이 경남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자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4)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활동 강화

#### ■ 경남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발굴

- 경남에 분포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발굴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자원들의 보존·정비로 경남의 이미지를 형성
- 경남의 가야문화자원의 계속적 발굴과 함께 지역의 해양문화자원, 불교·선문화자원, 유교문화자원, 민속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속적 관심과 시행

#### ■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

-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창하고 현대적 계승방안 마련
- 문화재관리 담당공무원의 수적 확대와 업무관련 전문교육의 강화
- 전문 학예인력의 확충을 통한 문화재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
- 도내의 많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지속하고 및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에 소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
- 사찰 문화재의 목록화, 도난 및 방재대책 수립, 기타 보존 및 관리대책을 문화재청과의 유기적 협조 하에 수립

#### ■ 통합적인 가야문화권역 마스터플랜 수립

-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권,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가야권, 고성의 소가야권, 산청·합천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권의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체계적 관리,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가야문화권역 단위의 가야문화권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 인프라로 집중 구성하여 특징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전체 가야문화연구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함

#### ■ 문화유적의 정비복원 및 역사교육·관광자원화

- 문화유적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여 도민 및 방문객의 역사교육의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험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함
- 문화유적의 교육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함
- 대가야권, 금관가야권, 아라가야권, 그리고 소가야권의 각 단위 권역별 개발과 주요 유적의 정비복원,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각 문화권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4대 권역 전체를 연결하는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야문화 전체의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함
- 서북부 남명유교문화권에 대한 정비·복원사업을 실시함
- 권역별 유적 탐방루트 및 각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탐방루트 개발 운영
- 주변의 천혜의 자연자원 그리고 기타의 풍부한 역사자원과의 연계적 개발을 통해 문화와 자연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합 관광루트의 개발이 필요함

#### ■ 일반대중의 유적관리와 보존활동 참여 유도

- 지정된 문화유적외 사유지에 위치한 비지정문화유적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유적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적의 관리와 보존활동에 직접 참여시키는 주민 참여 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화재지킴이 운동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

- TV나 대중매체를 활용한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강화

####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강화 및 지역 특화산업 발굴

##### ■ 문화콘텐츠를 지식기반경제의 신산업으로 육성

- 방송영상,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출판산업 등이 전략적 문화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경남의 경우 기존 유력산업과 새로운 특화산업 영역을 발굴하여 전체 문화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 유통구조의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업종의 유치 및 지원에 집중 투자함

#####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

- 경남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테마 콘텐츠를 발굴하여 첨단 IT 및 CT 산업과 결합하여 문화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원형을 콘텐츠화 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재로 제공
- 지역 축제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축제와 문화산업을 연계
- 각 지역의 특산품을 자원화 하여 전시장, 체험장, 전문박물관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며 관련 주제로 문화산업을 육성

##### ■ 문화콘텐츠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경남도에서도 전략업종을 선정하여 기본자금(Seed Money)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여건을 조성함
- 첨단기술 및 상품개발, 수출지원, 고가 장비의 공동이용 등 업체의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창업보육실·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전방위 지원 기능을 수행함
- 산학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기업체와 학계의 연계협력을 강화
- 실용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지원

### 4) 전략사업

#### (1)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 및 전문예술인 지원

##### ■ 주민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조례 및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문화예술활동 육성 조례

를 제정함

-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 ■ 주민 문화예술지원센터 구축

-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각종 지원사업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필요함
-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단위, 혹은 마을단위의 (가칭) ‘주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함
- 이 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관련 주민 문화예술 활동조직과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전개를 담당함으로써 주민 문화예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능도 같이 수행함

#### ■ 사회적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프로젝트 개발

-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역이나 마을만들기 참여, 문화공동체 활동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을 활동 매개체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일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사회적 기업 참여 공모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전개함
- 본격적인 사업전개에 앞서 다양한 사례 검토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홍보 등 선행작업의 실시 후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 베이비붐세대 및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우리사회 문화소비의 큰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특화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일반 노년층들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대하고 있음
-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지역문화시설 등을 통해 개발·보급하고, 이러한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함
- 또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나 시니어클럽 등의 조성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함

####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보급

- 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문화적 약자 또는 소외층으로 전락함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게끔 유도해야 함
-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또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참

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시·군별로 제공함

####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시

- 도시재생이나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에 결부하여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와 그 예술창작의 기회와 공간을 동시에 제공함
- 이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관련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

#### 경남형 엘 시스템아 추진

- 엘 시스템아 운동을 지역에 도입·확산시켜 지역의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가족, 그리고 전체 지역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감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가와 연계하여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므로, 전문 지도인력 확보와 악기나 도구 등의 후원·지원활동을 조직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트레이닝,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성취와 활동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공연발표 기회의 장도 마련함

#### 문화예술교육 쿠폰제 실시

-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문화바우처와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쿠폰제를 실시
- 문화소외계층과 노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접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소양교육을 받게 함
- 이를 통해 이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가능케 함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과 고령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문화예술행위를 체험토록 함
- 군지역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마을 순회 문화예술교실의 운영을 추진함. 또는 이러한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고려함

#### 경남문화재단 재정지원 확대

-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기관인 경남문화재단에 대한 도차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사업 집행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활동케 유도함
- 또한, 현재의 사업 집행 위주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확대함

#### ■ 아마추어 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도내 아마추어 창작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함
- 아마추어 창작예술대회 개최와 도내 지역축제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함
- 아마추어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상호정보 교류를 위한 아마추어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웹사이트를 개설
- 주민들의 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강화토록 함

#### ■ 전문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 도내 전문예술인의 어려운 창작여건 현실을 강화하여 이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함
-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전시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

### (2) 주민 친화형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

#### ■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 확대

-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로서의 작은 도서관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토록 함

#### ■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 생활 문화예술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공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함
- 이를 위해 신규 인프라의 건립보다는 기존 문화시설의 재활용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권장됨
- 문화향유의 일상화와 중산·서민층의 문화 복지 확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공연·전시장 등 복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읍·면별로 아파트단지, 마을공터, 학교운동장 등에 주민의 열린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지원함
-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창작공간화 사업, 폐교 활용사업,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시설에 대한 발굴·활용을 추진함

#### ■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현재 지역에는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으나 그 운영이나 지역민의 이용도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와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 이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업무 전문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함. 또한,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주민 친화형·밀착형 문화시설로 운영토록 함
- 또한, 특정 또는 개별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지역민의 직접적인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복합시설로 운영함을 적극 추진함

### (3) 문화유산 가치 재창조 및 체계적 관리

#### ■ 문화재의 복원 및 정비 사업의 계속 추진

- 노후·퇴락된 문화재의 철저한 복원과 보수를 실시하여 조상의 슬기가 깃든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원형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애호정신을 고취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함

#### ■ 문화재관리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문화재의 관리 활동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랑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함
- 더불어 공적 영역에서는 현재 지자체의 문화재관리 인력의 부족 상황을 조속히 보완하고 전문 학예인력을 충원하여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

#### ■ 지정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정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
- 지정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정기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

#### ■ 남명 유교문화권 개발 정비 사업

- 경남 서북부 함양, 산청, 거창, 진주 일원의 남명 유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유적의 정비·복원을 추진함
- 경북의 안동북부 유교문화권과 대응하는 남명 유교문화권역의 설정과 장기적인 개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 가야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 경남의 뿌리인 가야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경남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로 지역 문화경쟁력을 확보함
- 경남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가야문화유적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경남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함
- 가야문화유적의 발굴·정비는 단위시설물 및 특정유물·유적에 한정되는 점적인 정비가 아닌 지구

단위의 면적인 정비·보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에 풍부한 문화성을 창출함

- 특히, 대가야 관련 유적 환경 정비사업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경북, 대구, 전북 등의 지자체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함

#### ■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장 및 주민참여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소중한 각종 무형문화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연중 상시 각종 공연이 가능토록 함
- 공연장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배우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살아 있는 전통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

#### ■ 유·무형문화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지역의 유·무형문화재에 감추어진 다양한 민중의 이야기와 지역색채를 잘 드러내기 위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토록 함
-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유·무형문화재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화하여 지역의 특화 문화콘텐츠로 개발함

#### ■ 근대문화유산 자원조사 및 DB 구축

- 지역의 많은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자원이 급속도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정밀 자원현황조사를 실시함
- 지난 2005년에 경남도에서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으나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원 재조사를 실시하여 DB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함

#### ■ 근대문화유산 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 지역의 많은 근대문화유산 자원 중 공간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지역 예술가나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주민 문화공간 확충을 가능토록 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창조적 기능을 하도록 함

#### ■ 지역 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가야유적, 우포늪, 지리산, 남해안 공룡유적 등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정비·관리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토록 적극 노력함
- 상기의 자원 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등재 대상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등재추진 활동을 전개함
- 인근 관련 타 지자체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

#### ■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지역의 많은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는 화재나 기타 범죄행위에 계속 노출되어 있음.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함

#### (4) 지역 문화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 강화

##### 「경남 문화산업진흥 모태펀드」 조성

- 경남도 차원의 도비 출연 모태펀드 조성으로 도내 문화콘텐츠기업의 기획, 연구개발, 제작,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
-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술 혹은 아이디어 기획을 담보로 문화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마케팅 활동 등에 대출 혹은 투자의 형태로 지원
- 1인 창업 등 지역에 연고한 각종 소규모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경남도 차원의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기업이나 창조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경남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설립 운영함
- 장비 및 시설 지원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인력양성 및 지원, 각종 정보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업의 콘텐츠산업 창업과 경영,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지원센터는 독립기관 형태로 또는 경남콘텐츠진흥원의 부속기관으로 설립함

##### 문화원형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

- 경남도의 풍부한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콘텐츠화 가능한 원형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함. 이를 통해 경남의 특색있는 콘텐츠자원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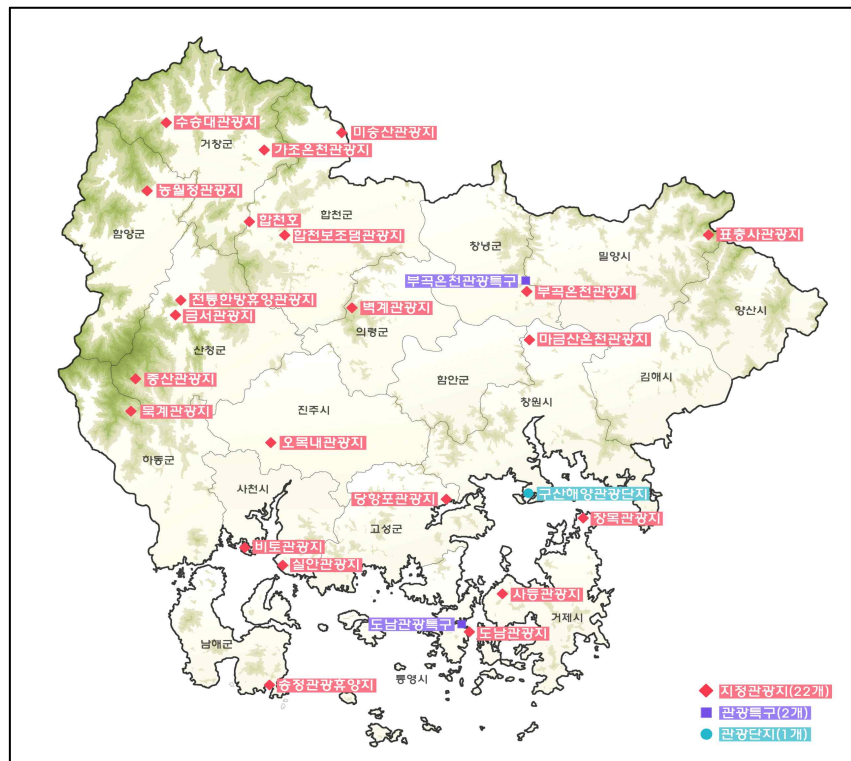
## 제2절 경남관광의 경쟁력 강화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관광자원 및 축제 현황

##### 지정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지정 관광지는 경남은 전국 230개 중 22개를 차지해 평균 14.4개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체 면적은 8,059,096㎡임(비토관광지, 목계관광지는 조성계획 미승인)
- 관광특구는 전국 27개 중 통영 미륵도, 부곡온천 2개로 평균 1.7개와 비슷한 수치이며, 전체 면적은 37.72km<sup>2</sup>임. 관광단지는 현재 1곳(구산해양관광단지, 2011. 04. 21승인)이며, 향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임



〈그림 3-3-1〉 관광개발(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현황도

##### 생태·녹색 관광자원

- 생태관광자원에는 국립공원, 동식물, 산악 및 평지, 경승지 등이 있음(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자원 DB 분류기준 활용)

- 경남의 산악 및 평지는 전국 2,448개 중 285개가 있으며(11.6%), 수변 및 해양 자원은 전국 1,372개 중 143개(10.4%), 경승지는 전국 396개 중 32개(8.1%)를 보유하고 있음
- 녹색관광자원에는 녹색농촌마을, 팜스테이, 어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이 있음(그린투어 경남 마을 형태 분류기준 활용)
- 경남의 녹색농촌마을은 전국 363개 중 49개(13.5%), 팜스테이는 전국 294개 중 41개(13.9%), 어촌체험마을은 전국 248개 중 17개(6.9%), 산촌생태마을은 전국 119개 중 17개(14.3%)가 지정되어 있음

〈표 3-3-9〉 생태녹색 관광자원

항목		전체	경남
생태관광자원	국립공원	20	4
	동식물	513	81
	생태탐방	379	56
	산악 및 평지	2,448	285
	수변 및 해양	1,372	143
	보호구역	47	4
	경승지	396	32
녹색관광자원	어촌체험마을	248	17
	팜스테이	294	41
	녹색농촌마을	36	49
	농촌전통테마마을	170	13
	산촌생태마을	119	17

자료 : 경상남도, 2010.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 수립.

### ■ 해양(섬) 관광자원

- 경남의 섬은 전국 3,170개 중 425개로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섬 고유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거나 주변섬과 연계해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인 ‘명품섬 베스트 10’에 경남의 섬 3개(통영 연대도, 거제 내도, 사천 신수도)가 선정되었음

〈표 3-3-10〉 해양(섬) 관광자원

항목	전체	경남	항목	전체	경남
섬현황	3,170	425	명품섬	10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 해수욕장은 전국 312개 중 경남은 통영, 사천, 거제, 남해 등 시군에 26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11〉 시군별 해수욕장 현황

구분	해수욕장 명
통영	통영 공설해수욕장, 비진도 산호빛 해변 해수욕장, 사랑 대항 해수욕장, 덕동 해수욕장, 봉암 몽돌해수욕장, 연대 해수욕장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거제	·명사 해수욕장, 학동 흑진주 몽돌해수욕장, 구조라 해수욕장, 와현 모래숲 해변 해수욕장, 덕포 해수욕장, 흥남 해수욕장, 농소 해수욕장, 황포 해수욕장, 물안(옆개) 해수욕장, 덕원 해수욕장, 여차 해수욕장, 함목 해수욕장, 죽림 해수욕장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 해수욕장, 송정 솔바라마 해변 해수욕장, 사촌 해수욕장, 두곡/월포 해수욕장, 선구 해수욕장, 설리 해수욕장
합계	26개소

자료 : 경남 시군별 내부자료

### 문화관광축제

-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 관광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전국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업임. 경남은 전국에서 6개로 가장 많은 우수 축제를 보유하고 있음

〈표 3-3-12〉 문화관광축제 지정현황(단위: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1	0	0	0	0	충북	2	2	2	1	1
부산	2	3	2	2	2	충남	6	8	5	4	5
대구	1	1	1	1	1	전북	5	4	4	4	4
인천	2	3	1	1	1	전남	8	6	5	5	6
광주	1	2	2	2	2	경북	5	6	5	6	5
대전	0	0	0	1	0	경남	5	5	5	6	6
울산	1	2	0	1	1	제주	3	3	1	1	2
경기	5	5	5	4	3	합계	54	57	44	44	44
강원	7	7	6	5	5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2) 경남 관광객수 및 지출비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에서는 2011년 기준 국민 국내관광객 수는 약 84,008만명이었으며, 16개 시·도 중 경북지역이 10,322만명으로 국내 관광지역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관광객 수는 7,186만명으로 전국 5위 국내방문 관광지로 나타남
- 본 집계결과는 문화관광부 관광지 보고통계의 지정 유·무료관광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무료관광지의 관광객 예측 방법, 중복집계 등의 집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10 경남관광실태조사 여행경로 통계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관광지 중복방문 비율은 약 13.7%로 이를 적용하면 2010년의 경남의 관광객수는 5,634만명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의 관광수요는 약 74,383만명이었으며, 16개 시·도 중 경기지역이 7,263만명으로 국내 관광지역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관광객 수는 4,370만명으로 전국 4위 국내방문 관광지로 나타남
- 경남의 관광객수가 점차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됨

〈표 3-3-13〉 지역별 국민 국내관광 수요(단위:명)

구분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수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	-	22,969,055	38,677,308	45,490,304	51,003,868
부산	54,096,370	55,580,170	50,573,532	19,560,157	22,427,198	24,638,916
대구	35,266,325	33,484,200	36,957,423	10,063,394	11,357,380	13,754,966
인천	14,211,533	12,137,681	36,542,404	12,902,371	15,938,149	17,355,046
광주	12,670,493	13,626,806	13,015,946	7,166,159	7,734,982	8,087,803
대전	13,537,333	16,636,687	18,986,079	6,783,475	7,730,297	8,189,474
울산	12,086,723	14,966,516	15,533,048	4,661,545	5,769,210	6,806,384
경기	57,606,624	63,258,387	66,411,465	57,033,415	65,129,194	72,634,116
강원	81,828,618	90,038,914	84,912,735	45,099,389	51,429,839	56,236,102
충북	43,113,772	50,654,387	52,671,730	16,357,151	18,604,955	19,941,939
충남	89,216,031	104,186,435	98,862,970	29,175,685	32,338,285	33,947,224
전북	51,784,665	63,218,146	63,372,879	21,294,208	24,889,214	27,511,909
전남	92,409,244	89,229,219	84,930,983	29,751,401	35,169,236	38,072,851
경북	87,035,255	94,703,880	103,217,213	28,587,362	32,498,303	35,784,450
경남	63,185,349	65,284,590	71,858,028	36,100,423	39,302,144	43,695,324
제주	16,688,184	18,440,636	19,268,996	12,127,219	14,206,085	16,172,731
합계	724,736,519	785,446,654	840,084,486	375,340,662	430,014,775	473,833,103

자료 : 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연구.

- 2010년 기준 국내여행 비용 총량은 16,768,410백만원이었으며, 강원지역이 2,001,223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은 1,579,566백만원으로 전국 4위 수준임

〈표 3-3-14〉 지역별 국내여행 비용 총량

구분	2009년		2010년		구분	2009년		2010년	
	비용 (백만원)	비율 (%)	비용 (백만원)	비율 (%)		비용 (백만원)	비율 (%)	비용 (백만원)	비율 (%)
강원	2,212,508	13.52	2,001,223	11.93	부산	961,581	5.88	896,960	5.35
제주	1,105,824	6.76	1,935,495	11.54	충북	617,734	3.77	680,328	4.06
경북	1,138,368	6.96	1,635,744	9.75	대구	419,075	2.56	426,053	2.54
경남	1,457,098	8.90	1,579,566	9.42	인천	466,435	2.85	391,658	2.34
경기	1,996,358	12.20	1,560,190	9.30	광주	328,921	2.01	235,823	1.41
서울	1,778,659	10.87	1,516,464	9.04	대전	307,409	1.88	235,348	1.40
충남	1,202,149	7.35	1,411,061	8.41	울산	183,390	1.12	202,149	1.21
전남	1,290,942	7.89	1,148,663	6.85	합계	16,364,538	100.0	16,768,410	100.0
전북	898,087	5.49	911,685	5.44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2010년 국민여행실태조사

-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에서는 2011년 기준 외래 관광객수는 1,474만명이었으며, 16개 시·도 중 서울지역이 344만명으로 국내 관광지역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본 집계결과는 문화관광부 관광지 보고통계의 지정 유료관광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집계장소를 방문하지 않은 외래관광객은 집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경남의 관광객은 31만명으로 나타났지만, 부산 방문 외래관광객의 거가대교를 통한 유출 증가, KTX 이용 FIT 증가 등을 감안하면 40만명으로 예상함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의 외래관광 수요는 971만명이었으며, 16개 시·도 중 서울지역이 544만명으로 국내 관광지역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타남
- 경남지역의 관광객 수는 15만명(1.55%)으로 전국 8위에 불과함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함



〈표 3-3-15〉 지역별 외래관광객 수요

구분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수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	-	3,441,485	4,382,509	4,914,733	5,442,533
부산	193,894	183,518	284,145	596,478	668,916	740,751
대구	84,633	98,611	106,208	100,064	112,217	124,268
인천	35,530	41,992	101,129	538,628	604,040	668,909
광주	21,377	75,006	55,554	30,488	34,191	37,863
대전	530,558	463,357	489,555	94,592	106,080	117,472
울산	271,744	304,130	354,715	96,156	107,833	119,413
경기	2,742,106	2,944,296	3,344,448	536,283	601,410	665,997
강원	1,261,949	1,369,573	1,453,940	231,399	259,501	287,369
충북	577,185	558,865	492,543	119,608	134,134	148,539
충남	416,663	662,455	647,455	74,267	83,286	92,230
전북	124,369	139,619	128,135	47,687	53,478	59,221
전남	243,579	276,675	244,104	28,925	32,438	35,921
경북	829,433	1,229,094	1,298,990	186,839	209,529	232,031
경남	360,155	328,530	307,579	121,172	135,887	150,480
제주	1,671,580	1,678,689	1,990,144	632,438	709,243	785,410
합계	9,364,755	10,354,410	14,740,129	7,817,533	8,766,916	9,708,407

자료 : 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연구.

### 3) 경남관광 대표 이미지 및 관광콘텐츠

-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대표 이미지는 2008년의 1위는 '지리산', 2010년의 1위는 '바다'로 자연환경을 경남의 이미지로 보고 있음
- 또한, '거제', '해인사', '통영', '남해' 등 특정도시나 관광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의 경우는 2008년 상위권에 랭킹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였음

〈표 3-3-16〉 경남 이미지

2008년			2010년		
순위	내용	비율(%)	순위	내용	비율(%)
1	지리산	5.3	1	바다	8.5
2	충무공 이순신	4.8	2	지리산	6.6
3	바다	4.1	3	거제	5.1
4	남강유등축제	3.3	4	해인사	4.2
5	외도보타니아	3.0	5	통영	3.6
6	해인사	2.9	6	남해	3.5
7	거제	2.6	7	사투리	2.7
8	노무현 전 대통령(봉하마을)	1.9	7	통도사	2.7
	진해군항제	1.9		노무현 전 대통령(봉하마을)	2.5
	남해	1.9	10	외도보타니아	1.5
	통영	1.9		창원	1.5
	우포늪	1.9		-	

자료 : 경상남도. 2011.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 2010년 경남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내국인은 3.7점으로 2008년 3.5점에 비해 0.2점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2.9점으로 0.3점 증가하였음
- 하지만, 경남 방문 내외래 관광객 모두 쇼핑에 대해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며, 외래 관광객은 식당/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해당 관광콘텐츠 보강이 필요한 실정임

〈표 3-3-17〉 만족도(단위 : 점)

구분		불/ 즐길거리	지역주민 /종사자 친절성	교통	숙박	식당/음식	관광정보/ 안내시설	쇼핑	전반적 만족도
내국인	2008년	3.8	3.7	3.6	3.6	3.4	3.4	3.1	3.5
	2010년	4.0	3.9	3.7	3.6	3.6	3.6	3.3	3.7
외국인	2008년	2.9	2.9	3.0	2.7	2.9	2.9	2.9	2.9
	2010년	3.2	3.1	3.2	3.3	3.0	3.2	3.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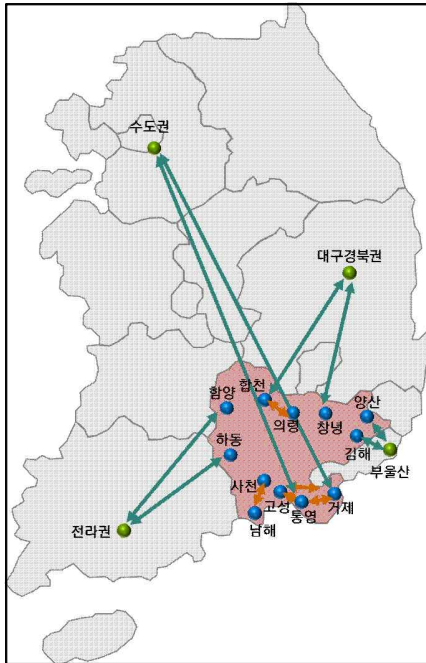
주 : 5점 척도로 구성(1점 : 매우불만, 2점 : 불만, 3점 : 보통, 4점 : 만족, 5점 : 매우만족)

자료 : 경상남도, 2011.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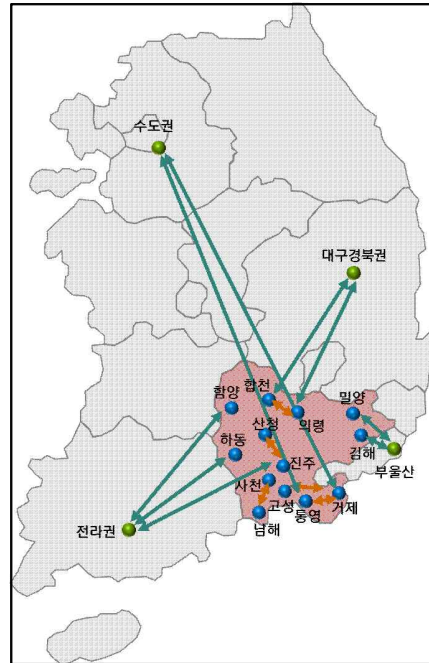
#### 4) 경남관광의 경로

- 경로분석은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시 이동경로를 분석한 것으로 연계권역 분석은 경남 및 각 사군(타 시·도 포함)에서 2개 이상의 목적지를 방문한 경로분석의 결과 값을 재해석함
- 내국인의 경우, 도내와 도외의 연계지역 분석결과 수도권은 통영과 거제, 부산·울산권은 김해, 대구·경북권은 합천, 전라권과 함양, 하동지역은 2008년과 2010년 동일하게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 수도권→거제, 수도권→통영, 대구·경북권→합천, 대구·경북권→창녕, 전라권→함양, 전라권→하동
  - 2010년 : 수도권→거제, 수도권→통영, 대구·경북권→합천, 대구·경북권→의령, 전라권→함양, 전라권→하동, 전라권→진주
- 2008년과 2010년 동일하게 도내 2개 시·군 연계지역 분석 결과 통영-거제지역을 가장 많이 연계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4개 연계가 두드러짐
  - 2008년 : 통영↔거제, 사천↔남해, 고성↔통영, 고성↔거제, 합천↔의령
  - 2010년 : 통영↔거제, 사천↔남해, 고성↔거제, 산청↔진주, 합천↔의령
- 외국인의 경우 동일하게 경남과 타 지역을 연계코스는 2008년과 2010년 동일하게 부산·울산권을 거쳐 진주를 가는 코스와 수도권에서 대구·경북권을 거쳐 합천을 방문하는 코스가 나타남
- 하지만 2008년에는 부산·울산권에서 대구·경북권을 거쳐 합천을 가는 코스가 2010년은 부산·울산권에서 바로 합천으로 가는 코스로 나타남
- 연계권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관광객 중심의 연계 코스 설계가 필요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 수단 외의 신규 접근로를 개설하여 경남 관광 활성화

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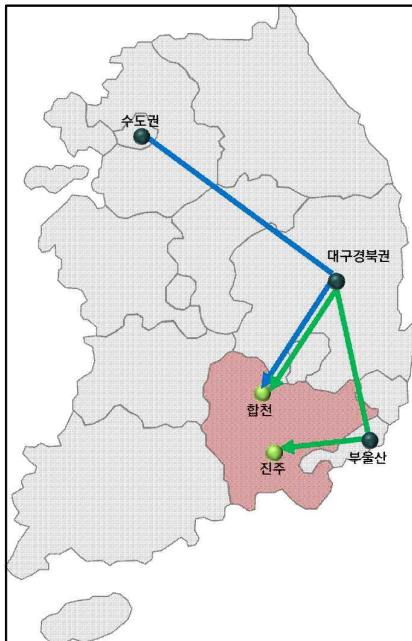


〈그림 3-3-2〉 2008년 내국인 경남관광 연계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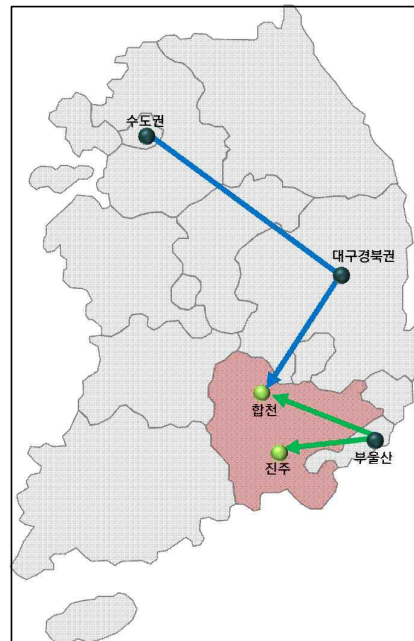


〈그림 3-3-3〉 2010년 내국인 경남관광 연계코스

자료 : 경상남도. 2009. 2008년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경로분석 내용을 토대로 재분석  
경상남도. 2011. 2010년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그림 3-3-4〉 2008년 외국인 경남관광 연계코스



〈그림 3-3-5〉 2010년 외국인 경남관광 연계코스

자료 : 경상남도. 2009. 2008년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 경상남도. 2011. 2010년 경상남도 관광실태조사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관광트렌드 전망

#### ■ 친환경관광(녹색·생태관광)

- 녹색성장에 대한 가치 존중과 녹색성장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매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시장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녹색관광은 대중관광을 넘어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범주는 농촌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등 폭넓게 진화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녹색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관광행태의 다변화 속에서 녹색관광의 새로운 개념과 현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관광객 자신으로 올레길, 슬로시티 등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여행이 바로 녹색관광임

#### ■ 착한 관광(공정여행)

- 최근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경영’ 열풍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보다 사회 및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상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해외에서는 공정하게 구매하는 것 이상의 착한 소비운동이 생겨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소비’와 지구촌 이웃의 삶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기부를 하면서 타인을 위한 소비를 즐기는 ‘도네테인먼트(Donate+Entertainment)’ 등이 그것임
- 에코소비의 확산은 관광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최근 공정무역, 로컬푸드(local food)가 발전하여 ‘아름다운 여행의 대가는 오랫동안 그 땅을 지켜온 현지인에게 돌려야 한다’는 공정여행(fair travel)이 나타나고 있음
- 관광기업과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닌 필수의 사항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전략경영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관광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적극적 활동들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 감성·체험관광(스토리텔링)

- 신기술만을 강조하는 제품보다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는 플래그십 매장들은 자사의 제품 및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의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각과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매장 디자인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종합적으로 브랜드를 체험하게 함
- 여행시장이 활성화 될수록 패키지형 구경 관광보다는 체험하고 탐험하는 관광 및 체류형 생태관광

등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 기술이 좀 더 발달하는 미래에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가상공간에서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는 체험은 더욱 희소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체험은 유일무이하고 특별할수록 한층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 ■ 네트워크 관광

- 기술의 발달로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생활정보 및 오락 콘텐츠를 이용하고 일상 및 업무 관리까지 해결하는 ‘호모 모빌리쿠스(Homo Mobilicus)’족이 증가하고 있음
- 즉,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소비가 본격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임
- 모바일 소비의 본격적 구현으로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을 선호하게 되며, 정보제공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게 됨
  - 이와 같은 소비패턴에 따라 트위터와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광에서도 앱을 활용한 여행 콘텐츠 제공 등 직간접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 ■ 웰빙 · 휴양관광

- 최근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웰빙’이 주요 소비화두로 대두되어 유기농 농산물, 건강식품, 환경가전 등이 고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경제위기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체와 정신의 균형있는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대두됨
- 즉, 바쁜 도시생활로 누적된 스트레스와 퇴직 및 실직 등으로 인한 심리적 내상을 치유하기 위한 소비가 커질 전망
- 이에 따라 병의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변하고 있으며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하는 보완 및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제 여행과 관광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보완 및 대체의학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으면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헬스여행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시니어 · 여성관광

-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들이 소비의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는 데는 그들의 가치관이 예전 세대와 다르기 때문으로 앞으로 등장하는 뉴시니어는 절약의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나를 위한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니어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신체적 수명이 늘어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아실현과 건강한 노후대비에 모아지고 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공연관람, 요리,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낚시, 사진촬영 등을 탐닉하는 취미, 여가관광활동이 늘어나는 등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

## 2) 관광정책 변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강화

-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 대폭 개선, 전략적 홍보 마케팅 등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외래 관광객 증가는 2004년 한류 붐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적중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물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한류의 생산 유발효과는 4조 9,8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한류지수 중 K-POP이 120점으로 한류를 견인하는 대표 콘텐츠로 확인되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 2010년도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 9,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이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9,192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 1,545명으로 나타남
  - 한류의 생산유발효과가 상승한 것은 관광의 파급효과가 1조 5,987억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한류지수는 전년도를 100점으로 했을 경우, 103점으로 나타나 2009년도에 비해 한류가 좋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중국은 2020년 세계 최대의 인바운드 시장, 세계 4위 수준의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과 인접한 국가로 중국의 송출량 증가는 한국방문 외래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중국관광객 집중 유치가 필요함

### 관광개발의 연계·광역화

- 자원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관광권을 설정하여 자원을 연계개발하고 있음
  - ‘4+α’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영남 알프스 사업’, ‘동남권 해양관광벨트 사업’ 등
- 기존 행정구역에서 탈피하여 관광객 여행 행태 또는 관광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권역을 설정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하는 형식이 필요함

### 관광자원 융복합 등 新관광상품 집중 육성

- 관광산업은 농업·제조업 등 1,2차 산업, 의로서비스와 같은 3차 산업과 융복합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공급을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영역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

- 관광산업이 변화하면서 관광산업이 융복합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문화, 교육, 스포츠, 환경, 건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고 있음
-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현상은 여행 기회를 치료, 휴식, 창작 등 또 다른 활동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결합하여 지속화 및 세분화될 전망이다
- 또한,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관광상품의 틀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는 新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과 의료, 산업, 교육, 영상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한 상품 개발 확대가 필요함

#### 2020년 4만불 시대를 대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

- 정부는 2018년 이후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여 2020년에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민소득이 증가되며, 절대적인 여가지출액은 지금의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MICE산업, 크루즈, 요트, 골프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 육성은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 전망됨

#### 지역축제의 집중화 및 연계화

-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유대감 형성, 지역문화 이미지 향상, 산업적 특성 부각, 지역의 경제적 효과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이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개최시기의 집중,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 테마의 중복, 예산분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자체에서는 통폐합의 정책이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주민은 축제의 고유성, 전통성 등이 다름으로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강제적인 통폐합의 방법보다는 유사축제의 시기 연계, 대표축제 집중적 육성 등의 대안이 필요함
  - 경남의 경우 지역축제의 통합 찬성은 44.0%, 폐지는 38.4%였으며, 대체로 소재가 유사성 한 것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김태영, 2011)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악, 해양, 역사문화자원 등 매력적인 자원이 풍부함</li> <li>○ 내국인의 국내방문지 중 상위권에 속해 있음</li> <li>○ 농촌, 산촌, 어촌, 도시지역 등 다양한 지리적 여건 보유</li> <li>○ 교통망의 개발로 접근성이 용이</li> <li>○ 엑스포 등 국제 이벤트 지속적 추진</li> <li>○ 남해안 개발계획, 특별법추진 등 정책적 추진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관광인프라 및 상품 연계구축 미흡</li> <li>○ 관광전문인력 및 관광서비스인력 부족</li> <li>○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li> <li>○ 특정 지역의 관광객 편중 현상으로 개발의 지역적 편차가 있음</li> <li>○ 인적자원 유출 및 수도권 집중</li> <li>○ 항공노선 타 지역에 비해 미비</li> </ul>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인한 100만명 규모의 배후 관광시장 확보</li> <li>○ 지역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정책 강화</li> <li>○ 한류 열풍으로 인한 글로벌 관광객 유치 가능</li> <li>○ 인접 지역간의 관광루트 형성으로 다양한 관광코스 육성 가능</li> <li>○ 예술 창작공간 및 예술촌 현성, 예술축제 개최</li> <li>○ 하드웨어 확충기반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타지자체의 관광개발 경쟁 가속화</li> <li>○ 외래 관광객 수도권 집중현상</li> <li>○ 관광 관련 사업증가에 따른 국고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증가</li> <li>○ 이해관계에 따른 각 시군의 관광자원 연계 개발이나 활용의 어려움</li> </ul>

#### 1) 계획목표

##### ■ 도민과 관광객이 선순환하는 사계절 “고품격” 경남관광

- 친환경관광(녹색·생태관광), 착한관광, 감성·체험관광 등 미래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한 관광정책의 전환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남관광의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관광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고 체험하는 관광의 장 마련
- 국내외 관광객의 경로분석, 요구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관광테마도시 육성, 국제적 관광이벤트 지속개최 등 지역 관광자원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현재 3-4위권의 관광경쟁력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육성
- 2020년 내국인 관광객 8,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 유치
  - 내국인 : 기준연도(2011년) 5,855만명, 중기 목표연도(2015년) 6,729만명, 장기 목표연도(2020년) 8,025만명



- 외국인 : 기준연도(2011년) 40만명, 중기 목표연도(2015년) 100만명, 장기 목표연도(2020년) 150만명

## 2) 추진전략

-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복지관광 구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남형 창조관광 공간 창출
- 관광자원의 융복합화, 관광정책의 연계·광역화
- 국제적 관광브랜드 육성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

## 3) 추진시책

### (1)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복지관광 구현

#### ① 녹색·생태관광 기반구축

- 관광산업의 전 영역에 걸친 녹색패러다임의 요구에 따라 경남의 아름다운 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이용자 만족 양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명품형 녹색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기반형 녹색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실시함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마을 조성
  - 생태문화공원 및 테마파크 조성
  - 유후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자원화

#### ② 도민 여가 및 복지관광 환경조성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광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관광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민의 관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관광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을 실시함
  - 관광사회적 기업 시범사업 추진
  - 도민대상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 레저·스포츠 시설을 도입하여 도민의 레저·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함께 레저·스포츠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관광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입된 레저·스포츠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전지 훈련팀 유치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함
  - 스포츠타운 조성 및 경기장 건립
  - 승마공원 조성
  - 지역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실시(전지훈련팀 유치 등)
-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으로 관광활동에 제약받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특화된 인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 관광시설 무장애화 사업
- 복지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 관광 나눔 바우처 사업 및 볼런티어 제도 도입

##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남형 창조관광 공간 창출

### ① 산악, 강변, 해양(섬)관광 특화개발

#### ■ 산악형 휴양·레포츠 관광기반 구축

- 현대인의 관광 혹은 여가 유형이 시간소비형·체재형·가족 중심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연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 경남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의 산악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악에서 휴양·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공간이 부족함
- 경남에 소재한 산악자원을 활용해 산악 레포츠 시설을 개발하고, 휴양형 체류공간을 함께 창출함으로써 경남을 산악 레포츠·휴양 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함
  - 친환경 산악·휴양관광거점 개발지원(산림휴양단지, 캠핑장·야영장 등)
  -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리모델링
  - 산악레포츠 복합리조트
  - 지리산 둘레길 등 트레킹과 걷고 싶은 길 지속 확충

#### ■ 이야기가 흐르는 강변 관광루트 개발

- 낙동강 등 경남의 강을 축으로 주변 경관 정비, 도보 및 자전거 길 도입 등의 관광레저 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관광객 유치에 도모함
- 강변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한 강변 관광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강변 도보 및 자전거길 정비, 이벤트 개최
  - 에코싱싱 레저체험지대 조성
  - 강변마을개발 및 활성화 사업(뗏목체험, 수상레저 등 강변자원 연계사업 발굴)
  -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

#### ■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섬)관광 기반 구축 : 농산어촌 부문(깨끗한 농촌성 보존과 유지) 및 지역자원개발 부문(해양자원)과 연계

- 해양관광은 내륙 위주의 관광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창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경남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소매물도, 신수도 등 전국적 명성의 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 해양(섬)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경남이 동북아 최고의 해양(섬) 관광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4계절형 해수욕장 활용 및 차별화된 섬 관광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해수욕장과 연계한 복합 레저·스포츠 시설 도입과 섬의 특색있는 삶과 생활방식이 묻어있는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을 활용한 테마섬 개발과 미래형 친환경 해상 교통수단의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함
  - 남해안 해양레포츠 벨트 조성
  - 어촌체험마을 조성
  - 남해안 해양레저산업 육성
  - 테마섬 조성 및 미래형 친환경 해양교통수단 도입

## ② 경남 역사·문화 자원 브랜드화 사업 추진

- 문화관광자원은 경남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색다른 경험과 문화체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경남에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관광객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인프라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경남만의 역사·문화 브랜드를 확립함
- 특히, 경남을 대표하는 인물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경남인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경남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육성함
  - 역사인물·사건 기념공원 조성 및 주변정비(이순신, 진주대첩 등)
  - 전통예술 전수교육관 건립
  - 사적지 및 문화재 관리 및 운영
  - 전통한옥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 ③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재생

- 경남은 22개의 관광지와 개발예정지구 1개소, 1개의 관광단지와 개발예정지구 2개소를 특성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민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많음
- 지연되거나 중단된 시설에 대해 관광 트렌드에 맞춰 용도 및 기능 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들 시설을 지역의 중추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함
  - 오목내관광지, 도남관광지, 실안관광지, 사등·장목 관광지 조성, 벽계관광지, 부곡온천 관광지, 당항포 관광지, 전통한방휴양 관광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고 재정 및 조세 지원을 강화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개발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함

- 관광개발 민간투자 사업규제 완화제도 도입
- 관광개발 투자절차 개선

### (3) 관광자원의 융복합화, 관광정책의 연계·광역화

#### ① 융복합 新관광상품 개발

- 최근 관광은 타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新관광자원의 육성을 통해 다양화된 관광객의 욕구를 수용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경남은 한방, 로봇, 조선, 영상 등의 다양한 산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과 결합한 의료관광, 산업관광, 영상관광 육성 정책을 시행하며, 교육예술 영역과 결합한 예술치료 등 경남 특화형 新관광상품을 육성함
- 아울러 경남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쇼핑·음식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 명품 관광 아울렛 확충과 우수 쇼핑 인증제 확대 실시, 지역 향토음식 특화지구 육성, 경남 음식 레스토랑 설치 등을 추진함
- 관광객들의 체험관광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新관광상품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을 지향함
  - 한방의료관광벨트 조성 및 ‘(가칭)경남한방의료관광진흥원’ 설립
  - 산업관광테마파크 조성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실시
  - 드라마, 영화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 아트테라피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경남 명품관광 아울렛 및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

#### ② 시·군 간, 시·도 간 관광정책 연계·광역화

- 시·군 간, 시·도 간 광역권 개발이나 연계정책은 시설의 중복투자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음
- 경남은 지리산, 덕유산 등의 백두대간과 남해안 등 타 시·도와 공유하는 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광역경제권 수립으로 타 지역과의 연계 관광 정책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울산-창원-거제 산업관광벨트 조성
  - 지리산 광역관광개발 사업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 백두대간 관광자원 개발사업
  - 템플스테이(불교관광지 연계) 활성화 사업
-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이동 정보통신망 확대 등으로 인접 시·군 간 연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남 내 시·군 간, 경남과 타 시·도 간 협력을 통한 연계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

연계 교통 시스템 구축,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관광상품 공동판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경남관광홈페이지 확대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
- 동일 관광권 관광안내책자 통합 발행
- 지역특산품 공동 판매 사이트 개설

#### (4) 국제적 관광브랜드 육성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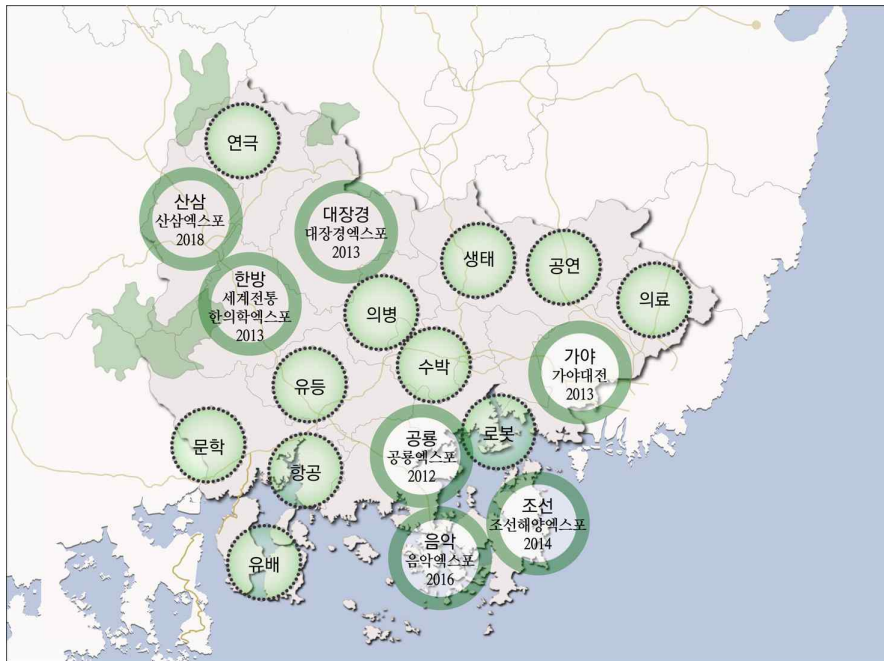
##### ① 국제 관광 테마도시 육성, 지역축제 및 국제이벤트 경쟁력 강화

###### ■ 국제 관광 테마도시 육성

-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경제, 사회, 문화, 관광 환경적 요소가 투영되어 형성되며, 매력적인 관광목적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임
- 경남의 18개 시군별 특화된 테마를 고려하여 도시 브랜드로 구축, 이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제적 관광 테마도시로 육성함
  - 창원(로봇), 진주(유등), 통영(음악), 사천(항공), 김해(가야), 밀양(공연), 거제(조선), 양산(의료), 의령(의병), 함안(수박), 창녕(생태), 고성(공룡), 남해(유배), 하동(문학), 산청(한방), 함양(산삼), 거창(연극), 합천(대장경) 등
- 이와 함께 도심지역의 쇼핑몰, MICE 시설 등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 도시관광패스 발급 등을 통한 도시문화 관광인프라 구축과 마창대교 등 도시 랜드마크 관광자원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도시관광 육성을 추진함
  - 경남 MICE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사업
  - 도시관광 패스 발급
  - 도시관광 랜드마크 발굴 및 육성 지원

###### ■ 지역축제 및 국제이벤트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예술축제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축제로 구분하여 추진함
- 지역 예술축제는 대표축제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적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의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관광축제는 산업과의 연계 및 국제화 전략을 통하여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대외적 지역브랜드 확립을 도모함
- 특히, 경남은 대장경, 한방, 공룡, 가야, 조선, 음악 등 지역의 특성과 국제적 관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축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주제에 대한 국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개최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모와 지역 브랜드 구축을 추진함



〈그림 3-3-6〉 지역별 관광테마 및 이벤트

## ② 외국인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교통체계 광역화

### ■ 관광 수용태세 개선

- 경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약 40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선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중국 관광시장은 평균 1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웨딩, 미용 등 중국인 선호 관광활동을 상품 개발과 전략적 마케팅 수립을 추진함
- 경남 내 관광 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주요 관광이용시설인 카지노, 면세점 유치 가능성 및 신규 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또한, 경남의 차별화된 자원인 한옥, 농어촌 체험마을을 활용한 고급형 외국인 숙박시설 확보 방안 마련, 관광인력 역량강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등을 추진함
  - 신규 관광특구 지정 및 기존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검토(숙박, 카지노, 면세점 유치 등)
  - 외국인 선호 숙박시설 리모델링(한옥 등)
  - 관광시설 종사원 외국어 회화 및 응대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가별 선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

### ■ 관광교통체계 광역화

- 관광교통의 발전은 문화교류, 관광자원교환, 관광시장 수용 및 공급의 조절기능, 이동거리 단축 및 시간활용 증대, 지역 간 관광시설의 보편화 및 평준화, 수요시장의 확대 및 관광의 보편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하지만 해외에서 경남으로의 접근은 수도권 또는 부산권을 거쳐야 하므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항공과 선박을 통한 해외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천공항과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함
- 구체적으로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사천공항 마스트플랜의 수립, 국제선 노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확대, 사천공항 주변 교통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함
- 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크루즈 터미널과 기항지 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크루즈 및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연안크루즈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며, 항공과 크루즈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비행장(고성 등)-남해안권(남해, 사천, 통영, 거제 등)을 잇는 관광상품 개발, 통합 이용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함
  - 사천공항 활성화 전략 수립(신규 노선 취항, 인센티브 확대 등)
  - 크루즈 터미널과 기항지 인프라 확충
  - 남해안 연안크루즈 활성화 방안 수립
  -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 남해안 경비행기 관광상품 개발

#### 4) 공간구성

-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테마를 바탕으로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사회환경, 관광자원 및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남 관광의 공간적 개발방향을 설정
  - 서부관광소권 : 산악·레저·건강·휴양(진주,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하동)
  - 동부관광소권 : 도시·문화 명품 콘텐츠(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함안, 창녕)
  - 남부관광소권 : 해양·레저·휴양(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창원, 하동일부)



〈그림 3-3-7〉 경남 관광개발의 공간구성



## 제4장 사회기반 부문

제1절 사통팔달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제2절 개방거점 확보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

제3절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 제4장 사회기반 부문

### 제1절 사통팔달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현황

###### ■ 자동차 보유대수

- 2010년 경상남도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1,376,820대로 2006년 1,131,088대에 비해 5.0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의 연평균증가율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승합차는 2006년 74,252대에서 72,884대로 감소하였음

〈표 3-4-1〉 경상남도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06년	1,131,088	804,420	74,252	247,900	4,516
2007년	1,191,420	860,080	74,614	251,959	4,767
2008년	1,250,129	917,916	74,661	252,693	4,859
2009년	1,303,680	969,983	74,444	254,345	4,908
2010년	1,376,820	1,040,345	72,884	258,586	5,005
연평균증가율(%)	5.04	6.64	-0.46	1.06	2.60

자료: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2륜 자동차제외)

- 2010년 현재 시·군별 자동차 보유현황은 창원시가 533,858대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김해시(202,402대), 진주시(125,919대)로 나타남
- 경상남도 인구 천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11.21대/천인으로 시·군별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은 창원시가 483.63/천인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함안군이 440.88대/천인으로 높았으며, 함양군, 밀양시, 창녕군, 산청군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해군은 309.53대/천인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 경상남도 시군별 자동차 보유현황 비교(단위 : 대)

구 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천인당자동차보 유대수 (대/천인)
경상남도	1,376,820	1,040,345	72,884	258,586	5,005	411.21
창원시	533,858	442,256	24,708	66,066	828	483.63
진주시	125,919	91,816	6,669	27,102	332	372.02
통영시	43,975	32,888	3,051	7,961	75	306.16
사천시	43,712	31,599	2,350	9,668	95	376.10
김해시	202,402	152,363	11,140	38,363	536	391.25
밀양시	46,209	28,355	2,567	14,663	624	414.53
거제시	80,386	65,182	4,511	10,546	147	339.99
양산시	101,206	72,032	6,764	21,272	1,138	382.87
의령군	11,985	6,878	648	4,275	184	389.95
함안군	30,783	20,266	1,827	8,490	200	440.88
창녕군	25,916	16,131	1,564	8,158	63	413.00
고성군	21,448	14,039	1,337	6,001	71	366.13
남해군	15,442	9,461	983	4,957	41	309.53
하동군	19,311	11,591	972	6,671	77	372.38
산청군	14,723	8,154	762	5,577	230	410.11
함양군	17,572	11,745	799	4,984	44	422.25
거창군	23,488	14,694	1,267	7,307	220	367.86
합천군	18,485	10,895	965	6,525	100	358.82

자료: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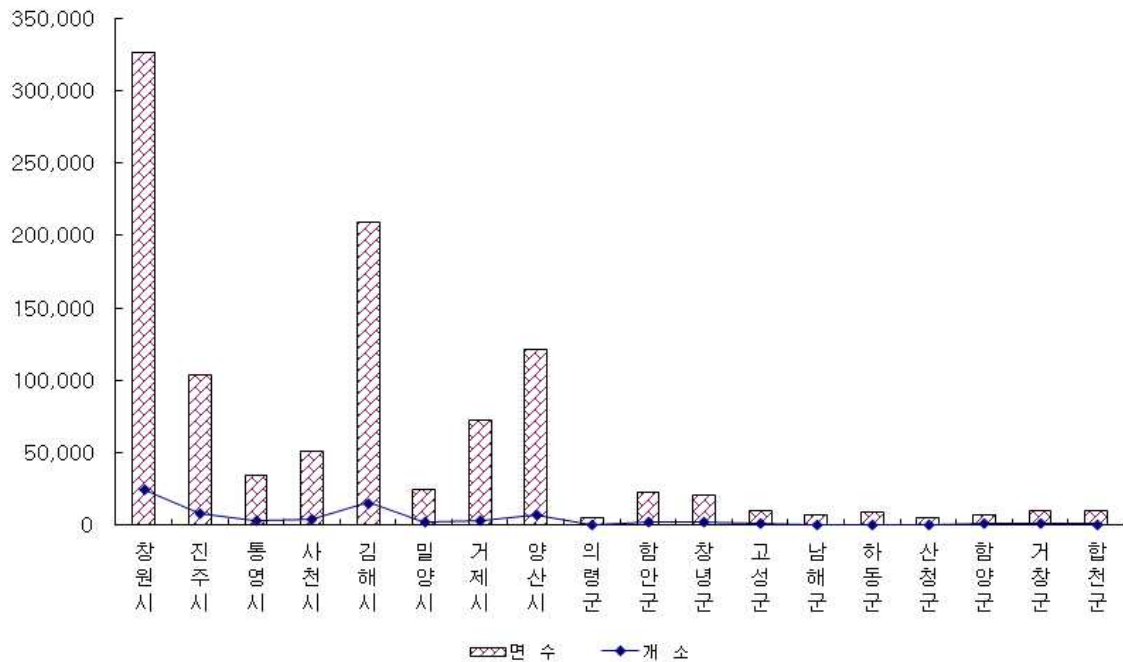
## 주차장 현황

- 경상남도 주차장은 2006년 65,725개소 859,862면에서 2010년 73,629개소 1,039,372면으로 주차면수의 경우 연평균 2.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주차장 특성별로 보면, 노상주차장 개수와 면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민영 노외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006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
- 시·군별 주차장 현황은 창원시가 325,899면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해시가 208,371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3〉 경상남도 주차장 현황(단위 : 개소, 면)

구 분	합 계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유 료		무 료		공 영		민 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 수
2006년	65,725	859,862	1,356	55,128	-	-	1,100	55,228	1,043	39,570	62,226	709,936
2007년	63,657	925,991	1,713	71,075	-	-	826	54,776	1,137	41,346	59,981	758,794
2008년	68,766	969,139	146	6,733	1,940	65,094	907	59,204	1,158	40,622	64,615	797,486
2009년	71,162	1,053,257	141	6,687	1,625	68,344	1,014	59,625	1,251	46,082	67,131	872,519
2010년	73,629	1,039,372	141	6,778	1,643	70,476	1,055	58,879	1,140	39,315	69,650	863,924
연평균 증가율 (%)	2.88	4.85	-43.21	-40.78	-	-	-1.04	1.61	2.25	-0.16	2.86	5.03

자료: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그림 3-4-1〉 경상남도 시군별 주차장 현황 비교

## 도로 현황

- 경상남도의 도로연장은 2010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0.77%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연장은 12,755,403m, 도로별로는 고속도로가 487,860m, 일반국도가 1,548,841m, 지방도가 2,430,322m, 시·군도는 8,288,380m가 확보되어 있음

〈표 3-4-4〉 도로별 연장추이(단위 : m, %)

구 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계	포장	포장율	포장	계	포장	포장율	미개통
2006년	12,367,842	8,364,521	67.6	486,710	1,538,056	1,505,396	97.9	25,820
2007년	12,540,197	8,532,633	68.0	486,710	1,616,853	1,580,993	97.8	29,020
2008년	12,641,155	8,465,818	67.0	435,430	1,575,842	1,539,532	97.7	29,470
2009년	12,708,870	8,677,374	68.3	487,860	1,546,685	1,512,475	97.8	27,370
2010년	12,755,403	8,743,324	68.5	487,860	1,548,841	1,510,531	97.5	6,840
연평균 증가율(%)	0.77	1.11	0.32	0.06	0.17	0.09	-0.10	-28.26
구 분	지방도				시군도			
	계	포장	포장율	미개통	계	포장	포장율	미개통
2006년	2,348,529	1,858,494	79.1	253,923	7,994,547	4,513,921	56.5	2,323,816
2007년	2,371,906	1,882,139	79.4	263,815	8,064,728	4,582,791	56.8	2,347,769
2008년	2,373,406	1,886,859	79.4	263,115	8,256,477	4,603,997	55.8	2,507,535
2009년	2,390,366	1,933,020	79.4	261,674	8,283,959	4,744,019	57.3	2,481,296
2010년	2,430,322	1,958,400	80.6	218,048	8,288,380	4,786,533	57.7	2,449,288
연평균 증가율(%)	0.86	1.32	0.46	-3.74	0.91	1.48	0.54	1.32

자료: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표 3-4-5〉 경상남도 시군별 도로연장 및 포장률 현황(단위 : m, %)

시 군	도로연장	포장	포장률	미개통
경상남도	12,755,403	8,743,324	68.5	2,734,632
창원시	2,150,649	1,470,649	68.4	599,000
진주시	890,747	668,712	75.1	122,264
통영시	542,883	386,413	71.2	155,470
사천시	705,610	498,331	70.6	171,089
김해시	1,286,204	699,658	54.4	531,202
밀양시	678,656	568,049	83.7	45,567
거제시	621,104	444,009	71.5	150,112
양산시	1,127,590	678,543	60.2	441,247
의령군	436,369	249,700	57.2	32,792
함안군	471,584	321,102	68.1	29,606
창녕군	502,207	352,197	70.1	144,110
고성군	501,058	339,503	67.8	27,373
남해군	324,771	271,231	83.5	26,040
하동군	495,495	378,008	76.3	50,245
산청군	478,596	336,276	70.3	42,720
함양군	449,088	306,488	68.2	41,800
거창군	503,114	344,942	68.6	94,620
합천군	589,678	429,513	72.8	29,375

자료: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총 도로연장 12,755,403m 중 통합창원시의 도로연장이 2,150,649m로 가장 길며, 다음은 김해시 1,286,204m, 양산시 1,127,590m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로포장율은 밀양시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개통도로는 통합창원시가 599,000m로 가장 길고, 다음은 김해시 531,202m, 양산시 441,247m 순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도로 등급별 차로수 현황은 포장도로 중 2차로 이하 도로가 73.3%로 대부분의 도로가 왕복 2차로 도로로 운영되며 고속국도는 70.9%가 4차로로 운영되고 있음

〈표 3-4-6〉 경상남도 도로 등급별 차로수 현황(단위 : km, %)

노선명	연장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소계	2차로 이하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 이상		
합계	105,565	84,196	61,756	16,267	4,208	1,650	316	10,034	11,335
		(100.0)	(73.3)	(19.3)	(5.0)	(2.0)	(0.4)		
고속 국도	3,859	3,859	156	2,734	537	432	-	-	-
		(100.0)	(4.0)	(70.9)	(13.9)	(11.2)	(0.0)		
일반 국도	13,812	13,474	6,561	6,089	702	115	8	57	281
		(100.0)	(48.7)	(45.1)	(5.2)	(0.9)	(0.1)		
특별광역 시도	18,878	18,764	14,401	2,154	1,246	664	298	98	17
		(100.0)	(76.8)	(11.5)	(6.6)	(3.5)	(1.6)		
지방도	18,180	14,978	13,447	1,261	206	64	0	1,805	1,397
		(100.0)	(89.8)	(8.4)	(1.4)	(0.3)	(0.1)		
(국가 지원 지방도)	3,859	3,220	2,675	407	86	52	0	276	362
		(100.0)	(82.9)	(12.7)	(2.7)	(1.6)	(0.1)		
시도	27,005	18,487	12,763	3,834	1,509	370	10	1,031	7,488
		(100.0)	(69.0)	(20.7)	(8.2)	(2.0)	(0.1)		
군도	23,830	23,830	14,429	194	8	4	0	7,043	2,153
		(100.0)	(98.5)	(1.3)	(0.1)	(0.1)	(0.0)		

주 : ( )는 도로 비율임

자료 : 「도로현황조사, 국토해양부, 2011.」

### 대중교통 현황

- 경상남도 시·군별 운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별로 운수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외버스와 택시(업체)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표 3-4-7〉 경상남도 시·군별 업종별 운수업체 현황(단위 : 개)

구분	계	시외 버스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택시 (업체)	개인 택시	전세 버스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용달 화물	특수 여객
2006년	8,531	23	26	7	125	7,576	111	517	-	-	119
2007년	8,890	21	27	6	125	7,671	114	789	-	-	117
2008년	16,321	21	28	7	125	7,833	121	705	4,337	3,023	121
2009년	16,350	20	28	8	125	7,954	122	774	4,259	2,928	132
2010년	17,769	20	27	8	124	9,355	127	806	4,287	2,889	126
연평균 증가율(%)	20.13%	-3.43%	0.95%	3.39%	-0.20%	5.41%	3.42%	11.74%	-	-	1.44
창원시	5,950	4	11	-	37	3,336	30	131	1,245	1,118	38
진주시	2,061	5	5	-	16	1,008	12	96	591	310	18
통영시	626	-	1	-	5	385	5	15	95	113	7
사천시	533	-	2	-	7	326	6	21	76	89	6
김해시	2,550	1	3	-	6	1,038	14	80	1,034	364	10
밀양시	708	1	1	-	6	439	3	71	138	44	5
거제시	847	-	2	-	4	593	11	11	86	134	6
양산시	1,716	2	2	-	5	681	13	235	480	293	5
의령군	200	-	-	1	4	112	3	18	40	20	2
함안군	306	-	-	1	3	98	11	42	98	51	2
창녕군	383	-	-	1	6	242	2	5	75	46	6
고성군	305	-	-	1	4	191	3	16	45	42	3
남해군	304	1	-	1	4	180	2	5	32	75	4
하동군	250	-	-	-	3	152	2	11	42	36	4
산청군	199	-	-	1	3	117	2	17	31	26	2
함양군	243	1	-	1	3	118	1	6	56	55	2
거창군	318	1	-	1	5	186	4	8	78	33	2
합천군	266	-	-	-	3	153	3	18	45	40	4
기타	4	4	-	-	-	-	-	-	-	-	-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영업용 자동차의 업종별 수송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차량 총 등록대수는 19,152대, 수송인원은 45.83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택시가 19.851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남
- 전세버스의 수송인원은 2007년 2,211만 명으로 처음 조사되었으며 2010년에는 등록대수 2,698대, 수송인원은 1,539만 명으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4-8〉 경상남도 여객 영업용 자동차 업종별 수송추이(단위 : 대, 만명)

구 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	
	등록 대수	수송 인원	등록 대수	수송 인원	등록 대수	수송 인원	등록 대수	수송 인원	등록 대수	수송 인원
2006년	17,836	42,945	1,483	16,827	1,399	4,797	12,943	21,321	2,011	-
2007년	18,461	46,394	1,563	17,906	1,505	4,707	13,125	21,570	2,268	2,211
2008년	18,892	30,282	1,609	17,633	1,472	4,422	13,279	6,405	2,532	1,822
2009년	19,056	45,260	1,703	18,979	1,521	4,096	13,415	21,066	2,417	1,119
2010년	19,152	45,833	1,640	19,863	1,400	4,057	13,414	19,851	2,698	1,539
연평균 증가율(%)	1.80	1.64	2.55	4.24	0.02	-4.10	0.90	-1.77	7.62	-11.39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철도현황

- 철도 수송추이를 살펴보면 여객수송의 경우 승차인원과 강차인원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객수입은 0.6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화물수송 부문은 2006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로도 발송톤수와 도착톤수, 화물수입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4-9〉 경상남도 철도수송 현황(단위 : 명, 톤, 만원)

연별	여객			화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송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2006년	3,184,448	3,177,989	3,447,171	377,080	500,781	1,334,337
2007년	3,226,962	3,228,396	3,666,159	346,355	446,132	590,109
2008년	3,365,787	3,378,435	3,675,438	356,317	420,680	617,975
2009년	3,145,889	3,170,672	3,502,432	240,419	321,182	574,167
2010년	3,348,049	3,355,584	3,541,483	188,814	236,009	431,385
연평균증가율 (%)	1.26	1.37	0.68	-15.88	-17.14	-24.60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경상남도 36개 철도역별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을 살펴보면 KTX역인 밀양역의 여객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은 진주, 진해, 물금역이 높게 나타남

### ■ 공항현황(사천공항)

- 도내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위치해 있으며, 1969년 11월 대한항공(주)이 최초 취항하였음
- 국내공항으로 연간 16만 5,000회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며 연간처리 능력은 여객 101만명, 화물 0.3만톤으로 2012년 현재 서울과 제주 노선이 운영 중에 있음

〈표 3-4-10〉 사천 공항 시설현황

구분	부지(㎡)	활주로(m)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여객(만명/년)	화물(만톤/년)
사천 공항	4,039,465 (45,299)	2,743×45 2,743×45	13,140	4,721	133.3	101	0.3

자료 : 한국공항공사(<http://www.airport.co.kr>), 2012.

- 사천공항의 여객 및 화물처리 실적은 2002년 여객 544,860명에서 2007년 214,214명으로 연평균 -17.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처리 실적도 2002년 2,899톤에서 2007년 1,245톤으로 연평균 -15.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사천공항의 화물터미널은 사천공항 청사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사천-제주 노선 간 택배 화물 등을 취급하고 있음

## 2) 문제점 및 과제

### ■ 도로소통 문제

- 경상남도내 도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 LOS 수준이 D(지방도는 E) 이하인 도로를 소통애로 구간으로 구분하면, 총 29개 구간에서 소통애로구간이 나타남
- 고속도로의 소통애로구간은 총 6개 구간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10호선(남해선)에서 소통애로 4개 구간이 분포되어 있음
- 일반국도의 소통애로구간은 총 13개 구간으로 2호선 3개 구간, 3호선 1개 구간, 7호선 2개 구간, 14호선 2개 구간, 25호선 1개 구간, 31호선 1개 구간, 35호선 2개 구간, 79호선 1개 구간으로 분포되어 있음
- 국가지원지방도 소통애로구간은 총 3개 지점으로 60호선 1개 구간, 69호선 2개 구간이며, 지방도의 소통애로구간은 총 7개 구간으로 1009호선 2개 구간, 1013호선 1개 구간, 1018호선 1개 구간, 1020호선 1개 구간, 1084호선 2개 구간에 분포됨

- <표 3-4-11>과 같이, 도로 노선별 교통량을 2006년 - 2010년까지 5년 동안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교통량이 증가한 구간이 11개, 감소한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45호선(중부내륙선) 내서 - 현풍 구간이 연평균 9.83%의 증가율로 가장 높고, 10호선(남해선) 냉정 - 부산은 연평균 2.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11〉 경상남도 도로별 소통애로구간

구 분	노선명	소통애로구간	V/C	LOS
고속도로	10호선(남해선)	진주 ~ 산인	0.78	D
		산인 ~ 창원	0.75	D
		창원 ~ 냉정	0.68	D
		냉정 ~ 부산	1.00	E
	104호선(남해제2지선)	냉정 ~ 부산	1.01	F
일반국도	551호선(중앙선지선)	대동 ~ 양산	1.04	F
	2호선	진전면 ~ 마산시	0.75	D
		마산시 ~ 진해시	0.83	E
		진해시 ~ 부산시	0.62	D
	3호선	사천시 ~ 사천읍	0.62	D
		부산시 ~ 웅상읍	1.11	F
	7호선	웅상읍 ~ 울산시	0.67	D
		고성읍 ~ 진전면	0.6	D
	14호선	창원시 ~ 진영읍	0.87	E
		진영읍 ~ 밀양시	0.63	D
	25호선	부산시 ~ 온산읍	0.75	D
	31호선	부산시 ~ 양산시	0.61	D
	35호선	양산시 ~ 언양면	0.59	D
		서상동 ~ 외감리	0.87	E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칠서면 ~ 북면	0.69	D
	69호선	가락IC ~ 불암동	0.81	E
		대동면 ~ 상동면	0.83	E
		영오면 ~ 문산읍	0.87	E
지방도	1009호선	문산읍 ~ 금산면	0.99	E
		진주면 ~ 대곡면	0.77	E
	1013호선	구천리 ~ 신현읍	1.50	F
	1018호선	창원시 ~ 장유면	1.13	F
	1020호선	함양읍 ~ 함양IC	0.93	E
		함양IC ~ 수동면	0.82	E

주 : 소통애로구간은 지방도의 경우 LOS 수준이 E 이하인 도로로 산정하고 그 외 도로는 LOS 수준이 D 이하인 도로로 선정

- 일반국도의 경우, 교통량이 증가한 구간은 52개 구간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구간이 4개 구간이며 그 중 59호선의 황천면 - 시천면 구간이 20.52%의 증가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량이 감소한 구간은 24개 구간으로 연평균 감소율이 10% 이하인 구간이 3개 구간이며 그 중 14호선의 진영읍 - 김해시 구간이 14.64%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 국가지원지방도의 교통량 증가구간은 25개 구간이며 60호선의 대산면 - 칠서면 구간은 81.68%로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감소한 구간은 6개 구간이며 69호선의 불암동 - 대동면은 20.16%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 지방도의 교통량 증가구간은 총 97개 구간이며 1047호선 악양면 - 청암면 구간이 41.30%로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통량이 감소한 구간은 52개 구간이며 1024호선 삼동면 - 창선면 구간이 0.35%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 인구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문제

- 인구 천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411.21대/천인으로 2006년 356.49대/천인 대비 연평균 3.63%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가구당 차량보유대수는 1.09대/가구로 나타났음

〈표 3-4-12〉 경상남도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단위 : 대, 인, 가구, 대/천인, 대/가구)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인구	가구수	인구천인당 차량보유대수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2006년	1,131,088	804,420	74,252	247,900	4,516	3,172,857	1,153,979	356.49	0.98
2007년	1,191,420	860,080	74,614	251,959	4,767	3,196,953	1,177,923	372.67	1.01
2008년	1,250,129	917,916	74,661	252,693	4,859	3,225,255	1,203,767	387.61	1.04
2009년	1,303,680	969,983	74,444	254,345	4,908	3,250,176	1,231,461	401.11	1.06
2010년	1,376,820	1,040,345	72,884	258,586	5,005	3,348,254	1,268,731	411.21	1.09
연평균 증가율(%)	5.04	6.64	-0.46	1.06	2.60	1.35	2.40	3.63	2.58

주 : 2륜 자동차 제외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인구증가와 비교해 볼 때, 지난 5년 간 경상남도 인구수는 연평균 1.35% 증가추세이지만, 가구수는 2.40%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동차의 증가율은 5.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2007년에 1.0대/가구를 넘어서 2010년에는 1.09대/가구에 이름
- 2011년도 국토해양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연장은 2010년 현재 전국 1인당 도로연장 2.12m/인에 비해 높은 수준인 3.92m/인으로 나타나 전국 7번째의 보급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역시 전국 5.88m/대에 비해 높은 수준인 9.24m/대로 조사되었음
- 도로연장의 양적 수준은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긴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도로 포장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도로연장에 비해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2011년도 경상남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연장은 2010년 기준으로 과거 5년 간 0.7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총 연장 12,755,403m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1인당 도로연장의 감소와 차량대수의 증가율이 도로연장 증가율 보다 높아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4-13〉 도로시설 추이 분석(단위 : m, 인, 대, m/인, m/대)

구 분	도로연장	인구	차량대수	1인당 도로연장	자동차대당 도로연장
2006년	12,367,842	3,172,857	1,131,088	3.90	10.93
2007년	12,540,197	3,196,953	1,191,420	3.92	10.53
2008년	12,641,155	3,225,255	1,250,129	3.92	10.11
2009년	12,708,870	3,250,176	1,303,680	3.91	9.75
2010년	12,755,403	3,348,254	1,376,820	3.81	9.26
연평균증가율(%)	0.77	1.35	5.04	-0.57	-4.06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또한, 직주분리에 따른 광역통행량 증가로 주요 광역도로의 경우 극심한 정체(LOS F수준)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구간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4-14〉 경상남도 도로별 소통애로구간 특성검토

구 분	노선명	소통애로구간	V/C	LOS	비고
고속도로	104호선 (남해제2지선)	냉정 ~ 부산	1.01	F	(서부경남)~창원~김해~부산
일반국도	551호선 (중앙선지선)	대동 ~ 양산	1.04	F	김해~양산~부산
	7호선	부산시 ~ 웅상읍	1.11	F	부산~양산
국가지원지방도	1018호선	구천리 ~ 신현읍	1.50	F	(부산)~거제~(통영)
지방도	1020호선	창원시 ~ 장유면	1.13	F	창원~김해~(부산)

주 : ( )지역은 소통애로구간과 인접하여, 소통애로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점도시임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여건변화 및 교통수요 전망

#### (1) 주요 개발계획 검토

##### ■ 택지개발사업

- 2011년 현재, 도내의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38개소로 총 20,087천㎡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사업지구는 4개소로 면적은 12,759천㎡, 수용인구는 186,812인임

〈표 3-4-15〉 택지개발사업 현황(2011.1기준) (단위 : 천㎡, 억원)

구 분	계			지자체			공사		
	지구수	면적	사업비	지구수	면적	사업비	지구수	면적	사업비
계	44	34,897	74,840	12	5,400	10,667	32	29,497	64,173
완 료	38	20,087	34,832	11	4,582	9,984	27	15,505	24,848
시 행 중	4	12,759	35,554	-	-	-	4	12,759	35,554
개발예정	2	2,051	4,454	1	818	683	1	1,233	3,771

자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현재 총 8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인 사업지구는 27개소로 총 면적 9,905천㎡, 개발예정지구는 13개소로 총 면적 3,562천㎡임

〈표 3-4-16〉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2011.1기준)

구분	지구수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수용인구	시행자 (시행방식)
시행중	27개 지구	9,905	17,157	205,484	-
미시행	13개 지구	3,562	11,654	60,310	

자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 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기준 8개지구가 완료되었으며, 개발중인 사업지구는 22개소, 실시계획 수립중인 사업지구는 6개소임

### 도로개설계획

- 경상남도내 공사중인 도로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3-4-17〉 도로망 계획

구 분	사업명		구 간	도로연장 (km)	차로수	준공 연도	추진 단계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		김해 주촌면~부산 북구	17.12	4→6~8	2013	공사중
	남해고속도로 지선 (냉정~부산간) 확장		김해 주촌면~부산 사상구	19.80	4→6~8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양산간) 신설		김해 불암동~양산 동면	17.13	4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		사천 축동면~함안 산인면	48.22	4→6~8	2012	공사중
	남해 제3지선 신설		진해 남문동~김해 진례면	17.54	4	2013	공사중
	88고속도로 확장		순창 금과면~고령 성산면	142.9	2→4	2015	공사중
국도	2호선	하동~적량 개설	하동 하동읍~적량면	4.98	4	2014	공사중
		하동~완사 확장	하동 적량면~사천 곤명면	19.8	2→4	2014	공사중
		현동~임곡2확장	창원 현동~임곡	4.39	4~6	2012	공사중
		양곡~완암 신설	창원 양곡동~완암동	2.9	4	2013	공사중
	3호선	삼천포~사천 확장	사천 대방동~노룡동	18.00	4~6	2010	공사중
		집현~유곡 신설	진주 유곡동~집현면 봉강리	7.44	4	2013	공사중
		유곡~정촌 신설	진주 유곡동~정촌면 화개리	7.9	4	2011	공사중
		정촌~호탄 신설	진주 정촌면~가좌동	3.44	4	2013	공사중
		산청~수동 확장	산청 생초면~함양 수동면	7.9	4	2012	공사중
		수동~안의 확장	함양 수동면~안의면	12.9	4	2011	공사중
		안의~마리 확장	함양 안의면~거창 마리면	12.3	4	2012	공사중
		마리~송정 확장	거창 마리면~거창읍	6.1	4	2011	공사중
	5호선	내서~칠원 개설	마산 내서읍~함안군 칠원면	6.21	4~6	2015	공사중
	14호선	동읍우회도로	창원 도계동~김해 진영읍	11.44	4~6	2011	공사중
		상동~신현 신설	거제 신현읍~장평리	6.41	4	2011	공사중
		아주~상동 신설	거제 아양동~신현읍	5.75	4	2013	공사중
		일운~아주	거제 일운면~거제 아주동	3.8	4	2016	공사중
국도	19호선	고현~하동IC 확장	남해 설천면~하동 금남면	3.10	4	2016	공사중
	20호선	대의~의령 확장	의령 대의면~칠곡면	12.5	4	2012	공사중
	24호선	금양~대양 개설	합천 애양면~울곡면	7.61	4	2014	공사중
		산내~상북 확장	밀양 산내면~삼양리	10.2	4	2011	공사중
	25호선	웅동~동읍 국도대체우회도로	창원 의창구~동읍	5.8	4	2012	공사중
	58호선	웅동~장유 확장	진해 마천동~김해 장유면	9.26	4	2014	공사중
		생림~삼랑진 확장	김해 생림면~밀양 삼랑진읍	4.56	2→4	2010	공사중
		밀양~밀양대 확장	밀양 삼랑진읍~삼랑진읍	4.1	2→4	2014	공사중
	79호선	청암~삼장 확장	산청 시천면~삼장면	7.54	2	2010	공사중
		진동~마산 개설	창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8.37	4	2014	공사중
국가 지원 지방도	30호선	동읍~봉강	창원 동읍 봉산 ~ 봉강	10.10	4	2013	공사중
	60호선	동읍~한림	창원 북면~대산	12.03	2→4	2013	공사중
		한림~생림	창원 대산~김해 생림	14.34	2→4	2013	공사중
		생림~상동	김해 생림~상동	9.29	2→4	2013	공사중
		양산~동면	기장 정관~두명리	11.43	4	2012	공사중
		동명~장안	정관 두명~장안 좌천	10.86	4~6	2011	공사중
		67호선	미수~무전	통영 당동~통영 명정동	3.2	4	2015

(표계속)

구분	사업명		구 간	도로연장 (km)	차로수	준공연도	추진단계
지방도	1001호선	검정~와티	사천 검정~와티	1.50	1→2	2012	공사중
	1002호선	진교~노량	하동 진교~금남	10.04	2→4	2011	공사중
	1003호선	평사~정서	하동 평사~정서	3.80	1→2	2014	공사중
	1006호선	명석~차황	진주, 사천 명석~차황	1.20	2	2013	공사중
	1010호선	동문일주도로(1)	고성	1.88	2	2013	공사중
	1011호선	가야~석무(1)	함안 가야~석무	1.70	2→4	2014	공사중
	1013호선	초전~대곡(1)	진주 초전~대곡	1.74	2→4	2015	공사중
	1021호선	풍화일주도로(1)	통영	2.68	1→2	2013	공사중
	1024호선	관당~동비	남해 관당~동비	3.00	1→2	2012	공사중
	1028호선	상삼~좌삼	양산 상삼~좌삼	2.78	2→4	2013	공사중
	1034호선	신원~생초	산청군 신원~생초	2.64	2	2012	공사중
	1041호선	지정봉곡우회도로	의령군 지정면	3.00	2→4	-	공사중
		칠원~대산	함안 칠원~대산	8.12	2→4	2011	공사중
	1042호선	외동~주촌	김해 외동고개~주촌 농협	1.80	2→6	2012	공사중
		주촌~진례	김해 장유 ~ 진례 산본	4.70	4	2011	공사중
	1080호선	무안~고라	밀양 무안~고라	6.00	2→4	2013	공사중
	1084호선	해인사~가야	합천 해인사IC~해인사	6.02	2→4	2012	공사중
		거창~준전(2)	거창군 거창~준전	7.50	2→4	2011	공사중
	1089호선	가회~신등(2)	산청 가회~신등	5.10	1→2	2011	공사중
	1099호선	남하~가조(1)	거창 남하~가조	3.10	1→2	2014	공사중
		남하~가조(2)	거창 남하~가조	5.66	1→2	2014	공사중
		장기~우혜	거창 장기~우혜	7.71	1→2	2012	공사중
기타	덕천~양산		부산 북구~양산시계	6.8	6~8	2013	공사중
	조정~화명		김해 대동면~부산 화명동	3.6	4~6	2013	공사중
	장유신문~강서가락		김해 장유면~부산 강서구	7.0	4~6	2014	공사중
	제2창원 터널		창원 완암동~부산 강서구	20.5	4	2012	공사중

## (2) 장래 교통수요예측

## 장래 통행량 예측

- 장래 존별 통행량 예측은 「2008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부산·울산권), 2009, 국토해양부」 자료를 기준으로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목표년별 통행량을 산출하였음

〈표 3-4-18〉 경상남도 총 여객통행량 예측

연 도	2009년	2015년	2020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인 구(만인)	325	321	318	312	-0.19
목적통행(만통행/일)	537.0	573.0	578.6	571.7	+0.30
수단통행(만통행/일)	559.0	596.6	602.6	595.7	+0.30
1인당 목적통행(통행/인)	1.65	1.78	1.82	1.83	+0.49
1인당 수단통행(통행/인)	1.72	1.86	1.90	1.91	+0.49
수단/목적	1.04	1.04	1.04	1.04	-

〈표 3-4-19〉 경상남도 장래 목적별 통행량(통행/일)

연 도		출 근	등 교	업 무	쇼 핑	학 원	기 타	귀 가	합 계
2009년	통행량	834,569	554,996	382,661	137,127	305,125	715,812	2,440,130	5,370,420
	구성비(%)	15.5	10.3	7.1	2.7	5.7	13.3	45.4	100.0
2015년	통행량	910,529	541,836	411,163	146,210	355,811	763,765	2,600,319	5,729,633
	구성비(%)	15.9	9.5	7.2	2.6	6.2	13.3	45.3	100.0
2020년	통행량	927,546	517,061	418,950	149,236	367,999	774,313	2,630,581	5,785,686
	구성비(%)	16.0	8.9	7.2	2.6	6.4	13.4	45.5	100.0
2030년	통행량	916,817	483,370	416,116	150,575	357,615	772,132	2,620,843	5,717,468
	구성비(%)	16.0	8.5	7.3	2.6	6.3	13.5	45.8	100.0
연평균 증가율(%)		0.45	-0.66	0.40	0.45	0.76	0.36	0.34	0.30

〈표 3-4-20〉 경상남도 장래 수단별 통행량(통행/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택 시	철 도	기 타	도 보	합 계
2009년	통행량	2,393,053	1,054,359	316,312	105,510	175,434	1,531,578	5,590,985
	구성비(%)	42.8	18.9	5.7	1.9	3.1	27.4	100.0
2015년	통행량	2,557,930	1,153,689	332,087	202,886	186,062	1,525,593	5,966,213
	구성비(%)	42.9	19.3	5.6	3.4	3.1	25.6	100.0
2020년	통행량	2,591,375	1,171,979	334,714	245,454	184,598	1,496,270	6,026,070
	구성비(%)	43.0	19.4	5.6	4.1	3.1	24.8	100.0
2030년	통행량	2,573,894	1,160,237	331,563	275,297	177,030	1,439,076	5,957,103
	구성비(%)	43.2	19.5	5.6	4.6	3.0	24.2	100.0
연평균 증가율(%)		0.35%	0.46%	0.22%	4.67%	0.04%	-0.30%	0.30%

- 경상남도 총여객통행량 중 2020년 총 목적 통행량은 578.6만통행/일, 총 수단 통행량은 602.6만통행/일로 예측되었음. 인구당 발생통행은 목적통행량이 1.83통행/인, 수단통행이 1.91통행/인으로 목적대비 수단통행량비는 1.04로 전망됨
- 2020년 목적통행 중 귀가통행은 45.8%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출근, 기타, 등교, 업무, 학원, 쇼핑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단통행은 승용차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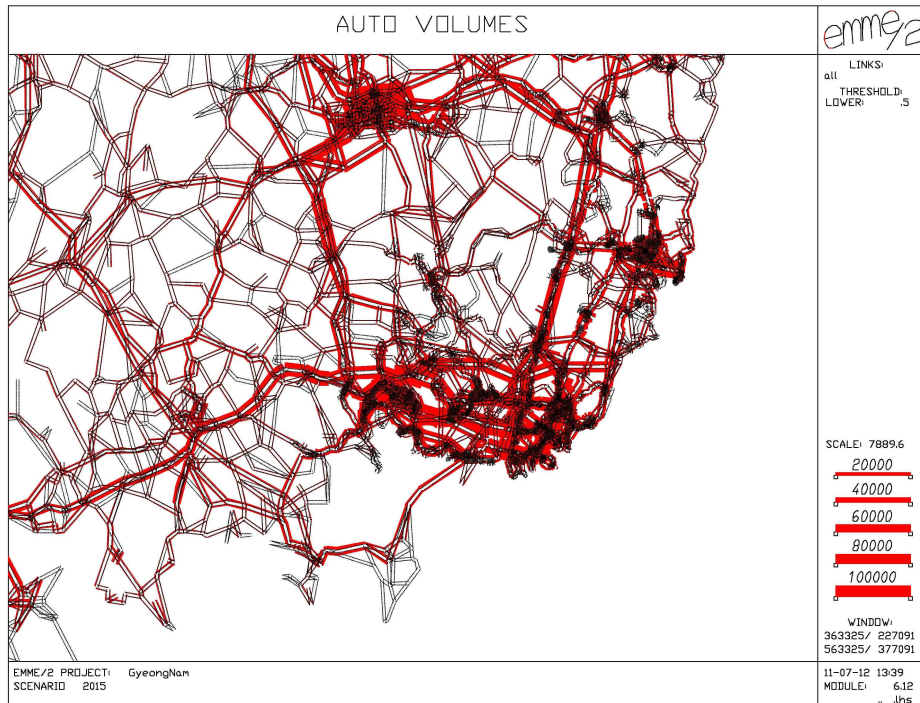


〈표 3-4-21〉 경상남도 장래 존별 발생 도착량(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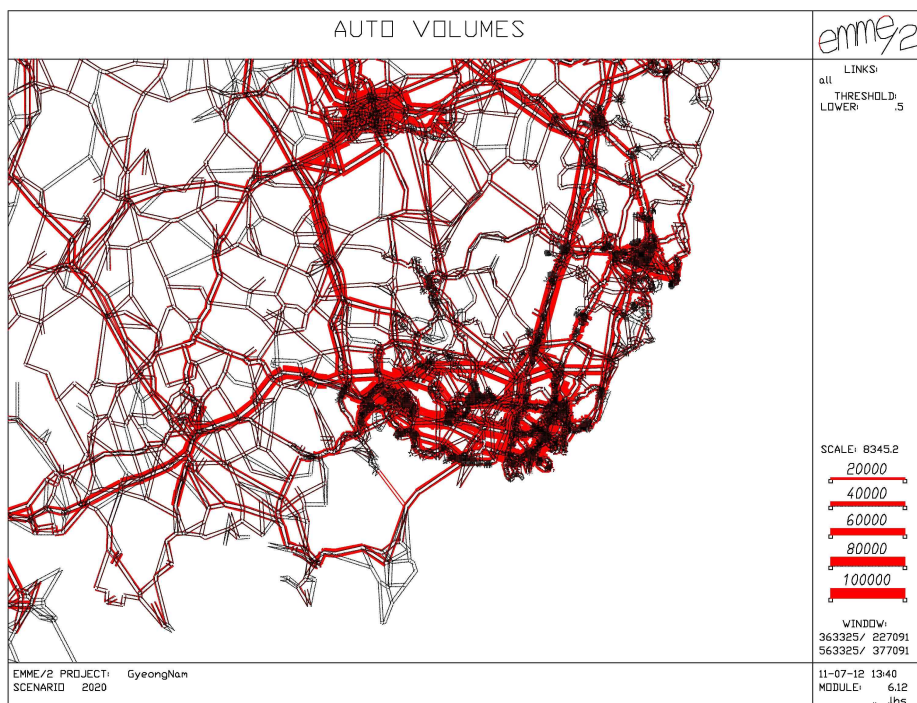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5년		2020년		2030년		
		발 생	도 착	발 생	도 착	발 생	도 착	발 생	도 착	
외 부 권 역	서울특별시	4,229,461	4,176,701	6,226,419	6,141,724	6,277,149	6,190,667	6,065,104	5,972,120	
	부산광역시	1,646,400	1,640,967	2,438,401	2,424,946	2,524,198	2,502,299	2,379,407	2,354,654	
	대구광역시	1,184,157	1,190,187	1,581,633	1,585,209	1,522,727	1,525,971	1,403,724	1,405,893	
	인천광역시	1,277,348	12,65,841	1,904,105	1,901,878	1,940,884	1,938,562	1,960,078	1,958,265	
	광주광역시	706,930	711,796	981,121	985,578	980,028	984,079	964,257	967,156	
	대전광역시	896,918	900,701	1,171,476	1,173,451	1,188,452	1,187,595	1,198,564	1,193,909	
	울산광역시	764,798	767,142	1,028,494	1,034,771	1,038,259	1,048,843	1,046,326	1,058,890	
	경기도	4,385,898	4,447,417	5,361,938	5,441,118	5,577,515	5,652,223	5,757,225	5,832,762	
	강원도	144,828	143,376	160,346	159,450	155,179	154,461	144,423	144,148	
	충청북도	564,047	563,983	620,430	617,949	616,659	613,037	580,146	575,478	
	충청남도	238,076	234,916	309,379	314,204	348,140	364,824	399,837	426,963	
	전라북도	570,074	567,287	579,484	574,183	551,812	545,384	493,335	485,951	
	전라남도	205,326	199,713	214,048	209,931	202,646	198,580	184,991	181,918	
	경상북도	807,998	804,722	943,697	942,954	910,096	910,383	837,349	838,232	
소 계		17,622,258	17,614,750	23,520,971	23,507,346	23,833,744	23,816,908	23,414,766	23,396,339	
내 부 권 역	경 상 남 도	창원시	402,347	400,248	466,902	472,561	460,149	464,799	439,410	444,912
		마산시	227,560	238,501	329,512	333,055	334,245	338,462	330,555	334,560
		진주시	34,397	36,349	38,736	40,690	38,511	40,351	38,078	39,819
		진해시	96,278	94,359	148,459	149,902	153,772	156,283	157,445	160,502
		통영시	14,363	13,512	16,420	15,150	16,350	15,063	16,303	14,957
		사천시	12,036	12,233	13,197	13,429	13,125	13,330	13,008	13,181
		김해시	273,064	273,741	316,281	318,589	312,218	314,826	308,594	311,609
		밀양시	69,926	70,558	82,912	83,414	79,967	81,830	78,941	81,107
		거제시	10,238	9,066	11,733	10,057	11,663	9,986	11,626	9,923
		양산시	154,345	155,626	237,690	240,831	248,293	252,676	243,042	247,381
		의령군	4,130	3,507	4,760	4,072	4,721	4,038	4,649	3,972
		함안군	6,605	6,201	7,258	6,903	7,189	6,843	7,105	6,766
		창녕군	8,070	6,794	9,543	7,935	9,469	7,874	9,423	7,773
		고성군	4,935	4,908	5,547	5,462	5,515	5,421	5,475	5,365
		남해군	5,470	5,817	6,307	6,774	6,264	6,724	6,164	6,594
		하동군	4,535	4,884	5,111	5,433	5,043	5,379	4,980	5,322
		산청군	3,761	3,765	4,300	4,275	4,269	4,261	4,210	4,222
		함양군	3,151	3,019	3,887	3,671	3,875	3,660	3,801	3,604
		거창군	4,617	4,371	5,666	5,366	5,662	5,345	5,638	5,279
		합천군	2,669	2,545	3,220	3,074	3,199	3,057	3,163	3,006
소 계		1,342,498	1,350,005	1,717,441	1,730,643	1,723,499	1,740,208	1,691,610	1,709,854	
합 계		18,964,756	18,964,755	25,238,412	25,237,989	25,557,243	25,557,116	25,106,376	25,106,193	

### 장래 노선별 도로교통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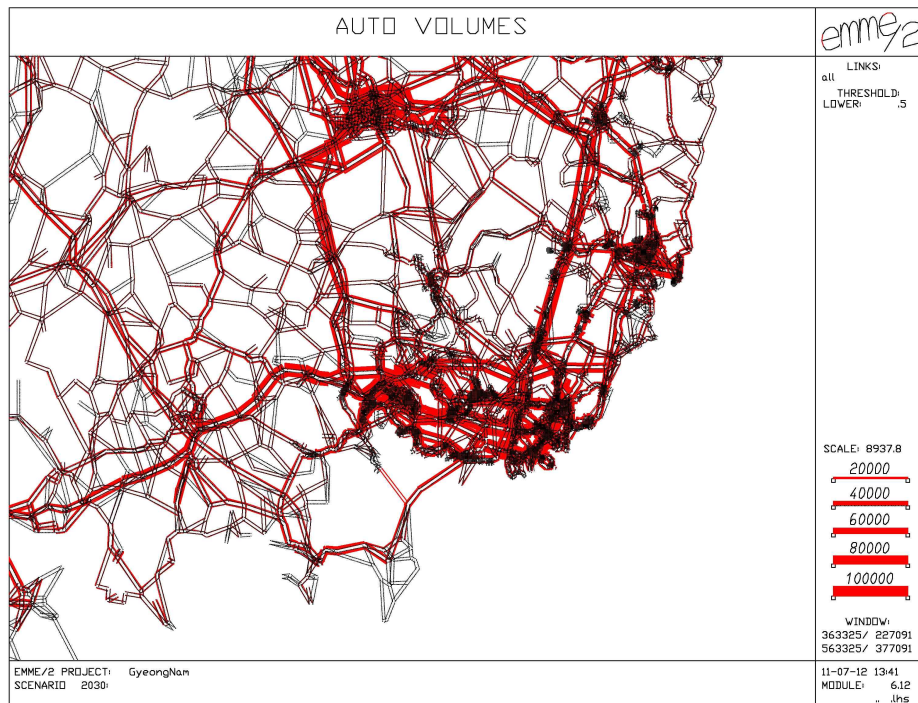
- 목표연도별 노선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3-4-2〉 경상남도 2015년 통행량



〈그림 3-4-3〉 경상남도 2020년 통행량



〈그림 3-4-4〉 경상남도 2030년 통행량

- 경상남도내 도로 노선별 장래 교통량 예측 및 교통량/용량비는 아래와 같음

〈표 3-4-22〉 도로 노선별 장래교통량 예측 및 분석(단위 : 대/일)

구분	노 선 명	구 간	현황 2010년	장래교통량					
				2015년		2020년		203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고속도로	1호선(경부선)	부산-언양	63,114	65,603	0.60	68,263	0.62	67,481	0.61
	10호선(남해선)	서순천-진주	29,670	30,716	0.42	31,398	0.43	30,517	0.42
		진주-산인	56,990	59,238	0.54	61,640	0.56	60,934	0.55
		산인-창원	55,348	57,531	0.52	59,864	0.54	59,179	0.54
		창원-냉정	99,166	103,077	0.70	107,257	0.73	106,029	0.72
		냉정-부산	73,506	76,405	0.69	79,503	0.72	78,593	0.71
	102호선(남해제1지선)	산인-창원	43,866	45,412	0.62	46,421	0.63	45,889	0.63
	104호선(남해제2지선)	냉정-부산	73,984	78,897	0.72	81,629	0.74	80,705	0.73
	551호선(중앙선지선)	대동-양산	76,464	76,735	0.70	77,566	0.71	76,688	0.70
	55.2호선(신대구부산선)	대동-금호	34,157	35,298	0.48	36,201	0.49	35,791	0.49
	45호선(중부내륙선)	내선-현풍	40,914	42,281	0.58	43,363	0.59	43,164	0.59
	35호선(중부·대전통영선)	통영-진주	18,814	21,207	0.29	21,590	0.29	22,536	0.31
		진주-장수	20,755	24,153	0.33	25,432	0.35	25,102	0.34
	12호선(88선)	함양-옥포	12,262	15,411	0.21	16,254	0.22	158,46	0.22

(표계속)

구분	노선명	구 간	현황	장래교통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국 도	2호선	하동읍-진주시	4,878	7,952	0.55	8,359	0.58	8,263	0.57
		진주시-진전면	9,715	25,071	0.65	26,922	0.70	26,613	0.69
		진전면-마산시	36,942	38,545	0.77	39,948	0.80	39,491	0.79
		진해시-부산시	29,671	29,269	0.51	32,891	0.57	32,514	0.56
	3호선	사천읍-진주시	27,543	32,438	0.65	33,283	0.67	32,902	0.66
		진주시-신안면	15,653	16,628	0.43	17,150	0.45	16,954	0.44
		신안면-산청읍	8,400	1,1611	0.30	12,509	0.33	12,366	0.32
		산청읍-안의면	4,542	6,278	0.44	6,763	0.47	6,685	0.46
		안의면-거창읍	5,691	7,375	0.51	7,697	0.53	7,609	0.53
	5호선	연초면-장목면	5,606	3,923	0.27	4,340	0.30	4,290	0.30
		구산면-마산시	4,027	2,818	0.20	5,152	0.36	5,093	0.35
		마산시-내서읍	21,792	15,251	0.40	16,874	0.44	16,681	0.43
		내서읍-영산면	16,424	30,891	0.62	32,255	0.65	31,886	0.64
		영산면-창녕읍	11,299	13,169	0.34	14,125	0.37	13,963	0.36
	14호선	통영시-고성읍	16,080	16,833	0.44	16,995	0.44	16,800	0.44
		고성읍-진전면	22,791	16,253	0.42	16,807	0.44	16,614	0.43
		진영읍-김해시	21,102	21,823	0.57	22,529	0.59	22,271	0.58
	19호선	미조면-고현면	5,393	5,577	0.39	5,757	0.40	5,691	0.40
		고현면-하동읍	6,957	8,598	0.60	8,941	0.62	8,839	0.61
		하동읍-미산면	4,389	4,447	0.31	4,800	0.33	4,745	0.33
	20호선	시천면-신안면	5,395	5,695	0.40	5,877	0.41	5,809	0.40
		신안면-생비량면	5,531	5,861	0.41	5,965	0.41	5,897	0.41
		생비량면-의령읍	7,162	8,417	0.22	8,912	0.23	8,810	0.23
		의령읍-적포리	3,696	3,909	0.27	40,951	2.85	40,482	2.81
		적포리-창녕읍	2,904	3,071	0.21	3,220	0.22	3,184	0.22
		창녕읍-고암면	3,579	3,660	0.25	3,930	0.27	3,885	0.27
	24호선	함양읍-안의면	3,188	3,283	0.23	3,466	0.24	3,426	0.24
		거창읍-묘산면	2,518	2,528	0.18	2,607	0.18	2,577	0.18
		묘산면-합천읍	2,787	2,798	0.19	2,886	0.20	2,853	0.20
		합천읍-적포리	4,596	4,947	0.34	5,111	0.36	5,053	0.35
		고암면-부북면	2,787	2,798	0.19	2,886	0.20	2,853	0.20
		부북면-산외면	5,246	6,283	0.44	6,442	0.45	6,368	0.44
	25호선	진영읍-밀양시	24,011	26,980	0.70	27,495	0.72	27,180	0.71
	33호선	고성읍-사천읍	6,993	7,258	0.19	7,645	0.20	7,557	0.20
		진주시-생비량면	6,861	7,705	0.20	7,811	0.20	7,721	0.20
		대의면-정양리	7,330	7,451	0.19	7,948	0.21	7,857	0.20
		합천읍-쌍림면	5,627	7,991	0.21	8,347	0.22	8,251	0.21
	58호선	김해시-삼량진읍	12,045	13,249	0.35	13,878	0.36	13,719	0.36
		삼량진읍-상남면	5,451	5,889	0.41	6,078	0.42	6,008	0.42
		전사포리-운전면	2,659	2,804	0.19	2,981	0.21	2,947	0.20
		청운리-상동면	1,230	1,250	0.09	1,333	0.09	1,317	0.09
	77호선	근곡리-거류면	3,094	3,528	0.25	4,050	0.28	4,004	0.28
		거류면-광동면	6,364	7,256	0.50	8,329	0.58	8,233	0.57
		법송리-저산리	1,572	1,792	0.12	2,057	0.14	2,033	0.14
		삼산면-사천시	4,110	4,686	0.33	5,379	0.37	5,317	0.37
		고현면-서면	1,012	1,091	0.08	1,147	0.08	1,133	0.08
	79호선	의령읍-사도리	9,058	9,761	0.25	10,063	0.26	9,948	0.26
		사도리-가야읍	4,607	4,964	0.34	5,118	0.36	5,060	0.35
		가야읍-진동면	7,435	8,039	0.56	8,274	0.57	8,179	0.57
		서상동-외감리	33,044	34,681	0.90	36,473	0.95	36,056	0.94
		외감리-신촌리	17,566	18,810	0.49	22,212	0.58	21,957	0.57
		부곡면-영산리	6,205	6,644	0.17	7,846	0.20	7,756	0.20

(표계속)

구분	노선명	구 간	현황	장래교통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국 가 지 원  지 방 도	30호선	무안면~부곡면	3,275	3,285	0.23	3,293	0.23	3,255	0.23
		부곡면~본포리	2,659	2,822	0.20	2,914	0.20	2,880	0.20
		본포리~용집리	6,051	6,422	0.45	6,631	0.46	6,555	0.46
		내서읍~가야면	18,328	26,397	0.69	28,489	0.74	28,162	0.73
		군북면~이반성면	3,322	5,742	0.40	6,197	0.43	6,126	0.43
		이반성면~청광리	2,544	4,397	0.31	4,746	0.33	4,692	0.33
	37호선	오천리~운산리	928	1,604	0.11	1,731	0.12	1,711	0.12
		서상면~북상면	918	990	0.07	1,021	0.07	1,009	0.07
		북상면~위천면	1,689	1,822	0.13	1,879	0.13	1,857	0.13
	58호선	곤양면~서포면	4,414	4,607	0.32	5,075	0.35	5,017	0.35
		서포면~덕곡리	3,250	3,550	0.25	3,720	0.26	3,678	0.26
		옥포동~장목면	5,604	6,122	0.43	6,415	0.45	6,341	0.44
	60호선	산내면~마천면	2,903	3,092	0.21	3,335	0.23	3,297	0.23
		유림면~금서면	4,472	4,824	0.34	4,974	0.35	4,917	0.34
		산청읍~신등면	749	778	0.05	815	0.06	805	0.06
		봉수면~신반리	2,355	2,540	0.18	2,620	0.18	2,590	0.18
		세간리~경산리	1,995	2,071	0.14	2,158	0.15	2,134	0.15
		대산면~칠서면	6,090	6,321	0.44	6,585	0.46	6,509	0.45
		칠서면~북면	9,191	9,624	0.67	10,175	0.71	10,059	0.70
		북면~동읍	7,385	7,733	0.54	8,176	0.57	8,082	0.56
		생림면~상동면	1,432	1,555	0.11	1,606	0.11	1,588	0.11
	67호선	현창리~거남리	3,348	3,502	0.24	3,662	0.25	3,620	0.25
	69호선	가락C~불암동	10,817	11,315	0.79	11,833	0.82	11,697	0.81
		불암동~대동면	3,909	4,089	0.28	4,276	0.30	4,227	0.29
		대동면~상동면	11,130	11,643	0.81	12,176	0.85	12,036	0.84
		원리~선리	1,589	1,623	0.11	1,736	0.12	1,716	0.12
지 방 도	1001호선	하이면~사촌면	1,613	1,647	0.11	1,761	0.12	1,741	0.12
		사촌면~사남면	2,867	2,928	0.20	3,131	0.22	3,095	0.22
		사남면~초전리	6,987	7,354	0.51	7,738	0.54	7,650	0.53
		곤명면~단성면	1,025	1,079	0.07	1,135	0.08	1,122	0.08
		유림면~운림면	1,527	1,607	0.11	1,691	0.12	1,671	0.12
		운림면~백전면	4,238	4,461	0.31	4,694	0.33	4,640	0.32
	1002호선	금남면~진교면	1,275	1,342	0.09	1,412	0.10	1,396	0.10
		진교면~곤양면	7,150	7,526	0.52	7,919	0.55	7,829	0.54
		곤양면~가산C	2,365	2,424	0.17	2,478	0.17	2,450	0.17
		가산C~산천읍	3,496	3,770	0.26	3,950	0.27	3,904	0.27
		회화면~진전면	1,600	1,672	0.12	1,725	0.12	1,705	0.12
		진동면~마전리	6,256	6,536	0.45	6,742	0.47	6,665	0.46
	1003호선	대방동~송포동	4,426	4,626	0.32	4,684	0.33	4,630	0.32
		진교면~양보면	3,299	3,525	0.24	3,636	0.25	3,594	0.25
		황천면~악양면	2,668	2,702	0.19	2,919	0.20	2,885	0.20
	1004호선	사봉면~군북면	2,648	2,682	0.19	2,898	0.20	2,864	0.20
	1005호선	곤양면~북천면	2,291	2,413	0.17	2,467	0.17	2,439	0.17
		북천면~옥종면	1,958	2,062	0.14	2,108	0.15	2,084	0.14
		옥종면~단성면	1,383	1,514	0.11	1,542	0.11	1,524	0.11
	1006호선	명석면~산안면	3,258	3,358	0.23	3,553	0.25	3,513	0.24
		신안면~신등면	3,398	3,502	0.24	3,705	0.26	3,663	0.25
		신등면~차황면	2,469	2,544	0.18	2,692	0.19	2,662	0.18
	1007호선	영오면~문산읍	1,322	1,337	0.09	1,380	0.10	1,364	0.09
		가진리~대곡면	4,091	4,136	0.29	4,268	0.30	4,219	0.29
		집현면~진주시	2,604	2,775	0.19	2,913	0.20	2,879	0.20

(표계속)

구분	노선명	구 간	현황	장래교통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지 방 도	1008호선	부림면~장마면	1,804	1,923	0.13	2,019	0.14	1,995	0.14
		부곡면~초동면	8,417	8,971	0.23	9,418	0.25	9,310	0.24
	1009호선	당동리~성내리	7,085	7,508	0.52	7,814	0.54	7,724	0.54
		성내리~영오면	2,684	2,802	0.19	3,173	0.22	3,137	0.22
		영오면~문산읍	11,559	11,990	0.83	12,501	0.87	12,358	0.86
	1010호선	문산읍~금산면	21,854	24,224	0.63	25,220	0.66	24,931	0.65
		심산면~성내리	2,422	3,223	0.22	3,286	0.23	3,248	0.23
		송학리~양촌리	3,053	3,177	0.22	3,458	0.24	3,418	0.24
	1011호선	가아읍~법수면	14,332	14,915	0.39	16,235	0.42	16,049	0.42
		법수면~정곡면	2,323	2,459	0.17	2,718	0.19	2,686	0.19
		정곡면~유곡면	939	1,472	0.10	1,734	0.12	1,714	0.12
		유곡면~봉수면	929	955	0.07	1,025	0.07	1,013	0.07
		봉수면~대양면	1,149	1,182	0.08	1,269	0.09	1,255	0.09
		쌍책면~쌍림면	1,500	1,542	0.11	1,655	0.11	1,636	0.11
	1013호선	진주면~대곡면	10,261	10,552	0.73	11,327	0.79	11,197	0.78
		대곡면~칠곡면	2,123	2,183	0.15	2,343	0.16	2,317	0.16
		칠곡면~가례면	1,195	1,299	0.09	1,373	0.10	1,357	0.09
	1014호선	화개면~청암면	2,530	2,751	0.19	2,909	0.20	2,875	0.20
		청암면~월항리	1,098	1,194	0.08	1,262	0.09	1,248	0.09
		청룡리~수곡면	1,232	1,269	0.09	1,352	0.09	1,336	0.09
	1016호선	사천사~봉현리	3,812	4,206	0.29	4,424	0.31	4,374	0.30
		사촌리~척변정리	3,086	3,356	0.23	3,548	0.25	3,508	0.24
		망림리~영현면	1,660	1,805	0.13	1,909	0.13	1,887	0.13
	1018호선	사둔면~둔덕면	7,318	7,643	0.53	7,884	0.55	7,794	0.54
		둔덕면~동부면	8,555	10,341	0.72	11,139	0.77	1,1011	0.76
		동부면~저구리	4,635	5,603	0.39	6,035	0.42	5,966	0.41
		저구리~다포리	2,028	2,451	0.17	2,640	0.18	2,610	0.18
		학동리~구천리	3,372	4,076	0.28	4,390	0.30	4,340	0.30
		구천리~신현읍	32,023	36,697	2.55	38,292	2.66	37,853	2.63
	1020호선	창원사~장유면	80,352	69,407	0.90	71,418	0.93	70,600	0.92
		장유면~김해시	16,193	13,987	0.36	14,392	0.30	14,227	0.37
	1021호선	산양읍~통영시	9,998	11,862	0.82	12,909	0.90	12,761	0.89
		통영시~도산면	1,362	1,411	0.10	1,647	0.11	1,629	0.11
		진북면~강명리	1,414	1,466	0.10	1,563	0.11	1,545	0.11
		괴산리~산인면	2,747	2,954	0.21	3,065	0.21	3,030	0.21
		산인면~평림리	4,884	5,028	0.35	5,166	0.36	5,107	0.35
		평림리~부곡리	2,410	2,466	0.17	2,723	0.19	2,691	0.19
		남지리~고곡리	5,018	5,152	0.36	5,304	0.37	5,244	0.36
	1022호선	남지읍~부곡면	2,701	2,775	0.19	2,893	0.20	2,859	0.20
		부곡면~하남읍	2,296	2,359	0.16	2,459	0.17	2,431	0.17
		하남읍~상남면	1,205	1,247	0.09	1,271	0.09	1,257	0.09
		삼량진읍~원동면	2,037	2,108	0.15	2,148	0.15	2,124	0.15
		원동면~양산시	11,972	12,357	0.32	12,939	0.34	12,791	0.33
	1023호선	탑리~대성리	2,955	2,975	0.21	3,074	0.21	3,038	0.21
		삼정리~가흥리	2,211	2,226	0.15	2,300	0.16	2,274	0.16
		마천면~구룡리	661	705	0.05	734	0.05	726	0.05
	1024호선	설천면~고현면	1,065	1,136	0.08	1,182	0.08	1,168	0.08
		노구리~서상리	1,820	1,862	0.13	2,008	0.14	1,985	0.14
		서상리~이동면	1,076	1,101	0.08	1,187	0.08	1,173	0.08
		이동면~삼동면	5,865	6,000	0.42	6,470	0.45	6,396	0.44
		삼동면~창선면	776	828	0.06	850	0.06	840	0.06

(표계속)

구분	노선명	구 간	현황	장래교통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지 방 도	1026호선	오부면~장박리	1,079	1,151	0.08	1,181	0.08	1,167	0.08
		장박리~대병면	743	791	0.05	825	0.06	815	0.06
		대병면~합천읍	1,762	1,876	0.13	1,956	0.14	1,934	0.13
	1028호선	원동면~상북면	6,759	7,667	0.53	8,144	0.57	8,051	0.56
		상북면~웅상읍	1,850	2,099	0.15	2,229	0.15	2,203	0.15
		웅상읍~도계	5,800	6,248	0.43	7,153	0.50	7,071	0.49
	1029호선	봉암리~여양리	1,680	1,810	0.13	2,072	0.14	2,048	0.14
		여양리~군북면	3,425	3,690	0.26	4,225	0.29	4,177	0.29
		군북면~장지IC	3,425	3,835	0.27	4,088	0.28	4,042	0.28
		장지IC~백산리	5,390	5,539	0.38	5,853	0.41	5,786	0.40
		백산리~정곡면	158	160	0.01	165	0.01	163	0.01
	1034호선	유림면~수동면	1,412	1,432	0.10	1,474	0.10	1,458	0.10
		어서리~구평리	1,135	1,220	0.08	1,264	0.09	1,250	0.09
		구평리~신원면	1,147	1,185	0.08	1,245	0.09	1,231	0.09
		봉산면~합천읍	591	613	0.04	647	0.04	639	0.04
		울곡면~쌍책면	1,771	1,838	0.13	1,940	0.13	1,918	0.13
		쌍책면~이방면	555	562	0.04	603	0.04	597	0.04
		이방면~정녕리	1,129	1,144	0.08	1,228	0.09	1,214	0.08
	1036호선	정녕리~방리	1,179	1,194	0.08	1,282	0.09	1,268	0.09
		가야면~야로면	904	931	0.06	961	0.07	950	0.07
		야로면~고령IC	1,241	1,276	0.09	1,369	0.10	1,353	0.09
	1037호선	개천면~사봉면	262	269	0.02	289	0.02	285	0.02
		사봉면~화정면	1,778	1,828	0.13	1,962	0.14	1,940	0.13
		화정면~의령읍	3,689	3,979	0.28	4,104	0.29	4,057	0.28
		의령읍~궁류면	2,185	2,357	0.16	2,431	0.17	2,403	0.17
	1040호선	대곡면~화정면	678	731	0.05	754	0.05	746	0.05
		화정면~의령읍	606	654	0.05	675	0.05	667	0.05
		칠서면~칠북면	4,042	4,359	0.30	4,496	0.31	4,444	0.31
	1041호선	칠원면~대산면	9,278	9,867	0.69	10,298	0.72	10,180	0.71
		대산면~세간리	1,878	2,083	0.14	2,312	0.16	2,286	0.16
		세간리~신촌리	576	606	0.04	619	0.04	611	0.04
		압곡리~쌍백면	447	470	0.03	480	0.03	474	0.03
		쌍백면~가회면	527	554	0.04	566	0.04	560	0.04
	1042호선	진영읍~진례IC	20,786	22,204	0.58	23,618	0.62	23,347	0.61
		진례IC~김해시	18,570	23,843	0.41	22,784	0.40	22,523	0.39
	1047호선	악양면~첨암면	299	333	0.02	347	0.02	343	0.02
		첨암면~시천면	1,701	1,751	0.12	4,178	0.29	4,130	0.29
	1049호선	축동면~내동면	1,905	2,121	0.15	2,239	0.16	2,213	0.15
		내동면~대평면	1,863	1,977	0.14	2,015	0.14	1,991	0.14
		대평면~단성면	1,043	1,107	0.08	1,129	0.08	1,117	0.08
		단성면~명석면	3,148	3,340	0.23	3,405	0.24	3,366	0.23
	1051호선	어곡동~원동면	1,598	1,667	0.12	1,740	0.12	1,720	0.12
		원동면~단장면	1,289	1,370	0.10	1,521	0.11	1,503	0.10
	1077호선	사송리~석산리	32,812	34,872	0.61	38,712	0.67	38,269	0.66
		북부동~유산동	26,041	27,676	0.72	30,723	0.80	30,372	0.79
		유산동~어곡동	17,305	19,371	0.50	20,739	0.54	20,502	0.53
		어곡동~원동면	327	366	0.03	392	0.03	388	0.03
		단장면~산내면	2,841	3,180	0.22	3,405	0.24	3,366	0.23
		산내면~산동면	1,004	1,335	0.09	1,444	0.10	1,428	0.10

(표계속)

구분	노선명	구 간	현황	장래교통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지 방 도	1080호선	이방면~대지면	2,931	3,896	0.27	4,215	0.29	4,167	0.29
		토천리~계성면	1,791	1,818	0.13	1,867	0.13	1,845	0.13
		계성면~무안면	2,200	2,924	0.20	3,164	0.22	3,128	0.22
		무안면~밀양시	8,922	11,860	0.82	12,832	0.89	12,685	0.88
	1084호선	함양읍~함양C	15,228	3,296	1.15	17,502	1.22	17,262	1.20
		함양C~수동면	12,383	13,619	0.95	14,460	1.00	14,294	0.99
		수동면~진목리	1,204	1,324	0.09	1,406	0.10	1,390	0.10
		진목리~거창읍	7,596	8,354	0.58	8,870	0.62	8,768	0.61
		거창읍~가조면	5,428	5,970	0.41	6,339	0.44	6,267	0.44
		가조면~성기리	2,741	3,015	0.21	3,201	0.22	3,165	0.22
		덕암리~야로면	3,521	3,771	0.26	3,542	0.25	3,502	0.24
		야로면~가야면	10,719	12,556	0.87	13,754	0.96	13,596	0.94
	1089호선	신등면~가회면	2,435	2,852	0.20	3,124	0.22	3,088	0.21
		가회면~대병면	1,186	1,389	0.10	1,522	0.11	1,504	0.10
		신원면~거창C	2,746	2,937	0.20	3,022	0.21	2,988	0.21
		도평리~완대리	2,798	2,999	0.21	3,017	0.21	2,983	0.21
	1099호선	남하면~가조면	3,945	4,228	0.29	4,254	0.30	4,206	0.29

자료 : 2010년 교통량은 「2010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11, 국토해양부」 자료임

## 2) 중앙정부 관련 정책

### (1)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1-2020)

#### ■ 계획의 목표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 상호 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

#### ■ 계획의 기초

- 국가교통체계의 구조적 통합 강화
  - 국가교통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고효율 종합교통체계를 구축
  - 교통수단 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
- 교통정책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조화
  - 교통수단별 특성을 감안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교통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교통안전, 환경보전·보호 등 질적 교통을 추구



- 양질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참여와 경쟁의 확대
  - 공급자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국가·기업·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입장에서 교통정책을 추진
  - 교통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
  -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교통산업의 구조개편
-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수준 교통망의 구축
  - 동북아 교통·물류거점 기지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전국의 반일 생활권화

#### ■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 간 수송애로 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 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추진

#### ■ 후반기 계획기간(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
- 교통수요의 질적 변화에 부응하는 고속·고급 교통서비스를 확대
-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확대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
- 동북아 교통물류시장 단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 간선도로망 정비

-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간선도로망 구축

〈표 3-4-23〉 장기 국가간선도로망(7×9) 계획구상

구 분		주 요 경 유 지	연장(km)	
남 북 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70.5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지선) :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선의지선),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순천~여수, 논산~전주	391.8 292.6	(62.0)
	제3축	연천~서울~대전~진주~충무(서울외곽, 중부, 제2중부, 경부, 통영~대전) (지선) : 통영~거제, 대전남부순환	464.9 56.6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416.2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중앙선의지선)	441.9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405.8	(309.5)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444.0	
	계		3,284.3	(369.7)
동 서 축	제1축	강화~문산~화천~간성	211.5	
	제2축	인천~서울~홍천~속초(경인, 서울외곽) (지선) : 인천~안양(제2경인), 인천~고양(인천국제공항)	290.8 63.3	
	제3축	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	234.4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충주)	249.7	
	제5축	당진~천안~영주~울진	260.0	(184.3)
	제6축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지선) :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245.7 268.6	
	제7축	군산~대구~영천~포항(경부) (지선) : 김천~영천, 기계~신항만	294.4 96.2	
	제8축	무안~광주, 광주~남원~고령~대구(88), (지선) : 고창~장성~담양, 광주순환, 함양~울산, 대구순환	224.5 340.9	
	제9축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지선) : 산인~창원(마산외곽), 고서~순천(호남), 냉정~사상(남해2지선), 부산외곽	292.1 170.4	(16.0)
	계		3,242.5	(200.3)
총 계			6,526.8	(570.0)

주 : 연장란의 ( )은 자동차 전용도로임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1. 강 화 - 목포 2. 문 산 - 완도 3. 연 천 - 충무 4. 포 천 - 마산 5. 철 원 - 김해 6. 양 구 - 부산 7. 간 성 - 부산	1. 강화 - 간성 2. 인천 - 속초 3. 인천 - 강릉 4. 안중 - 삼척 5. 당진 - 울진 6. 서천 - 영덕 7. 군산 - 포항 8. 무안 - 대구 9. 목포 - 부산

## (2)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0-2014)

## ■ 계획의 목표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적기 확충
  - 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지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실현
- SOC 부문간, 부문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교통체계(Integrated Transport System) 구축

〈표 3-4-24〉 시설의 부문별 공급목표

구 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고속도로 (km)	국도 4차로 (km)	영업거리 (km)	복선화율 (%)	전철화율 (%)	시설능력		시설능력 (백만톤/년)
						국제여객 (만명/년)	국제화물 (만톤/년)	
2010년	2,923	14,246	3,374	39.1	39.8	4,044	361	501
2014년	3,807	14,883	3455.6	59.5	58.5	5,757	545	898

〈표 3-4-25〉 교통시설 부문별 수송분담비율 (단위:%)

구 분	국내여객(인 기준)				국내화물(톤 기준)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수송수단								
2010년	89.50	9.42	0.84	0.24	88.81	2.60	0.05	8.54
2014년	88.37	10.44	0.93	0.26	88.98	2.23	0.04	8.75

주1 : 2004, 2009년 국내여객과 화물의 수송분담비율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과 국가교통 DB자료를 이용하여 수정한 전망치임

주2 : 국내화물은 지역간 화물수송과 지역내 화물수송을 모두 고려한 분담비율임

## ■ 계획의 추진전략

-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SOC시설 확충
- 개방형, 통합형 국토비전 실현과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한 간선도로망 확충
  -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기존 국도노선의 기능개편
  - 철도, 공항, 항만과의 연계성 향상
  - 도시순환·우회도로 확충으로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
- 고속철도 연계성 강화 및 물류수송 효율화를 위한 간선철도망 구축
  - 경부고속철도 연계가능 노선의 전철화를 통한 연계성 강화 및 경부·호남고속철도 신설의 지속적 건설 추진

- 항만, 산업단지, 화물기지와의 연결철도망 구축 및 철도와 공로 간 연계체계 구축
- 대도시권내 지역 간 철도와 광역철도의 기능분리 및 신도시 개발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국내철도망 정비
- 완공위주의 사업추진 및 5대 간선철도망의 복선화·전철화 우선 추진
- 도로, 철도사업 검토시 친환경·생태적인 SOC 건설대안 적극 반영
- 항공수요에 부응하는 수송능력 확충 및 안전체계 확립
  -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를 위한 중심항 개발
- 신항만,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집중개발
- 인천항을 수도권의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 전국 주요 항만을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특화 개발. 부산·광양항·인천항과의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
- 항만배후부지를 국제적인 종합물류공간으로 육성
  - 고효율·고부가가치 물류체계 구축
- 신공항, 신항만을 국제물류 중심거점으로 집중개발
-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량화물운송체계를 강화
  -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으로 철도를 화물중심 노선으로 단계적 전환
  - 기존 경부·호남선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선을 연결하는 고속물류 간선철도망을 구축
  -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터미널을 연결하는 지선·인입선 건설
  -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의 확충을 통한 물류거점 중심체계 구축
  - 고효율·안전·환경을 지향하는 정보화·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 대도시권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의 적정한 관리
- 통행수요의 광역화에 따라 광역전철망을 효율적 확충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획기적 개선
  -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도입 등
- 교통혼잡지역의 승용차 진입억제 등 교통수요 억제 및 분산조정
  -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효율 증대
- 적은 투자로 교통개선효과가 큰 첨단교통운영체계 개발·보급(ITS, 위성항행체계 등)
- 통행료 전자지불방식(ETCS)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 등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1시간 생활권 완성

- 지역 간 교통현황 및 향후 지역개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인 확충을 통해 도내 전역의 1시간 생활권 및 권역 간 30분 생활권 구축 추진

##### ■ 경남교통의 4U 실현

- sUustainable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교통수단 및 인프라 정비
- Universal :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한 교통계획을 수립
- Ubiquitous : 교통운영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첨단시스템을 도입
- pUbllic ; 지역 간 공동번영 및 복지대중교통을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

#### 2) 추진전략

##### ■ 녹색교통수단정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교통수단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보행중심의 통행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및 철도 이용활성화를 통해 녹색교통수단을 정비함
- 주요 추진전략
  - 보행중심의 통행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
  -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기능 제고
  -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및 인입선 철도망 구축
  - 광역철도망 구축을 대비한 장거리 교통수요 분담기능 강화

##### ■ 이용자 중심의 교통계획

-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스템 도입과 도로 위계가 조화된 도로망의 정비 및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정비함
- 주요 추진전략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시스템의 도입
  - 순환형 도로망과 연계도로망의 조화
  - 지자체 간 연계된 교통계획
  -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

### ■ 스마트 교통시스템 정비

- 교통운영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상남도 맞춤형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상하여,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 정비 및 실시간 유지관리와 돌발상황시 첨단교통시스템을 정비하여 스마트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함
- 주요 추진전략
  - 경상남도 맞춤형 첨단교통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 실시간 유지관리 시스템과 돌발상황시 첨단교통시스템 정비
  -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의 수립

### ■ 효율적인 대중교통

- 지역 간 공동번영 및 복지대중교통을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대중교통망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수단 및 광역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의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효율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여 복지대중교통을 정착함
- 주요 추진전략
  -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대중교통망 정비
  - 광역교통수단 및 광역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비
  - 통합요금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 대중교통 복지정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 3) 추진시책

- 경상남도내 착공하지 않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4-26〉 추진중인 경상남도내 도로망 계획

구 분	사업명		구 간	도로연장 (km)	차로수	준공 연도	추진단계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신설		김해 진영읍~부산 기장군	47.8	4	2017	실시설계완료
	창녕~현풍간 확장		창녕 창녕읍~대구 달성군	14.9	4→6	미정	기본설계완료
	거제~통영간 신설		통영 용남면~거제 연초면	30.4	4	미정	기본설계완료
	함양~울산간 신설		함양 지곡면~울산 청량면	144.8	4	2017	실시설계중
국도	2호선	귀곡~행암 개설	창원 귀곡동~행암동	7.00	4	2014	실시설계중
	5호선	거제~마산 개설	거제 장목면~창원 우산동	17.56	4	2018	실시설계중
		거마대교 개설	거제 장목면~마산 구산면	6.60	4	2018	검토중
	7호선	부산~웅상 개설	양산 동면~웅당동	14.72	4~6	2015	실시설계중
		웅상~무거 개설	양산 웅당동~울산 울주군	14.32	4	2015	실시설계중
	14호선	동읍~한림 신설	김해 진영읍~한림면	7.1	4	2015	실시설계중
		고성~마산 개설	고성 고성읍 ~마산 진전면	18.2	4	2016	실시설계중
		광도~죽계	통영 광도면~고성 죽계리	15.5	4	2016	실시설계중
		죽계~진전	고성 죽계리~창원 진전면	18.2	4~6	2016	실시설계중
	19호선	하동~화개 확장	하동 하동읍~화개면	18.6	4	2014	변경설계중
		고현~이동 확장	남해 고현면~이동면	15.06	4	2016	타당성재조사
	20호선	의령~정곡 확장	의령 의령읍~정곡면	7.7	4	2012	변경설계중
	31호선	기장~장안 확장	부산 기장군~장안읍	10.2	4~6	2016	실시설계완료
		장안~온산 확장	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	16.19	4	2015	실시설계완료
	35호선	하북~북부 개설	양산 명곡동~동면	19.5	4	2016	실시설계완료
		북부~가산 개설	양산 동면~하북면	7.6	4	2017	실시설계완료
	58호선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김해 장유면~삼계면	13.7	4	2015	실시설계완료
	79호선	북면~부곡 개설	창원 북면~창녕 부곡면	5.6	4	2015	실시설계완료
국가 지원 지방도	30호선	봉강~무안	창원 동읍 봉강 ~ 밀양무안	9.80	4	2015	실시설계완료
	60호선	칠북~북면	함안 칠북~창원 북면	9.2	2→4	2014	실시설계완료
		매리~양산	김해 상동면~양산 신기동	13.8	4	2017	실시설계중
	69호선	대동~매리	김해 대동면~김해 상동면	11.9	4	2017	실시설계완료
기타	구포대교~대동수문		부산 강서구~김해시계	2.9	8	2013	-
	동김해C~식만JCT		김해 어방동~부산 식만동	1.29	6	2013	실시설계중
	웅촌~웅당		울산 울주군~양산 웅상읍	6.3	4	2016	-
	팔용터널건설 민간투자사업		창원 양덕동~팔용동	4.07	4	2013	실시협약체결

주 : 추진중인 경상남도 지방도 사업계획은 반영하지 않음

## ① 도로계획 부문

- 현재 추진 중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실시설계 중)와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기본설계 완료)의 경우 조기완공을 계획목표로 설정함
-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경상남도 북부권 지역의 동서축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여 울산과의 연

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 거가대로, 남해고속도로 및 대진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광역순환망을 형성하여 지정체 해소 및 대체우회도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울산권과의 광역도로망은 동서축인 남해고속도로와 순환광역도로망을 형성하는 거가대로를 연계시키는 전략이 계획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북창원에서 신항 제2배후도로로 연계시키는 창원-울산고속도로와 신항만 제2배후도로 2단계의 추진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제고함

## ② 철도계획 부문

- 현재 경남지역의 철도망은 동부권에 편중되어 일부 시군 지역에서만 이용가능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확충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추진 중인 부전-마산선의 조기완공을 통해 부산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전선 복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부경남에서의 접근성 제고 추진
-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천-거제철도는 경남지역의 새로운 남북철도망이 되어 철도이용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계성과 대구경북권, 대전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것임
- 그러나, 김천-거제 간 철도계획만으로는 경남지역의 철도이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신항만배후철도와 김천-거제철도를 연계하여 부산권 철도망과 부전-마산철도가 하나의 광역철도망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함
- 창원도시철도계획은 창원시의 기간 대중교통망을 친환경 녹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철도건설 타당성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노선연장은 총 33.9km로(1단계 30.15km, 2단계 3.75)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③ 교통시설계획 부문

- 교통시설계획은 BRT계획과 KTX역세권계획, 거점터미널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에서 경남지역의 BRT계획은 부산-창원-거제축의 하단-진해 간 15.9km와 부산-울산축의 부산 내성-양산-울산 무거간 40.3km의 BRT사업이 광역교통시설로 선정된 바 있음. 조속한 추진 필요
- KTX역세권계획은 김천-거제철도와 경전선이 교차하는 진주역과 부전-마산철도와 경전선이 교차하게 되는 수부도시권의 마산역 2곳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상위계획에서 추진 중인 경상남도내 도로철도계획인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와 김천-거제철도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승센터계획이 필요할 것임. 김천-거제철도와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연계하는 합천-의령권 환승센터와 함양-울산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가 연계하는 창녕-함안권 환승센터를 구상함
- 환승시설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서 포함



된 환승시설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창원축의 남산터미널, 부산-창원-거제축의 진해 용원, 부산-김해축의 김해 장유 등 3개 사업과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부산-양산축의 부산 구포, 부산-울산축의 부산 노포, 부산역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환승할인요금제의 경우는 2011년에 1단계로 부산, 김해, 양산 등 3개 도시의 광역대중교통망에 적용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단계로 창원 도시권 및 진주 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마지막 3단계로 경남의 군지역까지 확대 시행해 나감
- 또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자치단체 간(창원~부산, 창원~함안~의령, 진주~사천, 통영~거제 등)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요금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광역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임
- 창원, 김해, 거제, 양산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국가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도로교통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에는 교통정보시스템(UTIS)센터에 도시 생활안전, 방법, 방재 등의 기능을 통합한 U-통합관제센터로 확대하여 다양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함
-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 계획과 연계되어 내륙 연계도로망, 해안 순환도로망, 낙동강 자전거길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도록 추진함. 또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공영자전거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하는 수요대응형버스(찾아가는 버스)의 경남 인구저밀도지역 적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낮은 경남의 교통 소외지역의 복지 대중교통망 서비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 지역의 도로철도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남 수부도시권의 마산터미널, 서부 경남권의 진주터미널, 경남 서북부권의 함양터미널 등 거점터미널계획을 개발해 나감

#### ④ 공항계획 부문

##### ■ 국가중장기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정부 협의 필요사업 : 신국제공항 건설

-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규모와 산업경쟁력을 보유한 동남권과 국토 남부권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
- 신국제공항은 동남권과 남부권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필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국가거점공항인 인천공항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공항 기능 수행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신국제공항은 국토해양부의 입지평가 결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2011년 3월)한 바 있음. 따라서, 신국제공항의 건설은 추후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그림 3-4-5〉 공항시설 확충계획

### 사천공항 활성화

- 군사공항인 사천공항의 특성과 지역발전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사천공항 주변의 중형 물류단지 (기존 물류기능의 통합) 조성을 통해 항공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시키고, 서부권 관광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광기능 강화 추진.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저가항공사 유치노력 경주

### 고성 경비행장 개발

-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교육, 관광·레저산업 지원은 물론 관광레저용 소형항공기 테마로 남해 안권 항공레저 거점으로 개발
- 인근 당항포관광지 및 해양마리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해양과 항공이라는 두 가지 뚜렷하고 차별화된 테마로 해양항공레포츠단지로 개발

### 남해안 수상비행장 개발

- 관광접근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지의 직접적인 접근성 강화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레저 비행욕구 증대에 대응하고, 수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비행장 건설 추진
  - 개발은 민간 주도로 하되, 정부는 시설기준, 운항기준 마련, 비행장 설치 승인·안전 감독 수행

#### 4) 주요 인프라 정비계획

##### ■ 함양울산고속국도

- 목적 : 국가간선도로망 동서8축과 9축 보완, 서북부 낙후지역 개발촉진 기반마련
- 위치 : 함양~거창~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 사업기간 : 2004~2019
- 사업량 : L=144.8km, B=23.4m(4차로)
- 사업비 : 5조 8,862억원

##### ■ 부전마산복선전철

- 목적 : 경남~부산 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로 여객 및 물류 수송력 향상, 지역 연계 강화,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위치 : 부산 부전역~창원 마산역
- 사업기간 : 2004~2017
- 사업량 : 51.1km(복선 전철화)
- 사업비 : 1조 5,091억원

##### ■ 김천거제철도

- 목적 : 경남 서부 및 남해안 지역과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남북축 철도망 신설
- 위치 : 김천~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 사업기간 : 2016~
- 사업량 : 186.3km(복선 및 단선 전철화)
- 사업비 : 6조 7,907억원

##### ■ 창원도시철도건설

- 목적 :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 위치 : 마산가포~창원역~시청~진해석동(1단계)~진해구청(2단계)
- 사업기간 : 2011~2020
- 사업량 : 노면전차(트램) 33.9km(1단계 30.15km, 2단계 3.75km)
- 사업비 : 총 7,232억원(1단계 6,468억원, 2단계 764억원)

##### ■ 환승터미널

- 목적 : 경남(창원, 김해 등)~부산 광역대중교통수요 환승 및 이동편의 향상

- 위치 : 3개소(창원 남산터미널, 창원 진해 용원, 김해 장유)
- 사업기간 : 2012~2016
- 사업량 : 남산터미널(7,300m<sup>2</sup>), 용원(2,700m<sup>2</sup>), 장유(3,600m<sup>2</sup>)
- 사업비 : 총 50억원, 남산터미널(15억원), 용원(30억원), 장유(5억원)

#### ■ 간선급행버스(BRT)

- 목적 : 이동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는 광역대중교통수단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 위치 : 2개축(창원 진해 용원~부산 하단, 부산 동래~양산 서창~울산 무거)
- 사업기간 : 2012~2016
- 사업량 : 창원축(15.9km), 양산축(40.3km)
- 사업비 : 총 2,059억원, 창원축(392억원), 양산축(1,667억원)

#### ■ 자전거인프라

- 목적 : 자전거 이용 여건 향상을 통한 경남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위치 : 6개 시군(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하동)
- 사업기간 : 2010~2019
- 사업량 : L=157.3km(자전거 도로망)
- 사업비 : 790억원

#### ■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 목적 : 표준화된 광역교통정보 관리체계 수립 및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선진화된 교통정보 수급시스템 구축, 만성 정체구간 완화, 도로 효율성 증대
- 위치 : 경남 인구 20만이상 시지역(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 사업기간 : 2012~2014
- 사업량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무선교통정보수집전달시스템 UTIS 포함), 도시부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가공제공시스템 구축
- 사업비 : 329억원

#### ■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

- 목적 : 2개 이상의 동일 생활권에 있는 자치단체(시·도, 시·군)간 광역BIS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광역적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편의 도모
- 위치 : 창원(진해)~부산, 창원~함안~의령, 진주~사천, 통영~거제 등

- 사업기간 : 2005~2020
- 사업량 : BIS 운용 장비 및 상용 S/W 구축, 버스단말기 및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등
- 사업비 : 106.5억원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정부 협의 필요사업 :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

- 목적 : 창원~울산간 직통 고속국도 건설, 정체완화, 산업 및 물류 시너지 효과
- 위치 : 창원~울산(최적노선 검토 중, 동남권공동변영실행용역, 경남발전연구원)
- 사업기간 : 미정
- 사업량 : 미정
- 사업비 : 미정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는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임. 따라서, 추후 국토해양부의 관련 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국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정부 협의 필요사업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노선연장 지정**

- 목적 :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 개발의 실천을 위해 거제, 통영,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안 연계 도로망 구축
- 위치 : 중강진(철원)~마산~거제(연초)~거제(학동)~통영(미늘삼거리)~남해(창선)
- 사업기간 : 미정
- 사업량 : L=636.1km
- 사업비 : 미정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노선연장은 국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임. 따라서, 추후 국토해양부의 관련 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 주요 사업 리스트

- 함양울산고속국도 신설
-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
-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 신설(정부 협의 필요사업)
- 통영거제고속국도 신설
- 신항제2배후도로 신설
- 남해고속국도 확장
- 88고속국도 확장
- 중앙고속국도 지선(김해~양산) 신설
- 국도5호선(거제~마산) 신설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노선연장 지정(정부 협의 필요사업)
- 한려대교(남해~여수) 신설
- 경전선복선전철(진주~마산) 신설
-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설
- 김천거제철도 신설
- 간선급행버스(BRT) 신설
  - 신항(용원)~부산(하단) / 울산~양산~부산
- 창원도시철도건설
  - 1단계: 마산가포~창원역~시청~진해석동
  - 2단계: ~진해구청
- 환승터미널 구축
  - 창원 남산동 / 김해 장유 / 창원 용원
- 환승할인요금제 확대 시행
  - 1단계: 부산, 김해, 양산
  - 2단계: 창원 도시권, 진주 도시권
  - 3단계: 군 지역 확대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창원(진해)~부산, 창원~함안~의령, 진주~사천, 통영~거제 등
-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 창원, 김해, 양산 등
- 경상남도 자전거도로 구축
- 수요대응형버스(찾아가는 버스) 신설
  - 1단계: 국가시범사업
  - 2단계: 인구저밀도지역 확대 시행



〈그림 3-4-6〉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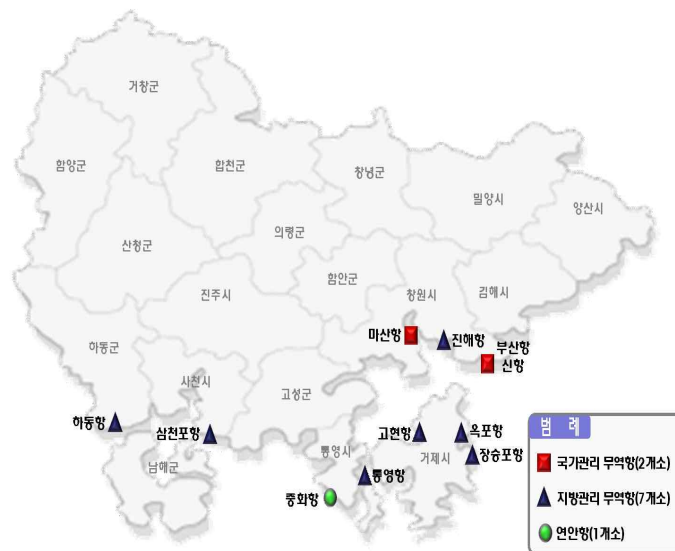
## 제2절 개방거점 확보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경남의 항만 현황 및 문제점

##### (1) 경남의 항만 현황

- 우리나라 무역항은 총 31개 무역항이 있고, 이 중 경상남도 내에는 9개 무역항이 입지해 있음. 하동항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
- 무역항은 항만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무역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경상남도내 국가관리항은 부산항, 마산항, 진해항 2개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항은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7개임
- 경상남도내 연안항으로는 중화항 1개소가 있으며, 경상남도내 항만의 위치는 <그림 3-4-7>과 같음



〈그림 3-4-7〉 경상남도 항만 위치도

- 신항만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Hub Port)으로 육성하기 위해 접안능력 45선석(‘컨’ 34선석, 다목적 및 일반 6선석, 피더 4선석, 양곡 1선석) 및 항만배후단지 11,040천㎡ 규모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임
- 특히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배후단지가 연계된 국제적 항만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함



- 마산항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대형선 접안이 가능한 전용시설의 확보를 위해 마산합포구 서항지구 가포동 일원에 5,615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2선석과 잡화부두 2선석 등 총 4선석의 신항개발과 친수시설 106천㎡, 항로준설, 마산항 진·출입을 위한 항만진입로 개설사업(7.91km)을 시행하고 있음
- 진해항은 부산항, 마산항의 지원 및 보조항으로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2만 DWT급 철재부두 3선석을 개발할 계획임
- 통영항 내만지역은 친수기능을 부여하고, 지역화물 및 수산물 취급 항만으로 운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 및 해상스포츠 등 관광거점항만 기능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5천DWT급 잡화부두 1선석 및 강구안(내만) 친수시설 24천㎡를 개발할 계획임
- 삼천포항은 남해안과 서해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부 경남의 관문항으로 수출 광석류, 고령토 등을 처리하는 동시에 화력 발전소 연료 수송 지원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삼천포 신항내 잡화부두 운영을 통해 산업지원을 강화하고, 부두까지의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2020년까지 2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 구항 동방파제 연장(재해방지시설) 300m, 서방파제 접안시설 및 연결교량 200m, 임항교통시설 1.0km를 개발할 계획임
- 옥포항은 최대 100만 D/W급 조선능력을 갖춘 대형 조선소로 조선도크와 의장안벽이 축조되어 현재 대우조선공업(주)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옥포어항과 인접지역의 항만환경 개선, 지역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2020년까지 친수시설 4천㎡를 개발할 계획임
- 고현항은 현재 삼성중공업(주)에서 조선도크와 의장안벽을 축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과 연계한 대체부두로서 기존 모래부두와 인접한 지역에 잡화부두 확보를 통해 배후권역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처리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5천DWT급 잡화부두 1선석 및 항만시설용부지 16천㎡를 개발할 계획임
  -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항만부지 협소·시설 노후화에 따른 항만기능 재편과 더불어 주변 도시기능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에 총사업비 4,910억원, 총면적 919,064㎡규모로 여객터미널, 부두, 마리나,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개발할 계획임
- 장승포항은 부산-거제간 연안 여객선의 입출항으로 도서민과 관광객을 수송하는 거제 동남단에 위치한 관문항이자 수산업 지원항만이며, 항만시설용 부지 및 호안개축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까지 친수시설 36천㎡를 개발할 계획임
-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2011년 3월 9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며 갈사조선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항만임
- 중화항은 2009년 4월 6일 신규 연안항으로 지정되었고 인근의 삼덕항(국가어항)의 배후부지가 협소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연안 여객과 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방파제

450m, 접안시설 350m, 진입도로 470m 등이 개발될 계획임

- 향후 경남도는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지세포 자원비축기지 지역에 대해 추가로 무역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임

〈표 3-4-27〉 경상남도 항만시설 현황

구분	신항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안벽(m)	5,950	6,773	1,293	1,337	1,837	332	100	-	582
방파제	1,490	650	372	1,477	2,378	-	1,495	226	-
잔교(기)	-	7	-	12	4	-	-	3	-
물양장(m)	600	1,989	123	3,312	3,051	192	288	1,151	120
접안능력(척)	18	33	9	8	9	3	1	-	3
상옥									
동수	-	1	-	-	-	-	-	-	-
면적(m <sup>2</sup> )	-	2,643	-	-	-	-	-	-	-
수용능력(ton)	-	-	-	-	-	-	-	-	-
일반창고									-
동수	-	4	1	-	-	-	-	-	-
면적(m <sup>2</sup> )	-	18,988	6,881	-	-	-	-	-	-
수용능력(ton)	-	-	20,000	-	-	-	-	-	-
아적장									
면적(m <sup>2</sup> )	-	795,067	137,000	6,860	128,812	3,492	-	11,235	-
수용능력(ton)	-	-	411,000	20,580	386,436	10,476	-	-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010; 국토해양부, 2011 항만업무편람, 2011.6을 참고하여 작성함

## (2) 경남 항만의 문제점

- 도내에 위치해 있는 무역항은 각 지역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항만별 기능중복으로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항만별 특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항만발전 전략(예 : 마산항 - 중량화물 특성화 전략) 개발이 요구됨
- 기존의 항만 개발은 주변 도시 및 지역산업과의 조화보다는 항만시설 개발에만 치중하여 항만기능과 주변 도시기능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의 개발 관리권은 2013년 4월 15일까지 지자체로 완전 이양되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경남의 항만 개발에 필요한 항만·정보·지식 및 지역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지역발전과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경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 물류시설 현황 및 문제점

### (1) 경상남도 물류시설 현황

- 물류거점시설은 권역 설정에 따라 국제물류거점(항만·공항화물터미널,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광역물류거점(IFT, ICD), 지역물류거점(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 공동 집배송단지, 철도 CY)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남에 위치해 있는 물류거점시설은 <표 3-4-28>과 같음

<표 3-4-28> 경남의 물류거점시설 현황

유형			물류거점시설
국제물류거점	항만(터미널)		부산항 신항,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공항(물류터미널)		-
	항만배후단지		신항 북「컨」배후단지, 웅동배후단지, 마산항 가포지구 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
광역물류거점	내륙화물기지	IFT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ICD	양산 ICD
지역물류거점	물류단지		-
	물류터미널		진주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
	철도 CY		신창원 철도 CY
	농수산물도매시장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창원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진주 농산물 도매시장

#### ■ 국제물류거점

- 경상남도 국제물류거점시설은 신항만 외 8개 무역항(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과 신항의 북컨 배후단지, 웅동지구 배후단지, 마산항 가포지구 배후단지가 있음
- 신항 북컨 및 웅동 배후부지의 개발 계획은 <표 3-4-29>와 같고,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계획은 <표 3-4-30>과 같음

〈표 3-4-29〉 신항 배후단지 개발 계획

구분	북 '컨' 배후단지	웅동지구 배후단지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및 남문동 일원
사업면적	1,703,927㎡(515천평)	3,579,815㎡(1,083천평)
사업비(억원)	4,702	11,734
사업기간	2005 ~ 2011	2007 ~ 2015
사업시행자	PNC	국토해양부, BPA

주 : 2015년까지 총 2조 4,878억원(기반시설 1조 6,105억원, 상부건축물 6,650억원, 예비비 2,123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자료 : 국토해양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 제2011-148호, 2011.4.

〈표 3-4-30〉 마산항 가포지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면 적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330,122	100,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소 계	181,842	55,000	55.1	
	보관배송시설	67,450	20,000	20.4	
	조립가공시설	114,392	35,000	34.7	
	환적 및 공컨 장치시설	-	-	-	
2. 지원시설	소 계	32,715	10,000	9.9	
	직접지원시설	30,311	9,000	9.2	
	상업시설	-	-	-	
	연구/벤처시설	2,404	1,000	0.7	
3. 공공시설	소 계	115,565	35,000	35	
	도로	61,556	19,000	18.6	
	녹지	54,009	16,000	16.4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100호, 2006.12.

## ■ 광역물류거점

### •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면 증산리에 316,944㎡ 규모로 조성된 양산 복합물류터미널은 김해공항, 부산항과 인접하여 수출입 화물운송 물류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긴 급화물 수송이 용이하며, 구포~양산간 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고 국도 35번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2.1km 떨어진 물금역으로부터 철도를 인입하여 단지 내에서 철도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음. 양산 복합물류터미널의 시설현황은 〈표 3-4-31〉과 같음

〈표 3-4-31〉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시설현황

구분	시설규모	비고
화물취급장 7동	34,664㎡	롯데, 메가마트 외
배송센터(복층) 4동	135,838㎡	한진, 흥성 외
배송센터(단층) 2동	18,678㎡	-
야적장	31,075㎡	KCSL, 한진 외
철도인입선	양산복합물류터미널↔ 물금역	2.10km

- 양산 ICD

- 양산 ICD는 (주)양산 ICD가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의 통관, 보관, 주선, 내륙 운송 등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복합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양산 ICD의 연간 장치 능력은 컨테이너 야적장 1,412천TEU, 컨테이너 작업장 4,463천RT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부족한 장치 공간을 보완해 주고, 장기보관이 필요한 공컨테이너의 보관, LCL 화물의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면적 951,940㎡에 주요시설로는 CY 및 CFS가 있음. 세부적인 현황은 〈표 3-4-32〉와 같음

〈표 3-4-32〉 양산 ICD 시설현황

구분	ICD 시설
CY	10단지 538,262㎡
CFS	16동 40,823㎡
GATE	10동 369㎡
CY운영사무실 및 부속동	33동 44,022㎡
컨테이너세척장 및 부속동	14동 1,037㎡
세관검사장	3동 431㎡
정비고 및 부속동	11동 4,777㎡
공용시설	8동 3,078㎡
구내도로(폭20M)	2,385m/53,525㎡
기타(녹지등)	1식 34,864㎡

자료 : 양산 ICD 내부자료.

- 양산 ICD는 내륙운송, 내륙통관, 내륙항만, 철도수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표 3-4-33〉과 같음
- 양산 ICD는 2011년 10월 현재 10개 단지에 총 46개 업체가 보관·하역·운송, CY, 탱크 컨테이너 세척, 중고 자동차 수출 등 다양한 물류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3-4-33〉 양산 ICD의 주요 기능

구분	내용
내륙운송기능	○수도권 이남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 ○부산항 ↔ 양산 ICD ↔ 수출입 화주창고: 육상운송
내륙통관기능	○보세구역으로 설정특허를 획득하여 화물의 통관업무 처리
내륙항만기능	○컨테이너 보관을 위한 CY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CFS
철도수송기능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충청권)의 수출입 화물 철도 수송

### 지역물류거점

- 진주 화물터미널
  - 진주 화물터미널은 진주시의 화물수송체계 혁신을 위하여 1987년 11월 11일 설립되었고, 총 부지면적은 21,575㎡이며 입주업체는 2010년 1월 현재 46개임
  - 현재 화물터미널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 부지(2ha)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표 3-4-34〉 진주 화물터미널 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주체
일반물류터미널	진주 화물터미널	진주시 상대동	21,575	1987년	(주)진주화물터미널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10.12.

- 신창원 철도 CY
  - 창원공장에서 생산되어 육로로 수송되던 LG전자 제품을 부산·경인·충북지역의 철도 물류거점과 연계하고 남북철도 연결시 유럽·러시아·중국 등 국제철도 운송에 대비하고자 CY 및 CFS를 조성하였는데 CY 조성에는 철도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철도청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와 LG전자의 물류협력사인 광진TLS가 참여하여 신창원 CY 물류기지를 완공함

〈표 3-4-35〉 신창원 철도 CY 현황

구분	계	로지스 CY	기타 CY	물치장
면적	62,231㎡	36,791㎡	18,980㎡	6,460㎡

자료 : 신창원역 내부자료.

- 농산물 도매시장
  - 2011년 현재 경남에는 창원시 팔용 농산물 도매시장과 창원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3개소가 있으며, 3개소의 부지 총면적은 212,958㎡, 유통량은 190,740톤이며,

거래 금액은 244,904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창원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은 2002년까지는 마산 청과시장과 북마산 청과시장이었고 2003년에 통합됨

〈표 3-4-36〉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

구분	규모					2008년		2009년	
	부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점포 (㎡)	저온 저장고 (㎡)	유통량 (톤)	금액 (백만원)	유통량 (톤)	금액 (백만원)
계	212,958	106,326	6개 법인	9,028 (284)	3523 (23)	199,549	236,921	190,740	244,904
창원시 팔용 농산물 도매시장	56,884	31,788	농협창원(공), 경남청과	3,365 (74)	2,191 (6)	56,279	65,113	55,350	67,640
창원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78,820	34,473	마산원협(공), 마산청과	2,124 (118)	801 (8)	72,361	73,652	69,426	75,298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77,254	40,065	진주농협(공), 진주중앙청과	3,539 (92)	531 (9)	70,909	98,156	65,964	101,966

주 : ( )는 개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09.

## (2) 경상남도 물류시설의 문제점

- 경상남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거점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가 전무한 실정임(경기도의 경우 물류단지 9개소 입지)
- 경상남도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광역 물류거점인 양산 ICD의 경우도 2005년 최고점으로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조성 당시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양산 ICD와 같은 내륙물류기지에는 보관·분류·하역 등 물류시설만 입주 가능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어 고객의 요구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는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2년 하반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물류거점으로서의 물류기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판매시설의 입주를 50%까지 허용하여 물류기지의 기능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개별 물류시설(예 : 물류센터, 화물터미널 등)의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도 도로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운, 철도, 항공 등 타 운송수단의 활용 및 운송수단간 연계가 부족함

- 이외에도 물류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 부족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물류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지역내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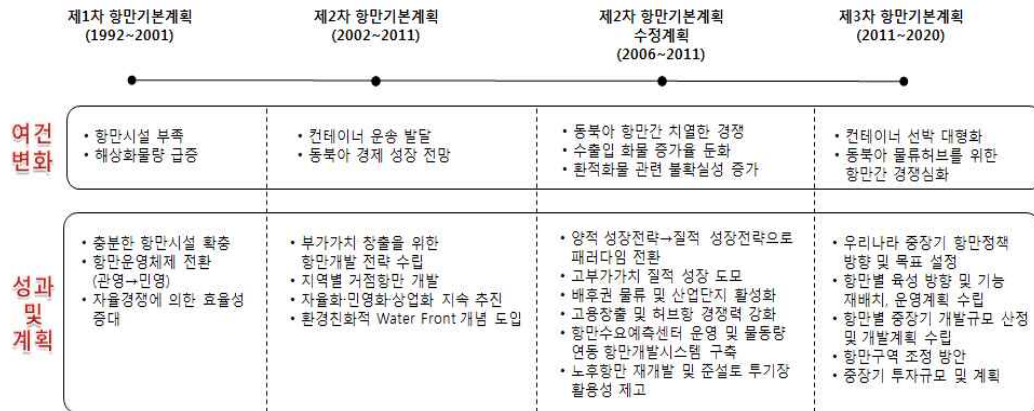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항만분야

#### (1) 여건변화

- 90년대 초 해상화물량의 급증, 항만시설의 부족 등 항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항만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1년 항만법 개정 및 항만기본계획 도입, 1995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1992~2001)을 수립·고시함
-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2~2011)에서는 컨테이너 운송 발달과 높은 동북아 경제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2001년 화물 유통중심 항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주요 국가산업으로서 항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기존의 양적인 성장전략에서 질적인 성장전략으로 항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양적 개발과 병행하여 항만 클러스터화, 트리거를 도입, 항만의 다목적 활용 등 고부가가치 질적 성장을 도모함
- 항만 클러스터화는 항만을 매개로 배후권 물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허브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트리거들의 도입은 수요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수요 예측센터 운영 및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시스템을 구축함
- 최근 수립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세계경제 및 교역의 지속적인 성장세, 세계경제의 시장으로 중국의 중요도 증가,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점유율 확대 및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항만 간 경쟁심화 등과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항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2배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물류, 제조, 상업, 친수, 재해방지 등 항만의 기능 다양화를 통해 국가 기반 인프라로서의 항만 공간 재창조를 꾀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권역별 거점항만의 국가경제성장 동력화, 항만공간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거점화, 항만관리·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린포트 구축 및 재해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4-8>과 같음





〈그림 3-4-8〉 항만기본계획 수립 연혁

-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이전까지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었는데 크게 인프라 수요 변동에 따른 대비 미흡,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간 하역료 경쟁 심화, 국내 컨테이너 항만 간 조화·협력 모델 미정립,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부조화, 해양관광, 서비스 등에 대한 항만지원 역할 미흡, 낙후 및 도서지역 항만에 대한 지원 부족, 주요 거점에 대한 여객부두 확충 지연 등의 문제점임
- 인프라 수요 변동에 따른 대비가 미흡했던 것은 2000년대 초부터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개발된 부두가 2008-2009년 사이 집중적으로 개장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 물동량은 오히려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사 수익성 악화 및 시설과잉 등과 같은 논란이 발생함
- 또한 부산항 신항의 본격 개장으로 인한 신항과 북항 운영사간 경쟁 등으로 하역료 급락, 운영사 수익 악화, 국부유출 등의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글로벌 선사에 대한 국내 운영사의 협상력이 미흡하여 선사 주도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함
- 한편, 울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등 지역 거점항에 신규 컨테이너 부두 개장으로 지역업체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나 신규 개장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활성화 지연, 국내 항만 간 경쟁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 이외에도 화물차량의 출입, 산화물 처리 등 전통적 항만기능과 인접한 도시지역의 정주·상업기능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전반적으로 그 동안의 항만정책은 제조업 지원을 위한 화물 처리능력 확보에만 주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은 미흡하였는데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도 컨테이너 부두 개발 등 화물처리 기능에만 집중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표 3-4-37〉과 같음

〈표 3-4-37〉 그간 추진된 항만 정책의 미흡한 점

문제점	해결방안	비고
인프라 수요 변동에 따른 대비 미흡	○항만물류환경 변화를 감안한 정책 수립 필요	○개발시기에 대한 논의 필요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간 하역료 경쟁 심화	○터미널 운영사 대형화 ○관련제도 개선	○항만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
국내 컨테이너 항만간 조화협력 모델 미정립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 ○국내 항만간 경쟁 최소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개발	○항만별 특화 전략에 대한 고려 필요
항만기능과 도시기능과의 부조화	○도심과 인접한 항만에 대한 환경개선	
해양관광, 서비스 등 항만지원 역할 미흡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 ○상업적 항만 지역 개발	○항만의 국가서비스업 지원강화 필요
낙후 및 도서지역 항만지원 부족	○낙후 및 도서항만에 대한 투자 강화	
주요 거점에 대한 여객부두 확충지연	○'06년~'10년 국제 및 연안여객은 급증했으나 부두 부족으로 민간의 추가 항로 개설 요구에 대응 애로 ○민자로 추진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도 PF여건 악화로 추진 지연	○국제여객: 16%상승 ○연안여객: 23%상승

## (2) 전망

- 불확실성이 큰 항만물류 환경을 감안하여 항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측면(예 : 단계적 개발, 선 조성 후 마케팅 등)에서의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대형화, 관련제도 개선 등 국내 항만의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함.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조화시키고, 국내 항만 간 경쟁을 최소화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 측면에서 항만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 상업적 항만 지역 개발 등 항만의 국가 서비스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표 3-4-38 참조)

〈표 3-4-38〉 미래 항만물류여건과 전망

구분		전망	비고
세계 항만 물류 여건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성장세 지속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수출입 및 내 수시장 확대가 전세계 경제성장을 견인 ○연평균 7% 수준의 교역규모 확대와 항만물동량 증 가	○동북아 컨물동량 연평균 9% 증가 전망(2015년 기준 31,319만TEU)
	세계경제의 시장으로 중국의 중요도 증가	○중국 소비시장 확대, 중국내륙 발전 등과 연계하여 대중국 수출입 물류기지지로 우리나라 입지경쟁력 도 동반상승 가능	○내륙물류비가 미발생하고 임 대료가 낮은 항만배후단지 경 쟁력 상승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컨물동량 증가,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수송 효율 화를 위해 급속한 컨선박 대형화 진행 ○글로벌 선사들의 허브항 중심 운항 선대개편 →허브 항만 환적컨테이너화물의 쓸림현상 발생	○10,000TEU급 이상 선박 비 중:('10)3.5%(39척) → ( '13)15.4%(201척)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점유율 확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의 처리 비중 증가 지 속과 신흥 시장에서의 GTO간 경쟁 심화 전망	○GTO의 점유율 유지를 위한 글 로벌 네트워크 확대전략→ Home-port 비중 감소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항만간 경쟁 심화	○선박대형화에 따른 기항지 축소, 동북아 컨물동량 증가 ○GTO 점유율 확대 등과 연계한 동북아 항만간 경쟁 본격화	○부산항과 자체 수출입 규모가 큰 북중국 항만(상해, 청도, 천진 등)간 치열한 경쟁 전망
국내 항만 물류 여건	대외교역의 꾸준한 증가	○견고한 경제성장, FTA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대외 교역은 '15년까지 연평균 9% 이상 확대가 예상되 나 위험요소도 상존	○EU('11. 7), 미국('11년 중) 과의 FTA 발효 등 국제교역 활성화 기반도 마련
	항만공간의 활용도 상승	○국가산업 고도화,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물류흐름상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전통적 항만기능의 다양화 지속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물류 및 제조업체가 임항지역으로 이동 예상	○항만법 개정('09.6)으로 항만 배후단지내 제조업체 입주 가 능
	연계수송 시스템 거점으로서의 항만의 역할 제기	○유류비 상승, 탄소세 도입 등에 따른 도로물류비 증가, 도심내 화물차 통과 민원 등을 고려한 항만 배후수송망 효율화 필요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간 연계시스템(인터모 달리움) 구축 필요
	해양관광 인프라 수요 증가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등과 연계하여 국제크루즈를 통한 국내 입항 여객수의 지속 증가 ○마리나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확충수요발 생	○크루즈 여객수:→('10) 17.5 만명→('20) 28.5만명 (전망)
	항만분야에서의 적극적 탄소절감 요구	○'2020년까지 BAU대비 30%의 온실가스 절감' 을 위해서는 항만 등 교통분야의 적극적 노력 요구 ○다양한 항만분야 정책마련을 통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 포함 대비 필요	○항만을 통한 탄소절감(연안해 송, 철송확대), 항만내 발생 탄소 절감(하역장비, 선박 등), 항만공간 활용(신재생에 너지 단지)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항만 지역의 방재체계 구축 필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강도 증가에 대응하여 인구밀집지 항만을 중심으로 방재인프라 구축 필요	-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내 동남권 항만의 개발 방향으로 핵심기간산업의 지원 인프라인 항만 구축을 위해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컨」 물류 허브로,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은 조선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경남권 일반화물 처리를 위해 마산항과 진해항내 일반 부두를 확보, 장승포항, 통영항에는 친수공간 조성, 고현항, 옥포항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선관련 화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임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내 9개 무역항과 1개 연안항의 비전 및 목표는 <표 3-4-39>와 같음

〈표 3-4-39〉 경남 도내 항만별 비전 및 목표

구분	항만	비전	세부육성목표
국가 관리항	부산항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 허브항	○환적컨 처리규모(연안 포함) 세계 2위권 유지 ○신항의 국제적 항만비즈니스 클러스터화 (부두+배후단지+산업단지+수리조선+벙커링 등) ○북항의 물류기능과 국제해양관광 기능간 균형 확보
	마산항	권역산업지원 거점항	○배후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지원
지방 관리항	진해항	지역 산업지원항	○배후산업체의 원활한 철재 화물 수송 지원
	통영항	연안여객 및 어업거점항	○내만 친수시설 조성 등 항만환경 개선 ○어선물양장 이전, 확장 등 물류·어업기능 강화
	삼천포항	지역물류 및 어업거점항	○어항구정비 등 항만환경 개선 ○삼천포 화력발전소 원료 수송 지원
	옥포항	조선 산업지원항	○조선산업 지원 및 친수공간 확충
	고현항	조선 산업지원항	○항만내 조선산업 지원
	장승포항	지역생활 지원항	○친수공간 조성, 어업기반조성 등 주민경제활동 지원
연안항	중화항	연안여객 및 지역생활 지원항	○도서지역 및 관광객에 대한 원활한 여객 및 화물 수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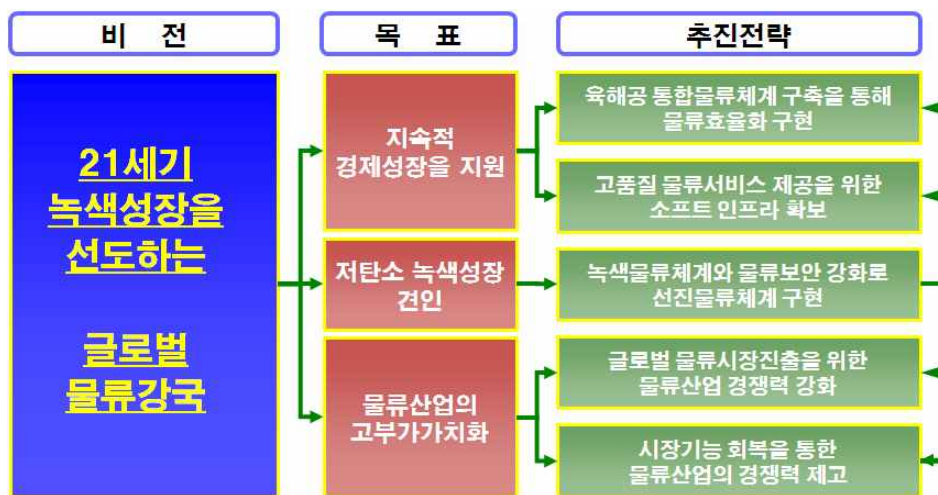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2011.7.

- 경남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경남 도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허브항(부산항 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항만 기능의 특화가 필요함
- 부산항 신항은 경쟁항만에 대한 환적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부두 적기 확충 및 항만배 후단지를 통한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1만 TEU급 등 대형선박 기항을 위한 준설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무역항은 항만배후 연계수송망 확충을 통한 항만의 이용 편의성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항만별, 품목별로 불균형화된 시설확보율을 개선하고,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항만 개발 추진이 필요한데 컨테이너 환적 허브, 동북아 오일허브, 원자재 수출입, 산업단지 지원항 등으로 항만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또한 경남지역의 항만들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산업 등과 잘 연계된 특성화 항만으로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 물류분야

### (1) 여건변화

- 우리나라 물류분야 여건변화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임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비전은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이며, 국가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 달성이 목표임



〈그림 3-4-9〉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물류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통합적 정책추진 체계 하에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의 확충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조화를 통해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며, 해운, 항공 등 국제물류산업의 활성화·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제3자 물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함. 글로벌 물류부가가치의 획득을 위해 공항, 항만 등 국제물류거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물류전문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2008년 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인 동시에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임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

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목표로 함. 계획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물류거점 시설을 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물류거점 간 연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장래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서 경상남도의 신규 물류단지 공급시설의 면적을 1,236천㎡로 명시하고 있음

〈표 3-4-40〉 경상남도 물류시설 배치

구분	물류시설 기능	세부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천㎡)	배치지역
신규공급시설	국제물류거점	공항물류터미널 공항배후단지	-	-	-
	광역물류거점	복합물류터미널	-	-	-
	지역물류거점	물류단지	신규물류단지	1,236	경상남도
	운송수단 장치	공영차고지	마산내서 진해	7 15	창원시 창원시
		항공시설	-	-	-
기능개선시설	검토대상시설	일반물류터미널	진주화물터미널	2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철도 CY	신창원	36	창원시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2010.

- 권역별 물류단지의 우선순위 선정은 화물 흐름과 권역별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약 40여개 거점의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경남의 경우 물류시설 수요가 많으나 물류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창원권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진주권, 김해권에 우선 공급을 계획함

〈표 3-4-41〉 경상남도 물류단지 공급 우선순위

중권역	시군구	우선순위			비고
		매우시급	시급	보통	
창원권	창원, 함안, 창녕, 의령	○			-
김해권	김해, 양산, 밀양		○		양산복합물류터미널
진주권	진주, 사천, 하동, 고성, 거제, 남해, 통영		○		-
함양권	함양, 거창, 합천, 산청			○	-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2010.

## (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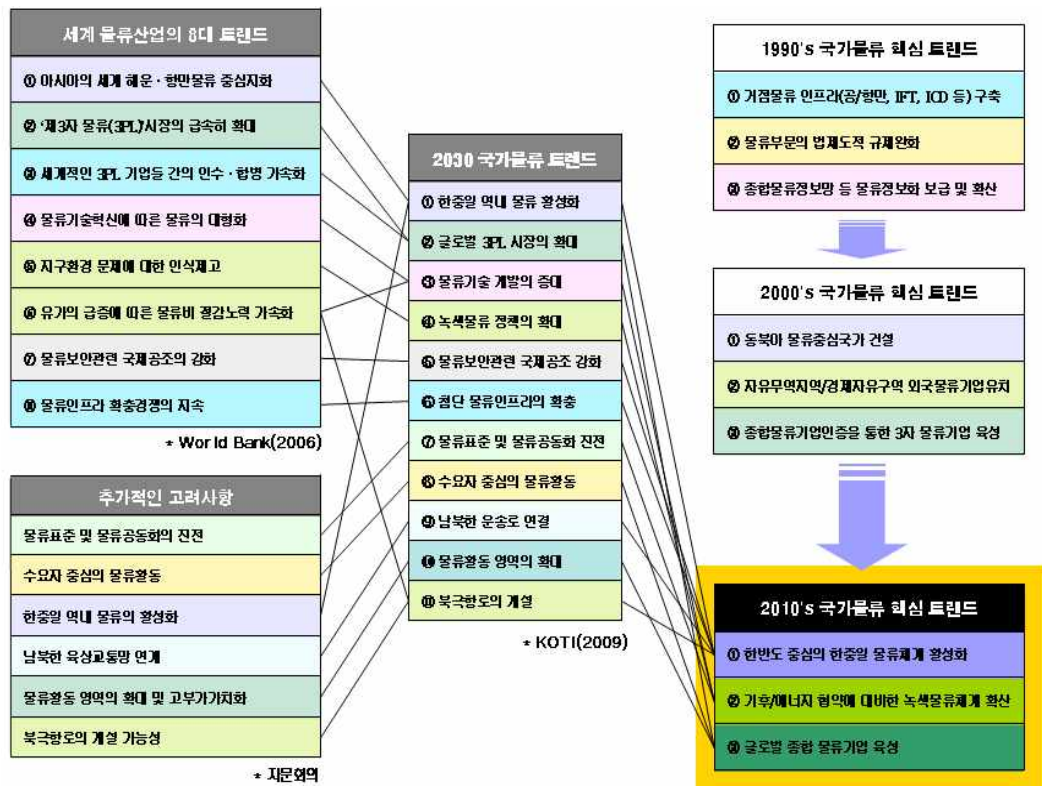
- 국내에 물류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인 1990년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3대 핵심 트렌드는 ① 공항/항만, 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으로 대표적인 거점물류 인프라 구축 ② 물류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의 폐지 등 물류부문의 법·제도적 규제 완화 ③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으로 대표되는 물류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보급/확산으로 대표될 수 있음<sup>14)</sup>

- 향후 10년간 국가물류분야의 핵심 트렌드는 ① 한반도 중심의 한중일 물류체계 활성화 ② 기후/에너지 협약발효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국가기조에 부합하는 녹색물류체계의 확산 ③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국제물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항·항만 등 국제물류거점 선점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의 수요변화와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화물의 소량·다빈도 운송이 증가되고 화물자동차의 통행량 증가와 적재율 저하 등 운행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3-4-42〉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물류여건 전망	물류시설 개발의 대응
국제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 치열	부산항 신항광양항 적기개발
전자상거래와 확산과 소량다빈도 운송수요의 증가	창고시설의 환적기능 강화
물류아웃소싱의 확대와 제3자 물류 (Third Party Logistics)의 활성화	공급경로 내 업체간 협력 필요 및 제3자 물류기업 활성화
부가가치 물류의 중요성 증대	고부가치형 국제물류거점시설의 개발
재고관리 중시와 공급사슬관리(SCM)의 확산	환적기능 강화
신운송수단의 개발	환경친화적인 물류거점시설 개발

14) 한국교통연구원,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0.10 내용을 정리함.



〈그림 3-4-10〉 향후 10년간(2010' s)의 국가물류 핵심트렌드 예측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0.10.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기본방향

- 항만분야의 경우 경상남도 내 항만 및 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 및 도시기능의 정비 및 발전방안 모색, 2013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에 있는 항만사무에 대한 대비, 지역여건을 고려한 항만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물류분야의 경우는 도내 물류거점 개발, 물류시설 개발 및 기능 개선, 물류인프라 구축, 녹색물류체계 구축, 물류전문가 양성 등을 계획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상의 항만 및 물류분야의 계획 목표는 〈표 3-4-43〉과 같음



〈표 3-4-43〉 항만 및 물류분야 계획목표

항만분야	물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비즈니스밸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첨단 항만시설 조기 확충 및 국제 물류 클러스터 조성</li> </ul> </li> <li>○도내 항만 및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 및 도시기능 정비, 발전방안 모색</li> </ul> </li> <li>○효율적인 항만운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사무 이양 대비</li> </ul> </li> <li>○지역여건을 고려한 항만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별 특성화 전략 개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거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광역지역 물류거점 개발</li> </ul> </li> <li>○물류시설 개발 및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공동화 및 물류시설 확충</li> </ul> </li> <li>○물류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네트워크, 물류표준화 및 물류정보화 구축</li> </ul> </li> <li>○녹색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녹색물류 환경 조성</li> </ul> </li> <li>○물류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li> </ul> </li> </ul>

- 경상남도 항만 및 물류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제시된 계획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세부 추진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항만분야의 경우 계획목표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항만개발, 항만사무 지방 이양 대비,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고, 물류분야의 경우 물류시설 개발, 물류시설 기능개선 및 확충,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정보화 구축 등에 대한 세부시책이 필요할 것임

〈표 3-4-44〉 항만 및 물류분야 추진시책

항만분야	물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비즈니스밸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첨단 항만시설의 조기 확충</li> <li>-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제물류 클러스터 조성</li> </ul> </li> <li>○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li> <li>-항만별 특성화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산항 : 중량화물 허브항으로 육성</li> </ul> </li> <li>-항만구역 내 친수공간 및 배후부지 확충</li> </ul> </li> <li>○항만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항만사무 지방이양 대비 및 시행방안 마련</li> <li>-연안운송 활성화 전략 개발</li> </ul> </li> <li>○항만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관리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li> <li>-공유수면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시설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농산물 유통센터 등 조성</li> </ul> </li> <li>○물류시설 기능개선 및 확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산ICD 기능 다변화, 물류터미널 기능 개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건립 사업</li> </ul> </li> <li>○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차 전용도로 조성 및 신항 진입도로 등 신규 도로 건설 사업</li> </ul> </li> <li>○물류정보화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창고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ul> </li> <li>○기타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녹색물류 환경조성, 물류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li> </ul> </li> </ul>

## 2) 항만분야 추진시책

### (1)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비즈니스 밸리 구축

#### ① 항만시설 확충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의 경우 서컨테이너부두(2-5, 2-6, 3단계), 3단계 지구의 다목적부두, 양곡부두, 피터부두 등이 수도 남단에 2020년까지 개발될 계획임
-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북측 용동지구에 2012년부터 글로벌 업체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서컨테이너 지역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서컨테이너 부두 및 3단계 지구의 부두들을 계획에 차질없이 조성 되도록 하여야 함

#### ② 항만 클러스터 구축 및 비즈니스센터 조성

- 항만 클러스터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을 증가시켜 더 많은 선사 및 화주 유치, 항만물류 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중심 항만 구축 및 항만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기에 세계적인 중심 항만들은 물동량 증가세 둔화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 클러스터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 신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류중계기지, 선용품공급단지 및 수리조선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야 함
- 한편 국내외 대형 항만들은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물류 관련업체 및 행정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 비즈니스센터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항만 비즈니스센터는 오피스 기능 이외 전시장, 국제회의장, 호텔, 홍보관, 유통센터 등의 부가 서비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음
- 신항 북권 배후단지의 주거·상업지구에 전시·문화 용도로 지정된 장소에 신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항만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여 항만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통한 항만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2)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 ■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 경상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상남도의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본 계획에서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의 운영 및 개발업무를 2013년 4월 15일까지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계획된 것에 대비, 도내 각 항만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항만유희시설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등 도내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내 무역항 기초자료 조사

- 국내·외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운영 실태파악
- 도내 무역항 항만이용자, 지역민, 기업체 등의 요구사항 및 필요시설, 적정규모, 개발시기 파악
- 도내 무역항 항만개발 방향 및 항만기능 전환 필요성 분석
- 항만재개발, 크루즈부두 및 마리나 시설 배치 계획 등 종합 검토
- 국가항만사무의 지방이양 최적 방안 및 마산항 등 미위임 항만의 이양 가능성 검토
-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및 국가예산반영계획 수립
- 효율적 항만 관리·운영방안 수립

### ■ 항만별 특성화 전략 개발

- 경상남도 내에는 국가관리항 2개소, 지방관리항 7개소, 연안항 1개소로 총 10개의 항만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 항만은 각각의 조성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항만환경 및 도시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 및 변화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보완, 새로운 항만시설 도입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상과 같은 항만 및 도시의 변화에 따른 경상남도내 항만별 특성화 방향은 <표 3-4-45>와 같음

<표 3-4-45> 도내 항만별 특성화 방향

구분		특성화 방향
국가관리항	부산항 신항	동북아 중심항만
	마산항	중량화물 특성화
지방관리항	고현항	조선산업 지원 특성화
	옥포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지역물류 및 어업거점 특성화
	진해항	지역산업 지원 특성화
	하동항	
	통영항	연안여객 및 어업거점 특성화
연안항	중화항	연안여객 및 지역생활 지원 특성화

### ■ 항만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 및 배후부지 확충

- 도내 무역항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배후부지 및 친수공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각 항만별 배후부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상의 경남 무역항별 친수공간 개발 계획은 <표 3-4-46>과 같음
- 부산항 신항은 명동지역에 친수공간 97천㎡를 개발할 계획이며, 마산항은 구항물양장 지역에 방재

언덕 조성을 통해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노산로 수제선을 정비하며, 가포 B지구의 투기장은 시민친화형 친수공간조성을 통해 향만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통영항은 내만지역의 기존 어선수용기능에서 해양친수공간으로 전환 후 조성·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고, 옥포항 친수공간은 옥포어항 인접지역에 조성하여 향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고현항은 향만시설용부지에 친수공간 16천㎡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승포항은 향만시설용 부지 및 호안개축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표 3-4-46〉 도내 향만별 친수공간 조성 사업

구 분		2011 ~ 2020
부산항 신항	명동지구 친수시설	97천㎡
마산항	구항 친수시설(방재)	74천㎡
	가포B지구 친수시설	30천㎡
	노산로 수제선 정비	2천㎡
	합 계	106천㎡
통영항	강구안(내만)친수시설	24천㎡
옥포항	친 수 시 설	4천㎡ (호안 180m 포함)
고현항	향만시설용부지(친수)	16천㎡
장승포항	호 안	8천㎡ (호안 285m 포함)
	기존 향만구역내 상부시설	28천㎡

- 이러한 배후부지 및 친수공간의 경우 국가관리항 보다는 지방관리항이나 연안항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3) 효율적인 향만운영 및 관리 방안

- 경상남도 향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향만운영과 관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향만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향만사무 이양 대비, 지방관리항만의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가 핵심이며, 이외에도 연안운송 활성화 전략 개발, 공유수면 보호 및 효율적 관리, 추가 무역항 지정 등과 같은 세부 추진사업이 있음
- 특히 2013년 4월까지 지방으로 이양될 향만사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작 단계이므로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완전 이양에 대비한 정책적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표 3-4-47〉 경상남도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구분	세부 추진사업
항만사무 관련 자료관리	○불합리한 위임사무 명시화 작업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실태 조사/통계관리
항만사무 담당 조직 및 체계 정비	○항만사무 조직 및 예산체계 정비 ○항만사무 인력 전문화
항만개발/관리/운영 사무의 효율성 증대	○연안항 관리 조례 제정 ○항만운영관리 자체 평가 ○항만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 3) 물류분야 추진시책

#### (1) 국제물류 거점시설 개발

- 경상남도는 세계적인 허브 항만인 신항만 및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 물류의 기종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물류산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복합일관수송(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기반 마련을 위한 신공항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표 3-4-48〉 경상남도 국제물류 거점시설 개발 사업

구분	세부 추진사업
신공항 개발	○규모 : 17.5km <sup>2</sup> 내외 ○주요 사업내용 :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
공항물류단지	○규모 : 500천m <sup>2</sup> 내외 ○주요 사업내용 : 화물터미널, 화물창고, 각종 물류시설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신국제공항은 국토해양부의 입지평가 결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2011년 3월)한 바 있음. 따라서, 신국제공항의 건설은 추후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 (2) 지역물류 거점시설 개발

- 경상남도는 전국 대비 10%<sup>15)</sup>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물류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물류 거점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류단지가 전무한 실정임
- 아울러 공익적 관점에서의 지역물류 활성화 노력이 미흡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예 : 공동물류센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 따라서 물류관점에서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물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15) 2009년 도로화물 기준 발생량은 206,021천톤(전국대비 13.75%), 도착량은 178,126천톤(11.89%)를 차지함.

〈표 3-4-49〉 경상남도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구분	세부 추진사업
물류단지 개발	○신규 물류단지(1,236천㎡) 조성 ○2011년 현재 창원권, 김해권 대상 사업추진 예정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창원시, 진주시 등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 추진 예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도내 41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함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포함)
공영차고지 조성	○거창군, 진주시, 거제시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예정

### (3) 물류시설 기능개선

- 경상남도의 경우 기능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물류시설은 양산 ICD, 진주화물터미널 등을 들 수 있는데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물동량이 급감하는 등 본연의 기능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 ICD<sup>16)</sup>의 기능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양산 ICD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능 이외에 판매·제조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체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양산 ICD 입주기업들은 여유 부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방안(예 : 물류센터, 택배 등)을 모색하거나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양산 ICD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확대와 함께 제조·판매 기능 수용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능다변화 및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화물터미널로서의 제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진주 화물터미널은 근본적으로 여유로운 화물취급장 및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주시는 당초 정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현재의 진주 화물터미널 기능을 이전할 계획임
- 그러나, 진주권 물류수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진주 화물터미널의 주선 및 주차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진주화물터미널에는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및 창고건립을 통해 물류터미널 본래의 화물 집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4) 물류 네트워크 구축사업

- 경상남도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핵심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거점시설과 간선을 연결하는 지선, 간선도로와 물류거점시설을 연결해 주는 연계교통망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첫째, 지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차 집중구간(예: 대동-양산, 통영-하남, 서순천-부산 등)을 대상으로 화물차 전용도로 조성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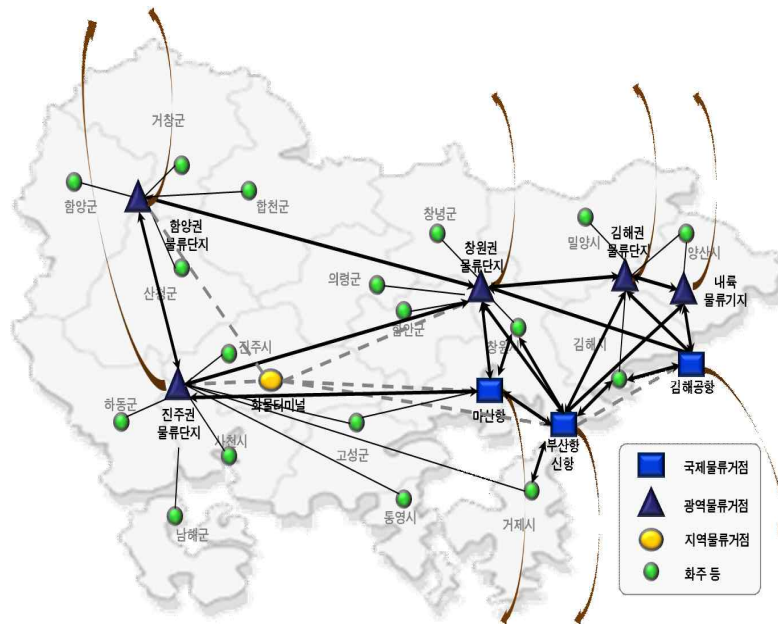
16) 양산ICD는 2005년을 최고점으로 물동량 지속 감소('05년 133만, '07년 107만, '09년 64.6만, '10년 39.5만TEU 처리).

- 둘째, 연계교통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도 2호선과 부산항 신항을 연계하기 위한 도로망이 없어 창원쪽에서 부산항 신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우회하여 진입해야 하는 비효율성(그림 3-4-11 참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함



〈그림 3-4-11〉 진해-웅동간 신규도로 건설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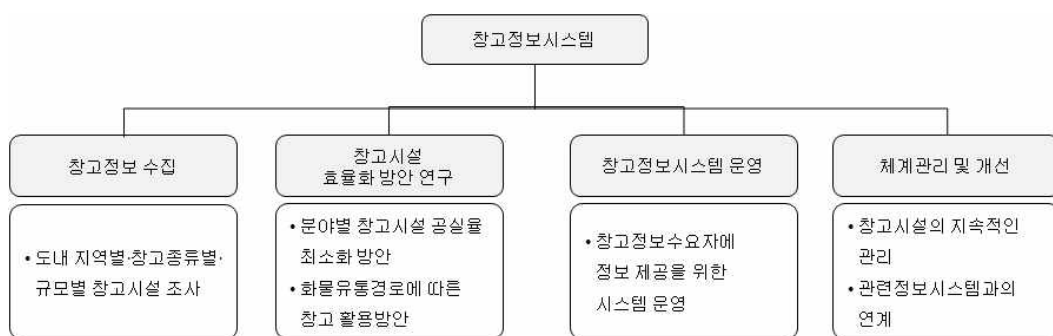
- 물류 네트워크 구현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물류거점시설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당 물류거점시설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취약한 물류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권역별 산업단지, ICD, 수출입 공항만 등과 연계된 신규 물류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물류거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과 국내 물류활동의 통합으로 광역물류거점시설의 실질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경남에서는 국제, 광역, 지역물류거점으로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전 물류거점시설을 수평적 연계로 전환하고, 각 화주 및 물류거점시설 간의 연결은 Hub & Spoke와 Point to Point 형태를 혼합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각 지역의 물류거점(광역, 지역물류거점 포함)들은 지역 내 화물의 공동화를 통해 공동집배송 하고, 지역 내 물동량 창출과 화물차량 이동량을 줄여 경남의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물류거점시설의 활용이 높은 화주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거점시설의 물동량을 창출한다면 3자 물류업 활성화 등 경남지역 물류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12〉 경상남도 물류거점시설간 네트워크 연계 방안

#### (5) 물류정보화 구축사업

- 경상남도에는 연면적 1,000㎡이상의 창고시설이 421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창고시설도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소재 창고시설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물류 공동화의 실효성 향상 및 경상남도 물류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도내 위치해 있는 창고시설에 관한 정보수집, 효율성 향상방안 연구, 운영, 체계관리 및 개선 등과 같은 작업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그림 3-4-13〉 경상남도 창고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이외에도 기 구축되어 있는 경상남도 항만물류정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항만 중심의 물동량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상남도 전체적인 물류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노



력이 요구됨

#### (6) 친환경 녹색물류 조성

- 경상남도 물류분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타 사업으로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친환경 녹색물류 환경 조성 사업(예 :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 화물자동차 탄소저감 사업, 물류시설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등)과 물류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 녹색물류에서 대두되고 있는 수송수단전환(Modal Shift)을 장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육상화물 이동이 많은 동부 경남지역과 신항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철도수송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함

## 제3절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시군별 정보화 환경간 다양성

## ■ 정보화 예산

- 경상남도의 2010년 대비 2011년 정보화사업 예산은 도비(7,779백만원) 및 시군비(2,438백만원)에서 감소한 13,973백만원으로 23.2%가 하향 조정되었음

〈표 3-4-50〉 2011년 정보화 사업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2010년도	18,197	2,971	11,892	3,334	
2011년도	13,973	3,006	7,779	2,438	750
증감	△23.2%	1.2%	△34.6%	△26.9%	100%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의 정보화부서 예산(2011)은 총 80,241백만원으로 창원시가 13,050백만원 (16.3%)로 가장 많고, 산청군(1,329백만원 : 1.7%)이 가장 적으며,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80,241백만원으로 2.7% 감소하였음

〈표 3-4-51〉 도·시군 정보화부서 예산(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10년도 정보화 예산(A)	2011년도 정보화 예산(B)	전년대비	
			증가액(C) (B-A)	증가율 (C/A×100)
계	82,508(100)	80,241(100)	△2,246	△2.7%
도	10,308(12.5)	11,645(14.5)	1,337	12.9%
창원시	22,069(26.7)	13,050(16.3)	△9,019	△40.8%
진주시	4,485(5.4)	5,424(6.8)	939	20.9%
통영시	4,564(5.5)	4,097(5.1)	△467	△10.2%
사천시	2,249(2.7)	2,370(3.0)	121	5.4%
김해시	4,671(5.7)	5,748(7.2)	1,077	23.0%
밀양시	2,286(2.8)	2,611(3.3)	325	14.2%
거제시	4,213(5.1)	3,561(4.4)	△652	△15.4%
양산시	6,215(7.5)	8,517(10.6)	2,302	37.0%
의령군	1,729(2.1)	2,568(3.2)	839	48.52%
함안군	1,598(1.9)	2,448(3.1)	850	53.1%
창녕군	2,151(2.6)	2,615(3.3)	464	21.5%

고성군	2,173(2.6)	2,062(2.6)	△111	△5.1%
남해군	2,185(2.6)	1,958(2.4)	△227	△10.3%
하동군	2,179(2.6)	2,341(2.9)	162	7.4%
산청군	1,671(2.0)	1,329(1.7)	△342	△20.4%
함양군	1,884(2.3)	3,239(4.0)	1,355	71.9%
거창군	2,382(2.9)	1,808(2.3)	△574	△24.1%
합천군	3,496(4.2)	2,850(3.6)	△646	△18.5%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1.

### 정보화 인력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정보화 관련 부서 인원은 총 518명이며, 이 중 창원시 정보통계담당관실이 103명(19.9%)으로 가장 높았고, 김해시 정보통신과 41명(7.9%), 거제시 정보통신과 30명(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4〉 경상남도·시군 정보화인력 현황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0.

### 정보화 시설 및 장비

- 전산장비는 행정업무,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 전산기 112대, 개인용 컴퓨터 1,365대로 총 1,477대로 나타났다

〈표 3-4-52〉 전산 장비(단위 : 개)

구 분	주 전산기(서버)			개인용 컴퓨터		
	계	행정업무	홈페이지	계	업무용	교육용
대 수	112	67	45	1,365	1,336	29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0.

- 네트워크 장비는 라우터(1), 백본(6), SW허브(226), NMS(1), 방화벽(7), IPS(6), DDos(2), IP관리기

(1)로 총 2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서버는 홈페이지 13대, 웹메일 6대, 보안서버 4대로 총 23대 서버를 보유하고 있음

〈표 3-4-53〉 네트워크 장비(단위 : 대)

총 250대	라우터	백본	SW허브	NMS
	1	6	226	1
	방화벽	IPS	DDos	IP관리기
	7	6	2	1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0.

〈표 3-4-54〉 서버 구축 현황(단위 : 대)

구분	내역	개수
홈페이지	웹메일	보안서버
웹서버, WAS 서버 등	대량메일 서버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13대	6대	4대

## ■ 정보화 사업예산

〈표 3-4-55〉 2012년 경상남도 정보화 사업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2011년도	13,973	3,006	7,779	2,438	750
2012년도	11,225	1,871	6,002	1,970	1,382
비교증감	△2,748 (△19%)	△1,135 (△37%)	△1,777 (△22%)	△468 (△19%)	632 (84%)

자료 : 경상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 내부자료, 2012.

## ■ 정보화마을 현황

- 정보화마을의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63개 마을 중 경기(16.4%)가 가장 많고, 경남은 29개 마을(8.0%)로 나타났다
- 경상남도의 정보화마을은 18개 시·군 29개 마을로 전자상거래 337종, 체험관광 104종이며, PC 보급은 전체 1,940개임

〈표 3-4-56〉 전국 정보화마을 현황(2010.12.31. 현재)

구분	개소	백분율
합계	363	100
서울	-	-
부산	4	1.1
대구	2	0.6
인천	-	-
광주	4	1.1
대전	1	0.3
울산	3	0.8
경기	61	16.8
강원	52	14.3
충북	22	6.1
충남	37	10.2
전북	39	10.7
전남	48	13.2
경북	44	12.1
경남	29	8.0
제주	17	4.7

〈표 3-4-57〉 정보화마을 조성(2010.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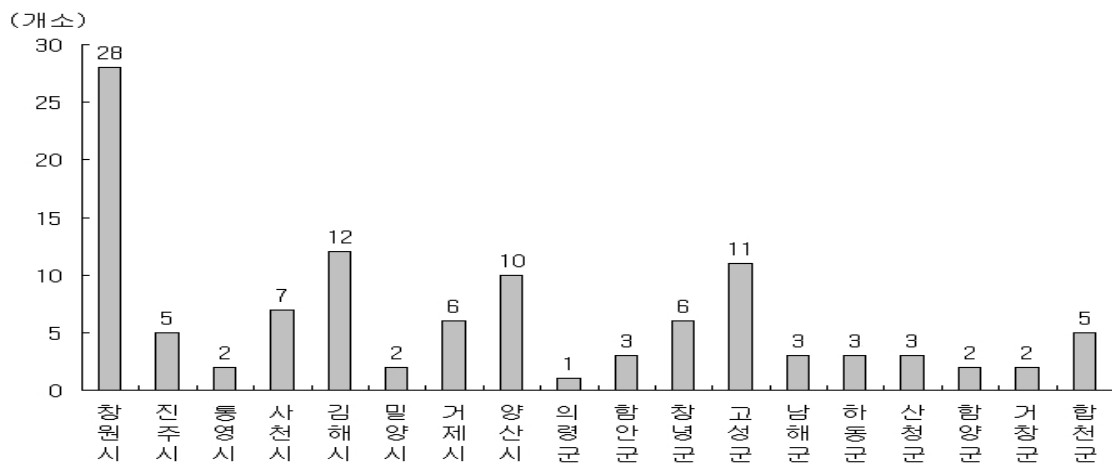
구분	시군	마을명	주요 테마	가구수	인구수	PC보급
	18개 시군 29개 마을		전자상거래 337종 체험관광 104종	5,666	16,205	1,940
1차 ( 01 ~ 02 )	김해 대동면	대동화훼	화훼, 꽃 모종심기	692	1,881	100
	하동 화개면	삼신녹차	녹차, 녹차따기, 은어낚시	160	378	78
	창원 진동면	고현미더덕	미더덕젓갈, 오만동이	180	734	100
2차 ( 02 ~ 03 )	사천 정동면	고읍단감	단감, 밀	126	255	100
	함안 군북면	월촌	수박, 산마	543	1,664	104
	창녕 대지면	모산양파	양파, 양파즙, 마늘	244	632	100
	함양 수동면	화산	양파, 양파즙, 사과	436	1,135	100
	거창 거창읍	서변	사과, 딸기	392	1,289	100
3차 ( 03 ~ 04 )	김해 칠산서부동	칠산참외	참외, 토마토	283	891	90
	밀양 산내면	얼음골사과	사과	269	780	100
	거제 일운면	구조라관광어촌	멸치, 맨손고기잡기, 유람선	251	749	100
	함안 칠북면	칠북과수	포도, 단감, 포도따기	238	654	86
	남해 삼동면	지족갯	어촌체험	165	518	50
	하동 옥종면	옥종딸기	딸기	97	234	45
	합천 율곡면	아이스딸기	딸기, 초코딸기	102	261	60
4차 ( 05 ~ 06 )	밀양 단장면	평리산대추	대추, 메기잡기, 뗏목타기	85	210	50
	거제 둔덕면	어구낚시	낚시, 젓갈류	85	216	50
	창녕 성산면	성곡친환경	안심골짜기재썰, 배, 배즙	112	373	50

5차( '06)	하동 악양면	악양대봉감	대봉감, 꽃감, 매실, 배	129	352	50
	거창 가조면	가남	쌀, 딸기	286	1,184	100
	통영 산양읍	학림섬	바지락, 우럭, 바지락캐기	70	193	39
6차( '07)	의령 화정면	보천과채	수박, 호박, 가지	90	190	41
	산청 삼장면	지리산대포곶감	벌꿀, 고사리, 곶감	69	163	33
	함양 마천면	음정도봉	벌꿀, 고사리, 곶감	78	155	32
7차( '08)	고성 하일면	송천마을	참다래, 취나물	137	249	40
	진주 집현면	대암마을	딸기, 메주	91	305	35
	합천 초계면	하남마을	양파즙, 메주, 떡국가래	59	133	40
8차( '09)	양산 원동면	배내골마을	사과, 매실, 고로쇠	99	187	35
	의령 의령읍	덕실대봉마을	대봉감, 고추, 마늘, 수박	98	240	32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6.

### 정보화 교육장 현황

- 경상남도의 도민 대상 정보화교육장으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총 111개소로 나타났고 창원시가 28개소(25.2%)로 가장 많으며, 의령군이 1개소(0.9%)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5〉 경상남도·시군 정보화교육장 설치 현황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7.

- 정보화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활용, 홈페이지 제작, 농업정보화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매우 다양하나, 정보화 교육 내용이 시군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차이가 있음

〈표 3-4-58〉 정보화교육장 교육 내용 현황

구분	교육내용
창원시	컴퓨터 기초반, 한글, 인터넷활용, 포토샵, 파워포인트, 플래시, 어리신반, 인터넷심화, 스마트폰활용, 사진꾸미기, 엑셀, 윈도우, 동영상 편집, 엑셀서식
진주시	어린이교육, 컴퓨터기초, 엑셀기초, 문서작성기초, UCC 영상제작, PC 및 인터넷활용, 한글문서작성, 디지털 사진편집 및 그래픽 제작과정, 포토샵 기초 및 활용, 스위시 및 인터넷 활용, 공무원교육, 컴퓨터 활용 및 ITQ 과정, 포토샵 및 일러캐릭터제작, 사무자동화과정, 플래시기초·활용과정, 홈페이지 제작, 정보화 지도자, 나옴홈페이지제작, 영상편집 및 제작과정

통영시	컴퓨터기초, 엑셀, 인터넷활용, 파워포인트, 한글2005, 블로그 활용, 포토샵, UCC 제작, 컴퓨터기초, 플래시
사천시	한글,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블로그만들기, 포토샵, 동영상만들기
김해시	기초+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스위시맥시, 다문화가정
밀양시	컴퓨터활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거제시	컴퓨터기초, 인터넷, 파워포인트2007, 한글2007, 이미지 사진앨범 만들기, 엑셀 2007, 이미지편집, 이미지 사진앨범 만들기, UCC 만들기
양산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홈페이지활용, 엑셀, 포토샵, 한글, 파워포인트, 디지털라이프, PC정비
의령군	컴퓨터기초, 인터넷민원활용(정보검색), 노인정보화교육,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사진편집 과정, 한글타자연습, 컴퓨터기초, 인터넷정보검색, 문서작성·편집, 인터넷 민원, 이메일 활용법,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함안군	컴퓨터활용능력2급 실기, 왕초보반, 한글반, 블로그반, 엑셀반, 파워포인트반, 자격증대비반(ITQ한글)
창녕군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엑셀, 포토샵, 윈도우기초, 인터넷, 문서편집
고성군	농업인 정보화교육, 정보화선도자 농가방문교육, 읍면 순회 정보화교육, 농업인 e-비즈니스교육, 노인정보화교육, 소외계층(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교육, 군민 상시교육
남해군	윈도우 활용, 인터넷활용, 엑셀2003, 문서작성 한글 2007, 블로그만들기, UCC제작하기, 파워포인트, 포토샵
하동군	컴퓨터기초, 문서작성(한글2007), 인터넷활용, 디지털카메라 활용, 엑셀2007, 포토샵 및 전자상거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반
산청군	컴퓨터기초, 윈도우XP, 한글2002, 인터넷기초, 엑셀2003, 파워포인트, 블로그만들기, 포토샵, 자격증반(ITQ한글), 워드프로세서2급 필기, 실기, 동영상파일관리, 사진다듬기
함양군	PC기초, 인터넷기초,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활용, 인터넷 커뮤니티, 한글 기초, 스마트폰 기기 활용, 엑셀 기초, 소셜네트워크 활용, 그린 IT 교육, 포토샵 기초, 포토샵 활용, 초등학교 방학 특강 전산교육, 초등학교 방과후 전산교육(ITQ파워포인트, ITQ엑셀, ITQ한글, 포토샵 이미지편집 등), 컴퓨터관련자격증대비반(워드프로세서1~3급 실기, 컴퓨터활용능력1~3급 실기), 신규공무원 기초전산교육, 공무원컴퓨터경진대회 준비반
거창군	인터넷교육과정(기초 인터넷 활용, 소셜네트워크 트위터 활용,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활용), 포토샵 특별 교육, 스마트폰 과정, 엑셀, 인터넷고급(블로거, 미니홈페이지 제작, 파워블로거 되기), UCC 동영상 제작, 표계산 프로그램 활용, 디지털이미지 편집, 디지털카메라 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
합천군	컴퓨터기초, 인터넷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편집 및 UCC 제작,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및 직장인 과정,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자료 : 직접작성, 경상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내부자료, 2011.

### 무인민원발급창구

- 도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현황으로는 2011년 현재 총 281개가 설치되어 있음. 창원시가 103개 (36.7%)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시지역이 210개(74.7%)로 군지역 71개(25.3%)보다 139개 (49.4%)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차이가 나타남

〈표 3-4-59〉 경상남도 무인민원발급창구 시군 장소별 설치현황(단위 : 대)

시단위 (195대)	설치대수		군단위 (71대)	설치대수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계	129	81	계	63	8
창원시	49	54	의령군	2	0
진주시	8	8	함안군	10	1
통영시	9	3	창녕군	5	0
사천시	7	0	고성군	8	0
김해시	15	3	남해군	4	1
밀양시	10	0	하동군	14	1
거제시	19	6	산청군	4	0
양산시	12	7	함양군	4	0
-	-	-	거창군	6	5
-	-	-	합천군	6	0

자료 : 경상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 내부자료, 2011.

〈표 3-4-60〉 경상남도 무인민원발급창구 시군별 설치현황(2011년 현재)(단위:대)

시단위	설치대수	군단위	설치대수
계	210(74.7)	계	71(25.3)
창원시	103(36.7)	의령군	2(0.7)
진주시	16(5.7)	함안군	11(3.9)
통영시	12(4.3)	창녕군	5(1.8)
사천시	7(2.5)	고성군	8(2.8)
김해시	18(6.4)	남해군	5(1.8)
밀양시	10(3.6)	하동군	15(5.3)
거제시	25(8.9)	산청군	4(1.4)
양산시	19(6.8)	함양군	4(1.4)
-	-	거창군	11(3.9)
-	-	합천군	6(2.1)

자료 : 경상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 내부자료, 2011.

## 2) 정보기술 변화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환경 구축

### ■ 시군 홈페이지 현황

- 홈페이지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청 및 18개 시·군에서 모두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1〉 시군별 홈페이지 구축(2010.12.31 현재)

기관명	영 어	일 어	중 국 어	비 고
도	1996. 7월	2000. 2월	2001. 9월	재구축( '06. 1)
창원시	2011. 1월	2011. 1월	2011. 1월	통합시 홈페이지구축( '10.5.17~' 11.1.18)
진주시	2000. 1월	2000. 1월	2003. 5월	
통영시	2005. 1. 17	2005. 1. 17	2005. 10. 4	재구축( '07. 7)
사천시	2005. 9월	2005. 9월	2005. 9월	재구축( '08.12)
김해시	2001. 11월	2001. 11월	2005.10. 7	재구축( '09. 2)
밀양시	2007. 2. 28	2007. 2. 28	2007. 2. 28	
거제시	2005. 10. 1	2005. 10. 1	2005. 10. 1	재구축( '09.11)
양산시	2001.12.21	2001.12.21	2006. 1.22	재구축( '09. 6)
의령군	2003. 9.27	2003. 9.27	2003. 9.27	재구축( '08.12)
함안군	2007. 11. 1.	2006. 3. 24.	2006. 3. 24	재구축( '10.11)
창녕군	2002. 3.13	2002. 3.13	2002. 3.13	재구축( '08.10)
고성군	2006. 4.10	2006. 4.10	2006. 4.10	재구축 및 베트남어 신규 구축( '09.12)
남해군	2007. 12월	2007. 12월	2007. 12월	재구축( '10. 10)
하동군	2007. 12월	2007. 12월	2007. 12월	재구축( '07.12)
산청군	2005.10. 6	2005.10. 6	2005.10. 6	재구축( '09. 2)
함양군	2007. 10. 10	2007. 10. 10	2007. 10. 10	
거창군	2005. 11. 11	2005. 11. 11	2005. 11. 11	재구축( '10.9)
합천군	2000. 1. 3	2000. 1. 3	2007.10.15	재구축( '10.6)

자료 :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8.

### ■ 시군별 WiFi 구축 현황

- 경상남도의 Wi-Fi 설치현황은 2011년을 기준으로 기설치는 273개소이며, 이중 공공청사(131개소), 관광지(81개소)가 가장 많고, 설치예정지는 2,197개소로 버스정류장(949개소), 공공청사(507개소), 관광지(433개소)로 도민의 왕래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임

〈표 3-4-62〉 경상남도 Wi-Fi 설치 현황(단위 : 개소)

구분	계	공공청사	관광지	역 터미널	재래시장	버스정류장	재난재해
계	2,470	638	514	132	153	949	84
기설치	273	131	81	53	8	-	-
미설치	2,197	507	433	79	145	949	84

자료 : 경상남도청 내부자료, 2011.

### ■ 시군별 모바일 앱 개발 및 SNS 현황

- 경상남도 모바일 웹은 도청, 시(2), 군(3)에서 개발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정 및 군정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표 3-4-63〉 경상남도 모바일 웹(2011.10.14 현재)

구분		내용	주소
경남 도청	모바일경남	경남 대표 모바일	http://m.gsnd.net
	경남e-데이	경남인터넷신문	http://meday.gndo.kr
	경남관광	경남관광	www.gntour.mobi
	걷고싶은길	걷고싶은길	http://gil.gntour.com/mobile/
	대장경천년세계축전	대장경천년세계축전	http://m2.tripitaka2011.com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제10차총회	http://unccd.go.kr/m/
창원시		창원시청	http://m.changwon.go.kr
남해군		남해군청	http://m.namhae.go.kr
의령군		의령군청	http://m.uiryeong.go.kr
하동군		하동군청	http://m.hadong.go.kr
김해시		김해시 버스정보	http://bus.gimhae.go.kr/mobile/m_main.php

- 경상남도 모바일 공공서비스 앱 현황은 모바일 경남 앱, 물가업체 정보 앱, 도청 전화안내 앱, 창원버스 안내 앱 등 총 4종이 있음

〈표 3-4-64〉 경상남도 모바일 공공서비스 앱 현황

앱 명칭	내용	비고
모바일 경남 앱	모바일 민원(사진 및 동영상을 바로 찍어 민원글 등록), 직원찾기(직원이름, 부서명, 업무,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전화바로걸기가 가능), 청사안내(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위치보기 제공), 도정소식 알람(경남도청의 공지사항, 일지리소식, 시험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람을 제공)의 서비스를 제공함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한 민원제시
경남 최고·최저 앱	지역별·품목별 물가정보 검색(경남의 지역별 품목별 최고 최저가격을 검색할 수 있으며, 업체보기 기능을 제공), 최고 최저가 업체 상세보기(최고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업체정보, 지도보기 제공)의 서비스를 제공함	물가별 업체 정보
경남도청 전화 앱	부서찾기(부서명으로 검색하여 해당 부서 직원과 통화 연결), 직원찾기(직원 이름을 아는 경우 이름으로 검색하여 직원과 바로 연결), 청사안내(도청 청사 지하1층~5층의 부서 배치현황 제공)의 서비스를 제공함	
창원버스 앱	버스위치(버스 현재 위치정보 제공), 버스도착(버스도착 예정시간 제공), 버스노선(버스노선 정류장 정보 제공), 최적노선(출발지와 도착지까지의 최적노선 정보 제공)의 서비스를 제공함	위치정보

〈표 3-4-65〉 경상남도 시군 SNS 운영 현황(2011.6.12. 현재)

시군명	SNS 종류	계 정	팔로워수 (친구수)	서비스내용
창원시	트위터	cwopenspace	2,110	창원시 소식
	페이스북	cwopenspace	299	
		changwoncitiy	1,200	
	유튜브	thechangwoncitiy	-	시정홍보 영상물
진주시	트위터	jinjucityhall	1,282	시정소식, 채용정보, 각종 홍보 등 거제방문의해 관련 축제, 관광지등 안내
김해시	트위터	gimhae4you	366	
거제시	트위터	2011geoje	526	
양산시	트위터	yangsancity	42	
의령군	트위터	uiryeonggun	423	군정홍보
함안군	트위터	hamangun	206	군정 홍보
고성군	트위터	gsdino	274	고성군 소식
	페이스북	프로필 gsdino	264	
	미투데이	dinocastle	-	
	요즘	dinocastle	1	
남해군	트위터	namhaegun	2,104	남해군 소식
	페이스북	inamhae	240	
		namhaegun	107	
하동군	트위터	okhadong	3,031	군정소식, 군정홍보
	페이스북	okhadong	173	
함양군	트위터	hygntwt	640	함양군 소식
거창군	트위터	geochanggun	488	거창군 홍보
	페이스북	geochanggun	924	
합천군	트위터	TravelHapcheon	850	합천군 관광정보 및 합천소식

자료 : 경상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실 내부자료, 2011.6.12.

## 인터넷 중독 현황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은 8.0%(약 1,743천 명)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은 1.4%(약 317천 명)로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6.5%(약 1,426천 명)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66〉 연도별 인터넷중독률 및 중독자 수(단위 : %, 천명)

구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전체	14.6	3,228	12.6	2,862	9.2	2,074	9.1	2,042	8.8	1,999	8.5	1,913	8.0	1,743
청소년	20.3	1,537	15.3	1,170	14.0	980	14.4	1,047	14.3	1,035	12.8	938	12.4	877
성인	8.9	1,691	9.9	1,692	7.0	1,094	6.5	995	6.3	964	6.4	975	5.8	866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3, p. 23.

〈표 3-4-67〉 연도 및 진단결과별 인터넷중독자 수(단위 : 천명)

구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전년대비 증감
인터넷중독자	3,228	2,862	2,074	2,042	1,999	1,913	1,743	170 ↓
고위험사용자군	730	545	383	381	366	338	317	21 ↓
잠재적위험사용자군	2,498	2,317	1,691	1,661	1,633	1,575	1,426	149 ↓

자료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3, p. 23.

- 시도별 인터넷 중독률을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9.3%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7.8%이며 전북 지역이 6.7%로 가장 낮았음

〈표 3-4-68〉 시도별 인터넷중독률(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터넷중독률	8.2	7.7	8.0	8.6	8.0	7.9	7.2	7.8	8.4	7.8	7.1	6.7	8.6	8.3	7.8	9.3
고위험사용자군	1.1	1.6	1.9	1.3	1.7	2.0	2.5	1.0	1.5	2.0	1.8	1.4	1.8	1.9	1.9	1.9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7.1	6.1	6.1	7.2	6.4	5.9	4.7	6.8	6.9	5.8	5.3	5.3	6.9	6.4	5.9	7.4

자료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3, p. 25.

####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무선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부족

- 무선인터넷 망의 시군간 격차가 현저하여 WIFI 구축이 시지역에는 93개소이지만, 군지역에는 33개소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설치되지 않은 군지역도 다수 있음
- 정보화마을 조성이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강원 등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정보화 시설 및 활용이 뒤처지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과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무선인터넷 망 등 인터넷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망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함

#### 환경, 산업, 문화, 관광, 주민생활 등 각종분야의 모바일 웹 및 앱 개발 미미

- 2011년 현재 경상남도에 구축된 웹은 총 9종이며, 이중 도정과 관련된 앱은 총 4종(경남앱, 창원버스 등)이 있어 보다 주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앱 개발이 필요함
- 4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보화 기반 및 연계가 미흡하고, 창의적인 문화, 관광 서비스의 정보화 접목이 미약하며, 기업정보의 시군간 연계 및 통합 포털 구축이 미흡함
- 이에 대한 과제는 생태,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이 미미하고 분야별 시설 및 정보의 스마트화가 필요함

#### 시군간 정보격차 심화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창원시(50), 김해시(11), 진주시(10)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의령

군, 남해군, 고성군 등 군지역에는 2개소 등으로 주민의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 시·군간 정보화 예산 및 인력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과제는 정보 접근성 및 활용을 위한 균형적인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고 정보 접근 및 활용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써 정보화 및 정보화 거버넌스 대두

- 세계 각국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국가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핵심수단으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초기 인프라 및 하드웨어 중심의 범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에서 부처별 서비스 개발 및 운영중심의 전문화 된 정책수립으로 진화함으로써 부처간 정보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의 OeG, 호주의 SGB, 일본의 IT전략본부, 싱가포르의 iGov, 영국의 내각사무처 등 단위부처 중심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추진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조정체계가 핵심사항으로 부각되었음

###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개발 및 확산

- 창조성 및 스마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ICT, 지식, 바이오산업 등 스마트한 성장산업과 기존산업 등을 융합하여 고정된 형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이 대두되었음
- 무선네트워크의 진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확대,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공과 민간에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이 더욱 강화되었음
- 소통과 연계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개인 간 단순한 인맥구축을 넘어 활용목적으로 진화하여 기업 비즈니스, 정치,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개방, 창조, 소통 등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를 강화하고 있음

### 3)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오픈 플랫폼

- 미래는 개방, 통합, 융합의 가치지향적 속성에 초점이 두어지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오픈 플랫폼이 유용한 전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오픈 플랫폼은 누구나 참여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가치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 장을 만들

어서 공유, 참여, 협력, 혁신 등을 가능케 해주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개방형 생태계 조성 전략임

#### 4)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변화

##### (1) 중앙정부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년) :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창의적 소프트웨어,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등 5개 목표 분야에 따라 정보화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선진 지식정보 사회 실현을 강조하였음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2011.3) :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정부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sup>17)</sup>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공개(공공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통합(수요자 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협업(조직·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녹색정보화(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계획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2011년 8월, 『뉴미디어 시대의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모바일 서비스 대상 917종을 도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11년부터 ’15년까지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11~’12년 우선 추진대상 서비스(450종)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구축함. 또한 범정부 모바일 공통기반 마련 및 표준화 추진하기 위하여 MDM<sup>18)</sup> 등 보안기술을 갖춘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비스 기획단계 부터 구축·운영·폐기 단계까지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지원

17)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말한다.

18) MDM(Mobile Device Management) : 스마트폰 단말기 등록, 분실시 원격 정보 삭제, SW 설치 통제 등 보안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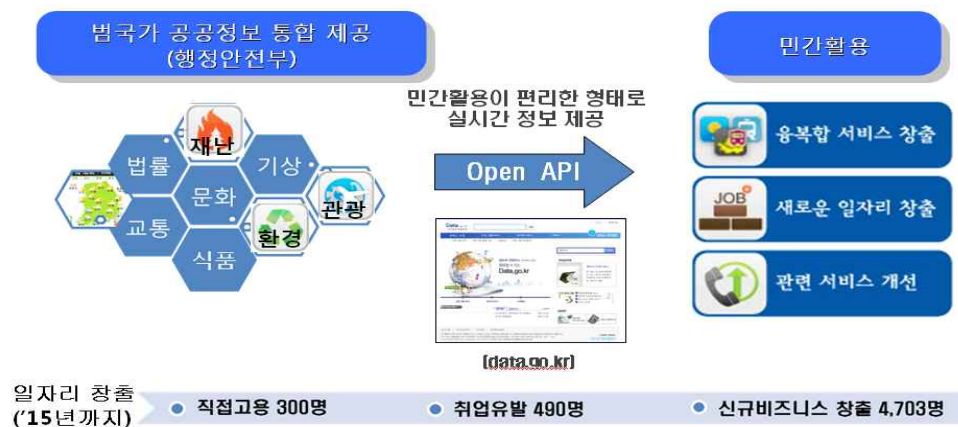
〈그림 3-4-16〉 스마트워크 비전 및 전략  
자료 : 행정안전부, 2010.7.

- 행정안전부는 2012년 정보화 방향을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으로 설정하고, 3대 핵심 과제로 첫째,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스마트한 정부구현 및 선진행정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그림 3-4-17〉 수출 10대 브랜드  
자료 : 2012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2011.12.28.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과 버스운행, 공연, 기상 관련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15년까지 일자리 창출 5천명 예상)은 물론 관련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기대함



〈그림 3-4-18〉 디지털 공공정보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자료 : 2012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2011.12.28.

## (2) 경상남도

- 경상남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2011~2015) : 경상남도는 정보화 비전으로 ‘Green & Smart 1번지, 경남’을 제시하였음
  - 유무선망, IDC, 영상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등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주민소통의 행정업무 실현 및 정보공개), 경제·산업(4대전략 산업지원), 생활(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주민안전), 관광(역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 5대 미래모델을 제시하였음
- 경상남도 세부사업 시행계획
  - 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실의 2012년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노후된 시도행정시스템 서버 교체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과 시군행정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군 행정시스템 인프라 보강, 둘째,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역량 배양과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및 IT 활용 강화, 셋째,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도정 정보서비스 수요에 대응과 공개·협업 도정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바일 공개·협업 도정 구축, 넷째,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해소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광대역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기반구축 및 강화를 위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11.9.30)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PC 내 개인정보암호화 및 취약점 진단 등 PC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여섯째,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등 국가통계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남사회조사, 사업체조사 등 지역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의 생산·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표 3-4-69〉 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실 세부사업 시행계획

구분	사업명
1	도·시군 행정시스템 인프라 보강
2	정보격차해소 및 IT 활용 강화
3	모바일 공개·협업 도정 구축
4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6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의 생산·공급

자료 :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실)정보통계담당관실) 참고 작성, 2012.

〈표 3-4-70〉 경남 시군별 2012년 정보통신계획

시군명	추진시책 및 세부사업	
창원시	창원 스마트(Smart Changwon)	창원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신산업 R&D허브 역량 강화, 글로벌 디자인 도시 조성, MICE 산업기반 확충 및 도심 재창조, 광역도로망 구축, 첨단산업단지 및 북면 신도시 조성
진주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축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 SNS 서비스 연계 시정 알림 및 현장민원 신속 처리 등
통영시	지능형홈 기반 건강복지 시범사업 추진, 제1청사 전산실 공간부족에 따른 외부망(대민서비스)장비 2청사 이설, 고품격 정보제공을 위한 웹 사이트 구축 운영, 명품도시/열린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미래형 열린교육 스마트러닝 서비스 운영, 내실있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강화, IP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 구축, 인터넷 행정전화망 전환 추진, 신도시 해안변 음향방송 보강공사, 도로명주소(새주소) 집중 홍보 추진, 국가기초구역 DB구축사업 추진, 도시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추진,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추진	
사천시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업무 경쟁력 강화	공무원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 배양,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기반 조성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삶의 질 향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업무 지원,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안정적 지원, 행정전화 인터넷전화(ALL-IP) 서비스망 구축, 안정적인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구축, 방송통신 융합(UC)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도입, 전화응대 10초 승부로 고객만족 실천
	완벽한 소송 사무 수행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준수로 투명한 행정집행,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서비스 제공	통계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김해시	글로벌 IT 허브도시 육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폰 기반 시 홈페이지 구축	시민참여 확대 및 시정정보 신속제공
함안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개인정보솔루션 및 암호화 S/W 도입, 인터넷 전화 전환 추진, 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확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대책 강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군정 인터넷 홍보·소통 강화,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	
창녕군	군민이 감동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등 정보 소외계층 통신기기 보급 추진,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능력 향상,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및 문화관광 개선, 안전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산청군	화합과 소통의 자치행정 실현	군민정보화 교육 추진
거창군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지역정보화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소셜 미디어 활용한 군정 온라인 홍보	
합천군	정보통신 장비와 보안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통신장비 운영, 체계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스마트 시대에 맞는 대민정보 서비스 확대	합천군 홈페이지 개편 구축,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서비스 구축

자료 : 각 시군별 2012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작성.

〈표 3-4-71〉 경상남도 정보화 분야 SWOT 분석

강점⇒강화	약점⇒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li> <li>○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li> <li>○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선인터넷망 구축 및 활용미흡</li> <li>○SW 관련정보통신분야 대기업 부재</li> <li>○시군간 정보격차 심화</li> <li>○글로벌 시대의 정보화인력 유차확보 미흡</li> </ul>
기회⇒포착	위협⇒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조선·항공분야 등 4대전략산업단지 조성</li> <li>○창원·마산지역 KTX 계통으로 신규성장산업 육성 기회</li> <li>○진주혁신도시 및 인근도시 연계로 시너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산업의 과점현상으로 지역기업 시장진입 난이</li> <li>○정보통신분야간 지자체별 경쟁 심화</li> <li>○정보통신분야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치 곤란</li> <li>○정보화분야 예산확보의 어려움</li> </ul>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공개·협업·창의성 강조 등 소프트웨어의 경제·사회·문화·생활 등 지역 전반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정보화계획 수립

#### 2) 추진전략

##### ■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 도농지역 간 정보화 수요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중앙정부는 무선인터넷 활용 및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로 스마트 환경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열린 도정 및 참여를 위한 모바일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무선인터넷망 등 인터넷 기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며 무엇보다 무선 인터넷망의 확산 보급 및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 또한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노출, 스팸 등 모바일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에 대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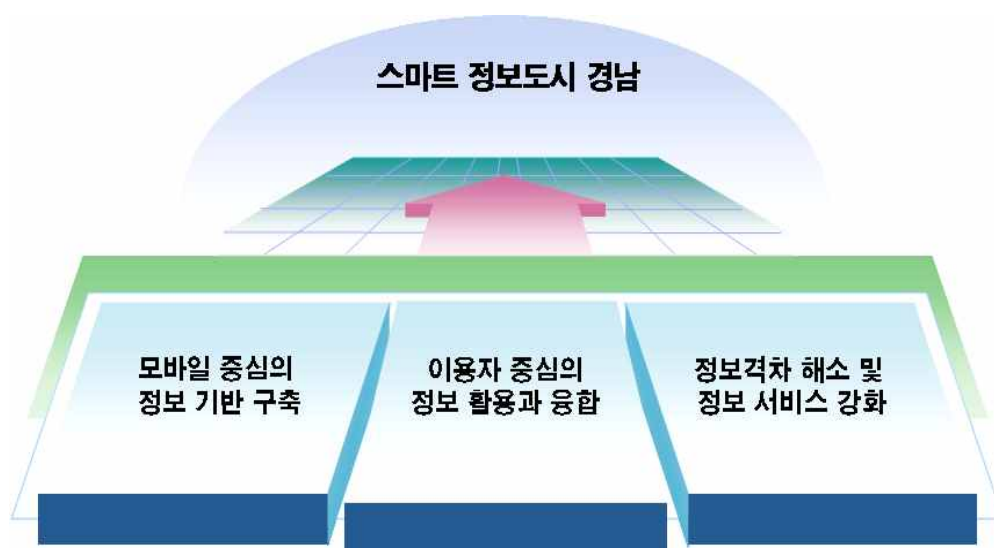
기 위한 기술적 환경정비가 요청됨

#### ■ 이용자 중심의 정보 활용과 융합

- 국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IT 협력체계를 지원하여 IT를 통한 설계, 생산, 물류 등 협업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IT로 해결하고 있으며, 농축산분야에도 IT를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유통지능과 경영분야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4대 전략산업(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화 기반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는 등 분야별 시설 및 정보의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정보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유도가 요구됨
- 유능한 정보화 인력 양성 및 SW산업·콘텐츠 결합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화모델 도시로서 토양을 구축함

####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서비스 강화

- 급격한 정보기술 발전과 전개에 따라 중앙-지방, 지방-지방, 시지역-군지역 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접근성 및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이 요청됨
-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전자정부가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모바일화 또는 정보화가 생활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강화가 요청됨
-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제공이 필요함



〈그림 3-4-19〉 정보통신계획의 기본방향

### 3) 추진시책

#### ①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 ■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추진

- 경상남도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 업무시스템 연계 및 통합으로 업무고도화
- 데이터센터 및 각종 정보센터 연계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

##### ■ 모바일 업무체계 구축 및 연동

- 스마트폰에 의한 원격업무처리 및 현장업무 처리
-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 공유환경 구현
- 스마트워크 및 모바일 오피스 체계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연계 및 정보기술 표준화

##### ■ 정보화 역기능 해소 기반 구축

- 분야별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 인터넷 중독 예방

##### ■ 모바일 기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 전자인증기반 관련 제도화 마련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 개정
- 산업정보화 기반 제도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

#### ② 이용자 중심의 정보 활용과 융합

##### ■ 분야별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 경남형 U-City 구축 및 활성화
- U-보건/의료/복지 시스템
- U-Port 및 물류시스템
- U-생태환경감시 시스템

- U-관광정보제공 시스템
- U-농수산물 이력관리 및 배송시스템

#### ■ 4대전략산업 육성 지원 체계 구축

- 4대전략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 제공
- 산학연 온오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제공
- 4대 전략의 체험 홍보관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 ■ 정보화 전문기관 유치 및 정보화 교육 지원

-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 정보화 기술 및 콘텐츠 개발 관련 행재정 지원
- 산학연 공동 핵심기술연구개발 센터 및 정보기술지원센터 건립
- 첨단 정보화교육 확대

#### ■ 정보개방 및 융합에 따른 정보정책 마련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과 활용
- 공공정보 OPEN-API 도입 및 활용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행정, 통계 정보 연계

### ③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서비스 강화

#### ■ 정보화를 통한 스마트 라이프 구현

- 스마트 TV, IPTV 등 뉴미디어 확산
- 원격의료 U-Health 서비스 제공 및 보급
- 여성 출산, 육아, 보육, 가족 정보서비스
- 취약계층 복지 허브 서비스
- 무인민원서비스 대상 확대

#### ■ 치안, 안전, 교통 등 시설물 관리 및 도시 관리 보편화

- 재해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 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 낙후지역 교통정보 서비스

■ 정보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실용적 정보화 교육 실시 및 활용
- 전국 단일망 인터넷 전화 사업자망 전환
-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보급

■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다양화

- 디지털 기회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 다양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도민 인터넷 교육 지원

## 제5장 복지 및 생활환경 부문

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제3절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제4절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확충

제5절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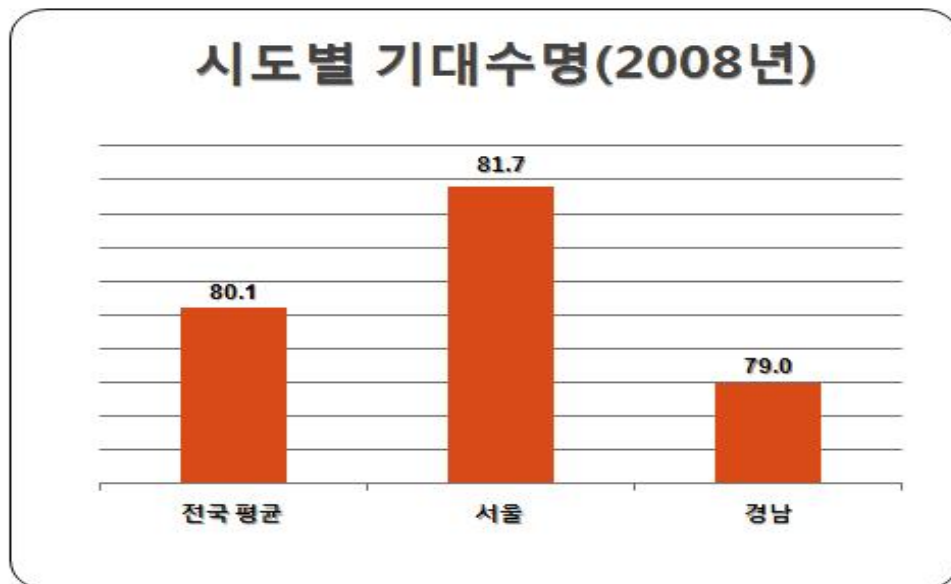
## 제5장 복지 및 생활환경

### 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 1. 현황 및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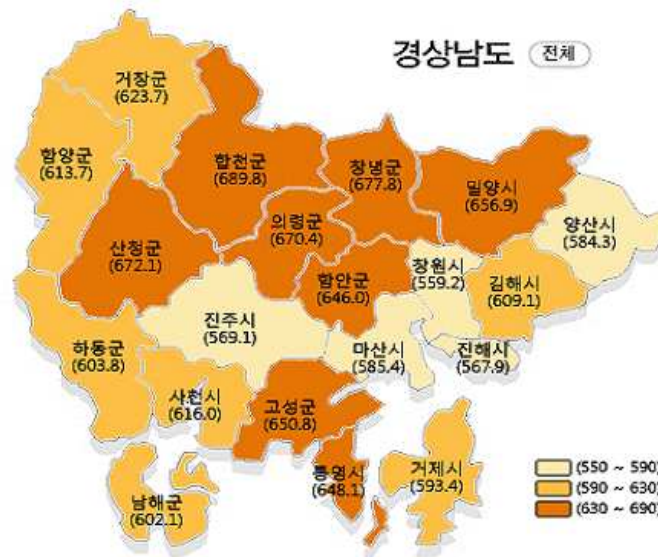
##### 1) 보건의료 현황

- 「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 전국에서 경남의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3대 질환(암,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한 형태로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해 본 결과, 합천군, 창녕군, 산청군, 의령군, 밀양시는 표준화 사망률 평균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림 3-5-1〉 16개 시도별 기대수명 현황(2008)  
자료 : 2008년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





〈그림 3-5-2〉 경남 시군별 연령표준화사망률(10만명당, 2001-2006년 평균)

-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관찰자수/기대사망자수×100)를 계산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표준화사망비가 1이상이었던 지역은 모두 40개 읍·면·동이었으며, 이 중 29개는 농촌지역, 11개 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됨

〈표 3-5-1〉 경상남도 시군별 표준화사망률 평균 (단위 : 명/십만명)

지역명	2001년-2004년 표준화사망률 평균	지역명	2001년-2005년 표준화사망률 평균	지역명	2001년-2006년 표준화사망률 평균
창원1)	589.9	진주	580.0	진주	569.1
진주	592.9	창원1)	581.4	창원1)	570.8
양산	613.9	양산	599.1	양산	584.3
거제	620.5	거제	610.6	거제	593.4
김해	628.2	김해	617.1	남해	602.1
하동	632.4	사천	622.3	하동	603.8
사천	634.0	남해	623.3	김해	609.1
남해	646.9	함양	623.9	함양	613.7
함양	648.1	하동	625.1	사천	616.0
거창	654.8	거창	640.9	거창	623.7
고성	669.9	통영	664.6	합안	646.0
통영	670.2	합안	664.9	통영	648.1
합안	682.4	고성	667.7	고성	650.8
밀양	687.4	밀양	671.4	밀양	656.9
창녕	698.8	의령	689.1	의령	670.4
산청	708.7	산청	690.5	산청	672.1
의령	711.3	창녕	692.7	창녕	677.8
합천	727.8	합천	701.7	합천	689.8

주 : 1) 구 마산, 창원, 진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8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

-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외부유출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도민들의 교통비, 시간비용을 비롯한 비용증가를 유발하고 지역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3-5-2〉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2009)(단위 : 1,000원)

구 분	외부유입(B)	외부유출(C)	진료비 손익(B - C)
계	8,551,800,587	8,551,798,815	1,772
서울	3,010,982,974	1,221,994,256	1,788,988,718
부산	597,562,094	357,978,253	239,583,842
대구	558,135,096	219,833,725	338,301,372
인천	273,716,738	505,314,226	- 231,597,488
광주	388,407,527	221,931,286	166,476,241
대전	357,367,766	201,876,333	155,491,433
울산	102,294,795	219,513,327	- 117,218,532
경기	1,239,657,265	2,371,274,835	- 1,131,617,570
강원	189,259,675	248,814,967	- 59,555,292
충북	177,238,916	305,143,140	- 127,904,224
충남	282,852,506	525,412,141	- 242,559,635
전북	268,178,863	219,376,430	48,802,432
전남	354,241,050	460,524,322	- 106,283,272
경북	335,044,507	630,976,009	- 295,931,503
경남	381,730,730	593,726,377	- 211,995,648
제주	35,130,086	57,410,569	- 22,280,483
기타	-	190,698,619	- 190,698,61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보건의료 지원현황

- 의료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총계 2005년 2,682개소에서 2010년 3,035개소로 2005년도 대비 의료기관 수의 증가율 13.2%로 조산원(5개소 감소)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음

〈표 3-5-3〉 의료기관 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총계		49,566	56,244	13.5	2,682	3,035	13.2
병·의원	종합병원	290	312	7.6	21	24	14.3
	요양병원	177	849	379.7	81*	68	135.8
	일반병원	794	1,154	45.3		123	
	의원	25,412	27,334	7.6	1,377	1,445	4.9
특수병원	결핵	3	3	-	14**	1	14.3
	한센	1	1	-		-	
	정신	102	143	40.2		15	
치과병 의원	치과병원	123	188	52.9	591	11	20.3
	치과의원	12,520	14,074	12.6		700	
한방병 의원	한방병원	146	159	8.9	562	2	13.0
	한의원	9,765	11,804	20.9		633	
부속의원		187	186	- (-0.5)	9	11	22.2
조산원		46	37	- (-41.3)	7	2	- (-71.4)

주 : 부속의원 -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의료법 제35조). \* 건인병원 제외, \*\*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재활병원 포함.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11.

- 경남 시군별 병원수를 살펴보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5-4〉 경남 시군별 의료기관 시설현황(2009년 병원수 및 병상수)

연별 시·군 별	합계1)		종합병원		병원2)		의원		특수병원3)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경남 (%)	3,057 (100)	45,764 (100)	25 (100)	8,089 (100)	121 (100)	17,413 (100)	1,483 (100)	4,862 (100)	16 (100)	6,276 (100)	60 (100)	8,897 (100)	689 (100)	25 (100)	2 (100)	89 (100)	646 (100)	49 (100)	3 (100)	9 (100)	12 (100)	55 (100)
창원	1,098	14,634	10	3,252	42	5,067	518	1,728	2	1,362	17	3,188	261	0	0	0	240	29	1	1	7	7
진주	336	5,127	4	1,667	11	1,300	154	336	3	815	5	960	90	-	1	49	67	-	-	-	1	-
통영	163	1,475	-	-	6	864	112	348	-	-	1	240	22	-	-	-	21	-	-	-	1	23
사천	103	2,600	-	-	5	1,470	51	171	2	649	2	310	23	-	-	-	20	-	-	-	-	-
김해	450	7,285	5	1,256	20	2,278	206	978	3	873	16	1,854	106	-	-	-	92	20	1	1	1	25
밀양	105	1,777	1	298	6	896	51	81	-	-	4	495	20	-	-	-	22	-	1	7	-	-
거제	181	1,855	2	562	7	816	78	298	-	-	1	179	45	-	-	-	46	-	-	-	2	-
양산	224	5,300	3	1,054	6	1,237	109	488	4	1,738	6	718	53	25	1	40	42	-	-	-	-	-
시계 (%)	2,660 (87.0)	40,053 (87.5)	25 (100)	8,089 (100)	103 (85.1)	13,928 (80.0)	1,279 (86.2)	4,428 (90.7)	14 (87.5)	5,437 (86.6)	52 (86.7)	7,944 (89.3)	620 (90.0)	25 (100)	2 (100)	89 (100)	550 (85.1)	49 (100)	3 (100)	9 (100)	12 (100)	55 (100)
의령	23	308	-	-	1	88	13	31	1	189	-	-	4	-	-	-	4	-	-	-	-	-
함안	48	484	-	-	3	421	24	33	-	-	1	30	9	-	-	-	11	-	-	-	-	-
창녕	53	1,977	-	-	2	656	27	76	1	650	4	595	6	-	-	-	13	-	-	-	-	-
고성	44	823	-	-	3	674	20	16	-	-	1	133	8	-	-	-	12	-	-	-	-	-
남해	40	253	-	-	1	135	25	23	-	-	1	95	6	-	-	-	7	-	-	-	-	-
하동	37	607	-	-	2	549	20	58	-	-	-	-	7	-	-	-	8	-	-	-	-	-
산청	25	2	-	-	-	-	13	2	-	-	-	-	5	-	-	-	7	-	-	-	-	-
함양	32	127	-	-	1	69	19	58	-	-	-	-	4	-	-	-	8	-	-	-	-	-
거창	57	478	-	-	3	283	25	95	-	-	1	100	13	-	-	-	15	-	-	-	-	-
합천	38	652	-	-	2	610	18	42	-	-	-	-	7	-	-	-	11	-	-	-	-	-
군계 (%)	397 (13.0)	5,711 (12.5)	0 (-)	0 (-)	18 (14.9)	3,485 (20.0)	204 (13.8)	434 (9.3)	2 (12.5)	839 (13.4)	8 (13.3)	953 (10.7)	69 (10.0)	0 (-)	0 (-)	0 (-)	96 (14.9)	0 (-)	0 (-)	0 (-)	0 (-)	0 (-)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1) 보건의료원이하 제외, 2) 군인병원 제외, 3)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포함.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보건의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의사 792명, 치과의사 3,075명, 한의사 3,819명, 약사 1,9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음
- 경남의 경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담당하는 인구가 많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사료되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확보가 필요함

〈표 3-5-5〉 주요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인구(시도별)(단위: 명)

지역 \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전국	639	2,479	3,251	1,582
서울	456	1,691	2,525	1,268
부산	565	2,680	2,961	1,498
대구	528	2,394	2,880	1,401
인천	837	2,996	4,232	1,897
광주	534	1,844	3,319	1,411
대전	516	2,551	2,818	1,421
울산	902	2,983	3,781	2,023
경기	841	2,988	4,193	1,814
강원	663	2,546	3,381	1,634
충북	755	3,412	3,321	1,650
충남	782	2,669	3,292	1,717
전북	584	2,457	2,583	1,429
전남	700	3,129	3,476	1,603
경북	851	3,560	3,342	1,858
경남	792	3,075	3,819	1,985
제주	747	3,068	3,752	1,769

주 : 의사 -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포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지역별로 큰 차이 보여' 2010.12.30.



〈그림 3-5-3〉 보건의료인력 분포 현황

자료 :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지역별로 큰 차이 보여' , 2010.12.30.

- 지역주민의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0년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0.8% 증가한 3,459개소이며, 경남의 경우, 1.7% 증가한 409개소로 나타남

〈표 3-5-6〉 보건의료기관 분포 현황(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국			경남		
년도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총계	3,433	3,459	0.8	402	409	1.7
보건소	248	253	2.0	20	20	-
보건지소	1,280	1,294	1.1	167	169	1.2
보건진료소	1,905	1,912	0.4	215	220	2.3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1.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0년 전국은 26.6% 증가한 424,309명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인력으로는 의료기사(34.9% 증가), 다음으로 약사(31.5%)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는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은 26.8%로 의무기록사(52.3% 증가)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사(40.0% 증가)를 들 수 있음

〈표 3-5-7〉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의료인 분포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총계	335,276	424,309	26.6	19,817	25,134	26.8
의사*	63,411	79,966	26.1	3,263	4,002	22.7
치과의사	16,782	20,283	20.9	705	987	40.0
한 의사	11,915	15,235	27.9	604	801	32.6
조산사	1,200	1,048	- (-12.7)	44	47	6.8
간호사	86,299	110,803	28.4	5,184	6,638	28.1
간호조무사	90,465	109,610	21.6	5,858	7,060	20.5
의료기사	59,704	80,535	34.9	3,878	5,197	34.0
의무기록사	2,707	3,157	16.6	132	201	52.3
약사**	2,793	3,672	31.5	149	201	34.9

주 : 시도별 병원 종사자 인력수와 시도별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를 재구성한 자료임. \*의료종사자만 포함, \*\*개업약국 약사 제외.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1. 경남통계연보, 경상남도, 2006.

- 경남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력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25,857명 중에서 시지역 23,311명으로 90.2%를 차지하며, 군지역 2,546명으로 9.8%로 의료인력 모두 85% 넘게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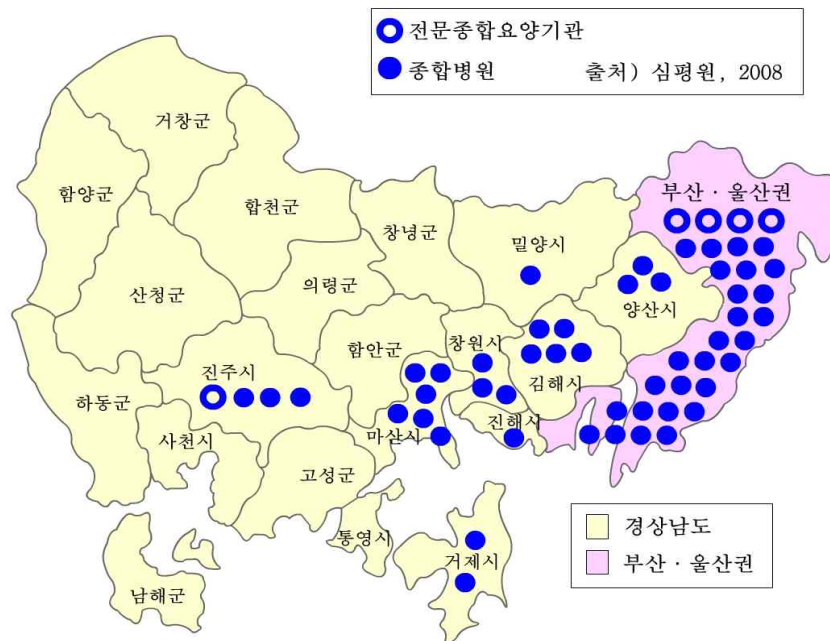
〈표 3-5-8〉 경남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2009년 의료인분포 현황)

행정구역 (시군)	합 계 (명)	상근 의사	비상근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경남 (100.0)	25,857 (100.0)	3,841 (100.0)	11 (100.0)	1,164 (100.0)	811 (100.0)	17 (100.0)	6,564 (100.0)	8,395 (100.0)	4,656 (100.0)	186 (100.0)
창원시	8,639	1,290	3	360	306	3	2,515	2,208	1,818	57
진주시	3,613	721	0	116	71	4	1,504	718	437	11
통영시	881	125	0	24	22	0	193	326	172	13
사천시	918	127	0	24	21	0	190	358	185	8
김해시	3,896	494	0	137	114	6	752	1,540	781	45
밀양시	829	119	3	25	26	1	167	372	105	5
거제시	1,493	181	2	65	53	2	384	449	340	10
양산시	3,042	382	2	338	92	0	472	1,368	338	24
시 계 (%)	23,311 (90.2)	3,439 (89.5)	10 (90.9)	1,089 (93.6)	705 (86.9)	16 (94.1)	6,177 (94.1)	7,339 (87.4)	4,176 (89.7)	173 (93.0)
의령군	112	17	0	4	4	0	13	49	22	2
함안군	291	63	0	9	11	0	38	100	64	3
창녕군	534	69	1	7	19	0	125	237	64	5
고성군	317	40	0	11	13	0	38	129	82	0
남해군	222	51	0	6	7	0	22	92	41	1
하동군	227	34	0	8	9	0	37	87	49	1
산청군	69	12	0	5	8	0	2	29	13	0
함양군	162	26	0	4	8	0	9	72	42	0
거창군	406	52	0	13	16	1	84	170	67	0
합천군	206	38	0	8	11	0	19	91	36	1
군 계 (%)	2,546 (9.8)	402 (10.5)	1 (9.1)	75 (6.4)	106 (13.1)	1 (5.9)	387 (5.9)	1,056 (12.6)	480 (10.3)	13 (7.0)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군 간, 동·서부 간의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경남 의료기관은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지역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함



〈그림 3-5-4〉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포

자료 : '정백근. 경상남도의 보건 의료 현황과 발전방안. 2011' 에서 재인용

- 전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64.4%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제주 61.1%, 전북 60.1%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53.2%로 나타났음
- 병(의)원 만족도의 경우,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59.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강원 59.3%, 전북 55.8%이며, 경남은 48.9%로 나타났음



〈표 3-5-9〉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2010 (단위: %)

지역	계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100.0	52.7	20.7	32.0	33.6	13.7	12.0	1.7
부산	100.0	50.3	16.9	33.4	30.5	19.2	17.7	1.5
대구	100.0	49.5	19.8	29.7	35.0	15.4	13.4	2.1
인천	100.0	40.4	16.1	24.3	40.0	19.5	17.6	2.0
광주	100.0	52.0	15.2	36.8	32.1	15.9	14.0	2.0
대전	100.0	54.8	22.7	32.1	33.1	12.1	9.9	2.2
울산	100.0	45.1	12.4	32.7	37.0	17.9	14.1	3.9
경기	100.0	54.0	20.3	33.7	31.5	14.5	12.5	2.0
강원	100.0	64.4	25.8	38.5	25.5	10.1	8.5	1.6
충북	100.0	45.1	13.0	32.1	41.8	13.1	9.6	3.5
충남	100.0	54.5	16.3	38.3	31.2	14.3	12.2	2.0
전북	100.0	60.1	27.9	32.2	30.0	9.9	8.8	1.1
전남	100.0	56.3	28.4	27.9	32.3	11.4	10.9	0.6
경북	100.0	51.0	18.2	32.8	34.2	14.7	13.1	1.6
경남	100.0	53.2	14.5	38.6	31.2	15.6	12.3	3.3
제주	100.0	61.1	30.1	31.0	25.8	13.2	12.4	0.8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3-5-10〉 의료서비스 만족도(병(의)원), 2010 (단위: %)

구분	계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100.0	48.6	10.5	38.1	44.0	7.4	6.9	0.5
부산	100.0	45.0	9.1	35.9	43.7	11.3	10.5	0.8
대구	100.0	46.7	7.1	39.6	44.8	8.5	8.4	0.1
인천	100.0	36.0	6.8	29.2	49.9	14.1	12.7	1.4
광주	100.0	48.8	11.2	37.6	42.0	9.2	8.8	0.4
대전	100.0	48.1	12.8	35.3	38.8	13.0	12.5	0.5
울산	100.0	44.8	6.6	38.2	46.1	9.1	8.4	0.8
경기	100.0	44.5	9.3	35.3	44.8	10.6	10.1	0.5
강원	100.0	59.3	15.3	44.0	33.2	7.5	7.3	0.2
충북	100.0	48.0	11.7	36.3	43.8	8.2	7.2	1.0
충남	100.0	49.9	10.2	39.6	39.8	10.3	9.5	0.8
전북	100.0	55.8	17.7	38.2	38.0	6.1	5.2	0.9
전남	100.0	59.5	24.0	35.5	31.5	9.0	7.8	1.2
경북	100.0	49.5	13.7	35.8	43.7	6.8	6.2	0.6
경남	100.0	48.9	8.7	40.3	43.9	7.2	7.0	0.2
제주	100.0	49.8	13.4	36.4	39.7	10.5	10.0	0.6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지역 간·계층 간의 보건의료 인프라 편중 심화

- 보건의료 서비스권에서 벗어나 있는 농촌 및 산악지역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건강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의료 및 보건정책 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2) 평생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임
- 흡연, 음주, 영양섭취 및 스트레스 등의 환경이나 생활습관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사망은 물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임. 따라서 도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최적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생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임

### 3) 농어촌 인구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증대

####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의료서비스 요구 증대

-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 요양, 치료, 재활 등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할 것임
- 특히 대부분의 군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의 유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임

#### 의료보전 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고급화

-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 장애인 전문병원 등 특정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4) 경남도민 보건의료비 유출 심화

- KTX 등 교통망 신설에 따른 교통발달로 인해 의료이용 유출의 심화가 예상됨
- 경남의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의료비 유출 및 기타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심화될 것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계획목표 : 평생 건강 / 평등한 혜택

- 향후 도래할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간·계층 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격차를 개선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

#### 1)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계층 간 격차해소

##### ■ 지역의료 보전기능 강화

- 지역 간·계층 간 발생하고 있는 건강수준의 약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의료 보전기능을 강화함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속적 추진 및 사업확대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의 다양화(기초건강관리, 지역의료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일차 의료기능, 기초 건강관리센터, 지역 의료정보 거점으로 활용방안 모색
  - 도시지역 건강취약지역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의료 접근성 제고

- 의료 낙후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감.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긴급 구조구난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추진
  -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경남에서는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선(어선) 등을 통한 이동의료시스템(이동방문) 강화가 요구됨
- 농촌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거주민들과 농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농촌지역 거주자 및 농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생애주기에 기반한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기술을 개발함
  - 농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중점관리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결과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필요함

#### 2) 도민의 평생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

##### ■ 도민 전체의 평생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건강시설 정비 구축 및 생활체육(스포츠)시설·의료시설 확충

-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질병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함

##### ■ 환자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 지방의료원이 협의를 통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만성질환관리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 3) 의료시설 질적 수준 제고

#### ■ 의료시설 질적 수준 향상 및 노후된 시설 정비계획 구축 및 보완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의 기반확충 및 노후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 관리기준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 4) 공공 보건의료사업 양적 확충

#### ■ 공공 보건의료사업 전달체계 강화

- 기존 경남지역 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경남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기관들의 의료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협의체 등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자원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서부경남의 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 존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상남도 정책수행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계약을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불균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도록 함
  - 공공 서비스 계약을 맺은 병원은 경상남도의 정책적 의료사업을 수행해야 함. 경상남도는 관련 인력, 시설, 장비를 확충해 주어야 함
  - 특히 경남은 전국 대비 보건의료 인력의 수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확충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함

### 5) 도민 먹거리 안전대책 강화

#### ■ 도민의 먹거리 안전(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 ■ 불량 유해식품의 사전적 예방 강화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등 기술지원 강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 등 선제적 위해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통식품의 안전성검사 강화, 허위 및 과대광고행위 단속 강화 등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함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 등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급식과정에서의 안전성도 강화함

### ■ 음식적 위생수준의 강화

-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위생등급 평가제 등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지도해 나가고, 도민이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과 발생의 대응체계를 강화함

### ■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참여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 부정·불량식품의 합동단속반, 지도점검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먹거리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등 실질적인 도민의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감
- 경남도 주도의 식품안전 뉴스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지속적인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캠페인을 시행함

##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사회복지관 현황

- 2005년 대비 2010년 전국 사회복지관수는 391개소에서 425개소로 8.7% 증가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21개소에서 28개소로 33.3% 증가하였음

〈표 3-5-11〉 사회복지관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계	391	425	8.7	21	28	33.3
사회복지법인	289	311	7.6	10	11	10.0
비영리법인	58	60	3.5	3	4	33.3
학교법인	22	24	9.1	1	1	-
지방자치단체	22	30	36.4	7	12	71.4
기타	-	-	-	-	-	-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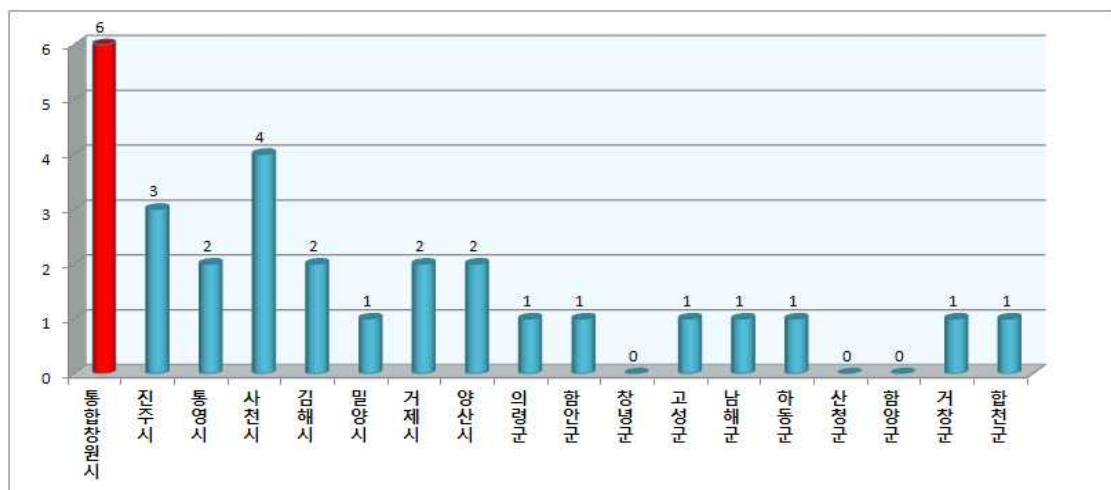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 사회복지관은 시지역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 일부 군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경남 시군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9개의 사회복지관 중 시 지역에 22개로 75.9%를 차지하며, 나머지 7개가 군지역에 있음. 시 지역의 사회복지관 중 창원시가 6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천시 4개, 진주시 3개 밀양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2개씩 있음. 군 지역의 경우 창녕군과 산청군, 함양군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으며, 나머지 군 지역에는 1개소씩 있음
- 사회복지관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시 지역은 1개의 복지관이 12만 5,545명을 관할한다고 보면, 군 지역은 37,187명으로 적은 수치가 나타남.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은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농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인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표 3-5-12〉 경남 시군별 인구 및 사회복지관 현황(2010년) (단위 : 명, 개소)

행정구역	인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당 인구
전체	3,307,201(100.0)	29(100.0)	87,965
창원시	1,092,167	6	182,027
진주시	335,466	3	111,822
통영시	140,180	2	70,090
사천시	114,063	4	28,516
김해시	506,767	2	253,383
밀양시	109,419	1	109,419
거제시	231,992	2	115,996
양산시	266,205	2	133,103
시계(%)	2,796,259(84.6)	22(75.9)	125,545
의령군	29,871	1	29,871
함안군	66,992	1	66,992
창녕군	62,310	0	-
고성군	57,251	1	57,251
남해군	49,872	1	49,872
하동군	54,322	1	54,322
산청군	35,617	0	-
함양군	41,148	0	-
거창군	63,174	1	63,174
합천군	50,385	1	50,385
군계(%)	510,942(15.4)	7(24.1)	37,187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2011년 11월 주민등록인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1.11월 기준.



〈그림 3-5-5〉 경남 시군별 인구 및 사회복지관 현황(2010년) (단위 : 개소)

## 2)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시·군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표 3-5-13〉 경남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2010년) (단위 : 개소, %)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경남	29(100.0)	210(100.0)	189(100.0)	29(100.0)	101(100.0)
창원	7	49	58	7	32
진주	3	13	16	2	9
통영	2	8	9	1	7
사천	3	12	8	1	3
김해	2	22	17	4	10
밀양	2	9	8	3	5
거제	2	5	17	2	5
양산	1	15	9	1	6
시계	22(75.9)	133(63.3)	142(75.1)	21(72.4)	77(76.2)
의령	1	7	4	1	1
함안	1	10	6	1	2
창녕	-	6	5	-	3
고성	1	8	6	3	2
남해	1	5	7	1	3
하동	1	6	2	-	4
산청	-	11	5	-	2
함양	-	9	3	1	2
거창	1	8	6	-	3
합천	1	7	3	1	2
군계	7(24.1)	77(36.7)	47(24.9)	8(27.6)	24(23.8)

주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종합복지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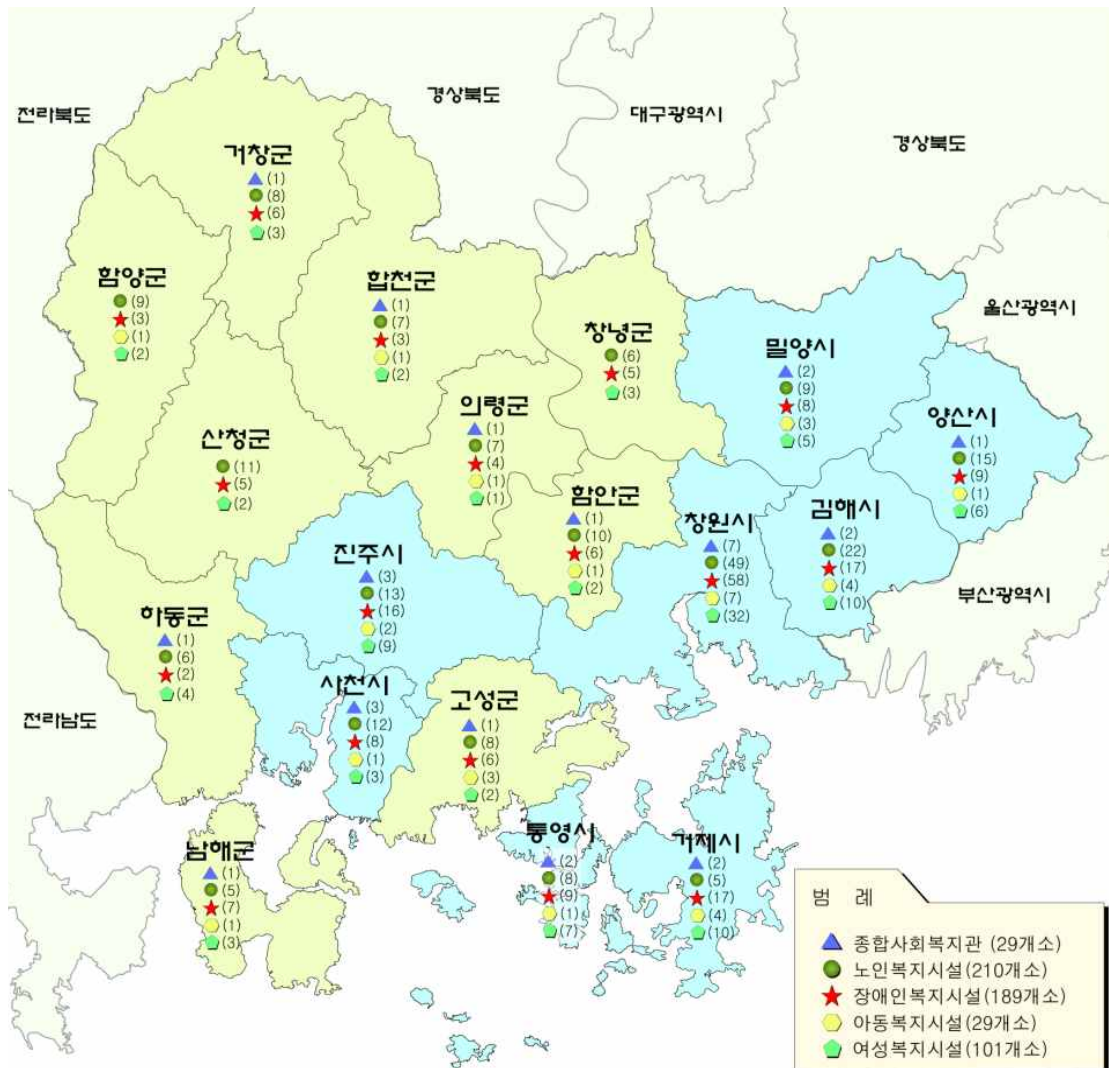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센터,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중증요양시설, 장애유아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거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아동복지시설 - 보호치료, 양육시설, 전용시설, 아동상담소, 개인양육시설 포함.

여성복지시설 - 성폭력상담소, 여성교육기관,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법률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자료 : 경상남도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검색, 2011.





〈그림 3-5-6〉 경남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 3) 노인복지 현황

-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경남의 경우 2015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평균보다 빠른 노령화가 예상됨

〈표 3-5-14〉 경남의 노인인구(65세이상) 변화추이(단위: 천명, %)

년도	1980	1990	1994	1998	2000	2005	2008	2010	2015	2020	2030
전국인구	38,124	42,869	44,642	46,287	47,008	48,138	48,607	48,875	49,277	49,326	48,635
노인인구	1,456	2,195	2,542	3,069	3,395	4,367	5,016	5,357	6,381	7,701	11,811
비율	3.8	5.1	5.7	6.6	7.2	9.1	10.3	11.0	12.9	15.6	24.3
경남인구	2,746	2,776	2,886	3,000	3,036	3,108	3,131	3,141	3,142	3,124	3,076
노인인구	132	179	206	246	269	324	366	384	440	520	792
비율	4.8	6.4	7.2	8.1	8.9	10.2	11.4	12.2	14.0	16.6	25.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을 바탕으로 재구성.

- 2010년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 고령화율은 11.8%로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경상남도의 고령화률을 살펴보면, 의령군, 함천군, 남해군이 30%를 넘어섰음. 주목할 점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고령화률이 높았으며, 8개 시 평균은 9.3%인데 비해, 군 지역의 경우 평균 25.5%로, 함안군을 제외하고 9개 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음

〈표 3-5-15〉 경남 노인인구 현황(2010.12.31기준)

구 분	총인구수	노인인구수	구성비(%)
창원시	1,090,181	88,196	8.1
진주시	335,037	38,938	11.6
통영시	140,297	16,655	11.9
사천시	114,148	17,904	15.7
김해시	503,348	36,178	7.2
밀양시	110,479	21,681	19.6
거제시	228,355	16,475	7.2
양산시	260,239	22,794	8.8
8개시 평균	2,782,084	258,821	9.3
의령군	30,162	9,167	30.4
함안군	67,207	12,232	18.2
창녕군	61,714	15,187	24.6
고성군	57,231	13,102	22.9
남해군	49,328	14,984	30.4
하동군	51,509	13,364	25.9
산청군	35,591	10,432	29.3
함양군	41,197	11,323	27.5
거창군	63,421	14,083	22.2
합천군	51,092	15,912	31.1
10개군 평균	508,452	129,786	25.5
합계	3,290,536	388,607	11.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 노인복지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중심으로 쏠림현상을 엿볼 수 있음

〈표 3-5-16〉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 개소)

종 류	시 설	전국		경남	
		2010		2010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계		69,237	163,136	7,346	10,151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397	17,270	14	1,083
	양로시설	300	11,906	12	1,065
	노인공동생활가정	75	618	2	18
	유료노인복지주택	22	4,746	-	-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3,852	131,074	200	8,280
	노인요양시설	2,429	107,506	162	7,36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46	11,361	35	288
	노인전문병원	77	12,207	3	628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2,469	-	6,967	-
	노인복지관	259	-	16	-
	경로당	60,737	-	6,867	-
	노인교실	1,464	-	83	-
	노인휴양소	9	-	1	-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2,496	14,792	165	788
	방문요양서비스	1,118	-	73	-
	주야간보호서비스	786	14,086	47	723
	단기보호서비스	67	706	5	65
	방문목욕서비스	525	-	40	-

주 :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 08 및 ' 07년에는 사군구 조사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 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 07년 2,012세대임)

자료 :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11.

#### 4) 장애인복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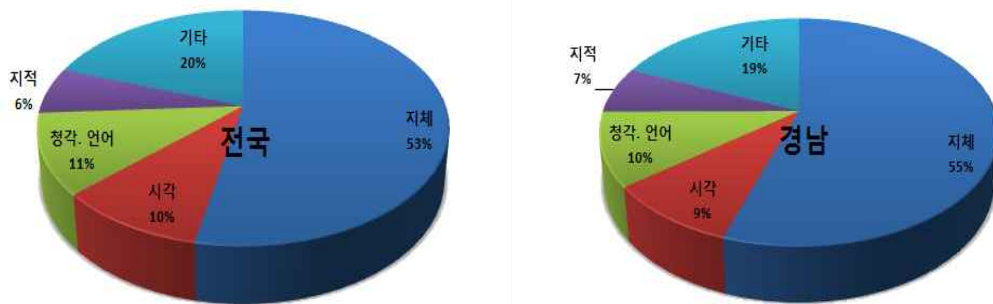
- 장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국 2,517,312명(2005년도 대비 41.6% 증가) 중 지체장애는 1,337,722명으로 2005년 대비 39.5% 증가하였고, 시각장애 249,259명(32.5% 증가), 청각언어장애 277,610명(59.3% 증가), 지적장애 161,249명(27.2% 증가), 기타 491,472명(49.4%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남의 경우, 전체 180,880명(42.0% 증가) 중 지체장애 99,800명(40.0% 증가), 시각장애 16,793명(34.4% 증가), 청각·언어장애 18,909명(52.1% 증가), 지적장애 11,845명(28.6%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은 생계 및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 직업재활, 의료재활의 서비스 결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들 수 있음

〈표 3-5-17〉 장애인등록 현황(단위: 명)

구 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계	1,777,400	2,517,312	41.6	127,411	180,880	42.0
지체	959,133	1,337,722	39.5	71,518	99,800	40.0
시각	188,172	249,259	32.5	12,493	16,793	34.4
청각언어	174,302	277,610	59.3	12,432	18,909	52.1
지적	126,764	161,249	27.2	9,211	11,845	28.6
기타	329,029	491,472	49.4	21,757	33,533	54.1

주 : 기타;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에 대한 장애인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등록장애인수-장애등급별



〈그림 3-5-7〉 전국 및 경남의 장애인 장애종류 비교

〈표 3-5-18〉 경남 시군별 장애등급별 현황(2009년)(단위: 명)

연별 및 시·군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9	175,198 (100.0)	15,144 (100.0)	27,456 (100.0)	30,319 (100.0)	25,659 (100.0)	37,976 (100.0)	38,644 (100.0)
창원시	48,842	3,820	7,245	8,166	6,641	11,242	11,728
진주시	16,819	1,614	2,840	2,779	2,459	3,578	3,549
통영시	7,438	705	1,052	1,255	1,217	1,742	1,467
사천시	7,260	663	1,225	1,243	1,108	1,595	1,426
김해시	21,754	1,821	3,367	3,969	2,942	4,204	5,451
밀양시	8,281	671	1,340	1,695	1,253	1,617	1,705
거제시	10,418	991	1,511	1,891	1,331	2,413	2,281
양산시	10,726	1,026	1,630	2,034	1,525	1,992	2,519
시계 (%)	131,538 (75.1)	11,311 (74.7)	20,210 (73.6)	23,032 (76.0)	18,476 (72.0)	28,383 (74.7)	30,126 (78.0)
의령군	2,971	336	517	496	489	636	497
함안군	4,963	429	844	803	770	1,114	1,003
창녕군	4,972	410	800	871	785	1,048	1,058
고성군	4,695	389	768	828	754	1,039	917
남해군	4,825	408	741	743	955	1,076	902
하동군	4,834	415	797	870	772	1,056	924
산청군	3,383	382	635	514	535	731	586
함양군	3,579	301	629	582	601	805	661
거창군	4,760	343	739	789	749	1,099	1,041
합천군	4,678	420	776	791	773	989	929
군계 (%)	43,660 (24.9)	3,833 (25.3)	7,246 (26.4)	7,287 (24.0)	7,183 (28.0)	9,593 (25.3)	8,518 (22.0)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등록장애인 수는 미약하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임. 1997년 1.0%에서 2000년 들어 2.1%, 2010년 5.8%로 증가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

〈표 3-5-19〉 경남의 등록장애인 수 변화추이(단위: 천명,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전국인구	46,684	16,991	47,335	47,732	48,021	48,229	48,583	48,991	49,540	49,773	50,515
장애인구	425	527	697	958	1,134	1,294	1,610	1,967	2,246	2,429	2,517
비율	0.9	3.1	1.5	2.0	2.4	2.7	3.3	4.0	4.5	4.9	5.0
경남인구	2,975	3,000	3,020	3,036	3,047	3,069	3,100	3,117	3,131	3,137	3,141
장애인구	30	35	47	64	77	90	114	141	163	175	181
비율	1.0	1.2	1.6	2.1	2.5	2.9	3.7	4.5	5.2	5.6	5.8

자료 : 보건복지자료실-연도별 장애인등록현황, 경남통계-연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년도.

- 장애시설(생활시설)의 2005년도 대비 2010년도 증가율은 1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표 3-5-20〉 장애시설 현황(생활시설을 중심으로)(단위: 개소)

구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생활시설	265	452	70.6	13	28	115.4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3-5-21〉 경남 장애복지시설 현황(2009년)(단위: 개소)

시군별	갯수
경남(100.0)	24(100.0)
창원시	4
진주시	1
통영시	1
사천시	1
김해시	3
밀양시	1
거제시	3
양산시	2
시계(%)	16(66.7)
의령군	1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1
남해군	1
하동군	1
산청군	2
함양군	-
거창군	1
합천군	1
군계(%)	8(33.3)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05년도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율을 보면, 경남은 일반 수급자에 비해 시설수급자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전국 4.5% 증가, 경남 15.1% 증가)

〈표 3-5-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단위 : 가구, 명)

구분		전국			경남		
년도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수급자계	가구	809,745	878,799	8.5	61,382	63,004	2.7
	인원	1,513,352	1,549,820	2.4	107,186	104,797	-2.2
일반수급자	가구	809,745	878,799	8.5	61,382	63,004	2.7
	인원	1,425,684	1,458,198	2.3	101,646	98,419	-3.2
시설수급자수		87,668	91,622	4.5	5,540	6,378	15.1

자료 : 경상남도 주요통계.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3-5-23〉 경남 시군별 저소득층 현황(2009)(단위 : 가구, 명)

행정구역 (시군)	가구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원	인원	가구	인원	시설 수	인원	가구	인원
경남 (100.0)	63,227 (100.0)	107,013 (100.0)	61,578 (100.0)	98,214 (100.0)	130 (100.0)	6,128 (100.0)	1,649 (100.0)	2,671 (100.0)
창원시	13,308	22,423	13,064	20,604	28	1,443	244	376
진주시	6,863	12,244	6,790	11,693	6	434	73	117
통영시	3,751	6,358	3,720	6,083	6	234	31	41
사천시	3,513	5,678	3,397	5,210	5	273	116	195
김해시	7,870	14,001	7,493	12,832	12	570	377	599
밀양시	3,437	5,506	3,349	5,102	7	249	88	155
거제시	2,622	4,662	2,582	4,081	8	503	40	78
양산시	3,720	6,840	3,606	6,261	12	395	114	184
시계 (%)	45,084 (71.3)	77,712 (72.6)	44,001 (71.5)	71,866 (73.2)	84 (64.6)	4,101 (66.9)	1,083 (65.7)	1,745 (65.3)
의령군	1,131	1,945	1,112	1,608	4	311	19	26
함안군	2,057	3,209	2,040	3,133	3	48	17	28
창녕군	2,278	3,356	2,262	3,293	3	43	16	20
고성군	1,516	2,602	1,379	1,958	10	417	137	227
남해군	1,861	2,944	1,733	2,565	4	176	128	203
하동군	2,178	3,507	2,136	3,322	2	130	42	55
산청군	1,544	2,599	1,497	2,244	6	281	47	74
함양군	1,618	2,672	1,580	2,239	7	340	38	93
거창군	2,053	3,392	1,951	3,144	2	72	102	176
합천군	1,907	3,075	1,887	2,842	5	209	20	24
군계 (%)	18,143 (28.7)	29,301 (27.4)	17,577 (28.5)	26,348 (26.8)	46 (35.4)	2,027 (33.1)	566 (34.3)	926 (34.7)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상남도 주요통계. 2010,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경남 지역내 복지서비스 불균형 심화 및 복지시설의 역할 전환

- 경남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편중화, 군 지역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보다는 복지시설의 역할 및 기능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 (2)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복지는 성장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 아닌, 성장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안전장치이자 새로운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며,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복지는 지속불가능함
- 사회적 양극화,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요구됨

### (3)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계층의 다양한 욕구증대

- 일에 대한 유동적 선택의 증가와 함께 노동의 유형과 질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연령기반을 중심으로 한 은퇴시스템이 아닌 유연한 삶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또한, 은퇴 후 삶의 여가문화와 인생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며 생활과 일자리 측면에서 고용가능성의 유지가 중요함. 근로연수를 늘리고 노인계층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체계가 요구됨

### (4)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 빈곤층만을 위한 잔여적(선택적) 복지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임
- 사회복지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문화, 교육, 관광 등의 제분야의 정책이 복지와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며, 복지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5)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 및 복지수요의 다양화·고급화

- 일방적인 급여와 제공이 아닌,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예방적 차원의 복지가 필요함
- 연령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복지행정체계가 요구됨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다함께 누리는 체감복지 강화

- 빈곤층만을 위한 잔여적(선택적) 복지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편중화, 군 지역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개선과 복지시설의 역할·기능 다양화 추진

#### (1)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제도의 내실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지원 및 여건 조성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경남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후평가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경남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
  -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복지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복지행정을 시스템화 해야 함. 사업의 대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얻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신규 복지시책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성 검토가 요구됨

#### (2)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친화형 복지체계 구축

-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지역사회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지원기관 발굴 및 구축사업 실시
  -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발굴
- 연령 다양성 확보 및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며 건강장수시대에 맞는 일에 대한 문화,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노인 생활문화 지원 사업 발굴
  - 지역사회와 밀착된 노인 문화, 여가교육 사업 실시
  - 실버문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 경남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노인친화적 도시 구축이 필요하며 은퇴자의 자원봉사 참여 및 전직지원 시스템 기반 확충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기반 구축

- 노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따른 활동보조금 제공
- 노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 노인 분야별 전문가 육성
- 은퇴자에 재교육을 통한 전문직종 자문위원회 구성

### (3)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및 특성화

-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시설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인접지역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 간 대상자·재원 관리 DB구축 협력 및 강화
  - 각 지역 복지시설들 간의 간담회 실시(서비스 제공 공유, 발굴, 연계)
-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욕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만이 해결대안은 아니며, 효율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농촌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지속
  - 농촌 통합지원 정책 효율화 모색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 각 대상자에 따른 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

### (4)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속
  -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 강화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화
  - 가족통합서비스 개발
  -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지원 사업 개발(1인가구, 편부모가구, 조부모가구 등)
  -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및 연계기관들을 구축하는 사업 실시, 지자체 운영기관을 지정

### (5)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 발굴 및 지속
  -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턴 채용 등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 장애인 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세금감면) 확대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
  - 고령 장애인들의 생활비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지원(현금, 현물) 법적 제도 마련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공공기관 및 문화공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교통권(저상버스, 장애인전용택시) 확대보장 및 가정내 장애인 응급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전용 재활전문병원 확충
- 사회적 편견을 도모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지속
  -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속
  - 장애인 차별자 법적 처벌 활성화(강화)

#### (6)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구축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자원구축, 자원발굴 활성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한 자원발굴, 등록 활성화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실시
  - 대상자에 맞는 사례 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민관기관들의 협력체계 체결
- 민·관 공동의 지역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
  - 희망복지지원단 등 민간자원 및 자원봉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

#### (7) 재정안전성 확보

-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지향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계획 필요
  - 예산절감을 통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며, 세금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정책의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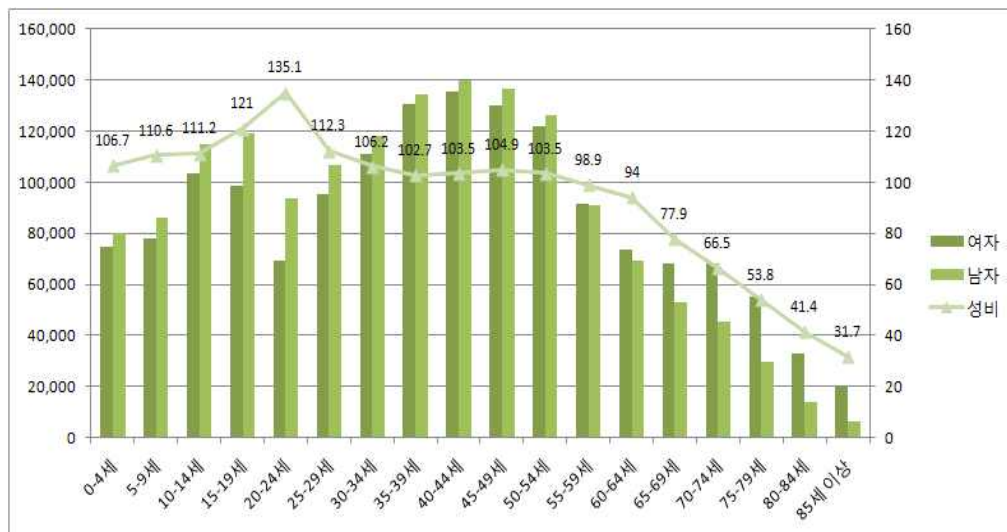
## 제3절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지역 여성 현황

## ■ 경남 여성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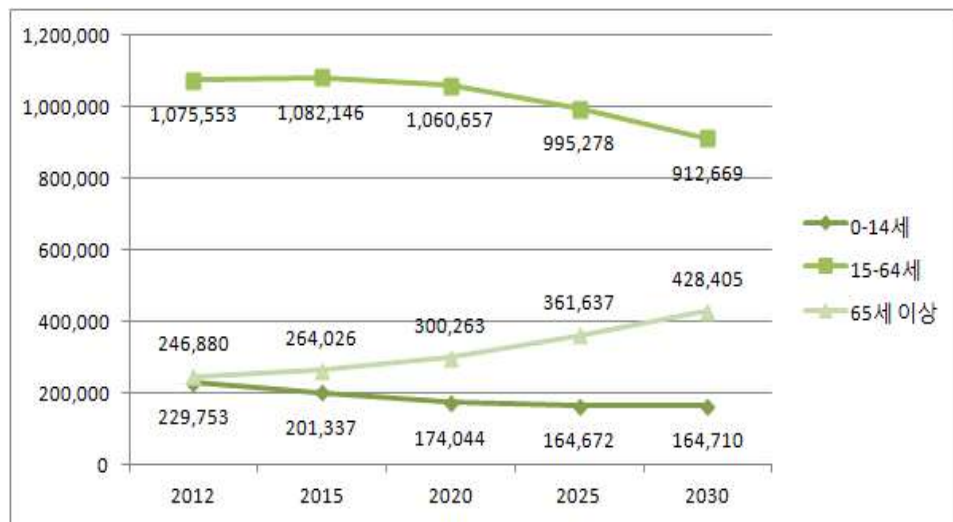
- 경남의 여성인구는 2010년 연령별 성비를 보면 20세~24세가 135.1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고 있음. 55세 이후 성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짐
- 특히, 80세 이후 여성 비율은 남성의 2배 이상임



〈그림 3-5-8〉 연령별 인구 및 성비(2010)(단위 : 명, 여성100명당 남성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246,880명인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2030년 428,405명으로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15-64세 인구는 2012년 1,075,553명에서 2030년 912,669명으로 162,884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0-14세 인구는 2012년 229,753명에서 2030년 164,710명으로 65,043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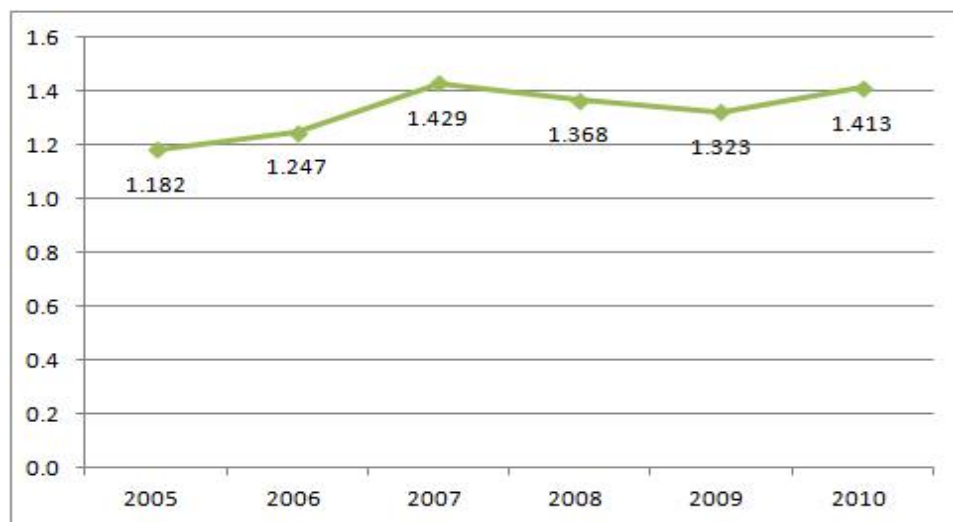


〈그림 3-5-9〉 여성의 장래추계인구(2012-2030)(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 합계 출산율

- 최근 합계출산율을 보면 2005년 1.182, 2006년 1.247, 2007년 1.4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08년에는 1.368, 2009년 1.323으로 감소하다 2010년 다시 1.413으로 증가함
- 5년 간을 비교해 보면 2010년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과 비교하면 0.231 증가하였음. 2007년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황금돼지해가 좋다는 사회적 통념에 의한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1.429로 5년(2005~2010)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3-5-10〉 합계출산율 추이(2005~201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단위:명)

### ■ 경남 여성경제활동

- 경남의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639천명이었고 2008년 64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655천명, 2010년 652천명으로 감소함
-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8%에서 2007년 50.1%까지 감소하다 2008년 51.0%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09년 50.2%, 2010년 49.3%로 감소함
- 2010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652천명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924천명 보다 272천명 적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3%로 남성의 72.7%보다 23.4%p 적음
- 2010년 경남 여성의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5~29세 60,548명으로 증가했다가 30~34세 54,435명으로 감소하고 35세부터 다시 증가하여 40~44세가 86,274명으로 가장 많음
- 여성들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육아가 끝나면서 복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여줌
- 남성의 경우 40~44세 구간의 취업자수가 118,6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45세 이후 감소하는 종 모양을 보임



〈그림 3-5-11〉 연령별 취업자(2010)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연보.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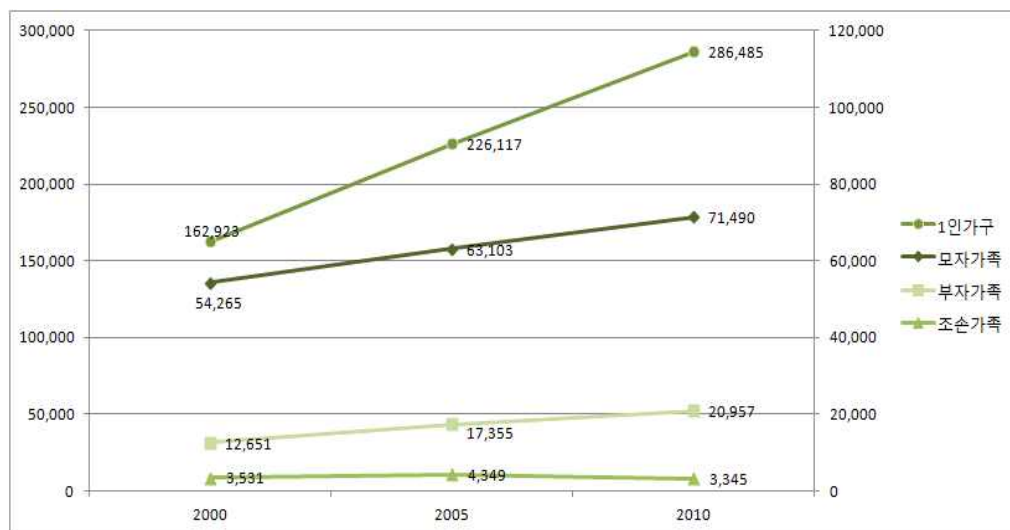
### ■ 가족형태의 다양화

- 경남의 총 가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보여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 162,923가구였던 1인가구가 2010년 286,485가구로 10년새 1.8배 가량 증가함
-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의 비율 역시 증가하여 2000년 54,265가구에서 71,490가구로 1.3배 가량 증가함

〈표 3-5-24〉 세대구성별 가구(단위: 가구)

구 분	2000		2005		2010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총가구수	14,311,807	951,393	15,887,128	1,056,007	17,339,422	1,151,172
한부모가족	1,123,854	66,916	1,369,943	80,458	1,594,138	92,447
모자가족	903,857	54,265	1,083,020	63,103	1,246,690	71,490
부자가족	219,997	12,651	286,020	17,355	1,347,448	20,957
조손가족	45,225	3,531	58,101	4,349	51,159	3,345
1인가구	2,224,433	162,923	3,170,675	226,117	4,142,165	286,485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그림 3-5-12〉 경남 세대구성별 가구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단위 : 가구)

### 외국인 및 국제결혼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함. 경남의 외국인 인구도 2000년 0.46%에서 2010년 1.72%로 증가
- 2010년 경남의 시·군 중 거제시와 함안군이 각각 인구의 3.42%, 3.75%가 외국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하동군과 거창군은 인구의 0.67%만이 외국인으로 비율이 가장 낮음

〈표 3-5-25〉 외국인 추이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244,172 (0.51)	267,630 (0.55)	287,923 (0.59)	437,014 (0.90)	469,183 (0.96)	485,477 (0.99)	632,490 (1.27)	765,429 (1.53)	854,007 (1.69)	870,636 (1.72)	918,917 (1.79)
경남	14,261 (0.46)	17,621 (0.56)	19,057 (0.61)	23,173 (0.73)	24,920 (0.79)	26,679 (0.84)	35,953 (1.12)	42,389 (1.31)	51,707 (1.58)	53,222 (1.61)	57,718 (1.72)
창원시	5,567 (0.51)	6,740 (0.61)	6,823 (0.62)	6,700 (0.61)	7,231 (0.66)	7,712 (0.70)	10,644 (0.97)	11,780 (1.08)	12,701 (1.16)	12,230 (1.12)	13,668 (1.24)
진주시	714 (0.21)	763 (0.22)	873 (0.26)	1,045 (0.31)	1,131 (0.33)	1,494 (0.44)	2,083 (0.62)	2,500 (0.75)	3,015 (0.90)	3,045 (0.91)	3,438 (1.02)
통영시	251 (0.18)	298 (0.22)	474 (0.35)	519 (0.39)	654 (0.49)	634 (0.48)	1,174 (0.87)	1,616 (1.19)	2,516 (1.81)	3,154 (2.24)	3,335 (2.32)
사천시	217 (0.18)	250 (0.21)	351 (0.30)	504 (0.44)	547 (0.48)	637 (0.57)	932 (0.82)	1,217 (1.07)	1,654 (1.44)	1,830 (1.60)	2,075 (1.79)
김해시	3,453 (0.99)	3,381 (0.95)	3,644 (0.93)	5,526 (1.34)	5,644 (1.30)	5,779 (1.29)	8,197 (1.77)	10,129 (2.13)	12,453 (2.54)	12,643 (2.50)	13,968 (2.70)
밀양시	362 (0.29)	394 (0.32)	466 (0.39)	699 (0.59)	737 (0.63)	684 (0.60)	822 (0.73)	978 (0.87)	1,052 (0.94)	942 (0.85)	993 (0.89)
거제시	1,047 (0.59)	1,516 (0.84)	1,862 (1.01)	2,642 (1.40)	3,293 (1.70)	3,874 (1.94)	4,409 (2.14)	5,430 (2.54)	7,644 (3.40)	8,067 (3.45)	8,080 (3.42)
양산시	890 (0.46)	2,090 (1.03)	2,346 (1.13)	2,847 (1.33)	2,670 (1.23)	2,644 (1.18)	3,148 (1.37)	3,343 (1.42)	3,840 (1.56)	3,820 (1.50)	4,095 (1.55)
의령군	174 (0.50)	206 (0.61)	217 (0.66)	244 (0.74)	310 (0.95)	261 (0.83)	305 (0.96)	340 (1.07)	461 (1.48)	469 (1.51)	573 (1.86)
함안군	515 (0.79)	686 (1.04)	634 (0.98)	849 (1.32)	1,016 (1.61)	980 (1.57)	1,407 (2.17)	1,744 (2.62)	2,318 (3.39)	2,344 (3.40)	2,615 (3.75)
창녕군	158 (0.22)	168 (0.24)	169 (0.24)	325 (0.48)	328 (0.49)	458 (0.70)	622 (0.97)	683 (1.09)	778 (1.25)	833 (1.34)	1,037 (1.65)
고성군	247 (0.39)	286 (0.46)	297 (0.49)	332 (0.56)	336 (0.58)	347 (0.61)	518 (0.93)	670 (1.20)	1,081 (1.90)	1,454 (2.48)	1,349 (2.30)
남해군	113 (0.19)	123 (0.21)	221 (0.39)	199 (0.36)	199 (0.37)	223 (0.43)	352 (0.69)	397 (0.72)	460 (0.90)	523 (1.03)	561 (1.12)
하동군	51 (0.09)	72 (0.12)	61 (0.11)	100 (0.17)	107 (0.19)	115 (0.22)	172 (0.32)	231 (0.41)	250 (0.46)	291 (0.56)	350 (0.67)
산청군	37 (0.09)	52 (0.13)	65 (0.17)	97 (0.26)	114 (0.31)	166 (0.46)	234 (0.65)	287 (0.81)	312 (0.88)	318 (0.90)	309 (0.86)
함양군	167 (0.36)	166 (0.37)	158 (0.36)	160 (0.37)	148 (0.35)	169 (0.41)	305 (0.74)	343 (0.84)	370 (0.91)	446 (1.09)	418 (1.00)
거창군	111 (0.16)	139 (0.20)	120 (0.18)	148 (0.22)	154 (0.23)	170 (0.26)	259 (0.40)	311 (0.48)	369 (0.58)	405 (0.64)	430 (0.67)
합천군	187 (0.30)	291 (0.49)	276 (0.48)	237 (0.39)	301 (0.52)	332 (0.57)	370 (0.67)	390 (0.70)	433 (0.77)	408 (0.76)	424 (0.82)

자료 : 통계청 KOSIS, 외국인등록인구(2000~2010)

-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과 경남은 각각 98.8%, 87.1% 증가하였으며, 각 시·군 중에는 산청군이 348.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2005년에서 2010년 사이는 전국은 89.3% 증가하였고, 경남은 116.3% 증가. 시·군 중에는 통영시



가 426.0%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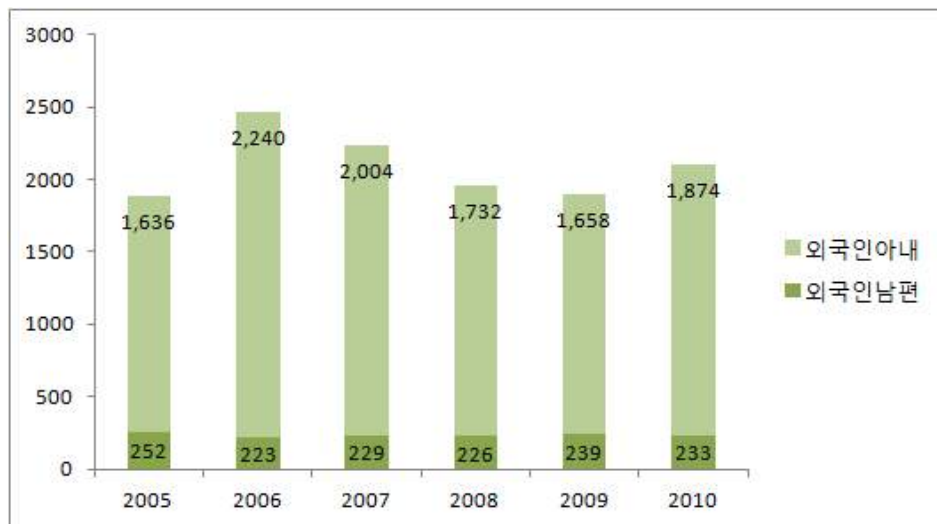
- 지난 10년 동안 전국은 외국인 수가 674,745명(276.3%) 증가하였으며, 경남은 43,457명(304.7%) 증가함. 시·군 중에는 통영시가 1228.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표 3-5-26〉 외국인 수 증가율 (단위 : 명/%)

구 분	2000-2005 증가율	2005-2010 증가율	2000-2010	
			증가수	증가율
전국	98.8	89.3	674,745	276.3
경남	87.1	116.3	43,457	304.7
창원시	38.5	77.2	8,101	145.5
진주시	109.2	130.1	2,724	381.5
통영시	152.6	426.0	3,084	1228.7
사천시	193.5	225.7	1,858	856.2
김해시	67.4	141.7	10,515	304.5
밀양시	89.0	45.2	631	174.3
거제시	270.0	108.6	7,033	671.7
양산시	197.1	54.9	3,205	360.1
의령군	50.0	119.5	399	229.3
함안군	90.3	166.8	2,100	407.8
창녕군	189.9	126.4	879	556.3
고성군	40.5	288.8	1,102	446.2
남해군	97.3	151.6	448	396.5
하동군	125.5	204.3	299	586.3
산청군	348.6	86.1	272	735.1
함양군	1.2	147.3	251	150.3
거창군	53.2	152.9	319	287.4
합천군	77.5	27.7	237	126.7

자료 : 통계청 KOSIS, 외국인등록인구(2000~2010). 증가율 산출.

- 2005년 경남의 국제결혼건수는 1,888건이며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1,636건으로 86.7%임. 2010년 경남의 국제결혼건수는 2,107건이며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1,874건으로 88.9%임



〈그림 3-5-13〉 국제결혼건수(2005-201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단위:건)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지역여건 전망

#### ■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도전 필요

- 2011년 전국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남도 성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의 최하위로 보고됨(2011,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 등 4개 영역에서 경남은 전국과 비교해서 하위 점유
- 따라서, 경남여성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의 변화가 요구됨

#### ■ 여성경제활동 제고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요구 증대

- 경남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50% 내외로 남성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20~25%가량 낮은 편
- 또한, 연령별 취업자 곡선도 M자형으로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40세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의 요구 증가
- 따라서,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 가족형태의 다양화 지속

-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증가. 또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다문화가족 급증

- 경남의 국제결혼건수는 2005년도에 비해 2010년도는 11.6% 증가했으며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14.5% 증가
-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수도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2010년 969개소에서 2011년 1,245개소로 28.5%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 수도 2010년 2,770명에서 2011년 3,597명으로 29.9%나 증가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출신 배우자의 적응과 취업,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 안심할 수 있는 보육,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심 증대

- 일-가정 양립지원과 안전한 보육지원, 보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요구 증가
-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학교-경찰청 연계 및 공조체계 시급

## (2) 정부정책 변화

### ■ 여성능력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확대

-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 고갈과 부양 부담 급증으로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잠재된 여성인력 부각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욕구와 함께 고학력, 청년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 ■ 여성, 가족이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

- 여성·아동·권익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지속될 전망
-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감소하였으나 신변중 업소, 해외 성매매 발생 등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또한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벌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 요구

### ■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환경 조성

-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로 국민체감도 향상. 지역사회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 지식기반사회 진전, 글로벌 경쟁 보편화,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시급
- 인터넷 이용 일상화, 신·변종 유해업소 확산, 학교폭력 심각화 등으로 청소년 보호 및 사회환경

개선 요구

### ■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 가족기능 강화
  -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 주력
  -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 지원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및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3) 지역정책 변화

#### ■ 여성가족정책관실 설치로 여성·가족 정책 활성화 의지 확대

- 경남은 2011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관련 직제를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개편
- 여성, 청소년, 출산, 보육, 다문화 등 여성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경남, 함께하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의 다각화·통합화 도모

#### ■ 출산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

-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 확대 및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제고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부모 보육참여 장려, 보육시설 안전점검, 교체 등 제도 강화
- 보육료 지원확대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확보 주력
- 청소년 역량증진과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노력

####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안정적 정책지원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확대
-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지원 : 방문교육사업, 복지향상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사업 실시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사회전반의 여성과 다문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 및 가족환경 전반에 대한 지역환경의 개선정책 추진

#### 1) 정책실효성 제고

##### ■ 여성정책의 실효성·체감도 제고

-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정책관의 위상 제고를 통한 여성정책 실효성 제고
  -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및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여성발전기금의 단계별 확충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정책수혜도 제고
  - 도정의 성별영향 분석의 정교화를 통해 정책의 여성수혜도 증가 도모. 성별영향평가 건수 증대 및 보고서 작성의 내실화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정책의 성인지성을 높이고, 정책개선을 선도
  -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시·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서 지정 및 협의체 구축 장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유도
- 성평등 취약분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성평등 지수 관리
  - 경남도 성불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 즉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지원가능 영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실현
  - 정책적인 영역 이외에 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및 공조체계 구축
-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을 통한 여성정책의 다각화·정교화
  - 지역 여성·가족의 삶의 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수립
  - 교육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 여성사회참여 촉진
- 여성능력 제고 및 취업확대를 위한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의 내실화
  -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시 단위로 확대(현재 7개소 → 9개소, 도단위 포함)

- 여성 직업교육 훈련 및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연계
- 여대생 커리어개발을 통한 청년여성 취업 제고
-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여성폭력 근절
  - 성폭력 우려여성(소녀)을 위한 주거지원사업(1개소 → 3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지원 및 활성화

## 2) 적극적인 출산 및 양육정책 확대

### ■ 출산·보육·양육 염려없는 경남 구현

- 출산지원 확대 및 모성, 영유아 건강 증진
  - 출산 장려 및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및 둘째아 출산 지원책 마련
  - 모성·영유아 건강 증진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속 등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속, 시군보건소·병·의원 협조체제 구축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 전 연령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지속
  - 어린이집 환경개선 확대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희망세상 실현

-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및 아동보호
  - 지역사회 아동복지 인프라구축, 아동급식 지원, 아동학대 예방
- 건강한 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지자체-교육청-경찰청 공조체제 구축
  - 주5일 수업에 따라 청소년 돌봄·체험활동 주말 연장 운영 확대
  - 위기청소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체제 구축 및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지원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체제 강화

## 3) 다양한 가족, 다문화사회 구현

### ■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지원

- 고령여성노인을 위한 노후지원 체계 구축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지원 및 취업지원

###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 이해를 넘어 상생의 다문화 정책 강화

- 외국인 지원기관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연계·조정 요구
  - 관공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 복지타운의 건립으로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도민의 이해도 제고
-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그 동안 외국인의 한국 이해를 위한 교육이 주가 되었으나,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폭 넓은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성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 병행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 경남의 많은 비중이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고용주 및 허위초청·알선자 처벌 강화

## 제4절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확충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지역교육 현황

## ① 초등학교

## ■ 학교수

- 경남의 초등학교 연평균 증감율은 0.98%이며 2010년 현재 495개임
- 지난 10년간 평균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산시 3.73%이고, 함안군과 창녕군, 하동군은 평균 증감율이 각각 -0.53%, -1.08%, -0.53%로 학교수가 감소함

〈표 3-5-27〉 초등학교 수(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449	455	460	468	476	482	493	491	498	495	495	0.98
창원시	90	92	93	96	99	101	101	103	105	105	105	1.56
진주시	41	42	43	44	44	44	45	43	44	41	41	0.05
통영시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0.53
사천시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19	0.03
김해시	40	42	42	46	48	51	56	56	56	56	57	3.67
밀양시	23	23	23	23	23	23	24	24	24	23	23	0.02
거제시	29	29	30	31	32	32	33	33	35	35	35	1.92
양산시	23	24	26	26	27	28	31	31	32	33	33	3.73
의령군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0.00
함안군	19	19	19	19	19	19	19	18	18	18	18	-0.53
창녕군	19	19	19	18	18	18	18	17	17	17	17	-1.08
고성군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0.00
남해군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0.00
하동군	19	19	19	19	19	19	19	18	18	18	18	-0.53
산청군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0.00
함양군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0.00
거창군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0.63
합천군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0.00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 학생수

- 경남의 초등학생 수는 200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증감율은 -1.62%로 나타남
- 창녕군의 평균 증감율은 -4.85%로 학생수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고, 김해시와 거제시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각각 2.01%, 1.80% 증가함

〈표 3-5-28〉 초등학교 학생수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269,119	273,581	278,337	283,708	280,491	275,274	270,349	264,776	254,368	240,129	227,813	-1.62
창원시	104,626	106,382	107,402	106,965	103,828	99,406	95,740	92,546	87,052	80,625	75,588	-3.16
진주시	29,041	29,225	29,858	30,228	30,101	29,387	28,590	27,619	26,595	25,144	23,658	-1.99
통영시	10,516	10,308	10,150	10,253	10,019	10,014	9,816	9,867	9,685	9,260	8,905	-1.64
사천시	8,462	8,816	8,916	8,966	9,036	8,816	8,671	8,600	8,270	7,720	7,252	-1.48
김해시	36,061	38,454	40,630	45,180	46,224	47,367	47,982	47,827	47,037	45,081	43,595	2.01
밀양시	8,784	8,738	8,651	8,491	8,189	7,780	7,447	7,122	6,792	6,276	5,806	-4.03
거제시	15,880	16,345	17,084	17,890	18,579	18,907	19,412	19,936	19,882	19,536	18,915	1.80
양산시	20,151	21,142	21,809	22,250	21,787	21,667	22,021	21,736	21,249	20,595	19,853	-0.11
의령군	1,748	1,773	1,770	1,705	1,645	1,570	1,505	1,414	1,350	1,229	1,149	-4.07
함안군	4,583	4,596	4,664	4,669	4,612	4,449	4,220	4,245	4,131	3,987	3,815	-1.79
창녕군	4,673	4,627	4,476	4,409	4,181	4,050	3,911	3,663	3,330	3,056	2,830	-4.85
고성군	3,860	3,790	3,751	3,711	3,560	3,456	3,265	3,140	2,960	2,755	2,627	-3.76
남해군	3,404	3,319	3,232	3,154	3,055	2,975	2,816	2,663	2,501	2,270	2,104	-4.67
하동군	3,667	3,590	3,542	3,597	3,475	3,443	3,230	3,092	2,894	2,607	2,405	-4.07
산청군	1,995	1,955	1,952	1,888	1,917	1,800	1,803	1,710	1,593	1,507	1,405	-3.40
함양군	2,698	2,734	2,665	2,609	2,594	2,548	2,511	2,426	2,325	2,175	2,089	-2.50
거창군	4,780	4,720	4,808	4,799	4,832	4,803	4,660	4,530	4,277	4,081	3,772	-2.30
합천군	3,190	3,067	2,977	2,944	2,857	2,836	2,749	2,640	2,445	2,225	2,045	-4.31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 ② 중학교

### 학교수

- 경남의 중학교 수는 10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감율은 1.16%로 나타남
- 김해시의 평균 증감율이 6.57%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창녕군과 산청군, 합천군은 10년간 학교수가 줄어들음

〈표 3-5-29〉 중학교 수 (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239	243	244	253	260	255	258	262	261	265	268	1.16
창원시	50	52	52	54	55	56	56	58	59	62	62	2.19
진주시	19	19	19	19	19	20	20	20	21	21	21	1.03
통영시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0.91
사천시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0.00
김해시	16	18	19	22	23	25	26	27	28	29	30	6.57
밀양시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0.00
거제시	16	16	16	16	15	16	16	17	17	17	18	1.25
양산시	9	9	10	11	11	11	13	14	14	14	14	4.70
의령군	5	5	5	5	7	5	5	5	5	5	5	1.14
함안군	8	8	8	8	8	8	8	8	8	8	9	1.25
창녕군	13	13	12	12	12	12	12	12	10	10	10	-2.44
고성군	9	9	9	12	12	9	9	9	9	9	9	0.83
남해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0.00
하동군	10	10	10	10	11	10	10	10	10	10	10	0.09
산청군	9	9	9	8	9	8	8	7	6	6	6	-3.65
함양군	6	6	6	6	6	6	6	6	6	6	6	0.00
거창군	10	10	10	10	12	10	10	10	10	10	10	0.33
합천군	12	12	12	13	13	12	12	12	11	11	10	-1.68

## ■ 학생수

- 경남의 중학생 수는 2007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음. 2010년 현재 135,6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 증감율은 1.01%로 나타남
- 함양군은 18개 시·군 중 평균 증감율이 -3.7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밀양시와 의령군은 평균 증감율이 각각 5.89%, 5.10%로 중학생 수가 증가함

〈표 3-5-30〉 중학교 학생수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122,943	120,808	120,998	121,852	127,439	132,949	138,384	138,629	138,290	137,403	135,600	1.01
창원시	46,635	46,642	47,674	48,505	50,723	52,139	53,128	52,027	51,051	49,841	48,131	0.35
진주시	14,844	14,654	14,219	14,141	14,488	15,061	15,518	15,682	15,684	15,540	15,310	0.33
통영시	4,872	4,748	4,780	4,948	5,251	5,572	5,878	5,975	6,064	6,084	6,291	2.62
사천시	5,930	5,507	5,221	4,942	4,948	5,018	5,116	5,085	4,989	4,968	4,903	-1.84
김해시	4,081	3,851	3,745	3,661	3,816	3,845	3,937	4,035	4,052	4,000	3,936	-0.32
밀양시	13,738	14,338	15,274	16,450	18,418	20,579	22,616	23,311	23,737	24,085	24,156	5.89
거제시	4,738	4,434	4,199	3,985	3,938	4,073	4,196	4,149	3,970	3,817	3,654	-2.51
양산시	7,883	7,539	7,303	7,302	7,567	7,935	8,448	8,806	9,195	9,585	9,950	2.42
의령군	6,691	6,952	7,452	7,859	8,585	9,300	10,085	10,340	10,688	10,934	10,956	5.10
함안군	931	844	793	764	730	738	706	727	696	718	663	-3.25
창녕군	1,975	1,922	1,845	1,809	1,858	1,911	1,978	1,958	1,909	1,783	1,952	-0.02
고성군	2,467	2,176	2,118	1,975	2,006	1,997	2,078	2,042	1,993	1,919	1,844	-2.78
남해군	1,876	1,760	1,613	1,549	1,541	1,575	1,629	1,592	1,574	1,600	1,607	-1.47
하동군	1,959	1,799	1,669	1,606	1,552	1,544	1,523	1,516	1,474	1,444	1,406	-3.23
산청군	1,960	1,793	1,674	1,562	1,634	1,609	1,693	1,613	1,556	1,478	1,478	-2.68
함양군	1,124	1,029	934	820	746	729	712	740	756	771	756	-3.74
거창군	1,555	1,389	1,308	1,263	1,208	1,218	1,214	1,268	1,231	1,268	1,211	-2.38
합천군	2,696	2,504	2,420	2,283	2,323	2,396	2,514	2,499	2,512	2,415	2,438	-0.93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 ③ 고등학교

#### ■ 학교수

- 경남의 고등학교 수는 10년간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83개이며, 평균 증감율은 1.38%로 나타남
- 양산시의 평균 증감율은 10.04%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균 증감율을 보이는 반면, 창녕군과 고성군의 평균 증감율은 각각 -1.11%, -2.00%로 고등학교 수가 감소함

〈표 3-5-31〉 고등학교 수 (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160	161	163	167	174	170	181	180	181	181	183	1.38
창원시	34	35	36	38	41	41	44	44	44	44	46	3.11
진주시	21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0.48
통영시	5	5	5	5	5	5	5	5	5	5	5	0.00
사천시	9	9	9	9	9	9	9	9	9	9	9	0.00
김해시	10	11	11	13	15	15	17	17	18	18	18	6.28
밀양시	8	8	8	8	8	8	8	8	8	8	8	0.00
거제시	7	7	7	7	7	7	8	8	8	8	8	1.43
양산시	7	7	7	8	8	4	9	9	10	10	10	10.04
의령군	3	3	3	3	3	4	3	3	3	3	3	0.83
함안군	5	5	5	5	5	4	5	5	5	5	5	0.50
창녕군	9	9	9	9	9	9	9	9	8	8	8	-1.11
고성군	5	4	4	4	4	4	4	4	4	4	4	-2.00
남해군	6	6	6	6	6	6	6	6	6	6	6	0.00
하동군	5	5	5	5	5	5	5	5	5	5	5	0.00
산청군	9	9	9	9	10	10	10	9	9	9	9	0.11
함양군	4	4	4	4	4	4	4	4	4	4	4	0.00
거창군	7	7	7	7	7	7	7	7	7	7	7	0.00
합천군	6	6	6	5	6	6	6	6	6	6	6	0.33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 ■ 학생수

- 경남의 고등학생 수는 2004년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로 증가하여 2010년 130,009명이며, 10년 동안의 평균 증감율은 -0.40%로 학생수가 감소함
- 하동군의 평균 증감율은 -4.59%로 18개 시·군 중 가장 낮게 났고, 김해시의 평균 증감율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0년 동안 고등학생 수가 증가한 시군은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로 나타남
- 경남 고등학생의 진학률은 89.2%로 나타남

〈표 3-5-32〉 고등학교 학생수와 진학률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진학률
경남	136,580	125,590	117,448	114,864	112,426	113,156	114,155	119,431	124,398	129,551	130,009	-0.40	89.2
창원시	51,113	47,479	44,486	43,570	43,180	43,913	44,563	46,447	47,581	48,767	48,114	-0.54	89.8
진주시	20,815	18,712	17,548	16,948	16,482	15,928	15,558	15,695	16,045	16,436	16,411	-2.28	88.7
통영시	5,708	5,458	5,203	5,173	4,753	4,590	4,327	4,375	4,486	4,657	4,666	-1.93	89.0
사천시	5,081	4,219	3,653	3,421	3,281	3,244	3,188	3,239	3,307	3,431	3,487	-3.46	93.3
김해시	11,580	11,286	11,375	12,140	12,947	14,009	15,018	16,640	18,382	20,018	20,392	5.91	92.0
밀양시	5,481	5,043	4,630	4,281	4,015	3,838	3,674	3,653	3,739	3,873	3,873	-3.32	86.8
거제시	7,191	6,883	6,671	6,534	6,351	6,370	6,475	6,855	7,317	7,769	8,019	1.17	89.2
양산시	6,410	6,311	6,070	6,304	6,440	6,897	7,356	8,125	8,793	9,291	9,541	4.14	90.0
의령군	728	646	565	541	527	527	543	595	593	590	600	-1.72	85.0
함안군	2,307	1,941	1,817	1,662	1,546	1,469	1,434	1,499	1,537	1,601	1,583	-3.50	90.0
창녕군	3,643	3,133	2,678	2,495	2,248	2,209	2,089	2,196	2,242	2,335	2,255	-4.45	93.5
고성군	2,956	2,544	2,201	2,011	1,821	1,713	1,673	1,702	1,752	1,808	1,855	-4.33	90.5
남해군	2,556	2,268	2,003	1,893	1,655	1,563	1,575	1,640	1,693	1,785	1,829	-3.05	82.7
하동군	1,624	1,415	1,206	1,109	1,017	995	931	965	958	1,001	994	-4.59	87.9
산청군	1,743	1,447	1,206	1,027	926	882	868	863	914	977	1,066	-4.33	87.7
함양군	1,596	1,388	1,262	1,181	1,072	1,001	1,005	1,046	1,082	1,088	1,162	-2.91	91.8
거창군	4,189	3,826	3,495	3,293	3,082	2,991	2,872	2,834	2,872	2,959	2,970	-3.30	84.9
합천군	1,859	1,591	1,379	1,281	1,083	1,017	1,006	1,062	1,105	1,165	1,192	-4.01	92.6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 ④ 대학교

## ■ 계열별 추이와 증감율(학생수)

-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생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학생수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의약계열의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예체능계열 학생의 평균 증감율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계열 학생의 평균 증감율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자연계열 학생이 17.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의약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63.0%로 가장 높으며, 교육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5-33〉 대학교 계열별 학생수 추이(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문계열	6,658	6,731	6,826	6,967	7,243	7,423	7,702	8,083	7,913	7,819	8,018
사회계열	15,862	16,486	16,823	17,715	18,644	19,197	21,455	22,765	23,991	24,386	25,255
교육계열	4,093	4,172	4,341	4,556	4,798	5,095	5,844	6,033	5,863	6,046	6,036
공학계열	22,064	22,969	23,590	24,425	24,390	24,000	23,727	23,236	23,227	22,567	22,407
자연계열	11,713	11,460	11,135	10,668	10,847	11,180	11,951	12,455	12,887	11,288	11,038
의약계열	2,162	2,230	2,272	2,220	2,151	2,066	2,175	2,269	2,736	2,955	3,304
예체능계열	2,079	2,172	2,270	2,570	2,901	3,442	4,148	4,653	4,917	4,904	4,865

자료 : 교육통계연구센터, 대학통계(2000-2010).

〈표 3-5-34〉 계열별 학생수 평균 증감율과 진학률, 취업률(단위 : %)

	2000-2010 평균 증감율	진학률	취업률
인문계열	1.9	7.2	35.8
사회계열	4.8	1.5	48.8
교육계열	4.1	1.8	33.7
공학계열	0.2	8.0	56.1
자연계열	-0.4	17.4	44.4
의약계열	4.6	7.4	63.0
예체능계열	9.1	7.6	39.1

자료 : 교육통계연구센터, 대학통계(2000-2010).

## 2) 산학협력 현황

### ■ 산학협력의 개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학협력”을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 경상남도는 이를 근거로 지역대학의 참여 및 기업체가 상호 협력하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

## (1) 주요 사업현황

## ①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양성

## ■ 고등교육 인력양성

- 2단계 BK(두뇌한국)21 지원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기초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연계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 과정생을 지원하여 고급인력 양성

〈표 3-5-35〉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남대	고유식품기술연구팀, 경남지능형홈 고급인력 양성사업팀
경상대	의생명과학사업단, 아이큐브 소재·부품인력 양성사업단, 지역특화도시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친환경 냉열에너지 기계연구 사업팀, 농생명산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단,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업단, 지역혁신산업 전문경영인력 양성사업단, 첨단기계 항공 고급인력 양성사업단, 핵심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인제대	나노시스템사업단, 미래형자동차 핵심부품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지능형홈 UID사업단, 기능성비선형 고분자 우수인력 양성사업단
창원대	지역전자 및 광소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지식기반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로봇) 산학연 공동사업단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 인재양성

- 지역발전을 위한 경남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필요한 특화된 고급인력 양성
- 경남 주력산업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 도모

〈표 3-5-36〉 인재양성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상남도, 경남대, 한국폴리텍Ⅵ대학, 경상대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경상남도, 경남대	설계엔지니어(CAD) 양성사업
경상남도, 거창대학	조선기능인력 양성 교육비지원
경상남도, 경남과학기술대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거창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지역인재육성사업-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관련 전문 승강기 엔지니어 육성사업, 제품프로세스기반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플랜트 구조물 제작기술자 양성과정, 플랜트 구조물 제작기술자 양성과정, 항공기능인력양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대	신지식 기계 시스템용 재료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양산시, 영산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프로젝트 중심의 대단위학점제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사업(영산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국토해양부, 경상대, 산업체, 경상남도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향토음식의 세계화 가능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재양성
중소기업청, 창원문성대학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인제대, 경상대, 경남대,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 양성사업,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기타	제조용 로봇 실무형 인력양성, 지능형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식경제부, 마산대학, 산업체	인력양성 공동기획
	기업맞춤형 로봇자동화 인력양성사업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 직업역량강화

-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로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표 3-5-37〉 직업역량강화 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Ⅵ대학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사업
고용노동부	재직자 훈련 지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Ⅵ대학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시군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창원문성대학)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②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 교육역량 강화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

〈표 3-5-38〉 교육역량강화 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대학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대, 경남대	대학IT역량강화(NEXT)사업_반도체공학NEXT사업단, 창의적 자기개발 전자회로 설계트랙(경남대)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군, 남해군, 거제대학, 남해대학, 연암공업대학, 양산대학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남해대학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산업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시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시군	도,KAIST,창원시,창원대 협력사업 지원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시군, 기타	산학연계로봇연구센터 지원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기타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③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 ■ 연구지원

- 경남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 연구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표 3-5-39〉 연구지원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상남도	도지사배 녹색기반 PAV 경연대회 개최
경상남도, 기타	산학 기술혁신대전 개최
대학(창원대)	메카트로닉스 지역혁신센터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부산시청, 인제대	암정복 추진연구 개발사업(다발성 골수종 전문연구)
지식경제부,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경남과학기술대	경남기계산업 기업지원사업(한국폴리텍항공대학)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기타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사업 지원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시군, 기타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시군, 기타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대, KAIST	로봇 지능 구현을 위한 모듈 기반 인지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대, 산업체	경남 지식기반기계 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기타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사업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고용지원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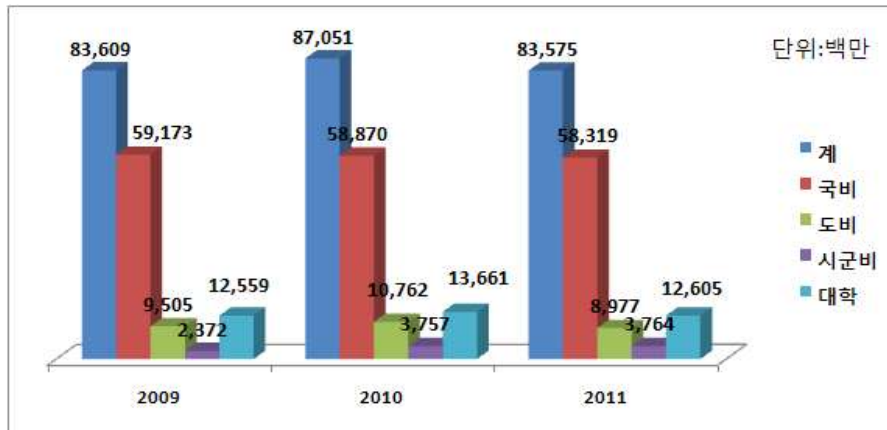
〈표 3-5-40〉 고용지원사업

경상남도	경남 청년EG(Employment Guide)사업
경상남도, 시군, 기타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사업(창원문성대학)
고용노동부, 가야대, 창신대학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가야대)
고용노동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도립 거창대학	인력채용패키지사업(경남과학기술대)
고용노동부, 기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경남대)
고용노동부, 대학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토해양부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체험활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_대학생(가야대)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2) 예산현황

- 산학협력을 위한 예산은 830억원 정도로 국비 지원액이 가장 많고, 대학, 도비, 시군비 순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5-14〉 산학협력 예산현황

## (3) 문제점

- 지역발전을 위한 경남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하여 특화된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함
- 현재의 지역산업구조가 생산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저기술·미숙련 직종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차세대 신산업의 창출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함
- 지역의 숙련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훈련체제를 구축해야 함
-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불일치로 인한 인력활용이 극대화되고 있지 못함. 즉,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 고등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임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지역여건 전망

#### ■ 학령기 아동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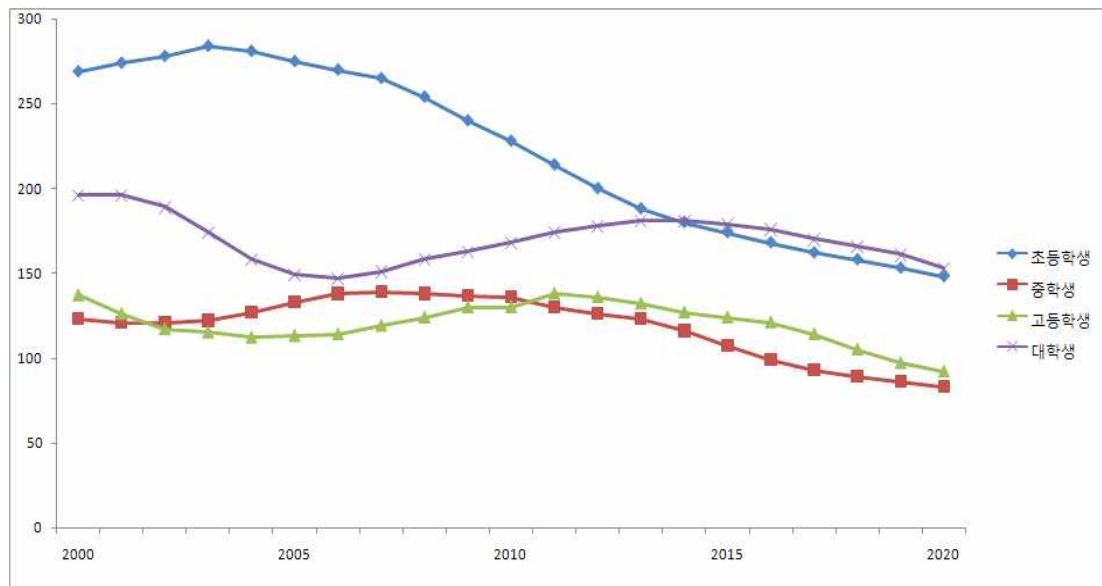
- 경남의 학생수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학령기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0년도와 비교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각각 1.5배씩 감소

〈표 3-5-41〉 학령기 학생 변화추이(단위 : 천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00	269	123	137	145
2001	274	121	126	153
2002	278	121	117	155
2003	284	122	115	153
2004	281	127	112	149
2005	275	133	113	148
2006	270	138	114	147
2007	265	139	119	140
2008	254	138	124	137
2009	240	137	130	130
2010	228	136	130	129
2011	214	130	138	174
2012	200	126	136	178
2013	188	123	132	181
2014	180	116	127	181
2015	174	107	124	179
2016	168	99	121	176
2017	162	93	114	170
2018	158	89	105	166
2019	153	86	97	161
2020	148	83	92	153

주 :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상남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대학생의 경우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상남도 통계연보.



〈그림 3-5-15〉 학령기 학생 변화 추이

### ■ 산학협력과 관련된 지역환경의 변화

- 기술·정보·지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에 대한 관심 제고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거점인 지역대학의 혁신과 기능 강화 요구
-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과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기대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활성화에 대한 관심 지속

## 2) 정부정책 변화

### ■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함
-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교 특색살리기 플랜을 추진함

### ■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교과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활성화
-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을 확충하고, 영어교육과정을 개편함. 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맞춤형 연수를 실시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 교육 및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함

### ■ 교육복지 기반확충

-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 강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 집중지원
-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체제 구축

### ■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 GDP 대비 2008년 3.37%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지속적 확대
- 정부R&D 예산을 2008년(11.1조원)의 1.5배 증가(2012년 16.6조원)

### ■ 민간 R&D 투자 활성화 유도

- 민간 R&D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 강화
-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유도

#### ■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 대학운영의 자율화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

#### ■ 기초원천연구 진흥

-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 25%(’08)→ 50%(’12) 확대
- 우주·극지·해양 등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기술 개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

#### ■ 과학영재학교 확충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 ■ 적극적 일자리 대책 추진

-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고용창출 기반마련
- 일자리창출 추진체제 구축

### 3) 지역정책 변화

#### ■ 학력 제일주의에서 인성중심으로

-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함
-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활용하여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함

#### ■ 사교육, 학부모 책임 중심에서 공교육·학교 중심으로

- 방과후 교육, 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 집중 지원으로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을 운영함
-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에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조성으로 경남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객중심 행정을 실현함

#### ■ 교육복지와 안전실현 역점

-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안전망 구축과 학생, 교직원 복지수준을 높임
- 경제·지역·문화·장애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누구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에 대한 관심 고조

■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지역 산업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항공, 로봇랜드, 기계·조선해양, 물류산업 육성
- 기업환경, 기술혁신,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구축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체제 강화

-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 프로그램 추진 및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등 물질·비물질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체제 개선을 통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개발과 인력양성

#### 1) 교육 인프라 확충

##### ① 학교시설 확충

■ 인구추계에 따른 전망

- 경남 전체의 초·중등 각급 학교의 학생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교시설의 수요는 차이가 있음
- 지난 10년 간의 학생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학교수 추정
  - 초등학교의 경우, 창원시 1개소, 김해시 2개소(2013년 1개소), 양산시 1개소(2013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중학교의 경우, 창원시 1개소, 김해시 2개소, 거제시(2013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창원시 1개소, 김해시 1개교(2012년), 양산시 1개소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망

- 경남은 2010년 현재 28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임. 시군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용인구는 창원 65,892명, 진주 21,716명, 김해 41,871명, 밀양 8,890명, 거제 10,169명, 양산 36,727명, 거창 3,673명임

- 사업지구의 주택규모나 유입세대의 연령대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유입에 따른 이 지역의 학교시설 수요에 따른 학교신설이 필요함. 특히, 2014년 이후 진주지역은 혁신도시 건설로 학교신설 가능성이 높고, 통영지역은 아파트 신축이 많아 신설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②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 ■ 목적

- 공립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현황

- 현재,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운영(4교) 중에 있으나, 대안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안교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 ■ 추진방향

-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의 형태 등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Wee스쿨<sup>19)</sup>형 대안교육기관의 조기설립을 추진함

### ■ 추진계획

- 대안학교 설립 기본방향 설정(2011) : T/F팀 구성·운영
- 대안학교 설립 예산 확보 및 시설공사(2012)
- 공립 대안학교 개교 : 2013년 3월 개교 목표(1교), 2014년 3월 개교 목표(1교)
- 성공적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Wee스쿨형 대안교육기관 설립(1기관) : 2012년 3월 장기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 ■ 정책과제

-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대안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대안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등의 제고가 필요함

## 2) 교육환경의 개선

### 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 ■ 목적

19)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의 합성어로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육복지 시설 개선
- 학교부지 내 지자체와 복합화 시설을 공동 건립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 교육 공동체 역할 수행
-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속시설을 확충하여 더욱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 ■ 현황

- 2011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주요정책 사업 추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으면 사업시행이 어려움

#### ■ 추진방향

-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 복합화 사업 추진(지자체)수요조사
-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학생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 재난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 ■ 추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연차적 예산확보 및 계획수립
  - 편의시설 학교별 설치·미설치 현황 파악
  - 연도별 예산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
-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지자체 대상)
  - 초·중등학교 부지 내 주민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사업 발굴 수요 조사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책자 제작)
  - 현재 운영 중인 복합화시설에 대한 교육청 및 지자체 운영협의회 구성
- 교육환경 개선사업
  - 대수선 : 교실 및 바닥교체, 방수, 창호 교체 등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 화장실 개선 : 학생용 및 교직원용 노후 화장실 개선
  - 외부환경 개선 : 옹벽, 담장, 배수로 등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 기타시설 개선 : 기타시설 등 위험시설 개선

## 과제

- 장애 학생들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연도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학교시설 복합화로 학교와 지역 사회간의 연계체제 구축
-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시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위험 시설물 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 ②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목적

- 노후된 기존학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조성
-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학교 내 휴식 공간 및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잔디 식재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활용
- 학교 내 범죄예방 및 야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

### 현황

- 친환경기법 적용되어 있지 않고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함
- 2010년 신축 및 전면개축 7개교에 33억 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334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운영

### 추진방향

- 생태학교, 친환경학교, 에너지 절감형 학교 등의 그린스쿨 사업 추진
-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숲 조성을 통하여 생명을 느낄 수 있는 학습장소 제공
- 태양광가로등 설치로 우범화 및 범죄 예방,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그린스쿨 사업 추진 : 연차별 예산확보 및 대상학교 선정
-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향후 신·이설 예정학교, 단설유치원 실시설계 시 건축공사비의 5%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에 반영
  - 2012년 개원 예정인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 55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녹색학교 조성 : 연차별 예산확보 및 대상학교 선정

- 태양광가로등 설치 사업
  - 매년 설치대상 학교 선정을 위하여 각급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안내 및 설문조사 실시

#### 과제

-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원 같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 절감
- 녹색학교 계획과 조성을 학생과 함께 참여하므로 환경체험 제공
- 무한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의 이용체험 및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심성교육 정착

### ③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 목적

- 선진화된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 학교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시설 유지 및 관리

#### 현황

-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등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지자체의 참여 확대 : 10년도 성과지표 목표액 40억원 보다 2.74억원이 많은 42.74억원 달성(다양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 ( ' 10.10))

#### 추진방향

- 선진화된 학교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센터로 활용
-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의 충족 및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전전후 활용 가능한 체육관, 운동장 등 확충 및 선진화 필요

#### 추진계획

-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 학교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학교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학교 운동부 생활관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정책과제

- 풍부한 학교체육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인교육의 기틀 마련
-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방을 통하여 체육활동 수요 충족과 경기력 향상
- 학교스포츠클럽 저변화를 위한 학교체육 인프라 구축

### ④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 조성

#### 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체계 구축

#### 현황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면적별 차등지원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수도물 전용 음용대 설치, 지하수, 정수기 먹는 물 사용학교 표본 수질 검사
- 학교 공기질 관리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 석면 시설 유지 관리(전 학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및 교육환경평가,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보건실 현대화 사업 면적별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 실시
-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실시
-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 및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한 보건 관리

#### 추진계획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 30㎡이상 보건실 면적별 차등 지원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연차적 수도물 전용 음용대 설치 지원

- 표본학교 수질검사 실시
- 학교 공기질 관리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석면 관리
- 학교환경위생관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교육장 및 학교장)
  - 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학교보건위원회 회의

#### 과제

- 선진화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체계 구축

### 3) 산학연 연계에 의한 인력양성 강화

#### 지역 전략산업 분야 지식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강화

-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도내 주요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지식개발 및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 지원
- 국내외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역외 인적자원 적극 활용 유치
-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게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배분·활용 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도민 평생교육 체제 구축

- 지역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화·개방화 학습체제 구축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허브가 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숙련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 경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 기술인력의 양성·공급체계를 혁신하여 지역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 도모
-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을 통한 지역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체제 구축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 유도

-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가 보유한 지식자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과 공유·확산 촉진
  -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의 대학별 교육·연구기반 구축
  - 미래형 지능형 홈 산업 조기 활착을 위해 지방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체제 구축

- 생물산업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신규과제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추진. 서부권의 미래 성장전략 프로그램으로 육성 중인 산청 세계 전통의학엑스포·한방의료·향노화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한의전문대학원 유치

#### ■ 선진화된 취업지원기관 운영

- 경남 일자리종합센터, 고용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일자리 연계기관의 유기적 연계
- 구인구직 불일치(miss-match)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안 도출

## 제5절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 1. 현황 및 여건분석

## ■ 주택의 보급과 양적수준

- 2010년 현재 경남의 주택보급률은 (新)주택보급률 기준 104.3%로 전국 주택보급률(101.9%)을 상회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전국의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1.76%, 주택수는 2.5% 성장하였고, 경남의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1.74%, 주택수는 연평균 2.48%로 전국과 경남이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5-42〉 전국대비 경상남도 (新)주택보급률(2005~201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
전국	일반가구수 (천가구)	15,887.2	16,105.3	16,363.6	16,618.8	16,862.3	17,339.4	1.76
	주택수 (천호)	15,622.6	15,977.9	16,294.9	16,733.1	17,071.3	17,672.1	2.5
	보급률(%)	98.3	99.2	99.6	100.7	101.2	101.9	0.72
경남	일반가구수 (천가구)	1,056.0	1,069.6	1,083.5	1,097.6	1,110.9	1,151.2	1.74
	주택수 (천호)	1,062.1	1,086.1	1,111.1	1,145.7	1,172.8	1,200.7	2.48
	보급률(%)	100.6	101.5	102.5	104.4	105.6	104.3	0.72

주 : 일반가구(보통가구 + 1인가구 + 5인이하 비핵연가구)

자료 : 통계청, (新)주택보급률

## ■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 경남 시 지역 주택보급률의 평균은 103.0%이며, 창원시가 101.0%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음. 그 외의 시 지역 보급률은 102.4 - 109.0% 사이의 수준에 있음
- 반면 군 지역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110.6%로 나타났으며,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합천군 지역에서는 110% 이상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은 주택보급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반면 군 지역의 경우 공가비율이 높으므로 효율적 재고관리가 필요함
- 경남의 주택유형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편임. 2010년 현재 전국 주택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은 48.5%, 단독주택 비율은 40.1%이나, 경남의 아파트 비중은 46.5%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시군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53.4%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 지역은 단독주택이 81.1%에 달하고 있음

〈표 3-5-43〉 경남의 주택유형 및 주택보급률 분포(2010)(단위 : 호, %)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보급률
전국	17,672,100 (100)	7,084,172 (40.1)	8,576,013 (48.5)	536,070 (3.0)	1,314,452 (7.4)	161,393 (0.9)	101.9
경남	1,200,745 (100)	581,741 (48.4)	558,688 (46.5)	24,737 (2.1)	23,456 (2.0)	12,123 (1.0)	104.3
시부	987,799 (100)	409,091 (41.4)	527,517 (53.4)	20,287 (2.1)	21,346 (2.2)	9,558 (1.0)	103.0
군부	212,946 (100)	172,650 (81.1)	31,171 (14.6)	4,450 (2.1)	2,110 (1.0)	2,565 (1.2)	110.6
창원시	375,731	158,564	199,053	10,181	5,123	2,810	101.0
진주시	125,153	67,332	53,341	1,178	1,589	1,713	102.6
통영시	54,612	28,580	23,678	1,199	596	559	108.9
사천시	44,571	24,025	18,270	1,359	358	559	107.9
김해시	169,162	48,871	106,939	1,414	10,220	1,718	102.4
밀양시	43,896	29,191	12,498	1,052	690	465	109.0
거제시	82,037	30,482	46,777	2,729	1,203	846	102.5
양산시	92,637	22,046	66,961	1,175	1,567	888	105.9
의령군	13,338	12,008	855	264	80	131	113.6
함안군	26,426	17,173	8,497	335	132	289	110.9
창녕군	26,672	20,945	3,822	979	561	365	111.2
고성군	23,853	18,492	4,219	523	375	244	111.3
남해군	21,920	19,483	1,586	294	168	389	111.3
하동군	20,078	17,810	1,710	206	201	151	109.4
산청군	15,337	13,837	954	184	50	312	113.9
함양군	17,640	14,479	2,434	503	85	139	107.9
거창군	25,111	18,195	5,677	668	295	276	107.0
합천군	22,571	20,228	1,417	494	163	269	112.0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2011)

### ■ 주택의 점유형태

- 2010년 현재 경남의 자가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인 54.3%보다 높은 63.2%임. 그러나 2000년 이후 경남의 자가율은 76.5%에서 63.2%로 하락하였으며, 점차 월세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표 3-5-44〉 주거의 점유형태별 분포(2000~2010) (단위 : 호, %)

구분	전국			경남		
	2000	2006	2010	2000	2006	2010
자가	7,735,057 (70.58)	8,828,100 (55.57)	9,406,893 (54.25)	597,470 (76.54)	661,577 (62.65)	727,336 (63.18)
전세	2,122,422 (19.37)	3,556,760 (22.39)	3,755,576 (21.66)	111,918 (14.34)	151,777 (14.37)	147,491 (12.81)
월세	797,817 (7.28)	3,011,855 (18.96)	3,715,998 (21.43)	47,292 (6.06)	207,028 (19.60)	237,662 (20.65)
기타	304,046 (2.77)	490,413 (3.09)	461,091 (2.66)	23,923 (3.06)	35,625 (3.37)	38,688 (3.36)
계	10,959,342	15,887,128	17,339,558	780,603	1,056,007	1,151,175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해당년도)

## 2. 여건변화 및 전망

### ■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

- 지속적인 주택건설로 지역내 주택보급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렇듯 주택 자체의 공급과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개별 주택의 주거수준은 향상되어 가고 있음. 양적 측면의 보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질적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택정비의 필요성 증대

- 경남은 전체 주택 중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축된 주택의 비율이 87.4%로 전국의 90.3% 비해 낮은 편임. 향후 주택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로 인해 주택정비의 필요성이 높음
  - 최근 5년 간(2005년-2010년)은 신규 주택의 공급이 활발한 편임. 경남 주택의 16.2%에 해당하는 157,385호가 건설되어 동 기간 전국의 주택재고 대비 15.7%의 신규주택 공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히, 먼 지역의 경우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중(22.6%)이 전국 평균(9.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주택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내구년수를 기준으로 경남지역의 주택 정비소요를 산출하면, 내구년수 30년에 해당하는 1979년 이전에 건축된 121,813호에 대한 주택정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3-5-45〉 건축연도별 주택 건축물 분포현황(2010) (단위 : 호)

행정구역별	계	2005~2010	1995~2004년	1980~1994년	1979년 이전
전국	13,883,571 (100)	2,174,160 (15.7)	5,383,734 (38.8)	4,976,596 (35.8)	1,349,081 (9.7)
경상남도	968,582 (100)	157,385 (16.2)	341,554 (35.3)	347,830 (35.9)	121,813 (12.6)
동부	560,403 (100)	85,025 (15.2)	196,920 (35.1)	237,156 (42.3)	41,302 (7.4)
읍부	126,654 (100)	24,312 (19.2)	45,521 (35.9)	40,036 (31.6)	16,785 (13.3)
면부	281,525 (100)	48,048 (17.1)	99,113 (35.2)	70,638 (25.1)	63,726 (22.6)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화

-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노인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행정,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의 입지를 고려한 거점적 의료·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주거의 질 향상

-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의 질적 향상을 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 ■ 변화하는 주택수요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

- 라이프스타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주택 보급
- 1인 가구, 고령화 등 수요변화 고려한 주택보급 계획

### ■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서민임대주택 건설 확충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1) 주택수요 전망

### ■ 주택수요 전망

- 경상남도 주택수요는 2020년까지 32만 7천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계획인구는 본 종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340만명(추계인구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계획목표 주택보급률(신주택보급율 기준)은 112%로 설정하였음
  - 2020년 112%의 주택보급율은 최근 5년 간의 주택보급율 성장추세를 연장하여 설정한 것임
- 이상 가구수 증가전망치와 계획 주택보급률을 고려한 총주택수요량에 현재(2010) 시점의 주택수를 제외하고 연간멸실률(0.98%)을 고려하여 최종 주택수요를 추정하였음
- 주택수요 및 공급량에 따른 택지수요는 개발 용적률에 따라 총주거 소요면적은 2020년까지 약 197,787,654㎡으로 전망됨

〈표 3-5-46〉 2020년 주택수요 추정

구분	단위	계획원단위	비고
계획인구	인	3,400,000	추정
가구원수	인	2.7	추정
가구수	가구	1,259,259	
주택보급률	%	112%	추정
총주택수요량	호	1,410,370	

## 2) 추진시책

### (1)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주거의 질 향상

#### ■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

- 개성있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어메니티 공간 창출
  -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도시재생·재정비 차원에서 정비
- 창원시 구마산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여 인간적·친환경적으로 주거지 정비

####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 지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추진
- 또한,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과 상호연계(Policy Mix) 및 종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촌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 농어촌지역은 기존 주택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서비스의 충실한 제공과 어메니티 제고의 관점에서 주거지를 정비
-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컨드 하우스, 레저용 주택으로 농어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

####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좋은 주거지역 조성

-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공유공간 및 개방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거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거단지 공간을 개방하여 공공공간과 통합되도록 하며,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담장없는 마을만들기 등 살고싶은 지역(도시)만들기를 적극 추진함

### (2) 변화하는 주택수요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

####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한 주택 보급

-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주거 유형개발 및 주거단지 설계 유도

#### ■ 1인가구, 고령화 등 수요변화 고려한 주택보급 계획

- 인구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주거수준의 제고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
  - 장애인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단지 조성
  - 농촌경관 및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 주거단지 조성
  - 기존 농촌주택의 공간관리를 위해 도시주민들에게 비투기적 목적의 주말농장 구입·임대 기회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
  -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할 경우 조세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공급 확대
-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세대간 통합형(generation mix) 주거단지 조성
-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오피스 기능을 겸비한 재택근무형 주택 등 여가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택 공급
- 노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을 제고
  - 고령자전용주택의 공급 확대, 생활·의료·휴양기능이 어우러진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고령자

가 대부분인 농촌의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여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거 질 향상을 도모

### ■ 경남형 저탄소 녹색주택(에너지 제로 하우스) 공급 추진

- 2008년 기준으로,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건축물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가정에서의 소비가 53%(상업 37%, 공공기타 10%)를 차지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경상남도의 지역적 기후조건과 경제수준, 사회적 요구사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보급형 저탄소 주택의 개발이 필요함. 저탄소 주택의 보급 확대를 통해 경남도의 온실가스 감축(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영구임대주택 그린홈화 개보수 사업 등 기존 주택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존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사업 병행

## (3)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정책 강화

-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물리적·경제적 차원의 지원 필요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정책 추진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연간 200가구)의 장기적 확대 추진

### ■ 공유지 개발 민관 협력형 서민임대주택 공급 추진

- 민관 협력형 서민임대주택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고, 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서민·근로자용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후 30년간 장기 임대해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에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남도에 반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사업의 유형임
-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이 없이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한 후 도내 서민·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확보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는 신규개발가능지역(공공택지개발지, 토지이용전환지역 등)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시 택지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여 공급

## 제6장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부문

제1절 친환경 수자원 개발과 관리

제2절 해양자원의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제3절 친환경적 개발관리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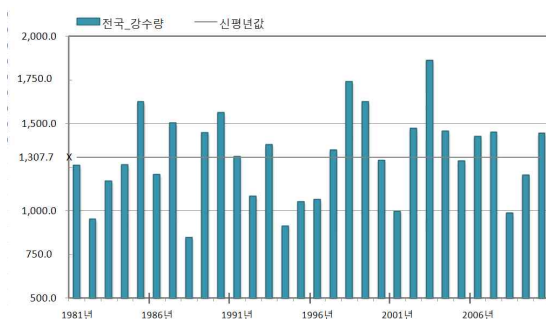
## 제6장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부문

### 제1절 친환경 수자원 개발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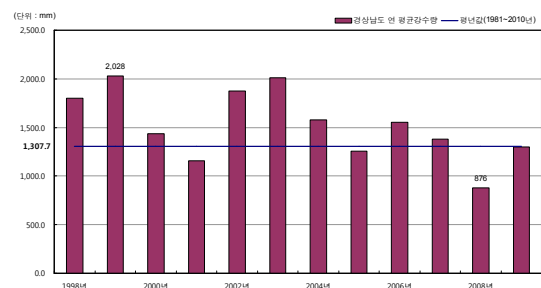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강수량

-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연평균 강수량(1981~2010년)은 1,307.7mm로 1971~2000년 연평균 강수량(1,264.4mm)에 비해 43.3mm(3.4%)가 증가함. 최근 10년 강수량은 1,358.5mm로 신 기후평년값에 비해 50.8mm 많아졌고, 구 기후평년값에 비해 94.1mm가 많아짐
- 경상남도 통계연보(2010)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9년의 강수량은 876~2,028mm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520.5mm으로 신 기후평년값보다 212.8mm가 많음. 경상남도의 월별 강수량은 6~8월에 연강수량의 65.0%가 집중하고, 12~2월에 6.2%를 차지하여 강수의 계절적 차이가 많음



〈그림 3-6-1〉 전국 연도별 강수량  
(1981~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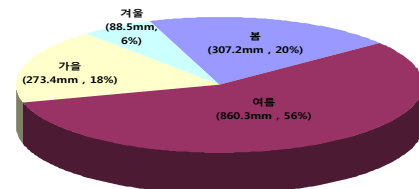


〈그림 3-6-2〉 경상남도 연도별 강수량  
(1998~2009년)

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201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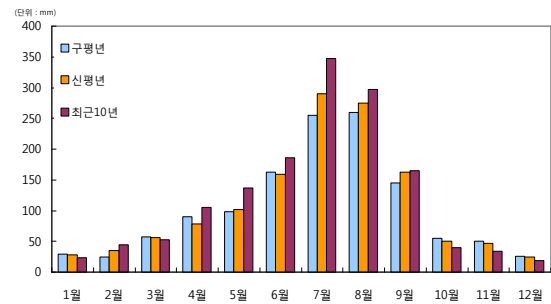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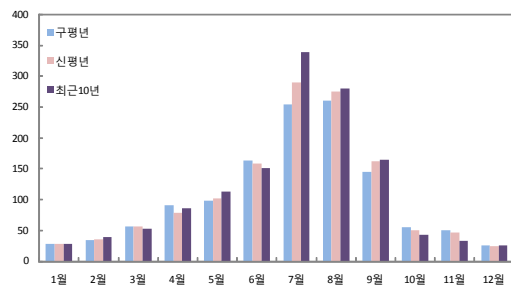


〈그림 3-6-3〉 전국 계절별 강수량 분포  
(1981~2010년)



〈그림 3-6-4〉 경상남도 계절별 강수량 분포  
(1998~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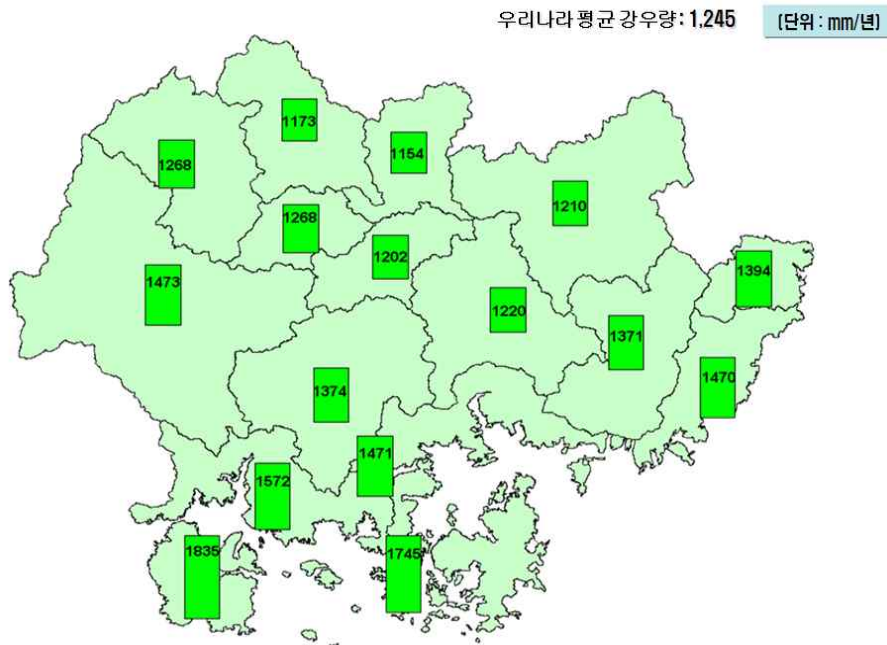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2011.9.28)



〈그림 3-6-5〉 기후평년값과 최근 10년(전국)의 월별 강수량 분포(2001~2010년)    〈그림 3-6-6〉 기후평년값과 최근 10년(경남)의 월별 강수량 분포 (2000~2009년)

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2011.9.28)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에서 분석된 권역별 평균 강우량 분포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음.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강우량은 연간 1,245mm 정도이며 경남의 경우 1,100 - 1,800mm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3-6-7〉 중권역별 평균 강우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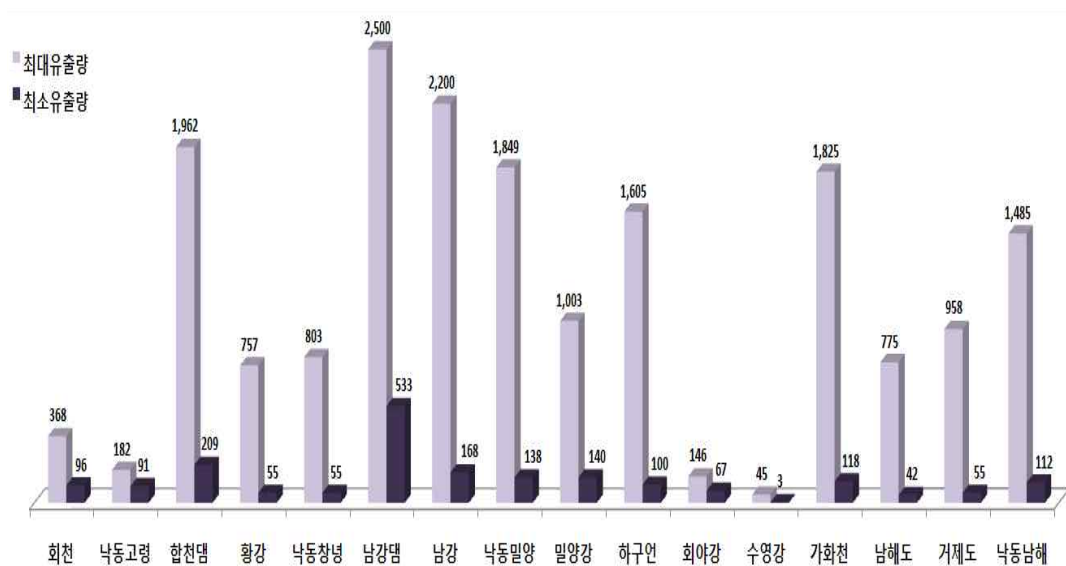


〈표 3-6-1〉 경상남도 해당 중권역의 강수량 현황

중권역	연평균강수량(mm/년)	중권역	연평균강수량(mm/년)
회천	1,173	밀양강	1,210
낙동고령	1,154	하구연	1,371
합천댐	1,267	회야강	1,394
황강	1,268	수영강	1,470
낙동창녕	1,202	가화천	1,572
남강댐	1,473	남해도	1,835
남강	1,374	거제도	1,745
낙동밀양	1,220	낙동남해	1,471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 또한, 낙동강 유역별 월 평균 유출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홍수기인 6월부터 9월말까지의 유출량이 전체 연 유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하천은 수원에서 하구까지 유출되는 시간이 짧아 하천유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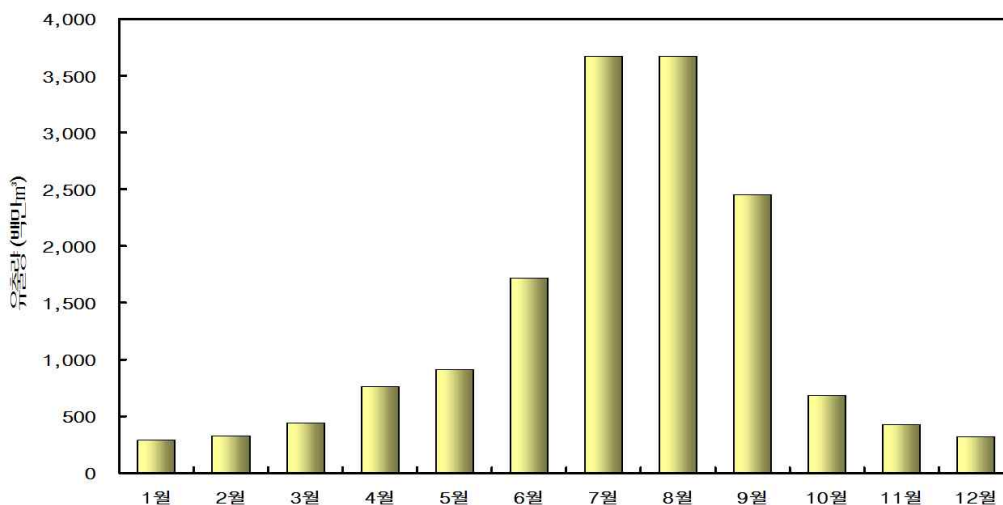


〈그림 3-6-8〉 경상남도 해당 중권역별 유출량

〈표 3-6-2〉 경상남도의 평균 유출량(1974~2003년) (단위 : 백만 $\text{m}^3$ /년)

중권역	최대	최소	중권역	최대	최소
회천	368	96	밀양강	1,003	140
낙동고령	182	91	하구언	1,605	100
합천댐	1,962	209	회야강	146	67
황강	757	55	수영강	45	3
낙동창녕	803	55	가화천	1,825	118
남강댐	5,471	533	남해도	775	42
남강	2,500	168	거제도	958	55
낙동밀양	1,849	138	낙동남해	1,485	112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그림 3-6-9〉 낙동강 월 평균 유출량(1974~2003년)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 2) 지하수 이용

- 전국의 지하수 총 개발가능량은 약 108억5,223만 $\text{m}^3$ /년, 이용량은 38억677만 $\text{m}^3$ /년으로 이용량/개발가능량의 비율은 35.1% 수준임. 이용량/개발가능량의 비율은 대전광역시가 71.8%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5%로 가장 낮고, 경상남도는 30.8% 수준임
- 경상남도 지하수 총 개발가능량은 약 11억7,133만 $\text{m}^3$ /년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이어 4위에 해당되며, 경상남도 지하수 총 이용량은 약 3억6,072만 $\text{m}^3$ /년으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5위(지하수관리기본계획(2007, 국토해양부))의 수준임

- 전국적으로 용도별 지하수 이용률은 농업용수가 47.7%, 생활용수가 46.9%, 공업용수가 4.7%이며, 경상남도의 용도별 지하수 이용률은 생활용수 41.2%, 농업용수 53.8%, 공업용수가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활용수는 창원시>김해시>함안군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공업용수는 함안군>창원시>김해시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농업용수는 산청군>진주시>함안군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표 3-6-3〉 경상남도 시군의 용도별 지하수 이용 (단위: 공, m³/년)

구분	총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 타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총계	80,543	363,904,831	41,056	149,737,419	1,558	18,175,248	37,852	195,452,021	77	540,143
창원시	9,506	50,248,627	8,036	39,927,028	134	2,311,294	1,322	7,912,633	14	97,672
진주시	7,879	34,537,970	1,502	9,474,862	162	1,580,931	6,215	23,482,177	0	0
통영시	1,941	6,220,966	1,103	2,889,895	10	22,120	827	3,308,051	1	900
사천시	2,640	24,554,659	1,128	9,540,531	98	1,297,952	1,412	13,714,516	2	1,660
김해시	7,176	28,801,464	5,635	19,682,723	279	2,215,904	1,252	6,826,087	10	76,750
밀양시	2,720	5,862,331	1,503	3,003,315	55	185,251	1,158	2,673,495	4	270
거제시	4,480	8,373,169	2,582	6,202,664	39	335,138	1,858	1,835,187	1	180
양산시	2,980	10,690,792	2,345	7,089,828	265	2,038,888	370	1,562,076	0	0
의령군	3,084	22,795,786	1,241	6,349,634	49	917,077	1,792	15,499,675	2	29,400
함안군	2,822	31,673,016	1,635	10,883,208	172	2,938,197	1011	17,738,401	4	113,210
창녕군	2,604	15,163,259	995	4,242,645	58	1,126,660	1,546	9,786,654	5	7300
고성군	2,229	6,961,886	1,152	1,724,380	41	274,600	1036	4,962,906	0	0
남해군	6,476	8,780,696	3,580	4,904,718	5	44,550	2,883	3,785,518	8	45,910
하동군	4,456	11,859,090	1,245	6,384,377	19	161,073	3,190	5,281,239	2	32,401
산청군	5,494	43,010,111	1,252	5,625,642	39	344,471	4,194	37,021,498	9	18,500
함양군	7,435	19,499,319	3,694	5,461,314	50	627,245	3,686	13,397,715	5	13,045
거창군	3,881	15,799,511	1,453	3,225,022	56	1,042,645	2,368	11,458,588	4	73,256
합천군	2,740	19,072,179	975	3,125,633	27	711,252	1,732	15,205,605	6	29,689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지하수조사연보(2010년 말 기준).

### 3) 하천

- 경상남도에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섬진강 등 10개소의 국가하천과 함양 위천 등 674개소의 지방하

천이 분포하여 총 684개 하천이 있음. 총 유로연장은 4,220.5km로 전국 하천 30,242.9km의 13.9%를 차지함

- 낙동강 수계에는 하천 491개소 3,266.3km, 섬진강 수계에는 하천 22개소 180.6km, 회야강 8개소 28.4km, 기타 173개소 745.2km로서 낙동강 수계가 도내 하천 총연장의 77.4%를 차지함

〈표 3-6-4〉 수계별 하천현황 (단위 : km)

수계별	계		국가		지방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84	4,220.5	10	440.6	674	3,779.9
낙동강	481	3,266.3	7	386.6	474	2,879.8
섬진강	22	180.6	1	33.6	21	147.0
회야강	8	28.4	-	-	8	28.4
기타	173	745.2	2	20.4	171	724.7

자료 : 도정백서, 2011(2009.12.31 기준)

#### 4) 댐

- 경상남도의 주요 댐은 총 6개소가 있으며, 다목적댐으로는 남강·합천·밀양댐 3개소로서 총 저수용량은 1,173백만 $m^3$ 이고, 농업용수댐으로는 거제의 연초, 구천 2개소, 밀양 삼랑진의 양수발전소댐 1개소가 있음

〈표 3-6-5〉 경상남도 다목적 댐 현황

수계명	댐명	체적 (천 $m^3$ )	유역면적 ( $km^2$ )	총저수량 (백만 $m^3$ )	공사기간	홍수조절 (백만 $m^3$ )	용수공급 (백만 $m^3$ /일)	발전량 (GWh/y)
낙동강	합천	891	925.0	790.0	'82~'89	80.0	599.0	223
	남강	1,280	2,285.0	309.2	'89~'01	269.8	573.3	41.3
	밀양	3,943	95.4	73.6	'91~'01	6.0	73.0	7.0

자료 : 다목적댐 운영 실무편람(한국수자원공사, 2008)

#### 5) 상수도

-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15개 급수구역내에 전체인구의 97.7%인 약 50,264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8,908천 $m^3$ 임(공업용 정수시설용량 제외)
  - 전국의 1인 1일당 급수량은 333L로 '04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절수기 설치와 중수도 재활용 등으로 물사용량이 줄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상수도시설 투자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 90.7%, 2006년 91.3%, 2007년 92.1%, 2008년 92.7%, 2009년 93.5%, 2010년 현재

94.1%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경상남도 상수도보급률은 88.8%로 전국 평균 94.1%에 비해 낮으나 1인 1일 급수량은 351L로 전국 평균 333L에 비하여 높은 편임. 반면에 경상남도 1인 1일 사용량은 237L로 전국 평균 268L에 비해 낮고, 상수도누수율이 20.8%로 전국 평균 10.8%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도내 시·군별 보급 현황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94.1%, 군 지역이 59.6%로 시와 군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군 지역은 대부분 간이급수시설로 충당하고 있음

〈표 3-6-6〉 전국과 경남의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비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국	총인구 (천명)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0,644	51,435
	급수인구 (천명)	42,402	43,021	43,633	44,187	44,671	45,270	46,057	46,733	47,336	48,395
	보급률(%)	87.8	88.7	89.4	90.1	90.7	91.3	92.1	92.7	93.5	94.1
	시설용량 (천㎥/일)	27,751	28,561	28,462	23,156	30,950	31,138	31,265	30,571	31,416	30,936
	급수량 (천㎥/일)	15,856	15,595	15,670	16,145	16,211	15,646	15,657	15,766	15,696	16,104
	급수율(%)	57.1	54.6	55.1	69.7	52.4	50.2	50.1	51.6	50.0	52.1
	1인1일 급수량(ℓ)	374	362	359	365	363	346	340	337	332	333
경 남	총인구 (천명)	3,124	3,123	3,162	3,169	3,187	3,189	3,239	3,277	3,303	3,348
	급수인구 (천명)	2,378	2,462	2,520	2,581	2,632	2,681	2,752	2,820	2,879	2,974
	보급률(%)	76.1	78.8	79.7	81.4	82.6	84.1	84.9	86.0	87.2	88.8
	시설용량 (천㎥/일)	1,436	1,607	1,573	1,597	1,579	1,295	1,282	1,764	1,680	1,308
	급수량 (천㎥/일)	792	840	877	956	977	971	985	1,007	1,010	1,043
	급수율(%)	55.2	52.3	55.8	59.9	61.9	75.0	76.8	57.1	60.1	79.7
	1인1일 급수량(ℓ)	333	341	348	370	371	364	358	357	351	351

주 : 급수율 = (급수량 / 시설용량) \* 100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해당연도) / 경상남도, 통계연보(해당연도)

- 경상남도 인구 중 급수인구인 상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88.8%(전국 평균 94.1%)임. 미급수인구인 간이상수도는 5.5%(전국 평균 1.2%), 소규모급수시설이 2.9%(전국 평균 1.2%), 기타 우물과 샘 등을 이용하는 인구가 1.1%(전국평균 1.8%) 등 전국 평균보다 상수도의 보급수준은 다소 열악한 실정임
- 경남의 시·군지역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시부의 평균은 94.1%로 밀양시와 양산시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보급률을 보임. 군부의 평균은 59.6%로 창녕과 함안군이 80%를 상회하지만 그 외 군 지역은 40% 이하의 비율을 보임

- 진주시와 창원시의 보급률이 각각 98.1%와 97.5%에 이르고 있으나, 산청군과 합천군은 38.3%와 39.2%로 극심한 상수도 보급률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상수도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상수공급 확대가 필요함

〈표 3-6-7〉 전국과 경남의 시·군별 상수도 보급현황 비교(2010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비율(%)	미급수인구비율(%)			
			간이상수도 인구	소규모급수 시설인구	전용상수도 인구	기타인구 (우물, 샘 등)
전국	51,434,583	94.1	1.2	1.2	0.4	1.8
경남	3,348,254	88.8	5.5	2.9	0.04	1.1
시부	2,831,736	94.1	2.5	0.8	0	1.2
창원시	1,103,849	97.5	2.2	0.4	-	-
진주시	338,475	98.1	0.8	0.9	-	0.2
통영시	143,632	93.2	-	1.7	-	0.1
사천시	116,223	92.8	5.3	1.9	-	-
김해시	517,316	94.0	2.4	0.2	-	3.5
밀양시	111,472	68.9	22.9	4.9	-	3.3
거제시	236,435	93.2	-	1.4	-	1.2
양산시	264,334	88.2	-	0.3	0	3.6
군부	516,518	59.6	21.9	14.4	0.2	0.3
의령군	30,735	46.2	24.1	29.6	-	-
함안군	69,822	82.6	7.0	9.2	1.2	-
창녕군	62,751	85.1	11.2	3.6	-	0.1
고성군	58,580	66.8	22.8	10.1	0.4	-
남해군	49,889	48.7	47.1	3.4	-	0.8
하동군	51,859	46.3	32.1	21.6	-	-
산청군	35,900	38.3	33.6	27.2	-	0.9
함양군	41,615	51.3	35.1	13.6	-	-
거창군	63,851	62.6	-	8.2	-	0.6
합천군	51,516	39.2	26.5	33.3	-	1.0

주 : 급수인구 = 당해수도사업자 급수인구 + 타수도사업자에 의해 직접 급수 받는 인구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 2011

- 경상남도에는 하루 평균 351ℓ의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유수율과 누수율은 각 각 67.5%와 20.8%로 전국 평균치인 83.2%와 10.8%에 비해 유수율은 낮으나 누수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함
- 상수도 생산을 위한 생산원가와 평균단가 또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음

〈표 3-6-8〉 전국과 경남의 시·군별 상수도 시설규모 비교(2010년)

구분	1인/1일급수량 (ℓ)	유수율(%)	누수율(%)	평균단가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전국	333	83.2	10.8	610.2	777.2	78.5
경남	351	67.5	20.8	732.3	995.1	73.6
시부	365	68	22.2	776.8	1,056.1	75.8
창원시	304	70.1	15.8	713.6	912.0	78.2
진주시	584	71.3	22.0	433.4	499.9	86.7
통영시	280	40.4	34.8	970.8	1,203.9	80.6
사천시	299	74.0	21.2	833.6	1,201.0	69.8
김해시	315	79.8	10.5	831.0	908.0	91.5
밀양시	390	68.1	27.1	711.3	1,433.0	49.6
거제시	386	67.8	26.9	823.5	1,110.6	74.2
양산시	359	68.6	19.2	897.1	1,180.0	76.0
군부	412	56.1	31.4	727.0	1,375.4	55.1
의령군	425	53.9	33.1	566.6	1,108.0	51.1
함안군	521	61.9	17.5	665.8	1,578.0	42.2
창녕군	377	55.5	37.2	888.1	1,838.0	48.3
고성군	312	47.7	39.8	904.5	1,079.0	83.8
남해군	470	51.0	37.0	897.0	1,147.0	78.2
하동군	372	58.9	26.1	798.5	1,355.0	58.9
산청군	376	50.9	31.9	658.1	1,517.0	43.4
함양군	449	67.8	23.2	653.6	1,503.6	43.5
거창군	347	62.4	33.3	591.4	1,639.0	36.1
합천군	467	50.5	34.4	646.1	989.5	65.3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 2011

## 6) 정수 및 취수현황

- 전국 총취수량은 일 19,241천톤이며 수원형태로 보면 하천표류수 68.4%, 하천복류수 8.4%, 저수지수 20.0%, 지하수는 3.2%임
- 경남에서는 1,261천톤 중에서 하천표류수 62.5%, 하천복류수 14.5%, 저수지수 22.7%, 지하수 0.3%로 나타났음. 전국 이용현황과 비교할 때 하천복류수와 저수지의 이용률이 높은 편임
- 경상남도에는 전국의 정수장 503개소 중 51개소, 취수장 613개소 중 48개소가 있으며 하루 평균 1,042,570㎥/일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음

〈표 3-6-9〉 정수 및 취수 현황 (단위 : 톤/일)

구분	정수장 (개소)	취수장	수원의 형태(설계 시설용량)				
			총취수량	하천표류수	하천복류수	저수지	지하수
전국	503	613	19,241,745 (36,924,145)	13,168,420 (17,648,920)	1,621,364	3,844,846 (17,046,746)	607,115
경상남도	51	48	1,261,260	788,300	182,900	286,610	3,450
주요 하천 취수원별		낙동강	891,900	784,200	107,000	700	-
		남강	7,600	-	7,600	-	-
		황강	12,000	-	12,000	-	-
		밀양강	16,000	-	16,000	-	-
		섬진강	5,000	-	5,000	-	-
		위천	9,000	-	9,000	-	-
		그 외	319,760	4,100	26,300	285,910	3,450

주 : ( ) 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하는 양까지 포함된 값.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11.

## 7) 하수도

- 경상남도의 2011년도 하수도 보급률은 2001년 45.7%로 전국 평균 73.2%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으나, 그간 집중투자하여 2010년 83.6%로 전국 평균 90.1%에 근접하는 등 10년 동안 큰 증가율을 보임

〈표 3-6-10〉 전국과 경남의 연도별 하수도 보급현황 비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총인구 (천명)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1,434
	처리인구 (천명)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42,450	43,570	44,631	46,060
	처리시설 (개소)	184	207	242 (878)	268 (1,153)	294 (1,404)	344 (1,681)	357 (1,854)	403 (1,991)	438 (2,332)
	보급율(%)	73.2	75.8	78.8	81.4	83.5	85.5	87.1	88.6	89.4
	시설용량 (천톤/일)	19,230	20,233	20,954	21,617	22,568	23,273	23,942	24,568	25,118
경남	총인구 (천명)	3,124	3,143	3,162	3,169	3,187	3,189	3,239	3,277	3,303
	처리인구 (천명)	1,422	1,501	2,203	2,329	2,444	2,506	2,620	2,683	2,798
	보급율(%)	45.7	48.0	69.7	73.5	76.7	78.1	80.9	81.9	82.7

주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소는 2010년말 준공완료 시설 기준임 ( )는 500톤/일 미만 시설수임

자료 : 환경부, 하수도통계연보(해당연도) / 통계청, 하수도보급현황(총괄)

- 시·군별 하수도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밀집된 시지역의 보급률이 89.5%로 군지역의 평균



51.0%보다 높은 보급률을 보임

- 시 지역 중 창원시 94.6%로 가장 높고 밀양시 71.2%로 가장 낮으며, 군 지역은 거창군 66.1%로 가장 높고 산청군 29.6%로 가장 낮음
- 시 지역과 군 지역간의 하수도보급률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표 3-6-11〉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비교(2010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	보급률(%)
전 국	51,434,583	46,357,504	5,077,079	90.1
경 남	3,348,254	2,798,206	550,048	83.6
시 부	2,831,736	2,534,811	296,925	89.5
창원시	1,103,849	1,044,396	59,453	94.6
진주시	338,475	307,541	30,934	90.9
통영시	143,632	114,671	28,961	79.8
사천시	116,223	106,647	9,576	91.8
김해시	517,316	468,753	48,563	90.6
밀양시	111,472	79,371	32,101	71.2
거제시	236,435	190,990	45,445	80.8
양산시	264,334	222,442	41,892	84.2
군 부	516,518	263,395	253,123	51.0
의령군	30,735	15,978	14,757	52.0
함안군	69,822	25,086	44,736	35.9
창녕군	62,751	39,181	23,570	62.4
고성군	58,580	27,631	30,949	47.2
남해군	49,889	29,428	20,461	59.0
하동군	51,859	32,259	19,600	62.2
산청군	35,900	10,628	25,272	29.6
함양군	41,615	21,663	19,952	52.1
거창군	63,851	42,228	21,623	66.1
합천군	51,516	19,313	32,203	37.5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0

- 2010년말 경상남도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9,593km로 계획연장 12,481km의 76.9%이며, 이 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거는 2,203km(23%),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7,390km(77%)임
- 하수관거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에 전국 평균(78.0%)에

근접하는 76.9%의 보급률을 보임

〈표 3-6-12〉 전국과 경남의 연도별 하수관거 비교현황 (단위 : km)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계획연장	112,567	116,141	119,521	120,814	125,709	127,980	130,774	138,338	142,967	145,472
	시설 연장	총계	71,839	75,859	78,605	82,214	85,755	91,098	96,280	102,078	107,843
		합류식	44,534	45,680	46,167	47,255	48,257	48,966	49,636	49,460	49,386
		분류식	27,305	30,179	32,438	34,959	37,498	42,132	46,643	52,618	58,457
	보급률(%)	63.8	65.3	65.8	68.1	68.2	71.2	73.6	73.8	75.4	78.0
경남	계획연장	9,780	10,346	10,489	10,648	11,120	11,340	11,396	11,856	12,092	12,481
	시설 연장	총계	5,580	6,020	6,331	6,543	7,023	7,424	7,882	8,672	9,158
		합류식	1,888	2,095	2,145	2,178	2,231	2,247	2,258	2,341	2,203
		분류식	3,692	3,925	4,185	4,365	4,790	5,181	5,634	6,333	7,390
	보급률	57.0	58.2	60.4	61.4	63.2	65.5	69.2	73.1	75.7	76.9

자료 : 2010 환경부 하수도통계

- 경상남도 내 시 지역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진주시가 91.1%인 반면, 거제시가 60.2%에 불과함. 군 지역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하동군이 77.5%인 반면, 함양군은 43.1%의 보급률로 낮은 비율을 보임

〈표 3-6-13〉 경남의 시·군별 하수관거 비교현황(2010) (단위 : m)

시도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계	합류식	분류식		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관거	우수관거			오수관거	우수관거	
전국	145,472,835	40,905,730	58,256,473	46,310,632	113,494,121	47,975,581	38,068,303	27,450,236	78.0
경상남도	1248120	2,335,102	5930809	4215379	9593896	2203389	4369176	3,021,331	76.9
창원시	3,394,759	357,477	1,447,828	1,589,454	2,992,510	285,401	1,256,124	1450,985	88.2
진주시	1,080,296	465,999	319,745	294,552	983,934	454,164	307,705	222,065	91.1
통영시	518,989	285,343	148,773	84,873	395,223	212,453	113,084	69,686	76.2
사천시	635,236	198,013	352,586	84,637	430,123	198,013	182,994	49,116	67.7
김해시	1,574,263	49,138	657,895	867,230	1,243,778	49,138	576,910	617,730	79.0
밀양시	655,079	206,803	237,830	210,386	468,018	204,693	210,860	52,465	71.4
거제시	538,740	10,5227	230,215	203,298	324,338	109,788	178,025	36,525	60.2
양산시	505,842	135,187	193,041	177,614	485,544	108,396	264,460	112,688	96.0
의령군	212,361	47,725	11,5606	49,030	161,376	47,725	93,556	20,095	76.0
함안군	464,207		309,581	154,626	262,078	22,314	130,528	109,236	56.5
창녕군	371,150	98,454	175,637	97,059	240,863	98,454	105,943	36,466	64.9

시도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계	합류식	분류식		계	합류식	분류식		
			오수관거	우수관거			오수관거	우수관거	
고성군	165,299	49,379	82,235	33,685	119,158	49,379	59,188	10,591	72.1
남해군	625,083	120,828	415,629	88,626	380,067	120,828	172,735	86,504	60.8
하동군	377,114	33,931	327,733	15,450	292,420	33,931	253,656	4,833	77.5
산청군	424,482		376,213	48,269	218,656		202,923	15,733	51.5
함양군	285,765	17,757	190,456	77,552	123,303	17,757	78,416	27,130	43.1
거창군	266,762	71,055	137,517	58,190	195,506	71,055	103,093	21,358	73.3
합천군	385,863	92,716	212,289	80,848	277,000	119,900	78,975	78,124	71.8

자료 : 2010 환경부 하수도통계

## 8)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 경상남도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이상)에서 연간 하수처리량은 349,081천톤/년 중 재이용량은 54,668천톤/년으로 16%임

〈표 3-6-14〉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의 재이용수

사군	처리장명	하수 처리량 (천톤/년)	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천톤/년)								
			계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희석 용수	장내 기타 용수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장외 기타 용수
계	48개소	349,081	54,668	6,260	1,931	2,757	146	16,903	2,085	8,816	15,770
창원	대산	1,662	212	4		1		99	108		
	북면	2,004	2,116	22		11		79		2,004	
	마산/창원	107,977	5,711	831		862		4,012			6
	진해	18,986	1,868	514	373			162		591	228
진주	진주	47,597	14,661	118	118	251		197			13,977
	문산	1,110	50	18	9			23			
	사봉	495	23	22		1					
	대곡	339	72	22				50			
통영	통영	12,901	1,625	74		3		1,548			
사천	삼천포	11,470	316	310		6					
	사천	6,351	951	221				730			
	곤양	364	3	2		1					
	서포	158	47	4		1			42		
김해	화목	36,968	4,755	580	308	610	32	3,225			
	진영	4,275	500	65	88	1		346			
	장유	16,476	2,525	231	420	217	37	1,620			
	생림	150	22					22			
	진례	567	88					88			
	한림	227	29					29			
밀양	삼랑진	889	78	45		33					
	하남	857	124	68		56					
	밀양	9,576	1,007	474		533					

사군	처리장명	하수 처리량 (천톤/년)	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천톤/년)								
			계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화석 용수	장내 기타 용수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장외 기타 용수
거제	거제	256	15	9		6					
	중앙	5,913	366	65	48	70					183
	장승포	1,985	1,438	60	30	20	20	57	9	229	1,013
양산	양산	27,168	2,137	1,454	136			547			
	화제	79	1	1							
의령	의령	1,110	208	166	2	2		38			
	부림	292	59	42	1	1		15			
함안	가야	2,520	155	93	7	18	3	27			7
	대산	188	6		2	4					
창녕	부곡	1,405	101	15							86
	창녕	1,782	215	13		1		100			101
	남지	1,406	164	17	83		6				58
고성	고성	3,504	3,759	82		30		3057		590	
	회화	236	240	4						236	
남해	남해	2,237	592	33		3	6	550			
	상주	258	1	1							
	미조	129	1	1							
	이동	116	1	1							
하동	하동	2,294	1,300	59		1		105	1135		
	화개	116	1			1					
	진교	382	46	10		1		35			
산청	산청	951	215	40	20			44			111
함양	함양	2,535	642	230			42		370		
거창	거창	7,894	5,522	75	286			37		5124	
	가조면	1,018	54			12				42	
합천	합천	1,908	646	164				61	421		

자료 : 2010 환경부 하수도통계

## 9) 빗물이용 현황

- 경상남도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은 공공기관 12개소, 일반 3개소, 학교 31개소 총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량은 4,943~5,224m<sup>3</sup>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단지내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실개천 용수 등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됨

〈표 3-6-15〉 경상남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행정 구역	구분	시설명	용량(㎥)	용도	비고
계	공공기관 12, 일반 3, 학교 31개소		4,943~5,224	조경수 등	
창원시	공공기관	용지 문화공원	200	조경수	
	공공기관	창원 과학체험관	105	조경수, 잔디살수용	
	공공기관	창원 축구센터	240	옥상녹지 유지용수	
	공공기관	Y M C A	2	청소, 정원용수	
	공공기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70~350	재배용수	
	공공기관	성산 도서관	27	조경수	
	일반	(주)신텍	60	청소, 조경수	
	학교	삼정자 중학교	27	잔디살수용	
	학교	도계 중학교	50	잔디살수용	
	학교	남양 초등학교	100	화장실, 조경용수	
	학교	내동 초등학교	100	화장실, 조경용수	
	학교	창원 과학고등학교	290	운동장, 조경용수	
	학교	장천 초등학교	30	잔디살수용	
	학교	장북 초등학교	30	잔디살수용	
	학교	용원 중학교	30	잔디살수용	
	학교	석전 초등학교	150	화장실, 조경용수	
	학교	중리 초등학교	21	잔디살수용	
진주시	학교	금호 초등학교	20	잔디살수용	
	학교	개양 중학교	30	잔디살수용	
	학교	진주기공	20	잔디살수용	
	학교	가람 초등학교	100	조경용수,	
	학교	초전 초등학교	25	운동장	
통영시	일반	한진로즈힐 아파트	200	청소, 조경용수	
	학교	잠포학교	22.5	잔디살수용	
	학교	통영중앙 중학교	35	운동장, 조경용수	
사천시	학교	수양 초등학교	60	잔디살수용	
김해시	공공기관	명동 정수장	1,400	상수도원수(간접음용)	
	학교	봉명 중학교	24	잔디살수용	
	학교	삼방 고등학교	24	잔디살수용	
	학교	대청 중학교	18	운동장	
	학교	김해제일 고등학교	35	조경용수	
	학교	김해임호 고등학교	35	운동장, 조경용수	
거제시	학교	삼룡 초등학교	70	잔디살수용	
	학교	제산 초등학교	30	잔디살수용	
	학교	국산 초등학교	30	잔디살수용	
	학교	수월 중학교	35	운동장, 조경용수	
양산시	학교	범어 중학교	24	조경용수	

행정 구역	구분	시설명	용량(m³)	용도	비고
함안군	학교	황산 초등학교	20	잔디살수용	
	학교	서창 고등학교	24	잔디살수용	
	학교	호암 초등학교	40	잔디살수용	
고성군	공공기관	당항포 관광지사업소	280	조경급수용, 화장실	
	공공기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45	조경급수용	
	공공기관	생명환경 농업연구소	155	화장실, 외부하단	
	공공기관	하이다목적 생활체육시설	10	조경급수용	
	일반	하일면 취나물단지	500	취나물급수	
남해군	공공기관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청소, 지령이사육용	

자료 : 경상남도청

## 10) 낙동강 수질(BOD) 현황

- 2010년 현재 낙동강 수계 오염도(BOD)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주요 오염 하천인 금호강의 수질이 3.0mg/L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경남의 대표지점이라 할 수 있는 남지지점의 수질은 1.8mg/L로 생활환경기준 Ⅰb등급으로 전년도 3.0mg/L에서 크게 개선됨

〈표 3-6-16〉 낙동강 수질오염도(BOD) 현황 (단위 : mg/L)

구분	경북대구			경남						
	구미	금호강	고령	본류					지류	
				창녕	합천	남지	삼랑진	물금	황강	남강
2001	2.0	5.0	4.2	4.3	3.5	3.3	3.3	3.0	0.6	3.8
2002	2.0	4.1	3.6	3.2	2.9	3.0	3.6	2.6	0.9	2.9
2003	1.3	3.3	2.1	1.9	1.8	1.8	1.7	2.1	0.5	1.9
2004	1.7	3.7	2.6	2.5	2.5	2.6	2.9	2.6	0.8	2.5
2005	1.9	4.0	2.9	3.0	2.8	3.0	3.1	2.6	0.6	2.6
2006	1.9	3.9	2.8	3.3	2.8	2.7	3.1	2.7	0.9	3.6
2007	1.6	3.8	2.8	2.6	2.2	2.5	2.6	2.6	1.0	2.5
2008	1.5	3.6	3.1	2.7	2.4	2.8	2.5	2.4	0.8	3.3
2009	2.0	3.9	3.3	2.8	2.6	3.0	2.9	2.8	1.1	3.7
2010	1.5	3.0	2.1	1.8	1.5	1.8	2.5	2.4	0.8	2.0

주 : 생활환경기준등급(BOD) - Ⅰa등급(1mg/L이하), Ⅰb등급(2mg/L이하), Ⅱ등급(3mg/L이하), Ⅲ등급(5mg/L이하) 등

자료 : 도정백서, 2011

## 11)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 경상남도에 가동 중인 500㎥/일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62개소 1,528천㎥/일로서 하수도 보급률 ( '10년말 기준)은 83.6%임
-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BOD 설계방류수질은 5.0~20.0mg/L이고 실제방류수질은 0.8~6.6mg/L로 조사되었고 모든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설계 방류수질보다 낮게 처리되고 있음
-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T-P 설계방류수질은 0.950~2.000mg/L이나 실제방류수질은 0.168~1.616mg/L로 양호한 처리수질을 보이고 있음

〈표 3-6-17〉 2011년 공공 하수처리시설 가동 현황(500㎥/일 이상)

사군	처리장명	시설용량 (천㎥/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	BOD		T-P	
					설계 방류 수질 (mg/L)	실제 방류 수질 (mg/L)	설계 방류 수질 (mg/L)	실제 방류 수질 (mg/L)
계	62개소	1,527.6		2,474,082				
창원	대산	13	BNR	76,885	8.0	2.3	1.8	0.794
	북면	12	BNR+여재충진	66,256	9.0	1.7	1.8	0.553
	마산/창원	500	NPR공법	306,906	8.0	4.4	1.4	0.725
	진해	60	표준활성	107,041	9.0	4.1	1.8	0.168
	웅동	10	KSMBR	34,102				
진주	진주	150	표준활성	112,506	9.5	2.4	1.5	0.376
	문산	7.1	표준활성	26,662	16.0	2.6		1.176
	사봉	2.4	표준활성	17,309	16.0	1.8		1.085
	대곡	1.9	MS BNR	13,147	5.0	2.4	2.0	0.492
통영	통영	54	Step혐기호기법	60,128	14.0	1.7	1.0	0.492
	산양	0.5	BEST=II	9,290	8.0	2.2	1.4	0.626
	욕지	0.5	BSTS-II	8,878				
사천	삼천포	43	표준활성	87,497	8.0	4.0	1.4	0.397
	사천	18	DNR공법	45,915	9.3	4.1	1.3	0.631
	곤양	1.7	간헐포기접촉산화	18,807	7.0	2.3	1.6	1.434
	서포	0.7	간헐포기접촉산화	11,688	7.0	2.9	1.6	1.215
	용현	3	BEST=II	21,981	7.8	2.7	1.4	0.436
	화목	145	DNR공법	212,857	10.0	1.6	1.5	0.439
김해	진영	19	VIP공법	66,160	9.0	1.5	1.9	0.212
	장유	97	DNR	204,664	9.5	1.1	1.9	0.404
	생림	0.5	BCS	10,730	9.7	1.1	1.9	0.658
	진례	3.0	BCS	37,860	10.0	1.1	2.0	0.379
	한림	0.6	BCS	10,601	10.0	1.1	2.0	0.660
	밀양	4	산화구법	15,661	15.5	2.9	2.0	0.848

사군	처리장명	시설용량 (천m³/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	BOD		T-P	
					설계 방류 수질 (mg/L)	실제 방류 수질 (mg/L)	설계 방류 수질 (mg/L)	실제 방류 수질 (mg/L)
	하남	4	산화구법	15,820	15.5	2.0	2.0	1.062
	밀양	30	표준활성	52,477	6.8	5.3	1.7	1.324
거제	거제	2	HBR- II	12,251	9.0	3.0	1.0	1.106
	중앙	15	HBR- II	44,024	9.0	6.6	1.0	0.758
	장승포(옥포)	24	DNR	68,690	7.0	5.0	1.5	0.874
	장목	0.6	JASBR	6,439	7	1.6	1.4	0.140
	양산	194	고도처리단계혐기호법	225,148	8.0	1.7	1.3	0.483
양산	화제	0.5	CNR	10,745	9.5	4.4	2.0	1.455
	의령	4	산화구법	21,900	8.0	4.9	1.8	1.219
의령	부림	1	산화구법	4,466	19.0	3.5	2.0	0.881
	가야	6.8	산화구법	29,537	10.0	1.2	1.5	0.874
함안	대산	0.6	SBR	6,056	9.0	1.3	1.8	0.609
	군북	0.7	OTR-SBR	9,296	6.8	1.5	1.5	0.473
	부곡	13	회전원판	9,797	15.0	2.5		0.556
창녕	창녕	6	회전원판 + NBS	15,703	10.0	2.8	2.0	0.735
	남지	5.25	표준활성	25,841	10.0	2.9	2.0	0.758
고성	고성	13	산화구법	35,907	9.0	1.1	1.4	0.780
	회화	1	CASS-SBR	10,182	9.5	1.6	1.6	0.596
남해	남해	5.6	산화구법	16,365	17.0	2.3	1.0	1.250
	상주	0.6	PSBR	11,021	6.5	3.4	1.6	1.204
	미조	0.65	PSBR	9,491	7.4	4.7	1.8	1.616
	이동	0.6	PSBR	11,136	8.0	5.1	1.8	1.420
하동	하동	7.5	표준활성	27,540	8.5	3.3	1.8	1.447
	화개	0.5	ASA	9,700	9.0	5.2	1.5	0.594
	진교	1.3	SBR	14,450	7.6	4.0	1.8	1.486
산청	산청	2.8	표준활성	18,890	10.0	0.8	2.0	0.983
	신안단성	1.8	선회와류식SBR	14,353				
	시천	0.6	선회와류식SBR	7,721				
함양	함양	7	장기폭기	17,703	7.6	1.7	1.5	0.924
	안의	0.9	AOSB	6,470				
	수동	0.8	PSBR	6,719				
거창	거창	14	산화구법	22,227	20.0	2.7		0.988
	가조면	5.5	접촉산화	7,951	8.0	2.5	1.0	0.574
	위천	0.5	선회와류식SBR	7,745				
합천	합천	5	접촉산화	21,561	8.5	2.0	0.950	0.463
	초계적중	1.4	KSBNR	16,203				
	가야야로	1.3	ICEAS	17,771				



사군	처리장명	시설용량 (천㎥/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	BOD		T-P	
					설계 방류 수질 (mg/L)	실제 방류 수질 (mg/L)	설계 방류 수질 (mg/L)	실제 방류 수질 (mg/L)
	삼가	0.9	선회와류식SBR	21,255				

주 : 창원 웅동, 통영 욕지, 산청 신안단성, 시천, 함양 안의, 수동, 거창 위천, 합천 초계적중, 가야야로,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준공년도가 2011년도이기 때문에 방류수질 분석결과가 없음

자료 : 201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

- 홍수의 경우 1일 강수량 100mm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과거에 비해 2.7배 증가, 100년 빈도 홍수량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00년 빈도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이 1/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도 많아져 가뭄 발생 횟수가 과거에 비해 3.4배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평균 강수량은 증가하나 기온상승에 따른 증발산량의 증가 등으로 하천유량의 감소(낙동강의 경우 2.4% 감소 예상)가 예상됨. 앞으로 물수요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의 감소로 2060년대는 최대 약 33억톤의 물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우기가 6~8월에서 7~9월로 이동함에 따라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6월 강수량이 감소하여 농업생산량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1977~2006년의 30년 대비 2031~2060년과 1961~2090년의 여름 강수량은 감소하는 반면 건기인 겨울과 봄에는 강수량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전체적으로 여름 강수량은 17~24%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가용 수자원의 약 14~20%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표 3-6-18〉 기후변화에 따른 월 강수 분포 변동성

30년 중간값	1977~2006(mm)	2031~2060(mm)	변동량(%)	1961~2090(mm)	변동량(%)
1월	22.8	38.5	15.7(69)	36.7	14.0(61)
2월	31.3	35.2	3.9(13)	33.2	1.9(6)
3월	50.8	39.3	-11.5(-23)	37.9	-12.8(-25)
4월	75.1	108.2	33.1(44)	103.1	28.1(37)
5월	89.7	114.1	24.4(27)	109.3	19.6(22)
6월	150.5	110.2	-40.3(-27)	105.8	-44.8(-30)
7월	253.5	194.1	-59.4(-23)	221.1	-32.4(-13)
8월	241.6	187.1	-54.4(-23)	211.9	-29.6(-12)
9월	125.9	179.2	53.3(42)	203.9	78.0(62)
10월	41.3	38.6	-2.7(-7)	40.5	-0.8(-2)
11월	39.3	36.3	-3.0(-8)	37.7	-1.6(-4)
12월	23.2	37.9	14.6(63)	38.8	15.6(67)
연강우량	1,148.8	1,118.5	-26.3(-2)	1,179.8	35.3(3)
6-8월 강우량	645.6	491.4	-154.1(-24)	538.8	-106.8(-17)

주 : ( ) 값은 변동 비율

자료 : 국토해양부, 기후변화 대비 국가 물 안보 확보방안, 2009

- 지난 20여 년간 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온을 관측한 결과 97개 중권역 중 57개 지역에서 수온상승 경향이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2008년 대비 2100년에는 평균 수온이 2.45℃, 호소는 2.1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강우강도의 증가와 갈수기간의 장기화로 탁도 증가 및 수질악화가 예상되며 토사의 댐 내 유입에 따른 탁수 발생과 고수온으로 인한 조류 및 병원균 성장 촉진으로 인해 음용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국지성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 내 비점오염물질이 자정과정 없이 호소로 유입되어 상수원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임

## 2) 사회적 요구에 따른 수자원 전망

-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로 생활과 경제에 필요한 물 수요를 공급하는 단계는 도달하였으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풍부한 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로 지금의 수량공급 중심의 공급대책에서 물의 질과 다면적 활용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시대로 전환
- 국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하천환경과 생태의 보전 및 복원, 수변공원, 물놀이 관련 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욕구가 증가됨. 이에 따라 물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도시 및 국토계획과 연계한 물과 하천공간의 다면적 활용에 의한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조성 필요성이 증대함
- 경상남도는 현재 진주에 혁신도시개발 및 도내 여러 지역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여건 속에 수자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요구되는 상황임

### 3) 국가계획에 따른 수자원 전망

- 전국 용수 수요는 고수요 시나리오와 기준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저수요 시나리오는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기준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2011년도 우리나라의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은 25,685백만 $\text{m}^3$ /년이며, 생활용수 7,704백만 $\text{m}^3$ /년, 공업용수 2,372백만 $\text{m}^3$  및 농업용수 15,609백만 $\text{m}^3$ /년으로 전망
  - 2020년도 우리나라의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은 26,390백만 $\text{m}^3$ /년이며, 생활용수 7,786백만 $\text{m}^3$ /년, 공업용수 3,438백만 $\text{m}^3$ /년 및 농업용수 15,399백만 $\text{m}^3$ /년으로 전망
- 기준수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20년에 대한 분석 결과, 과거 최대 가뭄 발생시 전국적으로 약 444백만 $\text{m}^3$ /년의 물 부족 전망
  - 6개 권역별 물 부족 전망을 살펴보면, 한강 37백만 $\text{m}^3$ /년, 낙동강 86백만 $\text{m}^3$ /년, 금강 54백만 $\text{m}^3$ /년, 영산강 152백만 $\text{m}^3$ /년, 섬진강 105백만 $\text{m}^3$ /년으로 영산강 권역의 물 부족량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4) 경상남도 수자원 전망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에 의한 경상남도 용수 수요량은 고수요, 기준수요 및 저수요에 대하여 추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상남도의 총용수 수용량은 고수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1년 2,262백만톤에서 2020년 2,311백만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기준수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1년 2,218백만톤에서 2020년까지 2,205백만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저수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1년 2,178백만톤에서 2020년 2,101백만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경상남도의 총용수 수요량은 농업용수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많음

〈표 3-6-19〉 경상남도 총용수 수요량

시나리오	구분	목표연도별 수요량(백만㎥/년)		
		2011년	2016년	2020년
고수요	생활용수	534	532	528
	공업용수	146	172	190
	농업용수	1,582	1,586	1,593
	합계	2,262	2,290	2,311
기준수요	생활용수	513	497	483
	공업용수	144	166	180
	농업용수	1,561	1,547	1,542
	합계	2,218	2,210	2,205
저수요	생활용수	492	462	439
	공업용수	141	160	171
	농업용수	1,545	1,509	1,491
	합계	2,178	2,131	2,101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 5) 상하수도 정책의 변화

### ■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 효율성 개선 추진

- 산업발전으로 새로운 유해·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각종 폐수의 증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고도정수처리방식으로 전환
- 수돗물 유통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고,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및 단수 등을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자 저수조를 설치하는 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 중

### ■ 하수도 설치 및 운영 선진화

- 지자체 단위로 하수처리장이 설치 및 운영되어 중복투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역단위 하수도정비계획으로 인해 시군간 중복투자 방지 및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가능해짐
- 저농도 하수 유입 등 부적정 운영되는 하수처리장 개선이 시급함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됨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물관리

-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다면적 물 활용을 촉진하고, 물부족 위험성에 대한 물안보 확립 및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추진
- 수자원 관리에 관련된 노후시설 개량 및 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성 제고

#### 2) 추진시책

##### (1) 유역통합관리

##### ■ 홍수총량제 시행

- 상류측에서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를 예방하면, 그만큼 하류에서는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홍수가 발생하면 유역 전체 차원에서 홍수를 막는 것이 바람직함
- 제방위주 치수정책을 넘어서 소유역마다 홍수총량제를 도입
- 하천변 홍수터 확보, 도심내 우수지 확보 및 지하유수로, 침투정, 빗물이용시설 설치의 의무화 등으로 지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통한 사전 예방적 치수정책 도입
- 관련 토목건축 및 장치산업 활성화 가능

##### ■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 친환경적 생태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과거 치수위주의 하천정비에서 탈피하여 치수, 이수, 수질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유역차원의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필요
-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조성, 하도 준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향의 강 조성,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공간 조성

##### ■ 습지총량제 시행

- 불투수층의 증가 억제
- 토지이용규제 및 유도(대체 습지조성)

##### ■ 습지총량제 도입 추진

- 대상 : 도내 분포 내륙습지
- 추진기간 : 2010~2013(4년간)

- 추진내용 : 습지 일제 조사 및 가치 등급화, 관리대상 범위 확정 및 관리방안 수립,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습지 손실 방지
- 추진 실적 및 계획

기간	추진실적 및 계획
2010.9~2010.11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내륙습지현황 일제정리
2011.4~2012.2	습지 등급화 조사연구용역 추진
2012.3~	습지별 차별화된 보전·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2012.7~	도내 우수습지 생태보고서 제작배포
2012.12~	습지보전실천계획 및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2013.7~	습지면적 감소 방지를 위한 습지총량제 시행

### ■ 생태계를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

-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기법 도입(지표수 - 지하수 통합해석 모형)
- 지표수 - 지하수의 연계운영을 통해 가용수자원의 추가 확보를 도모하는 기술 개발
- 지표수 - 지하수의 상호작용과 수생태계간의 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지하수 사용량 증가가 유역의 수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역차원에서의 수자원 관리

### ■ 수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 경남지역 하천 및 저수지,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한 GCM(전지구기후모형) 표준 시나리오 선정
- 역학적/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이용한 경남지역 수문관측소별 기후변화 예측
- 유역모형을 이용한 유출, 토사, 수질 변화 예측
- 하천 및 저수지 수리/수질 모형을 이용한 오염/영양물질순환 및 분포 예측
- 유역관리에 있어 유황분석을 통한 갈수기 관리 정책이 수립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방안, 분석방법 및 관리 방안 마련
- 치수정책 수립 시 해안으로 유입되는 유역에 대해서는 태풍 등에 의한 해수면 변동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유역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

## (2) 순환적 수자원의 확보

### ①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 ■ 인공습지 · 인공함양을 통한 청정 상수원수 공급

- 낙동강 표류수 이용 동부경남(5개 시·군) 대체 취수원 개발, 동부경남 우선 공급, 향후 부산 등에

## 공급 추진

- 위치 : 남강 또는 낙동강변
- 사업기간 : 2012~2016(5년간)
- 총사업비 : 3,039억원 이상(잠정)
- 사업량 : 청정수 100만<sup>m</sup>³/일 생산
- 추진계획

기간	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비
1단계(2012)	예비조사 용역(적지선정 등)	도비(350백만원)
2단계(2013~2014)	타당성 조사 및 실증시험(Pilot-test)	국비(국가광역상수도사업)
3단계(2015~2016)	기본 및 실시설계, 본 사업 추진 (100만 <sup>m</sup> ³/일)	국비(국가광역상수도사업)

- 1단계 : 예비조사를 통한 적지선정 등 기반마련
  - 위치 : 낙동강 유역 5개 사군(창원, 김해, 양산, 함안, 창녕)
  - 사업기간 : 2012.1~2012.12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조사내용
    - 도내 최적 청정 상수원수 시설 적지분석 조사
    - 소규모 Pilot-test를 통한 일반수질 및 유해물질처리능력 평가
    -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 최적설계조건 도출 등

※ 본 사업은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 방식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 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

## ②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상수도 블록화·유량감시 시스템 구축(2012~) : 4개소, 22억원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 목표 : 2016년까지 누수율 10.8%까지 개선
  - 2010년 누수율 : 20.8%(전국 4위), 재정손실액 789억원(전국 1위)
  - 연간 노후관 개량사업(2010년 기준) : 258억원, 192km
  - 노후수도관 개량 5개년 (2012~2016)
  - 사업계획 : 노후관 교체 1,450km, 2,000억원(매년 400억원 정도)
  - 도비지원 확대 : 5~10% → 15~30%

-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 2개소(8천톤), 23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시설 확충 : 3개분야 30개소, 598.5억원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8개 분야 4,128개소, 321억원
- 노후수도관 교체·갱생사업 : 320km, 422억원

#### ■ 먹는 샘물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

- 먹는 샘물 제조업체 점검 및 유통제품 검사
- 정수기 및 수처리 제조업체 지도·점검
- 먹는물 공동시설(1일 50인 이상 이용시설)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하절기(7~9월) 월 1회

#### ■ 지하수 오염방지 등 관리강화

- 연간 지하수 사용량이 2억톤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지하수 관리계획 방안 마련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 전 시·군, 6억원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 166개소, 2회/년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 140건/년, 7백만원
-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조사 : 190개소, 2회/년

####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 절수설비 설치 등 사후관리 강화를
- 수요자 중심의 절수형 기기 보급
- 물사용량 표시제 도입 추진
- 주택매매 및 입주시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화
- 절수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 설치 확대 추진
- 절수기기 리베이트 제도 도입
- 절수기기 보급 후 절수효과 모니터링 시행
- 자가 누수탐지 방법에 대한 홍보
- 절수기기 개발 업체 기술개발 유도

#### ■ 빗물 이용 활성화 방안(Rain City 활성화)

-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도입
- 우수저류시설의 목적인 이수와 치수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 방안 마련



- 공공청사, 대형시설물, 대규모 주거단지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
- 그린스쿨 사업의 지속적 확대
- 인공둑병 조성
- 산업단지 내 우수저류지 조성
- 증발산 지도 구축
- 강우시 표면 유출량 지도 구축

#### 강변저류지 조성

- 건기에는 낙동강 본류 하류천변에 직렬형태 인공습지형 강변저류지에 상시 원수를 유입시켜 자연적 처리
- 우기에는 사천만 방류량 중 일정량을 취수하여 남강댐 하류변 인공습지형 강변저류지에 유입시켜 홍수통제
- 낙동강변 상습침수지역을 강변저류지로 활용

#### 중수도 재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 물 재이용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물 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재이용 보급 확대
- 하수처리수 용도의 다양화
  - 하수처리수 이용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마련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 처리용량 5,000m<sup>3</sup>/일 이상인 신·증설 처리장은 처리량의 5 ~ 10% 이상 재이용 시행
- 하수재이용 분야의 신기술 발굴 및 개발
- 중수도의 설치 의무화 대상의 점진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 농업용수 확보와 하천유지용수 공급,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용수공급(이동형 물공급 시스템)

#### 해수담수화

- 도서 지역의 물 공급원으로 이용
-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결합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 (3) 통합수자원 관리정책 마련

#### 스마트 워터 그리드 도입

- 물의 생산과 처리 효율 향상과 비용 및 에너지 절감
  - 누수방지 및 사전대응

- 물 관련 시설의 동적 에너지 최적화
- 시설의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 관련 설비의 분산화
  - 생태계의 건전성 모니터링
- 수자원의 관리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하·폐수의 자원화
  - 물의 재이용의 활성화
  - 요금체계 개선
-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보통신 및 전력 기반시설의 활성화

#### (4) 깨끗한 수질 보전 및 관리

##### 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2011~2015)

-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 11개 시·군
- 수질 모니터링 실시 : 18개 지점별 연 36회 이상 분석(8개 항목)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 : 11개시·군 399개소
-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TF팀 구축
- 오염 저감을 위한 축산습지 시범조성

- 위치 :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 사업기간 : 2012~2013년(2년간)
- 사업비 : 1,300백만원
- 사업량 : 축산습지 조성 1식(5,000㎡)

※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 계획

##### ②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실시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위치 : 낙동강 권역
- 기간 : 1985~2015
- 사업비 : 6조 102억원(국비 3조 4,586, 도비 2,257, 시군비 1조 7609, 민자 등 5,650)
- 사업량

- 총인처리시설 : 50개소 (하수처리장 38, 폐수처리장 12)
- 하수처리시설 확충 : 428개소, 878천m<sup>3</sup>/일
-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8,469km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 3개소, 27천m<sup>3</sup>/일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 15개소, 1,763m<sup>3</sup>/일

### 장마철 대비 하천주변부 대청소 실시

- 추진계획

추진내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이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정책과 연계한 하천주변 대청소	800톤 (648개소, 35,210)	1,000톤	1,100톤	1,200톤	1,300톤	1,300톤

자료 : 경상남도 청정환경국, 2012년 경상남도 업무계획

### 습지 복원 및 조성 계획

- 습지 기능 보강사업

- 추진계획

추진내용	계	2011	2012	2013	2014
합천군 정양늪 기능 보강사업	1,600	0	600	1,000	0

- 도민과 함께하는 작은 습지 복원 및 조성 시범사업

-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습지복원과 작은 습지 조성으로 생태학습장 및 여가활용 공간 제공
- 사업기간 : 2011 ~ 2012년(2년간)
- 사업량 : 송진늪 등 3개소(습지유형별 시범 대상지)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420, 시군비 180)
- 사업내용 : 도심 주변에 훼손된 습지를 본래 모습으로 환원, 공유지·미활용 저수지를 소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 생태습지 조성

- 추진계획

추진내용	계	2011	2012	2013
거창군 생태습지 조성	1,000	868	132	0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 남강댐 갈등 요인과 대응방안 모색
-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경남의 대책 마련
- 경남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 미래 수온증가에 따라 수질변화 수준 정량화
- 폐수 재이용률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
- 4대강 사업이 경남의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
- 홍수총량제 도입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통한 홍수 통제 및 물이용량 증대 방안 마련

## 제2절 해양자원의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경남 해양자원 특성

##### 지형적 특성

- 경남의 해안은 섬이 많고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해안선 길이는 2,111km로 전국의 약 16.3%를 차지함. 전남(약 50%)에 이어 두 번째로 해안선이 긴 지역임
- 경남에는 총 537개의 도서가 있음. 이 중 유인도는 76개로 유인도서 면적의 합은 116.6km<sup>2</sup>임. 도서 거주인구 규모는 총 6,682세대 13,900명임. 무인도서의 수는 461개이며 전체 무인도서 면적의 합은 9.3km<sup>2</sup>에 불과함

〈표 3-6-20〉 해안선 및 도서수 (단위 : km<sup>2</sup>, 개, 명)

시군	해안선			도서						
	계	육지부	도서부	도서수(개)			면적(km <sup>2</sup> )		세대	인구(명)
				계	유인도	무인도	전체	유인도		
계	2,111	1,363	748	537	76	461	125.91	116.6	6,682	13,900
창원시	19	19	-	-	-	-	-	-	-	-
마산시	151	117	34	24	4	20	0.89	0.44	155	360
진해시	122	95	27	25	4	21	2.5	1.1	305	756
통영시	638	204	434	250	42	208	90.87	87.79	4,058	7,981
사천시	174	110	64	45	10	35	4.88	4.55	600	1,398
거제시	443	328	115	73	10	63	21.66	20.23	1,414	3,093
고성군	186	178	8	23	2	21	1.38	0.75	26	38
남해군	305	258	47	75	3	72	2.49	1.28	63	121
하동군	73	54	19	22	1	21	1.24	0.46	61	153

자료 : 경남 통계연보(2010)

##### 기후와 해양환경

-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경남은 겨울철 최저기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여름철 최고기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온화한 기후적 특징을 보임
- 온난다습한 해양성 기후로 여름철 강수량이 많으며, 태풍의 이동경로에 위치해 태풍 상륙 및 통과로 인한 강우와 강풍이 발생
-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 반폐쇄적 내만이 발달. 이로 인해 파도가 잔잔한 정온 수면적이 확보되고 있으며, 청정한 해수 등 우수한 해양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지형

- 섬과 해식애가 발달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거제도 해금강 등). 갯벌과 해안습지의 면적이 적은 반면,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이 형성되어 있어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음
- 수심은 남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깊어지며, 해저의 저질은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주요 해양생물의 산란장이 조성되어 있음

## 2) 해양자원 이용 현황

### (1) 해양생물자원

#### 수산물 생산현황

- 경남의 전국 대비 수산물 생산실적은 2010년 기준으로 금액 대비 17.0%이며, 이 중 일반해면은 57.1%, 천해양식은 41.6%로 어로어업의 비중이 높음
- 2010년 경남의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25.4천톤, 생산금액은 5,896억원으로 생산량은 전국 대비 20.7%, 생산금액은 전국 대비 15.1%를 차지
- 2010년 경남의 양식생산량은 333,365M/T, 생산금액 4,293억원으로 생산량은 전국 대비 24.6%, 생산금액은 전국 대비 23.6%를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

#### 어종수

- 경남에서 생산되는 해면어업 어종수는 어류 59종, 갑각류 12종, 패류 18종, 연체동물 8종, 기타 수산동물 6종, 해조류 10종으로 모두 113어종임
-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면어업 어종수는 모두 121종임. 경남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어류 17종, 갑각류 1종, 패류 6종, 기타 수산동물 3종, 해조류 4종으로 모두 31종임

〈표 3-6-21〉 전국 및 경남 어업 어종수

업종	지역	합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해면어업	전국	121	63	13	19	8	6	12
	경남	113	59	12	18	8	6	10
	경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		참다랑어 보리멸 양미리 참홍어	대게	오분자기	-	-	다시마류 도박류
양식어업	전국	39	17	2	9	-	3	8
	경남	31	17	1	6	-	3	4
	경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			대하	가리비 가무락 키조개			모자반 청각 툏 매생이

〈표 3-6-22〉 경상남도 일반해면어업 어종별 생산 현황(2010) (단위 : M/T, 백만원)

어종류	어종	생산량				생산금액			
		합계	활어	선어	냉동	합계	활어	선어	냉동
어 류 (60)	합계	254,005	35,590	201,793	16,622	589,622	241,464	313,195	34,962
	소계	225,552	17,164	196,493	11,895	469,638	151,060	291,214	27,365
	가오리류	293	165	127	1	2,292	1,712	575	5
	가자미류	1,952	1,360	578	14	26,937	23,349	3,549	39
	갈치	7,304	0	4,877	2,427	14,436	0	8,192	6,244
	강달이	1,800	0	0	1,800	1,129	0	0	1,129
	고등어류	3,190	0	1,690	1,500	3,701	3	2,367	1,331
	망치고등어	2,172	0	2,172	0	2,418	0	2,418	0
	꽁치	751	1	750	0	1,026	7	1,019	0
	넙치류	312	185	108	19	4,071	3,330	683	58
	농어	290	178	78	34	2,964	2,446	462	56
	눈볼대	125	0	125	0	762	0	762	0
	능성어	3	2	1	0	336	254	81	0
	다랑어류	94	0	90	4	61	0	56	5
	도루묵	0	0	0	0	1	1	0	0
	대구류	941	380	561	0	8,415	4,365	4,049	1
	감성돔	586	515	71	0	7,769	7,316	453	0
	옥돔	9	0	9	0	150	2	148	0
	자리돔	28	28	0	0	229	223	6	0
	참돔	404	138	261	5	3,370	2,087	1,261	22
	돌돔	69	64	5	0	1,251	1,226	26	0
	기타돔류	110	44	65	1	976	753	218	5
	망둑어류	81	34	47	0	462	207	255	0
	멸치류	144,291	0	143,791	500	192,856	0	192,566	290
	반지	2,814	0	2,811	3	1,850	0	1,845	6
	명태	1	0	1	0	5	0	5	0
	민어	118	0	92	26	889	6	711	172
	방어	208	43	115	50	631	349	233	50
	밴댕이	1,646	0	1,646	0	1,391	0	1,391	0
	병어류	2,420	0	1,974	446	15,231	1	12,846	2,384
	보구치	356	3	353	0	1,269	11	1,259	0
	복어류	122	15	72	35	1,209	472	521	215
	조피볼락	609	330	279	0	4,927	3,448	1,478	0
	기타볼락	679	277	402	0	7,352	4,654	2,698	0
	노래미류	381	329	52	0	4,184	3,841	343	0
	부세	10	0	3	7	92	0	35	57
	삼치류	10,757	0	6,541	4,216	30,460	0	17,489	12,971
	상어류	21	8	4	9	188	105	60	23
	서대류	88	0	88	0	618	0	617	1
	성대류	508	108	400	0	1,997	917	1,080	0
	삼세기	31	19	12	0	329	237	92	0
	송어류	2,400	2,326	73	1	6,875	6,735	139	1
	아귀	865	203	628	34	3,632	1,643	1,911	78
	까나리	178	0	125	53	271	0	241	29
	양태	94	7	87	0	621	92	529	0
	연어	0	0	0	0	1	0	1	0
	임연수어	3	3	0	0	27	27	0	0
	갯장어	274	204	70	0	2,903	2,521	376	6
	먹장어	6	6	0	0	119	106	13	0
	붕장어	8,748	8,425	317	6	65,757	63,975	1,748	35
	전갱이류	6,752	90	6,650	12	6,533	120	6,407	7

	전어	5,306	521	4,785	0	6,842	3,807	3,035	0
	정어리	7	0	7	0	3	0	3	0
	참조기	515	0	7	508	1,931	0	44	1,887
	기타조기류	184	0	165	19	668	2	633	34
	준치	0	0	0	0	10	0	10	0
	쥐치류	360	172	154	34	3,292	2,722	484	85
	청어	7,188	0	7,096	92	5,376	0	5,313	63
	홍어류	6	0	0	6	27	0	0	27
	꼼치	1,180	517	663	0	6,984	3,660	3,324	0
	기타어류	5,912	464	5,415	33	9,529	4,327	5,156	47
갑 각 류 (13)	소게	2,099	1,184	875	40	14,389	9,888	4,357	144
	꽃게	31	12	6	13	288	181	50	58
	붉은대게	0	0	0	0	1	1	0	0
	민꽃게	650	630	20	0	4,353	4,264	89	0
	기타게	269	185	78	6	1,927	1,519	395	13
	꽃새우	14	0	14	0	228	3	224	0
	닭새우	7	0	7	0	18	3	14	0
	대하	5	0	5	0	197	20	177	0
	보리새우	55	53	2	0	1,981	1,932	49	0
	젓새우	7	0	7	0	65	0	65	0
	중하	0	0	0	0	15	1	14	0
	기타새우	728	14	693	21	3,215	74	3,068	73
	기타갑각류	333	290	43	0	2,100	1,889	211	0
패 류 (19)	소게	10,704	10,704	0	0	28,165	28,165	0	0
	굴류	2,924	2,924	0	0	2,420	2,420	0	0
	소라	58	58	0	0	416	416	0	0
	고동류	359	359	0	0	1,766	1,766	0	0
	전복류	21	21	0	0	1,804	1,804	0	0
	가리비	103	103	0	0	660	660	0	0
	가무락	50	50	0	0	225	225	0	0
	개량조개	4	4	0	0	29	29	0	0
	꼬막류	282	282	0	0	855	855	0	0
	동죽	1	1	0	0	2	2	0	0
	맛류	8	8	0	0	28	28	0	0
	바지락	2,882	2,882	0	0	6,307	6,307	0	0
	백합류	19	19	0	0	114	114	0	0
	새조개	798	798	0	0	4,555	4,555	0	0
	키조개	154	154	0	0	315	315	0	0
	피조개	1	1	0	0	9	9	0	0
	홍합류	1,557	1,557	0	0	1,293	1,293	0	0
	개조개	1,215	1,215	0	0	6,650	6,650	0	0
	기타패류	268	268	0	0	716	716	0	0
연체동물 (9)	소게	11,819	2,707	4,425	4,687	58,648	33,569	17,625	7,453
	갑오징어류	348	188	116	44	2,499	1,886	489	124
	꼴뚜기	446	5	432	9	3,364	124	3,209	32
	낙지	967	891	76	0	14,724	14,066	657	0
	문어	1,386	1,231	155	0	15,185	14,123	1,062	0
	주꾸미	137	120	17	0	1,823	1,676	147	0
	오징어류	8,401	265	3,505	4,631	20,536	1,637	11,616	7,283
	한치	122	0	119	3	449	1	435	12
	기타연체동물	12	7	5	0	68	57	9	2



기타수산물 (7)	소계	1,995	1,995	0	0	16,267	16,267	0	0
	미더덕	1	1	0	0	2	2	0	0
	성게	214	214	0	0	603	603	0	0
	우렁쉥이	707	707	0	0	2,644	2,644	0	0
	해삼	1,060	1,060	0	0	12,778	12,778	0	0
	오만동이	1	1	0	0	4	4	0	0
	기타수산물	12	12	0	0	235	235	0	0
해 조 류 (7)	소계	1,836	1,836	0	0	2,515	2,515	0	0
	김	0	0	0	0	0.3	0.3	0	0
	꼬시래기	0	0	0	0	0.5	0.5	0	0
	모자반(말)	15	15	0	0	25	25	0	0
	미역	494	494	0	0	401	401	0	0
	우뚝가사리	55	55	0	0	75	75	0	0
	청각	150	150	0	0	115	115	0	0
	톳	1,006	1,006	0	0	1,738	1,738	0	0
	파래	104	104	0	0	135	135	0	0
	매생이	0	0	0	0	0.3	0.3	0	0
	기타 해조류	12	12	0	0	26	26	0	0

〈표 3-6-23〉 경상남도 천해양식어업 어종별 생산 현황(2010) (단위 : M/T, 백만원)

어종류	어종	생산량				생산금액			
		합계	활어	선어	냉동	합계	활어	선어	냉동
합계		333,365	333,364	1	0	429,300	429,297	3	0
어 류	소계	24,516	24,515	1	0	229,148	229,144	3	0
	가자미류	37	37	0	0	481	481	0	0
	고등어류	256	256	0	0	2,931	2,931	0	0
	넙치류	1,286	1,286	0	0	13,990	13,990	0	0
	농어	1,419	1,419	0	0	14,426	14,426	0	0
	능성어	194	194	0	0	4,213	4,213	0	0
	감성돔	1,133	1,133	0	0	11,636	11,636	0	0
	참돔	5,789	5,789	0	0	58,664	58,664	0	0
	돌돔	269	269	0	0	4,862	4,862	0	0
	기타돔류	8	8	0	0	75	75	0	0
	민어	32	32	0	0	538	538	0	0
	방어	134	134	0	0	1,443	1,443	0	0
	복어류	23	23	0	0	619	619	0	0
	조피볼락	9,414	9,414	0	0	83,026	83,026	0	0
	기타볼락	196	196	0	0	2,523	2,523	0	0
	송어류	3,879	3,879	0	0	23,566	23,566	0	0
	전갱이류	7	6	1	0	64	60	3	0
	쥐치류	440	440	0	0	6,091	6,091	0	0
갑 각 류	소계	45	45	0	0	988	988	0	0
	흰다리새우	45	45	0	0	988	988	0	0
패 류	소계	290,524	290,524	0	0	175,947	175,947	0	0
	굴류	238,311	238,311	0	0	144,532	144,532	0	0
	전복류	17	17	0	0	1,059	1,059	0	0

	꼬막류	831	831	0	0	2,786	2,786	0	0
	바지락	773	773	0	0	1,983	1,983	0	0
	피조개	146	146	0	0	570	570	0	0
	홍합류	50,446	50,446	0	0	25,016	25,016	0	0
기타 수산동물	소계	11,710	11,710	0	0	16,750	16,750	0	0
	미더덕	2,918	2,918	0	0	3,390	3,390	0	0
	우렁쉥이	3,343	3,343	0	0	9,130	9,130	0	0
	오만둥이	5,449	5,449	0	0	4,231	4,231	0	0
해 조 류	소계	6,570	6,570	0	0	6,468	6,468	0	0
	김	5,173	5,173	0	0	5,325	5,325	0	0
	다시마류	4	4	0	0	2	2	0	0
	미역	1,155	1,155	0	0	764	764	0	0
	파래	238	238	0	0	377	377	0	0

## (2) 해양관광자원

## ■ 해수욕장

- 2009년 경남도내 해수욕장 총면적은 1,189,850㎡, 백사장 총길이는 14,040미터이며, 연간 이용객수는 242만명으로 최근 6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3-6-24〉 경남도내 해수욕장 현황 (2004-2009) (단위 : ㎡, m, 개, 명)

년도	총면적	백사장 길이	시설물			이용객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2004	1,037,800	14,040	36	-	32	1,144,153
2005	1,031,800	14,040	36	-	32	1,178,890
2006	1,031,800	14,040	36	-	32	1,500,020
2007	1,019,800	13,800	35	-	31	1,584,686
2008	1,012,000	14,040	36	-	32	1,591,155
2009	1,189,850	15,229	38	19	33	2,423,663
통영	8,000	500	4	2	4	31,380
비진도	22,550	550	2	2	2	32,150
대항	6,200	200	2	2	2	12,340
남일대	66,000	184	1		1	155,145
학동	148,000	1,850	3	3	3	339,745
명사	31,500	785	1	1	1	53,130
구조라	92,700	2,300	3	2	2	301,315
덕포	18,000	450	1	1	1	37,470
흥남	10,500	350	2	2	2	6,615
와현	15,300	510	3	2	2	270,440
농소	80,000	2,000	2	2	2	11,250
상주	546,400	2,000	6		4	773,308
송정	104,700	2,000	3		2	256,285
사촌	13,000	650	2		2	46,899
월포	27,000	900	3		3	96,191

자료 : 경남통계연보(2010)

### ■ 유람선 관광

- 경남은 전국 유람선 관광객 비중 50% 이상을 점유해 유람선 관광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 (김한도, 2009). 시군별로는 통영의 제승당 코스가 유명하며 거제는 해금강의 해상관광과 외도의 섬 상륙관광이 특징적임

〈표 3-6-25〉 경남 연안여객선 수송 현황 (2004-2009) (단위 : 천명, 천톤)

년도	수송 여객수	수송 화물량
2004	1,699	622
2005	2,105	563
2006	2,250	565
2007	2,495	639
2008	2,855	633
2009	2,950	774

자료 : 경남통계연보(2010)

### ■ 한려해상 국립공원

-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여수시, 하동군, 남해군 등 6개 시·군이 속한 거대 해상국립공원으로 면적은 육역 150.15 km<sup>2</sup> 해역 395.48 km<sup>2</sup>로 이루어져 해상면적이 약 72%를 차지함
-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해양과 도서, 육지가 빚어내는 지형경관이 뛰어나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음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해양생명자원

#### (1) 해양생명자원 개발 여건 (기회요소)

##### ■ 해양생명자원 이용수요의 증가

- 육상의 곡물재배 면적 감소와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식량자원으로서 해양 생명자원이 가지는 가치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인구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해양 생물의 인위적 대량증식기술 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수산자원은 해양생물체의 유전정보 이용 및 신소재개발 등 해양생명공학에도 이용할 수 있음. 이는 양식과 더불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해양생명공학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 성장하고 있음

##### ■ 경남의 잠재력

- 경남은 우리나라에서 어류양식이 처음 시도된 지역이며 어패류의 양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양식업의 성장은 경남의 기회요소가 될 것임. 또한, 해양생태 조건이 우수하며 수산양식업의 역사가 긴 지역으로 해양생물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음
- 넓은 바다면적과 잘 발달한 해안선, 산재한 크고 작은 섬 등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적합해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용이하며, 도내의 우수한 제조업 기반은 해양생물공학기술의 산업화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2) 해양생명자원 이용의 문제점 (위기요소)

### ■ 자원고갈과 생태계 훼손

- 과도한 어획, 불법 어획, 자원관리의 실패 등 원인으로 지역 수산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의 건설, 항만의 대형화, 매립과 간척, 발전소 온배수 배출, 대형선박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 등 각종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은 해양생명자원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최근 육지로부터 해양쓰레기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산업과 해양관광분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최근의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양적 감소와 생물종 수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해 종다양성 훼손의 정도는 심각한 상황임
- 잦은 이상 기후의 출현과 해파리,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의 집단적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생물자원의 서식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 지역 역량 부족

-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초과학지식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경남 관내에 해양생명자원 관련 연구시설과 장비 및 전문가를 확보한 대학은 경상대학교 해양생명과학대학이 유일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경우에도 부산에 본원과 주요 연구센터가 집중되어 있어 경남의 해양생명분야 연구개발 역량은 부족한 편임
- 지역내 해양생명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의 수가 적음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도 부족함

## (3) 해양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경남의 과제

### ■ 세계적 추세와 동향

-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 수산양식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즉, 해양과학기술분야 주요 선진국들은 해양생명자원을 차세대 신물질 개발의 원천으

로 인식하고 해양동물 뿐만 아니라 해조류, 미세조류로부터 식물성 신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다당류, 올리고당, 레반, 후고이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하는데 성공해 일부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음. 향후 식량, 의약품, 산업신소재 원료물질 개발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며,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 해양국의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음

#### ■ 정부의 정책 방향

-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해양생명자원 이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적 우위 선점 및 세계 7대 해양생명공학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분야 국가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고 육성분야를 선정한 해양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Blue-Bio2016)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에서는 해양생명공학 시스템 분야 18대 육성전략과 해양생명공학 연구개발 분야의 40개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 확대가 예상됨

#### ■ 경남의 과제

- 현재 경남지역의 해양생물자원 이용은 포획하거나 가두어 기르는 방법으로 생산하고 이를 식량으로 소비하는 수산업적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수산업이 미래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식분야의 배합사료제조, 인공종묘생산, 수산동물질병예방 및 관리, 유전육종 기술에 의한 품종 개량 등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경남은 이러한 수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분야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투자에 집중해 우리나라 해양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함

## 2) 해양관광자원

### (1) 해양생명자원 개발 여건 (기회요소)

#### ■ 경남 해양관광의 강점

- 경남의 해안은 도서가 많고, 해안선이 길며,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관광의 경쟁력이 높음. 연중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갖추어 바다낚시,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함
- 또한, 연안과 도서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 특히 임진왜란의 배경이 된 해역으로 전쟁 관련 유적지와 기념물이 있으며, 남해안 어촌의 독특한 생활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등 문화적 독창성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산업화 초기부터 남동임해공업지역으로 특화되어 발전해 온 부산, 경남, 울산은 현재 인구 800만의 동남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배후지역의 인구기반은 해양관광 방문객 수요를 증가시키는 중

#### 요한 요인임

- 철도, 고속도로, 공항, 연안여객 등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 경남으로 진입하는 교통수단이 다양하며 접근성이 우수하며, 세계 제1위의 조선산업은 레저보트 제조, 수리, 판매, 대여 등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 ■ 국내 해양관광 수요의 지속적 증가

-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여름 피서철에만 바다를 찾던 과거의 패턴에서 연중 방문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방문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숙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요트,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고급 해양레포츠와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육상자원 이용의 한계와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 해양자원 탐사기술의 발달 등 해양생물 및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해양과학 현장교육을 위한 방문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요 증가

-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객은 2010년 5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는 연간 1억 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삼성경제연구원, 2011)
-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40% 증가
-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제주 지역은 전년대비 약 60% 증가하였음
  - 2012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도입될 예정. 이 제도는 크루즈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의 외국인 승객이 3일 범위 안에서 관광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특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 관광 선호체계 변화

- 21세기 관광패턴은 소수의 관광객이 자신만의 관심사를 찾아 다른 사람과 차별된 여행 코스를 선택해 각자의 여행을 즐기는 탈대중여행시대로 이행하고 있음
- 특히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관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단위, 자연문화체험, 장기체류 선호로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있음

## (2) 해양관광자원 이용의 애로점 (장애요소)

### ■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인지도

- 경남은 해양관광 개발의 측면에서 투자가 부족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점이 향후 해양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 개인용 레저선박을 이용한 여가활동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은 부족하며 이 외에 모터보트 등 소형레저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경남지역 해변의 숙박시설은 마을단위로 형성된 민박촌이 대부분이며, 최근 거제, 통영, 남해 등 관광지에서 과거의 민박집이 펜션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해양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와 연계한 리조트 시설 등 관광객 수용인프라는 부족함
- 경남의 해양관광객은 여름철 해수욕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낚시, 스낵스쿠버, 요트 등 레저활동이나 어촌체험관광도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관광편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름 편중현상이 매우 심함
- 국제적 해양관광지로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주나 부산에 비해 경남지역은 해양관광지로서 인지도가 낮은 편임. 경남은 넓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하고 현대식 관광인프라를 정비해 21세기 국제 해양관광지로서의 명성을 갖추어야 함

### ■ 해양관광 경쟁구도 심화

-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아시아국가의 해양관광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특히, 크루즈, 마리나, 해양리조트 등 해양레저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국내에서는 해양수도를 표방하며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는 부산, 2012년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전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해양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해양관광활성화 추진의 초기단계

- 경남의 대표적 해양관광지인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해양경관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내에서의 관광개발이 지나친 제도의 제약으로 자유롭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의 효율적인 관광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이유로 경남의 해양관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경남은 해양의 자연조건이 매우 우수하므로 이러한 해양생태계를 잘 보호해 관광상품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해양스포츠와 해양레저활동은 바다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바다의 생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수질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어류, 패류, 해양파충

류, 해양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바다생물이 풍부한 바다는 그 자체가 레저이용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됨. 해양생태계의 보호는 경남이 가진 해양관광지로서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3)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과제

#### ■ 세계적인 추세와 동향

-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해변휴양에서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인 해양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크루즈, 마리나 등 고가 해양관광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 정부의 정책방향

- 정부는 전국 54개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확정. 동 계획은 전국 7개 항만에 국제 크루즈선 기항을 위한 전용부두 9선석을 조성해 운영하고 2020년까지 전국 21개 무역항에 해양문화, 레저 및 상업공간을 개발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

※ 이 계획에서 제시한 크루즈 항만 개발에 경남의 항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발표. 동 계획에서는 현재 1,028척 수용가능한 마리나항만 시설을 2019년까지 5,600척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충할 계획을 포함. 주요 정박대상 선박은 크루저 보트(엔진을 추진기관으로 하며 선실이 있는 배, 전장 7-16m), 모터 보트(엔진을 추진기관으로 하며 흘수가 얇은 레저 보트, 전장 4-12m), 크루저 요트(캐빈이 있으며 대부분 보조동력 엔진을 구비한 배, 전장 6-18m), 덩기 요트(캐빈 및 보조동력 엔진이 없는 배, 전장 3.5-7.5m) 등임

#### ■ 경남의 과제

- 경남 해양의 특성과 경남이 보유한 해양관광자원의 장점을 잘 반영한 해양관광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
- 해양관광지로서 경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 특히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해양관광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지역 경제산업계와의 연계가 중요

## 3) 해양에너지자원

### (1)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 여건(기회요소)

#### ■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

- 국제 유가의 불안정,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비화석연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 아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 에너지관리공단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석탄가스화/액화, 지역, 수력, 파력, 조력 등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
- 2010년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전략 확정. 지식경제부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15년까지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발표

### ■ 화석연료 기피

- 석유 등 화석연료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의 35%를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우리나라는 약 60%의 에너지를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의 인구 증가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존량은 감소하고 있음
-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와 부존자원량 감소는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석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고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공간 제약에 따른 해양의 이용 잠재력 대두

- 최근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실용화 단계에 이른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임. 태양광발전은 집광을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 또는 공간이 필요하며, 풍력발전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세기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소음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등 조건으로 인해 육상 시설의 설치에 제약이 있음
- 태양광은 넓은 면적의 집광판 설치가 필요해 지가의 부담이 없는 수면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기 시작(합천댐 수상태양광). 남서해안의 갯벌을 활용한 해상풍력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중

- 정부는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실행 계획 수립
  - 1단계 (2009-2011) 기초원천기술 개발
  - 2단계 (2012-2014) 응용기술개발
  - 3단계 (2015-2018) 실용화 기술개발

## (2)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 애로점(장애요소)

### ■ 자연조건

-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일정한 세기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며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얕은 수심과 견고한 설치가 가능한 해저지형을 갖추어야 함
- 경남 해안은 매년 태풍의 상륙과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상의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견딜 수 있어야 함

### ■ 기술개발

- 해상풍력발전은 해저 심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발전설비가 최대 20m 수심의 해안에 설치되므로 육상 풍력발전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요함
- 경남의 해안에 해상풍력발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수준보다 더 깊은 수심의 바다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심해 해상 풍력발전과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의 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경남 해안의 해상풍력 개발 여부는 향후 기술수준의 발달에 의존함
- 해상 태양광시설 역시 내수면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경남에서의 해양에너지 개발은 기술수준의 발달에 따라 적용의 가능성이 결정됨

### ■ 해안입지의 제약

- 현재 경남의 해안은 대형 조선소와 기계설비 제조를 위한 산업입지로의 이용밀도가 높아 해양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유희부지가 부족한 실정임
- 육지와 인접한 내만은 어류와 패류의 양식 시설이 밀집해 있음
-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넓어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가능한 입지는 제약적임

## (3) 경남의 과제

### ■ 세계적인 추세와 동향

-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연구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실용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 정부의 정책방향

- 우리나라도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 경남의 과제

- 경남은 해안을 접한 광역지자체로 해양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전략개발이 필

## 요함

- 단, 경남에서의 해양기반 신재생에너지 실용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안입지 및 해수면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미래 해양에너지 공급기지 역할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과 부품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해양생명자원

##### (1) 계획목표

##### ■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

- 경남 수산업은 향후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과학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1차 식량생산업에서 2차 식품가공, 3차 식품 유통 및 요식업을 합한 개념의 6차 산업화를 추구해 미래 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인공종묘생산과 유전육종 분야의 기술개발로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항생제 등 기타 위해요소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로 미래 식량공급능력 제고

##### ■ 해양생명공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 수산식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의약품, 기능성물질, 신소재 등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이는 관련 산업체와 연구업체의 집적효과 및 산학연관 협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화 전략이 필요
- 경남지역은 도내 우수한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양생명공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생물공학산업분야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벤처환경의 조성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실험실과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

##### (2) 추진시책

##### ■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 설립

- 해양생명자원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량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해양생물 대량 생산 기술 연구/보급
  - 신물질 추출 기술 개발

- 기능성 물질 실용화 시험적용
- 경남도 차원의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 설립을 과제로 설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신규 연구기관 설립보다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범위를 해양생명공학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 수산업 분야 생명공학기술 적용

- 수산양식분야에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저비용-고효율 생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이전해 도내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함
- 경제성과 상품성을 갖춘 양식신품종 개발
- 친환경 배합사료 제조기술 적용
- 유전육종에 의한 방류어종

#### ■ 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 개발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의 환경수용능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기능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지, 유치어의 서식 및 피난처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감
- 해양의 환경수용능력 제고
- 해양생물 대량생산을 위한 공간의 확보

## 2) 해양 관광자원

### (1) 계획목표

#### ■ 대한민국 해양레저 1번지 브랜드 구축

- 요트, 보트 등 타 지역과 차별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 대한민국 해양레저 1번지의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경남은 바다낚시와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위한 방문객이 많은 곳임. 이들 해양레저스포츠는 해양이 보유한 생물량과 생물의 다양성이 방문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바다낚시터 관리 강화와 스쿠버 다이빙 사이트 개발 및 관리 강화로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는 전략 필요

#### ■ 경남만의 해양관광상품 개발

- 주말 가족단위 휴양방문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가진 지역의 자연환경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경남만의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활용한 씨푸드 레스토랑 조성, 어촌민속체험, 섬생활 체험 등 다양한 상품 개발 추진

## (2) 추진시책

### ■ 해양레저 특구 조성

- 요트, 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바다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동시에 즐기는 복합 해양레저특별지구 조성
  -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관 설치
  - 해양레저 교육 전문가 양성
  - 해양레저스포츠 상설 쇼핑몰 조성

### ■ 마리나항만 종합적 육성

-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1)에 의거 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 삼천포, 사곡, 충무 등 도내 8개 항만을 마리나항으로 개발해 나감. 이를 위해 전용 부두와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연계 서비스시설 조성, 그리고 해양레저상품과의 연계 육성 추진
  - 마리나항 육성을 위해 레저보트 계류시설, 대여 및 수리 서비스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관 설립 등 관련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해변과 마리나에 대한 국제인증(Blue Flag) 획득 추진 및 국제요트대회 유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리나관광지로 부상
  -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리나산업 육성 추진

### ■ 크루즈 관광 종합적 육성

- 국내외 대형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입항할 수 있는 부두와 터미널을 조성하고 출입국 등 크루즈 업무 전담부서 운영 등 크루즈 관광의 종합적 육성 추진
  - 크루즈 전용부두 및 복합 관광시설 조성
- 크루즈 여행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안유람선의 노선을 추가 또는 기존 유람선의 노선을 조정하고 연안·내륙여행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단계적 추진 필요
  - 연안여객유람선 / 내륙관광 연계 상품 개발

### ■ 어촌 섬관광 육성

- 기존 어촌체험관광이 단편적 체험에 그치는 단점을 보완해 어촌의 전통생활과 어로활동 및 어촌민 속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어촌체험관광 개발 및 보급 추진
  - 경남의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조사 및 관광자원화 연구 시행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체계적·효과적 이용개발
  - 어촌전통생활문화를 관광상품화, 친환경 무공해 섬생활 체험관광 육성

### ■ 어촌어항관광단지 조성

- 어촌어항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경관, 어업자원을 자원화 하여 관광지로 개발함. 유희공간을 문화

활동, 휴식, 먹거리여행, 특산물 쇼핑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해 어촌방문객의 종합적인 욕구를 충족

-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촌관광활성화
- 어촌주민 생활 및 관광중심 어항에 생산기반시설 및 어촌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 해변테크, 바닥조형분수, 야외무대, 상징조형물 등 친수시설과 수산물식당가 및 수산물특산물 직거래장터 조성

#### ■ 연안 여가·휴양시설 조성

- 공유수면, 자연형성지, 불법매립지 및 국공유지 등 연안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연안정비와 해양관광 연계사업 추진
- 경관 전망대, 포토존, 생태계 관찰테크, 생태교량, 연안습지생태 관찰지구 조성 등 추진
- 국토해양부 지정 해안누리길 코스의 해안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해안도보명소 추가발굴, 해안누리길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화

### 3) 해양 에너지자원

#### (1) 계획목표

##### ■ 지역여건에 적합한 해양에너지 개발

- 해양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함. 경남의 자연조건 및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 비교적 깊은 해안에서의 해상풍력발전과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부유식 발전시설 등 해양기반 신재생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기초기술 확보 후 산업화 추진

##### ■ 해양바이오에너지 전략적 개발

- 해조류, 미세조류에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해양생명공학분야와 연계한 기술개발 및 소규모 시험단지 운영

#### (2) 추진시책

##### ■ 해상풍력 관련 기술 확보

- 육상풍력시스템, 부품제조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산업, 기술 역량을 해상풍력으로 확대
-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 인력양성사업 추진
-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장기)

##### ■ 해상태양광 육성

- 수면의 움직임이 유동적인 해상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부유식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이 이루

어진다면 육지면적의 손실없이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이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기술지원과 전략적 투자 필요

- 해상태양광 사업성 검토
- 해상태양광 적용 기술개발 지원
- 부유식 태양광 설비의 다목적 이용

#### ■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 국내 최대의 수산해양자원과 수산양식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지역의 이점을 활용해 경남지역을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 추진
  - 바이오연료 추출기술의 확보 등

## 4) 해양환경 관리

### (1) 계획목표

#### ■ 해양 환경훼손 최소화

- 공유수면 매립, 항만물동량 및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연안 활동 인구의 증가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및 이용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해양환경의 훼손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유도

#### ■ 해양생태계 편익 극대화

- 해수온도 상승과 해류변화, 해양오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멸종위기종 및 해양생태계 교란, 유해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생물종다양성의 훼손이 우려됨
-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대상해양생물종,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함

### (2) 추진시책

#### ■ 연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비

- 경남지역 연안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동안 개발압력에 의한 해안선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침식의 가속화 진행 등으로 연안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연안정비가 필요함
-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 및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 도입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 확보 및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 마련

###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폐어구, 폐어망 관리 강화
-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양유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구 해양쓰레기 경보체계 구축 및 해양쓰레기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관광객 대상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생물 피해 홍보교재 발간·보급
  - 여름휴가철 해안방문객과 낚시객에게 쓰레기봉투를 교부하고 자신이 발생한 쓰레기를 담아오도록 하는 바다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 ■ 해양생태계 관리 네트워크 구축

- 경남도 권역내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해양생물종의 기본정보를 구축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종과 유해해양생물종을 지정해 생물종다양성 유지에 활용
- 기 지정된 보호구역과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연안·해양 보호구역 통합관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보호구역 지정 후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사후평가를 실시해 및 관리계획 수정에 반영



## 제3절 친환경적 개발관리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도시화 추세

-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지역내 거주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로 정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50.1%로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가 동일한 시점을 지나, 2010년 말 현재 90.9%의 도시화율을 기록함

〈표 3-6-26〉 전국 도시화 추세 (단위 : 천명, %)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인구	24,989	31,435	37,449	43,390	47,964	48,783	50,515
도시인구	9,784	15,750	25,738	35,558	42,375	43,982	45,933
농촌인구	15,205	15,685	11,711	7,832	5,579	4,801	4,582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90.2	90.9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각년도

- 경남의 인구는 2000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띠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도시계획구역 기준으로 2010년 12월 현재 84.5%로, 전국의 도시화율이 90%를 상회한 점을 고려하면 경남의 도시화율은 낮은 편임
-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근교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토지이용의 관리가 필요함

〈표 3-6-27〉 경남도시화 추세 (단위 : 천명, %)

구 분	도인구	도시계획구역 기준도시인구	행정구역 기준 도시인구(읍이상)	도 시 화 율	
				도시계획	행정구역
2000년	3,109	2,477	2,321	79.7	74.7
2005년	3,160	2,667	2,323	84.4	73.5
2010년	3,290	2,780	2,469	84.5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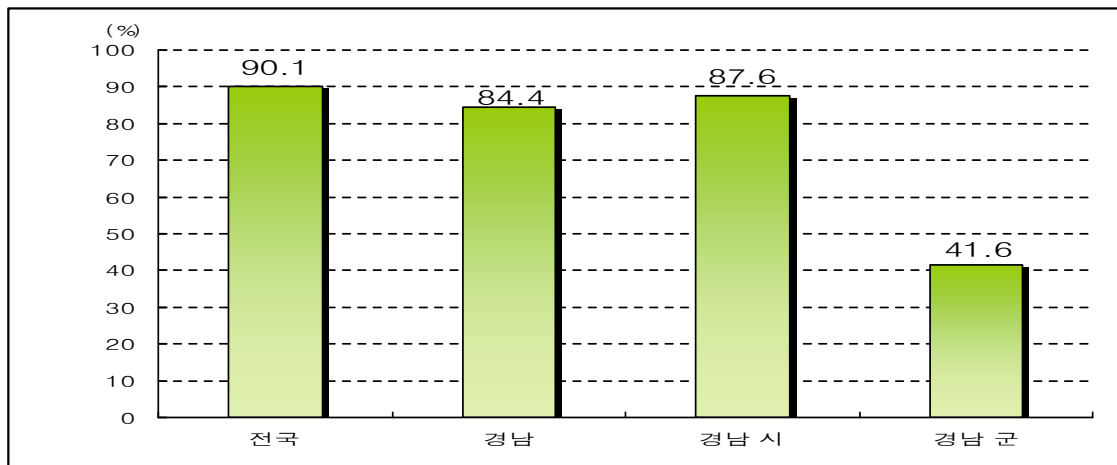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각년도

- 경남 시부의 도시화율은 91.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군부는 47.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향후 도시적 생활방식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군부 지역의 도시화율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3-6-28〉 경남 시군별 도시화 추세 (단위 : 천명, %)

구분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행정구역 기준 도시인구		도시화율			
					용도지역 인구기준		행정구역 인구기준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국	43,959,922	45,933,001	43,445,493	45,278,434	90.1	90.9	89.1	89.6
경남	2,667,951	2,780,310	2,323,442	2,469,264	84.4	84.5	73.5	75.0
창원시	1,064,410	1,046,197	1,039,999	1,046,197	98.0	96.0	95.7	96.0
진주시	309,540	311,549	305,098	270,966	92.1	93.0	90.7	80.9
통영시	114,658	104,156	101,603	96,144	86.3	74.2	76.5	68.5
사천시	94,407	92,316	71,923	69,844	84.8	80.9	64.6	61.2
김해시	420,884	484,917	299,623	341,126	95.0	96.3	67.6	67.8
밀양시	69,126	69,847	67,760	66,086	60.8	63.2	59.6	59.8
거제시	146,297	174,084	146,297	176,695	74.8	76.2	74.8	77.4
양산시	218,146	256,428	108,383	218,153	98.1	98.5	48.8	83.8
의령군	9,774	13,107	11,830	9,569	31.4	43.5	38.0	31.7
함안군	32,297	35,557	15,353	18,371	52.6	52.9	25.0	27.3
창녕군	33,828	28,300	27,988	27,918	52.3	45.9	43.3	45.2
고성군	25,557	25,453	23,695	25,453	45.5	44.5	42.2	44.5
남해군	12,375	13,967	13,757	13,967	23.9	28.3	26.6	28.3
하동군	19,342	18,572	11,961	11,366	36.4	36.1	22.5	22.1
산청군	10,233	10,677	6,917	6,636	28.2	30.0	19.1	18.7
함양군	25,697	25,973	17,928	18,928	61.9	63.1	43.2	46.0
거창군	42,294	39,901	40,875	39,901	65.3	62.9	63.1	62.9
합천군	19,86	29,309	12,452	11,944	32.8	57.4	21.4	23.4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각년도



〈그림 3-6-10〉 경남 도시화율

## 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010년 경남은 10,532km<sup>2</sup>의 총면적 가운데 임야 67.2%, 농업용 토지 19.1%, 도시용 토지 12.3%, 기타 1.4%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평균에 비하여 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농업용 토지 및 임야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임

〈표 3-6-37〉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추이(2000~2010)(단위 : km<sup>2</sup>,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2000~2010)
전국	계	99,461 (100.0)	99,646 (100.0)	99,897 (100.0)	436
	도시용 토지	5,499 (7.5)	6,101 (6.1)	6,638 (6.6)	1,139
	농업용 토지	21,596 (20.7)	21,216 (21.3)	20,845 (20.9)	-751
	임야	65,139 (65.5)	64,805 (65.0)	64,472 (64.5)	-667
	기타	7,109 (7.1)	7,524 (7.6)	7,943 (8.0)	834
경남	계	10,515.5 (100.0)	10,520.8 (100.0)	10,532.1 (100.0)	16.5
	도시용 토지	1,153.6 (11.0)	1,228.2 (11.7)	1,290.5 (12.3)	136.9
	농업용 토지	2,115.3 (20.1)	2,063.9 (19.6)	2,012.1 (19.1)	-103.2
	임야	7,130.0 (67.8)	7,103.5 (67.5)	7,082.2 (67.2)	-47.8
	기타	116.7 (1.1)	125.2 (1.2)	147.3 (1.4)	30.6

주 : 기타는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등  
 자료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경남의 시부와 군부를 비교해 보면 도시용 토지 및 농업용 토지의 비중은 시부가 높으며, 임야 비중은 군부가 높음
- 농업용 토지 및 임야의 감소비율은 시부가 군부보다 높았으며, 이는 시부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도시용 토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김해시, 창원시로 13% 내외를 차지하여 전국 도시용 토지 비중 보다 높으며, 농업용 토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함안군, 창녕군으로 29%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표 3-6-30〉 경남 시군부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추이(2000~2010) (단위 : km<sup>2</sup>,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2000~2010)
경남	계	10,515.5 (100.0)	10,520.8 (100.0)	10,532.1 (100.0)	16.6
	도시용 토지	1,153.5 (11.0)	1,228.2 (11.7)	1,290.5 (12.3)	136.9
	농업용 토지	2,115.3 (20.1)	2,063.9 (19.6)	2,012.1 (19.1)	-103.1
	임야	7,130.0 (67.8)	7,103.5 (67.5)	7,082.2 (67.2)	-47.8
	기타	116.7 (1.1)	125.2 (1.2)	147.3 (1.4)	30.6
시	계	4,226.1 (100.0)	4,230.8 (100.0)	4,242.4 (100.0)	16.2
	도시용 토지	565.2 (13.4)	604.5 (14.3)	646.1 (15.2)	80.9
	농업용 토지	900.0 (21.3)	871.6 (20.6)	838.6 (19.8)	-61.4
	임야	2,694.0 (67.8)	2,680.0 (67.5)	2,665.9 (67.2)	-28.1
	기타	67.1 (1.6)	74.8 (1.8)	91.8 (2.2)	24.8
군	계	6,289.3 (100.0)	6,290.0 (100.0)	6,289.7 (100.0)	0.4
	도시용 토지	588.4 (9.4)	623.7 (9.9)	644.4 (10.2)	56.0
	농업용 토지	1,215.3 (19.3)	1,192.3 (19.0)	1,173.5 (18.7)	-41.8
	임야	4,436.0 (70.5)	4,423.6 (70.3)	4,416.4 (70.2)	-19.7
	기타	49.6 (0.8)	50.5 (0.8)	55.4 (0.9)	5.8

자료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3) 용도지역 지정현황

- 2010년 경남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비율이 39.7%로 전국의 41.1%에 비하면 낮은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높게 나타남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어 양호한 환경수준의 보유척도가 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7.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공적규제가 많고 개발가용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

〈표 3-6-31〉 용도지역 지정변화 변화추이(2005~2010) (단위 : km<sup>2</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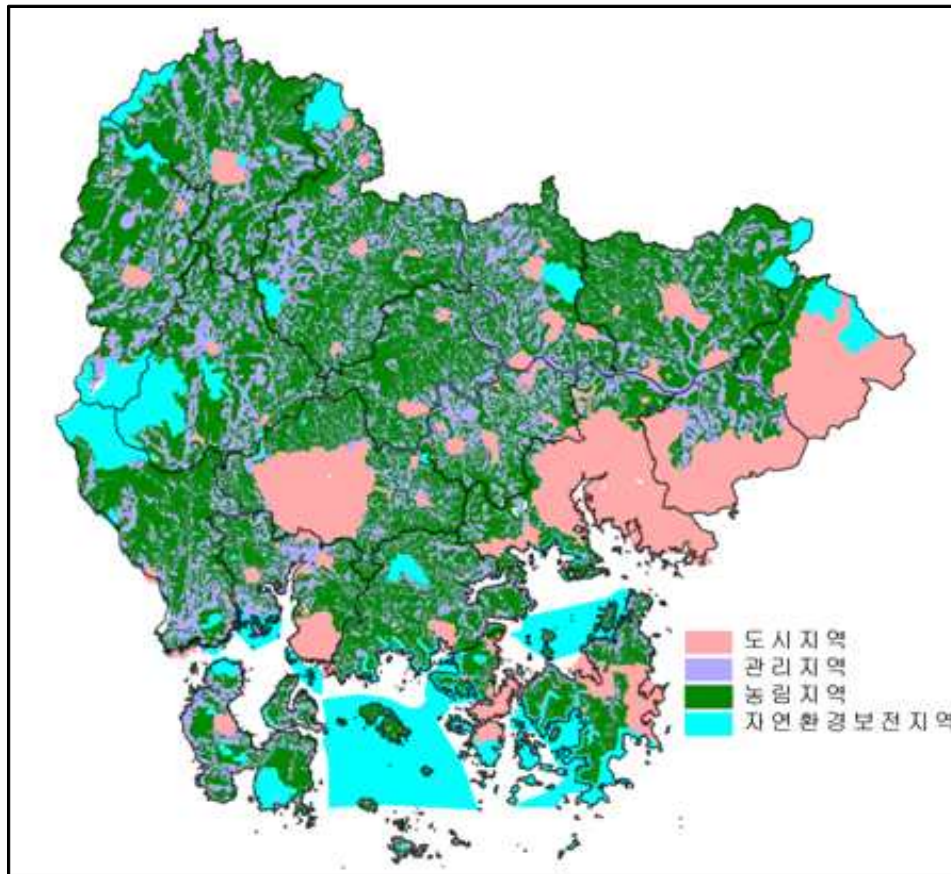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10년	증감(2005~2010)
전국	계	106,114.5 (100.0)	105,522.0 (100.0)	-592.5
	도시지역	17,039.8 (16.1)	17,492.2 (16.6)	452.4
	관리지역	25,870.5 (24.4)	25,823.8 (24.5)	-46.7
	농림지역	51,023.3 (48.1)	50,480.8 (47.8)	-542.5
	자연환경 보전지역	12,181.0 (11.5)	11,725.2 (11.1)	-455.8
경남	계	11,924.5 (100.0)	11,710.0 (100.0)	-214.5
	도시지역	1,847.8 (15.5)	1,877.5 (16.0)	29.7
	관리지역	2,384.9 (20.0)	2,769.7 (23.7)	384.8
	농림지역	5,430.4 (45.5)	5,064.5 (43.2)	-365.9
	자연환경 보전지역	2,261.5 (19.0)	1,998.3 (17.1)	-263.2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각년도

- 경남의 시부와 군부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 비중은 시부가 높은 반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군부가 80% 이상의 비중을 보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통영시가 80.9%의 비중을 보여 시부가 군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32〉 경남 시군부 용도지역 지정변화 변화추이(2005~2010) (단위 : km<sup>2</sup>, %)

구 분		2005년	2010년	증감(2005~2010)
경남	계	11,924.52 (100.0)	11,710.00 (100.0)	-214.52
	도시지역	1,847.77 (15.5)	1,877.46 (16.0)	29.69
	관리지역	2,384.89 (20.0)	2,769.73 (23.7)	384.84
	농림지역	5,430.41 (45.5)	5,064.52 (43.2)	-365.89
	자연환경 보전지역	2,261.45 (19.0)	1,998.29 (17.1)	263.16
시	계	5,258.6 (100.0)	5,044.5 (100.0)	-214.1
	도시지역	1,629.3 (31.0)	1,641.5 (32.5)	12.2
	관리지역	642.3 (12.2)	731.5 (14.5)	89.2
	농림지역	1,724.9 (32.8)	1,610.5 (31.9)	-114.3
	자연환경 보전지역	1,262.1 (24.0)	1,060.9 (21.0)	-201.1
군	계	6,665.9 (100.0)	6,665.5 (100.0)	-0.5
	도시지역	218.5 (3.3)	235.9 (3.5)	17.5
	관리지역	1,742.6 (26.1)	2,038.2 (30.6)	295.6
	농림지역	3,705.5 (55.6)	3,454.0 (51.8)	-251.5
	자연환경 보전지역	999.4 (15.0)	937.3 (14.1)	-62.0



〈그림 3-6-11〉 용도지역 분포현황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대내외적 여건변화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외곽의 저밀도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수변 등을 이용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 사회구조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도시적 생활방식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기반시설의 조성 등 공공용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지역에서도 대지·도로·철도 등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대가 예상됨
- 침체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에 대해 비농업적 수요증가에의 대응 등 농지구분체계의 정비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산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공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산업으로서 임업과 산지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농지와 산림에 대한 부문별 토지관리에서 종합적 국토체계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혁신도시,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될 전망
- 동남광역경제권 및 남해안 선벨트 중심지역으로서 산업입지 수요증가로 공장용지, 공공용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인의 농지소유 허용 등과 같은 농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로 농지에 대한 비농업적 수요 증가추세 지속전망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친환경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

-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정착

- 도시기능의 연계성 강화와 상충기능의 상호보완을 통한 지역의 통합성 증진은 물론 외연적 무질서한 확산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한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정착시킴
- 한정된 토지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도시성장과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를 배분함

#### ■ 녹지·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 경남은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임
-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생태계나 산지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을 마련·시행

### 2) 주요 추진시책

#### (1) 토지수요 전망

- 주택용지는 주로 시급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도시 지원 및 배후도시 역할로 인한 추가적인 토지수요와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는 2020년까지 추가로 증가할 인구를 감안하여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추정
- 주택용지는 신규수용인구의 약 90.0%를 도시지역 신규용지에 수용하고, 약 10.0%를 비도시지역 신규용지에 수용하는 것으로 설정
- 공장용지 수요는 산업용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산업단지를 20.6km<sup>2</sup>규모로 추가 조성하되, 목표연도의 공장용지 수요는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12.4km<sup>2</sup>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면적 8.2km<sup>2</sup>는 공공용지로 분류함
-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를 감안한 공공용지는 기존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연도까지 주택용지 수요의 1.2배인 24.7km<sup>2</sup>가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주거용지·산업단지의 공공용지 총 17.1km<sup>2</sup>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경남지역의 도시적 용지는 2010년 현재 1,290.5km<sup>2</sup>에서 2020년 1,365.3km<sup>2</sup>로 74.8km<sup>2</sup>의 증가가 예상됨
- 과거추세(2000~2010)대로라면 농업용토지 및 임야의 전용비율이 2.2 : 7.8정도이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2020년 농업용 토지는 16.5km<sup>2</sup>가 전용되어 1,995.6km<sup>2</sup>, 임야는 58.3km<sup>2</sup>가 전용되어 7,023.9km<sup>2</sup>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도시적 용지의 토지는 2010년 12.3%에서 2020년 13.0%로 증가하는 반면, 농지와 임야는 각각 19.1% 및 67.2%에서 18.9%와 66.7%로의 비중감소가 예상됨

〈표 3-6-33〉 경남의 토지수급 전망(2000~2020) (단위 : km<sup>2</sup>,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증감 (2010~2020)
계		10,515.5 (100.0)	10,520.8 (100.0)	10,532.1 (100.0)	10,532.1 (100.0)	-
도시적 용지		1,153.5 (11.0)	1,228.2 (11.7)	1,290.5 (12.3)	1,365.3 (13.0)	74.8
	• 주택용지	215.9 (2.1)	229.3 (2.2)	243.3 (2.3)	263.9 (2.5)	20.6
	• 공장용지	54.0 (0.5)	67.2 (0.6)	79.7 (0.8)	92.1 (0.9)	12.4
	• 공공용지	883.7 (8.4)	931.7 (8.9)	967.5 (9.2)	1,009.3 (9.6)	41.8
농업용 토지		2,115.3 (20.1)	2,063.9 (19.6)	2,012.1 (19.1)	1,995.6 (18.9)	-16.5
임야		7,130.0 (67.8)	7,103.5 (67.5)	7,082.2 (67.2)	7,023.9 (66.7)	-58.3
기타		116.7 (1.1)	125.2 (1.2)	147.3 (1.4)	147.3 (1.4)	-

## (2)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내 시·군이 수립할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체계 구축,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 공급 방안 마련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개발할 지역은 철저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엄격히 관리
-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녹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성적인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특수목적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기존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선
- 토지절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부 내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등 내부충진식 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함
-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이용을 관리함

## (3)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정착

### ■ 광역적 차원의 계획 정착

- 지역내 도시기능의 연계성 강화와 상충기능의 보완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요구하는 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공동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토록 하는 등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정착시킴
-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간 기능연계 및 분담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관리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
- 창원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연담도시권의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함.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 방식에서 광역도시 및 도농통합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으로 경제성, 효율성 제고
-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지는 기본적으로 보전하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도 관련 지자체 간에 협력·연계하여 체험교육·치유·자연생태자원 활용가능한 사업 전개
- 함안 등 성장거점도시 주변 도시지역의 난개발 및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협의 및 관리방안 모색

### ■ 도시성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 배분

- 용도지역·지구제의 행위제한 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강화 또는 조정할 수 있

는 융통성 제고

- 보전가치가 높은 구릉지는 도시녹지 확보차원에서 보전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릉지·산지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거·업무·상업·공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용도지역제 도입 검토
- 용도지역 결정을 미리 유보하여 두었다가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 용도지역을 확정하는 유연지역제를 적용하여 시급한 토지수요 발생에 유연하게 대처

#### (4)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 ■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

- 토지의 적성에 맞는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농지구분의 기초정보 구축
- 적정농지 면적의 확보와 체계적·계획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지의 전용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되지 않도록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정비
- 산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보전산지 등의 산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함
- 개발압력이 적은 중소도시의 경우 당장에 개발할 필요가 적은 곳은 일단 개발보유지 형태로 지정하여 개발을 방지하는 시간적 지역제를 적용하여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 중요 생태축, 역사문화축에 해당되는 지역 중 난개발로 훼손된 지역은 목표연도의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점진적 복구 추진
-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상황과 보전 필요성을 기초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경계 조정
- 토지이용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는 지역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

## 제7장 농어업 및 농산어촌 개발 부문

제1절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제2절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제3절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치(쉼터)



## 제7장 농어업 및 농산어촌 개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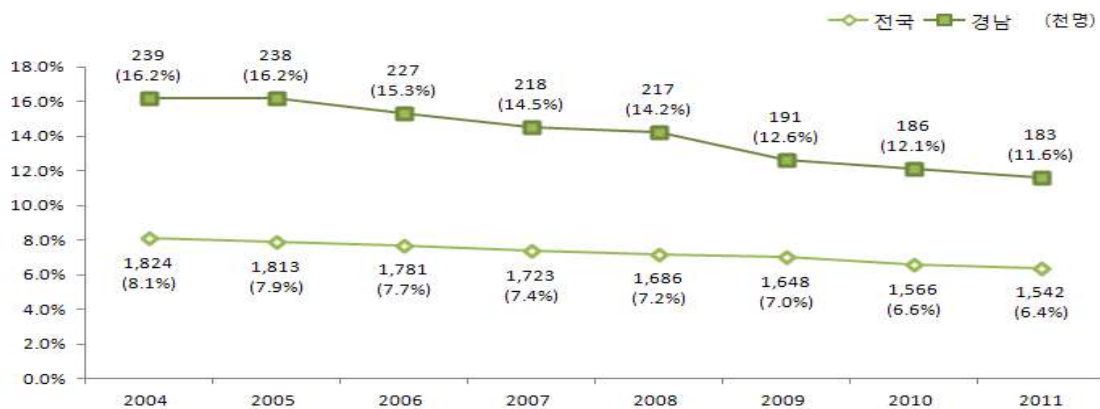
### 제1절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1차 산업의 규모

###### 1차 산업 취업자 비중

- 경남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2011년 18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6%를 차지함. 이 수치는 전국(6.4%) 보다 높아 경남의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2004년 16.2%에서 2011년 11.6%로 4.6%p 감소하여 전국(1.7%p)보다 큰 감소폭을 보임



〈그림 3-7-1〉 농림어업 취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1차 산업 총부가가치 추이

- 경남의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01년 이후 연평균 0.29%씩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약 3.2조원으로 경남 총부가가치의 4.7%를 차지함. 이 수치는 전국 총부가가치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2.9%) 보다 높음
- 경남의 총부가가치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2년 6.1%에서 2010년 4.7%로 1.4%p 감소하여 전국

(0.7%p) 보다 큰 감소폭을 보임



〈그림 3-7-2〉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주 : 1) 2010년 지역소득은 잠정추계결과로 확정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2) 2005년 기준년가격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2) 농업

### (1) 농가 현황 및 경제동향

#### ① 농가 현황 및 실태

##### ■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 2010년 경남의 농가는 141,431가구이며, 이 중 겸업농가는 43.4%임. 2010년 경남의 농가 인구는 347,499명임
- 2005년 대비 경남의 농가 수는 연평균 2.0%씩, 임가인구는 연평균 2.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전국의 농가 감소율(-1.5%), 농가인구 감소율(-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남의 농가와 농가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경남의 겸업농가 비중은 2005년 38.4%에서 2010년 43.4%로 5.0%p 증가하여 농업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1〉 경남의 농가 및 농가 인구 추이(단위 : 가구, 명, %)

	농가 수			농가 인구		
	2005	2010	증감율	2005	2010	증감율
전국	1,272,908 (37.4)	1,177,318 (46.7)	-1.5	3,433,573	3,062,956	-2.3
경남	156,080 (38.4)	141,431 (43.4)	-2.0	392,926	347,499	-2.4

주 : ( )내는 겸업농가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연령별 농가 인구

- 2010년 현재 경남의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6%로 전국의 평균(31.8%)보다 높아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005년 31.3%에서 2010년 33.6%로 2.3%p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2〉 경남의 연령별 농가 인구(단위 : 명, %)

	2005			2010		
	전체	14세 이하	65세 이상	전체	14세 이하	65세 이상
전국	3,433,573	335,085 (9.8)	999,306 (29.1)	3,062,956	270,392 (8.8)	972,679 (31.8)
경남	392,926	35,229 (9.0)	122,928 (31.3)	347,499	28,775 (8.3)	116,586 (33.6)

주 : ( )내는 전체 농가 인구 내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② 농가경제동향

### 농가교역조건 추이

- 전국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2003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임. 이는 농가구입 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정체·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2009년 이후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추이에 있으나 2011년 2/4분기에 주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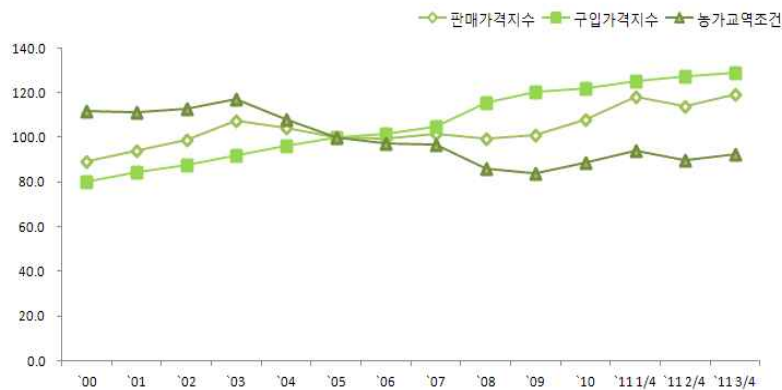


〈표 3-7-3〉 농가교역조건 동향(2005=100)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1/4	2/4	3/4
농가판매가격지수	89.5	99.1	104.2	99.2	99.4	108.1	118.2	113.8	119.2
농가구입가격지수	80.1	87.8	96.3	101.8	115.3	122.2	125.3	127.1	128.9
농가교역조건	111.7	112.9	108.2	97.4	86.2	88.5	94.3	89.5	92.5

주 :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그림 3-7-3〉 농가교역조건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 농가 소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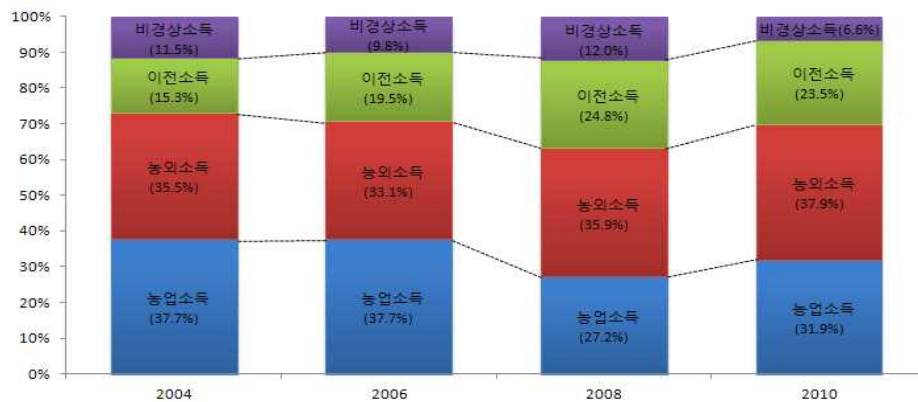
- 2010년 경남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연간 30,442천원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농가 소득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은 2010년 기준 93.4%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농가의 농업의존도는 2010년 기준 31.9%로 2004년 대비 5.8%(p) 감소하였으나, 2008년보다는 증가함

〈표 3-7-4〉 경남의 농가 소득 동향 (단위 : 천원, %)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4~'10	'08~'10
농가소득	26,044	100.0	29,680	100.0	25,194	100.0	30,442	100.0	2.6	9.9
경상소득	23,052	88.5	26,778	90.2	22,159	88.0	28,430	93.4	3.6	13.3
농업소득	9,829	37.7	11,177	37.7	6,861	27.2	9,726	31.9	-0.2	19.1
농외소득	9,243	35.5	9,823	33.1	9,052	35.9	11,549	37.9	3.8	13.0
이전소득	3,980	15.3	5,778	19.5	6,246	24.8	7,155	23.5	10.3	7.0
비경상소득	2,992	11.5	2,901	9.8	3,035	12.0	2,011	6.6	-6.4	-18.6
농업의존도	37.7		37.7		27.2		31.9		-5.8(p)	

주 : 농업의존도=(농업소득/농가소득)×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그림 3-7-4〉 경남의 농가소득 구성비

### 도·농간 소득격차

-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4년 69.7%에서 2010년 63.3%로 격차가 확대됨
- 농가소득은 2003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4.3%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됨

〈표 3-7-5〉 도농간 소득 차이(단위: 천원, %)

구 분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	
					'04~'10	'08~'10
농가소득(A)	26,044	29,680	25,194	30,442	2.6	9.9
도시근로자가구소득(B)	37,350	41,329	46,807	48,092	4.3	1.4
상대소득(A/B)	69.7	71.8	53.8	63.3	-6.4(p)	

주 : 1)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소득 자료에 근거하여 월평균 소득×12월로 추정하였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경우 시도별로 자료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자료에 근거함.

2) 상대소득=(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100.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가계지출 동향

- 2010년 경남 농가의 가계지출은 27,469천원으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70.9%에서 2010년 78.2%로 7.3%(p) 증가함
- 농업소득의 가계지출 충족비율은 2010년 35.4%로 2004년에 비해 5.4%(p) 감소하여 농가경제의 건전함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판단됨<sup>20)</sup>

20) 농업소득의 가계지출 충족비율은 농업소득이 가계지출을 조달해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충족비율 값이 클수록 농가경제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7-6〉 경남의 농가 지출 동향(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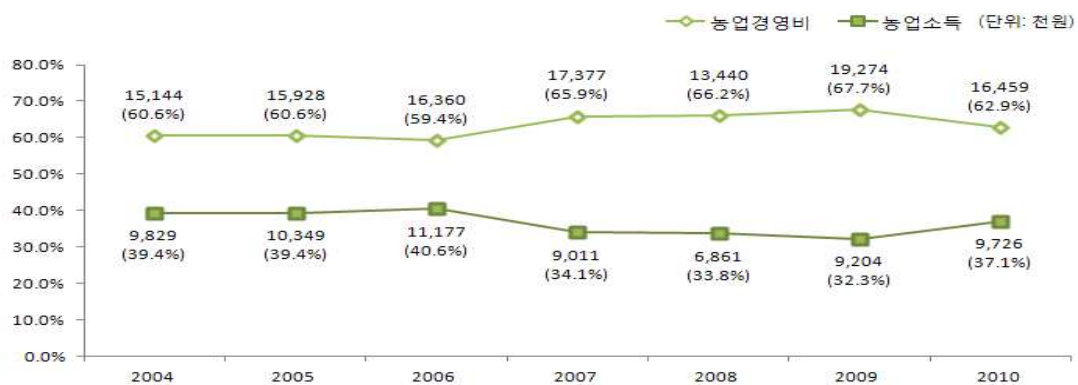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4~'10	'08~'10
가계지출	24,105	100.0	29,166	100.0	24,574	100.0	27,469	100.0	2.2	5.7
소비지출	17,084	70.9	18,072	62.0	18,947	77.1	21,478	78.2	3.9	6.5
비소비지출	7,021	29.1	11,094	38.0	5,627	22.9	5,991	21.8	-2.6	3.2
농업소득 가계지출충족도	40.8		38.3		27.9		35.4		-5.4(p)	

주 : 농업소득 가계지출 충족도=(농업소득/가계지출)×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농업경영비 추이

- 2010년 현재 경남의 농업경영비 차지 비중은 62.9%로 지속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의 일반화로 인하여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7-5〉 경남의 농업경영비 동향

주: 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농업소득.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농가 부채 및 상환능력

- 2010년 경남 농가의 부채는 27,897천원이며, 농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5.3%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단기 부채상환능력은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의 비로 2010년 경남 농가의 단기 부채상환능력은 45.3%로 2004년 대비 49.9%(p)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채에 비해 당좌자산의 증가가 높아 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장기 부채상환능력은 자산 대비 농가부채의 비로 2010년 경남 농가의 장기 부채상환능력은 9.6%

로 2004년 대비 7.1%p)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채에 비해 자산의 증가가 높아 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표 3-7-7〉 경남의 농가 부채 동향(단위 : 천원, %)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4~'10	'08~'10
농가부채	32,772	100.0	35,258	100.0	26,324	100.0	27,897	100.0	-2.6	2.9
농업용	20,108	61.4	19,926	56.5	13,326	50.6	12,637	45.3	-7.4	-2.6
농업용 외	12,663	38.6	15,332	43.5	12,997	49.4	15,260	54.7	3.2	8.4
농가자산	196,753		266,137		262,522		292,107		6.8	5.5
당좌자산	34,423		52,419		45,956		61,588		10.2	15.8
단기상환능력	95.2		67.3		57.3		45.3		-49.9(p)	
장기상환능력	16.7		13.2		10.0		9.6		-7.1(p)	

주 : 1) 2008년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변경에 따른 단층현상일 수도 있음.

2) 농업용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3) 단기상환능력=(농가부채/당좌자산)×100.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할수록 단기상환능력이 향상됨.

4) 장기상환능력=(농가부채/농가자산)×100.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2) 농업 환경 및 농업생산 동향

### 농업법인 수

- 경남의 농업법인 수는 2010년 현재 909개소로 84.5%는 영농조합법인임. 2004년 665개소보다 증가한 수치이나 이는 2010년 조사단위 변경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
- 2010년 농업법인의 종사자수는 4,695명으로 법인당 5.16명이며, 법인당 매출액은 1,697백만원임

〈표 3-7-8〉 농업법인 수(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04	2006	2008	2010
농업법인수	665	615	668	909
(영농조합법인, %)	484 (72.8)	465 (75.6)	548 (82.0)	768 (84.5)
(농업회사법인, %)	150 (22.6)	122 (19.8)	96 (14.4)	138 (15.2)
종사자 수	2,136	2,349	2,572	4,695
법인당 매출액	1,602	1,520	1,755	1,697

주 : 1) 2010년은 조사단위 변경(사업체→기업체) 및 모집단 구성방법 변경으로 전년과 직접비교는 곤란함.

2) 농업법인수는 출자자개별운영은 제외한 수치임.

3) ( )내는 농업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4) 종사자 수와 법인당 매출액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 경지면적

- 경남의 경지면적은 2000년 208.7천ha에서 2009년 현재 198.3천ha로 연평균 0.6%씩 감소하였으며,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에서 18.8%로 1.0%p 감소함. 시부와 군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토지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경지면적은 연평균 시부는 0.8%씩, 군부는 0.4%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나, 농촌의 농업기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7-9〉 경지면적 추이(단위: 천ha, %)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연평균 증감
전국	-	-	-	-	2,034(20.4)	2,026(20.3)	-
경남 전체	208.7(19.8)	206.8(19.7)	205.2(19.5)	202.2(19.2)	199.2(18.9)	198.3(18.8)	-0.6
경남 시부	88.9(21.0)	87.7(20.7)	86.7(20.5)	85.3(20.1)	83.3(19.6)	82.7(19.5)	-0.8
경남 군부	119.8(19.1)	119.2(18.9)	118.5(18.8)	117.0(18.6)	115.9(18.4)	115.6(18.4)	-0.4

주 : 1) ( )내는 해당지역 면적 중 농지면적의 비중임.  
 2) 경지면적은 전, 답, 과수원의 면적으로 구성됨.  
 3) 지역별 토지면적 연평균 증감율은 경남 0.02%, 시부 0.04%, 군부 0.00%임.  
 자료 : 통계청, 경남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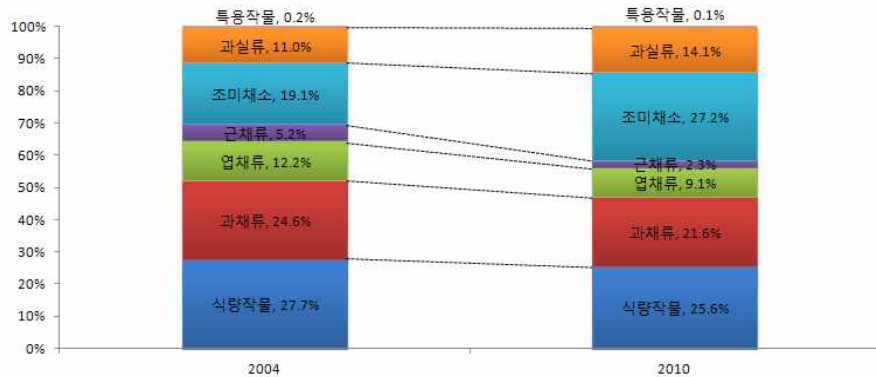
### ■ 작물생산량 추이

- 경남의 작물생산량은 2010년 기준 1,771,273톤으로 연평균 0.9%씩 감소함. 작물별로는 조미채소류가 5.1%씩 증가한 반면 근채류가 연평균 13.5% 감소하였으며, 과실류는 최근에 감소함
- 작물별로는 2010년 기준 조미채소가 경남 전체 생산량의 27.2%를 차지하며 가장 높으며, 식량작물(25.6%), 과채류(21.6%), 과실류(14.1%)순임
- 작물별 차지 비중은 조미채소, 과실류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식량작물과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의 차지비중은 감소함

〈표 3-7-10〉 경남의 작물생산량 추이(단위: 톤, %)

구분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04~'10	'08~'10
계	1,872,057	100.0	1,881,268	100.0	1,876,846	100.0	1,771,273	100.0	-0.9	-2.9
식량작물	519,399	27.7	495,437	26.3	533,081	20.4	453,857	25.6	-2.2	-7.7
과채류	459,737	24.6	452,512	24.1	404,980	21.6	382,182	21.6	-3.0	-2.9
엽채류	228,907	12.2	226,514	12.0	179,260	9.6	161,033	9.1	-5.7	-5.2
근채류	97,867	5.2	78,993	4.2	81,411	4.3	41,094	2.3	-13.5	-29.0
조미채소	357,577	19.1	372,583	19.8	412,154	22.0	481,028	27.2	5.1	8.0
과실류	205,272	11.0	252,600	13.4	262,456	14.0	249,435	14.1	3.3	-2.5
특용작물	3,298	0.2	2,629	0.1	3,504	0.2	2,644	0.1	-3.6	-13.1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통계.



〈그림 3-7-6〉 경남의 작물생산량 비중

### (3) 식품산업

- 경남의 식품산업은 2009년 현재 397개 업체가 조사되었고, 업체당 출하액은 153억원, 1인당 부가가치액은 135.8만원으로 부가가치율 37.2%로 전국 평균(35.9%)보다 높으나 영세성으로 지속성장에 한계를 보임

〈표 3-7-11〉 식품산업 현황(2009)

구분	사업체수(A) (개)	월평균 종사자수(B) (명)	출하액 (C) (10억)	부가가치 (D) (10억)	업체당 출하액(C/A) (백만원/개소)	1인당 부가가치(D/B) (백만원/명)	부가가치율 (D/C) (%)
전국	4,169	166,538	60,771	21,804	17,620	130.9	35.9
경남	397	16,646	6,079	2,261	15,312	135.8	37.2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종사자 10인이상 사업체 대상)

- 경남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 기준 2조 8,387억원으로 전국의 9.0%이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6.9%, 식품첨가물이 5.5%, 건강기능식품이 0.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함

〈표 3-7-12〉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2010)(단위: 10억원, %)

구분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기
전국	31,699.2 (100.0)	1,067.1 (100.0)	1,102.6 (100.0)	4,921.9 (100.0)
경남	2,838.7 (9.0)	8.6 (0.8)	61.0 (5.5)	339.2 (6.9)

주 : 1) 매출액=국내출하액+수출액임.

2) 식품(식품+식품조사처리), 기구용기포장기(기구용기포장기+용기류).

3) 축산물 가공품 제외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2010)

### 3) 임업

#### (1) 임가 현황 및 경제동향

##### ① 임가 현황 및 실태

##### ■ 임가 수 및 임가 인구

- 2010년 경남의 임가는 14,052가구이며, 이 중 겸업 임가는 94.5%임. 2010년 경남의 임가인구는 35,465명임
- 2005년 대비 경남의 임가 수는 연평균 4.9%씩, 임가인구는 연평균 5.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전국의 임가 감소율(-0.2%), 임가인구 감소율(-0.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남의 임가와 임가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경남의 겸업 임가 비중은 2005년 92.3%에서 2010년 94.5%로 2.2%(p) 증가하여 임업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13〉 경남의 임가 및 임가 인구 추이(단위 : 가구, 명, %)

구분	임가 수			임가 인구		
	2005	2010	증감율	2005	2010	증감율
전국	97,108 (91.8)	96,108 (93.4)	-0.2	264,416	253,656	-0.8
경남	18,087 (92.3)	14,052 (94.5)	-4.9	46,453	35,465	-5.3

주 : ( )내는 겸업 임가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 연령별 임가인구

- 2010년 현재 경남의 임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2.2%로 전국의 평균(28.9%) 보다 높아 임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005년 30.9%에서 2010년 32.2%로 1.3%(p)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14〉 경남의 연령별 임가 인구(단위 : 명, %)

구분	2005			2010		
	전체	14세 이하	65세 이상	전체	14세 이하	65세 이상
전국	264,416	25,740 (9.7)	71,682 (27.1)	253,656	22,001 (8.7)	73,293 (28.9)
경남	46,453	4,034 (8.7)	14,376 (30.9)	35,465	2,950 (8.3)	11,426 (32.2)

주: ( )내는 전체 임가 인구 내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② 임가 경제동향

## ■ 임가소득 동향

- 2010년 경상권 임가의 가구당 소득은 연간 27,661천원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임가소득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은 2010년 기준 91.9%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임가의 임업의존도는 2010년 기준 29.6%로 2006년 대비 8.0%(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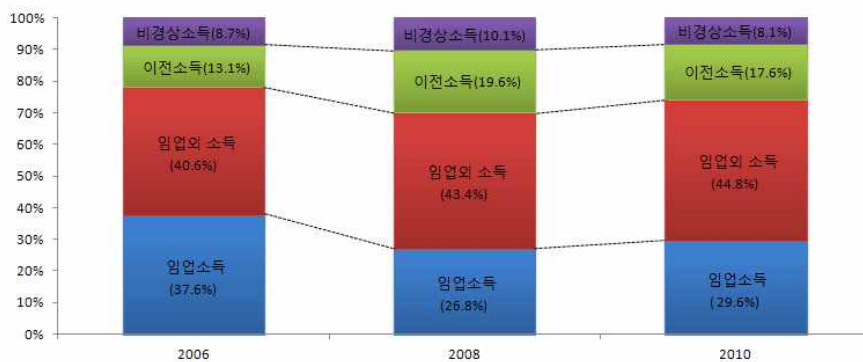
〈표 3-7-15〉 경상권 임가 소득 동향(단위 : 천원, %)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6~'10	'08~'10
임가소득	28,766	100.0	22,832	100.0	27,661	100.0	-1.0	10.1
경상소득	26,251	91.3	20,516	89.9	25,423	91.9	-0.8	11.3
임업소득	10,805	37.6	6,123	26.8	8,180	29.6	-6.7	15.6
임업외 소득	11,671	40.6	9,913	43.4	12,384	44.8	1.5	11.8
이전소득	3,775	13.1	4,480	19.6	4,859	17.6	6.5	4.1
비경상소득	2,515	8.7	2,316	10.1	2,238	8.1	-2.9	-1.7
임업의존도	37.6		26.8		29.6		-8.0 (p)	

주 : 1) 임업소득=임업총수입-임업경영비로 임업총수입은 목재수입, 단기소득 임산물 수입, 원시임산물 채취수입, 임업잡수입으로 구성됨

2) 임업의존도=(임업소득/임가소득)×100.

자료 :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그림 3-7-7〉 경남의 임가소득 구성비

## ■ 가계지출 동향

- 2010년 경상권 임가의 가계지출은 22,066천원으로 2006년 기준 연평균 0.6%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4.5%에서 2010년 79.2%로 4.7%(p) 증가함
- 임업소득의 가계지출 충족비율은 2010년 37.1%로 2006년에 비해 13.0%(p) 감소하여 임가경제의 건



전함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됨<sup>21)</sup>

〈표 3-7-16〉 경상권 임가 지출 동향(단위 : 천원, %)

구분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6~'10	'08~'10
가계지출	21,558	100.0	21,383	100.0	22,066	100.0	0.6	1.6
소비지출	16,063	74.5	17,178	80.3	17,487	79.2	2.1	0.9
비소비지출	5,495	25.5	4,205	19.7	4,579	20.8	-4.5	4.4
임업소득 가계지출충족도	50.1		28.6		37.1		-13.0 (p)	

주 : 임업소득 가계지출 충족도=(임업소득/가계지출)×100

자료 :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 ■ 임가 부채 및 상환능력

- 2010년 경상권 임가의 부채는 29,436천원으로 최근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임. 임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0%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단기 부채상환능력은 당좌자산 대비 임가부채의 비로 2010년 경상권 임가의 단기부채상환능력은 93.2%로 2006년 대비 30.1%(p)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임가부채에 비해 당좌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단기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장기 부채상환능력은 자산 대비 임가부채의 비로 2010년 경상권 임가의 장기 부채상환능력은 8.8%로 2006년 대비 1.2%(p) 증가해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임가부채 감소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됨

〈표 3-7-17〉 경상권 임가 부채 동향(단위 : 천원, %)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6~'10	'08~'10
임가부채	28,477	100.0	31,023	100.0	29,436	100.0	0.8	-2.6
임업용	10,851	38.1	10,542	34.0	8,525	29.0	-5.9	-10.1
임업용 외	17,626	61.9	20,481	66.0	20,910	71.0	4.4	1.0
임가자산	373,765		330,391		335,294		-2.7	0.7
당좌자산	23,096		25,073		31,592		8.1	12.2
단기상환능력	123.3		123.7		93.2		-30.1(p)	
장기상환능력	7.6		9.4		8.8		1.2(p)	

주 : 1) 임업용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2) 단기상환능력=(임가부채/당좌자산)×100.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할수록 단기상환능력이 향상됨.

3) 장기상환능력=(임가부채/임가자산)×100.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21) 임업소득의 가계지출 충족비율은 임업소득이 가계지출을 조달해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충족비율 값이 클수록 임가경제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입업 환경 및 입업생산 동향

## ■ 임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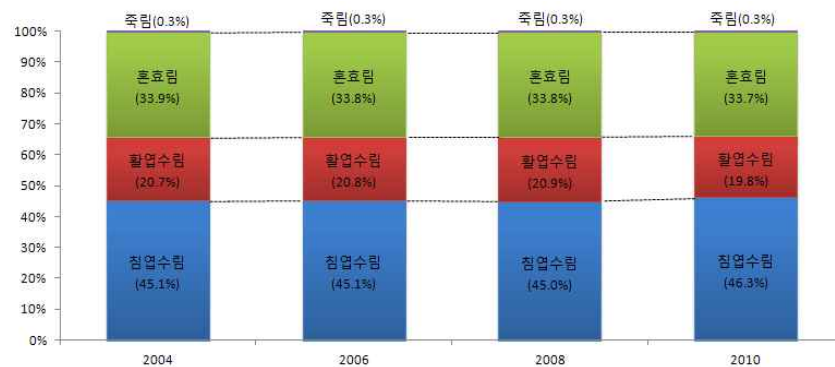
- 2010년 경남의 임야면적은 706,990ha이며, 이중 97.9%는 입목지임
- 입목지는 2004년 이후 연평균 0.2%씩 감소한 반면, 무입목지는 연평균 6.6%씩 증가함. 특히 미입목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3-7-18〉 경남의 임상별 임야면적(단위 :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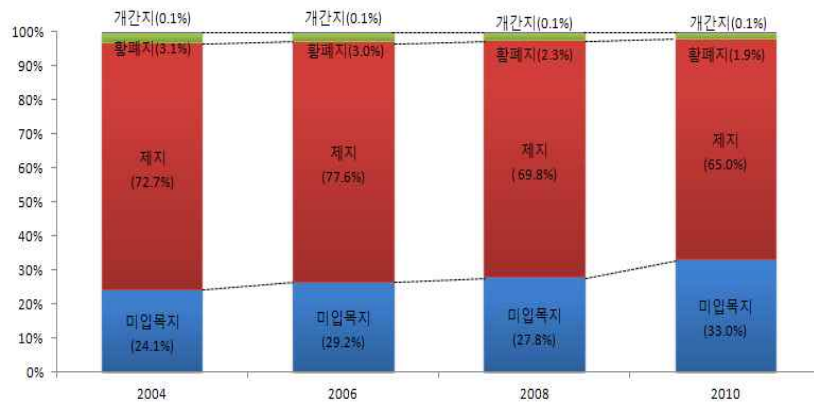
구분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04~'10	'08~'10
전체		708,769	100.0	708,332	100.0	707,404	100.0	706,990	100.0	0.0	0.0
입목지	소계	698,891	98.6	697,474	98.5	695,017	98.2	692,478	97.9	-0.2	-0.2
	침엽수림	315,416	44.5	314,488	44.4	312,424	44.2	320,500	45.3	0.3	1.3
	활엽수림	144,842	20.4	145,021	20.5	145,460	20.6	136,838	19.4	-0.9	-3.0
	혼효림	236,637	33.4	235,969	33.3	235,137	33.2	233,144	33.0	-0.2	-0.4
	죽림	1,996	0.3	1,996	0.3	1,996	0.3	1,996	0.3	0.0	0.0
무입목지	소계	9,878	1.4	10,858	1.5	12,387	1.8	14,512	2.1	6.6	8.2
	미입목지	2,379	0.3	2,889	0.4	3,443	0.5	4,793	0.7	12.4	18.0
	황폐지	310	0.0	293	0.0	287	0.0	277	0.0	-1.9	-1.8
	개간지	8	0.0	10	0.0	11	0.0	11	0.0	5.5	0.0
	제지	7,181	1.0	7,666	1.1	8,646	1.2	9,431	1.3	4.6	4.4

자료 : 통계청 산림기본통계.

- 입목지 내 임상별 차지비중은 2010년 기준 침엽수림(46.3%)과 혼효림(33.7%)의 차지 비중이 높으며, 2004년 이후 침엽수림의 비중이 다소 높아짐
- 무입목지 내 차지비중은 2010년 기준 제지(65.0%)의 비중이 높으나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미입목지는 증가함



〈그림 3-7-8〉 경남의 입목지 내 차지 비중



〈그림 3-7-9〉 경남의 무입목지 내 차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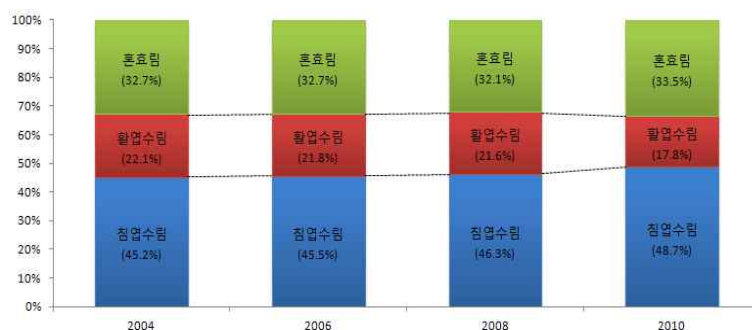
### 입목축적량

- 경남의 입목축적량은 2004년 48,801km<sup>3</sup>에서 93,538km<sup>3</sup>로 연평균 11.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임상별 차지비중은 침엽수림 48.7%, 혼효림 33.5%, 활엽수림 17.8%로 임상별 축적량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침엽수림과 혼효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편으로 총 입목축적량 내 차지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함

〈표 3-7-19〉 경남의 입목축적량(단위 : km<sup>3</sup>, %)

구분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축적량	구성비	축적량	구성비	축적량	구성비	축적량	구성비	'04~'10	'08~'10
전체	48,801	100.0	53,249	100.0	67,123	100.0	93,538	100.0	11.5	18.0
침엽수림	22,057	45.2	24,217	45.5	31,067	46.3	45,510	48.7	12.8	21.0
활엽수림	10,773	22.1	11,633	21.8	14,532	21.6	16,679	17.8	7.6	7.1
혼효림	15,971	32.7	17,399	32.7	21,525	32.1	31,349	33.5	11.9	20.7

자료 : 통계청 산림기본통계.



〈그림 3-7-10〉 경남의 임상별 축적량 비중

### 조림실적

- 2009년 경남의 조림면적은 1,876ha로 2005년 이후 연평균 4.6%씩 증가하였으며, 본수는 3,255천본으로 2005년 이후 2.8%씩 증가함
- 2009년 기준 장기수는 면적의 67.8%, 본수의 8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면적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본수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증가함. 반면 대묘수의 경우 면적과 본수 모두 최근에 큰 폭으로 감소함

〈표 3-7-20〉 경남의 조림실적 변화추이(단위: ha, 천본,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합계	면적	1,558	100.0	1,492	100.0	1,926	100.0	1,938	100.0	1,876	100.0	4.8
	본수	2,920	100.0	2,770	100.0	3,416	100.0	3,574	100.0	3,255	100.0	2.8
장기수	면적	773	49.6	686	46.0	969	50.3	1,158	59.8	1,271	67.8	13.2
	본수	2,412	82.6	2,269	81.9	2,520	73.8	2,803	78.4	2,751	84.5	3.3
유실수	면적	470	30.2	590	39.5	717	37.2	390	20.1	350	18.7	-7.1
	본수	188	6.4	236	8.5	606	17.7	326	9.1	279	8.6	10.4
대묘수	면적	162	10.4	157	10.5	171	8.9	250	12.9	86	4.6	-14.6
	본수	243	8.3	236	8.5	257	7.5	375	10.5	129	4.0	-14.6
조경수	면적	153	9.8	59	4.0	69	3.6	140	7.2	169	9.0	2.5
	본수	77	2.6	30	1.1	35	1.0	70	2.0	96	2.9	5.7

자료 : 산림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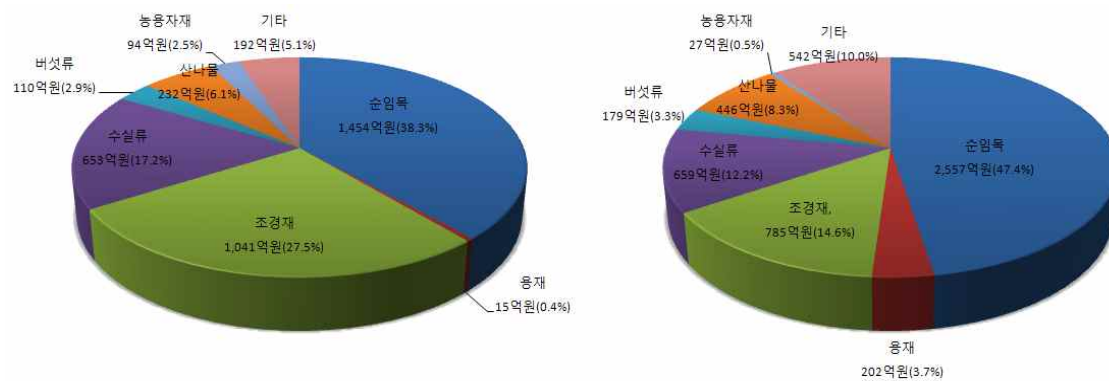
### 임산물 생산동향

- 2010년 경남의 임산물 총생산액은 5,398억원으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2.5%씩 증가함. 품목별로는 순임목 생산액이 2,557억원(47.4%)로 가장 많으며, 조경재(785억원, 14.6%), 수실류(659억원, 12.2%) 순임
- 2007년 대비 용재의 생산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농용자재의 생산액은 감소함

〈표 3-7-21〉 경남의 임업생산액(단위:10억원, %)

품목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체	379.1	100.0	428.0	100.0	520.1	100.0	539.8	100.0	12.5
순임목	145.4	38.3	207.4	48.5	257.8	49.6	255.7	47.4	20.7
용재	1.5	0.4	0.7	0.2	1.5	0.3	20.2	3.7	136.4
조경재	104.1	27.5	87.4	20.4	81.2	15.6	78.5	14.6	-9.0
수실류	65.3	17.2	71.1	16.6	72.1	13.9	65.9	12.2	0.3
버섯류	11.0	2.9	11.3	2.6	19.6	3.8	17.9	3.3	17.5
산나물	23.2	6.1	23.3	5.5	38.6	7.4	44.6	8.3	24.4
농용자재	9.4	2.5	8.4	2.0	2.5	0.5	2.7	0.5	-34.5
기타	19.2	5.1	18.3	4.3	46.8	9.0	54.2	10.0	41.3

자료 : 통계청 임산물생산조사.



〈그림 3-7-11〉 경남의 임산물 생산비중(2007년 2010년 비교)

#### 4) 축산업

##### (1) 축산 현황 및 경제동향

###### 축산농가 추이

- 한육우 사육 축산농가는 2004년 3/4분기 35,983가구에서 2011년 3/4분기 24,691가구로 연평균 5.2%씩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젓소 사육 축산농가는 2004년 3/4분기 667가구에서 2011년 3/4분기 383가구로 연평균 7.6%씩 지속적으로 감소함
- 돼지 사육 축산농가는 2004년 3/4분기 2,362가구에서 2011년 3/4분기 856가구로 연평균 13.5%씩 지속적으로 감소함
- 닭 사육 축산농가는 2006년 3/4분기 259가구에서 2011년 3/4분기 213가구로 연평균 3.8%씩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04년 이후 축종별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축산 가구의 감소가 두드러짐

〈표 3-7-22〉 경남의 축종별 가구수(단위: 가구, %)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한육우	35,983	34,989	29,491	26,077	24,691	-5.2
젓소	667	501	445	389	383	-7.6
돼지	2,362	2,047	1,303	1,078	856	-13.5
닭	-	259	214	226	213	-3.8

주 : 1) 닭의 경우 20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만 전수조사함.

2) 전국의 연평균 증감율은 한육우(-1.6%), 젓소(-6.7%), 돼지(-10.4%), 닭(-1.5%)임.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각 연도 3/4분기.

### 축종별 사육두수

-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4년 3/4분기 203,952마리에서 2011년 3/4분기 316,646마리로 연평균 6.5%씩 증가함
- 젖소 사육두수는 2004년 3/4분기 35,865리에서 2011년 3/4분기 27,831마리로 연평균 3.6%씩 감소함
- 돼지 사육두수는 2004년 3/4분기 1,099,125마리에서 2011년 3/4분기 1,112,536마리로 연평균 0.2%씩 증가함
- 닭 사육두수는 2004년 3/4분기 5,514,081마리에서 2011년 3/4분기 8,641,144마리로 연평균 6.6%씩 증가함
- 축산농가는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증가하였거나 감소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사육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7-23〉 경남의 축종별 사육두수 추이(단위: 마리, %)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한육우	203,952	237,449	263,502	303,990	316,646	6.5
젖소	35,865	30,426	28,040	27,501	27,831	-3.6
돼지	1,099,125	1,130,502	1,118,377	1,227,147	1,112,536	0.2
닭	5,514,081	7,103,751	6,598,185	8,532,765	8,641,144	6.6

주 : 1) 닭의 경우 20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만 전수조사함.

2) 전국의 연평균 증감율은 한육우(9.0%), 젖소(-3.1%), 돼지(-2.1%), 닭(4.8%)임.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각 연도 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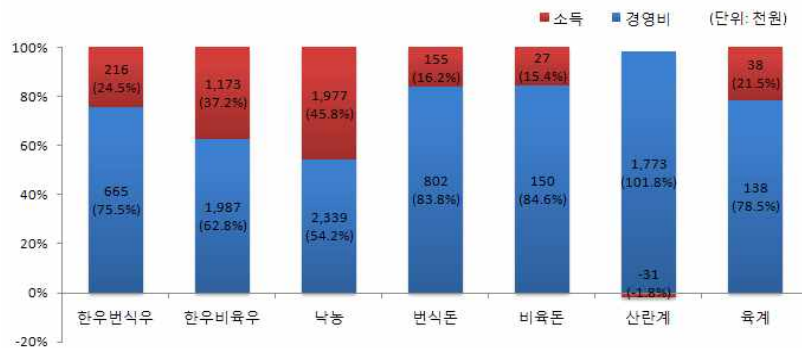
### 축산농가 소득

- 낙농과 산란계를 제외하고는 2000년 대비 소득이 유지 및 증가함
- 한우번식우의 소득 비중은 2000년 24.5%에서 2010년 24.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한우비육우와 낙농의 소득 비중은 동기간에 37.2%에서 28.6%로, 45.8%에서 14.7%로 감소하여 높은 경영비로 인해 소득의 취약함을 보임
- 번식돈의 소득비중은 2000년 16.2%에서 2010년 37.5%로 증가하였으며, 비육돈 또한 동기간에 15.4%에서 17.9%로 증가함
- 산란계의 소득비중은 2000년 -1.8%에서 2010년 -9.1%로 감소하였으며, 육계 또한 동기간에 21.5%에서 17.4%로 감소하여 높은 경영비로 인해 소득의 취약함을 보임
- 번식돈과 비육돈을 제외하고는 2000년에 비해 경영비의 차지 비중이 증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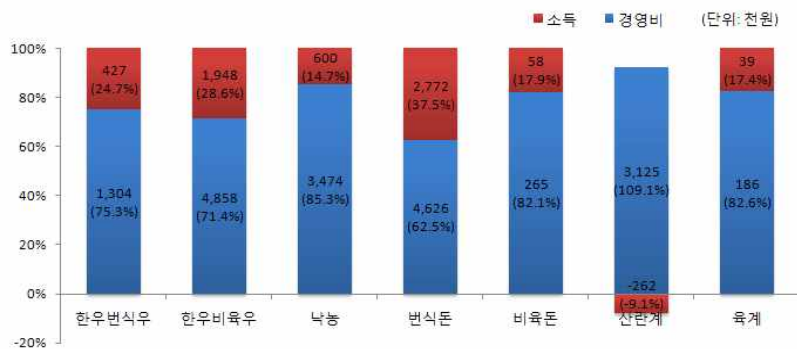
〈표 3-7-24〉 축산물 소득 변화(단위: 원, %)

작 목(기 준)	2000			2010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한우번식우(년/두)	881,206 (100.0)	665,446 (75.5)	215,760 (24.5)	1,730,669 (100.0)	1,303,857 (75.3)	426,812 (24.7)
한우비육우(회/두)	3,162,050 (100.0)	1,986,849 (62.8)	1,175,201 (37.2)	6,806,424 (100.0)	4,858,187 (71.4)	1,948,237 (28.6)
낙농(년/두)	4,316,209 (100.0)	2,339,331 (54.2)	1,976,878 (45.8)	4,074,923 (100.0)	3,474,047 (85.3)	599,876 (14.7)
번식돈(년/두)	956,713 (100.0)	801,993 (83.8)	154,720 (16.2)	7,397,771 (100.0)	4,625,594 (62.5)	2,772,177 (37.5)
비육돈(회/두)	177,279 (100.0)	149,927 (84.6)	27,352 (15.4)	323,377 (100.0)	265,362 (82.1)	58,014 (17.9)
산란계(년/100수)	1,741,700 (100.0)	1,772,700 (101.8)	-31,000 (-1.8)	2,862,657 (100.0)	3,124,502 (109.1)	-261,845 (-9.1)
육계(회/100수)	175,370 (100.0)	137,590 (78.5)	37,780 (21.5)	225,447 (100.0)	186,231 (82.6)	39,216 (17.4)

자료 : 경남농업기술원 소득정보.



〈그림 3-7-12〉 축종별 소득 추이(2000년)



〈그림 3-7-13〉 축종별 소득 추이(2010년)

## (2) 축산업 환경 및 축산물 생산동향

## 가축사육 법인수

- 2010년 현재 경남의 가축사육 법인수는 88개소로 72.7%는 영농조합법인임. 2004년 37개소보다 증가한 수치이나 이는 2010년 조사단위 변경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
- 2010년 사육두수는 한육우 7,461마리, 젓소 475마리, 돼지 226,768마리, 닭 12,914마리임

〈표 3-7-25〉 가축사육 법인 수(단위: 개, 마리)

구분	2004	2006	2008	2010
가축사육 법인수	37 (100.0)	32 (100.0)	35 (100.0)	88 (100.0)
(영농조합법인, %)	30 (81.1)	24 (75.0)	26 (74.3)	64 (72.7)
(농업회사법인, %)	7 (18.9)	8 (25.0)	9 (25.7)	24 (27.3)
사육두수				
(한육우)	209	91	1,378	7,461
(젓소)	0	0	0	475
(돼지)	137,575	141,982	146,086	226,768
(닭)	4,525	7,755	7,490	12,914

주 : 1) 2010년은 조사단위 변경(사업체→기업체) 및 모집단 구성방법 변경으로 전년과 직접비교는 곤란함.

2) 가축사육 법인수는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법인 수임.

3) ( )내는 농업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 축산수입 현황

- 2010년 경남의 축산수입은 6,179천원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1.9%씩 증가하였으며, 축산물이 3,709백만원(60.0%)으로 차지비중이 가장 높음
- 2004년 이후 축산물의 차지비중은 증가하고 대동물과 소동물의 차지비중은 최근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수입의 구조에 변화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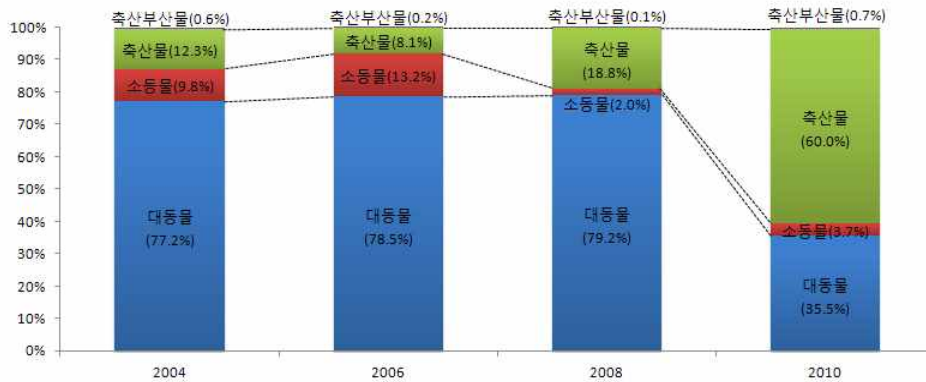
〈표 3-7-26〉 부문별 축산수입(단위: 천원, %)

구분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04~`1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5,526	100.0	7,276	100.0	1,474	100.0	6,179	100.0	1.9
대동물	4,268	77.2	5,711	78.5	1,167	79.2	2,196	35.5	-10.5
소동물	544	9.8	960	13.2	30	2.0	229	3.7	-13.4
축산물	680	12.3	590	8.1	277	18.8	3,709	60.0	32.7
축산부산물	34	0.6	14	0.2	1	0.1	44	0.7	4.4

주 : 2008년 결과는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여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비교,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그림 3-7-14〉 축산 수입 구성비

## 5) 어업

### (1) 어가 현황 및 경제동향

#### ① 어가 현황 및 실태

##### ■ 어가수 및 어가인구

- 2010년 경남의 어가는 10,768가구이며, 이 중 겸업어가는 68.1%임. 2010년 경남의 어가인구는 28,916명임
- 2005년 대비 경남의 어가 수는 연평균 6.2%씩, 어가인구는 연평균 7.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전국의 어가 감소율(-3.8%), 어가인구 감소율(-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남의 어가와 어가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경남의 겸업어가 비중은 2005년 69.5%에서 2010년 68.1%로 1.4%(p) 감소하여 어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의 겸업어가 비중의 추이(2.3%(p) 증가)와는 상반되는 결과임

〈표 3-7-27〉 경남의 해수면 어가 및 어가 인구 추이(단위 : 가구, 명, %)

구분	어가 수			어가 인구		
	2005	2010	증감율	2005	2010	증감율
전국	79,942 (68.3)	65,775 (70.6)	-3.8	221,132	171,191	-5.0
경남	14,827 (69.5)	10,768 (68.1)	-6.2	41,811	28,916	-7.1

주 : ( )내는 겸업어가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 연령별 어가인구

- 2010년 현재 경남의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전국의 평균(23.1%) 보다는 낮음

- 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005년 19.1%에서 2010년 21.6%로 2.5%p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28〉 경남의 연령별 해수면 어가 인구(단위 : 명, %)

구분	2005			2010		
	전체	14세 이하	65세 이상	전체	14세 이하	65세 이상
전국	221,132	24,113 (10.9)	41,636 (18.8)	171,191	15,698 (9.2)	39,551 (23.1)
경남	41,811	4,376 (10.5)	8,001 (19.1)	28,916	2,504 (8.7)	6,242 (21.6)

주 : ( )내는 전체 어가 인구 내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② 어가경제동향

### ■ 어가소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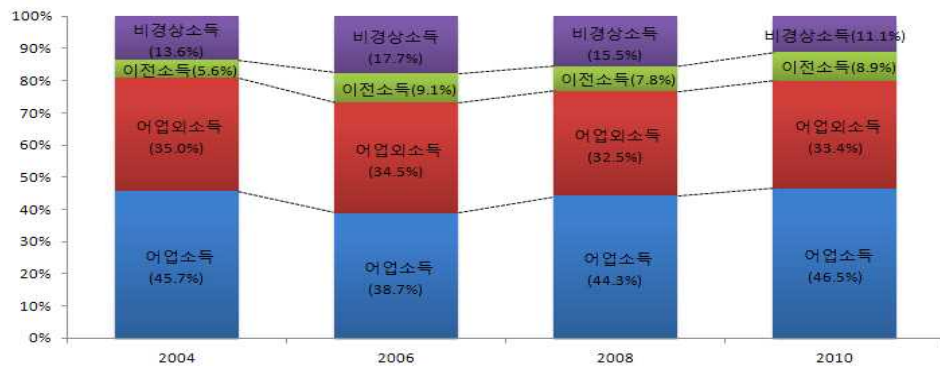
- 경남의 어가소득지표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의 어가경제지표를 통해 어가의 소득을 살펴봄
- 2010년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연간 35,696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어가소득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은 2010년 기준 88.9%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어가의 어업의존도는 2010년 기준 46.5%로 2004년 대비 0.8%p 증가함

〈표 3-7-29〉 어가 소득 동향(전국)(단위 : 천원, %)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4~'10	'08~'10
어가소득	26,159	100.0	30,006	100.0	31,176	100.0	35,696	100.0	5.3	7.0
경상소득	22,604	86.4	24,692	82.3	26,344	84.5	31,729	88.9	5.8	9.7
어업소득	11,959	45.7	11,603	38.7	13,801	44.3	16,607	46.5	5.6	9.7
어업외소득	9,168	35.0	10,361	34.5	10,120	32.5	11,931	33.4	4.5	8.6
이전소득	1,477	5.6	2,728	9.1	2,423	7.8	3,191	8.9	13.7	14.8
비경상소득	3,555	13.6	5,315	17.7	4,831	15.5	3,968	11.1	1.8	-9.4
어업의존도	45.7		38.7		44.3		46.5		0.8	

주 : 어업의존도=(어업소득/어가소득)×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그림 3-7-15〉 어가소득 구성비(전국)

### 가계지출 동향

- 2010년 어가의 가계지출은 28,700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계지출 중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6.6%로 2004년에 비해 감소함
- 어업소득의 가계지출 충족비율은 2010년 57.9%로 2004년에 비해 1.1%p 증가하여 어가경제가 건전해진 것으로 판단됨<sup>22)</sup>

〈표 3-7-30〉 어가 지출 동향(전국)(단위 : 천원, %)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4~'10	'08~'10
가계지출	21,081	100.0	23,885	100.0	25,405	100.0	28,700	100.0	5.3	6.3
소비지출	16,602	78.8	18,156	76.0	20,051	78.9	21,982	76.6	4.8	4.7
비소비지출	4,479	21.2	5,729	24.0	5,354	21.1	6,719	23.4	7.0	12.0
어업소득 가계지출충족도	56.7		48.6		54.3		57.9		1.1	

주 : 어업소득 가계지출 충족도=(어업소득/가계지출)×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어가 부채 및 상환능력

- 2010년 어가의 부채는 35,640천원이며, 어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1.3%임
- 단기 부채상환능력은 당좌자산 대비 어가부채의 비로 2010년 어가의 단기 부채상환능력은 48.5%로 2004년 대비 32.6%p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채에 비해 당좌자산의 증가가 높아 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장기 부채상환능력은 자산 대비 어가부채의 비로 2010년 어가의 장기 부채상환능력은 13.8%로

22) 어업소득의 가계지출 충족비율은 어업소득이 가계지출을 조달해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충족비율 값이 클수록 어가경제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대비 6.5%(p)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채에 비해 자산의 증가가 높아 상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표 3-7-31〉 경남의 어가 부채 동향(전국) (단위 : 천원, %)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04~'10	'08~'10
어가부채	32,544	100.0	34,422	100.0	33,587	100.0	35,640	100.0	1.5	3.0
어업용	17,665	54.3	17,275	50.2	18,207	54.2	18,277	51.3	0.6	0.2
어업용 외	14,880	45.7	17,148	49.8	15,380	45.8	17,364	48.7	2.6	6.3
어가자산	160,698		209,644		221,066		258,872		8.3	8.2
당좌자산	40,159		53,865		52,782		73,560		10.6	18.1
단기상환능력	81.0		63.9		63.6		48.5		-32.6(p)	
장기상환능력	20.3		16.4		15.2		13.8		-6.5(p)	

주 : 1) 2008년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변경에 따른 단층현상일 수도 있음.  
 2) 농업용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3) 단기상환능력=(어가부채/당좌자산)×100.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할수록 단기상환능력이 향상됨.  
 4) 장기상환능력=(어가부채/어가자산)×100.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2) 어업 환경 및 어업생산 동향

### 어업법인 수

- 경남의 어업법인 수는 2010년 현재 43개소임. 2004년 38개소보다 증가한 수치이나 이는 2010년 조사단위 변경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
- 2010년 어업법인의 종사자 수는 277명, 법인당 매출액은 552백만원임

〈표 3-7-32〉 어업법인 수(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04	2006	2008	2010
어업법인수 (출자자 개별운영 사업체 제외)	38 (22)	35 (20)	29 (16)	43 (38)
종사자 수	110	-	66	277
법인당 매출액	176	221	206	552

주 : 1) 2010년은 조사단위 변경(사업체→기업체) 및 모집단 구성방법 변경으로 전년과 직접비교는 곤란함.  
 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수치이며, 종사자 수와 법인당 매출액은 출자자 개별운영 사업체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 어선세력

- 경남의 어선척수는 2005년 19,914척에서 2010년 15,505척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76,974척의 약 20.1%를 차지함

- 경상남도 어선은 연안어업 중심으로, 1톤 미만의 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26.9%, 1톤 - 5톤 어선이 전체어선의 약 64.3%를 차지하고 있어, 5톤 미만의 어선이 약 91.2%로 소규모 어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 1톤 미만의 어선 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톤 - 5톤 어선은 전국 평균(55.8%) 보다 높게 나타나 소규모 연안어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선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7-33〉 톤급별 어선척수 비교

구 분	경 남		전 국
	2005	2010	2010
합계	19,914 (100.0)	15,505 (100.0)	76,974 (100.0)
1톤 미만	6,339 (31.8)	4,174 (26.9)	24,454 (31.8)
1톤 이상 ~ 5톤 미만	11,571 (58.1)	9,966 (64.3)	42,957 (55.8)
5톤 인상 ~ 20톤 미만	1,362 (6.8)	819 (5.3)	6,772 (8.8)
20톤 이상 ~ 50톤 미만	368 (1.8)	309 (2.0)	1,260 (1.6)
50톤 이상	274 (1.4)	237 (1.5)	1,531 (2.0)

자료 : 통계청 등록어선통계.

### 양식어업 면허건수

- 2007년 경남의 양식어업 규모는 양식면허 2,185건, 양식장 면적 11,933ha로 건수는 전국 대비 약 23.4%, 면적은 전국 대비 약 9.0%로 많은 건수에 비해 면적은 좁은 편임. 이는 해조류, 어류, 마을어업 등의 면적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경남의 총 양식어업권 중 패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한편, 해조류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경남의 양식어업은 패류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됨

〈표 3-7-34〉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단위: 건, ha, %)

구 분	경 남		전 국		경남 / 전국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185 (100.0)	11,933 (100.0)	9,352 (100.0)	132,416 (100.0)	23.4	9.0
해조류	30 (1.4)	126 (1.1)	2,425 (25.9)	76,183 (57.5)	1.2	0.2
패류	1,613 (73.8)	10,094 (84.6)	5,577 (59.6)	49,261 (37.2)	28.9	20.5
어류등	542 (24.8)	1,712 (14.3)	1,350 (14.4)	6,972 (5.3)	40.1	24.6
마을어업	608	19,278	2,835	118,675	21.4	16.2
정치망어업	203	1,722	555	7,650	36.6	22.5

자료 : 통계청 천해양식어업권통계(2007).

### 수산물 생산실적

- 경남의 수산물 생산실적은 2010년 59만톤, 1조 328조원으로 2009년 대비 생산량은 6.7% 증가한 반

면 생산금액은 3.5% 감소함

- 전반적으로 생산량은 증가하나 생산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임. 내수면 양식의 경우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크게 증가함
- 경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천해양식(56.4%), 일반해면(43.1%), 내수면(0.5%)인 반면, 생산금액은 일반해면(57.1%), 천해양식(41.6%), 내수면(1.3%)순임

〈표 3-7-35〉 경남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실적(단위: 천M/T, 10억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2009	2010	증감율	2009	2010	증감율
계		553 (100.0)	590 (100.0)	6.7	1,069.7 (100.0)	1,032.8 (100.0)	-3.5
일반해면		220 (39.8)	254 (43.1)	15.5	558.3 (52.2)	589.6 (57.1)	5.6
천해양식		330 (59.7)	333 (56.4)	0.9	497.2 (46.5)	429.3 (41.6)	-13.7
내수면	계	2.8 (0.5)	3.0 (0.5)	7.1	14.2 (1.3)	13.9 (1.3)	-2.5
	어로	1.7 (0.3)	1.3 (0.2)	-23.5	8.9 (0.8)	6.2 (0.6)	-29.7
	양식	1.1 (0.2)	1.7 (0.3)	54.5	5.3 (0.5)	7.6 (0.7)	42.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 ■ 해면어업 상위 10어종

- 2010년 경남 해면어업의 상위 10어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의 64.1%, 생산금액의 69.3%를 차지함
- 2010년 경남 일반 해면어업의 생산량의 56.8%, 생산금액의 32.7%가 멸치류가 차지하며 2009년에 비해 차지비중이 모두 증가함

〈표 3-7-36〉 경남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상위 10어종(단위: M/T, 백만원)

순위	생산량		순위	생산 금액	
	2009	2010		2009	2010
1	멸치류 (105,696, 48.6%)	멸치류 (144,291, 56.8%)	1	멸치류 (149,363, 26.8%)	멸치류 (192,856, 32.7%)
2	삼치류 (10,032, 4.6%)	삼치류 (10,757, 4.2%)	2	붕장어 (68,832, 12.3%)	붕장어 (65,757, 11.2%)
3	청어 (9,941, 4.5%)	붕장어 (8,748, 3.4%)	3	가자미류 (26,472, 4.7%)	삼치류 (30,460, 5.2%)
4	붕장어 (8,767, 4.0%)	오징어류 (8,401, 3.3%)	4	삼치류 (25,434, 4.6%)	가자미류 (26,937, 4.6%)
5	갈치 (8,684, 3.9%)	갈치 (7,304, 2.9%)	5	갈치 (21,275, 3.8%)	오징어류 (20,536, 3.5%)
6	오징어류 (7,733, 3.5%)	청어 (7,188, 2.8%)	6	문어 (18,967, 3.4%)	병어류 (15,231, 2.6%)
7	고등어류 (6,558, 3.0%)	전갱이류 (6,752, 2.7%)	7	오징어류 (14,439, 2.6%)	문어 (15,185, 2.6%)
8	전갱이류 (6,257, 2.8%)	전어 (5,306, 2.1%)	8	낙지 (12,959, 2.3%)	낙지 (14,724, 2.5%)
9	밴댕이 (5,671, 2.6%)	고등어류 (3,190, 1.3%)	9	해삼 (10,916, 2.0%)	갈치 (14,436, 2.4%)
10	굴류 (4,255, 1.9%)	굴류 (2,924, 1.2%)	10	고등어류 (9,289, 1.7%)	해삼 (12,778, 2.2%)

주 : ( )내는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나타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 양식생산 현황

- 2010년 경남 양식생산의 상위 10어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의 94.0%, 생산금액의 89.8%를 차지함
- 2010년 경남 양식 생산량의 71.5%, 생산금액의 33.7%가 굴류가 차지하며 2009년에 비해 비중이 모두 증가함
- 경남의 대표적인 양식 품종은 굴류와 조피볼락으로, 굴은 양식 생산량과 생산금액 모든 면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조피볼락은 도내 양식 생산량 3위, 생산금액 2위 품종임
- 도내 양식 생산금액 10위 품종 중에서 어류가 7개 어종임. 이처럼 어류 양식의 비중이 높은 것이 경남 양식 산업의 주요한 특징임

〈표 3-7-37〉 경남 양식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상위 10어종(단위: M/T, 백만원)

순위	생산량		순위	생산금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	굴류 (214,660, 65.0%)	굴류 (238,311, 71.5%)	1	굴류 (134,688, 27.1%)	굴류 (144,532, 33.7%)
2	홍합류 (54,298, 16.5%)	홍합류 (50,446, 15.1%)	2	조피볼락 (123,430, 24.8%)	조피볼락 (83,026, 19.3%)
3	조피볼락 (17,970, 5.4%)	조피볼락 (9,414, 2.8%)	3	참돔 (72,517, 14.6%)	참돔 (58,664, 13.7%)
4	참돔 (8,641, 2.6%)	참돔 (5,789, 1.7%)	4	홍합류 (35,380, 7.1%)	홍합류 (25,016, 5.8%)
5	김 (4,941, 1.5%)	김 (5,173, 1.6%)	5	넙치류 (29,052, 5.8%)	송어류 (23,566, 5.5%)
6	송어류 (4,400, 1.3%)	송어류 (3,879, 1.2%)	6	송어류 (24,902, 5.0%)	농어 (14,426, 3.4%)
7	넙치류 (3,236, 1.0%)	농어 (1,419, 0.4%)	7	농어 (26,733, 5.4%)	넙치류 (13,390, 3.1%)
8	농어 (1,767, 0.5%)	넙치류 (1,286, 0.4%)	8	감성돔 (8,714, 1.8%)	감성돔 (11,636, 2.7%)
9	미역 (1,274, 0.4%)	미역 (1,155, 0.3%)	9	쥐치류 (6,571, 1.3%)	쥐치류 (6,091, 1.4%)
10	꼬막류 (1,060, 0.3%)	감성돔 (1,133, 0.3%)	10	능성어 (5,192, 1.0%)	김 (5,325, 1.2%)

주 : ( )내는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나타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 ■ 내수면 어업 현황

- 2010년 현재 경남지역의 내수면 어로어업은 낙동강 하류, 우포늪, 경호강 주변, 진양호, 주남저수지 등지에서 황복, 쏘가리 등 대상으로 한 어로와 섬진강의 재첩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가수가 적고 전업어가 및 어업생산규모의 파악이 어려움
- 2010년 경남지역 내수면 야식의 주요 어종은 우렁이, 재첩, 잉어, 붕어, 메기 순임
-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1위 생산어종인 우렁이의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 44.4% 증가한 1,099톤이며, 제2위 생산어종이었던 붕어는 생산량이 약 38.6% 감소하여 제4위로 하락함. 반면, 제4위 생산량을 유지하던 재첩의 경우 100% 증가율을 보여 제2위 품목으로 올라섰으며, 메기가 새롭게 품목으로 부상함



〈표 3-7-38〉 경남 내수면 양식 생산량, 생산금액 상위 5어종(단위: M/T, 백만원)

순위	생산량		순위	생산 금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	우렁이 (761)	우렁이 (1,099)	1	붕어 (3,057)	뱀장어 (3,095)
2	붕어 (498)	재첩 (400)	2	우렁이 (2,353)	우렁이 (2,472)
3	잉어 (477)	잉어 (306)	3	잉어 (2,274)	붕어 (1,970)
4	재첩 (200)	붕어 (300)	4	뱀장어 (1,599)	잉어 (1,554)
5	동자개 (145)	메기 (180)	5	동자개 (1,229)	재첩 (873)

주 : ( )내는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나타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 2. 여건변화 및 전망<sup>23)</sup>

### 1) FTA의 영향

#### ■ 한·EU FTA

- 한·EU FTA 체결로 농수산업의 협상대상 품목 수는 한국 1,874개 품목(농업 1,466개, 수산업 408개), EU 2,444개 품목(농업 2,064개, 수산업 380개)으로 쌀 개방을 제외하며 한국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 20년(수산업 최대 12년), EU의 경우 최대 5년으로 함. FTA 체결로 인한 종합적인 대책과 더불어 EU의 고품질 유기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남도 유기농식품산업 발전 방안이 요구됨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EU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약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농산물 수출은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의 경우 치즈의 수입증가가 66.3% 예상되며,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율이 25.6%으로 예상되며, 수출의 경우라면 9.2%, 선인장 7.8%, 베이커리 제품 2.4% 증가가 예상됨(2006.9)
-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는 맥주 및 돼지고기 및 일부 낙농류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2006.6)

#### ■ 한·미 FTA

- 한·미 FTA 체결로 농수산업의 협상대상 품목 수는 1,938개 품목으로 쌀 개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관세양허 또는 수입쿼터가 적용됨.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업 분야별, 품목별 피해대책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경남도의 농수산업 피해예상 규모는 축산 471억원, 과수 215억원, 채소 44억원, 곡물 8억원, 수산 23억원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피해액은 761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축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화훼 등 특용작물과 고추, 양파, 마늘, 무, 배추 등 양념 채소류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함. 경남의 경우 조미채소류(고추, 파, 양파, 마늘 등)의 생산량이 전국의 23.1%를 차지하여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이 분야의 피해가 우려됨

로 분석됨

- 경남도의 품목별 피해는 쇠고기(45.4%), 돼지고기(23.9%), 사과(6.8%), 포도(3.3%), 배(2.4%)의 순으로 예상됨

〈표 3-7-39〉 한미 FTA에 의한 경남도 피해 예상 규모 (단위:억원)

구분	이행 첫해	5년후	10년후	15년후	15년간 피해총액	연평균(15년)
계	149	504	1,052	1,170	11,421	761
농축산물	136	487	1,012	1,129	11,078	738
수산물	13	17	40	41	343	23

자료 : 경남도정백서

- 유통부문에 다국적·초국적 기업 진입이 증가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위축과 축소 문제 발생이 예상됨
- 민간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설정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업의 피해 최소화 및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 농축산업

### ■ 농가구입 상승과 판매가격 하락

-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투입재 가격지수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9% 상승할 전망이다. 농업 노임지수는 연평균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3-7-40〉 농가구입가격지수 전망(2005=10)

		2009	2010	2011	2016	2021	연평균증감율(%)		
							11/10	16/11	21/16
농가구입 가격지수	투입재	150.8	152.5	157.7	172.9	191.2	3.4	1.9	2.0
	(경상재)	166.5	168.8	174.6	188.0	207.2	3.5	1.5	2.0
	(농기구)	119.1	120.0	123.9	140.1	155.9	3.3	2.5	2.2
	농업노임	119.3	125.3	130.9	154.3	173.8	4.4	3.4	2.4

주 : 투입재는 경상재와 농기구의 가중평균이며, 경상재는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자재가 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함.

자료 : 2011 농업전망(I).

-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곡물류와 과실류 등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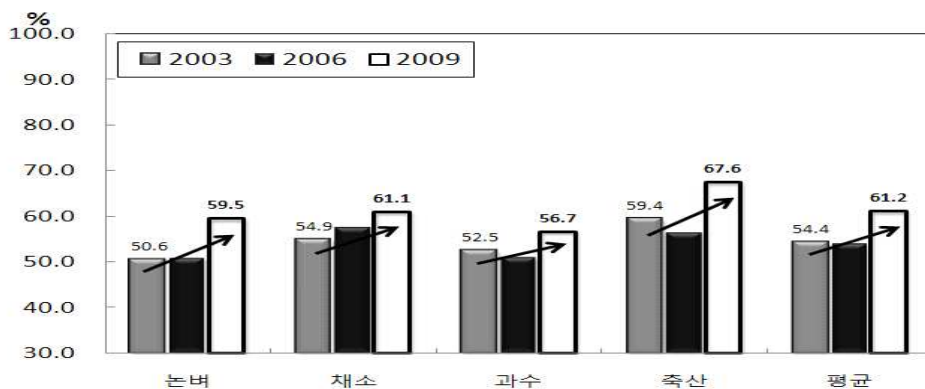
〈표 3-7-41〉 농가판매가격 전망 전망(2005=10)

구분		2009	2010	2011	2016	2021	연평균증감율(%)		
							11/10	16/11	21/16
농가판매 가격지수	전체 농산물	101.0	108.1	104.7	101.1	100.9	-3.2	-0.7	-0.1
	곡물류	100.0	98.5	98.2	88.0	79.9	-0.3	-2.2	-1.9
	채소류	101.4	122.5	111.3	109.3	109.8	-9.1	-0.4	0.1
	과실류	84.9	94.1	91.7	86.5	84.2	-2.6	-1.2	-0.5
	축산물	103.3	107.5	108.5	104.4	109.2	0.9	-0.8	0.9

자료 : 2011 농업전망(I).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97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농업조수입 연평균증가율은 13.0%,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은 16.2%임. 2000년 이후 한국의 농업조수입은 3.6% 증가한데 비해 농업경영비는 8.2% 상승함으로써 우리 농가 경제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음<sup>24)</sup>
- 영농형태별로는 논벼, 채소, 과수, 축산 농가의 농업경영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 농가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67.6%로 높아진 상태임



〈그림 3-7-16〉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자료: 2011 농업전망(I)

### 농산물 수출확대

- 농수산물 수출액은 2004년 이후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0년 현재 1,048백만불임. 항목별로는 수산물 수출액이 480백만불(45.9%)로 가장 높으며, 가공식품 384백만불(36.7%), 신선농산물 95백만불(9.0%)순임

24)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농업조수입은 연평균 2.8%, 농업경영비는 3.9% 증가함.

- 2004년 이후 신선농산물(연평균 10.6%)과 가공식품(연평균 9.3%)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액 차지비중 역시 신선농산물 2.6%(p), 가공식품 8.5%(p)씩 증가함
- 경남 농산물의 수출국을 보면, 주 수출국은 전국과 같이 일본으로 2010년 기준 174백만불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47.5%를 차지함.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입 국가의 경기에 민감하여 수출국가의 다변화와 품질강화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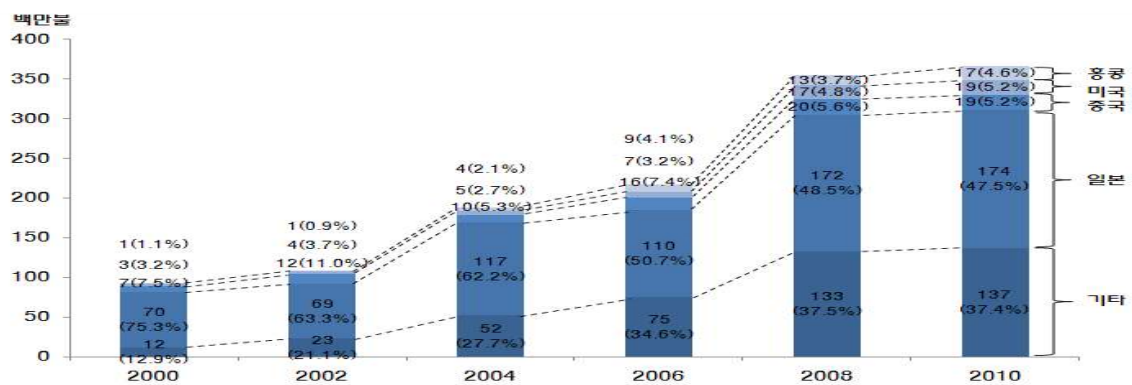
〈표 3-7-42〉 농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천\$,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율
전체	802,725 (23.9)	803,424 (23.5)	801,226 (23.6)	850,510 (22.6)	927,699 (20.6)	1,001,617 (20.8)	1,047,605 (17.8)	4.5
신선농산물	51,766 (6.4)	59,802 (7.4)	52,981 (6.6)	63,318 (7.4)	77,167 (8.3)	88,216 (8.8)	94,553 (9.0)	10.6
가공식품	225,695 (28.1)	234,429 (29.2)	260,850 (32.6)	288,807 (34.0)	340,367 (36.7)	383,983 (38.3)	384,095 (36.7)	9.3
임산물	65,173 (8.1)	63,441 (7.9)	49,066 (6.1)	43,476 (5.1)	39,854 (4.3)	41,995 (4.2)	23,731 (2.3)	-15.5
축산물	35,080 (4.4)	43,752 (5.4)	46,879 (5.9)	62,231 (7.3)	71,687 (7.7)	61,030 (6.1)	64,889 (6.2)	10.8
수산물	425,011 (52.9)	402,000 (50.0)	391,450 (48.9)	392,678 (46.2)	398,624 (43.0)	425,393 (42.5)	480,337 (45.9)	2.1

주 : 1) 전체항목의 ( )안은 전국 총 농수산물 수출실적 내 경남 차지 비중임.

2) 항목별 ( )안은 해당연도 경남 총 농수산물 수출실적 중 항목별 차지 비중임.

자료 : 경남도정백서



〈그림 3-7-17〉 경남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액

### 친환경농업 확산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농산물 수출 실적 중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05년 이후 연평균 8.5%씩 증가하여 2010년 129,659톤이나, 전국 총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중 경남의 차지비중은 2005년 10.0%에서 2010년 5.9%로 감소함
- 항목별 출하량 비중은 2010년 현재 저농약농산물이 63.4%로 가장 높으며, 무농약농산물(30.8%), 유기농산물(5.8%)순이며, 2005년 대비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1.4%p 감소함
-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제 폐지와 2016년 이후 저농약 인증제 폐지 등의 정책여건 변화로 친환경농업 규모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3-7-4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추이(경남)(단위: 톤,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율
전체	79,437(10.0)	107,841(9.6)	126,661(7.1)	126,102(5.8)	130,570(5.5)	129,659(5.9)	8.5
유기농산물	5,704(7.2)	7,779(7.2)	6,548(5.2)	9,153(7.3)	8,204(6.3)	7,520(5.8)	4.7
무농약농산물	24,018(30.2)	33,873(31.4)	41,702(32.9)	39,658(31.4)	37,439(28.7)	39,998(30.8)	8.9
저농약농산물	49,715(62.6)	66,189(61.4)	78,411(61.9)	77,291(61.3)	84,927(65.0)	82,141(63.4)	8.7

주 : 1) 전체항목의 ( )안은 전국 총 출하량 중 경남의 차지비중임.

2) 항목별 ( )안은 해당연도 경남 총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중 항목별 차지 비중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www.enviagro.go.kr).

- 경남의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은 2008년 이후 연평균 223.9%씩 증가하여 2010년 24,564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총 친환경축산물 출하량 중 경남의 비중 또한 2008년 1.6%에서 2010년 6.1%로 증가함
- 항목별 출하량 비중은 2010년 현재 무항생제축산물 99.8%, 유기축산물 0.2%이며, 2008년 대비 유기축산물의 비중이 0.7%p 감소함

〈표 3-7-44〉 연도별 친환경축산물 출하량 추이(경남)(단위: 톤, %)

구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율
전체	2,342(1.6)	10,101(3.3)	24,564(6.1)	223.9
유기축산물	22(0.9)	33(0.3)	55(0.2)	58.1
무항생제축산물	2,320(99.1)	10,068(99.7)	24,509(99.8)	225.0

주 : 1) 전체항목의 ( )안은 전국 총 출하량 중 경남의 차지비중임.

2) 항목별 ( )안은 해당연도 경남 총 친환경축산물 출하량 중 항목별 차지 비중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www.enviagro.go.kr).

- 로컬푸드, 단체급식, 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 수요창출과 안전한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한 이력 추적제, HACCP, 원산지 표시제, 인증제 등 안전농산물 생산관리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개방화시대 농업과 농촌의 생존을 위한 가격경쟁력이 아닌 우리 농산물의 가치경쟁력에 소비자의 요구를 접목하는 새로운 판매전략이 요구되며,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확대와 경축순환농업을 통해 자원활용률을 극대화하는 생산전략이 필요함

### ■ 농작물 재배환경 변화

- 기후변화와 온난화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재배작물의 지대가 북상함에 따라 남부지방에 적합한 재배작목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아열대기후로 변화되는 경남지역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작목의 발굴과 도입이 필요함

### ■ 농산물 브랜드화

- 농산물의 다양성 증가와 농산물의 안정성이 중요시 되어 브랜드의 필요성이 증가함과 더불어,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농축산물 브랜드는 2006년 734개에서 2011년 현재 894개로 35.4% 증가함<sup>25)</sup>

〈표 3-7-45〉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2011.06월 말 기준)

구분	계	식량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가공	수산물	수산가공	공통	기타
등록	250	39	21	22	8	1	66	10	2	37	4	7	29	4
미등록	744	129	66	104	21	3	14	18	20	288	3	51	6	21
계	994	168	87	126	29	4	80	28	22	325	7	58	35	25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 3) 어업

### ■ 어업의 불확실성 증가

- 경남의 어업생산량을 보면 연근해의 어족자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양식생산에 의한 수산물 공급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이전에 많이 어획되던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아열대성 어종의 어획이 증가하고 있음
- 불가사리, 해파리 등 어업생산을 저해하고 어장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해적생물의 출현 빈도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어장의 서식조건을 악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 해양환경 악화

25) 수산물, 수산가공, 공통 브랜드를 제외한 수치임.

- 연안환경오염, 각종 해양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어족자원의 환경수용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 플라스틱, 물병, 생활용품, 등 각종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됨에 따라 어업 생산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음. 특히 최근에 경남은 낙동강 하구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가 어장으로 밀려 와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 양식어업 경쟁력 약화

-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양식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유류비와 사료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비해 어가는 크게 오르지 않거나 수입 수산물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하락하는 어종도 있어 어가의 경영 여건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 경남의 대표 양식품종인 조피볼락과 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 어업인력의 이탈 및 구조변화

- 어촌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탈어촌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어촌 사회를 구성하는 어가 인구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어촌의 젊은 인구 층이 어촌을 이탈함에 따라 출생, 전입 등 신규 인구의 진입이 줄어들고 있어 어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고령화 되고 있음

#### ■ 경남 수산업의 기회요인

- 전 세계적으로 수산양식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혁명적인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산양식 분야의 규모가 커질 전망
- 수산양식 생산 분야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공급량 증가라는 시장규모의 성장이 뒷받침되어 집에 따라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임
- 수산생산물은 식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물질 개발, 특수 영양소, 신소재 개발 등 생명공학의 원료 산업으로서도 중요함. 특히 기능성 및 건강성 식품의 개발과 의약품의 개발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임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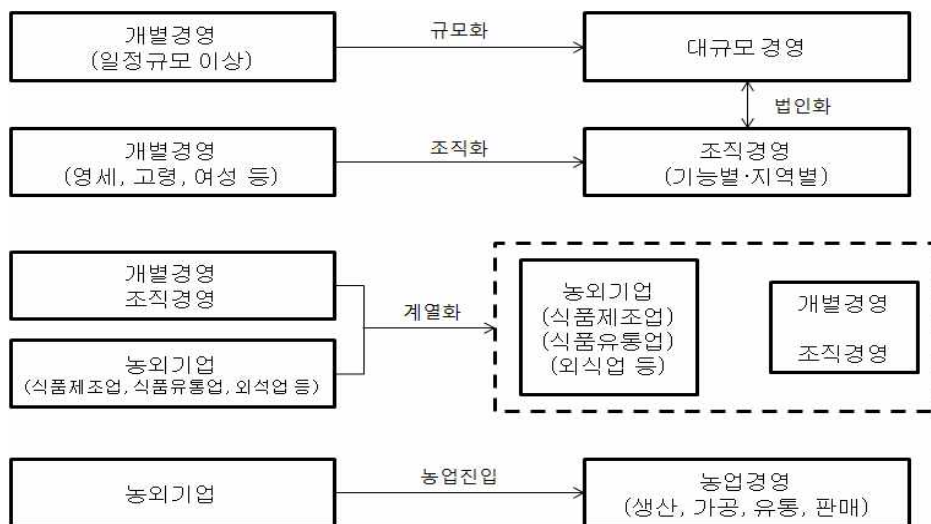
#### ■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 한-미, 한-EU FTA 등 농림어업에 대한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사회환경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신뢰도 제고, 로컬푸드 등 새로운 농림어업의 성장동력 발굴 추진
-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적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생적 발전시스템 구축. 미래 농림수산업이 새로운 녹색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1)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다양한 농업경영체 육성

- '규모화'를 통한 대규모 경영 유도과 '조직화'를 통한 조직경영 강화 시켜 대규모 경영과 조직경영의 법인화를 통한 농업경영체 확대
- 생산농가와 기업을 연계한 '계열화' 사업 유도 및 활성화
- 기업의 농업투자 및 진출 유도를 통한 활성화



〈그림 3-7-18〉 농업경영체의 발전유형  
자료 : 박성재 외 3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 강한 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프로화 촉진을 위한 인재 육성안 마련
-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구축이 가능한 공공분야의 농업교육훈련기관 역량 제고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 자율적 학습조직 활성화 전략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 농업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시스템 개발
- 영세농업인 자립을 위한 신소득원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농축산 자원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고도화

- 농업부산물 및 산림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
- 시설농업 신에너지 개발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지원
- 고령화시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농업 기반 구축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농업 기반 구축
-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가공 기반 육성
-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기반 마련으로 수입농산물 대응 경쟁력 강화
- 농가 경영 건전화를 위한 경영비 절감 및 농산업 부가가치 증대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 수출농업 육성 및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수출농업 육성
  -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개발
  -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기반 구축
  - 수출관련 지원 기능 강화
  - 수출시장의 유통망 연계 및 구축
  - 수출시장별 특성 분석과 홍보 강화
-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식품패턴 변화, 외식산업의 발전, 고령친화적인 식품수요 증대에 맞추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춘 안정된 공급체계로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합효과 기대

#### 첨단산업과의 융합

- 바이오디젤, 바이오매스자원의 지역성 연계를 통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종합대책 수립

#### 향토산업/지연산업 발굴 및 육성

- 점진적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지연산업 발굴, 사업화 가능성 진단, 시장 조사 등)
- 전통사찰과 이순신 장군 등 전통과 이야기를 녹여낸 문화자원형 특산물 개발
- 지리적표시제 적용 고품질 상품 개발
- 지역의 특산물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주도 개발위원회의 지원을 통한 역발상적 서비스자원형 향토산업 개발
- 자연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융복합자원형 1차, 2차, 3차 산업 융합사업 지원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양식산업 육성

####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확대 설정 : ( '11) 3.6% → ( ' 20) 20%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매년 3% 감축을 통한 저비용 농산물생산 전환 및 실천 컨설팅 강화

- 친환경생태 실천농가의 소득보전
-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정적 공급지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단지 등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 확대

#### ■ 친환경 경축순환 농업 육성

- 소규모 축산인을 위한 공동축사 지원 및 무분별한 축산시설 신축에 따른 민원발생,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형 축산단지 개발 추진
  - 축산시설의 집단화·단지화 추진시 관련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폐수 이용 수생식물 습지공원 등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동시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고부가가치화 시설 지원(지역내 물질균형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에너지화, 퇴액비화 시설)
- 축산시설 활용 신재생에너지(축사 활용 태양광발전 등) 소득원 창출
- 친환경농업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산업 육성(기능성 물질, 사료용 곤충 등)
-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 남해안 권역 아열대작물 도입 육성

- 해안권 시군 한라봉, 무화과,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도입 육성
- 내륙권 시군 구아바, 용과, 망고 등

#### ■ 지리산권 약용작물산업 육성

- FTA대응 경남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소득창출 작목으로 육성
- 오미자, 산약, 길성 등 6대 약용작물 생산전문단지조성

#### ■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수종 조성
- 기후변화, 수자원함양, 재해예방, 경관조성, 산림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자원 관리
- 숲 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도망 확충
- 바이오 순환림 조성 및 저탄소 산촌시스템 구축

#### ■ 임업 경쟁력 강화

- 산양삼, 고로쇠수액, 꽃감 등 지역특산임산물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강화
- 산림치유를 산촌지역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생태산촌 개발사업 추진
- 자연휴양림, 생태숲, 수목원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소득자원 발굴

- 숲가꾸기 산물 목재를 지역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책 강구
- 귀농희망자를 산촌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귀산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별도 지원책 강구

### ■ 생태계 기반형 수산업 육성

-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제도 확대
  -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휴어기 설정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 일부 보전
  - 어업허가제, 감척, TAC, 수산자원회복계획, 자율관리 어업 등 어업관리 정책 보완
  - 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대한 어장휴식년제 추진
  - 어장휴식 기간 중 어업인의 생계비 등 일정한 소득 보전
  - 기존 종이형태의 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입출항 신고 등 어업활동 전산통합 관리 구축
  -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지정, 구멍조끼 보급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 생존성 강화
  - 수산직불제 도입과 위치발신 등 어선안전시스템 강화 및 노후장비 개량화
- 수산자원 보호육성제도 체계화
  - 수산자원보호육성제도를 해양보호구역제도와 연계·발전시켜 체계화
  - 인위적인 서식·산란장 조성 확대 및 사후관리 체계 혁신으로 자원회복
  - 수산자원보호수면 지정을 통해 단순히 남획된 자원의 회복에 한정하지 않고 비남획 자원도 보호, 이때 조업구역의 규제는 산란장 및 치어 성육장에 대한 조사 및 보호수면 지정
  - 어업인 자율적 협약을 통한 자율적 조정기능 제고
  - 해중립조성(바다숲)/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실시, 어장의 생태계 복원
  - 인공어초 제작 표준품셈 제정으로 설계표준화를 통한 어초 제작 경영비 절감
  - 해역 특성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인공어초 개발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대폭 확대 및 추진체제 확립
  - 연안 정착성 어종 및 고부가 지역특화가 필요한 어종 중심으로 방류
  - 해역특성에 맞는 생태보전형 종묘방류사업 실시
  -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의 수산자원 조성방법으로 다양한 바다목장 개발 및 확산 지원
  - 자원관리형 감척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 관리 합리화 추진
  - 바다 목장 확대, 해중립 조성, 바다 식목일 제정 등 수산자원 인프라 확대
- 양식산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
  - 양식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절감형 장비지원 등 양식 인프라 구축
  - 10대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참다랑어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단지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

- 수산물 수급조절 및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양식어장 지도정비 강화

### ■ 시장개방 확대 대응 한우 경쟁력 강화·육성

- 경남 친환경한우농가 육성(친환경축산농가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차별화
- 중소 한우브랜드 통합에 의한 광역브랜드 규모화·활성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한우 개량가속화 및 우량송아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소득 확충
  - 한우개량사업, 우량송아지생산시설지원, 송아지혈통경매 가축시장 활성화

## 2)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축수산업 육성

### ■ 위험관리 및 안전성 강화

- 재해·방역체계 구축
  - 축산에 대한 선진 방역체계 구축
  -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표 3-7-46〉 축산방역체계 구축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축산업 허가제	-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13) 기업농 → ( '14) 전업농 → ( '15) 준전업농 → ( '16) 소규모
축산차량 등록제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 및 가축방역 교육 의무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사육단계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환경 및 사육방식 도입 농장에 대해 인증, 인증 농장 생산 축산물에 표시 - '15년까지 4대 축종(한육우·젖소·돼지·닭)으로 단계적 확대 * ( '12) 산란계 → ( '13) 돼지 → ( '14) 육계, 한육우 → ( '15) 젖소
농장단위 돼지 이력제	- 모든 양돈농장에 농장 식별번호 부여,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 이동 또는 도축 금지 조치
수의사 처방제	- 항생제·생물학제재 등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으로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 제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 가축매몰지 특별관리단 운영, 관측정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 - 중장기적으로 매몰지의 본래 토지 용도로 환원

- 식품안전성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유통과정의 소비자 신뢰도 및 선호도 증진(GAP, HACCP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GAP, HACCP 등 기존 인증체계 미비점 보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표 3-7-47〉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소비의 개선방향

	생산	유통	소비
지역농식품 체계 도입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지원농업,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 조성</li> <li>- 토종 농산물 재배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장터 운영</li> <li>- 지역농산물 전문식당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li> <li>- 도시농업 추진</li> </ul>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생산조직 활성화</li> <li>- 생산자 교육 및 기술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시설 확충</li> <li>- 물류효율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신뢰구축</li> <li>-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매장 확충</li> </ul>
도매유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유통인의 지정 운영</li> <li>- 출하장려금·출하선도금 지원 확대 및 계약거래 추진</li> <li>- 도매시장 내 전문거래 장소 설치</li> <li>- 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최저 거래가격 보장</li> </ul>		

## ■ 경영 안정망 구축

- 위험원인 제거정책 정비 및 보완
  - 생산기반 정비 및 용수대책, 재해방지 시,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및 보급
  - 정책 위험 및 시장내생적 위험 감소 정책(공적정보 및 공적정보의 통로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최소화 등)
- 위험 대처능력 향상정책 정비 및 보완
  - 위험분산 : 경영다각화, 복합영농, 다양한 작목 제시,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위험회피수단 제공 : 계약재배, 발매기 거래
  - 유통협약명령 : 물량통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
- 보상 및 보험정책 정비 및 보완

##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GAP, HACCP 등 인증 농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체계 구축
- 안전축산물 가공·유통 기반개선
  - 도축장 구조개선을 통한 현대화 시설 거점도축장 선정 확대
  -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Packer) 육성
- 유기사료 자급기반 구축
  - 유기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 실시
  - 청보리, 총채버 등 사료작물 재배 확대 지원
-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응,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구축
  - 지역별 거점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

- 신시장·신수요 창출방안 수립
  - 농식품의 상품화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망 구축
  -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그림 3-7-19〉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 설정  
자료 : 박성재 외 3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 수산물 산지유통 가공센터 설립지원
  - 수산물 산지유통 가공센터(FPC)의 설립 추진
  - 지역별·품목별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적, 세척·선별·포장 등 전처리가공 및 도매물류 등을 통해 상품성 강화
  - 기존의 Manufacture가공에서 Process가공으로의 전환
  -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 생산-가공-위생-유통-안전 등) 인·허가 업무 일원화
  - 도매기능과 Seafood Market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 육성
-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 대·소규모 유통시설을 구분하여 지원사업 추진 : 대규모(국비사업), 소규모(도비사업)
  - 다양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단계 축소, 농업인 편익 증진
  - 농산물 규격출하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가격안정 도모

#### ■ 브랜드 경쟁력 강화

- 등록 브랜드 보호사업과 브랜드 등록화 유도
- 공동브랜드 육성 및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사업
- 브랜드화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과 차별화 전략 수립
- 품질 고급화에 대한 차별화 전략 수립
  - 쇠고기의 경우 중등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고급육의 프리미엄 확보
- 천혜의 자원 브랜드화, 자연자원형 고품질 상품과 브랜드 개발

### 3)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 ■ 지역농식품/로컬푸드 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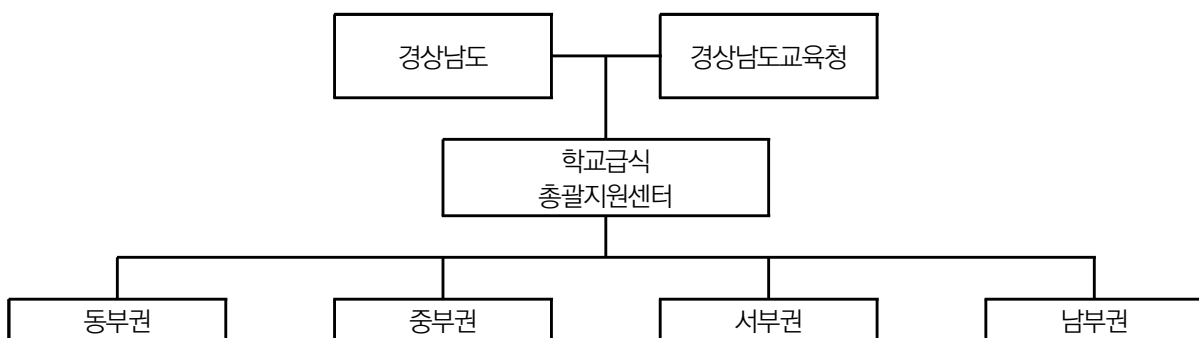
- 친환경 농축산물 파머스마켓 등 지역 소비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
- 로컬푸드 육성정책 입안과 지원 조례 마련
- 시군 로컬푸드 사업 매칭 펀드 조성
- 정책 통합 및 시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 학교급식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시스템 개선
-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11년	'12년	'13년	'14이후
670억 원	1,221억 원	1,534억 원	1,941억 원
郡 지역 초·중고 市 지역(읍면) 초·중 저소득층 120%	사군 읍면 초·중고 市 지역(동) 초등학교 (4~6학년) 저소득층 130%	사군 읍면 초·중고 市 지역(동) 초등학교 (1~6학년) 저소득층 130%	사군 읍면 초·중고 市 지역(동) 초·중고 저소득층 130%

-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 : 시범사업(2012) → 도내 4개권역 설치(2013~)



- 동부권(김해, 양산, 밀양, 창녕권), 중부권(창원, 함안, 의령, 함천권), 서부권(진주, 산청, 하동, 함양, 거창, 남해권), 남부권(거제, 통영, 고성, 사천권)

※ 거점편성기준 : 도로망, 급식규모, 유통구조, 공급량 균등배분

### 농산어촌 자원기반형 기업활동 강화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발굴과 전통적인 공공 공간의 활용방안 발굴

- 농축수산업과 2·3차 산업부문 연계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역량 강화
- 어메니티 자원 연계 소득 자원화

#### ■ 곤충산업, 종자산업, 말산업, 향노화산업 육성

- 첨단 무병종묘산업 육성
- 농업부산물과 폐기물 활용 고부가가치 신산업(곤충산업 등) 기반 추진
-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농가소득 증대 기반 조성 사업
  - 지역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연구개발, 곤충 사육기술 등 곤충자원의 체계적인 산업화 추진
- 사료 및 식의약품 곤충산업의 중심으로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말산업 육성 투자계획 수립 등 말산업 육성
  - 경마를 비롯한 승마, 관광, 관상, 재활치료 등 웰빙 녹색레저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
- 서부 경남(지리산권역)의 향노화산업 육성



## 제2절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생활기반 여건

## ■ 주거 여건

- 공동주택의 비중은 2010년 현재 경남의 시부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반면, 경남의 군부는 전국 평균의 27.4%수준임. 이는 군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차지 비중이 높음을 의미함
- 2010년 주택총조사의 경남 자료에 근거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1979년 이전 주택 비율이 시부 26.2%, 군부 36.1%로 나타나 주택 노후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 3-7-48〉 주거 여건의 지역간 비교

	공동주택비중(%)		1979년 이전 주택비율(%) (2010년 기준)	
	2005	2010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국	65.4 (100.0)	70.0 (100.0)	30.6	1.7
경남 시부	62.8 (96.0)	68.0 (97.1)	26.2	1.3
경남 군부	14.4 (22.0)	19.2 (27.4)	36.1	0.2

주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 ■ 교통 여건

- 교통 여건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자동차 1대당 도로 연장은 경남의 군부가 전국 평균의 5.0배 이상인 반면, 시부는 전국 평균의 1.2배에 머물고 있음. 교통여건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인 도로포장률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05년에 비해 증가함
  -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2009): 시부는 전국 평균의 118.5%, 군부는 전국 평균의 503.5%
  - 도로포장률(2009): 시부는 전국 평균의 84.6%, 군부는 전국 평균의 88.7%
- 2005년과 2009년 사이의 교통기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시부와 군부 모두 교통의 양적 수준은 악화된 양상을 보이나 교통의 질적 수준은 개선됨
  - 시부: 교통 양적 기반 악화(▼), 교통 질적 기반 개선(▲)
  - 군부: 교통 양적 기반 악화(▼), 교통 질적 기반 개선(▲)

〈표 3-7-49〉 교통기반의 지역간 비교

구분	도로포장률(%)		고속 일반국도비율(%)		자동차대당 도로연장(m)	
	2005	2009	2005	2009	2005	2009
전국	76.8 (100.0)	79.3 (100.0)	16.8 (100.0)	16.8 (100.0)	6.64 (100.0)	6.06 (100.0)
경남 시부	66.8 (87.0)	67.1 (84.6)	11.1 (66.1)	11.4 (67.9)	8.29 (124.8)	7.18 (118.5)
경남 군부	66.2 (86.2)	70.3 (88.7)	24.1 (143.5)	3.8 (141.7)	36.28 (546.4)	30.51 (503.5)

주 :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경남 통계연보

### 기초생활환경 여건

- 기초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급수량, 환경오염발생원,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 된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군부의 상수도 보급은 전국 평균과 시부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집적정도는 전국 평균의 1.6배로 나타나 군부의 기초생활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보급률(2009): 시부는 전국 평균의 99.4%, 군부는 전국 평균의 60.2%
  - 환경오염 배출원(2008): 시부는 전국 평균의 144.4%, 군부는 전국 평균의 163.0%이며, 2009년 지역별 직접비율은 모두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쓰레기 처리율(2008): 쓰레기 처리율에서는 격차가 적은 편임
- 2005년과 2008(2009)년 사이의 기초생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시부와 군부에서 증가하였으며, 1일 1인당 급수량은 시부는 감소한 반면 군부는 증가함.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수는 시부와 군부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쓰레기 처리율은 시부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군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처리율은 감소하였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님

〈표 3-7-50〉 기초생활 환경의 지역간 비교

구분	상수도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L)		인구 천명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수(개소/천명)			쓰레기수거구역 인구비율(%)		
	2005	2009	2005	2009	2005	2008	2009	2005	2008	2009
전국	90.7 (100.0)	93.5 (100.0)	351 (100.0)	332 (100.0)	2.5 (100.0)	2.7 (100.0)	-	100.0 (100.0)	100.0 (100.0)	-
경남 시부	89.0 (98.1)	92.9 (99.4)	328 (93.4)	319 (96.1)	3.7 (148.0)	3.9 (144.4)	4.2	99.0 (99.0)	99.0 (99.0)	99.1
경남 군부	49.7 (54.8)	56.3 (60.2)	199 (56.7)	232 (69.9)	4.1 (164.0)	4.4 (163.0)	4.7	131.7 (131.7)	99.8 (99.8)	100.0

주 : 1)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을 포함

3) 인구 천명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인구기준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경남 통계연보.

## 2) 의료·복지·교육문화 여건

### ■ 의료·복지 여건

-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수용 능력, 의료 인력의 확보 수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정도를 분석함. 의료여건은 시부와 군부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군부의 의료여건이 열악함.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정도에서는 인구과소로 인해 군부지역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남
  - 병상당 인구수(2009): 병상당 인구수가 높을수록 병상의 수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시부는 전국 평균의 66.1%, 군부는 전국 평균의 85.9%
  - 의료기관 종사자당 인구수(2009): 의료기관 종사자당 인구수는 높을수록 의료기관 종사자가 담당해야할 인구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시부는 전국 평균의 109.9%, 군부는 187.4%로 나타나 군부의 의료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당 인구수(2009): 사회복지시설당 인구수는 높을수록 사회복지시설이 감당해야할 인구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시부는 전국 평균의 157.3%, 군부는 51.4%로 나타나 군부의 사회복지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현상은 지역인구의 과소화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유희화 현상을 엿볼 수 있음
- 2005년 이후의 의료·복지여건 변화에서는, 전국과 경남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반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시부와 군부간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복지시설의 여건 역시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시부의 경우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이 담당해야하는 인구는 많으며, 군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 3-7-51〉 의료·복지 여건의 지역간 비교

구분	병상당 인구수(명)		의료기관 종사자당 인구수(명)		사회복지시설당 인구수(명)	
	2005	2009	2005	2009	2005	2009
전국	155.0 (100.0)	105.3 (100.0)	124.9 (100.0)	108.3 (100.0)	33,276 (100.0)	13,220 (100.0)
경남 시부	77.9 (50.3)	69.6 (66.1)	148.6 (119.0)	119.0 (109.9)	37,533 (112.8)	20,795 (157.3)
경남 군부	103.1 (66.5)	90.5 (85.9)	248.9 (199.3)	203.0 (187.4)	18,008 (54.1)	6,801 (51.4)

주 : 1)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2) 병상은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병상 기준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사, 치과, 간호사(조무사 제외), 한의사, 약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정신요양·부랑인시설 기준임

3) 인구기준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경남 통계연보.

### ■ 교육 및 편의시설 이용여건

- 2010년 현재 거주하는 행정리에서 교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20분 이상 소요되는 행정리의 비중은, 시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군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부에 위치한 농가에서 교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10.5%, 군부는 전국 평균의 72.1%
- 초등학교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19.5%, 군부는 전국 평균의 81.8%
- 중학교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22.6%, 군부는 전국 평균의 82.6%
- 고등학교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08.2%, 군부는 전국 평균의 98.6%

〈표 3-7-52〉 교육시설이용 시 소요시간이 20분 이상인 행정리 비중(201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8.6(100.0)	7.7(100.0)	11.5(100.0)	28.0(100.0)
경남 시부	9.5(110.5)	9.2(119.5)	14.1(122.6)	30.3(108.2)
경남 군부	6.2(72.1)	6.3(81.8)	9.5(82.6)	27.6(98.6)

주 :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0).

- 2010년 현재 거주하는 행정리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20분 이상 소요되는 행정리의 비중은, 상설영화상영관의 경우는 시부와 군부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으며, 기타 교육시설(도서관, 어린이집)의 경우는 군부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상설영화상영관 : 시부는 전국 평균의 85.7%, 군부는 전국 평균의 56.5%
- 도서관 : 시부는 전국 평균의 87.7%, 군부는 전국 평균의 113.8%
- 어린이집 : 시부는 전국 평균의 94.9%, 군부는 전국 평균의 136.4%

〈표 3-7-53〉 문화복지시설이용 시 소요시간이 20분 이상인 행정리 비중(2010)

구분	상설영화상영관	도서관	어린이집
전국	89.2(100.0)	39.8(100.0)	19.8(100.0)
경남 시부	76.4(85.7)	34.9(87.7)	18.8(94.9)
경남 군부	50.4(56.5)	45.3(113.8)	27.0(136.4)

주 :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0).

- 2010년 현재 거주하는 행정리에서 금융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20분 이상 소요되는 행정리의 비중은, 은행의 경우는 시부와 군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타 금융시설의 경우 시부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고 군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협동조합과 우체국의 경우에는 시부에 위치한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군부에 위치한 경우 접근성이 떨어짐
- 협동조합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09.4%, 군부는 전국 평균의 74.1%
- 우체국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28.4%, 군부는 전국 평균의 77.9%

- 새마을금고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06.5%, 군부는 전국 평균의 134.0%
- 은행 : 시부는 전국 평균의 94.5%, 군부는 전국 평균의 98.2%

〈표 3-7-54〉 금융시설이용시 소요시간이 20분 이상인 행정리 비중(2010)

구분	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전국	8.5(100.0)	9.5(100.0)	35.3(100.0)	62.0(100.0)
경남 시부	9.3(109.4)	12.2(128.4)	37.6(106.5)	58.6(94.5)
경남 군부	6.3(74.1)	7.4(77.9)	47.3(134.0)	60.9(98.2)

주 :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 2010년 현재 거주하는 행정리에서 기타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20분 이상 소요되는 행정리의 비중은, 시부의 경우 재래시장, 시외버스터미널, 119안전센터, 파출소와의 접근성이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은 반면, 군부의 경우 119안전센터와의 접근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
- 재래시장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06.1%, 군부는 전국 평균의 81.3%
- 시외버스터미널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04.2%, 군부는 전국 평균의 73.2%
- 119안전센터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39.6%, 군부는 전국 평균의 129.7%
- 파출소 : 시부는 전국 평균의 129.7%, 군부는 전국 평균의 90.1%

〈표 3-7-55〉 기타 생활편의시설 이용시 소요시간이 20분 이상인 행정리 비중(2010)

구분	재래시장	시외버스터미널	119안전센터	파출소
전국	40.7(100.0)	38.1(100.0)	27.0(100.0)	10.1(100.0)
경남 시부	43.2(106.1)	39.7(104.2)	37.7(139.6)	13.1(129.7)
경남 군부	33.1(81.3)	27.9(73.2)	38.0(140.7)	9.1(90.1)

주 : (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귀농인구의 증가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과 활력저하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력 확보와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 경남도에서는 영농창업자금 2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 4천만원까지 연리 3%, 년 거치 10년 상환토록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 지원, 귀농학교 운영, 귀농카페 제작, 귀농마을 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경남의 귀농가구는 연평균 17.19%씩 증가하여 2010년 현재 535세대가 귀농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도시에서 생활하던 귀농가구의 경우 기존의 농촌인구와의 요구도가 상이하고, 도시의 고소득층 및 전문가 집단의 유입으로 인하여 농촌인구 계급이 재구성됨. 지역공동체 구조가 지역성보다는 이해에 중심을 두는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인구와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사회통합적인 정책수립이 강구되어야 함

〈표 3-7-56〉 귀농가구 추세 (단위: 세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율
귀농가구	242	267	277	373	525	535	17.19

자료 : 경남 도정백서.

## 2) 지역개발 투자 증대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산업의 입지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촌에 대한 투자 증대는 과다투자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기적·장기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가 요구됨

## 3) 다문화 가구 증대

- 젊은 여성들이 농촌거주 기피로 인한 농촌 노총각들의 혼인문제와 그에 따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임
- 2007년 농림어업종사자 남자와 외국 여성과의 결혼비율은 40.0%였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44.5%로 순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국제결혼 비율이 높음<sup>26)</sup>
- 농촌의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은 빠르나 이에 대응한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 낮은 이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의 고충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 소통의 부재와 갈등 등의 가족문제, 이웃과의 교류 및 2세 교육의 어려움 등 다차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 점점 과소화되어가고 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26)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박성재외 3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 추진

- 체계적인 생활환경 서비스 제고를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생활중심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 새로운 농산어촌의 활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1) 농산어촌 정주환경 정비

- 읍면 소재지의 재정비와 인근도시와의 연대를 고려한 정주체계 마련
- 근린주거시설의 임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 커뮤니티 시설기반의 재확립
- 전원마을, 인구과소화 마을로의 주민 이주,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비
- 노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적 주택 보급
-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복지회관, 경로시설, 휴식공간 조성 등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전환

### 2) 의료·복지·교육시설 정비사업

- 교통약자(노인)를 배려한 준공공교통수단 보충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 전환
- 농산어촌의 노령화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실화 방안 마련과 노인수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방안 마련
- 시설 유희화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학습용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시설 활용방안 발굴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로 교과수업과 보육을 학교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농산어촌에 여건에 적합한 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

### 3) 귀농·귀촌 지원 및 친환경농업 제공

- 귀농·귀촌인구의 수요예측에 따라 맞춤형 사업 및 지원 계획 수립
- 기존 농촌인구와 이질적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 귀농·귀촌인구의 유형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마련
- 다문화 가정의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 광역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 어업창업에 필요한 멘토제도, 창업전 어업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 4)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 대외 경쟁력 확보
- 내수면 생태장 조성, 지역 특화 품종(관상어, 철갑상어) 보급
- 내수면 양식장 배출수 및 노폐물 처리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 5) 어항개발사업 확대 정비

- 어항기능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어항개발사업 확대 및 정비 추진
-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과 다기능어항, 아름다운 어항 등 어항친수시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개발
- 어선 안전수용율 제고를 위한 지방어항 추가 지정 추진

#### 6) 연안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 해일·파랑, 지반침식으로 훼손된 연안을 보호하는 보전사업 추진
- 조류소통, 갯벌보존, 연안해역 보전을 위한 해역개선 추진
- 연안의 접근성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친수연안 조성사업 추진



## 제3절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쉼터)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농자재 남용

- 경남의 영농폐농약용기 발생량은 연평균 7.67%씩,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연평균 7.85%씩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국의 연평균 증감율 보다 높은 수치로 경남 농가의 환경오염 원인제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까지 증가하는 추이였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이로 전환됨

〈표 3-7-57〉 영농폐기물 발생량(단위: 개, 톤,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율
영농 폐농약용기	4,245,751	5,372,087	7,148,590	7,331,296	6,548,399	6,142,291	7.67
영농폐비닐	33,861	41,131	57,947	55,901	52,260	49,402	7.85

주: 전국의 영농폐농약용기 연평균 증감율은 2.41%, 영농폐비닐 증감율은 3.20%임  
 자료: 한국환경공단.

## 2) 화학에너지 소비 증가

- 농림수산업용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구성변화를 보면 고유가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비중은 2.3% 감소하고, 연탄은 3.6% 증가함
- 화학에너지(연탄, 석유)의 소비비중은 2004년 86.8%, 2007년 87.1%로 여전히 높음

〈표 3-7-58〉 농림수산업 에너지원별 소비량(열량기준, 전국)(단위:  $10^{10} \text{ kcal}$ , %)

구분	농림업		어업		계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계	4,672.8(100.0)	2,087.6(100.0)	1,613.2(100.0)	1,732.2(100.0)	6,286.0(100.0)	3,819.9(100.0)
연탄	97.3(2.1)	157.7(7.6)	0.0(0.0)	0.0(0.0)	97.3(1.5)	157.7(4.1)
석유	3,853.5(82.5)	1,515.8(72.6)	1,504.0(93.2)	1,652.8(95.4)	5,357.5(85.2)	3,168.5(82.9)
도시가스	0.3(0.0)	6.6(0.3)	0.0(0.0)	1.0(0.1)	0.3(0.0)	7.6(0.2)
전력	721.7(15.4)	406.6(19.5)	109.2(6.8)	78.5(4.5)	830.8(13.2)	485.1(12.7)
연탄·석유비율	84.5	80.2	93.2	95.4	86.8	87.1

주 :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2005년, 2008년 자료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 3) 온실가스 규모

-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20.6에서 2007년 18.4로 연평균 -1.6% 감소하나, 임업면적 등의 감소로 흡수원 또한 연평균 -0.3% 증감을 보이고 있음

〈표 3-7-59〉 농축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전국)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7	연평균 증감율(%)
총배출량	534.4(100.0)	574.6(100.0)	593.9(100.0)	602.6(100.0)	620.0(100.0)	2.1
농업축산	20.6(3.9)	19.8(3.7)	20.0(3.7)	17.5(3.3)	18.4(3.4)	-1.6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흡수원)	-37.2	-33.4	-31.5	-32.3	-36.3	-0.3
순배출량	497.1	541.2	562.4	570.3	583.7	2.3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 4) 병충해 발생

- 경남의 병해충 발생면적의 연평균 증감율은 -10.73%로 2009년 현재 37,684ha 임
- 전반적으로 병해충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해안에 위치한 지역(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의 경우 병해충 발생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안지역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표 3-7-60〉 병해충 발생 면적(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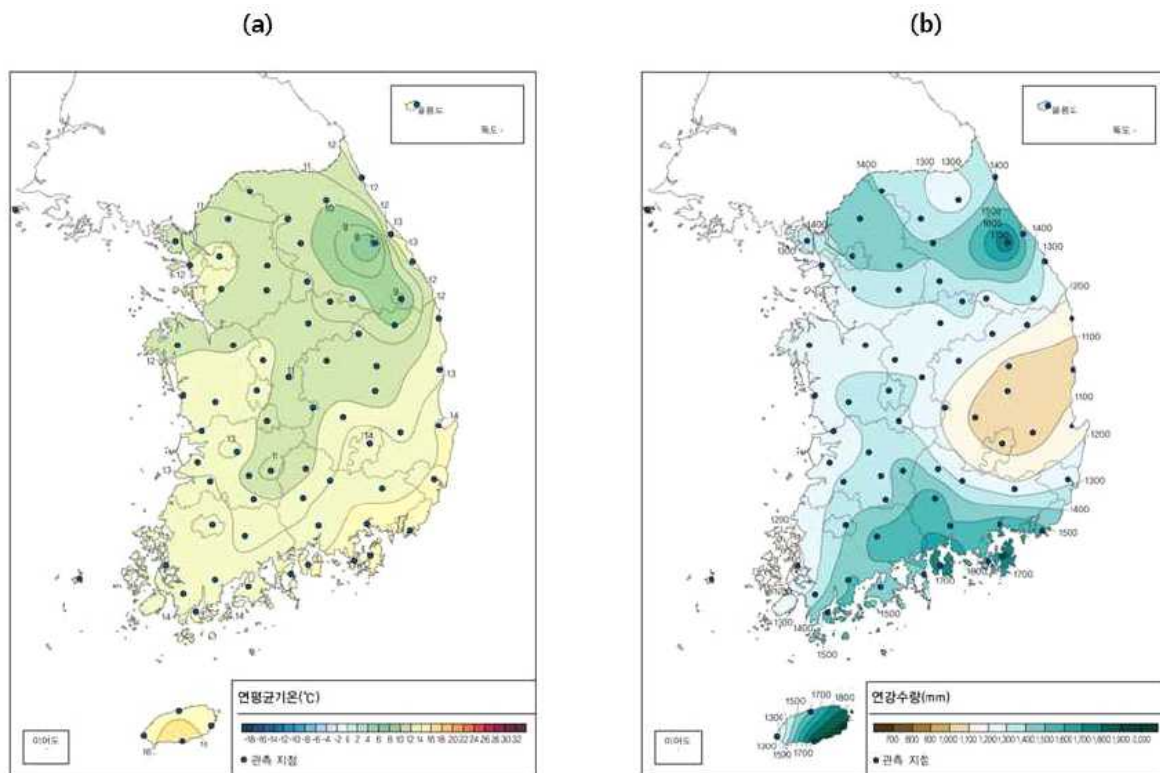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율
경상남도	59,337	74,438	67,567	46,132	37,684	-10.73
창원시	498	2,119	1,625	1,828	2,583	50.91
진주시	7,787	5,396	3,959	3,703	2,773	-22.75
통영시	210	14,652	13,213	4,996	3,500	102.05
사천시	2,211	9,280	7,685	6,487	4,113	16.79
김해시	119	291	800	196	185	11.66
밀양시	2,143	1,250	1,856	1,166	956	-18.27
거제시	594	3,727	5,464	4,033	4,077	61.86
양산시	889	1,070	680	239	177	-33.20
의령군	2,021	1,060	831	727	271	-39.49
함안군	1,070	870	720	301	242	-31.04
창녕군	61	10	320	3	14	-30.79
고성군	3,197	9,426	9,096	5,110	3,154	-0.34
남해군	423	1,610	1,534	772	1,435	35.72
하동군	10,680	5,267	6,256	4,195	5,249	-16.27
산청군	10,261	6,100	4,987	2,176	1,519	-37.97
함양군	5,412	3,050	2,791	2,620	2,061	-21.44
거창군	3,531	2,090	1,510	1,640	1,245	-22.94
합천군	8,230	7,170	4,240	5,940	4,130	-15.83

자료 : 경남 통계연보.

## 2. 여건변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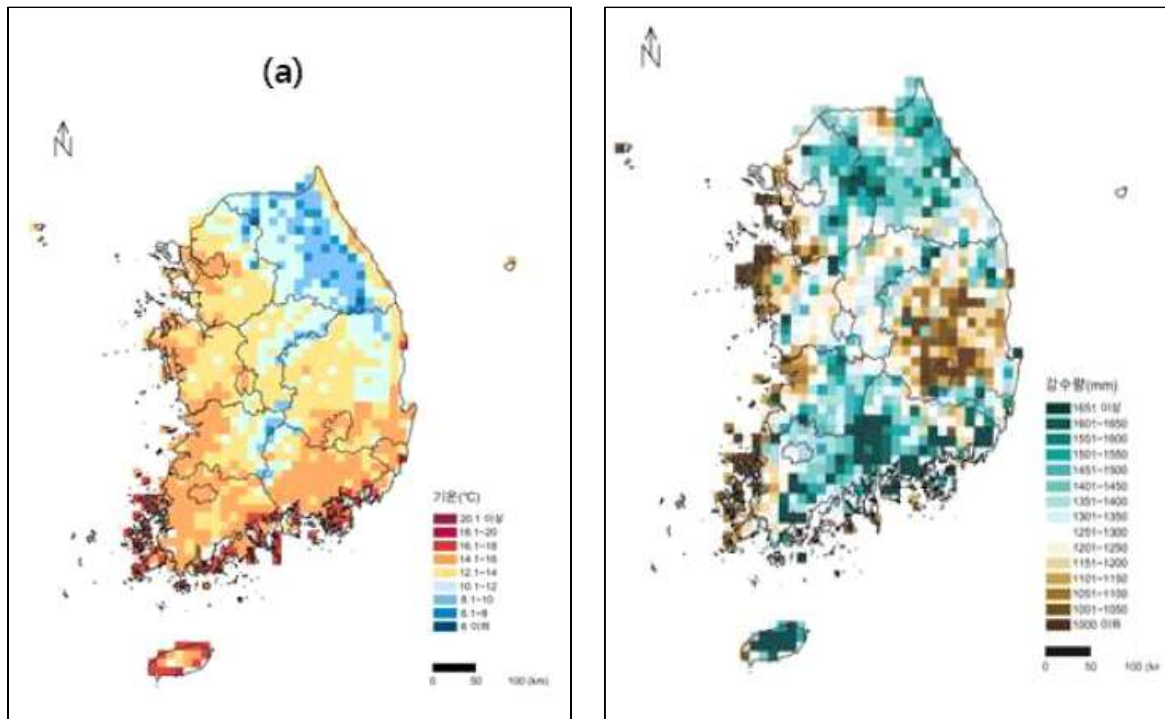
### 1)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 IPCC 4차 보고서(2007)에 따르면 1980 - 1999년 지구의 연간 평균온도 대비 기온이 1℃ 상승하는 경우 양서류의 멸종과 산호의 백화현상이 증가, 1.5 - 2.5℃ 상승하는 경우 약 20 - 30%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멸종 등 상당한 생태계 피해 발생 전망
-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 일부지역은 2011 - 2040년에 아열대 기후로, 2041 - 2070년에는 남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sup>27)</sup>
- 온대성 생태계인 한반도가 아열대성 생태계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와 가뭄 및 홍수의 증가 등이 예상됨
- 농촌에서도 농업기후자원이나 농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품종과 재배양식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그림 3-7-20〉 한반도 1981 - 2010년 연평균 기온(a), 연강수량(b)

27) 대한민국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앞 '위기',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2011.11).



〈그림 3-7-21〉 한반도 2011 - 2040년 연평균 기온(왼), 연강수량(우) 전망

## 2) 도시화와 난개발

- 토지면적은 증가 및 유지되는 가운데, 경지면적과 임야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경남의 녹색경관이 축소되고 있음
- 녹색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 증가와 주5일제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자연휴양림의 관광객이 연평균 10.58%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색경관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요구됨

## 3) 환경오염

- 병충해 방지와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화학살충제 및 비료 살포, 농기계 사용, 영농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전 분야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함
- 적조예방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평가, 적조 사전예찰 및 방재 강화
  - 제15차 국제적조회의 개최, 국가간 공조체계 마련

## 4) 농촌관광객 증가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농어촌과 연계시킨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국 기준에서 농촌관광객은 2002년 1,042천명에서 2005년 7,99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이이며, 자연휴양림의 이용현황 또한 2001년 3,818천명에서 2010년 9,437천명으로 연평균 10.58%씩 증가함

〈표 3-7-61〉 농촌관광객(단위: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18,350	1,042,273	3,463,377	6,670,173	7,997,683
녹색농촌체험마을	-	157,500	295,400	626,500	1,037,700
농촌전통테마마을	-	12,581	55,780	133,091	259,796
어촌체험마을	172,000	414,000	2,525,000	5,030,000	5,445,000
아름마을	44,555	208,192	227,130	260,582	316,444
팜스테이마을	101,795	250,000	360,067	620,000	938,743

주 : 1) 팜스테이 마을은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 과 같은 정부 지원 관광마을과 중복 되는 경우가 있음

2) 각 부처 또는 담당기관에서 집계한 자료로서 공식 통계자료는 아님

자료 : 농촌관광: 산업화를 위한 과제, 박시현·김용렬·최경은.

〈표 3-7-62〉 자연휴양림 이용현황(단위: 천명, 백만원, %)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율
이용자수	3,818	4,076	4,345	4,809	5,023	5,775	6,264	7,627	8,691	9,437	10.58
수입액	10,629	11,927	14,094	15,436	16,650	18,613	21,439	26,907	27,216	31,652	12.89

자료 : 임업통계연보(2011)

- 농촌관광객의 증가는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도시 및 상업적 문화가 농촌에 유입됨에 따라 농촌문화의 고유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치(쉼터)

- 농산어촌 고유의 전통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여 지역의 새로운 경관자원으로 경쟁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추진을 통해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

#### 1) 농산어촌 경관 보존 및 관리

- 경관부락 건설과 농업 및 산림 경관 보존지구 건립을 통한 녹색 경관 보호

- 농어촌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어메니티 지도 작성과 육성방안 마련
- 테마가 있는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경남의 특성화 산업
- 계곡 및 마을 진입로 이동시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해역위생관리 지원

## 2) 농산어촌 자원 보존·관리체계 구축

- 농산어촌의 유희화 된 시설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수립
-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지사용 종합계획 수립
- 도시화와 주위 여건 변화 등으로 농산어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
- 아열대로의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
  -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작물의 단계적 전환
  - 새롭게 발생할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 3) 농산어촌 관광경쟁력 강화

- 여항개발사업 확대 정비와 연안보전 및 개선 정비사업 추진
- 마리나항만 육성
- 어촌어항 관광단지 및 연안 여가휴양 시설 조성

## 4) 지속적인 도·농 교류 활동지원

- 도시성과 농촌성 공존을 위한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계획 수립
- 증가하는 농산어촌 관광객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과 만족도 개선 방안 마련
  -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 농산어촌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
  - 그린투어리즘 전문인력 육성
  - 농산어촌 정비법 개정 등 대응제도 정비
- NGO와 농촌주민조직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농촌 활성화와 보존 방안 모색
- 농촌(산촌) 유학을 활용한 도·농교류의 활성화
  - 아토피, 따돌림 등 아동들의 심신치료 수단으로서 농촌(산촌) 유학 활용
-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체류형 쉼터의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 개발
- 예술인 및 파워블로거들의 농촌지역 유치 전략 수립

-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 체험시설관 건립으로 자연학습과 체험교육의 장 마련

## 5) 아열대성 신종 적조생물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새로운 유독 적조생물(피스테리아, 감비아디스커스) 출현으로 어류대량폐사 및 인체피해 발생
  - 국제기구(IAEA, GEOHAB)에서는 최근 어독성 적조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프로젝트 강화
- ※ IAEA(국제원자력기구), GEOHAB(국제적조연구분과)
- 신종 적조생물 대응 기반연구 수행 및 지원
  - 적조생물 모니터링 강화, 독성진단, 탐색기술개발, 피해예방 대응대책
  - 아열대성 유해·유독 적조생물 출현 및 분포상황 조사, 순수분리 및 독성생리파악, 유전형질 분석 및 비교(국내산, 외래산)
  - 신종 유독 적조생물의 구제물질개발비 지원 등 피해예방대책 적극 추진

## 6)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사전예방 중심으로 관리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 강, 하천 등 육상 기인 해양유입쓰레기 차단
  - 친환경 부표, 생분해성 어구 등 해상기인 쓰레기 최소화
  - 육상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통합적 운영
  - 연안 표착 및 침적·부유 쓰레기 수거·처리
  -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로 폐기물의 자원화
  - 도 어장정화선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 민관산학협업체 구성·운영
  - 시민 자율 참여를 통한 해양정화활동 전개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제2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해역 확대

## 제8장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

제1절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제2절 지역환경의 보전

제3절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역경관의 형성

제4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 제8장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

### 제1절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현황

###### 온난화

- 세계적으로 온난화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1995~2006년 기간 중 11번이 1850년 이래 전 지구 표면기온의 측기기록에서 가장 더웠던 해에 속하며, 1906~2005년 지구 평균기온의 선형추세는 100년간  $0.74(0.56\sim0.92)^{\circ}\text{C}$ 로 제3차 평가보고서(Third Assessment Report, TAR)의 해당 추세인  $0.6(0.4\sim0.8)^{\circ}\text{C}$ (1901~2000년)보다 높았음
- 이러한 기온상승은 지구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육지가 해양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관측자료에 근거한 20세기 평균기온의 추세는  $+1.5^{\circ}\text{C}$ 로 지구적인 온난화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에 비해 20세기 후반에는 온난하고 강수가 많은 특성을 보임. 강수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자연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경남은 최근 높은 기온 상승률과 함께 전국 기온의 평균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산화탄소 배출

- 최근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IWR)는 2008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4% 늘어난 315억톤으로 발표한 바 있음.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인디아, 일본, 독일, 한국(7위), 캐나다,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년 연속 증가한 것은 교토의정서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감축하자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5,000억유로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음
-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CO<sub>2</sub> 배출량이 5억 9,000만톤으로 세계 7위에 오르는 등 배출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1990년 2억 5,700만톤 대비 136% 증가해 세계 평균 증가율 +39%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 에너지 소비

- 국내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LNG, 원자력 등 고급 청정에너지의 소비점유율은 증가하고, 석유소비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저소비산업의 비중확대로 산업부문의 소비비중이 안정화 되었으나, 최근에는 석유화학·철강 등 소재산업의 호황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강화되면서 최종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
- 국내 200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2.4% 정도이며, 수력과 폐기물을 제외하면 0.2% 수준으로 국제수준(0.5%)에 비해 낮은 편임. 수력과 폐기물을 포함할 경우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7%(34억 7,700만toe) 정도이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최근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억제,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위기감과 유가급등 등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 등 에너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표 3-8-1〉 에너지 수급현황(단위 : 백만TO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1차에너지	계	228.6	233.4	236.5	239.8
	석탄	54.8	56.7	59.7	66.1
	석유	101.5	101.8	105.5	100.2
	LNG	30.4	32	34.7	34.5
	원자력	36.7	37.2	30.7	32.4
	기타	5.3	5.7	5.9	6.6
최종에너지	계	170.9	173.6	181.4	182.9
	산업부문	94.4	97.2	104.3	106.8
	수송부문	35.6	36.5	37.1	35.3
	가정·상업	36.9	36	35.9	36.7
	공공·기타	4.1	3.8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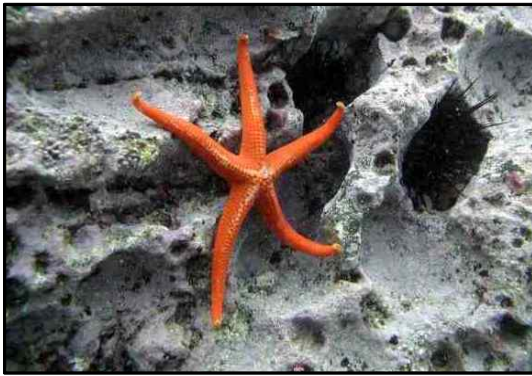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09.

## 2) 문제점 및 과제

### (1) 기후변화

- 산림분야에서의 피해를 보면 지난 10년간 경남의 전체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임상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침엽수림의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활엽수림과 혼효림의 면적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분야에서는 한반도 해역의 해수온상승과 이산화탄소 유입량의 증가로 우리나라 해역이 아열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얕이 넓은 해조류 보다 석회질의 무절산호류가 서식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해수 중 이산화탄소의 높은 용존율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절산호류의 성장을 가속화 시켰다고 보고 있음



〈그림 3-8-1〉 제주도 연안 백화현상  
(출처: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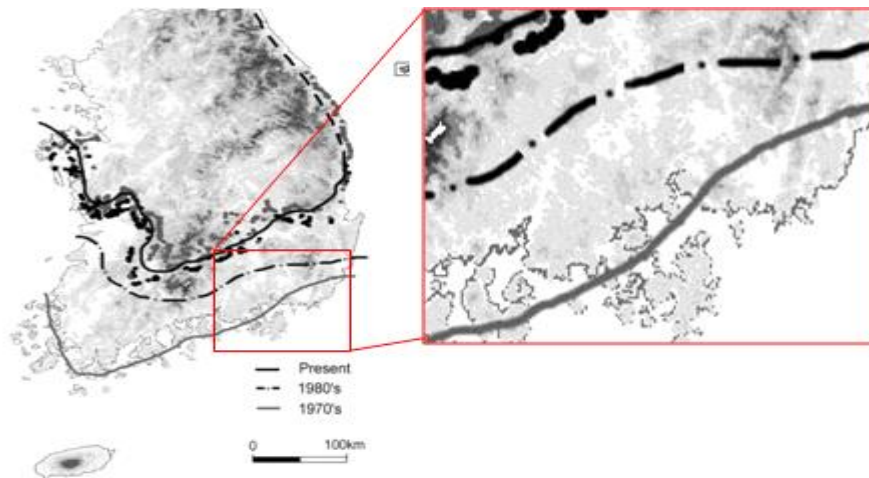
〈그림 3-8-2〉 거제도 연안 백화현상

- 재난재해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발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음

〈표 3-8-2〉 태풍과 호우로 인한 경상남도의 피해

재해	이재민	피해	인명피해	특징
태풍 무이파 2011.8.7~8	30명	103억원 (하동군)	6명	강우량 213mm, 농경지 8천ha 침수.
태풍 에위니아 2010.9.5~7	1757명	366억 9100만원	7명	도로·교량 20곳, 산사태 50곳 피해
태풍 메기 2004.8	-	443억원	2명	강우량 300mm
태풍 매미 2003.9.18	3만 7,800여명	2조 2,367억	58명	농경지 300ha침수
태풍 루사 2002.8.31	2천700여명	751억원	30명	농경지 1만 1천ha 침수 혹은 유실
태풍 라마순 2002.7.7~8	10명	30억 3800만원	6명	강우량 300mm
호우 2011.7.10	171명	135억 4900만원 (하동군)	6명	농경지 8,395ha가 침수

- 농업분야에서는 마늘 생산지가 점차 변화되고 있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계선을 통해 살펴보면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의 재배 경계선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



〈그림 3-8-3〉 한지형마늘과 난지형마늘의 재배경계선의 변화

## (2) 에너지

-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지자체별 에너지연소 및 산업공정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배출기준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남(11.3%)은 충남(15.7%), 전남(12.7%), 경기(12.0%)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3〉 경남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100만 tCO<sub>2</sub>)

		에너지	산업공정	합계	비중	순위
전국		492.7	64.8	557.5	100%	-
경남	배출기준	61.6	1.24	62.8	11.3%	4
	소비기준	25.9	1.24	27.1	4.9%	9

- 경남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전국 평균 11.6tCO<sub>2</sub>) 또한 20.2tCO<sub>2</sub>로 울산(45.6tCO<sub>2</sub>), 충남(45.4tCO<sub>2</sub>), 전남(38.3tCO<sub>2</sub>)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 배출기준 에너지연소부문에서 경남이 발전부문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8.0%로 충남(38.8%)과 인천(11.7%)과 함께 국내 발전부문 배출량이 집중되어 있음

〈표 3-8-4〉 경남 에너지 이용 현황

	합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및 기타
경남	17,416 (전국 대비 7.4%소비)	12,047 (69.2%)	4,117 (23.6%)	936 (5.4%)	146 (0.8%)	-	170 (1.0%)

- 지식경제부의 2008지역에너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남의 에너지원별 소비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전국 에너지 사용량의 약 7.4%를 소비하고 있음.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사용 비중이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1%에 못 미치며, 전국 평균 2%를 하회하고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은 전국에너지 보급량의 약 6.7%, 풍력은 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3-8-5〉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태양광(kW)	태양열(m <sup>2</sup> )	지열(RT)	풍력(kW)
전 국	85,058	82,946	18,561	33,105
경남도	5,723	9,947.8	2,887.6	20
(%)	(6.7%)	(13.9%)	(15.5%)	(0.06%)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 '경상남도 녹색산업화 기반구축전략(안)' .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총배출량 538백만톤CO<sub>2</sub>로 세계 16위(전세계 배출량 433억톤 CO<sub>2</sub>의 1.2%) 수준에 있음
  - 2005년도 에너지부문 CO<sub>2</sub> 배출량은 세계 10위(449백만톤CO<sub>2</sub>)이며, 1인당 배출량은 11.1톤CO<sub>2</sub>로 OECD 국가중 17위(IEA 발표통계기준)인 온실가스 다배출국임
- 1993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후변화협약 가입하고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 확보로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음
- 또한, 코펜하겐 합의문 작성을 위한 비공식협회 28개국의 하나로 초청되어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주도국 지위를 마련하였음
- 코펜하겐 총회 기초연설을 통하여 'Me First' 정신을 전파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국으로 부각되었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발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받았음.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NAMA registry 제도를 Post-2012 기후체제에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2001년 9월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설치하고, 총리실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무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음
- 특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제를 마련하였으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 통합하여 녹

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2009년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을 BAU 감축수단과 비용을 고려한 추가 감축여력(감축잠재량)분석결과와 국제사회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 3가지를 발표한 바 있음

##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1) 기후변화

-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은 크게 대응과 적응으로 구분됨.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일컬으며 감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방안을 말함
- 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향후 최소 30-40년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의 가속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향후 “적응”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4차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신국가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 실천과제를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5개년, 2008년~2012년)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4)」 시행에 따라 2010년 10월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1년부터는 국가대책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동계획인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안전사회 구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7개 분야의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고, 적응기반 대책을 위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부문의 대책 강구
  - 건강분야 : 폭염·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
  - 재난/재해분야 : 방재·사회기반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 농업분야 : 기후 친화형 농업생산체계로의 전환
  - 산림분야 : 산림 건강성 향상 및 산림재해 저감
  - 해양/수산업 분야 : 안정적 수산식량지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물관리 분야 :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
  - 생태계 분야 : 보호·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방안 마련

## (2) 녹색성장

- 2009년 1월,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의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합쳐서 친환경적이고 잠재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녹색뉴딜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전체 36개 사업(핵심 9, 연계 27)을 선정하고, 4년간(20'09~2012) 50조를 투자하여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채택함
-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4대 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담 건설,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의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함
- 또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창출자로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
-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였음

〈표 3-8-6〉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분야별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기초·원천기술 확보,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함
- 이는 소관 부처가 제시한 중점육성 후보군 기술 분야(중소분류 기준)에 대해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적극적 투자확대군, 평균적 투자확대군, 소극적 투자확대군 등)하고, 전문가 평가결과 및 부처제시 우선순위, 영역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녹색기술위원회에서 후보군 기술(75개) 중 27개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위한 중점기술을 선정한 것임
- 또한 2009년 7월 기존의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의 목표 및 부처별 재정 투자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통합 조정하여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음. ‘녹색

성장 5개년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차별화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함.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임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 혁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 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의 10대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함
- 국가차원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도 BAU(Business As Usual)대비 30% 감축을 법령으로 규정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부터 발효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구현에 협력할 의무(법안 제3조 제9호),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법안 제20조), 녹색성장위원회가 요청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응할 의무(법안 제19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안 제20조), 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 의무(법안 제31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의무(법안 제49조)에서 규정되어 있음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녹색경남

-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녹색경주(Green Race)’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지식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 지방화, 분권화의 추진으로 환경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에 있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의 연계 및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녹색경남을 향후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 2) 추진전략

-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녹색경남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인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② 기후친화 녹색산업 육성, ③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의 녹색혁명 등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함



##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1.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2. 기후친화 녹색산업 육성
3.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녹색혁명

〈그림 3-8-4〉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 첫째, 지역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함. 최근 경상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도 차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운 바 있음.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입장과 사전예방 개념의 단계별 추진 정책, 중점사업 등을 시행해 나감
- 둘째,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및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함. 녹색 성장을 고려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경남도가 적극 추진 중인 4대 전략산업(메카트로닉스 산업, 사업용 로봇산업, 지능형 홈산업, 바이오산업)과 2대 유망 첨단산업(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
- 또한 경남형 10대 GT사업과 같은 주력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경남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경남의 녹색산업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연구원·대학·기업체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기술생산능력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창원과학연구단지 내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및 수소에너지 핵심센터 설치 등 녹색산업화를 위한 거점 육성
- 셋째, 생활 속의 녹색혁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함. 교통·물류 등 사회기반 인프라의 녹색화를 촉진해 나가고, 녹색경남 만들기, 관광자원화, 포스트 랍사르 전략적 추진, 생활의 녹색혁명 범도민 실천운동,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공공부문 선도 등 다양한 차원의 녹색혁명 실천 추진
  - 저탄소 및 탄소제로(Carbon-Zero) 물류체계를 위한 근본적인 녹색교통·물류체계의 확립과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저탄소 녹색제품 의무구매,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
  - 녹색소비 확산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문화 보편화 및 녹색도시·녹색마을의 선도적 추진 및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보급 확산
  - 2008년 랍사르총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구축된 환경 경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화하며 환경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로 이미지 강화

### 3) 추진시책

#### (1) 에너지 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 ■ 경상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와 배출량 산정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경상남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인벤토리 구축 추진

##### ■ 저탄소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

- 조사료, 가축분뇨 관련 주요 핵심기술 현장 연사회 개최, 온실가스 저감 축산농가 현장 기술교육, 컨설팅 강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확산하고, 연구기관, 대학, 사료업체를 연계하여 가축 사양기술 공동연구 등 추진

##### ■ 탄소흡수원 확충

- 연안수역 갯녹음(백화현상) 확산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규모 바다 목장, 해중립조성, 연안 바다숲 가꾸기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어업생산성 향상 및 탄소 흡수원 확충 가축유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저감 추진
- 녹색숲 가꾸기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및 에너지 자원 활용 제고

##### ■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확산

- 고유가 시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건설과 연계하여 태양광열, 지열, 풍력 등 그린 홈 10만호 보급사업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산·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 ■ 공공부문 LED 조명 교체

- 경제성을 위하여 단계적 재정지출 효과가 있고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건물부문 고효율조명 교체 사업 지속 실시

##### ■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및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 풍력·소수력·조력 타당성 조사,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 군민 주주형 에너지 주식회사 설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확대,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사업 등 추진
- 바이오 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 추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폐기물 전처리(연료화)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여열회수 사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 추진

##### ■ 생명환경농업 전략적 육성

- 생명환경농업 육성, 식량작물 탄소 저감형 생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 초생력

무농점과기술 보급, 녹색농촌 전통기술 자원화 및 체험활동 활성화, 친환경 토양관리기술 연구, ATEC 저탄소 녹색농업 시범교육장 운영 등 생명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사업 추진

####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하수처리수 재이용, 레인시티 조성, water pocket 설치, 시설원에 순환식 수막시스템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형 수자원 관리사업 추진

### (2)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산업발전계획과 연계

#### ■ 경남형 10대 GT 선정 및 육성

- 경남형 GT 개발을 통해 예측기술,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후처리 기술, 무공해 산업경제 활동을 주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 해결
  - 해상 풍력발전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기술, Smart ship기술
  - 해상/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ZEF(Zero Emission Factory) 기술 개발
  -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기술, 태양전지 및 제조장비 기술
  - 수소 제조저장 및 이용 기술 개발,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기술

#### ■ 녹색성장 산업환경 조성

-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금융 지원 및 보증 확대, 녹색경영 컨설팅, 그린에너지 산업 교류회 지원,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 녹색산업 발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 신재생에너지 성능 평가센터 설립, 경남 자전거 특화센터 건립, 그린 컨벤션센터 운영, 경남 녹색 과학대전 개최 등
-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 등 추진

#### ■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로봇부품밸리 기반조성 및 최첨단 로봇기술개발, 지능형 홈 핵심기술 전략사업화 지원, 지능형 홈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친환경 그린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추진
- 광역경제권 연계 녹색산업 벨트 조성을 위해 나노세라믹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저탄소 항만기술연구센터 설립, 스마트홈용 연료감응 태양전지 개발사업 등 추진

### (3)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 : 교통·물류계획과 연계

#### ■ 선진 녹색교통 및 물류망 확보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광역환승체계 시스템 구축, 광역 BIS 구축 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 인간친화적인 시범생태도로 건설, 인

간중심 지방도 개선, 저탄소 녹색항만 구축, 녹색 도시철도망 확충 등 추진

#### ■ 생활속의 녹색혁명 실천 및 녹색경남 만들기

- 생활의 녹색혁명 범도민 실천운동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미래를 여는 여성 Green Life 실천단 활성화 사업 등 추진
-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책추진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도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전대비, 피해 축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과 함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온라인 뉴스레터 이용, 기후변화홍보 포털사이트, 세미나 및 포럼개최 등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도시 조성, 주남저수지 탄소제로 마을 조성, 탄소제로 섬 통영에코아일랜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등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공공부문 선도를 위해 녹색성장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형 소방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 운영, Green 소방자동차 구입 보급, 그린에너지 시설 설치 등 추진

## 제2절 지역환경의 보전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대기

##### (1) 현황

- 경남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수출 중심의 국가성장 개발정책에 의해 환경자원의 소모적 이용을 동반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환경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음. 범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선결과제는 지역환경의 문제해결에서 출발함
- 경남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사업장 등 대기배출원이 밀집한 산업단지와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남해안 연안 지역에 위치하여 대기확산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타 시·도에 비해 쾌적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편임
- 또한 대기오염도는 저황유, LNG 등 청정연료 공급확대 정책,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CNG 자동차보급 등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는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산화질소 및 오존오염도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을 밑돌고 있음

〈표 3-8-7〉 대기배출업소의 종별 사업장수(2010년 경상남도)

연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0	3,805	28	66	86	538	3,087
2001	4,001	28	59	84	566	3,264
2002	4,910	49	122	128	728	3,883
2003	4,952	48	121	129	735	3,919
2004	4,438	91	182	241	1,369	2,555
2005	4,412	92	200	269	1,535	2,316
2006	4,221	91	196	264	1,545	2,125
2007	4,490	94	204	266	1,593	2,333
2008	4,680	99	204	270	1,627	2,480
2009	4,784	116	195	280	1,656	2,537
2010	4,877	118	192	266	1,702	2,599

- 도내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09년 말 현재 4,784개소로서 2003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대기배출업소 종별현황을 보면 1종, 2종, 3종, 4종 사업장은 증가하였음

## (2) 문제점 및 과제

- 경남지역 5개 시·군 17개 측정소의 대기환경기준 측정항목(SO<sub>2</sub>, NO<sub>2</sub>, O<sub>3</sub>, CO, PM-10) 측정결과, 조사대상 중 SO<sub>2</sub>, NO<sub>2</sub>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농도가 국가대기 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 PM10은 2005년과 2006년에 대기환경 연평균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3년 동안은 연평균 환경기준 이하로 계속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8시간 평균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인 CO의 경우는 200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sub>3</sub>의 연평균농도는 2009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10년 감소하였음

〈표 3-8-8〉 연도별 대기오염도

	SO <sub>2</sub> (ppm)	NO <sub>2</sub> (ppm)	CO (ppm)	O <sub>3</sub> (ppm)	PM10 ( $\mu\text{g}/\text{m}^3$ )
2005년	0.005	0.017	0.6	0.023	58
2006년	0.005	0.020	0.5	0.026	51
2007년	0.005	0.020	0.4	0.026	48
2008년	0.005	0.019	0.4	0.027	48
2009년	0.004	0.021	0.4	0.027	47
2010년	0.004	0.019	0.4	0.025	46
환경기준 대비농도수준	20%	67%	—	—	92%
환경기준	0.02 (연평균)	0.03 (연평균)	9 (8시간 평균)	0.06 (8시간 평균)	50 (연평균)

- 종합하면, 경남은 1차 오염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감소로 대기질은 개선되었으나 도내 산업단지, 자동차의 증가로 다른 도에 비해 2차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새롭게 대두됨
- 또한, 광역지자체 가운데 산림과 주거, 공업단지가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김해, 하동과 같이 대기오염 규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 늘어날 수 있음.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상시 측정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2) 토양

### (1) 현황

- 토양은 생물부양기능 외 오염물질의 정화 등 다양한 환경기능을 갖는 중요한 환경자원이나, 최근 각종 유류 유출사고, 유독물저장 시설의 관리부실 등으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 경남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점은 꾸준히 1~5개 지점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금속광산 지역의 납, 구리, 카드뮴이 많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공장용지, 폐기물적치·매립·소각 지역, 기타 토지개발지역 등 개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정화조치를 취하고 있음

- 경남지역의 2009년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토양) 결과, 7개 조사대상 광산 중 7개 광산 모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포함)을 초과하고 있으며, 3개 광산에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전체 426개의 시료 중에서 우려기준 초과시료(대책기준 초과 포함)는 총 65개 시료(15.3%)이며, 이 중 대책기준 초과시료는 11개(2.6%)임
- 토지용도별 우려기준(대책기준)을 초과한 순위는 답 > 전 > 임 > 기타 이며, 초과항목을 살펴보면 아연(Zn) > 구리(Cu) > 납(Pb) > 비소(As) = 카드뮴(Cd) 순으로 나타났음
- 니켈(Ni), 수은(Hg), 시안(CN)과 크롬(Cr6+)은 모든 시료에서 토양오염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으며, 농경지(전, 답) 중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총 37개(전:9개, 답:28개)이며, 이 중 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7개(전:2개, 답:5개)로 나타났음
- 수로저질토에 대한 분석결과, 7개 광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포함)한 시료는 총 6개 시료(31.5%)이며, 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4개(21.1%)로 나타났음
- 전반적인 오염도는 미미한 수준이나, 유류 및 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양측정망 중 경상남도는 125개 지점이었으며,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음
  - 대부분이 우려기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으나, Pb는 공장용지에서 우려기준의 30%를 넘는 수치를 보임. Zn은 전, 공장용지, 도로, 하천부지 등에서 우려기준의 30%를 약간 초과하는 수치임. As, Hg, Pb, Zn의 평균 오염도는 전국보다 경남이 약간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경남 조사지역 대부분이 우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오염도가 나타났으나, 조사지역 중 기타 토지개발지역의 경우 Zn의 평균 오염도가 402.457mg/kg으로 우려기준인 300mg/kg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음

## (2) 문제점 및 과제

- 경남은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한 편에 속함. 측정망 운영 및 폐금속광산지역, 폐기물매립지,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단편적인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오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직 미흡하고, 토양자료의 D/B구축이 미흡하여 체계적 분석과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 또한, 토양오염실태 조사시 일부 동일지역에 대한 반복조사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매년 지점별 토양오염도 추이파악 및 오염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사고발생·민원유발 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지점 추가 발굴이 부족함. 폐금속광산, 고정·순환수렵장 및 클레이사격장 등 오염 우려지역의 조사대상이 누락되어 있음
- 토양 오염의 조사 및 정화에 집중된 정책으로 유한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보전하고 상승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체계를 정착시키고, 토양자원의 보전 및 순환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토양은 오염될 경우 막대한 정화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의한 국가 토양보전기본계획이 수립·확정(2009.10.13)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따라서 경남지역 특유의 환경오염특성을 연구·규명하고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3) 폐기물

#### (1) 현황

-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고, 폐기물의 성상은 각종 산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따라 변화함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관련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2009년 경상남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28,605.2톤/일이며, 생활계폐기물 3,300.8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0,316.6톤/일, 건설폐기물 14,285.5톤/일, 지정폐기물 702.3톤/일로 발생되었음

〈표 3-8-9〉 경남 종류별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톤/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생활계 폐기물	2,635.9	2,691.2	3,002.0	3,010.3	2,969.6	3,043.1	3,170.5	3,336.4	3,179.8	3,330.8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10,220.6	10,094.0	9,968.9	11,185.6	11,484.6	11,784.8	8,568.1	8,573.3	11,635.9	10,316.6
건설폐기물	3,768.2	5,673.9	6,487.4	8,345.4	9,746.7	9,158.8	10,046.9	12,434.8	12,409.3	14,285.5
지정폐기물	558.3	514.3	619.6	638.2	305.3	560.7	801.7	677.2	830.5	702.3
합계	17,183.0	18,973.4	20,077.9	23,179.5	24,506.2	24,547.4	22,587.2	25,021.7	28,055.5	28,605.2

자료 : 1. 2000~200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1~2010, 환경부

2. 2000~2009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1~2010, 환경부

- 종류별 분포 비율은 사업장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순으로 나타남

#### (2) 문제점 및 과제

- 산업발달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질이 다양화되고 있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필요함
-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자원절약이나 자율감량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등에 관한 자원이용 효율을 높여 폐기물이 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미흡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실천유도가 미흡함. 비닐봉투



판매가격이 대부분 500원 이하이므로 억제효과와 봉투 판매 수익의 소비자 환원이 미흡하며 판매업소만 이익을 본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어려움

- 또한 재활용율은 매년 증가하여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 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종량제봉투 투입 생활쓰레기 중 종이류와 나무류 등의 가연성분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잠재자원의 상당량이 매립·소각 등의 방법에 의해 버려지는 실정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을 통해 매립부지의 효율적 활용, 소각처리의 효율 제고 및 폐에너지원의 순환이용 모색이 필요함
-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활용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가동률의 제고, 폐기물 처리비의 최소화, 연계처리 방안 마련 등의 최적화를 추진해야 함

#### 4) 녹지 및 생태환경

##### ① 지역의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 경상남도는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생태·경관보전, 습지보호, 특정도서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또한, 경상남도 지역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10개의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지역(함양 백운산,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함안 여항산, 밀양 가지산, 거제 노자산, 거제 남단도서, 밀양 천황산, 진주 삼곡리, 남해 금산)이 있음

〈표 3-8-10〉 경상남도의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명칭	지정사항 (지정일)	지정사유	위 치	면적(㎡)	지정 권자
창녕군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 '99. 8. 9)	최대규모 자연늪	창녕군 대합, 이방, 유어, 대지면 일대	8,540,000	환경부 장관
거제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 '95. 10. 2)	고란초집단 서식지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144-3	2,017	도지사
양산시 화엄늪	습지보호지역 ( '02. 2. 1)	산지습지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	124,384	환경부 장관
양산시 신불산 고산습지	습지보호지역 ( '04. 2. 20)	산지습지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 일원	307,551	환경부 장관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습지보호지역 ( '06. 12. 28)	산지습지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일원	580,000	환경부 장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특정도서 ( '04. 1. 7)	생태우수 도서	-창원시 : 곰섬 -통영시 : 홍도, 어유도, 소지도, 좌사리 도, 외부지도, 소매물도 일부, 막도 -사천시 : 솔섬, 학섬, 우무섬, 향기도 -거제시 :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고성군 : 상비사도, 하비사도, 윗대호섬, 문래섬 남해군 : 세존도, 소치도, 목도, 사도, 죽암 도, 고도, 마안도, 상장도, 소목과도 하동군 : 채도, 약도, 혈도, 마도, 소마 도, 오동도, 장도, 토도, 소첨도	1,365,464	환경부 장관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2010)

## ② 주요 녹지축 현황

### ■ 남북방향(C자형)의 강력한 산악녹지

- 수려한 경남 서부지역의 국립공원과 동부지역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산악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야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과 남해의 금산으로 이어지는 C자형의 축으로 자연녹지를 보유하고 있음.
- 동부 산악녹지축은 경남의 동북부 산악지역에서 가지산 도립공원을 거쳐 경남 동부의 녹지축으로 역 C자형을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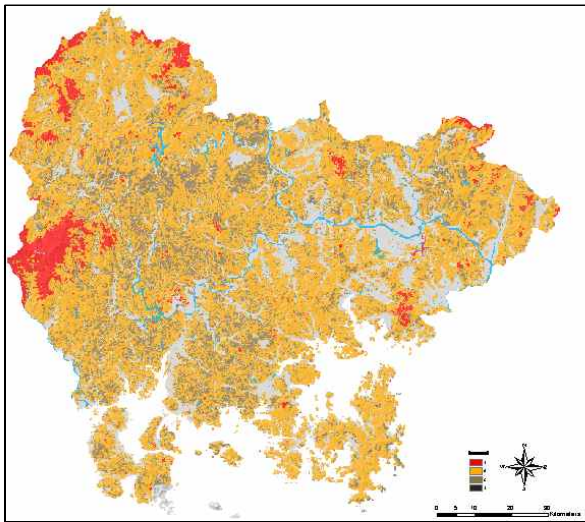
### ■ 하천녹지

- 하천은 경상남도 수계의 주요 축인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황강, 남강, 밀양강, 양산천과 섬진강으로 구성되며 하천부지는 23㎢이고, 하천 782개소(55%), 소하천 3,028개소(45%)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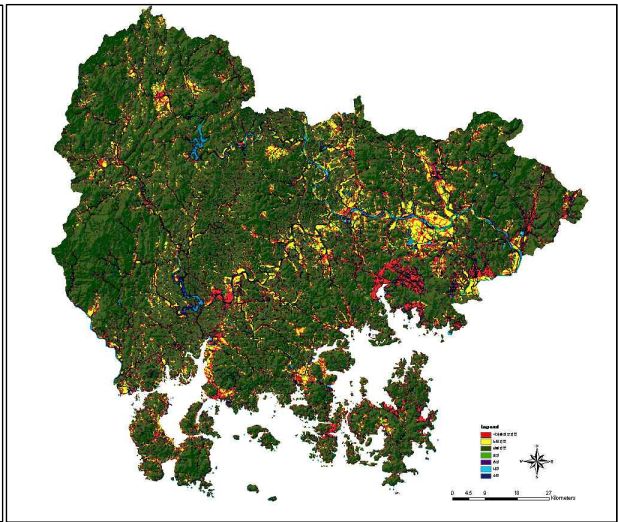
### ■ 해안녹지

- 경상남도 해안선의 길이는 2,134km로 전국 해안선의 18.5%를 차지하고, 자란~사랑해역, 통역~산양해역, 거제~한산만 등 수질이 깨끗한 남해안 15,862ha가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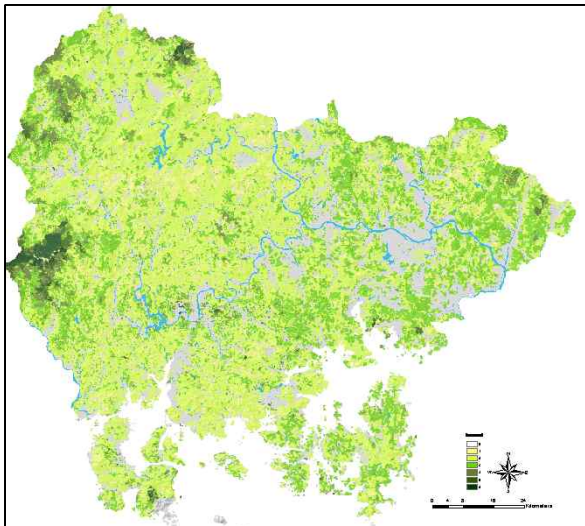
### ③ 환경 및 생태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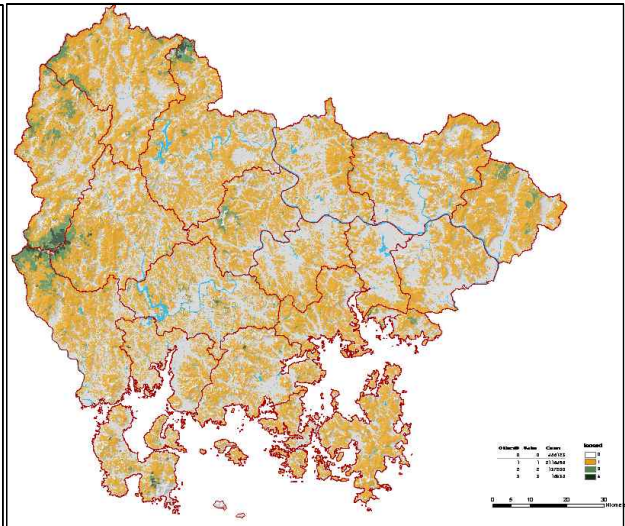
〈그림 3-8-5〉 생태자연도



〈그림 3-8-6〉 토지피복대분류



〈그림 3-8-7〉 산림식생영급



〈그림 3-8-8〉 산림식생경급

### ■ 환경성-생태자연도

- 경상남도 지역의 생태자연도는 1등급이 전체의 8.29%, 2등급이 76.74%, 3등급이 14.97%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전을 원칙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함

### ■ 환경성-토지피복대분류

- 토지피복분류도상 산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64.77%, 농업지역이 24.61%로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의 토지피복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전체 면적의 5.09%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화 건조지역은 대체로 진주시와 마산시, 창원시에 밀집되어 있음

#### ■ 환경성-산림식생영급

- 식생영급 2급지가 전체 분석 대상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3급지가 27.66%를 점유하고 있음

#### ■ 환경성-산림식생경급

- 1경급은 77.62%를 차지하며 3경급과 4경급은 서부 산악지역에 0.62%를 차지함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대기

#### ■ 지역 차원의 대응 노력

- 1970년 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국내 대기오염은 1980년 이후,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그 동안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대기오염 실태 파악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0개 종류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먼지, 오존 등 대기환경 기준항목을 측정하고 있음
- 경상남도에서는 1996년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제정, 1997년 경상남도 환경현장 제정·선포, 녹색경남21 실행계획 발표 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환경분야의 계획으로는 1999년 경상남도 환경기본계획 수립, 2004년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마련한 바 있음
- 또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뉴경남 환경 로드맵을 수립하여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산업, 문화·관광, 농·어업 등 타 분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적인 실천사업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김해, 하동)수립,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저황유 및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확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 ■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중앙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도 주요 정책목표임
-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등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표 3-8-11〉 대기환경기준(2009. 7. 7 개정 시행)

항 목	기준
아황산가스(SO <sub>2</sub> )	- 연간 평균치 : 0.02 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 0.05 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5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 8시간 평균치 : 9 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25 ppm 이하
이산화질소(NO <sub>2</sub> )	- 연간 평균치 : 0.03 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 0.06 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0 ppm 이하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 50 $\mu\text{g}/\text{m}^3$ 이하 / 24시간 평균치 : 100 $\mu\text{g}/\text{m}^3$ 이하
오존(O <sub>3</sub> )	- 8시간 평균치 : 0.06 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 ppm 이하
납(Pb)	- 연간 평균치 : 0.5 $\mu\text{g}/\text{m}^3$ 이하
벤젠	- 연간 평균치 : 5 $\mu\text{g}/\text{m}^3$ 이하

주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mu\text{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1981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저황유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 개선이 미흡함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2010년 2월, 환경부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함. 대기환경보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대기오염옥외전광판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1년 8월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보조를 시행

## 2) 토양

### ■ 토양 환경정책의 변화

- 1970년까지 토양분야는 수질이나 폐기물, 자연환경 관련법에 포함되어 다른 환경매체의 일부분으로 관리되었음.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토양오염물질의 무분별한 배출, 체계적 관리부재

등으로 토양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그 동안 토양보전을 위한 적절한 고려없이 진행되어 온 국토개발 및 산업발전에 따른 다양한 토양오염물질 증가로 토양오염이 가중되어 왔음. 유류 등 에너지소비량 증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군부대 토양오염, 폐광산 및 산업단지 토양오염, 폐기물 발생량 증가, 유해화학물질 사용증대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심화되었음
- 특히, 토양오염의 조사 및 정화에 집중된 정책으로는 유한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보전하고 상승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정책은 부문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음. 토양오염 측정망 및 실태조사를 통한 토양오염현황 파악, 유류저장시설 등 오염원 관리정책, 휴·폐광산 조사 및 정화정책 등이 대표적임
  - 2001년 12월 토양오염물질을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1월 토양오염원인자 확대 및 책임강화,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가차원의 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를 통해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하는 등 토양보전에 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본 계획에서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건강한 토양환경 기반 조성”의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추진과제로 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정책 강화, 합리적 토양관리 기반 구축,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였음

## 3) 폐기물

### ■ 폐기물 환경정책의 변화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원·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보급 확충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폐기물분야의 에너지 회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
- 런던의정서 위반 폐기물 품목의 해양투기 금지(광물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등) 및 허용품목(하수오니)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육상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해외 폐기물 관리의 경우,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2%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OECD 환경각료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정책개발 및 환경분야 활동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까지의 10개년 환경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폐기물과 관련되는 주요 영역을 보면, 유해폐기물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불확실 또는 문제분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폐기물의 증가는 악화될 분야로 예견되고 있음

〈표 3-8-12〉 OECD 전략보고서에 제시되고 있는 환경전망

구 분	주요 영역
개선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이용</li> <li>- 주요 폐기오염물질 배출 감소</li> <li>- 오염하천-호수 수질 개선</li> <li>- 녹색구매, 유기농 및 보호구역 확대</li> </ul>
불확실 또는 문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li> <li>- 유해폐기물의 발생</li> <li>- 수산물 양식 및 산림녹화에 의한 영향</li> <li>- 생명공학기술 발달에 의한 영향</li> <li>- 에너지 사용 및 교통량 증가 영향 등</li> </ul>
악화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li> <li>- 자동차 주행거리 및 항공기 이용 증가</li> <li>- 대도시 대기질 악화에 의한 인체생태계 영향</li> <li>- 농업환경오염, 지하수오염, 어족자원 고갈 및 열대림 감소문제 등</li> </ul>

- 우리나라 전국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05년 295,723톤/일로 2004년 대비 2.6%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나,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여 359,296톤/일의 발생량을 보여 3년간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후 2009년에 다시 소폭 감소한 357,861톤/일을 나타내어 전년대비 0.4% 감소율을 나타내었음
-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일일 328,747톤이고, 전년대비 평균 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임

〈표 3-8-13〉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

구분	총계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 (톤/일)	전년대비 증감률(%)	발생량 (톤/일)	전년대비 증감률(%)	발생량 (톤/일)	전년대비 증감률(%)	발생량 (톤/일)	전년대비 증감률(%)
2004년	303,514	2.9	50,007	-1.4	105,019	6.2	148,489	2.1
2005년	295,723	-2.6	48,398	-3.2	112,419	7.0	134,906	-9.1
2006년	318,928	7.8	48,844	0.9	101,099	-10.1	169,985	25.3
2007년	337,158	5.7	50,346	3.1	114,807	13.6	172,005	1.9
2008년	359,296	6.6	52,072	3.4	130,777	13.9	176,447	2.6
2009년	357,861	-0.4	50,906	-2.2	123,604	-5.5	183,351	3.9
평균	329,747	3.3	50,096	0.1	114,621	4.2	164,031	4.4

자료 : 200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 환경부

- 2009년 폐기물 전체 발생량 중 생활폐기물은 50,906톤/일로 1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하루 평균 50,096톤이 발생하고 있음

#### ■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제4차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2008~2012)에서는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를 경제·사회 발전 계기로 전환하며, 기후변화를 환경과 경제의 상생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활용과 폐기물 자원화로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 폐기물까지 전 분야에 걸쳐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경제발전을 구현하고자 함
- 환경부는 2009년 1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음
  -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및 전용발전사업 추진(2008~2020) 추진
  - 매립처리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고형 연료제품으로 제조하여 열병합발전소, 제지회사, 시멘트 제조사 등에 공급하고 2012년까지 가용화(470만톤/년)의 39%, 2020년까지 100% 에너지화 추진
  - 2012년까지 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보일러/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을 확충 추진 등
-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전용발전 사업(2008~2020)도 추진 중에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활용
- 또한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까지 폐자원 고형연료-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용보일러 등 총 48개 시설(총 1만 4천톤/일)을 설치하여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각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조기 확충하고자 함.



또한 산업계 폐자원 및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촉진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함

-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에서는 환경보건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기조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여 수용체 중심으로 각종 매체의 통합관리와 조정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위해도를 저감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구제대책 마련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4) 녹지 및 생태환경

##### ■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산림생태계 규모의 감소

-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광역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림을 관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산림생태계 단절도 증가하는 추세임

##### ■ 생태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증대

- 야생동물 보호정책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서식지와 이동통로 등의 정비를 통한 서식환경 개선이 요구됨
- 도시 확장, 도로 건설, 산림 훼손 등 인간 위주의 토지이용에 의해 생태계 단절 증가와 서식·보유종의 개체수 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고 자연화를 최대화시킬 대책이 요구됨

##### ■ 체계적인 자연환경의 보전 및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에 의해 생태네트워크 구축, 연안생태축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남에서도 도 차원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이행사업 추진이 요구됨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의 주제도가 제작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 차원의 보다 정밀한 자연환경 및 생물서식지의 분포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 녹지축의 훼손 확산 및 녹지 네트워크의 중요성 증대

- 경남의 도시숲은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음. 위치적으로 단절되어 도시숲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있어, 기존의 도시숲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함
- 도시지역의 도시숲을 비롯한 농경지, 하천이나 습지, 해안 등의 녹지자원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생육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녹지자원이

서로 연결된 녹지네트워크는 녹지가 가진 기능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임.

###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체제로 전환

- 국토는 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강·산·해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국토관리의 효율성·합리성 제고
-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의 생태적 기반 형성
  - 녹색 국토관리네트워크는 핵심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연결녹지축, 연안·해양관리축으로 구분하여 각각 역할 및 관리방향, 공간영역을 설정

〈표 3-8-14〉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방안

구 분	개 념	역할 및 관리방향	공간영역
핵심생태축	한반도의 생태적 골간을 이루는 생태축으로 국가 생물자원의 보고이므로 후손을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생태축	중요 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하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과학연구 등 최소한의 활동만 허용	백두대간, 연안, 비무장지대
광역생태축	국토단위의 핵심생태축과 도시·연결생태축을 연결하는 생태축	지역단위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광역생태축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전할 지역인 핵심지역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허용하는 완충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주요 정맥
도시·연결 녹지축	도시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중요지역을 보전·복원하여 연결한 녹지축	도시지역의 녹지나 자연생태지역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연결된 생물서식 공간으로 도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동식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하며, 도시민에게 다양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은 허용	개발제한구역, 도시하천, 공원·녹지
연안·해양 관리축	연안과 해양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 및 주요 생태적 거점의 관리축	해양의 주요 서식지 평가 및 평가방안 마련, 연안 주요서식지 및 자원관리 우선순위 평가, 연안·해양 생태자원 및 생태축 지도화	연안, 해양공간

### 한반도 생태축 구축 추진

- 한반도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으나, 백두대간 등 3대 핵심생태축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인간 생활권 관련 보전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인간 생활권 연계대책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2010.11)

- 생태축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5대 광역생태권 구축, 3대 핵심생태축 보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으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50,198km<sup>2</sup>), 수생태축(5,196km<sup>2</sup>), 야생동물축(3,745km<sup>2</sup>)을 관리대상지역(총 52,487km<sup>2</sup>)으로 설정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청정한 지역환경의 보전

- 대기·토양·폐기물 등 각 분야별 지역환경의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지역환경을 유지하고, 각종 오염발생의 최소화를 통해 환경부하 경감
-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광역녹지축 복원 및 보전을 통해 도전체 자연환경의 광역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환경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확대 및 환경보호의 광범위한 인식 제고

#### 2) 추진시책

##### (1) 대기환경의 보전

##### ①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

##### ■ 기업 지원 대기환경 개선

-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
- 중소기업과 취약업체 지원을 위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비 및 원격감시장치(TMS)를 설치·운영비를 지원함

##### ■ 석면안전관리 강화

-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석면 이용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 실시
-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및 대기환경 개선시범사업을 시행함.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하고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비를 지원함

## ② 청정연료 확대

### ■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먼지저감 대책으로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및 연소효율이 높은 연료사용을 유도함. 먼지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회분함량이 많은 석탄 및 B-C유 등을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연소시설 또는 연소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연소효율을 높여 연료사용량을 저감시킴

## ③ 먼지저감

### ■ 도로청소 강화

- 먼지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변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진공 청소 차량 및 살수차를 확충하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도로 청소를 확대 실시. 도로먼지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청소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평가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 도로먼지 주요발생원인 공사장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덮개설치 등 시설개선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도로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킴
- 공사장의 나대지, 야적장 등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소각 및 화물차 과적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터나 나대지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꽃이나 잔디 등 조경수 심기운동을 전개함

## (2) 토양환경 보전

### ① 사전예방적 체계 구축

####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강화

-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을 현재의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외에 토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시설 및 부지로 확대하며, 토양오염도가 일정수준 이상 확인된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함
- 오래된 주유소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이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함.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방지시설 및 누출감지시스템을 갖춘 클린주유소 설치 확대
- 폐금속 광산의 광해방지사업 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광산에 대해서 오염개연성이 있는 광산부터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오염토양 개량사업 등을 실시함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및 정밀조사 실시

-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광산에 대해서 주변 오염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훼손, 오염농경지 등에 대해 추가 광해방지사업 실시 등 항구적 오염방지사업 추진

## ② 참여형 토양보전 시책 추진

###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 형성

- 지역 토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토양 관련 기관·지자체·정부 등 다자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지역별 토양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 또한 도내 토양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술인력을 육성함

### 토양오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토양오염이나 개별 규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토양환경 및 생태 등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민간인 학생 대상으로 교육 실시

## ③ 취약지역 파악 및 오염조사계획 수립

### 토양측정망 확대

- 토양측정망 운영실태 정밀진단을 통하여 조사지점을 조정하고 정확한 토양질 현황 및 변화추이 파악을 위해 측정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토지이용, 오염실태, 잠재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측정주기나 조사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
- 오염원 종류, 시설, 잠재위해성, 오염의 영향정도 등에 따라서 차등 관리를 하기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함.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하수측정망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토양과 지하수의 연계관리 시행. AI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통해서 처리대책 마련
- 토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낙동강 주변 4대강 공사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도시폐기물, 유류에 의한 항만지역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시행 추진

## ④ 친환경 농업 육성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함. 또한, 경남의 청정지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유도하며, 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유기농벨리를 조성함
- 오리농법은 자연과 농사가 공생을 하는 것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오리를 이용해 해충을 없애고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풀들을 없애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지력을 높여 농사를 짓는 농법임.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함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함.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함

## (3) 폐기물 관리

### ①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 ■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으로 자원흐름을 관리함. 이를 위해 폐자원 수급·유통 정보 등에 관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환경부) 및 자원총괄관리를 위한 통합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지식경제부)함. 자원순환특화단지, 자원순환협력센터, 생태산업단지 등 인프라도 확충

#### ■ 재활용체계 확산

-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서비스화, 재제조 등 재이용 서비스 활성화, 빈용기보증금 품목 확대 추진. 재질별 재활용 비용 차등화, 재활용방법 등급 분류,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에 가중치 부과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개선함
-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부분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목재펠릿 생산 확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함.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고 매립가스 CDM사업도 확대

### ② 원활한 자원회수 시스템 정비 및 재활용 이용촉진

#### ■ 재이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의 원형 이용 확대

- 재이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각종 중고제품)의 원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눔장터 및 상설매장의 설치를 촉진하고, 이러한 중고재활용 시장이 성공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금융적 지원을 추진함. 재이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보지를 발간하고, 인터넷에 재이용품 교환정보를 제공하며,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이용을 촉진함

### ③ 원천감량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적극 도입

#### ■ 배출원 감량화 인센티브 제도 실시

- 배출원 감량화를 통하여 얻어진 이익만큼의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며,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체계의 정비정도에 따라 포상 제도를 실시함. 또한 각 가정 단위에서 음식물 등을 줄여 감량화를 유도하는 곳에 대해서는 용기 및 감량화 기기 도입 시에 구입비를 보조하는 방안 검토

### ■ 음식물 줄이기 운동 확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이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곳에 대하여는 정책적 지원 추진. 원천 감량하는 곳에 대해서는 감량화기기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원책 마련

### ④ 경남, 시민, 사회단체(환경단체)의 참여 강화

-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감독업무 및 분리배출 및 폐기물 처리시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주체는 적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국내외 정책 변화 등에 대응을 통하여 3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설 운영 담당 방안을 검토하고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시민·사업자·행정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야 함.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고, 시민·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 행정에 관한 시민 의견 파악 및 대책 반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모니터제도 도입이 필요함

### ⑤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확충

####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보

- 현재 경상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장기·안정적 매립처리를 위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6개소 25,865천㎡의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2013년까지 3개소 1,249천㎡의 매립시설을 추가확보 추진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2010년말 기준 도내에는 20기(1,363톤/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 중임.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보완과 폐기물 위생처리 및 매립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시·군(창원(개보수), 통영, 사천, 거제, 창녕, 함양)에 각각 20톤/일~200톤/일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

####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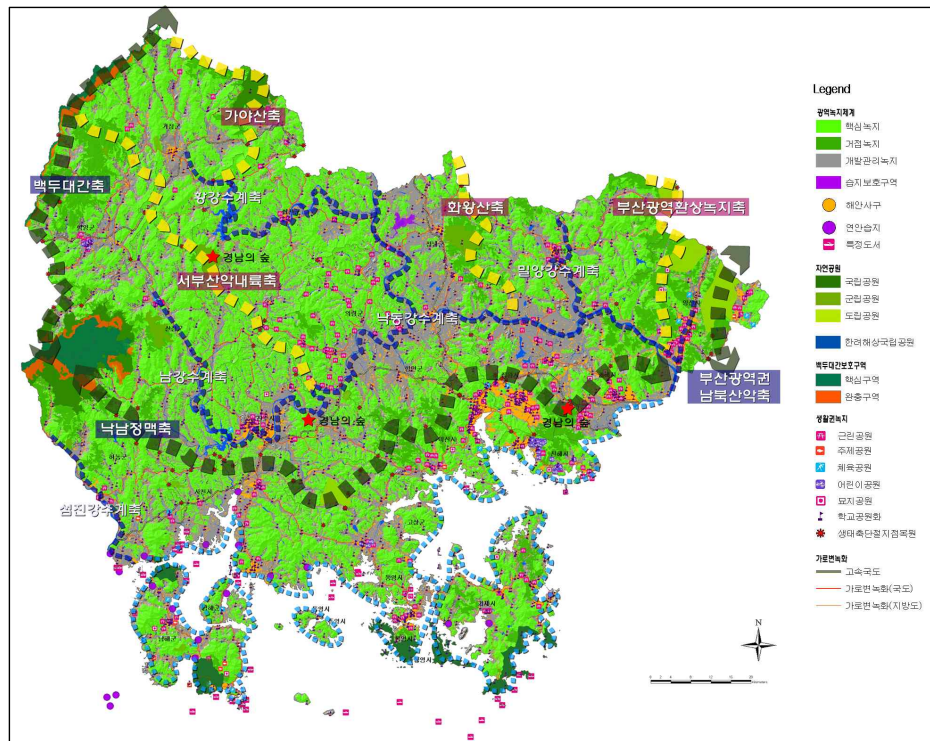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소각장 여열회수 재이용, 폐기물 매립장의 메탄가스 포집·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지속추진

## (4) 녹지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 ① 녹지 네트워크 구축

- 주변 산악계는 환상형 녹지네트워크, 주요 하천이나 임해부는 방사상 녹지네트워크 형성 추진. 자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골격을 이루는 녹지의 연속성과 양적 수준을 확보함
  - 임해부의 녹지 : 해안녹지의 연속성과 접근성 확보

- 고속국도·국도를 주축으로 한 녹지 : 골격으로 되는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로 파악하여, 양적·면적으로 풍부하고 연속성 있는 녹지의 확보
- 주요 하천을 주축으로 한 녹지 : 골격이 되는 하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보고 연속성 있는 녹지의 확보
- 대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 : 대규모공원이나 녹지 등 거점이 되는 공공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면적인 녹지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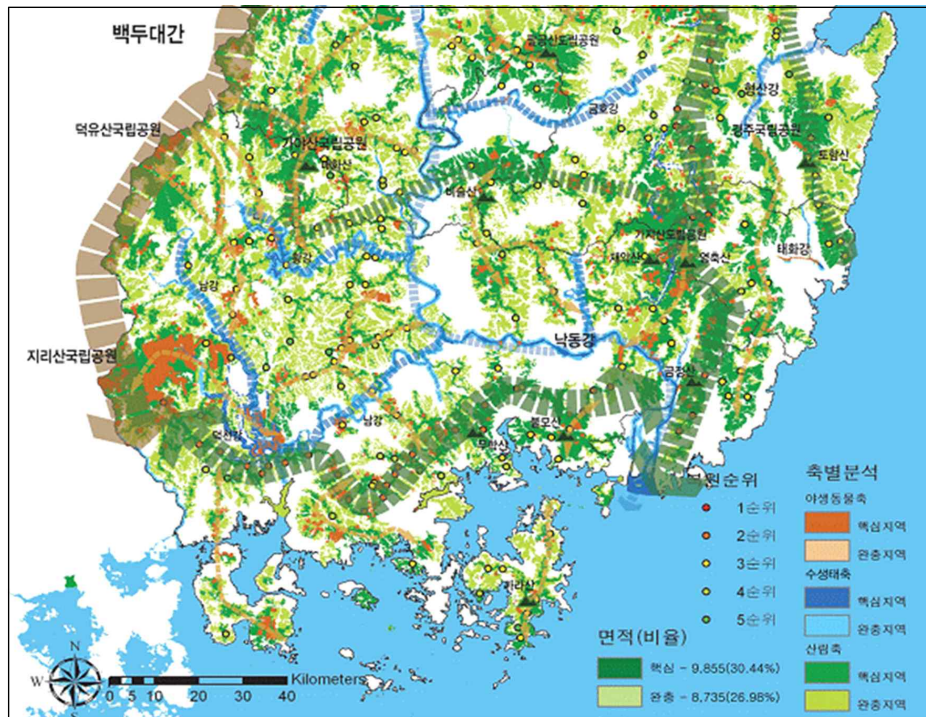


〈그림 3-8-9〉 경상남도 녹지 네트워크 구성

## ② 생태 네트워크 구축

- 광역생태권 내 생활권 생태공간(생태적 징검다리 기능) 확충 및 인접 생태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광역생태권 간 네트워크 구축
- 훼손단절지역 현지조사 및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복원 우선순위, 복원방법 등 선정
- 면(面) 유형의 네트워크는 주요 생태축 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를 통해서 구축하며, 우포늪 복원 등이 해당됨
- 띠(線) 유형의 네트워크는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중 법정보호종 서식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 추진
- 점(點) 유형의 네트워크는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도시 숲, 녹색지붕 등 도시 비오톱(Biotope) 확대를 통해서 추진함





〈그림 3-8-10〉 경상남도 생태 네트워크 구상

### ③ 환경 거버넌스 강화

#### 도민에 의한 자주관리운영체제의 구축

- 기존의 조직이나 활동단체와의 연대를 강화시켜 종합적인 조직에 의해 체계적인 운동 전개해 나가도록 함
- 도 전체 조직으로서 「녹지관리기구」, 「녹지네트워크추진협의회」 등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개별 녹지나 지역마다 도시녹화 등을 추진하는 관리단체(그룹)의 육성지원을 자주조직과 행정이 연합하여 추진

#### 도민참여형 환경교육 시스템구축

- 환경문제 해결은 사후대책보다는 문제방지를 위한 사전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발전 이념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속적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환경체험,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성 추진
  - 경남 환경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료와 정보 공유
  - 학교-시민단체-기관 간에 강사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기업-학교, 시민단체-학교 간 협약으로 협력체계 구축
- 경남 환경교육 마스트플랜 마련(5개년)
  - 2011~2015년(5년) / 35만명 / 215억원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청정환경 1번지 경남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국 공무원 대상(도 및 시·군 공무원 포함)/ 2~3일/회(년 4회 정도 운영)
  - 친환경정책(그린스마트시티 조성 등), 친환경 국제행사 개최 경험 소개, 청정 경남투어(우포늪, 주남저수지, 지리산 둘레길,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 환경핵심전문가(Key person) 양성
  - 2012.1~2014.12 / 12억원 / 환경생태해설사 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생태관광 해설사(160명), 뚝방길 해설사(160명), 기후해설사(40명) 등 양성
  - 환경전문가 인력관리시스템 개발(람사르총회 봉사자 등)

### 경남을 국제적 환경협력의 중심지로 육성

- 경남은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2010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6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4대 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그 동안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제10차 람사르(Ramsar) 협약 당사국총회(2008. 10. 28 ~ 11. 4(8일간)) : 세계 150여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대표 등 2,288명 참석
  -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UNCCD) 개최 : 2011. 10. 10 ~ 10. 21(2주간), 156개국 6,450여명 참석
- 이러한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우수한 환경자원과 환경정책 수범사례를 국내·외에 교류하여 국제 환경정책의 리더로서 역할 제고
-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회의의 지속개최 추진
  - 제15차 국제적조회의(ICA) 개최/ 2012. 10. 29 ~ 11. 2(5일간), 50개국 600여명 참석예정
  -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UNCBD/COP12) 경남 유치 / 2014. 10월 ~ 11월(4주간), 193개국 약 16,000명 참석 예정
  - 2016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COP20) 경남 유치 / 2016. 11월(12일), 192개국 2만명 참석 예정
- 또한, 국제적 환경협력 중심지로써의 이미지 제고 위해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시책 추진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복원
  -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 가능한 가치 있는 갯벌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습지보호지역 추가지정(습지보호구역 지정요건 검토, 지역특성 및 현안 조사 통한 환경기능평가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확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위한 조례 제정, 지역민과의 이해상충 협의 및 조정
  - 개발로 단절된 서식지를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네트워크 활용하여 복원, 복원 관련 지침을 마련(복원목적별 및 계획·시공·성과평가 등 사업 단계별 작성, 생물별 복원방법 등의 지침)하여 복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생태계 훼손) 최소화

- 멸종위기 생물종 복원
  -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을 생태보전 모델로 육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복원사업 활성화
  - 기술개발로 생산비 절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적극 활용, 채산성 확보방안 마련 통해 생명환경 농업 활성화 추진
- 생물종 다양화
  - 한방클러스터(약초연구소 및 지원센터 등) 구축을 통해 전통 한방휴양관광지사업과 연계하여 한약 연구개발과 유통 중심지로 육성하며, 이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활성화

#### ④ 생태거점 보전 및 복원

- 야생동물의 원활한 서식과 이동, 종다양성 회복, 자연에너지활용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별 생태자원의 실태와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종합한 지역단위 생태지도(biotop map)를 제작
- 연안과 내륙의 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습지복원사업을 추진
  - 습지 가치평가 및 등급별 차별화된 관리방안 수립
  - 절대보전, 보전중점, 친환경개발 등 등급별 구체적 전략 추진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확대 지속적 추진
  - 도민 참여형 작은습지 조성 및 우포늪 훼손습지 복원사업 시행
  - 습지 보전 인식증진 사업 추진 및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활성화

#### ■ 경남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전략계획(2011~2020)이행지원과 기초지자체의 이행유도를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정책 추진전략과 분야별 세부계획 및 실천과제를 제시
- 경남의 생물다양성 현황(서식지, 생물종 및 유전자원), 관리계획 및 사업, 향후 경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전망과 전국 지자체별 생물다양성 평가 및 경남권과의 비교분석, 생물다양성 평가 등을 통한 경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 경남의 생물다양성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며, 분야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 서식지 보호 및 관리 강화,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및 생물다양성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관리체계 개선, 법규 정비, 지역 커뮤니티 참여, 교육 및 인력양성, 정보체계 등)을 제시

## 제3절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역경관의 형성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지역의 경관가치와 특징

##### ■ 지역 전체의 경관적 특징

- 높은 산들이 발달한 서북부지역에는 산림자원이 지배적인 주요 경관자원으로 작용하면서 산으로 위요된 좁은 지역에 소규모의 도시들이 입지하여 있음. 지역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농산촌 산악경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은 하천을 끼고 발달한 넓은 평원과 농경지가 지배적인 전원경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남해안 일대 해안지역에서는 바다·섬 등 해양경관자원이 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어촌경관의 모습을 보이는 지역과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산업도시의 경관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음

##### ■ 산지경관

- 경남 전역에는 높고 낮은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경관자원과 함께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경남의 대표적인 경관유형에 해당됨
- 그러나,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정에서 도시 주변 구릉지·산지에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면서 배경이 되는 구릉지·산지를 차폐 혹은 잠식하여 입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배후 산지와 부조화스러운 규모의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의 돌출, 판상형 건축으로 인해 차폐·위압적 경관이 형성되는 문제점 드러냄

##### ■ 해안 및 수변경관

- 남해안지역에는 리아스식 자연지형과 해안선, 다수의 섬, 다양한 생태경관자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안 곳곳에서 이러한 자연경관자원을 쉽게 조망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안, 하천 등 개방적인 공간으로의 조망을 위해 수제선과 평행으로 입지하는 대형 아파트로 인해 위압감이 증대되고 소규모 어항이나 해수욕장 주변에도 건축물의 형태·규모·색채 등이 질서를 이루지 못하여 혼잡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 ■ 역사문화경관

- 경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시가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은 타 시·도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그나마 부족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각적 차폐, 위압적 규모의 주변 건축물, 광고물 난립 등 역사·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

발하고 있음

- 역사·문화자원 입구 및 주변지역에 입지한 상업시설과 옥외광고물로 인해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 등 일부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정비 및 관리 미흡으로 불량한 경관을 형성함

### ■ 농어촌 전원경관

- 농어촌지역의 전원경관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역과 낮은 산지·구릉지로 형성되어 안정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인 경관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도시경관의 인공적 가치에 대비되는 자연적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경관이며, 경남의 대부분 군지역과 일부 도시지역의 외연부에서 볼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전원경관은 산업화 진전,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도시적 건축양식의 침투와 더불어 이질적인 모습의 경관이 양산되고 있음
  - 다양한 건축양식의 혼재로 혼잡한 농촌경관 형성
  - 노후화된 건축물과 색채로 인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초래

### ■ 도시 및 시가지경관

- 도로와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연접하여 고층의 건축물이 입지함으로써 공공공간의 폐쇄성을 증대시키고, 위압감을 야기하는 등 불량경관 형성
- 특히 도로변에 연하여 직각배치가 아닌 평행배치를 하고, 판상형 고층광복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차폐 및 위압경관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음
- 경남지역의 상업지경관은 도시지역의 중심부에 형성된 상업지역에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경쟁적인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양산하고 있음

## 2) 경관행정의 전개

### ■ 경관행정의 조직

- 경남도 18개 시·군 중 경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는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 등이며, 다른 시·군에서는 경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원배치가 없이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도시 및 건축경관 관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전문성·일관성·집행력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음

### ■ 경관계획의 수립

- 최근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 차원의 경관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음. 남해안권역과 내륙권 등 2개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한 경관계획을 통해 경남도 경관계획의 큰 틀이 잡히게 되었음

- 시·군 단위로 보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 상당수 도시지역에서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경남도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이후 사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경관사업의 추진

- 경남도 및 각 시·군에서는 다양한 경관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중에서 경남도가 1997년부터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은 많은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음
- 이외에도 주요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또는 장소에 대한 야간조명 실시, 건축물에 부속 설치되는 간판에 대한 행정지도, 담장허물기 등의 부분적인 경관사업과 건축대상제 시행, 건축심포지움 개최 등 사회적 기반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도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군 전역의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적 가치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2. 여건변화와 전망

### 1) 지역경관의 가치 증대

####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경관의 가치 증대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 기능과 편리성을 위한 기반시설 중심의 실용적 요구로부터 점차 질적, 심미적, 정서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연환경 보호, 개성 있는 시가지 정비, 건축물의 수준 제고 등 생활공간의 질과 관련된 생태적, 심미적, 문화적 측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경관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될 것임. 즉,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어받아 계승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남겨야 할 의무를 자각해야 함과 동시에, 주의 깊고 신중한 환경가꾸기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임

####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기 위한 경관마케팅 활동 증대

- 지역마다 획일화된 도시경관을 극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는 도시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자연경관·역사경관·건축문화 등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경관 마케팅 활동이 증가할 것임

## 2) 중앙정부의 경관행정 강화

### ■ 경관관리 역량강화 유도

-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오던 경관행정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관법을 개정하는 등 경관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및 SOC·개발사업의 경관심의지침 마련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일반인 선정 지원 확대
  - 공공건축공공공간 품격 향상을 위해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DQI) 개발,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시범지원
  - 도심지 특정가로구역(한옥거리, 문화거리, 대학가로 등)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높아·형태·색채 및 간판 등 가로시설물 관리
  -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우수건축물 지정제도’ 도입, 한옥 건축 및 전통마을 조성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등

### ■ 경관법 개정

- 경관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임의규정이었던 경관계획이 30만 이상 시군의 경우 수립이 의무화됨
- 또한, 국토전체의 경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경관정책 기본계획) 제도화를 통해 그 동안 국가정책의 영역 밖에 있던 경관정책이 국토정책의 하나로 정립될 것으로 예상(경관정책의 중요도 제고)
- 건축물 뿐만 아니라 SOC 까지 경관심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한 심의기준수립 등 지자체의 경관정책 수요 증가 예상
-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및 한옥 활성화 등 건축경관과 관련된 정책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질적인 수준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경남도의 경우 한옥과 관련된 지원정책 개발 필요(전남은 한옥 관련 지원정책 추진 중에 있음)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

-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특화경관을 형성. 또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지역의 고유한 경관특성을 보전
- 내륙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간직한 지리산, 덕유산, 낙동강, 남강, 경호강 등 수려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창조적 개발관리

- 4대강 정비사업 및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관상의 변화 분석 및 관리·형성·보전
- 남해안의 우수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해안선과 섬의 보전을 유도하고, 경관자원 및 조망점 주변 지역, 진입항, 진입도로의 개선을 통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연속성 확립

##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형성

- 경관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경관형성을 목표로, 도시공간의 총체적 구조를 고려한 경관디자인 행정의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형성·관리 유도방안 수립
-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적용,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대상과 전략, 경관 조직의 구성, 단계별 계획 등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 2) 권역별 관리방향



〈그림 3-8-11〉 경관관리권역의 구분

### Ⅰ 도시산업권역(동부)

- 녹색산업과 결부된 친환경 산업권역으로 주요생태자원 및 환경보전, 공공디자인이 아름다운 도시 경관관리, 공원·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유도



### 도시산업권역(남부)

- 쾌적하고 활기찬 역사도시권역으로 산재된 역사문화 자원의 안내체계 정비와 스토리 있는 테마경관을 형성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 도시산업권역(남해안)

- 도시와 항구의 활력이 넘치는 경관 권역으로 항구와 산업단지의 활력 향상, 녹지와 문화시설물 연결 등을 유도

### 생태휴양권역

- 드넓은 자연과 함께 펼쳐진 친환경·생태권역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우포늪 등 습지의 체계적 관리와 생태관광자원화를 유도

### 산악휴양권역

-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 권역으로 백두대간 및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등의 녹지경관 보전, 임산물 등의 특산품 발굴로 주변 소득 증대 등을 유도

### 해양레저권역

- 천혜의 자연·문화와 레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권역으로 수려한 자연 및 전원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관광경관과 레저경관 형성을 유도

〈표 3-8-15〉 경상남도 권역별 경관관리 방향

구분	포함도시	기본방향
도시산업권역(동부)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일부	-공업지역 및 상업·업무지역 경관 특성 강화 -공원·녹지 등의 녹지경관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공공디자인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도시 주요부 진입부 및 주요지점에 진입경관, 랜드마크 조성
생태휴양권역	창녕군, 의령군, 함천군 밀양시, 함안군 일부	-가치 있는 자연경관자원 보전을 통한 지역의 특색 유지 및 창출 -생태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통한 전원적 경관 창출
도시산업권역(남부)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일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친환경적인 경관 조성 -역사와 교육의 정주생활권 권역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산악휴양권역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일부	-자연경관(녹지·수변경관)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산악휴양권역의 특징적인 경관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로 정체성 높은 문화테마경관 조성
도시산업권역(남해안)	창원시, 사천시	-해안경관을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경관 만들기 -녹지와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생태-문화경관 만들기
해양레저권역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자연과 레저시설의 경관조화를 위한 정비 및 관리 -문화공간과 활동공간의 조화를 위한 관리, 연계성 강화, 특화경관 형성
생태휴양권역	고성군, 하동군	-편안함을 느끼는 자연 및 전원경관 형성 및 수려한 자연조망의 확보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시가지와 관광지 경관 만들기

### 3) 전략별 관리방향

- 9개의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관리방향 제시

〈표 3-8-16〉 관리목표별 추진전략과 관리방향

관리목표	추진전략	관리방향
조화로운 도시 수변경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에게 활력을 주는 수변경관 형성</li> <li>• 친수공간 및 수변 조망권 확보와 조성</li> <li>•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자연 하천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와 수변경관을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 형성</li> <li>- 자연소재를 활용하고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li> <li>- 수변공간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보행공간을 확보</li> <li>- 수변공간을 따라 녹지대를 조성하고 테마 가로수길 연출</li> <li>-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li> </ul>
다양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li> <li>• 유실된 문화자원 발굴</li> <li>• 역사자원간의 연계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 저해요소 정비와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 개선</li> <li>- 역사·문화자원의 재발견과 경관자원간 연계를 통한 관광네트워크 조성</li> <li>- 기반시설 개선, 확충 및 주변 경관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경관 조성</li> </ul>
자연의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경관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의 보전 및 제한적 활용</li> <li>• 시가지 내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li> <li>• 자연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양호한 수림 원형 보전</li> <li>- 도심의 녹지를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li> <li>- 건축물, 시설물 등의 녹화 유도로 녹지공간 확보</li> <li>- 시가지 내 가로수를 활용하여 순환형 연결녹지 조성</li> <li>-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산지 조망 가능한 공간 확보</li> </ul>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경관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망권 및 바람길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li> <li>• 자전거길 등 다양한 접근체계 구축</li> <li>• 통일되고 인지성 있는 보행·가로경관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배치 및 높이 등에 대한 규제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가로환경 조성</li> <li>-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가로경관계획 수립</li> <li>-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 및 연속성 확보</li> </ul>

〈표 계속〉

관리목표	추진전략	관리방향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경관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li> <li>• 경관협정제도 활용, 민관의 효율적 협조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축제 문화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특성에 적합한 경관 창출</li> <li>-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li> <li>-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형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li> </ul>
테마가 있는 경관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권의 및 경관방향 제시</li> <li>• 사군별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경관컨셉 및 방향 제시하여 차별화된 경관 형성</li> <li>-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색채경관 등 권역 및 사군별 경관특화 유도</li> </ul>
아름다운 해안경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노선, 해안도로, 조망지역, 워터프론트의 경관형성바야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도로 및 크루즈선에서 보이는 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li> <li>- 조망지역관리방안, 접근성 개선, 조망대상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li> <li>- 해안의 보행접근성 및 워터프론트 지역의 경관 개선</li> </ul>
인상깊은 도시경관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경관, 축제경관, 특화거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형성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거리 : 가로(Path), 교차점(Node), 랜드마크(Landmark)가 복합화된 지역</li> <li>- 진입지역 : 경계(Edge)로서 첫인상을 부여</li> <li>- 축제경관 : 지구(District)로서 비일상적인 관광경관</li> <li>- 야간경관 : 지구(District)로서 비일상적인 경관</li> </ul>
사군과 함께하는 경관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군별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군 관련계획과 연계하는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군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가이드라인을 제공</li> <li>-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 및 협력체계 구축</li> </ul>

#### 4) 추진시책

##### ① 경관관련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강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기에 경관계획을 통해 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에 어려운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경관관리를 계획적으로 유도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시 경관가치, 시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현재의 규제수준과 내용은 유지하면서 시·군 특성에 맞게 시·군 조례를 통해 차별화하고 구체화 유도
- 시·군별 조례를 통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관사업과 연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되도록 유도

## ② 경관 조례의 정비 및 경관협정·가이드라인 운영

- 경관법 제도하에서의 지자체 위임사항을 보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협정의 시범적 모델사업 추진
  -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사항과 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초기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경관협정 수립전략과 활성화방안 설정
- 경관유형별로 경관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경관권역별로는 권역별 경관테마를 형성하기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경관원칙을 담은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및 활용

## ③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강화

- 경관행정의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관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 내·외부의 조직 역량을 보완·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
-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한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 ④ 경관심의체계 정착

- 일정한 규모 이상이나 지역 중복·공동사업,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시설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경관심의 강화

## ⑤ 경관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경관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관의 질적 수준제고
- 경관사업 추진시 지역차원의 중요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관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경관규제지역과의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여 규제와 사업의 동시효과 거양
- 특히,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경관조명사업의 경우 체계적 관리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의 취지를 살려 인공조명의 오·남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표 3-8-17〉 시·군 주요경관사업

위치		경관사업
진주시	칠암동	가로시설물 (버스쉼터 등)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
	남강변	스텝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김해시	삼방동, 어방동	녹지가 풍부한 그린커뮤니티 조성
	가야의 거리	김해의 대표적 역사유적 랜드마크 형성
밀양시	KTX역광장	특색 있는 공공시설물 조성을 통한 지역 인지성 제고
	삼문동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양산시	통도사 주변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구를 통해 인공경관의 완화
	다방교앞 사거리	관문지역 경관 개선을 통한 양산의 이미지 제고
창원시	중앙삼거리 일대	진입상징경관 정비사업, 상징가로 조성 및 전면공지 공원화 사업
	마산항	워터프론트 개선사업 및 야간조명 형성사업, 문화단지 및 선형공원 조성사업
	마산어시장	횃집거리 조성사업 및 어시장 정비사업
	중앙로터리	공원화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 워터프론트 개선사업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삼귀해안	워터프론트 개선사업 및 크루즈 조명설치사업
	로봇랜드	전망대 설치 및 워터프론트 개선사업
통영시	윤이상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및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관문 사거리	진입조형물 설치사업, 상징가로 조성사업
	달아공원	전망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워터프론트 정비사업
	강구안	워터프론트 정비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도남 관광단지	여객터미널 재정비, 월프론트 개선사업, 전망대 설치사업, 도로 확장사업
	통영 여객터미널	워터프론트 개선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터미널 및 주차장 공원화 사업
사천시	삼천포항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보행로 조성 사업
	비토섬	워터프론트 보행데크 설치사업
	사천읍 시가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보행로 조성사업, 공원재정비사업
	해안 공업지역	도로경관 정비사업
	사천 marina	워터프론트 조성 및 도로변 식재 조성, 전망대 및 포토존 조성 사업

〈표 계속〉

위치		경관사업
거제시	고현항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횡집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승포항	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워터프론트 조성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
	옥포항	건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남부해안	해안도로 개선사업, 전망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학동 몽돌해수욕장	워터프론트 정비 및 식재조성 사업
	어차-홍포 해안도로	전망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의령군	의령읍	중심가로변 가로 환경개선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의령천	야간경관을 활용한 개성 있는 수변경관 창출
함안군	대평뉴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교육관 조성
	독방변	독방변 경관도로 조성 사업을 통한 경관 개선
창녕군	번개뉴, 장척호	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인
	화왕산 진입로	화왕산 진입도로 진입경관 정비를 통한 가로 환경 개선
산청군	차황면	진입경관 정비를 통한 황매산영화주제공원의 활성화 유도
	경호강	레프팅 이용객의 저변 확대 및 관광시설의 계절성 탈피
함양군	함양읍	함양읍 시가지 및 위천변 달리고 싶은 자전거 도로 조성
	주차장 사거리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군민 및 관광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
거창군	충훈탑	충훈탑 및 진입부 경관조명 설치로 랜드마크화
	거창읍	건고 싶은 거창 중심으로 만들기
합천군	초계면	농산촌 마을 정비 사업으로 주민복지 향상 유도
	황강변	쾌적한 수변 경관 형성
남해군	남해읍 시가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개선사업
	남해 스포츠 파크	해안도로 개선사업, 워터프론트 조성 및 진입도로변 식재 조성사업
	다랭이 마을	해안도로 개선사업, 축제시설 조성사업
	독일마을	도로정비, 진입경관 개선
고성군	상족암 군립공원	워터프론트 정비사업, 상족암 테마가로 조성사업
	고성읍 시가지	진입경관 조성사업, 테마가로 조성사업
	당항포 관광지	워터프론트 정비사업
하동군	섬진강변	보행데크 정비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야간조명설치사업
	남해대교	횡집거리 조성사업
	하동읍 시가지	진입경관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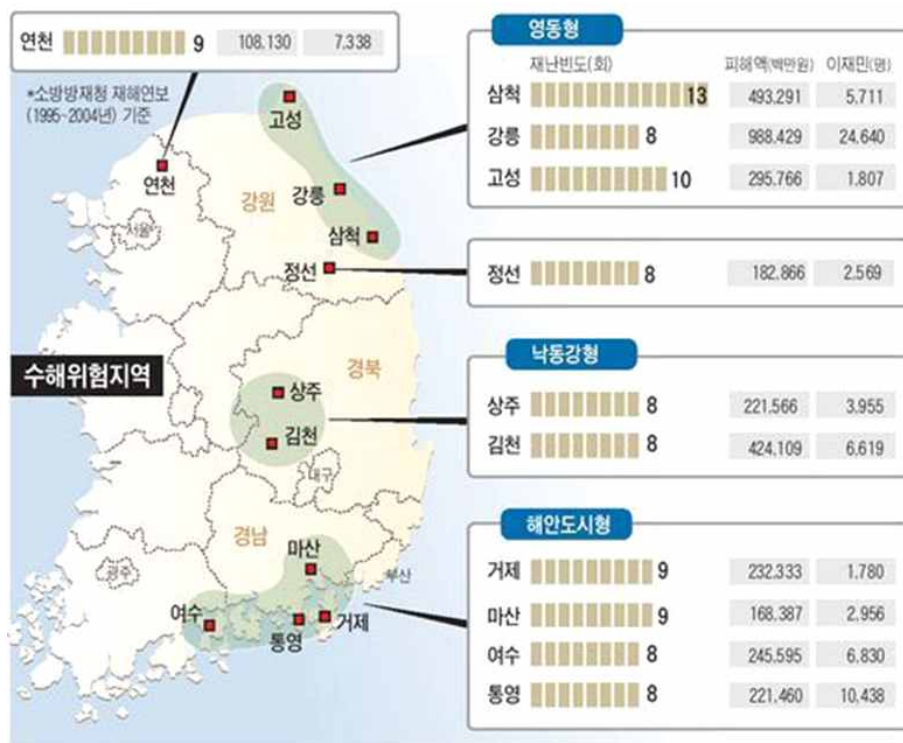
## 제4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경상남도의 재해발생 추이

## ■ 풍수해

- 소방방재청에서 1995 - 2004년의 10년간 태풍과 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본 우심피해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11곳이 재해상습피해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경남의 경우 창원, 거제, 통영 등 해안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음
- 대부분의 지역이 대형태풍의 이동경로와 일치하고 있어, 국지성 집중호우 보다는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와 해일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8-12〉 국내 상습적인 우심피해 발생 지역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사전예방 강화 및 투자확대 방안, 2006.

- 2002년과 2003년의 대규모 피해를 기점으로 풍수해 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2002년 태풍 '루사' 나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등 당해년에 발생하는 태풍 규모에 의해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우를 예상해야 함



〈표 3-8-18〉 풍수해 발생 추이(단위 : 명, ha, 백만원)

구 분	인명	이재민	침 수 면 적	피 해 액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2000년	2	430	4,341	113,309	1,503	560	332	84,100	26,814
2001년	-	25	2,356	21,298	84	-	148	15,953	5,113
2002년	87	8,087	16,266	1,132,870	11,165	796	25,341	875,723	219,845
2003년	253	36,783	26,194	1,911,117	46,280	21,661	14,916	1,237,683	590,576
2004년	1	91	284	34,352	136	87	1,333	31,379	1,417
2005년	14	88	1,466	47,738	255	156	1,083	41,736	4,508
2006년	1	85	12,658	225,529	930	189	3,818	213,415	7,177
2007년	1	23	1	22,823	210	163	99	21,689	662
2008년	-	17	-	1,157	30	-	2	-	1,125
2009년	3	1,446	1,132	47,971	330	27	467	46,867	280
2010년	-	83	1	11,474	135	-	207	10,373	759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년도.

- 시설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매년 공공시설이 그 외 시설보다 피해액이 많음.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화재

- 2000년 3,414건이었던 화재발생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2006년 2,707건으로 가장 감소하였고, 2007년 4,238건과 2008년에 4,389으로 증가한 후 최대 화재발생건수를 기록하다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3,341건에 이르고 있음
- 인명피해도 매년 100명 이상이며, 물질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화재 안전교육 및 신속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2010년 화재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총 3,341건으로 부주의가 1,512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694건임. 화기사용 요령 등 화재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전기적 요인은 노후 건축물 등의 누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의 설계 및 건축, 방어 시설물의 구축,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요구됨

〈표 3-8-19〉 화재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	인 명 피 해			이재민수 (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면적 (㎡)
		계	사 망	부 상			
2000년	3,414	193	48	145	457	16,669	81,907
2001년	3,495	190	42	148	380	17,845	116,846
2002년	3,276	208	52	156	349	15,127	92,587
2003년	2,917	163	43	120	139	15,374	93,560
2004년	3,100	195	44	151	70	15,999	107,233
2005년	2,918	173	30	143	483	14,127	118,577
2006년	2,707	136	24	112	326	13,461	101,749
2007년	4,238	207	40	167	327	28,630	136,762
2008년	4,389	206	26	180	406	26,768	468,051
2009년	3,968	190	34	156	271	19,949	781,038
2010년	3,341	150	24	126	165	23,738	254,026

자료 :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계연보」, 각년도,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http://nfds.go.kr/>) 각년도

〈표 3-8-20〉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전기적 요 인	기계적 요 인	화학적 요인	가 스 누 출	교 통 사 고	부주의	기 타 실 화	자연적 요 인	방 화 명 화	방 화 의 심	미 상
2008년	4,389	774	241	10	14	54	2,430	78	13	51	207	517
2009년	3,968	729	268	20	11	65	2,051	33	4	45	194	548
2010년	3,341	694	257	27	10	51	1,512	54	13	46	136	541
시부	2,079	473	175	18	9	33	857	31	7	34	114	328
군부	1,262	219	87	9	1	18	655	23	5	12	22	211

주 : 2008년부터 조사항목 변경 : 국가화재분류체계 변경(2007년)

자료 : 경상남도, 「2010 경남통계연보」

- 2010년 소방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비는 675대이며, 2003년 441대에서 매년 장비를 보강하고 있음. 이 중 펌프차를 165대로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 소방헬기는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층건물의 화재를 대비한 고가차는 17대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시에 피난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리고 산불과 같은 광역적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추가확보도 요구됨

〈표 3-8-21〉 소방장비(차량) 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고가차	굴절차	화확차	소방헬기	펌프차	물탱크차	기타
2000년	485	13	16	22	-	205	37	192
2001년	487	13	16	22	-	205	37	194
2002년	456	13	16	22	-	178	39	188
2003년	441	13	16	23	-	155	38	196
2004년	495	13	16	23	-	193	42	208
2005년	542	15	16	23	-	194	46	248
2006년	569	15	16	24	1	180	55	278
2007년	597	16	17	24	1	186	57	296
2008년	634	17	17	25	1	167	57	350
2009년	661	17	19	25	1	165	63	371
2010년	675	17	20	25	1	165	65	382

자료 :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 산불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피해액 722백만원)과 2009년(피해액 706백만원)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경남의 경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리산의 험준한 산세와 울창한 숲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산불 발생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대형화의 우려가 있음

〈표 3-8-22〉 산불발생 현황(단위 : 천원, ha)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면 적	251.00	18.27	12.94	24.94	215.84	8.73
피해액	722,309	49,153	48	62,367	706,917	239,110

자료 :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 발생 원인별로 보면 등산객 등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이 주요 원인이므로, 무엇보다도 입산자의 부주의와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에 의한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대책이 산불예방의 관건임
- 시·군 산림담당 부서의 직제 축소로 조직과 인력이 취약하며, 산불방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국고보조율이 극히 미약하여 효과적인 산불방지와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표 3-8-23〉 산불의 발생원인(단위 : 천원,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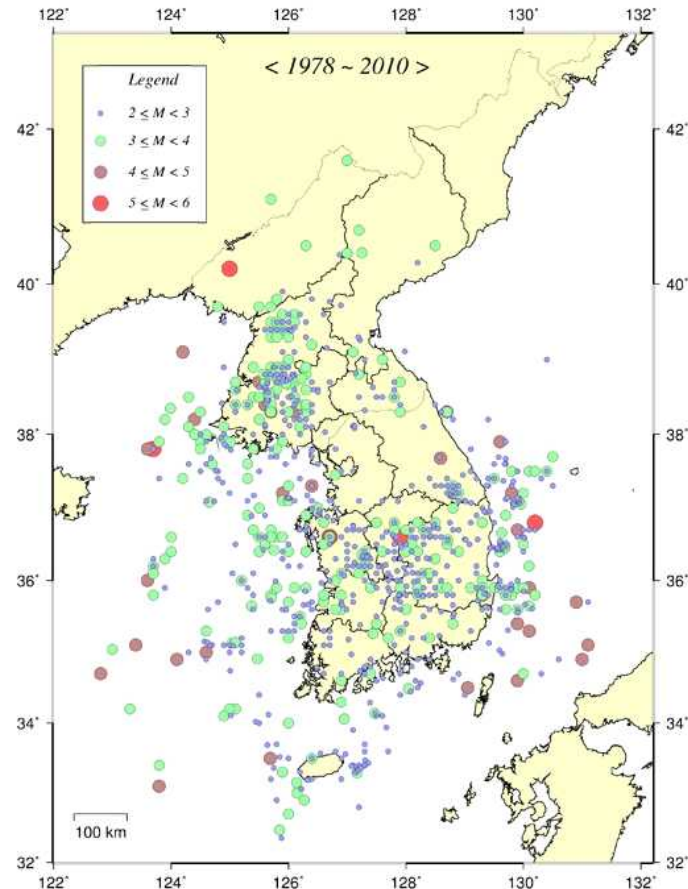
구 분	합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기타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2005년	251.00	722,309	6.00	18,547	1.00	2,078	244.00	701,684
2006년	18.27	49,153	3.79	10,194	1.73	4,661	12.66	34,298
2007년	12.94	48	6.29	21	2.42	7	4.23	20
2008년	24.94	62,367	13.39	21,474	4.26	12,048	7.29	28,845
2009년	215.84	706,917	10.91	33,032	0.84	2,754	204.09	671,131
2010년	8.73	239,110	3.04	103,797	2.00	8,992	3.69	126,321

자료 :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 지진

- 1978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06~2010년에는 총 240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연평균 횟수도 48회에 이릅니다
- 미국 건축기준(Uniform Building Code)<sup>28)</sup>에 우리나라는 최소 지진구역인 1등급에 해당하지만 한국 지질연구소는 한반도에 규모 6.5 정도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 경남·부산·울산 일원에도 매년 많게는 5회, 적게는 1 - 2회 정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진이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3.0 미만의 소규모임. 그러나, 과거 실제로 4.0 이상의 지진도 6회나 발생하였고 인근에 원자력발전소도 입지해 있으므로 규모 6.5 이상의 지진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28) 지진구역을 5개 등급(1·2A·2B·3·4)으로 분류. 우리나라는 최소 지진구역인 0과 1등급에 해당. 서울은 0, 부산·전남·경남은 1등급, 터키·대만·일본 고베 등은 가장 높은 4등급.



〈그림 3-8-13〉 진앙 분포도(1978~2010)

자료 : 기상청 지진센터(<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

## 2) 기존 재해대책의 개선점

### ■ 위험요소와 피해양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빠른 대응책의 변화 필요

- 자연적·사회적 위험요소와 피해양상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관리주체와 관리형태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요함
- 중앙의존적 방재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방정부 주체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방재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필요

- 현재의 안전관리계획은 대부분 대응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난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단계별, 적용대상별 등의 특성화가 필요함

### ■ 실효성 있는 구조물 안전진단 필요

- 1988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물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2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평가가 완화되면서 인력부족, 관리소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주거시설의 재난 위험 가중

- 경남지역에서도 주거시설 형태가 단독주택은 감소하고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시 저층 건물과는 다르게 수직성으로 인한 피난의 어려움이 있으며, 상층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성, 제한구역에서의 소방활동이 어려우므로 화재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가 매우 심각함

### 건축물 내진설계의 한계

- 2010년 현재, 경남의 총 건축물 동수는 607,785동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53,261동으로 8.7% 정도가 해당됨
- 내진대상 건축물 53,261동 중 실제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은 12,249동으로 경남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23%로 파악되었음<sup>29)</sup>

〈표 3-8-24〉 경남 내진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적용 비율

구분	총계	내진대상 건축물			비율(%)
		소계	적용	미적용	
경남	607,785	53,261	12,249	41,012	23.0

자료 : 경상남도 재난방재복구과, 내부자료, 2010.

- 경남의 초·중·고교 학교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 1,458개 동 중 내진설계율은 16.2%로 전국 평균 13.2%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학교건축물이 재난 대피소로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보강이 절실함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

-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평균기온 0.18℃/10년 상승, 강수량은 21.7mm/10년 단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계획으로 대응하는데 과학적 분석,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재난예방 및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 의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 방재 예방교육,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민 관심이 매우 낮음
- 재난 발생 이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항상 재발
  -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망각하고 다시 안전불감증 재발

29) 이는 2007년 조사때의 내진설계율 18.2%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 가정이나 가게, 회사에 소화기나 방독면과 같은 방재물품이 대부분 구비되지 않음
- 민방위 훈련, 예방정책의 무관심
  - 1990년대 이후 예방정책의 주 내용은 재난예방교육, 홍보, 시설지도, 민방위 재난 훈련
  -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0년대 이후 계속 훈련 횟수가 감소

## 2. 여건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위험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상파랑 등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기존 방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
- 예측 불능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 저출산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수요의 증가
- 도시인구집중, 교통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증가 등 재난안전 환경 악화로 단일 사고나 사건을 복잡한 재난으로 발전시킬 개연성이 높음

### 재해유형의 다양화

- 과거 재해유형은 호우 및 태풍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폭설, 태풍, 호우, 가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지진관련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의 향상 및 대피소 설계뿐만 아니라, 방사능 유출과 같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재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함

### 환경변화와 원인의 다양화로 예측과 사전대비 곤란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및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 새로운 재난 저감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현장중심의 자율 신속대응체계의 강화 필요
- IT기술 활용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

###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요구 증대

- 사회환경의 급변속에서 도시화의 가속화와 범죄 제어능력의 저하로 각종 범죄에 시달리는 현실에 직면
-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도민의 안전수요 증대 및 안전참여의식 확대

- 주5일제 근무와 웰빙 추구 등 생활패턴의 변화, 레저문화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및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 대두
-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사후복구보다는 체계적 사전예방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절실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수준,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도민의 정책분야별 수요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간자율참여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통한 도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 체질화를 위해 도민안전체험관 시스템기능 확대 및 장비보강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령사회화, 서구식 식습관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등 안전복지 확충에 대한 욕구 증가

#### 종합적인 방재행정의 변화

- 방재행정의 예산이 복구, 부처별 예방사업, 기능확보 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중심의 부처연계형 종합예방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취약지역 관리측면에서는 물리적 개선사업에서 이주대책 등을 통한 원천적인 대응 방지로 전개될 것이며, 국지적 시설개선에서 광역적인 원인해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피해복구 측면에서는 단순 복구에서 예방 복구로, 시설별 개별복구에서 지역 전체의 방재력 향상을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로,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복구상황 관리에서 통합 복구상황 관리로 변환될 것으로 예상



〈표 3-8-25〉 방재 패러다임의 변화

분야별		현 재	미 래
관리계획	방재설계	단편적	종합적
	감시/관측	경험적	과학적
	SOC 건설	기능 위주	기능강화+방재개념
방재 예산		복구 중심, 비용 개념	예방 중심, 투자 개념
		부처별 예방사업	부처연계 종합예방사업
		기능 확보 위주의 사업	기능 확보+경영수익사업
취약지역관리		물리적 개선사업	물리적 개선사업+이주대책
		국지적 시설개선	광역적 원인 해소
피해 복구		단순 복구	예방 복구
		시설별 개별복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부처별 개별 복구상황 관리	통합 복구상황관리
		공급자 중심 재해구호	수요자 중심 재해구호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1) 계획적 관리강화 및 방재 인프라 구축

###### ■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및 방재형 도시계획 추진

- 재해에 강한 도시공간구축을 위한 방재형 도시계획의 단계적 추진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방재취약지구 대책반영 강화
- 방재시설과 건축물의 사전유지관리 지침 강화 및 정기적 도시방재 평가체계 확립

###### ■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재대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재해·재난 취약성(Vulnerability) 분석 및 대책 강구
  - 시·군별 재해·재난 취약 지도 작성 및 활용
  - 재난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재난저지공동체 구축 추진
- 도시지역의 경우 교통사고, 화재, 구조물 등 재난관리에 역점을 두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수해에 대처하는 정책 집중 강구

###### ■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의 확충

- 도시기반시설의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도로공간 등의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교통시설, 라이프라인 등 도시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설정비 강화
- 제방, 배수펌프장 등 기존 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의 신규 도시방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내진설계 기준설정, 교육, 훈련 및 대국민 홍보강화,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2) 소방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 미래형 소방인프라 확충

- 소방차량의 노후율을 감소 및 효율적인 장비관리방안을 모색
-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응성 있는 현대장비의 보급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현장대응
  - 화재 등 현장상황 정보제공으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소방대원 안전확보 방안 마련
- IT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분야에 접목·활용
  - 디지털 기반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119신고체계 필요

### ■ 예방안전기능 강화로 안전문화 정착

- 지역별·시기별·계절별·대상별 등 맞춤형 예방대책 강구
  -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집중밀착관리가 필요
- 특수한 건축물에 맞는 소방시스템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
- 도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유형별 소방교육의 필요성 확대 : 안전체험관 설치 등

### ■ 재난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 재난의 복잡화·다양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형재난의 대비·대응단계부터 전략적·적극적 개입 필요
- 재난환경 변화에 적응성 있는 인원·장비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요구
- 생활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조직의 신설 등 조직 재설계 필요

## (3) 119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 ■ 예방안전기능 강화로 안전문화 정착

- 지역별·시기별·계절별·대상별 등 맞춤형 예방대책 강구
  -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집중밀착관리가 필요
- 도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유형별 소방교육의 필요성 확대 : 안전체험관 설치 등

### ■ 삶의 질을 지향하는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필요
  - 독거노인, 장애우, 다문화 가정, 외국인 등 고객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확대
-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 등산로, 휴가철 피서지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필요성 증대
- 응급의료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시책 추진
-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소생률 증가

## (4) 주민참여형 재난관리 강화

### ■ 상향식 재난재해관리 역량강화

- 지방화, 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방재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존 자율방재단, 새마을조직, 자원봉사 조직 등 민간조직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난대비 - 대응 - 복구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검토
- 주민중심 네트워크 조직의 재난대비 학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민간조직과 도·시군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 상시 운영 활성화
- 민방위 훈련시 시군별 주민참여형 시범훈련 매뉴얼 개발 및 실시방안 강구

### ■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

-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사회적 범죄예방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차원의 치안정책 마련

## 2) 추진시책

### (1)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방재 대응력 제고

#### ■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방재형 도시계획 종합 추진

- 최근의 재난관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종합계획 및 수해방지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일체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 강화
- 권역별 재해 발생가능성 진단 및 신개발지 수해발생 방지책 제시
- 각급 도시계획의 각 부문계획에 방재계획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 입안 추진
  -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우선적 개발대상에서 제외

- 노후시설물 지구의 정비로 재해의 사전적 예방
- 방재지구와 방화지구의 합리적 지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 시가지내 위험시설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난 최소기준 제시
-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의 재해가능성 예측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유수지,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치 의무화
- 홍수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수성 토지이용을 유도하거나 충분한 녹지 확보
- 농촌지역에는 홍수발생시 농경지의 자연적 유수지 기능을 강화
- 위험물을 분산수용하며, 대규모 사고시 피난을 고려한 방재완충지대를 설정
  - 도로, 주차장, 공지,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시설은 재해 시 피해 장소이자,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 시 충분히 확보
-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첨단 U-방재시스템 구축
  - 댐, 하천, 도로 등 방재기반시설과 모니터링 시설을 유비쿼터스, IT기술 등으로 첨단화하여 신속한 위치 및 상황 파악을 통해 현장성, 신속성 제고
  - 위험 시설물 및 이동차량 등을 실시간 추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물·시설물, 방재자원 등의 관리 고도화 추진

#### ■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종합계획 수립

- 종합설해 예방 및 대비책 강구
  - 거창, 산청 등 폭설의 피해가 잦은 서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대책 강구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지구 집중관리
  - 산악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및 농림시설 피해 경감대책 강구
  - 설해방재의 홍보강화 및 건축물 주변 책임제설 추진
- 가뭄재난 대책의 강구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빗물모으기 등을 통한 가뭄재해 저감대책 강구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지하수 조사내역 D/B화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지진재난 대책의 강구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적용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 활용
  - 위험시설물 및 화재예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강화
  - 방재관련시설 등의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보행안전도 제고

-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권내 보행 안전시설 보강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등
- 보행자가 많은 도로의 도로선형 개선, 보행로정비 등 도로시설 개선
- 교통사고 통계와 현장조사 및 유형별 최적의 도로정비 방안 마련
- 각종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위험교량에 대한 통행제한과 과적차량단속의 수시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 전기가스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별 책임관리제 실시 및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위험 정보 시스템 구축
  -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부근 관리 철저 및 산사태 및 지반붕괴 방지를 위해서 위험지구의 설정과 관리
  - 도로, 공항 부근 의료 응급체계 확보
  -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방설비와 소방기술 반영
  - 물 공급 부족시 발생하는 수리권 확보 및 도시지역의 물공급 안전도 고려
  - 내진설계를 강화한 도시계획시설물 축조 및 사회기반시설의 분산배치
  - 전기시설, 가스시설의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한 방화지구의 지정

#### ■ 풍수해 대책 추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풍수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기상관측 장비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 추진
  -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정비
  - 방재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실시
  - 자연재난대비 도민 정보제공으로 자율 방재의식 고취
- 홍수 예·경보시설의 개선
  - 인명피해 다발지역의 홍수 예·경보시설 개선

#### ■ 원전 안전대책 마련

- 원전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 안전대책 마련
  - 방사선지도 제작 등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조치 검토

#### ■ 지역 방재 및 재해지도 작성

- 선진화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방재지도 구축이 필요. 방재지도는 화재위험지도, 홍수 방재지도 등으로 구성되며 한눈에 재난 취약지구와 출동사각지역을 파악 가능
  - 첨단 3D GIS기법을 이용하여 건축물 침수나 사면붕괴 해저드맵 등 각 방재지도 및 지역 3차원

지도를 이용하여 예방시스템 및 교육에 활용

- 호우, 태풍, 해일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 흔적도를 제작·보존하고 공공건물 등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는 등 해 유형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 등을 활용하여 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

#### ■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대형 공장 등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민관협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 조선소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 심사 및 개선대책 마련
- 자연재난과 더불어 화재, 폭발, 붕괴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형사업장의 산업사고 예방조직 구성

## (2) 방재기반인프라 확충

#### ■ 방재언덕·방재공원 등 도시내 방재인프라 조성

-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해일로 인해 큰 인명·재산피해가 났던 창원시 마산 해안 일대에 방재언덕 조성
- 길이 1250m, 폭 30-90m, 높이 3m 규모
- 수목과 함께 바닥 분수, 광장, 산책길 등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
- 광역방재거점, 광역피난지, 1차 피난지 등이 되는 방재공원 및 「그린 오아시스(Green Oasis)」 등 도시의 방재구조를 강화하는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 방재공원과 학교, 병원, 복지시설, 관공서 등 관계 시설과의 연계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나 재해시 방재공원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방재공원정비 프로그램의 계획을 추진
- 초등학교와 도시공원을 핵으로 하여, 각종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 재해응급대책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범위 확대
- 재해응급대책시설(비축창고, 내진성저수조, 방송시설, 헬리포트)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재해시 피난지가 되는 도시공원」 이외에 「방재거점이 되는 도시공원」 및 그린 오아시스 등(1차 피난지와 같은 비축창고 및 내진성 저수조만을 대상)의 기능을 추가
- 방재공원시설로 자연에너지활용형 발전시설, 다목적 지하수조, 수질정화시설, 하천바닥, 해안 등을 방재공원으로 이용, 평상시는 야외 생활체험시설로 사용하고 재해시는 피난생활이나 식사 배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취사장을 포함

#### ■ 각종 재해위험지구 지속 정비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 자연재해위험 지구 총 129개 지구(1998-2020) : 2010년까지 45개 지구, 2011년 30개 지구, 2012년 이후 54개 지구 계획 지속적 정비 추진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 지방하천 257지구 790km : 2010년까지 185개 지구, 2011년 45개 지구, 2012년 이후 83개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 홍수방어 능력 제고와 함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2,986지구 6,271km(하천연장 3,528km) : 2010년까지 1,040지구, 2011년 41개 지구, 2012년 이후 1,905지구 계획
  - 직선 및 콘크리트 위주로 되어있는 소하천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해로부터 농경지 보호 등 재해예방
- 우수저류시설설치 : 25개소/1,630천m<sup>2</sup>(2009 ~ )
  - 2010년도까지 4개소, 2011년 4개소, 2012년 5개소, 2013년 이후 12개소
-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효율적 지정 및 관리대책 마련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방안 강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의 일부 국고지원방안 강구 등

### ■ 산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건강하고 안정된 경남의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의 확립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 도민 홍보강화로 인위적 산불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 산불의 조기발견,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동진화 체계 강화
  -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
- 대형산불 또는 일일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도로, 담수시설, 취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 산불담당 조직의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
  - 산불진화의 과학화·현대화(산불진화차 확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휴대용 무전기 등)
- 과학적·체계적 산불방지 대책
  - 산불진화차량,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방지 장비 확충
  - 임차헬기 운용 및 산불방지시스템 구축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 (3) 119 안전시스템 강화

#### ■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효율 극대화

- 노후차량 교체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 MAS제도를 통한 소방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소방차량 보강
-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 활성화 및 권역별 소방장비 정비센터 설치
- 현장 적응성 있는 첨단장비 보급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 ■ 현장밀착형 예방안전기능 강화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계 강화
  -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래시장, 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집중밀착 안전관리
  - 지역별·시기별·계절별 화재위험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 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 기초생활 수급자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속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추진.
- 특수한 건축물 등에서의 성능위주설계의 정착
  -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특수한 건축물 신축시 이에 맞는 소방시스템 구현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제도 정착
  - 성능위주설계 발전방안 모색(기업 등 경제살리기와 연계)
-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유지관리 강화
  -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화재, 폭발, 테러 등) 발생에 대비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3.9 시행)” 됨에 따라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종합재난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 지역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 유지관리를 강화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안전체험관 설치
  - 화재, 원자력, 풍수해,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별 체험시설 도입 및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ainment)적 공익시설 설치
  - 계층 및 수준별, 재난의 유형별 당향한 소방교육 실시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 안전체험교실 강화(소방서별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 배치)

#### ■ 신속하고 완벽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대응 기관단체별 유기적 대응 및 통일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국가기반 위기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보고와 함께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



- 적 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응 매뉴얼 총괄 관리 등 예방기능 강화
-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전 대비체제 진단시스템 도입·운영
-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 담당자의 재난 대응·관리 역량 제고
- IT기술을 통한 재난안전망 구축
  - 인터넷 전화, 4G활용, 119영상 접수기능 등 다양한 119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외국인 119헬프미 시스템 운영 등 미래환경에 맞는 안전망 도입
  -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 Wibro, LTE, IDEN 등 다양한 기술 접목
-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위기관리 선도
  - ITS(기능형 교통시스템) 접목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등 5분 이내 출동률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
  - 각 시·군 등 CCTV 통합관제센터와 소방상황실 연동 화재취약지역 밀착감시체계 구축
  - 핫라인 구축, 전담진압대 설치 등 초고층 건축물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 정례화 : 화재, 지진, 붕괴, 폭발, 방사능 누출 등 유형별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 ■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 생활밀착형 소방지원활동
  - 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친서민 중심 “119생활안전구조대” 확대·운영 ⇨ 동물구조, 위치추적, 문개방, 수도누수, 가스누출, 소방시설 오작동 등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24시간 비상진료를 위한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 수난, 산악지역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
  - 등산목 안전지킴이, 조난위치표지목, 간이구급함 등 설치·운영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저감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중환자노인전용구급차 보급 확대 및 응급의료 장비보강으로 고품격 구급서비스 제공
  - 선진국 수준의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 : 119 Heli-EMS 구축, 119종합상황실 응급의료 전문인력 배치, 전문병원과의 응급의료 인트라 마련 등

### ■ 범죄예방 도시공간 구축

-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기법 적용을 통한 도시취약공간에 대한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
  -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시 CPTED 디자인 인증 도입
-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 노인 및 장애인,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사회안전체계 구축

#### ■ 경상남도 종합방재센터 건립

-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종합방재센터를 건립
  -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 구축
  - 홍수, 태풍, 대형화재, 산불, 건축물 붕괴, 방사능, 폭발, 가스안전사고, 전기사고, 교통사고 등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재난 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교육프로그램 수립
  -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육 실시
  - 대피소의 지정·관리·홍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시군의 대비 및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군 안전성평가제도 확립
- 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상호지원시스템 구축
  - 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강우량, 재해 위험상황, 주민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제공
  - 재해유형 및 분야별 행동요령의 매뉴얼 구축 및 시군활용
  - IT기술 활용으로 재해발생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지역과 주민의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 제1장 행정계획

## 제1장 행정계획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과 도 업무 기능이관

- 2011.12월 현재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은 총 8시 10군, 5행정구 20읍 177면 121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0.7.1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2시가 줄어들고 5행정구가 늘어났으며, 2010.12.31 통영시의 6동이 3동으로 통·폐합되어 3동이 줄었음

〈표 4-1-1〉 경상남도 행정체제 현황(2011.12.22 현재)

시군	계	읍	면	동	출장소		면적(km <sup>2</sup> )	인구밀도(명)
					시군	읍면		
창원시	62	2	6	54			744	4,371
진주시	37	1	15	21			713	465
통영시	15	1	6	8			239	575
사천시	14	1	7	6	1		398	283
김해시	17	1	7	9	1		463	1,063
밀양시	16	2	9	5		1	799	138
거제시	19		9	10		3	402	562
양산시	13	1	4	8	1		485	516
의령군	13	1	12				483	63
함안군	10	1	9				417	160
창녕군	14	2	12				533	115
고성군	14	1	13				517	110
남해군	10	1	9				358	141
하동군	13	1	12				675	77
산청군	11	1	10				795	44
함양군	11	1	10				725	56
거창군	12	1	11				804	79
합천군	17	1	16				984	54
군 계	125	11	114				6,291	
시 계	193	9	63	121	3	4	4,243	
합계	318	20	177	121	3	4	10,534	

자료 : 경상남도청(www.gsnd.net) 홈페이지(2011.12.22)

-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변화, 행정서비스 및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 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주민불편과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주도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청됨

- 또한 2011년 2월부터 경상남도에서는 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도 기능의 시군이관을 추진하고, 관행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의 개선 등 행정력 향상과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개혁으로 '행정다이어트 제도'를 실시하였음
- 제1단계 행정다이어트를 통해 총 37개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60개 분야), 3단계(38개 분야)에서 시책분야, 출자출연분야, 자치법규 중복 분야, 업무방식개선분야에서 행정다이어트가 추진되고 있음
- 이를 통해 1단계 기대효과로 1,026백만원, 2단계 기대효과로 1,771백만원, 3단계 기대효과로 1,488백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음

〈표 4-1-2〉 행정다이어트 추진내역 현황 (2012.1. 현재)

구분	시책분야	출자출연분야	자치법규중복	업무방식개선	비고	기대예산절감 (백만원)
1단계	22	6	7	2	37	1,026
2단계	37	-	12	11	60	1,771
3단계	22	-	11	5	38	1,488

자료 : 경상남도청 내부자료, 2012.

## 2) 공무원 인력현황

- 경상남도의 공무원 정원은 2010년 현재 4,821명이며, 18개 시·군 공무원 정원은 17,408명임

〈표 4-1-3〉 2010년 공무원 기관별·직종별 정원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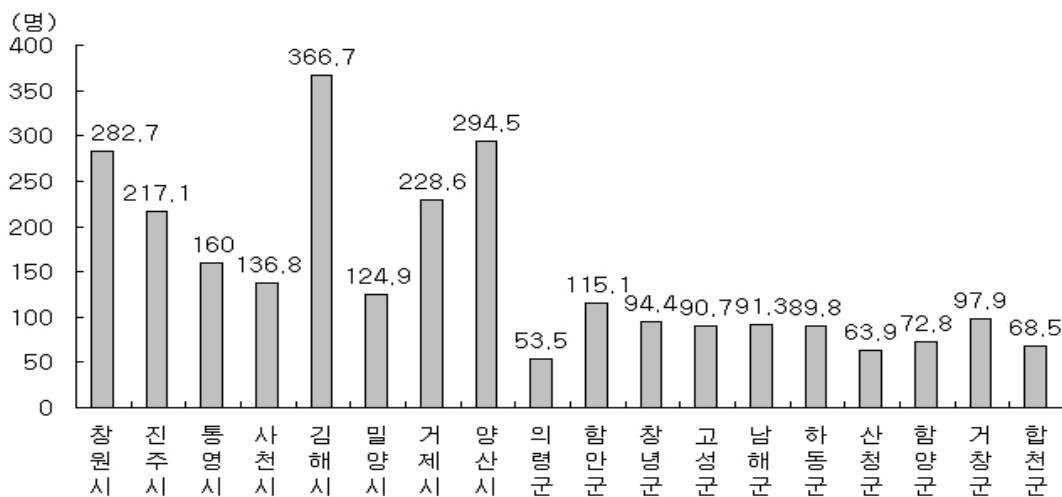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교육직	소방직
				소계	3급 이상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이하							
합계	22,229	19	3	15,629	15	5	154	25	1,205	4,371	9,854	2,683	478	244	334	74	2,765	
도	4,821	1	3	1,395	10	2	61	-	295	517	510	325	29	189	40	74	2,765	
시군계	17,408	18	-	14,234	5	3	93	25	910	3,854	9,344	2,358	449	55	294	-	-	
창원시	3,863	1	-	3,150	1	3	27	-	204	841	2,074	632	34	13	33	-	-	
진주시	1,598	1	-	1,268	1	-	9	-	82	332	844	271	34	4	20	-	-	
통영시	881	1	-	680	-	-	5	-	44	178	453	148	23	2	27	-	-	
사천시	834	1	-	669	-	-	5	-	45	179	440	118	30	1	15	-	-	
김해시	1,382	1	-	1,186	1	-	14	-	68	312	791	150	24	9	12	-	-	
밀양시	876	1	-	737	-	-	5	-	45	199	488	95	20	1	22	-	-	
거제시	995	1	-	829	1	-	7	-	52	220	549	124	26	3	12	-	-	
양산시	904	1	-	778	1	-	8	-	47	192	530	96	18	4	7	-	-	
의령군	558	1	-	438	-	-	1	3	28	122	284	77	26	3	12	-	-	
함안군	582	1	-	491	-	-	1	3	30	134	323	53	27	-	10	-	-	

창녕군	660	1	-	547	-	-	3	-	33	156	355	64	24	1	23	-	-
고성군	632	1	-	509	-	-	1	3	37	147	321	81	22	2	17	-	-
남해군	546	1	-	437	-	-	1	3	30	121	282	75	23	-	10	-	-
하동군	605	1	-	485	-	-	1	3	34	135	312	73	26	2	18	-	-
산청군	557	1	-	439	-	-	2	2	28	127	280	81	22	-	14	-	-
함양군	565	1	-	452	-	-	1	2	30	130	289	73	24	3	12	-	-
거창군	645	1	-	531	-	-	1	3	34	155	338	76	17	4	16	-	-
합천군	725	1	-	608	-	-	1	3	39	174	391	71	29	3	13	-	-

주 : 국가직공무원 6명 포함

자료 : 2010 경상남도 도정백서, p.27-28.

- 2011년 11월 현재 경상남도 전체 공무원수 대비 인구수는 평균 190.3명으로 나타났고, 김해시(366.7명), 양산시(294.5명), 창원시(282.7명)의 순으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으며, 의령군(53.5명), 산청군(63.9명), 합천군(68.5명)등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공무원 1명당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지역과 군지역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지역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인력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주민 편익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청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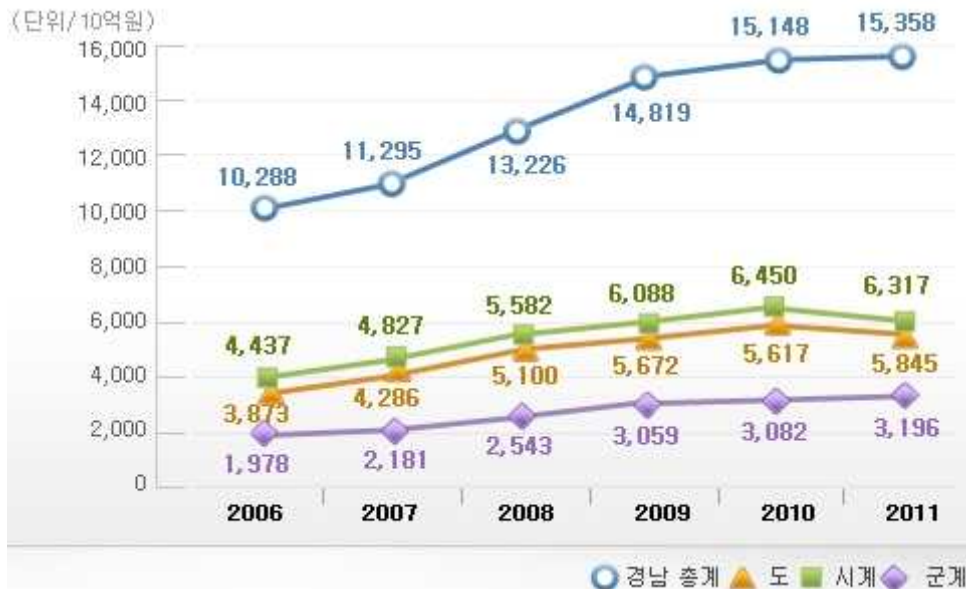
〈그림 4-1-1〉 공무원 1명당 인구수(2011.11.30 현재)

자료 : 경상남도청 내부자료, 2011.

### 3) 예산현황

- 2012년 경상남도 예산현황은 경남 총예산이 2011년 15조 3,58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10억원 소폭 증가하였으며, 도청의 경우 2011년 5조 8,45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28억원 증가하였음
- 시청은 2011년 6조 3,170억원으로 2010년 대비 -133억원 소폭 감소, 군청은 2011년 3조 1,960억원

으로 2010년 대비 114억원 소폭 증가하여 도청과 군청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 경상남도 예산규모

자료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www.gsnd.net), 2012.

#### 4) 실질적인 도정참여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 21세기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경상남도에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향후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촉진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전광역시와 더불어 경상남도가 2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표 4-1-4〉 2011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분야	건수	전년도예산			2011년 당초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산업경제	19	25,111	12,461	12,650	32,479	11,536	20,943	토론회:19 공청회:3
농수산	22	28,130	21,221	6,909	32,465	22,246	10,219	토론회:19 공청회:3
환경녹지	7	1,325	761	564	5,005	1,678	3,327	토론회:7
도시건설	20	298,575	194,617	103,958	315,304	183,291	132,014	토론회:23 공청회:2
문화관광	12	12,811	5,470	7,341	28,554	9,760	18,794	토론회:13 공청회:4
보건복지	20	15,691	5,299	10,392	20,922	6,402	14,520	토론회:16 공청회:6
일반행정	1	30	-	30	30	-	30	공청회:1
합계	101	381,673	239,829	141,844	434,700	234,913	199,847	토론회:97 공청회:19

-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경상남도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정책토론(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정보공개제도 등 다각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정보공개제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2007년 446건에서 2011년 961건으로 청구건수가 2배로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며 평균 공개율은 73.8%임.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2011년 정보통신망(84.8%), 직접청구(11.0%), 우편(2.6%)의 순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4-1-5〉 경상남도 정보공개 처리실적 (단위:건,%)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취하등)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3,933	2,388(100%)	1,768(73.8%)	329(13.9%)	291(12.3%)	1,513(37.0%)
2012.1월	60	28	26(93.0%)	1(3.5%)	1(3.5%)	32
2011년	961	585	433	61	91	376
2010년	898	545	445	52	48	353
2009년	865	523	372	83	68	342
2008년	703	426	297	76	53	277
2007년	446	281	195	56	30	165

자료 : 경상남도 열린행정과 공개협업담당, 공개협업담당 기본현황 내부자료, 2012.2 p.18



〈표 4-1-6〉 경상남도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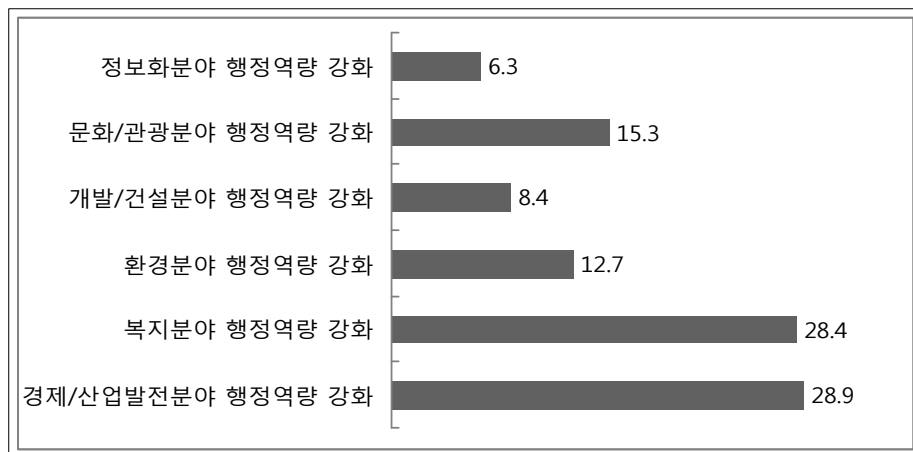
구분	전체청구건수	정보통신망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등
2012.1월	60	50(83.4%)	6(10.0%)	3(5.0%)	1(1.6%)
2011년	961	815(84.8%)	106(11.0%)	25(2.6%)	15(1.6%)

자료:경상남도 열린행정과 공개협업담당, 공개협업담당 기본현황 내부자료, 2012.2 p.18

- 이상의 성과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는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관련 정책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IT를 접목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수단과 방법의 융통성과 용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민사회단체·NGO를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모사업 다양화를 통한 정책집행방식의 협업화가 검토가 필요함

## 5) 행정분야 역량강화 관련 도민의 수요분석

- 도민대상 설문조사에서 경상남도 및 시군의 행정역량 강화분야로 경제·산업분야(28.9%), 복지행정분야(28.4%)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화·관광분야(15.3%), 환경분야(12.7%)를 들고 있어 경제와 복지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행정역량이 강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4-1-3〉 경상남도 시군 행정 역량 강화 분야

## 2. 여건변화 및 전망

### 1)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및 지방화 가속

- 21세기의 지방정부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규제자에서 서비스 공급자, 지역발전자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확산되고 있음

-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의 분산, 의사결정과정의 상향적 전환,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이 강조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은 분권과 개방을 통한 열린 행정(Open Government)의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정책기조를 통해서 융합·소통·공유에 기반한 정보공개와 중요성 등 민관협력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추세임

〈표 4-1-7〉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구분	규제자	서비스 공급자	지역발전자
목적	합법성, 균등성, 공공질서	시민만족, 효율성, 경쟁	사회적응집력, 참여, 소유
매개체	국가, 정부	시장, 계약	네트워크, 참여
논의유형	법률적 이해	정치적 이해	정치적 이해
변천	Government 계층제+법률 중심 지방정부:유일독점체제	⇒	Governance 여러 사회집단의 수평적 협력 지방정부:단지 주요 역할

자료 : Banner, Gerhard(1999),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German Local Authorities Between Regulation, Service Provi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Governance and Local Autonomy in the 21st Century, Academic Symposium,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at Hanyang Univ.

## 2)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의 가속화

- 지방분권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제정되어 각 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음
- 주요 과제로는 중앙-지방간 기능 재배분, 지방조직의 통합성 확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자치역량 강화가 제시되었고,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사무 구분과 지방행정 체제개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등 분권국가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표 4-1-8〉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단위 : 건)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이양 확정	2,746	361	251	478	53	203	80	88	54	697	481
지방이양 완료	1,550	94	146	164	204	436	44	131	118	82	131

자료 : 2011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2011, p.279.

〈표 4-1-9〉 부처별 지방이양

부처별	이양확정	이양완료	미이양
계	2,746	1,550	1,196
방송통신위원회	58	25	33
공정거래위원회	16	7	9
기획재정부	30	21	9
교육과학기술부	127	64	63
외교통상부	9	9	-
법무부	2	2	-
행정안전부	90	64	26
문화체육관광부	130	108	22
농수산식품부	220	168	52
지식경제부	221	124	97

자료 : 2011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2011, p.279.

### 3)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부 구현 및 스마트 워크 시대 도래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보의 분석·공유·개방으로 통합형·개방형 정부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에 기반한 생활·현장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열린 정부, 스마트 정부를 제시하고 있음
-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생활안전·재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전자정부 등에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4-1-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 개념(2011.12.13)

#### 4)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최근 정책변화

##### (1) 행정안전부 2012년 행정계획

- 행정안전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비전을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일류국가’로 설정하고, 재해난·정보보안, 지방자치 강화, 조직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4대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러한 방향설정에 따라 재난관리, 자치제도 확립, 스마트 정부 구현,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역량강화에 관한 세부 추진시책 16개가 제시되었음

##### (2) 경상남도 2012년 행정계획

- 경상남도는 2012년 정책목표를 공개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도정구현으로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로서 도정 조정기능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화, 도민중심의 성과평가,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 도민 참여 예산편성, 계획재정 및 국고확보, 고품질 법무행정, 스마트 경남 등을 제시하였음
- 특히 도정의 조정기능으로 도의회와 협력체계, 시도지사협의회 및 동남권 등 광역행정협의체 내실화를 강조하였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여성참여를 제고한 운영 활성화, 행정사무위임 축진을 위한 행정다이어트제도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다이어트제도 등 다각적인 효율화 정책을 실시함
- 또한, 도민중심의 디지털 정보복지를 통해 개방형 WIFI 구축(2,197개소), 유비쿼터스 존 확대 조성(2개소), 모바일 활성화에 대응한 공개협업 도정 등 스마트 경남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제시하였음

〈표 4-1-10〉 경상남도청 열린행정과 2012년 행정계획

구분	사업명
1	공개와 소통, 열린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정발전 구현
2	동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발전 방안 지속 추진
3	지방행정체제개편 대비 만전 및 지방분권 강력 추진
4	공개, 협업을 통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기능 강화
5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6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및 안보체계 구축

자료 :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작성, 2012.

〈표 4-1-11〉 경남 시군별 2012년 행정계획

시군명	추진시책 및 세부사업	
창원시	365일 열린행정 구현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 추진, 방문생활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 「백만 희망창작소」 운영 개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기능 확대
	「민원콜센터」 서비스 운영	온라인 상담서비스 기반 구축, 민원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환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구현	친절UP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심판위원회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
진주시	자치시정 역량 강화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새로운 시책 및 정책제안 활성화(공무원, 시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직원역량 강화
	투명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시민감동 민원관리제 운영,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운영, 오케이민원 운영, 120기동대 운영, 지출알림 문자 서비스 실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청렴도 향상,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 홍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홈 페이지 구축
통영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후생복지 추진, 협력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립, 통영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신규전입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남해안 중심 통영건설을 위한 work-shop 훈련,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통영시 주소갯기 범시민운동 전개, 시장 1일 읍·면·동장 체험활동 실시, 섬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재외 향인회 운영 활성화	
사천시	활력이 넘치는 근무여건 조성	신명나는 후생복지제도 시행,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역안정 및 조직 활성화	공직선거 완벽추진, 조직단체 활성화, 지역안정대책 강화
	공정한 인사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앞서가는 인재육성	평생학습진흥 기반 조성, 글로벌 지역인재육성 추진
김해시	시민 편의시책 추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폰 기반 시 홈페이지 구축, 여권발급 풀(Pool) 서비스 지원(2~3시간 야간연장 발급), 생활공감 120기동대 운영, 거동 불편민원인 서류배달 서비스 시행
	참여와 소통이 있는 투명한 행정 실현	민선5기 전반기 “시민과의 대화” 개최,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구축, 공직 내·외부 청렴문화 확산,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계약 심사제 운영, 공정·투명한 회계질서 정착
	대도시 행정체계 구축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가입, 지방행정체제 개편(동일한 역사와 생활권인 부산 강서구와 통합 추진), 재정 건전화화를 위한 “제2 구조조정”
거제시	마음소리를 담는 일사천리 대민행정 실현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 장기대부 국유재산 일제 처분,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수양동, 고현동 주민센터), 국·공유재산 공개매각 확대, 유기한 민원처리 연대예고제 실시, 건축 복합민원 One-Stop운영, 공중위생 민원전화 예약제 실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업무 추진, 건축물 품질향상 “감리 기부” 서비스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정 구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시정 구현, 방송언론 기자단 소통 활성화,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흔들림 없는 소신,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안정적 재원확보와 신뢰세정 구현, 탈루·은닉

	민음의 투명 행정	세원의 최소화, 계약정보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민공감! 고효율의 실용행정	국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BSC(균형성과 관리제) 운영, 행사축제경비 성과평가단 운영, 「거제에서 이런 일 이」 발간,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 주요사업 D/B관리, 「Blue City 거제 영상기록물」 영구보존,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FAX Server시스템 도입, 옥포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 설치
	생활속 작은 실천! 미소행정 실현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무료 법률상담 등), 친절한 거제만들기 운동 전개, 「2012 친절 전진 캠프」 운영,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배포, 세외수입 ARS납부시스템 도입, 지출알림 문자서비스(SMS)제공, 토지이동 신청 민원처리 개선,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 개발행위 안허가 사전 협의 실시,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성수기 숲속의 집 예약 추천제 도입
양산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공직내부 실천노력 강화, 고객만족 해피콜 운영
	열린시정 운영	주요시책, 현안사업 연중 공개, 이동집무실 운영, 시책간담회 활성화 토론 중심의 회의운영
	공명선거 실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행정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	직원역량 강화교육, 시책토론회 개최, 통합 성과관리 및 평가, 조직문화 혁신 'AA운동' 활성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민원사무 처리가한 단축, 창업민원 원스톱 처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지적관련문서 DB 구축
의령군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	군민 만남의 날 운영 확대(의령, 부림), 직소민원 적극해결, 농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순회간부회의·「1마을 1공무원 담당제」 등 현장행정 강화, 군·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 강화, 지역향우·출향공무원과의 교류협력 확대(군정설명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음주운전 제로화 등 청렴문화 정착,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투명성 제고(사전예고제), 주요핵심 군정의 추진성과 전략적 홍보 강화, 군정발전 자문 정례 토론회 개최
	생활공간 열린 민원행정 실천	민원사전 예고제 시행(불이익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등), 복합민원 one-stop민원처리 강화, 고객만족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정밀 연속지적도 DB구축 기초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 수립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의령 통과 확정관련 연계사업 구상, 함양~의령~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연계사업 발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단위사업 추진(2010~2014), 성장축진지역(신발전지역) 종합계획 협력 추진(2011~2015),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단위사업 추진(2011~2015)
함안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 공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생산적 선진노사 문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함안군 정책자문단 운영,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지역 정보서비스 활성화 추진,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개인정보솔루션 및 암호화 S/W 도입, 인터넷 전화 전환 추진, 정보통신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확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군정 인터넷 홍보·소통 강화,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 외국인·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함안군 블로그 기자단 운영, 본체없는 컴퓨터 보급	

창녕군	군민·현장 중심의 선도적 행정서비스 제공	『oh! yes(5s : smile, speed, simple, soft, smart) 실천운동』 추진,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Happy Call 서비스, 실시간 고객만족 모니터링,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 추진, 군민 섬김 민원행정 실현 도로명주소 고자고시 시행결과 집중 홍보 및 도로명주소 기념품 제작 배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및 민원인에게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 전달, 지적공부 복합시스템 구축 및 지적임야도면 도곽접합 오류 정비,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 공유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및 낙동강연안 자치단체연합 적극 참여, 창녕군 기본계획 재수립(2012~2014년), 1만명 인구증가 추진, 창녕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2013~2018년), 제2차 창녕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012~2016년), 국제정보 교류
	군민이 감동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등 정보 소외계층 통신기기 보급 추진,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능력 향상,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및 문화관광 개선, 안전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참여와 소통으로 열어가는 공감군정 실현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후 군정 반영, 군민화합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 허가민원 처리 투명화, 재정운영, 회계업무의 투명화
	군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기획보도 중심의 다양한 군정 홍보, 대도시 광고물 홍보, 군정홍보 DVD 제작 활용, 신문·잡지 등 지면 광고, TV방송 광고, 블로그를 활용한 사이버 홍보, 군정백서 발간(300부), 군정추진상황 홍보자료 배부, 창녕소식지 발간배부(30,000부)
고성군	고객감동 실현 민원서비스	민원인의 편의제공, 고객맞춤식 민원시책 추진, 친절이 앞서가는 민원실,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군민을 섬기는 공무원상 정립	맞춤형 인사행정의 신뢰성 확립, 직무중심 교육훈련 강화, 선진화된 공무원 복지,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남해군	컴맹 없는 보물섬 남해 만들기	다양한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IT 교육, IT 실버-벨 이벤트 개최
	지식경영시스템 운영	독서 토론, 독서통신교육, 독서 감상문 경진대회 등
	퓨처마킹을 통한 행정혁신과 창의행정 구현	선진기업의 경영기법과 혁신사례 전문연구기관의 수익 창출방안
	‘스마트 남해’ 구현	모바일 서비스 구축으로 열린 군정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창립	동서남해의 대표 8개의 섬 자치단체 참여, 공동번영 추구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복합청사 신축	질의 종합행정서비스 제공(2012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3년 : 신축사업 추진)
하동군	군민불편해소	
	행정행태쇄신	
	내부고객 신바람	
산청군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공직자상 정립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공정선거 실현, 성과와 균형인사로 조직역량 강화, 화합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군민사랑 맞춤형 민원행정 실현	군민주도 열린행정, 주민참여형 행정확대(주민공사감동제, 명예감사관제, 예산편성 등), 군민정보화교육추진
거창군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 교육강화로 전문행정 인재 육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군민만족행정 구현,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완벽 추진, 주민자치센터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별 중점사업 추진으로 역할 제고, 향우회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군정역량 제고,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지역정보화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창조 거창의 행정달인 발굴육성, 도전! 팀 스피리	

	트(Team Spirit) 워크숍 개최,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거창의 국제화 수준 업 그레이드, 군청 주차시설 장비 개선, 소셜 미디어 활용한 군정 온라인 홍보	
합천군	행복한 합천 만들기 행정업무 지원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 누수없는 자치행정 실현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	성과와 실적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인력 육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부분적 조직 정비
	정보통신 장비와 보안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통신장비 운영, 체계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스마트 시대에 맞는 대민정보 서비스 확대	합천군 홈페이지 개편 구축,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서비스 구축
	생기도는 직장 분위기 조성	동반자로서의 노사 협력문화 조성,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직장동호회 활성화
	민방위 사태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민방위 실천, 비상대비 태세 확립,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

자료 : 각 시군 주요업무계획 참고 작성, 2012.

###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1) 계획목표

##### ■ 분권과 소통의 스마트 경남 구현

- 경상남도 현황 및 국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경상남도 지역경쟁력 강화, 대·내외적 연계·협력, 조직역량 강화 및 대민서비스 강화 등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역할을 검토하여 ‘분권과 소통의 스마트 경남’ 으로 계획목표 설정

##### ■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계획 거버넌스 강화

- 시·군-경남도, 주민과 행정 등 지역사회 구성주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도종합계획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호 신뢰형성 및 계획의 효율성 제고

##### ■ 고신뢰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 도종합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의 강화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추진

#### 2) 추진전략

#####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분권화, 광역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분권 로드맵에 의한 경상남도 분권화 노력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와 적극적 수행이 요구됨



-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위임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경상남도의 자치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및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는 광역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경상남도로 이양할 행정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 및 요구할 것이 필요하고, 기초차원에서 경상남도로부터 기초시군으로 이양할 사무배분과 정비가 요구됨
- 또한 지방분권을 민간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 도출 및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도민간 인식전환, 주민자치회 설치, 시민단체 육성, 지방의회와 연계 등 민간참여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의 지방분권 로드맵 구축, 중앙-지방, 광역-기초, 경상남도-민간분야, 지방의회 활성화 등 각 주체 간 역할분담, 체제정비,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구성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청됨

#### ■ 수요 맞춤형 행정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 도민 수요설문조사를 통해 행정역량 강화 분야로 경제·산업분야(28.9%) 및 복지분야(28.4%)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러한 분야에 대응한 행정역량 또한 강화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분야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촉구됨
- 또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42.3%)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다음으로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36.5%)으로 나타난 만큼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정보 및 행정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고, 신속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것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행정 내부적으로는 합리적·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소통과 신뢰의 열린 도정 체제 안정화

- 공개·협력·소통 등 거버넌스 체제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중요함
- 기존의 도민참여제도의 제도적 정착, 도-시군간 지식공유 네트워크 활용, 정보공개 등을 강화하여 도민의 소리가 경상남도에 전달·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정착과 안정화가 필요함

### 3) 추진시책

####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 ■ 지방분권촉진 체제 구축

- 경상남도 지방분권촉진 로드맵 구축

- 경상남도분권촉진조례(가칭) 제정
-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 동남권 광역화 대응
- 시군 통합 대응 및 조정

#### ■ 행정위임사무 발굴 및 정비

- 행정다이어트 제도 확대 및 적용
- 중앙-도-시군간 위임사무 발굴 및 이양추진
- 행정책임제 및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 (2) 수요맞춤형 행정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 ■ 모바일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 모바일 기반의 행정업무 전환 대비
- 경상남도 스마트워크 및 행정업무 대응

#### ■ 혁신적인 조직관리 및 성과시스템 구축

-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한 상시 조직진단 체계 구축
-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추진
- 순환보직(도-시군)의 다양화
-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 ■ 분야별 행정역량 강화 및 정책품질 구축

- 현장행정의 체계화 및 전문화
- 분야별 국제 전문가 및 법무 행정 강화
-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과정 및 예산다이어트 정착화
-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제 실시
- 정확한 경남통계 생성 및 민간제공

### (3) 소통과 신뢰의 열린 도정 체제 안정화

#### ■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도민간 협력체계 강화

- 중앙부서와 경상남도·시군 간 연계통로 활성화

-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 광역자치단체장간 협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경상남도, 의회, 민간단체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 주민의사소통 창구의 제도화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 도민자문단 제도의 정착화
- 도민제안제도 활성화 및 행정정보공개 강화

#### ■ 모바일 기반의 정책소통 채널의 다각화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다양화
- 홈페이지 개편
- 모바일기반의 공개협업 구현

### (4) 계획 거버넌스 강화 추진

#### ■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발전의 광역화에 따른 계획행정의 광역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감. 지속적인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남권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영남권 등 인접 광역경제권과의 경제적·행정적 광역계획을 추진

#### ■ 경상남도와 시·군 상호 간 협력체계 강화

-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시·군과 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특히, 성장벨트, 도시권 육성 등 시·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남도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

#### ■ 도와 주민 간의 협력에 의한 시책사업 추진

- 계획정보의 주민공개 및 제공을 통해 도민의 도정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한 알권리를 보호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시 공청회 등 기존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견 수렴기능 강화

#### ■ 경남도 부문별 기본계획과 도종합계획간의 연계강화

- 환경, 교통 등 부문별 경남도 기본계획 수립시 도종합계획 반영여부의 진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5)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 ■ 공공갈등 분석기관 설치

- 도종합계획 등 지역차원의 시책사업 추진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발생의 원인분석 등 전담기구 설치. 전담기구를 통해 공공갈등의 동향분석, 사업 추진이전에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측, 갈등의 요인검토 등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 노력
  - 경상남도 갈등관리센터 설치 등

### ■ 갈등관리 협의기구 설치

-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등 협의기구 설치 및 갈등 최소화 노력
  - 도 및 시군의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 ■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지역 갈등관리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경상남도 갈등관리조례 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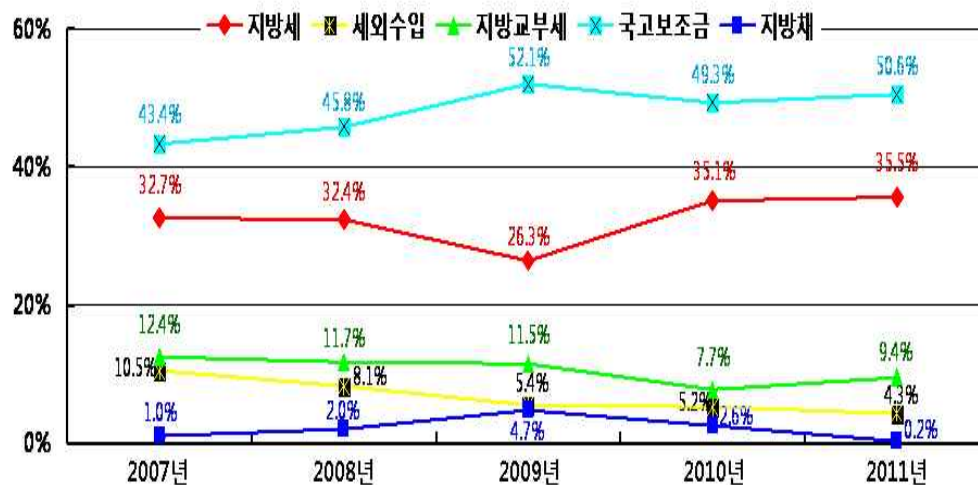
## 제2장 재정계획

## 제2장 재정계획

### 1. 현황 및 여건분석

#### 1) 세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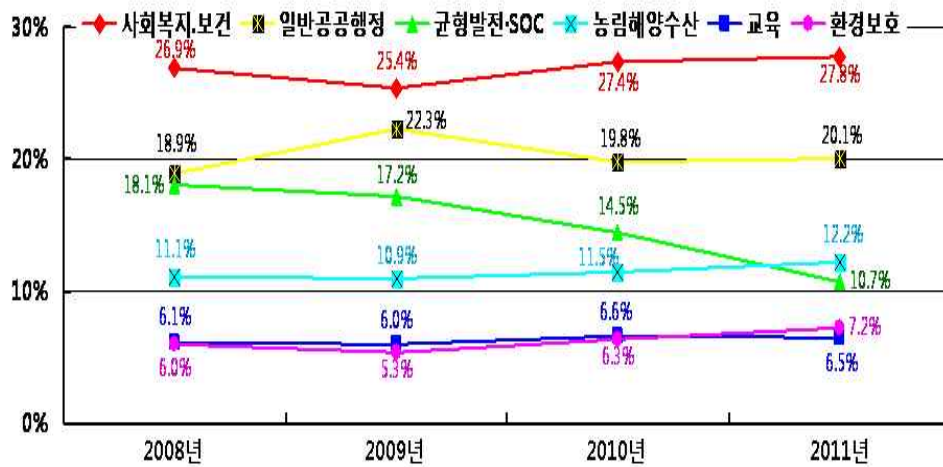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 지방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 재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세제구조로 세입의 불안정이 지속됨
- 국가보조금의 증가추세에 따른 의존재원 비중의 증가로 재정의 자주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채 감소에 따른 세입규모는 축소되나 재정의 건전성은 개선 중



〈그림 4-2-1〉 경남의 세입구조 현황

#### 2) 세출구조

- 전반적으로 사회개발분야의 지출비중이 경제개발 분야의 지출비중보다 더 높은 선진국형 세출구조로 이행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개발분야의 지출 증가는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지출억제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균형발전·SOC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및 적정 수준 관리가 요구됨



〈그림 4-2-2〉 경남의 세출구조 현황

### 3)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으로 경남 본청(35.2%), 시 평균(31.7%), 군 평균(14.9%)로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남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국가적 대책이 요구됨. 또한, 도내 시·군간 심화되는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표 4-2-1〉 경상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2011년 현재)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상남도 평균	31.2	58.3
경상남도	35.2	45.0
창원시	48.0	72.6
진주시	27.3	70.3
통영시	22.5	62.3
사천시	18.6	60
김해시	38.8	65
밀양시	18.6	65.1
거제시	39.1	68.6
양산시	40.4	66.1
의령군	16.7	64.5
함안군	26.2	65.4
창녕군	15.6	65.5
고성군	15.7	62.6
남해군	12.6	62.1
하동군	14.3	59.4
산청군	14.6	63.5
함양군	11.3	56.2
거창군	10.7	60.2
합천군	11.6	62.1

자료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www.gsnd.net)

- 경상남도 전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 재정자주도는 58.3%이며, 창원시(48.0%), 양산시(40.4%), 거제시(39.1%)의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음
- 재정자주도는 창원시(72.6%), 진주시(70.3%)의 순으로 높아 시군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간 지역격차가 발생하여 상향조정 및 수렴되도록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것이 요청됨

## 2. 향후 과제

- 지방세제개편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른 재정분권 강화
  -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을 통하여 중앙에 집중된 세원의 지방이양 실현
  - 현행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및 재정책임성을 확보
-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
  - 국가의 재정력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재정분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예견됨
  - 독립적인 재정운용에 필요한 세출분권과 함께 세입분권이 전제됨으로써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운용으로 재정 계획성 제고
  - 합리적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계획성 제고로 재정의 신뢰성 회복
- 균형발전정책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
  -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도내 시·군 간 불균형 완화
  -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의 개발사업 및 투자수요에 가중치 부여
-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와 민자유치 활성화
  -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의 다각적 재원조달 방안 강구
  -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성과 실현성이 있는 투자사업의 적정성 평가 강화와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 효율적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 주요 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통합운영으로 지방재정시스템 정착
  - 중기재정계획과 주요 법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로 사업의 실효성 담보
  -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예산제, 심사평가가 연계된 예산평가체제 확립



### 3. 중장기 재정추계

#### 1) 추정방법

- 재정의 세입·세출 예측은 재정편성의 기초적인 작업이며 효율적인 사업결정과 집행을 위해서 이용가능한 재정의 예상액과 필요한 자원량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정예측이라 함
- 장래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려면 지방재정 예측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재정예측기법은 회귀분석이나 시계열분석 등 계량형 예측모형과 일정한 비율이나 탄성율을 감안해 과거의 증가율 등을 고려한 적상형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본 계획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큰 오류가 없는 계량형 예측모형(추계모형  $Y = a + bt$ )을 활용하였음

〈표 4-2-2〉 경상남도 재정의 전망과 예측 기준

구 분		과거추세 (2001~2010)	미래전망 (2011~2020)	추계기준 (모형)
세입	지방세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Y = a + bt$
	세외수입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Y = a + bt$
	지방교부세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Y = a + bt$
	보조금	불규칙 증감	점진적 증가	$Y = a + bt$
	지방채	일정 증가	일정 감소 후 유지	
	계	일정 증가	일정 증가	
세출	일반행정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Y = a + bt$
	사회개발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Y = a + bt$
	경제개발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Y = a + bt$
	민방위비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Y = a + bt$
	지원 및 기타	일정 증가	일정 증가	$Y = a + bt$
	계	일정 증가	일정 증가	

- 지방재정예측기법은 지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에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 경상남도의 지방재정예측은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결산자료, 경상남도의 지난 10년간(2001~2010)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수행하였음
- 한편, 세입부문에서 지방채의 경우, 2013년부터 1,50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지방채 관리계획에 따라 추계모형을 산출하지 않고 예산계획금액을 적용하였음

## 2) 예측과 전망

### 총괄

- 지방재정의 예측과 전망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조사된 자료에서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별 추계모형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 지방재정의 경우, 각종 자료의 편차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재정예측 및 전망의 기준년도 재정규모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된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결산자료와 경상남도의 결산서 자료를 이용하였음
- 한편, 지방재정법에 의해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출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출은 1998-2007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모형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측하였음
- 그 결과, 예측된 총 세출액이 경상남도 결산서의 총 세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세출의 미래전망은 2001-2007년 결산자료와 2008-2010년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추계모형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였음
- 또한 세입의 경우 2001-2004년까지 있던 지방양여금이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에 통합되어, 2004년 이전의 지방양여금은 보조금에 포함시켰음
- 경상남도의 재정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1년에 6,042,979백만원, 2012년에 6,330,893백만원, 2013년에 6,594,208백만원에 이르고, 2020년의 세입규모는 8,422,011백만원으로 추산되었음
- 또한 세출의 경우 2011년에 5,549,585백만원, 2012년에 5,842,513백만원, 2013년에 6,135,441백만원에 이르고, 2020년의 세출규모는 8,185,937백만원으로 추산되었음
- 경남의 세입은 세출 보다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어 재정구조상으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외형상 재정구조가 건전해 보이는 것과 달리, 내용적으로 자체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향후 중앙과 지방간에 재정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됨

### 세입 전망

-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은 경제성장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예측가능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세외수입도 경제성장률과 징수실적의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지방교부세 역시 지속적인 내국세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일정한 폭으로 증가할 것임
-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4-2-3〉 경상남도 재정의 규모전망(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총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금액	증가율					
2011년	6,042,979	-4.39%	1,790,012	1,135,388	570,495	2,426,084	121,000
2012년	6,330,893	4.76%	1,897,750	1,150,574	579,041	2,555,728	147,800
2013년	6,594,208	4.16%	2,005,488	1,165,760	587,588	2,685,372	150,000
2014년	6,855,323	3.96%	2,113,226	1,180,946	596,135	2,815,016	150,000
2015년	7,116,438	3.81%	2,220,964	1,196,132	604,682	2,944,660	150,000
2016년	7,377,552	3.67%	2,328,702	1,211,318	613,228	3,074,304	150,000
2017년	7,638,667	3.54%	2,436,440	1,226,504	621,775	3,203,948	150,000
2018년	7,899,782	3.42%	2,544,178	1,241,690	630,322	3,333,592	150,000
2019년	8,160,896	3.31%	2,651,916	1,256,876	638,868	3,463,236	150,000
2020년	8,422,011	3.20%	2,759,654	1,272,062	647,415	3,592,880	150,000

### 세출 전망

- 일반행정분야의 지출은 사회개발분야나 경제개발분야의 지출에 비해 가장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사회로 발전·변모됨에 따라 사회개발분야의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사회개발분야 지출이 경제개발분야의 지출을 상회하는 소위 선진국형 지출구조로 변화되어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경제개발 분야의 지출은 경남의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산업 인프라 및 R&D 등에 투자되는 항목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경남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4-2-4〉 경상남도 재정의 규모전망(세출) (단위:백만원)

구 분	총세출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금액	증가율					
2011년	5,549,585	-4.26%	728,039	2,372,101	1,767,074	186,390	495,981
2012년	5,842,513	5.28%	773,951	2,508,627	1,836,808	197,956	525,171
2013년	6,135,441	5.01%	819,863	2,645,153	1,906,542	209,522	554,361
2014년	6,428,369	4.77%	865,775	2,781,679	1,976,276	221,088	583,551
2015년	6,721,297	4.56%	911,687	2,918,205	2,046,010	232,654	612,741
2016년	7,014,225	4.36%	957,599	3,054,731	2,115,744	244,220	641,931
2017년	7,307,153	4.18%	1,003,511	3,191,257	2,185,478	255,786	671,121
2018년	7,600,081	4.01%	1,049,423	3,327,783	2,255,212	267,352	700,311
2019년	7,893,009	3.85%	1,095,335	3,464,309	2,324,946	278,918	729,501
2020년	8,185,937	3.71%	1,141,247	3,600,835	2,394,680	290,484	758,691

주 :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음

## 4.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 계획목표 : 효율적인 지방재정시스템 확립으로 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 ▮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 모색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정기반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증가하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의 주요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 안정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행정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적 재원확보의 다각화 추진
-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감. 갈수록 낮아지는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지원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강화 요청

####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투자재원 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 강화와 예산집행의 성과평가활동 강화 등 전략적·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감. 이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제고
-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경직화 해소 등 민간경상이전경비에 대한 재평가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 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보조사업 발굴 확대,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적극 운영 및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점검 강화
-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 강화

#### 투자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체계 강화

- 비용편익분석 등 지역차원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과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평가체제 확립
- 도 차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역투자사업 평가기구 설립 등 추진

####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활용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방재정운용 시스템을 강화해 나감. 현장중심의 재정투·융자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도 추진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를 추진하여 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운용을 강화함

#### 재정관련 계획간 협력시스템 구축

-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 추진
- 미래를 대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가사업과 도 현안사업과의 연계체계 강화 추진
-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 자주적 재정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입구조의 합리적인 개편 추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세원배분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세수입의 자치성을 확보한 후 추가적인 지방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2에서 6:4 수준으로 개편 추진
-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의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나감.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단순히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최저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행

- 행정체제의 개편시 지방교부세제도를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정책효과를 제공함

#### ■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재정체계 확립

- 경남도의 장기발전 방향,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새로운 정책, 현안사항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의견반영을 위해 도민의 쌍방향 참여시스템 강화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재정공개 제도의 확대운영 추진

## 제3장 투자사업계획

## 제3장 투자사업계획

### 1. 투자계획의 개요

#### 투자사업비 규모

- 2012년~2020년 기간동안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액은 72조 5,496억원 정도로 추정됨

〈표 4-3-1〉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부문별 투자사업비 내역(단위 : 억원)

부문	계획기간 사업비	연도별		재원별		
		2012- 2015	2016- 2020	국비	지방비	기타
총계	725,496	290,207	435,289	488,057	126,935	110,504
지역개발	26,243	13,321	12,922	11,915	14,031	297
산업경제	25,951	10,383	15,568	8,331	8,412	9,208
문화관광	55,068	40,862	14,206	10,821	15,788	28,459
사회기반	346,082	117,384	228,698	254,660	20,809	70,613
복지 및 생활환경	121,793	54,249	67,544	85,273	36,296	224
자원개발	53,761	12,399	41,362	43,212	9,671	878
농산어촌	59,674	26,298	33,376	44,129	15,545	0
기후변화 및 환경	36,924	15,311	21,613	29,716	6,383	825

####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물류 등 사회기반부문이 34조 6,08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으며, 복지 및 생활환경부문 12조 1,793억원, 농산어촌부문 5조 9,674억원 순으로 추산되었음
- 주체별 분담내역을 보면 사업전체로는 국비가 48조 8,0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가 12조 6,935원, 민자 등 기타가 11조 504억원 순으로 추산되었음



## 2. 투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 1) 추진방향

#### ■ 국비 및 지방비 확보방안 구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 72조 5,496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민자, 지방채 등)에 의해 조달
- 따라서, 국비, 도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자체 재원조달과 분담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부분의 국비 구성은 25조 4,660억원으로 도종합계획 전체 사업비의 약 35.1%에 해당
  - 광역 인프라 중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명확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계획으로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협력 추진

#### ■ 민간자본의 최대한 활용

- 투자비용의 조달에 있어 민간투자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음

#### ■ 사업비 조기투입을 통한 조기활성화

- 사업 관련 기본 인프라사업비 산정은 기 계획 중인 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및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사업비의 조기투입에 중점을 두고 전략 수립

### 2) 추진전략

#### (1) 국비 확보 방안

####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한 대응력 강화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실과별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확보를 전담 팀을 운영하여 적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사업별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성 강화

- 국가사업, 국비보조사업 등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를 위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논리 개발

## (2) 지방비 확보 방안

### ■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과 중점추진과제 전략적 지원에 있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미흡, 집행부진사업을 축소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종합계획 재정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
- 중앙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요 SOC 관련 현안사업 중앙정부 제안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고보조 비중 확대에 따른 재정 자율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자체 ‘국고보조사업 점검반’ 운영을 통한 지원효과 분석, 전달체계 및 지방비 부담능력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3)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 적극적 외자유치 확대


- 세계화 개방화의 가속화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자본만이 아닌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수기반 확대를 도모
  -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 우수기업에 대한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함
- 세계 유수의 기업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역내 생산 및 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세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 국내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 민간자본 유치방안으로는 BTL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를 고려



## 제1장 서북부권(서북부 성장촉진권)

1. 합천군 : 아름다움(美)·푸름(綠)·사람(人)의 GLOBAL CITY
  2. 산청군 : 지리산 청정골의 자연을 느낄수 있는 Eco-Valley City
  3. 함양군 : 남부내륙 녹색문화 중심도시 함양
  4. 거창군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창조도시
- 

## 제1장 서북부권(서북부 성장촉진권)

### 1. 합천군 : 아름다움(美) · 푸름(綠) · 사람(人)의 GLOBAL CITY

#### 1) 기본목표

- 변화하는 열린행정
- 균형있는 지역개발
- 희망있는 복지합천
- 테마있는 문화관광

#### 2) 추진전략

- 사람과 자연이 어울러지는 녹색미래도시 건설
-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녹색 지역경제기반 구축
-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축
- 서북부 경남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통발달의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합천

#### 3) 발전방향

#####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미래도시 건설

- 생활권의 분산배치로 인한 각 생활권 연계, 중심지재생을 통해 거점으로의 기능 재생을 통하여 도시재생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유도
- 높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지역의 재난·재해·치안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하여 기초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민 유출 방지
- 녹색성장계획의 도입으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첨단기술 도입으로 도시서비스 수준향상하여 첨단기술과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미래도시 구현

##### ■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녹색 지역경제기반 구축

- 지역연고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주력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제도 및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기업 지원 및 유치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산업 활성화 추진

- 선진농업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익모델 창출하고,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분야 지원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기반 확보하여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친환경적 정책으로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조성,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유도

###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 합천을 대장경의 세계적인 수행지구로 육성하여 지역이미지 메이킹을 완성하고, 해외 기관과의 포럼 개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대장경 가치 확립을 위해 국가 간의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할 '대장경 국제 교류센터' 설립
- 약 248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미처 보지 못한 주변 관광자원들을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연계하여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문화관광도시의 위상 제고, 관광객 유치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
-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계화하며, 전통 문화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전통문화학교의 위상 정립, 지역 우수 인재의 지역내 잔류와 타 지역 우수 인재의 유입을 도모하는 관광자원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축

- 도시화에 따른 다량의 생활하수 발생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보강 및 보수를 통하여 환경오염 감소를 유도, 지역환경과 하천수질이 개선 등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생태계 보전, 오염원처리시설을 확보하여 환경보전 및 체계적인 개발 추진
-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농촌 폐비닐 및 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농약용기 수거 및 관리로 인한 토양오염 저감 등 폐기물 수거로 인한 폐자원이용과 안전한 토양환경 조성
- 가축시설의 집단화로 처리비용 및 유지비 절감,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비점오염저감에 따른 생태환경을 보전
- 지속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배출하는 각종 환경부하 감소

### 서북부 경남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통발달의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 지역내 물류수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광역도로의 개설과 더불어 접근도로망을 정비하여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
- 녹색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여건 및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첨단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고, 특별 교통수단(휠체어택시)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건강교통도시로 조성
-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보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관광·녹색교통도시로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합천

- 고령화를 대비한 복지서비스의 체계화하여 고령화를 극복하는 복지도시로 조성하고,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살고 싶은 교육환경 구축하여 교육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교육문화 확산을 유도
- 지역주민의 향상된 의료욕구충족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조성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도시 건설

## 2. 산청군 : 지리산 청정골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Eco-Valley City

### 1) 기본목표

- 활기찬 지역경제 : 어려운 지역경제를 알뜰기업 유치 등으로 부자 군 실현
- 친환경 일류농업 : 질 위주 친환경 순환농업 실천으로 농업의 미래화·세계화 지향
- 머무르는 관광산청 : 체류·웰빙·체험형 한방휴양 관광개발
- 풍요로운 복지사회 :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넉넉하고 알찬 사회보장
- 찾아뵙는 봉사행정 : 공무원이 찾아가서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

### 2) 추진전략

-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활력도시
-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희망도시

### 3) 발전방향

####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활력도시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루트 디자인, 농촌 경관과 지역의 고유 생활양식 등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 이미지 창출. 통일된 심볼체계 및 홍보·마케팅 전략을 통한 산청 브랜드 효과 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 지역 역사·문화·교육장으로서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 한방약초축제, 황매산 철쭉축제, 산악자전거대회 등 축제 및 대회개최를 통한 화합의 장 마련,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 간·세대 간 커뮤니티 증진 유도

####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역적 생태환경조성, 자연친화적 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 운용 및 환경기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청정 이미지 제고
- 자연순환형 기반구축, 농업보조·지원, 친환경 고품질화를 통한 차별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추진.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물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대외 경쟁력 강화 등 생산·유통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브랜드 창출을 통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마련. 산청 맞춤형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건축모델 그린홈 도입

#### ■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 도시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방약초산업 육성, 한방산업·실버산업·친환경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한방산업, 고령친화산업, 친환경산업 각 사업 간의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한 도시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풍부한 유교문화자원, 차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상품구매+숙박+교통 등 관광패키지화 등 역사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기 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효율적인 지역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인프라 재구축

#### ■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희망도시

- 한방 및 이미지를 결합시킨 한방의료 복지도시로서 산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한방의료 복지 기반을 확보
-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시니어타운을 조성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 지역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평생교육체계 구축, 독창적인 지역문화 육성 등 교육·문화 서비스 기능강화를 통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복지도시 구현
- 건강증진센터, 고령친화 생활체험관, 복합시니어 타운 등 고령친화 사업 발굴을 통하여 미래형 종합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3. 함양군 : 남부내륙 녹색문화 중심도시 함양

#### 1) 기본목표

-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자립도시
- 농·산촌의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도시
-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행복도시

#### 2) 추진전략

- 동남권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만들기
- 중남부의 관광 중심지 조성
- 행복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함양

#### 3) 발전방향

##### 동남권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농업의 첨단화 및 집약화, 친환경화를 유도하고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저탄소 녹색정장에 부합하는 산업체 유치
- 함양군 중심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연계산업의 유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송산업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 혁신창출 유도
- 미래지향적 IT와 BT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발전적인 지역산업틀 구축
- 광역교통망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내 생산품 및 타 지역의 생산품을 집결시킬 수 있는 물류거점의 공간을 확보

#####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만들기

- 농업생산과 농촌공간을 연계하는 지역주거지를 형성하고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효율성 있는 농촌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첨단 농산물 가공시설을 도입하여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경제발전 도모
-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집중 육성 및 경영비 절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돈되는 농업, 편안한 농업, 공정하고 대우받는 농업”의 실현
- 농·산촌의 체험관광과 그린투어리즘 육성을 통해 방문객 증대 및 이에 따른 소득원 다변화와 농-

임업생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

### ■ 중남부의 관광 중심지 조성

- 지리산과 덕유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생태체험공간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편안한 관광의 이미지를 극대화
- 역사·문화자원을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독창적인 함양만의 미(美)를 테마화 해 나가고, 함양의 정체성과 가치를 향상시켜, 관광객이 찾고 즐기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주민 소득원과 연계” 하는 문화관광 창출
- 웰빙 트렌드에 부응하는 체험형 및 숙박형, 교육형 관광 육성.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부합하도록 웰빙형 관광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증대 유도

### ■ 행복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함양

-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교육인프라 확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우수한 교육인재·교사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미래 교육활성화 유도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환경 개선사업, 의료시스템 보완, 우수 의료시설 등을 도입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 의료환경 조성
- 선별적 복지에서 전 계층에게 혜택이 가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 하고, 함양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편하게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 및 복지시설의 확충과 고령자에 대한 교육, 일자리 마련 등의 여건 구축

## 4. 거창군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창조도시

### 1) 기본목표

- 군민중심 감동행정
- 앞서가는 농업경제
- 으뜸가는 명품교육
- 함께하는 생활복지
- 여운있는 문화관광

### 2) 추진전략

- 다함께 잘사는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실현
-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육성
-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도약
-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구현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체육 진흥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Eco 창조도시 조성

### 3) 발전방향

#### ■ 다함께 잘사는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실현

- 신규 소득작목 육성, 미래 대응 전담조직 구성, 대체 에너지 생태농업 및 가공/식품산업 확대로 미래 대응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산물,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원예·특장 생산기반 조성, 산림 특화육성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 창조농업 지역리더 육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베스트 귀농지원 육성 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가축질병 예방 등을 통해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전업농은 규모화, 규격화, 브랜드화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중소농과 고령농은 소량·다품목의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추진하여 전체가 상생하는 미래 농업모델 개발
- 브랜드 통합, 통합 유통주체 및 공선출하조직 육성으로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고도화,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학교 급식지원센터 공급 등 농·특산물 유통 및 판촉경로 확대

###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육성

- 거창 승강기산업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생산적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우량 중소기업 유치와 대표 향토산업 특화육성, 적극적 기업유치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육성, 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 공시제, 도시가스 조기공급, 그린 에너지 보급,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도약

- 교육환경 개선, 지역대학 육성,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면 무상급식 지원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경쟁력 향상
- 학교와 학교주변 시설 및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학교들이 공유하는 캠퍼스 개념의 아카데미 파크 조성
- 다양한 분야의 학습지원으로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고, 초·중·고 원어민 강사 배치, 사이버스쿨 사업 시행, 국제교육도시 교류사업 추진 등 국제화 교육지원으로 GLOBAL인재를 양성
- 평생교육원 및 거창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

###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구현

- 저소득가구 생활보장 지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장애인 복지향상 등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를 실천하고,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적극 추진
- 여성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환경개선, 청소년 진전육성 지원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식품접객 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등 군민 건강증진과 위생관리를 강화
- 건강테마 도시은퇴자 전원마을 조성, 에코힐링센터 구축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 건강사업 추진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체육 진흥

- 거창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문화·역사·레포츠가 결합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여운있는 관광의 명소로 발전 유도
- 향토문화 예술행사의 계승발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등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권역별 관광산업 개발·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테마가 있고 머무르는 관광기반을 조성
-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원강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스포츠 마케팅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Eco 창조도시 조성

- 생태학습과 생활체육시설, 수변놀이시설을 갖춘 경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교육적 효과를 갖춘 Eco 에너지 공원으로 조성

- 다양한 주제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창조성을 수용하는 공동체 조성 등 매력 있는 창조도시 기반 조성
-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 및 자원 재활용, 자전거 도시 만들기, 도시와 함께하는 캠퍼스 타운과 친환경적인 교육공원 조성, 위천천과 황강천변의 친환경적 개발 등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
- 권역별 환경정비 및 사업추진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 예방위주의 완벽한 재난대책 강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제2장 서부권(사천만 환상도시권)

1. 진주시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산업문화도시 진주
2. 사천시 : 인간/자연/첨단산업 중심의 Dynamic 사천
3. 남해군 : 함께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
4. 하동군 : 감성과 꿈이 공존하는 가고싶은 도시 하동

## 제2장 서부권(사천만 환상도시권)

### 1. 진주시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산업문화도시 진주

#### 1) 기본목표

- 활력있는 경제도시
- 함께웃는 복지도시
- 아름다운 문화도시
- 인재육성 미래도시

#### 2) 추진전략

-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한 산업경제도시
-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남부권 중심의 창조혁신도시
-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복지건강도시
-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 청정 환경, 자연과 조화된 생태환경도시
- 세계와 경쟁하는 수준 높은 선진농업도시
- 평생학습과 창의적 인재육성의 명품교육도시
- 미래지향의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

#### 3) 발전방향

##### ■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한 산업경제도시

- 항공산업단지, 융합소재·세라믹산업단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GS칼텍스 산업단지(지수) 조성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첨단지식산업의 허브 구축과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로 거점 기업도시로 발전
- 바이오기술과 의료, 천연의약, 실버 인프라를 종합한 미래형 산업육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융합 세라믹 부품소재 산업육성, 세계 5대 명산지·국내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100년 전통의 진주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제품기술 개발지원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실크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 동남권 뿌리산업 전략기지로 육성하여 동남권 전략산업(조선, 자동차, 기계부품소재, 해양플랜트

등)의 발전을 유도하고 상평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한 부도심으로서의 역할 증진

- 노후화된 기업과 낙후된 도심지에 지역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조성으로 구도심 개발과 벤처창업지원, 서민생활의 안정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소규모 영세기업의 사업공간 제공

#### ■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남부권 중심의 창조혁신도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연관 산업체·연구기관·산하기관·협력기관 유치 등으로 4만여명 규모의 그린스마트시티로 건설
-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에 따른 3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 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통한 산업지원과 첨단 주거를 선도하는 Inno Hub City로 조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사를 덴마크 8-Tallet과 같은 도시 랜드마크로 개발

#### ■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복지건강도시

-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의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주민참여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한 “장난감 은행”, 보육시설 지원강화 등 출산장려와 보육을 위한 체계적 시책 추진
-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사업 발굴, 3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행복시설 구축, 어려운 계층의 주거와 생계지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자활 지원, 만 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구현
- 남부권의 의료중심지로서 깨끗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등을 이용 경상대학교병원 인근에 의료허브 구축으로 의료휴양도시, 의료관광도시 발전 도모

#### ■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 남강 전통 뱃길복원 등 남강종합개발사업 추진과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외성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울리는 매력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통 먹거리, 볼거리 제공 및 한옥형 숙박단지 건립, 경전선 폐선로 활용, 진주의 전통문화인 교방문화를 문화콘텐츠로 발전
-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남강유등축제의 세계 5대축제 육성 및 개천예술제, 논개제, 소싸움 등 지역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브랜드의 특화, 역사·문화·생태·녹색 등을 키워드로 하는 복합관광을 활성화. 지리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휴양·레저벨트 구축으로 진주 중심의 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 예술타운 조성을 통한 예술특화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 원형의 발굴과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진주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음식의 개발과 음식문화산업의 육성

#### ■ 청정 환경, 자연과 조화된 생태환경도시

- 남강 체육·휴식 공간 및 친자연형 하천 조성, 6대산 공원 등 도시 숲의 산림공원 및 생태공원조



성 등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남강둔치 친환경 산책로 조성 등 생활주변 녹색기반 구축과 함께 하수관거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기초 확충, 도심지 녹화사업 등을 통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

- 도시 숲의 산림욕기능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한 자연치유센터, 자연환경과 의료사업을 융합하는 고부가가치 산림치유형 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

### ■ 세계와 경쟁하는 수준높은 선진 농업도시

-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로 국내외 농업기술정보 교류와 농업 선진화 계기 마련. 과학영농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 육성 지원, 중국·중동 등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다변화를 통해 전국 제1의 신선농산물 수출도시 육성 및 농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촌 건설
- 부가가치가 높은 인증농축산물(유기인증, GAP, HACCP) 생산을 위한 지원강화 및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 유통망 개발 등으로 고수익 농업의 실현

### ■ 평생학습과 창의적 인재육성의 명품교육도시

- 공교육 경쟁력 강화, 특목고 유치, 혁신도시 내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교육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방대학 육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문화공간의 확충으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육성
- 학생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학생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활동 지원, 복지 인프라 조성과 투자를 확충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자기주도 학습시스템인 진주아카데미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 ■ 미래지향의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

-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신진주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뉴타운을 조성하고, 영·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 대전~진주 철도 개설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수도권 접근성 및 진주 중심의 교통여건 개선
- 도심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도동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촌~유곡, 유곡~집현, 정촌~호탄 간 순환도로망 조기 확충 및 진주IC~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 시내버스 노선번호 전면 개편, 한 차원 높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도입 등 시민위주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종합 교통센터 건립 등 교통인프라 구축, 도시경관 조성 등으로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

## 2. 사천시 : 인간/자연/첨단산업 중심의 Dynamic 사천

### 1) 기본목표

- 생동하는 지역경제
- 함께하는 나눔복지
- 찾고싶은 문화관광
- 균형 있는 지역개발
- 꿈을 심는 인재육성

### 2) 추진전략

- 세계로 향하는 국제해양문화 관광도시
- 세계로 비상하는 항공우주첨단산업도시
-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서의 해양수산 청정산업도시
-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교육기반도시
- 인간중심의 복지중심도시
- 친환경을 추구하는 녹색 정주도시

### 3) 발전방향

#### ■ 세계로 향하는 국제해양문화 관광도시

-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세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공헌하며 21세기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인간·자연·첨단산업이 중심이 되는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해양 관광 중심도시로의 개발 지향
- 관광시설의 개발 및 확충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
- 사천시의 전설, 민요, 민속 및 역사자원 등과 같은 고유문화를 발굴 정리하여 향토문화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유지·보존하며 이를 기초로 고유문화의 현대화, 세계화, 관광 산업화를 통해 신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산업 창출
- 항공우주의 비전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항공 산업단지 계획과 연계된 관련업체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이미지 광고의 확대 추진과 주요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부 등 사천시 홍보마케팅 강화

#### ■ 세계로 비상하는 항공우주 첨단산업도시

-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향후 세계 10위권의 항공우주국가 진입

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항공우주 첨단산업도시로 육성

-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기반조성사업 및 항공기 관련 부품·소재산업분야의 육성, 나아가 항공우주 첨단사업 연구기능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연구·생산·판매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중심도시 지향
-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기반,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경남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항공우주산업을 육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지원콜(Call)제 운영,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박람회,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기업유치 투자여건 조성

#### ■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서의 해양수산 청정산업도시

- 청정한 지역이미지와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하고 자연경관·향토문화유산·주민들의 인심을 결합한 복합산업으로 육성
- 수산가공시설 현대화, 해양레저공원 조성 등 해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조성

#### ■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교육기반도시

-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에 부응한 사천시민의 능력향상,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과학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도입·응용하여 21세기 첨단 문명 추구
- 지역 교육부문 투자 확대하고 꿈을 심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 조성

#### ■ 인간중심의 복지중심도시

- 경제적 활력과 능률을 바탕으로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여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 의료, 주거 등 주민의 기본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며 사천시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보존·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복지사회 구현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 서비스 지원,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센터 및 수련시설 운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
- 생활안정 지원,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단체 활동 지원,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로 맞춤형 장애복지 실현
- 저소득·다문화 가족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및 보육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추진
- 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추진
-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보건위생 이전 관리 및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등 의료서비스 개선·시민건강 관리

### ■ 친환경을 추구하는 녹색 정주도시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비형평성을 예방하고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최소화
-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토지투자 등 자본적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의 산업적 기회가 많아지는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개발 혜택의 형평성 향상
- 주요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경관파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사전 통제·관리기능 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바이오 사업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저탄소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추진 및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그린환경 조성
- 도시와 농촌, 도심과 도심사이의 체계적인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지수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녹지공간 사후관리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 생활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3. 남해군 : 함께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

#### 1) 기본목표

- 국제해양관광도시 :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산업
- 스포츠 휴양도시 : 고품격의 문화해양관광
- 환경농업도시 : 환경친화적인 농수산업

#### 2) 추진전략

- 한국의 자치중심
- 남해안 경제중심
- 21세기 환경중심
- 선진형 복지중심
- 동북아 관광중심

#### 3) 발전방향

##### ■ 남해안 경제중심

- 해양플랜트, 위그선, 요트, 쿠르즈 등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미래형 해양레저 조선소 유치, 조선인력 양성센터 유치 등 미래형 조선산업단지 조성 and 해양레저선박 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남해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관광안내 민간회사 설립,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창출형 클러스터 육성
- 군 전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왕우렁이 농법 확대 보급, 친환경도양 만들기 등 세계적 기준에 맞는 친환경 농업 육성
-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 남해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자금과 도농교류를 통한 환경농업 육성
- 잔디와 스포츠가 있는 스포츠 도시 남해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남해 농민의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한 스포츠 경관농업 육성
-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의 자립화 모델 창출, 주민 직접소득 향상을 위한 민박 활성화,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만드는 생명과 소통의 길 인프라 구축
- 마을 바다목장·체험형 관광어촌 조성, 자율관리형 어업확대, 깨끗한 바다만들기, 남해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등 수산 선진기술 도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 마늘 품질 향상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농·수·축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 등 첨단 농업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유도

### 21세기 환경중심

- 생생도시 프로젝트 추진, 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 탄소 포인트제 참여 확대 등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생명도시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수립·추진, 친환경적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녹지협정을 통한 녹색마을 만들기, 그랜드 플라워 사업, 공기정화식물 보급 등 녹색성장 산업 선점
- 태양광 주택 보급, 태양광 마을회관 건립, 고효율 LED조명 보급, 풍력경관 가로등 설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유치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제로섬 건설
- 재활용을 확대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며 주민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쓰레기 매립 제로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 푸른농가·숲속마을 가꾸기, 전통마을 숲 복원, 산림공원 조성, 해양형 치유의 숲 조성 등 후대를 위한 100년 숲 만들기 추진

### 선진형 복지중심

- 농어업 승계인력 확보와 인구증대를 위한 귀농 기반 조성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사업,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 한옥 주거단지 민자유치 등 지역주민과 은퇴자를 위한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
- 헬스케어 관광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즐겁고 편안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를 위해 고급형 의료휴양단지, 은퇴자 마을, 건강산책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노인복지카드 시행, 전국 노인축제 개최 등을 추진
- 야간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육 내실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정보화 도우미 운영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복지남해 구현
- 남골평장과 자연장 수용증가 대처를 위한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자연장지 확대 보급, 장사문화 박물관 유치 등 금수강산을 물려주기를 위한 선진 장사행정 실현
- 주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선진도시 종합계획 추진, 가정도우미제 실시, 주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문화유산 해설사 육성 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스템 구축

### 동북아 관광중심

- 요트 마리나 사업유치, 동북아 크루즈관광 접안시설, 카페리 터미널 조성 및 남해~여수 카페리 운항, 미조항 나폴리 프로젝트 추진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인 남해와 여수를 이어준과 동시에 전남 동부와 영남 서부를 연결하는 환상형 순환교통망 형성을 위한 한려대교 건설, 제2남해대교 건설, 관광자원 권역화 모노레일 설치 등

##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가는 교통 인프라 확충

- 남해군 동굴자원 활용한 폐광산·동굴 자원의 산업화, 창선지역 문화자원 발굴, 전통어촌마을 조성 등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다양한 형식의 다리를 보유한 장점을 활용한 다리박물관 조성 등 남해의 개성을 살린 신개념 관광상품 개발
- 12개월 테마가 있는 페스티벌 개최, 문화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팸 투어 실시, 관광휴양단지 조성,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 가보고 싶은섬·문학의 섬, 원예 예술촌 활성화 및 영상박물관 조성, 남해 유배문학관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지역축제 활성화 유도
- 스포츠 마케팅 추진단 운영 및 활동 지원, 전국·세계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세계 어린이 축구축제 개최, 스포츠·관광유양타운 조성, 태양열 축구장, 움직이는 관람석 설치, 남해 스포츠파크의 종합스포츠 타운화 등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자연·인간·경관이 하나로 숨쉬는 디자인 도시 건설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 4. 하동군 : 감성과 꿈이 공존하는 가고싶은 도시 하동

### 1) 기본목표

- 문화적 역량이 발휘된 도시의 재생
- 성장동력 - 남해안중심도시 기반구축
- 선진국 수준 농림어업 소득달성
- 평생복지, 평생학습의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 후손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 2) 추진전략

- 경쟁우위의 지역경제기반 구축
- 삶과 휴양이 조화된 지역건설
- 차별화된 문화관광기반 형성
-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공동체 기반조성
-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3) 발전방향

#### ■ 경쟁우위의 지역경제기반 구축

-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을 통한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도모하고,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 단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지역의 장점을 홍보하여 다국적 기업 유치
-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와 남해안권을 일체화시켜 남해안시대에 걸맞는 중추적인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가칭) 하동 하버랜드를 조성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각
- 지속적인 FTA 추진에 대비하는 농촌지역의 활로 모색.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 경감, 기업투자 활성화 등 지역특화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 우수 중소기업 유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 지원 등 경쟁력 제고와 경영여건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강화
- 원예작목에 대한 지식수준과 기술 습득력을 제고하여 시설원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 제고. 이를 위한 수출 농단 및 작목반 조성. 웰빙 농업 육성사업, 인력양성 등 농업육성을 통해 농민소득 증대
- 하동 특성에 부합하는 축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지역으로 성장 유도. 유통구조 개선 및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하동민의 소득 및 편의성을 도모



### ■ 삶과 휴양이 조화된 지역건설

- 살기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의 질 개선 및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한 주택공급
-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및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 수자원의 안정적 보존 및 확보
- 장기적 녹지체계 설정 및 조성과 권역별, 유형별 녹화계획으로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생태적 연계성 및 다양한 녹지 자원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자원의 보존과 도시공간·자연환경이 조화된 녹지환경 조성

### ■ 차별화된 문화·관광기반 형성

- 하동야생녹차단지를 중심으로 녹색 테마관광특구 지정 및 하동관광의 대표적 차별화 전략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휴양 관광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리산 둘레길 조성 통하여 관광산업의 국제화를 추진
- 슬로라이프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하동 특산물 관광과 슬로시티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 유도, 슬로시티 관광의 메카로 도약
-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활동 강화. 하동의 대표 랜드마크 관광명소 개발, 남해안 해양관광메카 구축,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축제 개발, 지역 마케팅 활동강화 등 다양한 관광기반을 형성

### ■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공동체 기반조성

- 각급 교육기관의 획기적 확충 및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전문계 고등교육기관 유치,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연구, 교육개발, 교육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위탁·운영 추진. 또한 대학의 인적·물적·기술적·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뉴 하동시 교 육체제 수립
- 국제중·국제고 설립,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어 교육 시범학교를 선정 등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 능동적 교육복지 역량강화, 농촌교육 발전모델 수립 및 특성화 교육 실시 등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을 도모
- 지역학교의 평생학습센터화 및 평생학습 기반구축 강화,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산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 ■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내 물류수송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로개설 및 확포장, 지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정비 및 구축,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광역도로 개설 등 첨단산업의 신도시를 위한 물리적 개발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철도 폐선부지 활용, 복합 환승센터 및 첨단 대중교통 체계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웰빙주거 중심의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수단 육성

-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보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등 문화관광 거점도시를 위한 관광 교통인프라 구축
-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시설 확장,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

### 제3장 동북부권(내륙성장 도시권)

1. 김해시 : 경제의 중심, 역사문화의 중심, 창조도시 김해
2. 밀양시 :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생태환경적 전원도시 건설
3. 양산시 : 동부내륙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초일류 양산
4. 의령군 : 호국정신이 깃든 Good-being도시
5. 창녕군 : 도약의 기회(The Chance of Take off)

## 제3장 동북부권(내륙성장 도시권)

### 1. 김해시 : 경제의 중심, 역사문화의 중심, 창조도시 김해

#### 1) 기본목표

-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 친환경 생태도시
-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 가야혼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

#### 2) 추진전략

-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 균형발전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조성
-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촌경쟁력 제고
-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조성

#### 3) 발전방향

##### ■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집중육성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의 지속적 확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 동남권 산업의 특화를 통한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조성을 위해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의생명 R&D 기지, 산학 융합지구 조성 등 의생명 산업기반 조성
  -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의생명 산업기술 지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의생명 산업 육성
  - 의생명, IT분야 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19개소 9,552천㎡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 동남권 IT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KT-SB 글로벌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IT산업 R&D 기반 조성, 기술 및 인력양성, 국내외 IT기업 유치
- 전략산업 인프라 확충, 첨단·우량기업 유치 및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 신성장 전략산업연계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및 맞춤형인력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행정, 금융 및 경영지원 등 기업종합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기술 및 경영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유도, 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획기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 균형발전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동서 균형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시가지 공업지역 단계적 이전과 고부가 가치의 산업 유치, 동서 균형발전에 입각한 계획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으로 동서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구도심 재창조를 통한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 디자인 창조도시의 위상에 맞는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정책으로 품격높은 도시 재건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지속가능한 도시 및 택지개발 추진, 사람중심의 친수공간 확대 및 도심 속 휴식공원 확충으로 친환경 미래지향적 생태도시 구현

#### ■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 가야사 복원사업 등 옛 가야의 명성에 맞는 현대적 복원 마무리, 관광객 수요 창출을 위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 분청도자기의 명품화 추진 등 선진형 관광상품 개발로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안내소, 관광코스 개발 등 체계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객 환대서비스 개선
- 가야사 2단계 사업과 가야 왕궁지 보존을 통한 중심유적 정비, 가야시대 고분군 정비와 가야금을 주제로 한 초선대 정비 등 가야문화 복원과 전통문화 보존

#### ■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조성

-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선진형 사회복지체제와 출산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체제 구축
- 생활체육인을 위한 기반구축과 건강행태 개선 등 선진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건강한 시민생활 지원체제 구축

#### ■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동서축(부산·양산 ⇄ 창원·진주)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남북축(밀양·대구 ⇄ 부산·신항)의 도로망 확포장 등 도로선형 개선을 통해 김해를 경유하는 동남권 광역도로

#### 망 확충

- 기존 도심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과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국도의 도로기능 회복, 도심내 인구밀도가 높은 동지역·장유면과 읍면지역의 연결도로 확·포장 추진
- 교통량 집중지역인 장유 유통단지 연결도로 확충, 도심교통의 거점(동김해·서김해·장유·율하·진영·설창) 조성 등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가지 도로망 확충 추진
-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 등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저탄소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자전거, 그린카 등 경전철과 연계한 녹색교통 정책 도입

####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조성

- 비전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기반 강화
- 평생교육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진흥시책 추진
- 시간·장소·대상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움을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육성

## 2. 밀양시 :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생태환경적 전원도시 건설

### 1) 기본목표(지역발전의 가치)

- 개방과 미래지향
  - 취약한 지역여건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
  - 인근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방형 도시계획
- 혁신과 경쟁
  -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역혁신체계구축
  - 1, 2, 3차 융복합 산업을 통한 지역소득증대 및 생산성 강화
- 쾌적과 지속가능성
  -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
  - 녹색성장을 위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촉구
- 문화와 정주성
  -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고양하여 지역정주 기반 조성
  -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복지 등을 종합적인 환경조성을 통한 정주문화 정착
- 자율과 민주성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한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 추진전략

-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
-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건설
- 찾고싶은 문화, 관광기반 형성
- 교육·복지공동체 기반조성
-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3) 발전방향

#### ■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

- 나노융합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 나노융합산업의 메카로 육성발전. 나노 관련 연구기관과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나노융합 첨단산업단지 유치 추진
- 내륙 물류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영남권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특성에 맞는 규

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 도모

-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지식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농업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유지·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

###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건설

- 활력있고 개성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밀양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시가지의 회유성을 강화하고, 역세권개발 및 소공원 등을 조성함과 동시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 시가지내 산·하천·농경지 등 다양한 녹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녹(綠)이 풍부한 도시이미지 강화. 공간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찾고싶은 문화·관광기반 형성

- 경유형 관광지의 형태를 체제형 휴양관광지로 변화시키고 체험형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화 추진. 품격있고 고품질의 체험관광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
- 풍부한 자연과 수려한 경관을 토대로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 진흥. 지역 이미지의 제고를 도모하고 도시형 관광지와 같은 대단위 시설투자형태의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테마형 이벤트화로 소프트 관광을 유도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보전을 전제로 자원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해설체계의 강화와 문화자원의 가치를 상승. 아울러 상품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통해 기존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연계강화 및 시너지 창출

### ■ 교육·복지공동체 기반조성

- 생활권 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산간·오지 등 의료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의료 체계 및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고령화 의료수요의 충족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기 위한 방문보건 및 예방 의료사업 추진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증설 및 일자리 창출,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강화
-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확충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센터 설립
- 부산대학교와 통합으로 인해 없어진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4년제 보건대학교 유치로 위축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국가 및 경남 간선교통체계와 장래 밀양시 지역공간구조·생활권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타 도시와의 고속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정비



- 중심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연계도로 및 우회도로망을 확충·정비, 공간 통합 및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내 연계 도로망 건설
- 주요 관광거점지역을 연계한 친환경적 관광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교통수단 유도를 통한 환경오염감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육성

### 3. 양산시 : 동부내륙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초일류 양산

#### 1) 기본목표

- 인재를 키우는 교육
-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 예향이 숨쉬는 문화
- 온정이 흐르는 복지
- 동남권 중심 편리한 교통
- 신뢰받는 정도(正道)행정

#### 2) 추진전략

- 균형있는 도시공간 창출
-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도시
- 자립경제의 첨단산업기반 조성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 공동체 구현

#### 3) 발전방향

##### ■ 균형있는 도시공간 창출

- 장기적인 도시공간발전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공간적인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3개 계층의 공간적인 체계를 구성
- 남·중부동 일원을 중심으로 단핵 체계의 양산시 구시가지를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 양산신도시 및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신시가지의 거점 개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등의 기능 재편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 단계적, 지속적으로 개발계획 마련
-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서축 가로망 정비 및 도시 내부교통의 순환적인 체계 확립. 지역 간 도로와 도시간선도로와의 유기적 연결체계 도모
-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충하고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및 경전철 개통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을 확충. 교통수요의 공간적, 지역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노면교통 운영체계의 구축과 관련 시설 개선 도모

##### ■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입각한 산업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정책과 대체화 방안 모색, 재활용과 청정에너지 자원활용 강화

-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 건설. 양산시 환경보전계획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수자원/수질관리,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 등 환경 각 분야별 환경보존계획을 실천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녹지축과 연계된 녹지축을 보존하며, 숲가꾸기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내륙형 자연습지 생태뉴 보존, 가로수 조경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
- 계획인구, 도시기능 및 공원별 고유기능에 부합하고,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양산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공간, 비오톱 공간 등 풍부한 친환경적인 근린공원, 생활공원의 조성을 통해 생태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 유산동 바이오가스화 시설, 원동 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 어곡풍력발전소 민간투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

#### ■ 자립경제의 첨단산업기반 조성

- 부산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메디칼폴리스(동남권 의료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의료산업체계를 강화하여 동남권 의료허브로 육성하는 등 의료산업을 차세대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추진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여 서민경제안정과 침체되어 있는 양산시의 상권을 회복하고,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 지역 생산품 판로 지원, 선진 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기반을 조성

#### ■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

- 자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이 풍부한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광지를 재정비·보전. 관광자원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한 신규 관광단지 개발 및 다양한 문화·축제 이벤트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심 서천인 양산천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양산을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꽃의 도시 이미지로 구축
- 양산시 관광자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관광권 등 4개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 발전방안 뿐만 아니라 권역 간 연계방안을 개발하여 양산시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 효과 유발
-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의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 유통 구조의 선진화 도모

####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공동체 구현

-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조성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영어교육 및 특수교육 등과 국제적 보건 의료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일류 교육 도시로 육성

- 평생학습 기회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며, 생애교육 기회확대
- 기존의 복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양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서비스의 종합화, 연계화, 정보화를 강화하며, 양산시의 행정조직을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편
- 공공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양산시민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 양산시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양산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양산시의 다양한 문화·자연·역사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와 문화컨텐츠 발굴 및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

## 4. 의령군 : 호국정신이 깃든 Good-being도시

### 1) 기본목표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생동하는 선진농촌
- 행복 주는 주민복지
- 균형있는 지역개발

### 2) 추진전략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역경제
-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 관광
-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 희망과 창의를 넘치는 교육 1번지
- 효율적인 도시공간과 편리한 도로교통

### 3) 발전방향

#### ■ 풍요로운 삶의 위한 지역경제

- 관광특구조성 및 산업기반조성, 기업규제완화 및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산업확충과 고용창출을 통한 파급효과의 극대화
- 유통구조의 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등 유통의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물과 물류의 효율화 도모
- 농촌 구조, 유통구조 개선, 도시형 근교농업 육성, 지역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 수출판로 확대, 축산물 브랜드화, 원예업방식 구조조정, 축산 오·폐수 처리능력 강화 등 시장개방 대비 농·수·축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 ■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확충. 사계절 이용 가능한 여가캠핑장, 수상레포츠 활성화, 수변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 생태·휴양·레포츠 관광을 육성
- 천혜의 경관과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시설·상품 개발 추진. 의병 관광자원 발굴, 전통문화 복원 계승, 전통문화·역사·인물탐방 관광 육성
- 군민의 자발적 홍보 유도, 지속적인 관광 홍보 아이디어 창출, 사이버 공간의 활용 등 홍보의 파급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 농어촌 주거환경 현대화, 아파트 및 주택단지 공간 확보, 주거환경 개선
- 지역적 용수공급의 한계를 극복하는 용수원 확보, 읍면별 균등한 유수율 및 맑은 물 공급,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정비, 하수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수요를 예측한 상하수도 관리
- 토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침출수 처리 및 토양오염 관리기술 개발, 대기오염 관리 강화 및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발, 수질오염조사 및 점오염원 관리, 하수처리율 제고 및 지하수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대기·수질·소음 저감대책 강구 등을 통한 환경보전 추진

###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 및 녹색성장 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문화 기반시설의 환경개선, 특화교육 시설 유치,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기초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경쟁력과 건강함을 갖춘 노인복지 강화, 여성·장애인 복지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강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

### ■ 희망과 창의를 넘치는 교육 1번지

- 교육시설의 생활권별 적절 배치와 정비·확충, 폐교 및 미활용 교실의 재활용 방안 추진, 경제환경변화에 부응한 학교 내 정보화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최적의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
-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연구교육기관 설립 등 단지조성,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과 고급 교사인력 유치방안 전개, 지역 전문대학 육성 추진과 기술혁신 및 고급 인력자원 확보 등 교육·연구의 기반 체계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평생교육의 장 마련, 장애인 복지를 위한 특수학교의 시설 확충 모색을 통하여 교육연구 복지체계 구축

### ■ 효율적인 도시공간과 편리한 도로교통

- 군내 일주도로 개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도시공간 조성, 의령의 도심지 기능 강화, 전원 마을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시가지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역 간 연계·순환 도로망 구축, 광역교통 연계체계 등을 확립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선진 교통환경 개선

## 5. 창녕군 : 도약의 기회(The Chance of Take off)

### 1) 기본목표

- 함께하는 사회복지
- 살맛나는 지역경제
- 특색있는 문화관광
- 친환경적 생태도시
- 군민중심 친절행정

### 2) 추진전략

- 특색 있고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창녕
- 천혜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거점 창녕
- 풍부한 청정농업과 공간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 창녕
- 살기편한 정주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복지 창녕

### 3) 발전방향

#### ■ 특색있고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창녕

- 독자적인 ‘창녕다움’을 국제적 위상 강화에 주력하는 뿌리 깊은 전통도시 육성
  - 진흥왕척경비와 석빙고 등 20개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다수의 역사·문화유산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창녕박물관, 박진전쟁기념관, 국가습지센터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창녕 건설
- 다양한 배움거리와 볼거리를 모든 군민들이 향유하여 ‘살아가는 맛과 멋’이 넘쳐나는 인간중심의 문화터전 창조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지역으로서의 위상 강화
  - 공공서비스시설·산업시설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 배치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여 군민들의 제반활동 지원
  -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교육기반의 확충과 문화·예술도시를 위해 전통과 문화가 조화되는 교육을 유도하며,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 및 우수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 ■ 천혜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거점 창녕

- 자연 및 인공환경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건설

- 진입로의 자연자원 식재터널을 건설하여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우포늪, 낙동강, 화왕산, 부곡온천을 연계하는 생태·체험관광 기반구축으로 사계절 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 순환적인 체계(circular system)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구현
  - 중심과 근교 및 외곽의 유기적인 통합,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의 적정보전, 녹색교통수단 도입과 보행자 주권의 회복, 생태공원 조성을 위시한 일련의 정책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구축
  - 기존 야생서식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파괴된 야생서식지 및 녹지는 다시 인공적으로 복원하고, 개발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농지 및 산림 잠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량 농경지 및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창녕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완충녹지를 존치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공감대에 부응하는 정책 실천
  - 보양·여가문화의 재충전을 위해 화왕산·우포·부곡을 테마화 하여 새로운 풍요가 지속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토끼 공원, 생태늪지, 화왕산과 연계된 농장, 농원, 휴양촌 등 자연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로 농외소득 증대, 지방재정 확충
-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보존에 대한 군민 인식 증대에 따라 지역생태계와 조화된 체계적 개발, 환경친화적 여가공간과 위락공간 조성의 이원화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개발 추진

#### ■ 풍부한 청정농업과 공간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 창녕

-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판촉활동 강화로 고부가 농업육성
  - 람사르 등록습지 우포늪과 멸종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사업을 통한 친환경·청정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양파·마늘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생명환경농업을 강화
  - 농축산 부분의 고부가가치화, 기술집약형 고품질 농산물 육성을 통한 특산물 육성, 유통개선 등 지역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 중소기업 유치와 성장 촉진, 연계와 통합을 이룬 생산체제 구비
  - 생산비용 효율화와 생산기술 첨단화가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공해없는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체계 마련
  -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부적격업체의 이전 등에 대한 검토와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첨단화 및 지원체계 마련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승수효과의 내재화
  - 지역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전통산업 및 경공업 분야도 유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여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함. 고부가 생산자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동의 승수효과가 지역 내에서 창출되도록 유도
  - 지역산업구조를 21세기 미래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전통산업 및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지역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



- 기업밀착형 산학관연체계 구축과 국제적 지원 마인드 형성
  -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겸비한 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기술, 마케팅, 산업정보 등 지원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

■ **살기편한 정주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복지 창녕**

- 군민들의 꿈과 미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지역만들기
- 편안함과 쾌적함 그리고 안정감을 구가하는 인본지역 추구
- 인간성, 쾌적성 및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와 시설 제공

## 제4장 동부권(진해만 환상도시권)

1. 창원시 : 골고루 잘사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2. 통영시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3. 거제시 : 세계 조선산업의 중추 및 해양관광도시 거제
4. 함안군 : 더 나은 기회의 땅 아라가야
5. 고성군 : 세계로 열린 신해양 산업관광문화의 거점도시

## 제4장 동부권(진해만 환상도시권)

### 1. 창원시 : 골고루 잘사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 1) 기본목표

- 첨단산업 중심의 창조적 기업도시
-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명품교육도시
-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해양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복지 최강도시
- 녹색성장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의 환경수도
-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물류도시
-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도시
- 세계와 함께하는 동북아 중추도시

#### 2) 추진전략

- 지역특화 균형발전
  - 스마트 창원 구현, 마산 르네상스 창조, 블루오션 진해 도전
- 통합경쟁력 극대화
  - 산업경제 동반 성장, 조화로운 도시개발, 통합 네트워크 구축, 거버넌스 역량 강화
- 소프트인프라 향상
  - 해양문화도시 조성, 환경수도 업그레이드, 복지 최강도시 구현, 명품 교육과학도시 육성

#### 3) 발전방향

##### ■ 지역특화 균형발전

-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품격 증대를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창원, 마산, 진해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3대 성장거점으로 지역마다 남다른 가치를 가진 다핵 연대형 특화균형발전 추진
- 스마트 창원 구현을 위해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및 R&D 기능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원국가산업단지 정밀재진단을 통한 전략산업 집중 육성, 기존 도심은 교육, 문화, 환경 등 품격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로 삶의 질 증대. MICE 및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 친환경 생태주거 단지 조성 및 특화된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신성장지대로 발전

- 마산 르네상스 창조를 위해 마산만 워터프런트, 돌섬 랜드마크화, 해양신도시 개발 등 마산만 재창조,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마산지역 산업 부흥 추진. 창동·오동동·어시장 등 중심상권 활력 회복,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문화부흥운동 전개. 로봇랜드 중심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 블루오션 진해 도전을 위해 남해안 선벨트의 해양레저산업 허브로 발전. 해양관광벨트 구축, 군항제 세계적 브랜드 육성, 신항만·경제자유구역의 역할 강화 및 배후인프라 확충으로 동부지역 발전 가속화 유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잔여지의 공익적 개발로 시민 편의시설 확충, 종합대학 제2캠퍼스 유치 등 교육 인프라 강화, 군유휴지의 공익적 조기 개발 추진

### 통합 경쟁력 극대화

-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신항만 및 경제자유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조성. 동북아 항만물류 허브 조성, 도심 중심상권 활성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산업·환경 특화 MICE 도시 실현, 지역 농산물 실용화 및 관광자원화, 안정화된 농산물 유통망 확충
-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의 틀을 재정비하고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 다핵연대형 도시공간 개발, 서민아파트 건립, 마산항 및 진해항 리모델링 추진, 도시재생(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역세권 개발 정비, 디자인 창조도시 기반 구축
-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곽순환 도로망 등 광역물류 네트워크 구축. 신항·경제자유구역 지원 도로망 조기 구축, 읍·면지역 연결도로망 구축, 제2안민터널 등 3개 지역 간 연결도로망 개설. 환승센터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도시철도 건설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
-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의 열린 시정 운영, 프로야구단 창단·통합 상징사업 등을 통한 시민일체감 조성.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확보 및 균형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안전도시 조성, 국제행사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 소프트인프라 향상

- 환경수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녹색환경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 마산만 살리기 및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생태하천 복원, 주남저수지 환경브랜드화, 시민공영 자전거 ‘누비자’의 세계적 브랜드화. 자전거 특별시 조성, 테마공원 확충 및 도시 숲 조성 등 도시공간 녹화
- 해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 부흥 프로젝트 추진. 마산만 르네상스 추진,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진해 역사영웅관광권 조성, 낙동강권 친환경 관광지대 조성, 해양레포츠 거점도시 육성, 역사문화유적 복원 정비, 아동문학 세계화, 권역별 국제적 예술제 육성, 군항제·국화축제·창원 페스티벌 등 글로벌 명품축제 육성, 권역별 생활스포츠 인프라 조성
- 복지 최강도시 구현을 위해 민간참여 사회복지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실현,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 3無(주거 걱정, 급식 걱정, 진학 걱정) 4強(여성, 장애인, 보육, 의료) 복지정책 추진. 근로자 복지 증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대학병원 건립 등 고급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 명품 교육과학도시 육성을 위해 교육여건개선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창원 과학고 등 지역명문고의 전략적 육성. 인재육성 장학사업 확대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과학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과학 기술허브 구축,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거점별 도서관 등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창원아카데미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 2. 통영시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 1) 기본목표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 남해안 시대의 개막에 따른 한려수도의 가치 증대, 한려수도에서 발전적 중심성 회복, 통영의 Blue Ocean(통영의 중심성 회복은 통영의 풍요로운 문화에서 시작), 한국의 대표적 해양레저/문화관광도시 통영 조성
- 계획 공간 스케일별 목표
  - 도시경제 활성화와 도시공간개편(local scale)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National Scale)
  - 동북아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관광레저도시(Global Scale)

### 2) 추진전략

- 통영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발전
- 통영시의 관리와 주민 삶의 질 제고
- 개발사업의 적소 배치와 균형개발

### 3) 발전방향

#### 도시발전 : 통영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발전

- 해양수산업의 품질개선과 유통구조 혁신 등으로 수산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수산업의 고도화 추진
  -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바다목장 사업,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가두리 양식어장 외해 집단화 사업 등 추진
  - 수산업 유통구조개선, 저장·판매, 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 농어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물류센터 건립, 수산유통공사 설립, 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통영바다 브랜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 마린바이오벨리 조성, 해양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구축, 진주산업 육성,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개발 등을 통한 수산업의 신가치 창조 및 경쟁력 강화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여 수산업과 함께 발전의 중심축으로 세움
  - 관광을 지역발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시켜 휴양관광도시로 부각하기 위해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테마파크 조성, 국제규모의 위락 관광단지 조성,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도남관광지 개발 등을 추진

- 자연자원, 기후, 해안입지조건을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 스포츠 관광, 어촌관광, 수산자원 음식 문화 관광상품화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 및 관광 서비스기능 강화
- 기존 문화재의 보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역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해 통제영 충무공 유적지 복원 및 정비, 전통공예산업 육성과 전통공예거리 조성,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 및 문화마당 명소화 추진
- 문화활동의 터전 마련과 음악예술도시 활성화 유도를 위해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윤이상거리 정비와 통영아트센터 건립, 통영음악캠프 개최와 음악원 설립 추진
- 한산대첩축제 활성화와 프로그램개발 등 한산대첩축제 국제화 유도, 한산대첩 상징화 및 관광상품화, 한산대첩 체험지 조성
- 문화예술 역량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박물관 건립,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도보 투어 개발, 통영 문화마를 건립 등 추진
- 도시를 대외적으로 판촉하여 사람과 자본을 유인하는 도시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 통영의 장소브랜드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지역 홍보체계를 갖추는 계획 수립

#### ■ 도시관리 : 통영시의 관리와 주민 삶의 질 제고

-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중요 공예품 산업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도시자족기반 구축
-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운영 시스템의 과학화를 통한 확! 뚫린 통영교통 조성
-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통한 급수체계 구축 및 생태하수처리시설 도입, 가왕도 태양열 발전 시설, 육지도 풍력발전 등 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생태 수용능력의 증대
- 기성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정체성 회복,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
- 지역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특수학교,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산양스포츠파크 운영활성화, 용남·평림생활체육공원 정비, 한산대첩기념공원, 통영생태숲 조성 등 체육 및 공원녹지 시설 확충과 RCE 도시위상에 걸맞은 교육기능 보강
- 지역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역사회단체의 시정참여, 통영 도시마케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시정운영

#### ■ 도시공간 : 개발사업의 적소 배치와 균형개발

- 자원개발의 균등화를 통한 공간적 균형개발을 유도, 자원 간 연계와 공간의 기능적 특성화, 친화적이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도시공간계획 추진
  - 내륙권역 : 안정공단 확대개발, 국도 77호선 안정공단 확장개설, 죽림·북신 신시가지 성장관리. 도시팽창에 따른 성장관리와 기반시설의 확충, 무질서한 도시확장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관리와 공간배치
  - 도심권역 : 통제영 복원과 도시정체성 회복, 망일봉 한산대첩 기념공원 정비, 강구안과 문화

마당 확대 개발, 윤이상 음악공원 조성, 통영아트센터 및 문화예술 전문교육기관 유치, 통영 국제음악제와 한산대첩축제 활성화, 음악의 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도시 경관 정비, 진주산업의 육성과 마린바이오밸리 조성, 통영운하와 해저터널 연계 친수 수변공간 조성, 대중교통개편과 경량전철도입 검토

- 미륵도권역 :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요트전용항 조성, 호텔, 리조트, 휴양, 쇼핑몰, 테마파크 등 민자유치, 산양스포츠파크,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 조성, 골프, 바다낚시, 스쿠버 등 레저스포츠 관광개발, 바다택시, 크루즈 개발, 바다목장사업과 외해가두리양식장 집단화 사업 확대, 산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미륵도 신항 건설, 수산유통 물류센터 건립과 수산물 가공 산업 유치, 수산과학관 기능강화와 통영문화마을 조성
- 해양권역 : 도서지역 정주기능 강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어촌체험관광과 어촌 문화 관광상품화, 테마가 있는 섬 관광 개발, 연계형 도서관광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 바다택시, 크루즈 등의 해상교통 확대



### 3. 거제시 :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중추 및 해양관광도시 거제

#### 1) 기본목표

- 초광역권화로 연계된 종합도시
- 세계 조선산업의 중추도시
- MARIN 해양관광 휴양도시
- 환경생태도시

#### 2) 추진전략

-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공간 개발
- 편리한 교통·물류망의 확충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창출
- 세계최고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융합
- 다양한 문화·체육·관광의 중심
-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의 실현
- 선진화된 교육도시의 육성
-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농업 발전모델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
- 선진 지식정보도시 스마트 거제

#### 3) 발전방향

##### ■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공간 개발

-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자재 단지의 건설과 지역내 조선산업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조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신규 근로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배후주거 지역의 개발 추진
- 장목관광단지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배후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유도
-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을 통한 생태·건강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구 도심지역 활성화 및 주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광상품 연계사업, 도농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위탁판매 및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 등 농촌지역 활성화 유도

### ■ 편리한 교통·물류망의 확충

- 거제-창원 간 연륙교 건설과 통영-거제 간 고속국도 연장, 김천-거제 간 내륙철도 건설 등 기 추진 중인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요충지·물류거점의 남해안 중심축으로 육성
- 상동-거제 간 명진터널 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도5호선 확·포장 등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과 도심 거점별 공영주차장 및 사업용 차량 공영 차고지 조성 등을 통한 선진 교통체계 구축으로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 마련

### ■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융합

- 조선기업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소통과 상생의 협력경제를 구축하고 전통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유도
- 지역 특화업종(조선)과의 연계성 및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플랜트, 첨단조선,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유치를 통해 기존 조선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미래 유망산업의 블루오션을 선점
- 산업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 강화, 녹색성장산업 및 관광분야의 전략적 유치 등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무한성장 및 미래형 산업도시 건설
- 바다와 삶이 묻어나는 농·어촌 테마파크화 실현으로 격조높은 휴양도시 건설. Hub-Spoke 해양휴양 관광산업 육성과 고객만족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해양문화관광 거점도시 조성

### ■ 다양한 문화·체육·관광의 중심

-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세계조선해양축제 개최를 통해 조선 및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차별화된 관광 아이덴티티 구축
- 4계절 차별화된 다양한 축제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남부엑코리조트 등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으로 세계 속의 관광도시 위상 제고
- 문화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용공간 조성, 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을 확충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프로그램 도입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육기회 확대
- 도심내 문화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여가선용과 정서를 순화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문화의 거리, 문화 ZONE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
- 전문 체육문화 환경 조성, 참여하는 시민만족 생활체육환경 인프라 확충, 체육시설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 각종 문화이벤트 행사 유치 및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산업화를 도모

### ■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의 실현

- 주민밀착형 보건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공공, 민간, 주민,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민간자

원 동원과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사랑의 나눔 복지, 실현의 희망 복지를 실천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며 여성이 당당한 사회 형성

- 노인비율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및 소득계층 간 의료혜택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희망 노인복지정책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로 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 구축

### ■ 선진화된 교육도시의 육성

- 초·중등교육 기반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 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선 및 해양관광 부문에 특화된 대학교육을 육성하여 세계 일류의 조선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
- 가치가 중시되는 교육문화 정착,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균등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진정한 교육복지 구현

### ■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농업 발전모델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

- 관광기반형 농어업을 육성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풍요로운 농어촌 구성과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 시장지향적 맞춤형농업구조(친환경농업)로 재편하고 기업과 농촌 간의 유기적 협력을 기초로 기업농 육성을 추진. 생명참살이 산업화를 통해 경작,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운영
-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생산구조 개편. 효율적 자원관리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해양문화, 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통해 관광기반형 친환경 어촌을 육성

### ■ 선진 지식정보도시 스마트 거제

-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능률 및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시책 추진
- 지능형 해양·문화 관광도시를 위한 정보화 서비스 강화 및 스마트 거제 구현을 위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 4. 함안군 : 더 나은 기회의 땅 아라가야

### 1) 기본목표

- 전통역사와 문화의 계승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 화합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 균형과 능동적인 복지공동체 실현

### 2) 추진전략

- 활력·녹색·재생을 통한 살고 싶은 함안
- 광역적 협력을 지향하는 첨단산업 기술 함안
- 주민·지역·환경 친화적인 도로교통 시스템
-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공동체 함안
-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함안
- 역사체험·생태관광의 보고
-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함안
- 정보기술통신(ICT)을 통한 녹색 함안

### 3) 발전방향

#### ■ 활력·녹색·재생을 통한 살고 싶은 함안

- 광역경제권 개발에 따른 지역산업 및 자원과 연계한 산업의 개발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연계성 강화
-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개발 및 녹화전략,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활용한 녹색관광의 성장산업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공간구조의 형성
- 도시재생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경관·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 강화

#### ■ 광역적 협력을 지향하는 첨단산업 기술 함안

-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로 연관 산업 부문 활성화. 관광과 연계한 경관농업으로 농업부문 수익성을 향상하고,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지대 구축.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이용 농업단지 구축 등 농업 경쟁력 향상

- 신산업(부품산업)의 유치와 육성, 지식기술 집약형 성장거점 기반 확충, 개별입지의 리모델링 추진, 산학연 연계 강화혁신클러스터 전개 등 신산업도시 구축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소규모 산업(농공)단지 조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 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마련
- 경선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역세권 특화개발. 차없는 거리, 주차시설 확충, 휴식·녹지공간 조성, 역사·문화적 전통활용 등을 통한 상권재생사업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등 특화된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

#### ■ 주민·지역·환경 친화적인 도로교통 시스템

- 지역내 물류수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순환도로망 구축, 지역 간 소통체계 강화를 위한 도로(터널) 개설
-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한 환승시스템 도입. 지역여건 및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첨단 대중교통 체계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 ■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공동체 함양

- 생활복지에 기초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 생활권 중심의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 어려운 계층 안정생활 보장 지원 및 기능 강화, 장애인 자활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개선,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인복지 확대, 여성권의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유도

#### ■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함안

-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시설 유치. 함안의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함안군민 육성을 위해 교육·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함안군내의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거나 역사·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교육·문화자원 개발. 폐교를 활용한 교육·문화시설 조성, 생태교육자원 활용 등 교육·문화자원 개발
-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각종 문화·교육·체육·여가시설의 확충. 지역 청소년이 원하는 문화적·교육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학교교육 운영강화,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전문교육센터 운영 등 수요자 만족형 교육·문화시설 운영

#### ■ 역사체험·생태관광의 보고

- 친환경 녹색·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 개발.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방안 강구 및 관광자원의 확충,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자원 개발·운영

#### ■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함안

- 자연·문화자원의 친환경적 활용, 생태산업단지 조성, 소각시설 폐열 이용,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등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구축

-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추진 대책 마련, 대기·수질환경관리대책 및 폐기물 재활용, 자원화를 추진하며, 기초환경시설도 확충

#### ■ 정보기술통신(ICT)을 통한 녹색 함안

- 행정정보화를 위한 열린 군정 실현, 업무효율성 강화, 그린 ICT 구현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녹색 정보화 구축
- 풍요로운 디지털 라이프 구현, 그린 IT여가 문화조성, 생활밀착형 지역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역 정보서비스 실현
- 지역산업의 정보 발신력 강화, 산업정보 DB 구축 및 활용, 관·민·학 협동체제 구축, 지역정보화 전략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환경 구축, 군민 정보활용기반 강화, 도시안전예방체계 구축 등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화

## 5. 고성군 : 세계로 열린 신해양 산업관광문화의 거점도시

### 1) 기본목표

- 산업경제도시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농림축수산업 육성
- 청정환경도시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공간구조 개편
- 문화관광도시 : 한려해상권의 신해양관광문화 고품격 가치 창출
- 생활복지도시 : 따뜻한 복지공동체의 실현 및 생활기반의 확충

### 2) 추진전략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역경제로의 도약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의 창출
- 신해양 문화·관광의 도시창출
- 교육·복지사회의 구현과 지역정보화
- 미래 도시공간 및 도로·교통망의 구축

### 3) 발전방향

####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역경제로의 도약

- 1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2차·3차 산업 구조로 전환. 특구조성을 통한 산업유치와 발전원동력 제공. 인구유입과 부대 편의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재정비, 현대적 유통점과 전통 재래시장의 조화 유도
- 생명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 환경친화적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화를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유통업의 다각적인 발전, 국가물류체계와의 원활한 연계 도모
- 고품질 브랜드 쌀생산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푸른들 가꾸기 명품 맥류재배 활성화를 유도
- 고품질 과수·화훼 및 시설채소 생산을 지원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
- 수산물 유통 물류체계 개선, 지정해역 양식단지 조성·지원,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강화, 수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연안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을 개선

###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의 창출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지붕개량사업, 맑은물 안정적 공급으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기초 시설 확충으로 녹색도시 조성
- 자원순환경 폐기물 관리체계의 구축, 대체에너지 사업의 추진으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자연과 하나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시가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확충, 도시녹지의 통합관리를 통한 도시생태계의 복원, 친수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푸르고 깨끗한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
- 산림자원화 조성, 산림병충해 방제, 사방사업, 산림소득원 조성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으로 생명환경 자원화 유도

### ■ 신해양 문화·관광의 도시창출

- 고성읍의 특색있는 문화·역사 체험공간의 확충, 청정바다와 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 메카로 육성, 선사시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룡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관광 고성 볼거리 확충 및 육성
- 해양스포츠, 모험레포츠, 스포츠 등 선택의 폭을 확장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시설 및 체육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통하여 고품격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조성
-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관광레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행장 개발 추진
- 과거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학습공간을 유도하고, 향토문화 전승,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향토문화·예술활동 추진
- 주요 교통시설로부터 관광지로의 순환교통시스템을 확립하고 관광안내 시스템의 표준화·규격화 추진, 지역문화의 진흥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유도

### ■ 교육·복지사회의 구현과 지역정보화

- 차별화된 교육기반 구축, 글로벌 인재 및 다양한 분야의 재능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설·운영,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건설
- 공동주택 신축 및 조선산업 특구 등 인구변동에 따른 보육기반 조성으로 명품 보육시설 확충, 재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된 보육도시 건설
- 군민이 행복한 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인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단위의 문화공간 확충 등을 통하여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여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주민복지 실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가 및 생활편익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지원 사업 추진, 계층별 사업의 지원·추진 등을 통한 복지증진으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 미래 도시공간 및 도로·교통망의 구축

-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난 해소 및 도시의 계획적인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형 주거단지와 자연



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유도

- 군내 원활한 교통원활화 효과와 외부와의 산업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선산업특구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연결도로 기능강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산업·주거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도로·교통망 기반 구축
-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간의 이동성 확보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